



전남체육사 Ⅱ

[1991 ~ 2021]



전라남도체육회



전남체육사 Ⅱ

[1991-2021]



The 89th NATIONAL SPORTS FESTIVAL

The 89th NATIONAL SPORTS FESTIVAL

가자 남도로, 뛰자 세계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

2012 여수세계박람회
EXPO 2012
YEosu KOREA

전라남도



과학기술부
MEST

K telecom















- ① 1995년 제76회 전국체전 출전 전남선수단을 격려하는 허경만 도지사
- ② 2003년 제84회 전국체전 해단식 참석 박태영 도지사
- ③ 2008년 전남에서 개최된 제89회 전국체전 개회식 환영사를 하고 있는 박준영 도지사
- ④ 2016년 리우올림픽 출전선수를 격려하는 이낙연 도지사
- ⑤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전남선수단을 현지에서 격려하는 김영록 도지사
- ⑥ 2020년 제32회 도쿄올림픽 한국선수단 지원단장으로 참가한 김재무 회장



①



②



③



④



⑤



⑥

- ① 2018년 제15회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우승 무안군청 검도팀
- ② 제60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전남 우승
- ③ 함평골프고 스타선수들의 기증품 전달 (왼쪽 첫 번째 전인지, 세 번째 신지애)
- ④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근대5종 3관왕 (오른쪽 첫 번째 광양출신 김미석 선수)
- ⑤ 여수화양고 농구팀 창단식(2013.3.29.)
- ⑥ 당구천재 김행직 선수 (한국당구역사상 최초로 2007년 세계주니어선수권 우승)



⑦



⑧



⑨



⑩



⑪



- ⑦ 제100회 전국체전 댄스스포츠 종합우승
- ⑧ 2017년 전국춘계 럭비리그전 우승 한전럭비팀
- ⑨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 우승 전남선수단
- ⑩ 2005년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대회
한국시니어남자 사상 첫금메달 획득 여수시청 권다솔(오른쪽)
- ⑪ 102회 전국체전 바둑결승전 우승 배찬건(왼쪽)
- ⑫ 전남으로 귀화한 국가대표 예카테리나, 안나, 스타로두베즈, 랍신



- ① 1996년 제77회 전국체전 배구 여고부 우승 목포여상 배구팀
- ② 2019년 전국실업배드민턴선수권대회 우승 화순군청 배드민턴팀
- ③ 2009년 제90회 전국체전 볼링남자부 5관왕 광양시청 볼링팀
- ④ 1994 세계주니어대회 1위, 2009 세계월드게임1위 보성출신 이진호 선수
- ⑤ 2020 도쿄올림픽 복싱 국가대표 화순출신 임애지 선수
- ⑥ 전국체전 출전대비 강화훈련중인 담양고 사격선수들



- ⑦ 장애인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 고흥출신 김홍빈 대장(1964~2021)
- ⑧ 1978년 제42회 서울세계사격선수권대회 공기소총 단체3위
신안출신 윤덕하선수(왼쪽 두번째)
- ⑨ 2018년 제19회 전국남여중별세팍타크로대회 대학부 우승 동신대팀
- ⑩ 전국최강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
- ⑪ 전국최강 전남제일고 수구팀
- ⑫ 회장배스쿼시대회 우승 전남도청 양연수 선수



①



②



③



④



⑤



⑥

- ① 제101회 전국동계체전 전남스노보드 선수단과 전남체육회 집행부 임원
- ② 1986년 제10회 서울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강진출신 마재웅선수(1963~2014)
- ③ 제14회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 우승 여수공고 씨름팀
- ④ 야구 순천효천고팀
- ⑤ 소프트볼 순천강남여고팀
- ⑥ 2017.12.9. 창단 순천시청 유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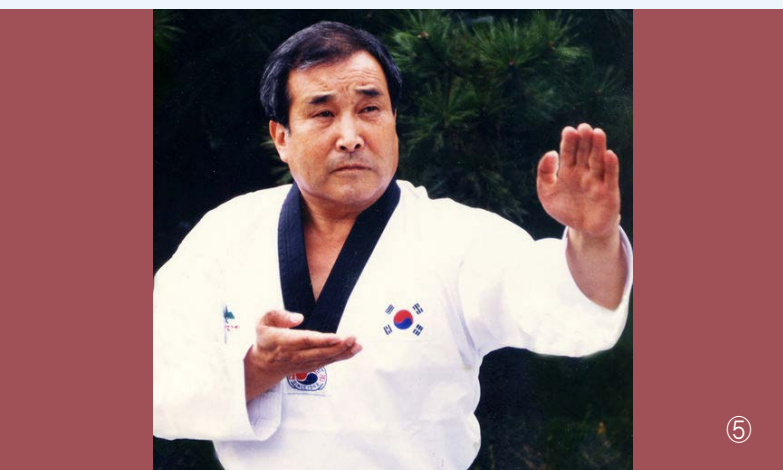
- ⑦ 2001년 제82회 전국체전 육상입상선수시상
(강방원회장, 허경만도지사, 허길남상임부회장)
- ⑧ 1993년 보스턴마라톤대회 준우승 고흥출신 김재룡 선수
- ⑨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멀리뛰기 금메달 진도출신 정순옥 선수
- ⑩ 양궁 국가대표 최미선(왼쪽), 이은경(오른쪽) 순천시청팀
- ⑪ 제99회 전국체전 역도3관왕 고흥출신 신비, 신록 형제
- ⑫ 전국체전요트 종합우승 전남선수단 (왼쪽3번째 박길철 선수)



- ① 2019. 1. 16 창단 전남도청 우수팀
- ② 제89회 전국체전 자전거 여자부 최우수선수 나주시청 소속 나아름(왼쪽 첫번째)
- ③ 2019 제45회 장보고기 전국조정대회 입상 장성문향고 선수들
- ④ 체조국가대표로 올림픽 아시안게임 출전 입상한 영광중앙초 출신
김대은(왼쪽) 김승일(오른쪽)
- ⑤ 전국체전등 전국대회 다수입상 광양제철고 축구팀
- ⑥ 2019년 제5회 박마강배 전국카누경기대회 입상 전남도청 카누팀



- ⑦ 전국체전 컬링경기 목포여상고팀
- ⑧ 2018년 한중일 주니어종합경기대회 참가 각국 탁구선수단 (여수돌산체육관)
- ⑨ 제97회 전국체전 3연패
(오른쪽부터 류종수코치, 임정섭, 이익현, 임금별, 정태민, 배윤민, 이지명, 최예진, 정병택)
- ⑩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흥출신 차동민 선수 (왼쪽2번째)
- ⑪ 전국펜싱대회 에페 우승 전남도청 펜싱팀
- ⑫ 2017년 제98회 전국체전 핀수영 우승 전남도청소속 양현수 선수 (가운데)



- ①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우승 목포시청 하키팀
- ② 전국대회 입상 백제고 핸드볼팀
- ③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참가 영광군청 테니스팀
- ④ 조영기 상임부회장과 제6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대표선발 선수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⑤ 2018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수상 조영기 국기원기술교문
- ⑥ 2010년 제91회 전국체전 우승 광양제철고팀



- ⑦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전남낚시협회의 치어방류행사
- ⑧ 2009년 제1회 문체부장관기 등산대회가 산악인 2천여명이 참가한가운데 완도상황봉에서 개최
- ⑨ 201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전남 국학기공 동호인 선수단
- ⑩ 제1회 전남협회장배 생활체육 요가대회 전경
- ⑪ 실버스포츠인 그라운드골프 보급을 위한 대회가 신설
- ⑫ 제7회 전라남도지사기 족구대회 전경



- ①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전남줄넘기 동호인 경기장면
- ②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줄다리기 선수단 경기장면
- ③ 중국단동시와 게이트볼 교류대회 모습
- ④ 도지사배 전국태권경대회 경기장면
- ⑤ 합기도대회 경기장면
- ⑥ 특공무술대회 경기장면



⑦



⑧



⑨



⑩



⑪



⑫

⑦ 전국파크골프대회 경기장면

⑧ 전라남도지사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전경

⑨ 청소년체육활동지원사업 피구교실 운영

⑩ 전남e스포츠대표팀 제10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종합3위 입상

⑪ 전남협회장배 전국밸리댄스 경연대회 전경

⑫



전남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전라남도탁구협회



전라남도정구연맹



전라남도육상경기연맹



전라남도수영연맹



전라남도축구협회



전라남도야구협회



전라남도골프협회



전라남도배드민턴협회



전라남도사이클연맹



전라남도궁도협회



전라남도배구협회

사단법인
전라남도농구협회
JEONNAM BASKETBALL ASSOCIATION

전라남도승마협회



전라남도태권도협회

전라남도양궁협회
JEONNAM ARCHERY ASSOCIATION전라남도철인3종경기연맹
TRIATHLON JEON NAM

전라남도핸드볼협회



전라남도수중협회



전라남도레슬링협회



전라남도아마투어복싱연맹



전라남도체조협회



전라남도요트협회



전라남도사격연맹



전라남도역도연맹



전라남도씨름협회



전라남도유도회



전라남도불링협회



전라남도근대5종연맹



전라남도인라인롤러연맹



전라남도조정협회



전라남도력비협회



전라남도하키협회



전라남도우슈협회



전남보디빌딩협회

전라남도스쿼시연맹



JEON NAM SQUASH FEDERATION


전라남도테니스협회
JEON NAM TENNIS ASSOCIATION


전라남도세팍타크로협회



전라남도소프트볼협회



전라남도펜싱협회



전라남도검도회



전라남도카누연맹



전남당구연맹







체육인 현장
발간사
축사
편찬사
전라남도체육회 기구표
전라남도체육회 집행부 임원
전라남도체육회 역대 임원
전라남도 시·군체육회장
전라남도 회원종목단체회장

사진으로 보는 광주·전남 분리이후 전남체육

제1편 개 관

- 제1장 총 론
- 제2장 광주·전남 분리 이전 전남체육 역사
- 제3장 광주시와 분리 이후 전남체육
- 제4장 체육단체 통합 및 민선체육회·사단법인 출범

제2편 광주·전남분리 이후 전남체육의 발전

- 제1장 광주·전남분리이후 전남체육의 발전과 성과
 - 1. 전남체육회 운영 현황(1989년 이후 ~ 통합이전)
 - 2. 통합 이후 전남체육회 운영 현황(2016년 이후 ~ 2021)
 - 3. 주요활동
- 제2장 전남생활체육의 창립과 성장
 - 1. 전남생활체육회의 출범과 성장
 - 2. 전남생활체육회 운영 현황(1990년 이후 ~ 통합이전)
 - 3. 전남생활체육회 주요 사업

제3장 회원종목단체의 활동

1. 개 론
2. 종목단체별 연혁, 역대임원

제4장 시·군체육회의 활동

1. 개 론
2. 시·군체육회별 조직과 활동

제5장 학교체육 정책의 변화 및 활동

1. 학교체육정책의 변화
2. 체육지도자 육성
3. 전문체육팀 창단 및 육성
4. 교육감배 대회 운영 및 성과
5. 학생체전 운영

제6장 체육시설 현황

1. 시설의 개요
2. 분야별 체육시설 세부 현황
3.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4. 전남체육회관 건립

제7장 전국체육대회

1. 전국체육대회 참가
2. 전국체육대회 우리도 개최
 -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제8장 전국소년체육대회

1. 전국소년체육대회 연혁 및 전남의 참가
2. 역대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제9장 전국동계체육대회

1. 전국동계체육대회 연혁 및 전남의 참가
2.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제77회 ~ 제101회)
3. 광주·전남 분리이후 전남의 역대 동계체전 성적

제10장 전라남도체육대회

1. 개론
2.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
3. 광주·전남 분리이후 역대 도민체육대회 개최 현황

제11장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1. 역대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현황
2. 연도별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1990~2020)

제12장 국제체육대회

1. 올림픽
2. 동계올림픽
3. 아시안게임

제3편 대한민국을 빛낸 전남체육인

제4편 원로들이 말하는 전남체육

1. 회고담
2. 원로방담

제5편 전남체육의 비전

1. 체육환경변화와 전남체육
2. 전남체육의 미래상

부록

- 전라남도체육회 법인 표준정관
- 전남체육 연표



체육인 헌장

발간사

축사

편찬사

전라남도체육회 기구표

전라남도체육회 집행부 임원

전라남도체육회 역대 임원

전라남도 시·군체육회장

전라남도 회원종목단체회장

체육인 헌장



체육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활동으로 삶의 근본이 된다.

이에 체육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도전과 용기, 끈기와 열정으로 모든 이들의 모범이 된다.

체육인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서 건강한 스포츠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하나. 선수와 동호인은 스포츠를 즐기며 심판의 판정을 신뢰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승패에 구애받지 않고 정정당당히 겨룬다.
- 하나. 지도자는 스포츠 정신과 인권을 존중하고 도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지도에 힘쓴다.
- 하나. 심판은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경기를 진행한다.
- 하나. 관리운영자는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도록 책무를 다한다.
- 하나. 관중은 선수의 경기력과 불굴의 도전 정신에 갈채와 성원을 보낸다.

발 간 사



전남체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21년, 한국 체육 100년과 더불어 전남체육은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남체육은 지난 76년간 전남 체육인을 위한 체육인재 육성 성과, 전남도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학교 체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전남 체육을 비롯한 한국체육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역사는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말처럼 역사는 사실에 대한 기록이지만, 현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후손들에게 전남체육의 발자취를 남겨주고 앞으로 보존하고 발전해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된 전남체육사는 제1편 개관부터, 제5편 전남체육의 비전까지 지난날 전남체육의 생생한 장면과 기록을 담았습니다.

전남체육사를 통해 지난 역사의 경험 속에서 미래 전남체육을 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서정복 편찬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찬위원, 집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6년간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전남체육인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전남체육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12.

전라남도체육회장 김 재 무

축 사



친애하는 전라남도 체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사의 성장을 함께해온 전남체육의 지난 30여 년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스포츠강국을 넘어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견인하는 전문체육에서부터 국민의 일상 속에서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에 기여하는 생활체육까지 폭 넓게 발전하며 전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가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에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스포츠를 널리 알리기 위해 헌신해온 체육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풀뿌리 지방체육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전라남도체육회의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라남도체육회는 1945년 해방 이후 창립되어 지난 76년간 도민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성장해 왔습니다. 국제대회 및 국내·도내종합대회 등에서 활약하여 전남체육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체육운동을 범도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며 꾸준히 발전하고 있어 전남체육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전남체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전라남도체육사」의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임직원 및 편찬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번 전라남도체육사가 전남체육의 미래를 밝힐 등불이 되기를 고대하며, 전라남도체육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대한체육회장 이 기 흥



전라남도 체육 76년의 영광스러운 발자취를 담은 ‘전남체육사’ 발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45년 창립된 전라남도체육회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선수 양성을 통해 전남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전남체육사’에는 전라남도체육회 창립 이후 현재까지 전남 체육이 걸어온 길이 꼼꼼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태동부터 전문체육과 통합 등 우리 체육의 역사적인 순간들은 물론, 체육인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록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체육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이를 후대에 전하는 데 매우 소중한 자료집입니다.

자료를 모으고 가다듬어 귀중한 책으로 엮어주신 전라남도체육회 김재무 회장님과 서정복 위원장님, 김천옥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건강해야 전남이 행복해집니다. 전라남도는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육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인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경기력을 높일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체육인들과 힘을 모아 도민 모두가 건강한 ‘더 새롭고, 더 행복한 으뜸 전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남도체육회 또한 도민들께 큰 힘이 되는 든든한 벚으로 변함없이 자리해주길 바라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데 ‘전남체육사’가 올바른 이정표가 되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전남체육사’ 발간을 거듭 축하드리며, 전라남도체육회의 무궁한 발전과 전남체육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

축 사



존경하는 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한중입니다.

최근 30여년간 전남체육인이 일궈낸 기록과 업적을 한데 모아 전남체육의 발자취와 성과를 재조명하는 전남체육사를 편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전남체육사를 정성껏 집필하신 전남체육사 편찬위원회 서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남체육회는 그동안 체육진흥과 체육인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도민에게는 체육을 통해 일상에 꿈과 희망이 채워지도록 노력해왔고 선수들에게는 체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에 편찬된 전남체육사가 체육인들의 땀과 눈물, 영광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모든 체육인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전남체육발전에 훌륭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전남체육사 편찬을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전라남도의회 의장 김 한 중



전남 스포츠문화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전남체육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남체육사’ 발간을 모든 전남교육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축하합니다.

일제강점기, 혼란과 아픔의 시대에 조선체육회와 함께 태동한 한국 스포츠는 짧은 역사에도 국가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등 세계 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서 위대한 성과를 올리며 우리나라를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시켰습니다.

전남체육도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1945년 9월 창립한 전남체육회는 76년 동안 세계적인 선수와 역량 있는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남 학교체육의 역할은 무엇보다 컸습니다. 수많은 우수선수를 배출하여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체육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소수의 엘리트 중심 체육에서 모두가 즐기는 생활 속 스포츠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은 스포츠클럽 중심 학교체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본령인 공정과 정의, 상호존중이 살아 숨 쉬도록 전남의 모든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 체육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인류의 문화가 기록을 통해 후손들에게 가치 있는 문명으로 전수되듯 ‘전남체육사’도 스포츠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전남체육이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의 동반성장을 이루고, 나아가 모든 도민이 즐기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스포츠로 발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전남체육사 발간을 축하하며, 수고해주신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님, 서정복 집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 12.

전라남도교육감 장 석 응

편 찬 사



질곡의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함께 한 전남체육의 여정을 춘추필법(春秋筆法)의 준엄함과 비장한 사명감을 담아 「전남체육 76년사」라는 이름의 기록을 세상에 내 놓는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던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의 가르침처럼 전남체육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선배님들의 피와 땀, 눈물과 환희, 승리와 아픔까지 다사다난한 발자취를 따라 한 시대의 명암(明暗)을 기록하고자 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듯이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역사는 분명 밀접하게 서로 연관돼 있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전남체육회는 지난 75년 동안의 전남체육의 흔적들을 되짚어 전남체육의 부흥과 새로운 미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전남체육 76년사」를 완성하게 됐다.

전남체육회는 2020년 12월 22일 전남체육사편찬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개화기 이후 1989년 광주·전남 분리 이전까지를 정리한 「전남체육사 I 권」에 이어 1990년 이후 30여년을 더한 「전남체육사 II」 편찬사업을 시작했다. 먼저 가득한 오래된 신문스크랩과 모아진 사진들을 정리하고, 문헌과 자료들을 찾고, 원로 선배님들의 구술(口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자료를 열람하고 채록하며 전남체육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 합쳐져 마침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 나왔다.

이번 전남체육사 편찬을 위해 전남체육회는 가장 먼저 54명의 편찬자문단을 꾸렸다. 전남체육 발전에 기여해 오신 원로 체육인을 비롯, 전남도교육청 체육담당 등 36명의 고문과 18명의 자문위원 등 5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촉 운영하였다. 전남체육사 편찬을 위해 구성된 12명의 편찬위원회에 전남체육회 사무처 직원 6명이 더해지고 언론계 출신 7명의 집필위원들이 가세해 TF가 운영됐다.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활동에 힘입어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수집됐고, 엄격한 고증을 거쳐 1990년 이후 전남체육 30여년의 역사와 기록을 짜임새 있게 정리할 수 있었다.

「전남체육사Ⅱ」는 제1편 개관, 제2편 전남체육회 76년, 제3편 대한민국을 빛낸 전남 체육인들, 제4편 전남체육원로들의 회고, 제5편 전남체육의 비전 등 총 5편과 부록으로 편성되었으며, 1990년부터 2021년까지 30여년의 역사를 연도별로 정리했다.

76년이 흐르는 동안 전남체육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분야에서 양적·질적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어려운 환경임에도 전남체육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신 전남체육계 선·후배님들의 땀의 결실임을 알기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이 자료집을 통해 1990년 이후 전남체육에 대한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수록된 각종 기록과 역사적 사실들은 앞으로 전남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적 자료는 물론 관련 분야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76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록으로 활용되길 소망한다.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님의 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전남체육회 김재무 회장님의 강한 신뢰와 추진력이 역사적 소명을 갖고 편찬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 동안 편찬·집필 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필 위원님, 체육계 원로님, 전·현직 전남체육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체육계 선·후배님들과 의미가 큰 사업이라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광양기업 황재우 사장님께도 감사함을 전한다.

2021. 12.

전남체육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서 정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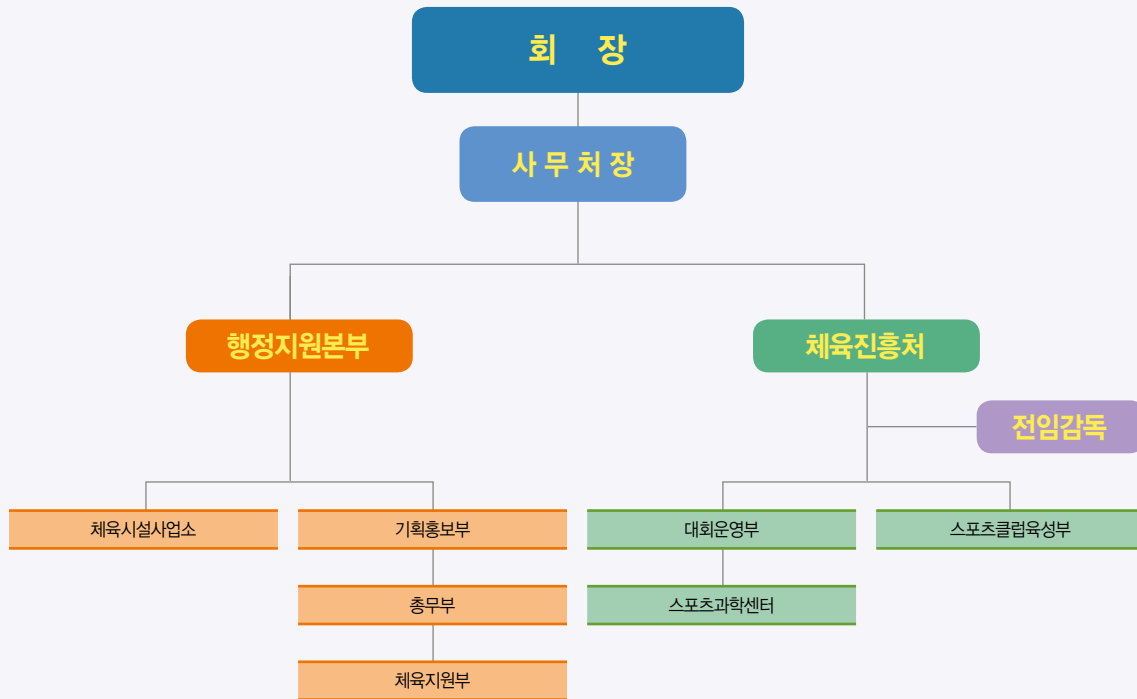
전라남도체육회 조직

(2021. 12월 현재)

40

전라남도체육회





정·현원

(2021. 12월 현재)

구분	합계	별정직	일반직					공무직
		2~3급	4급	5급	6급	7~9급		
정원	40	1	2	5	6	14	12	
현원	38	2	1	5	5	14	11	
증 감	▲2	1	▲1	-	1	-	▲1	

* 2021년 10월 28일자 사무처조직개편에 따른 별정직(2~3급) 현원 1명 초과인원에 대하여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정원외(계약직) 제외 (스포츠과학센터 4명) ⇒ 연구직(3명) 센터장 1, 연구원 2 / 행정직 (1명)

전라남도체육회 집행부 임원

(2021. 8. 8 기준)

[회장]



김재무

[부회장] : 8명



최기동



성해석



공후식



윤성훈



전이양



고성수



윤보선



이상대

[이 사] : 56명 (관광문화체육국장 미등기 포함)



안병옥



조정만



김영신



위경중



최종술



강형구



고비호



김계호



김도영



김민주



김병옥



김병차



김석원



김선희



김승식



김양환



김영래



김용기



김의동



김종문



김태근



김행순



박경래



박영미



박현숙



서순규



서영수



서철훈



손홍식



송길용



심재근



안종남



양동일



오기근



오명호



윤영철



윤인호



이경훈



이대호



이동창



이영현



이우홍



이제성



임현호



임형기



장만우



장명영



전조일



정문호



정성인



정종택



최공집



최병희



최영열



한창호



한태선

[감 사] : 2명

박종남



양정훈

전라남도체육회 역대 임원

전라남도체육회(전문) 역대 회장



24대 송언중



25대 최인기



26대 백형조



27대 이효계



28대 이균범



29대 구용상



30대 조규하



31~32대 허경만



33대 박태영



34~36대 박준영



37대 이낙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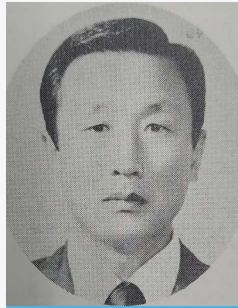


38대 김영록

전라남도체육회(전문) 역대 상임부회장



정원강



이재인



안주섭



허길남



박재순



박병열



김철신



김홍식



박철수

전라남도체육회(전문) 역대 사무처장



이재인



임완



김민수



김종권



정건철



주동식



서정복



전승현



박내영



김상민



정건배



조정만



안병옥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역대 회장



이윤채



이봉길



김정현



박병열



김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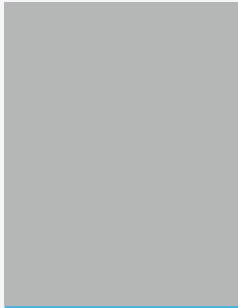


이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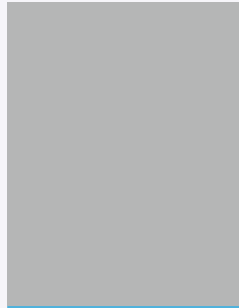


허정인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역대 사무처장



박종옥



서경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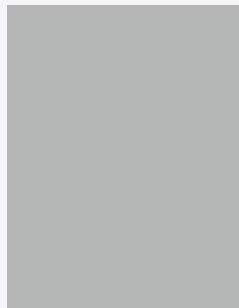
하어룡



정규석



허희만



한상울



정태호



정건배



김봉순



전라남도 시 · 군체육회장

52

전라남도체육사

성명	성명	핸드폰
목포	송진호	
여수	명경식	
순천	이상대	
나주	김하진	
광양	정시화	
담양	정영창	
곡성	김용규	
구례	문정현	
고흥	안정민	
보성	이광수	

성명	성명	핸드폰
화순	최규범	
장흥	윤영환	
강진	노치경	
해남	조성실	
영암	이봉영	
무안	박인배	
함평	박종이	
영광	조광섭	
장성	고상훈	
완도	유병욱	

성명	성명	핸드폰
진도	안창주	
신안	김재원	

전라남도 회원종목단체회장

	종목	사진	성명(생년월일)
1	검도회		장동우
2	골프협회		이 석
3	게이트볼협회		김영선
4	국학기공협회		정태민
5	궁도협회		박형수
6	그라운드골프협회		박노회
7	근대5종연맹		전희섭
8	낙시협회		이재평
9	농구협회		강형구
10	당구연맹		조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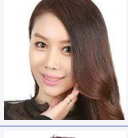
	종목	사진	성명(생년월일)
11	댄스스포츠연맹		김재웅
12	럭비협회		서현권
13	레슬링협회		김화영
14	롤러스포츠협회		김호두
15	바둑협회		이만구
16	바이애슬론경기연맹		공석
17	배구협회		조재만
18	배드민턴협회		박계옥
19	복싱협회		유성수
20	볼링협회		박종남



	종목	사진	성명(생년월일)
21	빙상연맹		김정환
22	사격연맹		심재현
23	산악협회		윤성명
24	세팍타크로협회		최종규
25	소프트테니스 협회		사상순
26	수상스키 웨이크보드협회		홍성권
27	수영연맹		황의준
28	수중핀수영협회		김석구
29	스키협회		윤보선
30	스쿼시연맹		최창원

	종목	사진	성명(생년월일)
31	승마협회		박화조
32	씨름협회		손재근
33	야구협회		김환곤
34	양궁협회		박명국
35	역도연맹		장명철
36	요트협회		강병석
37	우슈연맹		윤병용
38	유도회		임종안
39	육상연맹		김용주
40	자전거연맹		정 동

	종목	사진	성명(생년월일)
41	조정협회		한청우
42	족구협회		장유신
43	줄다리기협회		김재익
44	철인3종협회		조영득
45	체조협회		박용준
46	축구협회		신정식
47	카누연맹		김병천
48	컬링연맹		이중구
49	탁구협회		박용수
50	택견회		백윤식

	종목	사진	성명(생년월일)
51	테니스협회		유인숙
52	파크골프협회		김정기
53	패러글라이딩 협회		진영후
54	펜싱협회		윤영철
55	합기도중앙협회		이정현
56	하키협회		변춘섭
57	핸드볼협회		김용진
58	카라테		모진성
59	발리댄스연맹		김애진
60	요가회		한승찬



	종목	사진	성명(생년월일)
61	줄넘기협회		홍정숙
62	카바디협회		전호문
63	특공무술중앙회		허주철
64	피구연맹		하종운
65	봅슬레이		안성수
66	e스포츠		안영헌

	종목	사진	성명(생년월일)
67	에어로빅 힙합		양만열
68	킥복싱		장여환
69	테크볼		서임종
70	보디빌딩		관리단체
71	태권도		미통합

I — 개관

제1장 총 론

제2장 광주·전남 분리 이전 전남체육 역사

제3장 광주시와 분리 이후 전남체육

제4장 체육단체 통합 및 민선체육회·사단법인 출범

“

전라남도 체육은 1900년대 초 외국인 교사와 선교사들에 의해 야구 등 서양 체육종목들이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100년이 넘는 근대체육사를 자랑한다. 하지만 『전남체육사1』에 이어 이번에 발간하는 『전남체육사2』는 1986년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이후 전라남도체육 만을 다루기로 한다. 이미 『전남체육사1』에서 시도분리 이전의 기록을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다만, 개관 부분에서는 전라남도체육의 전 면모를 살필 수 있도록 시도분리 이전 체육현황을 간략해서 소개하기로 했음을 미리 밝힌다.

”

제1장 전라남도체육사 총론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도입된 전남의 근대체육

전라남도에서 근대 체육이 도입된 것은 1907년 광주시 양림동에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가 설립된 이후부터이다. 두 학교의 외국인 교사와 선교사들에 의해 야구, 축구, 정구 등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1913년 송일학교에 야구부가 창단됐으며 1917년부터 일본 도쿄 유학생 야구단이 매년 모국을 방문해 광주를 비롯 전국 주요도시에서 시범경기를 가짐으로써 야구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졌다.

1920년에는 일본과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정상호가 양림구락부를 만들어 제1회 광주소년야구대회를 가짐으로써 봄을 일으켰다. 야구 봄은 급속도로 일어나 나주·담양에도 보급됐고, 광주시내에는 각 학교·동·직장 팀 등 10여 개 팀이 생겨 친선대회를 자주 가졌다.

양림구락부 축구팀도 그 무렵 창설됐는데 주축은 거의가 야구선수들이었다.

1924년에는 감자축구단이 창단돼 순천·담양·영광과 전라북도 고창·군산 등에 원정 경기를 가는 등 크게 붐이 일어났다.

직장 야구팀 주축은 대부분 일본인들인데 반해 축구팀은 선수 모두가 한국 청년들이었다. 그리하여 체육을 통해 민족의 단결을 도모했고 암울했던 일제치하의 울분을 씻었다.

야구, 축구, 정구 종목 외에 복싱, 유도, 체조 등이 광주YMCA 체육사업에 의해 청소년들에게 보급됐다. 특히 복싱은 민족의 울분을 씻는데 크게 도움이 돼 인기가 높았다.

이와 같이 일제 치하에서의 체육활동은 YMCA, 종교계학교, 도교유학생회가 중심이 돼 민족의 단결과 독립정신을 은연중에 고취시켰으나 일제의 갖은 탄압으로 방해를 받았고, 1938년에는 숭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등 종교계학교는 모조리 폐쇄됐고 조선체육회도 해산의 운명을 맞았다.



해방으로 전남체육도 재건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전라남도체육은 활발한 재건운동을 펼쳤다. 야구, 축구, 정구, 복싱, 육상 종목 체육인들이 두 갈래, 세 갈래 모임을 갖고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

그러다 마침내 전라남도체육회를 결성하고 각종 체육 활동을 시작했다. 1948년 8월 제1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정부수립을 경축하고 전국체육대회 예선을 겸했다. 이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11개 종목에 걸친 종합경기대회였다.

다음해인 1949년 10월 15일 대한체육회 창립 30주년 기념 체육대회에서 그 동안의 체육유공자 144명과 11개 단체에 대한 표창이 있었는데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주봉식, 박복실, 남승룡, 서상국 등이 공로장과 감사장을 받았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으로 단절된 전국체육대회는 다음해인 1951년 가을 광주에서 개최됐는데 이 대회에서 전라남도는 개최지답게 종합 1위를 차지해 전라남도체육진흥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전쟁 후 비약한 전남체육

전라남도체육은 9·28 수복 후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54년 4월에는 광주공설운동장 기공식을 가졌으며 1955년 12월 1차로 육상경기장을 완공했다. 무등 경기장은 이후 여러 차례의 확장공사와 보완공사를 거치며 광주와 전남체육의 산실로 기능했다.

역대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첫 민선체육회장인 제37대 회장 이전까지는 1·2대와 8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지사가 겸임했다. 그런데 도지사에 따라서는 체육진흥에 깊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도지사가 있는가 하면 “체육은 체육인이 해야 한다”면서 외면하는 도지사가 있어서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순위도 이에 정비례했다.

체육회 예산 관계를 살펴보면 일제시대부터 5·16 이전까지는 거의가 민간인 독지가들이 각출한 성금에 의해 운영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체육회 이사들은 매년 성금모금에 심혈을 기울였다.

5·16 이후 전라남도체육회장에 취임한 도지사는 체육에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각 시·군 예산에 체육회비를 계상해 도체육회는 이를 받았으나 그 역시 부족해 예전과 같이 도내는 물론 재정 전남 경제인들에게까지 체육성금을 모금해 운영했다.

1961년부터는 체육행사가 급격히 많아졌다. 전라남도체육대회 이외에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시·군대항 종합체육대회를 열었으며, 전남·북친선체육대회를 광주와 전주에서 개최했다.

또한 1960년대 접어들어서는 전라남도학도종합체육대회도 매년 개최됐다. 이때부터 ‘1교 1운동’이 시작됐고 학교체육이 활발해지면서 전국체육대회 참가 인원이



많아지자 1972년부터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전국체육대회에서 분리해 ‘전국소년체
육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특히 전라남도체육은 학교체육이 중심이 돼 기초를 이룬데서 크게 발전했다. 살레시오고 · 조선대부속여고 · 문태고 육상, 광주일고 · 광주상고 · 진흥고 야구, 숭일고 · 수피아여고 농구, 대동고 · 조대부고 · 광주여상 · 송원여상 · 광주중앙여고 · 조선대부속여고 배구, 광주일고 · 광주여고 하키, 순천고 · 광주여고 양궁, 조선대부속고 · 조선대부속여고 · 백제여상고 핸드볼, 전남체육고 복싱 · 레슬링 등 여러 종목, 함평농고 · 보성농고 레슬링, 동신고 · 나주여상 정구, 숭의고 · 금호고 · 광주공고 축구, 장성농고 · 장성여고 조정, 살레시오고 · 실레시오여고 테니스, 순천고 배드민턴, 전남여고 펜싱, 목포고 유도, 서석고 검도, 광주농고 씨름, 여수수산전문대 수영, 그리고 조선대와 전남대의 여러 종목은 전라남도체육을 전국 상위그룹으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체육은 한 때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전국 4강을 형성했던 스포츠 옹호 가운데 한 곳이었다.

광주전남 시도분리와 전남체육 하락

하지만 1986년 전라남도의 구심인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돼 분리되면서 전라남도체육의 위상도 급격히 하락하게 됐다. 우선 전라남도체육회의 집행부 임원 개편, 가맹경기단체의 분리 조직, 각종 기금과 시설 및 재산의 분할, 사무국과 선수 및 팀의 귀속 등으로 인한 체계적인 변화도 변화거니와 그보다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전라남도체육의 전력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또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 일반 국민들의 체육활동 참여 열기가 고조되고 국민건강 및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1989년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별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체육시설 관리운영 등 주민 체육업무를 전담할 행정부서로서 생활체육과를 확대·설치했다. 이어 민간체육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지역사회 주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책을 주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1990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 등 전국 시·도지부가 창립됐다.

또한 체육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을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했다. 종래까지 경기시설 위주로 투자하던 것을 가급적 다양하고 1시·도 1운동장 1체육관을 목표로 한 시·군 체육시설 확충계획과 병행해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단계별 확충계획을 세웠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렸다. 체육에서도 이러한 지방화가 시작됐다. 정부는 국민 전체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공급해야 한다



는 목표 아래 지방체육 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행정의 연장선에서 또한 정치적 지지의 고리로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실행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방화시대의 체육은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확립시키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은 물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 체육은 지역 간의 발전 정도가 고르지 못하며 자율적으로 특성화된 체육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1997년 말에 닥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구조조정은 체육계에도 몰아쳤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IMF 사태에 직면한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운동 팀 정리를 통해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많은 예산이 드는 단체종목 중심으로 팀 해체가 이어졌고 육상, 사이클, 역도 등 기초 종목 팀들도 희생됐다. 대한체육회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1998년 한 해에만 27개 종목 89개 팀이 없어졌다. 전라남도를 연고로 했던 실업·직장 팀들도 줄줄이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선수와 지도자 등 관계자들이 IMF 사태에 따른 팀 해체로 터전을 잃고 ‘스포츠 실업자’로 전락했다. 체육계 등 사회적 노력으로 새로운 팀으로 옮기거나 신생팀으로 재탄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선수와 지도자들이 이 기간 동안 삶의 터전을 잃었다.

31년만의 전국체전 개최

2000년대 들어 전라남도체육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0년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전남체육중학교 개교에 이어 2003년 전남체육고등학교가 설립됐다. 그동안 전남체육중학교는 20차례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25개, 은메달 106개, 동메달 113개 등 총 344개의 메달을 획득해 학교체육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전남체육고등학교는 17차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여서 금메달 130개, 은메달 115개, 동메달 148개 등 모두 393개의 메달을 따내 전라남도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2004년에는 광주직할시 분리 이후 처음으로 제89회 전국체육대회(2008년) 유치를 신청해 이듬해인 2005년 개최지로 확정됐다. 전라남도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한 것은 31년만으로 침체된 전라남도체육을 예전처럼 발전시키고, 체육발전 기반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였다.

2006년부터는 200만 전라남도민의 체육 한마당 큰잔치인 ‘전라남도민체육대회’를 목포·여수·순천·나주시와 해남군 등 5개 시·군이 윤번제 형식으로 개최해 오던 개최지역을 군 단위 개최 확대를 통해 스포츠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또 도내 최대 규모의 체육행사에 걸맞은 위상 정립과 더불어 전 도민 참여율 제고의 일환으로 대회 명칭을 ‘전라남도민체육대회’에서 제50회 대회부터 ‘전라남도체육대회’로 변경했다.

장애인체육회도 탄생

2007년에는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가 창립됐으며, 전남·광주 분리 이후에도 계속 광주시에 있는 ‘전라남도체육회관’에서 업무를 보던 전라남도체육회가 목포시 하당지구 소재의 새로운 건물로 이전해 25년간의 ‘전라남도체육회관’ 시대를 마감하고 ‘제2의 웅비’를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31년만의 전국체육대회 개최인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로 낙후된 체육시설 및 체육 인프라 구축 계기 마련과 함께 전국규모대회 개최능력을 확보했다. 이후 전국 동·하계 전지훈련 팀 및 전국 규모대회를 대거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전라남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10년부터는 천혜의 자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국제요트대회’와 ‘국제파워보트대회’ 등 국제적인 해양레저스포츠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년 간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소재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에서 ‘메가 스포츠 이벤트’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6만 여명의 관람객이 찾았으며, 4년 간 경제 파급효과는 총 2조2천 620억 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 대회는 계속 열리지 못하고 중단됐다.

전라남도체육회관 목포에

2013년에는 전라남도체육회가 목포시 하당지구에서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에 신축한 전라남도체육회관으로 이전했다. 전라남도 체육행정의 총본산인 전라남도체육회관에는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 가맹 경기단체 사무실과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전남스포츠전시관, 배드민턴·농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섰다. 이에 따라 체육행정 능력 향상은 물론 정보 교환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국민체육진흥법개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 선진국 형 체육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앙 및 시·도 체육단체 통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 2016년 통합 전라남도체육회를 창립, 우수 선수 발굴에서 지도자 양성까지 선수화 구조의 토대를 마련했다.



체육회장 민선시대

2018년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전라남도체육회와 22개 시·군체육회도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각각 실시해 당선인들이 2020년 취임식을 가졌다. 또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임의단체로 운영돼 왔던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가 2021년 법률에서 정한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전라남도체육회 및 시·군체육회가 법적 지위를 갖는 ‘특수법인’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받고 예산, 조직 지위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열며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야심차게 출발했던 전라남도체육회는 코로나19 사태라는 대형 악재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체육회는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운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체육회가 있어 도민이 행복하다’라는 비전 구현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위해 ▲전남체육 경쟁력 강화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체육 행정 지원·선진화 추진 ▲스포츠 복지 향상 등을 4대 중점 과제로 선정, 시·도민 건강 증진, 우수 선수 육성, 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 보다 나은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특히 스포츠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확산에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미개최 및 순연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종합체육대회가 1년씩 순연되면서 2022년 전남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도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체육회는 전라남도, 주 개최지인 목포시와 함께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현재 22개 시·군에 골고루 종목을 배정해 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 중에 있다. 또한 전라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한 국제스포츠대회도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취소됐다.



일제는 광주정구구락부에 대해서도 해산할 것을 종용했지만 당시 변호사였던 송화식을 재빨리 회장에 추대함으로써 해산을 모면했다.

이밖에 복싱, 유도, 체조 등이 주로 광주YMCA의 체육사업에 의해 1931년부터 청소년들에게 보급됐다.

육상은 1920년경부터 있어온 일본인들의 육상경기대회에 맞서 광주청년실업구락부의 최한영이 주도해 동아일보 광주지국의 주최로 1923년 광주시민육상운동을 목정밭에서 개최했는데 일제의 압력으로 2~3년 후에 폐지되고 말았다.

한편, 전남도내 각 시·군에 근대 체육이 보급된 것은 지리적 여건과 권역별·지역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920년을 전후하여 등장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처럼 1920년대에 전라남도의 민중체육이 발흥한 것은 ‘체육 활동’이 바로 민족독립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심신단련에도 뜻이 있었지만 일제의 억압에 민족의 설움과 울분을 삭이고 달래기 위해 체육 활동을 했던 것이다. 더구나 1922년 창립된 광주YMCA의 민족정신진작을 위한 체육사업은 전라남도의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제2절 진흥기의 전남체육(1945~1980년)

일제의 억압 속에 체육활동마저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는 1945년 8·15 광복과 함께 각종 체육행사가 열리면서 새롭게 활발한 체육활동이 시작됐다. 혼선을 거듭했던 전라남도체육회 창립 문제도 1946년 8월 15일을 기해 결성했다. 이어 1948년 9월 9~12일까지 4일 동안 전국체육대회 예선을 겸한 제1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함으로써 전라남도에서도 종합체전이 처음으로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서 광주와 목포 등에서 각 경기단체 동호인들이 주축이 돼 1946년부터 중앙경기단체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전국규모의 선수권대회와 제27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라남도의 각 팀들이 개별적으로 출전했었다.

이와 같이 약진일로의 전라남도체육은 뜻하지 않은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모든 체육활동이 순조롭지 못한 채 전라남도종합체육대회는 물론 제31회 전국체육대회마저도 중지되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나 전라남도체육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0월 광주에서 열린 제3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사상 첫 종합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전쟁 중 열린 전국체육대회가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 부득이 참가하지 못했으나 전국시·도대항전으로 종합채점제를 처음 채택한 후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값진 우승으로 평가됐다.

전라남도체육은 9·28 수복 후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54년 4월에는 광주공설운동장 기공식을 가졌으며 1955년 12월 1차로 육상경기장을 완



공했다. 무등경기장은 이후 여러 차례의 확장공사와 보완공사를 거쳐 사용되다가 2011년 11월 철거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라는 이름의 야구장이 건설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쟁 이후 전라남도체육은 각 경기종목마다 선수가 고루 육성되고 많은 체육지도자가 배출되면서 시·군에 체육 붐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학교체육이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각종 경기대회가 도내대회로 머물지 않고 전국규모대회로 확산되면서 전국종별선수권대회를 유치·개최할 뿐 아니라 마침내 각종국제규모의 대회에까지 진출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경기력 향상에 더욱 더 주력하기에 이르게 됐다.

1961년 5·16 군사혁명 후 전남체육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 1961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에 입상한 뒤 1962년 경북 대구에서 열린 제43회 전국체육대회와 1963년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나란히 종합 2위를 차지함으로써 전국체육대회 사상 처음으로 연속 종합 준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또 1965년 제46회 전국체육대회를 광주에 유치해 종합 우승을 차지한 서울과 불과 12.5점 차로 종합 준우승을 했다. 이 때 전라남도는 야구장과 광주공원에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실내체육관을 현대식으로 건설하는 등 체육시설의 확충과 함께 경기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후 전남은 1970년 제51회 전국체육대회 때까지 10년 동안 상위권을 지켜왔다.

뿐만 아니라 1962년부터 전통적으로 개최해온 전라남도체육대회와는 별도로 춘추로 열리던 시군대항종합체육대회를 1966년부터는 전라남도민체육대회로 발전해 매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전남북친선체육대회, 그리고 각 경기종목별선수권대회와 전국중별선수권대회 유치, 전국우수팀 초청대회, 일본배구팀을 비롯한 국제대회 초청경기 등 수없이 많은 대회를 열어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전라남도체육은 1970년대 들어 한계점에 달하면서 1971년 제5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8위로 곤두박질하기 시작해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좀처럼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전라남도체육은 1980년 제61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0년 만에 종합 3위에 입상함으로써 마침내 상위권에 올라섰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6위 다섯 번, 8위 두 번, 7위 5위 3위 각 한 번씩으로 6위가 절반을 차지했다.

II

광주·전남 분리이후 전남체육



제1장 총 론

제2장 광주·전남 분리 이전 전남체육 역사

제3장 광주시와 분리 이후 전남체육

제4장 체육단체 통합 및 민선체육회·사단법인 출범



제1장 광주·전남분리 이후 전남체육의 변화

전라남도체육회는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가 분리된 이후 조직과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새롭게 정비하고 출발했다. 기본적인 조직체계는 분리 전과 크게 달라지 않았으나 규모는 체육발전과 더불어 갈수록 늘었다. 특히 가맹경기단체의 수 변화는 괄목할 만 하다.

여기서는 조직 운영 현황을 시·도분리 이후부터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 이전까지를 한 시기로 하고, 통합 전라남도체육회 출범 이후를 또 다른 시기로 구분해 정리했다.

1. 전남체육회 조직 운영 현황(1989년 이후 ~ 통합이전)

1) 전남체육회 역대 회장

성명	재임기간	주요 경력
송언중	1988. 10. 04 ~ 1990. 06. 20	전라남도지사
최인기	1990. 06. 21 ~ 1991. 02. 18	전라남도지사
백형조	1991. 02. 19 ~ 1992. 04. 20	전라남도지사
이효계	1992. 04. 20 ~ 1993. 03. 05	전라남도지사
이균범	1993. 03. 05 ~ 1993. 12. 28	전라남도지사
구용상	1993. 12. 29 ~ 1994. 09. 23	전라남도지사
조규하	1994. 09. 24 ~ 1995. 06. 30	전라남도지사
허경만	1995. 07. 01 ~ 2002. 06. 30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2002. 07. 01 ~ 2004. 04. 27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2004. 06. 06 ~ 2014. 06. 30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2014. 07. 01 ~ 2017. 05. 12	전라남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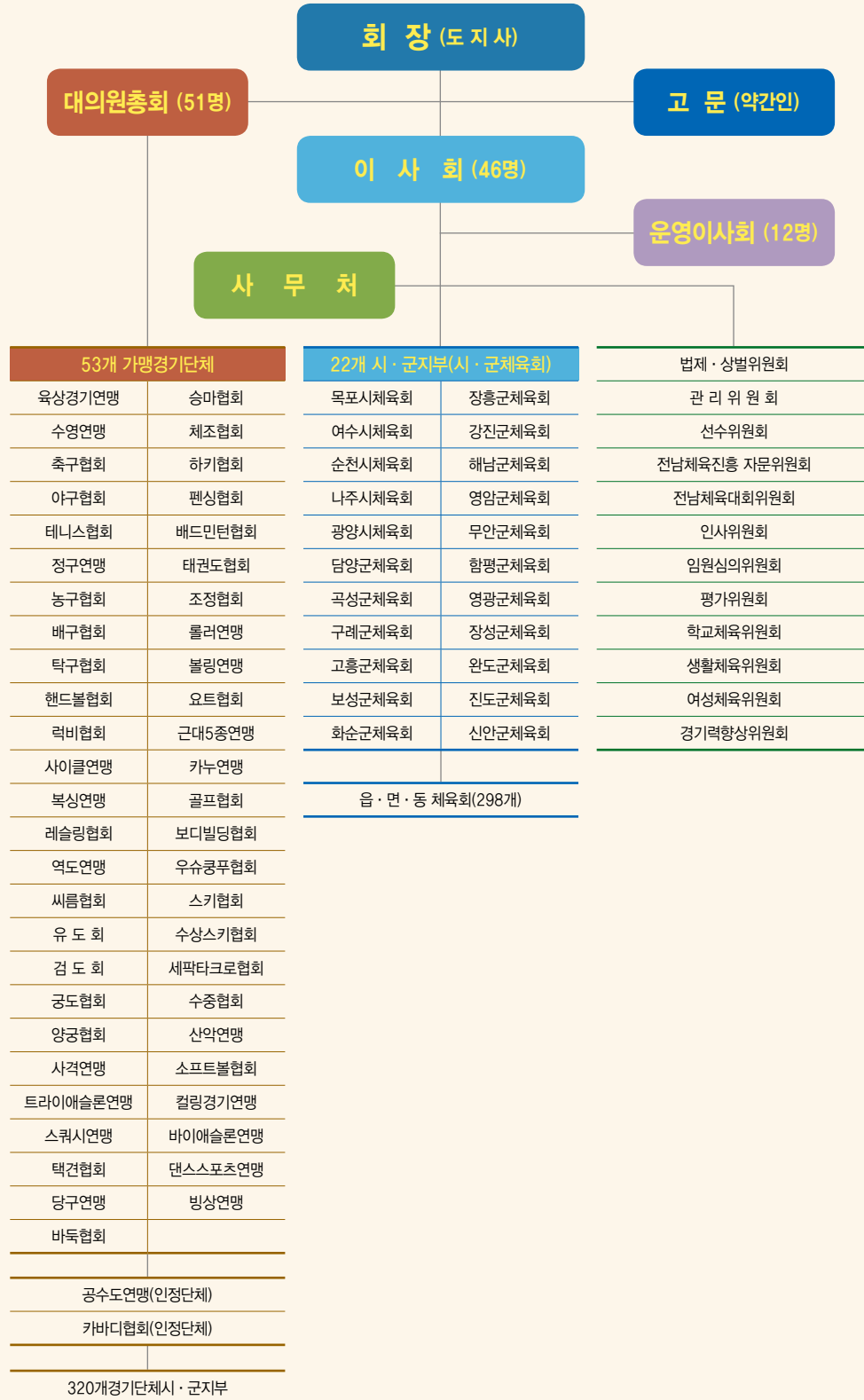
성 명	재임기간	주요 경력
이재인	1986. 11. 01 ~ 1992. 06. 15 (5년 7월)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차장
임 완	1992. 06. 16 ~ 2000. 12. 26 (8년 6월)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차장
김민수	2001. 02. 20 ~ 2002. 12. 12 (1년 10월)	광주동구청 정구부 감독
김종권	2003. 01. 23 ~ 2005. 01. 24 (2 년)	장성군의회 의장
정건철	2005. 01. 25 ~ 2007. 05. 02 (2년 3월)	전남도청 체조부 감독
주동식	2007. 07. 31 ~ 2008. 01. 07 (5 월)	전남도청 도민안전실 실장
서정복	2008. 01. 08 ~ 2012. 01. 07 (4 년)	전라남도체육회 부회장·고문
전승현	2012. 01. 26 ~ 2013. 07. 02 (1년 5월)	전남개발공사 사장
박내영	2013. 07. 30 ~ 2014. 07. 31 (1 년)	전라남도의회 사무처장
김상민	2014. 09. 03 ~ 2018. 08. 14 (3년 11월)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차장



4) 전남체육회 조직 및 사무처 기구

(2016. 6. 5 기준)

■ 조 직





5) 전남체육회 집행부 임원 현황

년 도	직 위	성 명	비 고
1988.10.04 ~ 1990.06.20	회장	송연중(22대)	
	(상임)부회장	(박관주)(정원강)	
1990.06.21 ~ 1991.02.18	회장	최인기(23대)	
	(상임)부회장	(이재인)	
1991.02.19 ~ 1992.04.20	회장	백형조(24대)	
	(상임)부회장	(이재인)	
1992.04.20 ~ 1993.03.05	회장	이효계(25대)	
	(상임)부회장	(이재인) 이양우 강영기	
	이사	임 완 박소선 곽청훈 김광호 김봉섭 김상학 김석주 김수용 김철수 김홍식 김효수 나봉주 박상대 박옥주 배광언 배금수 배기홍 백춘익 서정복 성용규 양봉현 오효근 이완식 이종무 임노덕 정영식 정채호 정하영 조영기 최명환	
	감사	국순성 임형연 정우진	
1993.03.05 ~ 1993.12.28	회장	이균범(26대)	
	(상임)부회장	(안주섭)	
	이사	박형인 이승율	
	감사	임영신 국순성	
1993.03.05 ~ 1993.12.28	회장	구용상(27대)	
	(상임)부회장	오영대 송재구	
	이사	윤병오 이희석 안순길 윤원보	
	감사	고영길	
1993.03.05 ~ 1993.12.28	회장	조규하(28대)	
	(상임)부회장	(안주섭)	
	이사	임상배 유민봉 박 웅 김완기	
	감사	김영규	
1993.03.05 ~ 1993.12.28	회장	허경만(29, 30대)	
	(상임)부회장	(안주섭) 이강열 나승포 김재연 유명창 김재철 이정녕 (허길남) 강방원 류봉호 황인수	
	이사	김주현 이관종 김오중 고영길 김경인 김옥도 김장환 김종대 노병인 배성완 손만욱 이승율 이인명 이채원 이한중 조보훈 조오련 최재근 황의병 김영록 박래영 이병훈 김평기 정상영 백부선 안효윤 김동희 정순철 강경빈 문동근 박재순 강석순 김창준 변양일 이돈광 이병훈 이영화 이행기 임진택 정순태 정진우 주영순 문덕형 김호근 박두봉 김영록 장영인 강주혁 박종길 박경중 서삼석 박재순 이개호 김민수 이형진 주동식 이호균 박인규 고영길 서규열 정건철 유용현 김용영	
	감사	류봉호 한창수 최오주 김영선 이윤모 나승병 성무열 김용주 김장룡	



년 도	직 위	성 명	비 고
2002.07.01 ~ 2004.04.27	회장	박태영(31대)	
	(상임)부회장	오현섭 (박재순) 오현섭 류춘근 명영식 이연재 강방원 조영기 송광운	
	이사	이종범 김관중 정경환 나승옥 김창남 김선만 박인섭 강석순 김경숙 김관중 김용영 김종권 김창남 김홍식 박래영 박인규 박인섭 서정복 류용현 윤관중 이병훈 이완식 이호균 장영인 정건철 정경환 정보연 주동식 최종문 한종웅 황호용 나원주 조순영 이남규 김완기 이기동 강인수 이종범 정당채 박신기	
	감사	구충곤 박효웅 윤광수	
2004.06.06 ~ 2014.06.30	회장	박준영(32~34대)	
	(상임)부회장	이낙연(35대)	
	이사	박용하 배성완 황금추 김동욱 김영록 (박병열) 홍이식 김효수 김광현 심장섭 이기동 강인수 이종범 정당채 박신기	
	감사	김응자 정문호	
2014.07.01 ~ 2017.05.12	회장	이낙연(35대)	
	(상임)부회장	(김철신) 김영선 정병걸 김영구 정종오 한상원 김종욱 양진 석 임채수 박용구 선태무	
	이사	강형구 권오강 김상민 김선태 김양환 김양훈 김종언 김한관 나양명 류남규 박경환 박진성 박철수 박희석 송영종 신명건 양재환 염세철 위하수 윤보선 윤영철 이송자 이영현 이종민 이현천 이흥우 장만우 정성필 조재봉 조재호 최석우 황경숙 김영형 김광중 이재철 최순동 나정수 장길선 김석원 박세권 노동일 이기환 임성호	
	감사	김경호 이해재 최치영	



2. 통합 전라남도체육회 출범 후 조직 운영 현황(2016~ 2021 현재)

1) 역대 회장

성명	재임기간	주요 경력
이낙연	2016. 05. 20 ~ 2018. 08. 02	전)전라남도지사
김영록	2018. 08. 14 ~ 2020. 01. 20	전)전라남도지사
김재무	2020. 01. 21 ~ 현재	전)전라남도의회 의장

2) 전남체육회 역대 상임부회장

성명	주요 경력	재임기간
김홍식	전) 광주광역시체육회 상임부회장	2017. 01. 20 ~ 2018. 08. 14. (1년 6월)
박철수	전) 목포대학교 교수	2018. 09. 19 ~ 2019. 10. 16. (1년 2월)

3) 역대 사무처장

성명	주요 경력	재임기간
김상민	전)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	2014. 09. 03 ~ 2018. 08. 14 (3년 11월)
정건배	전)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2018. 09. 19 ~ 2020. 01. 02 (1년 4월)
고재영	현)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	2020. 01. 02 ~ 2020. 12. 29. (1년)
조정만	전) 전라남도체육회 기흥홍보실장	2020. 02. 21 ~ 현재
안병욱	전) 전라남도 도민안전실장	2020. 12. 29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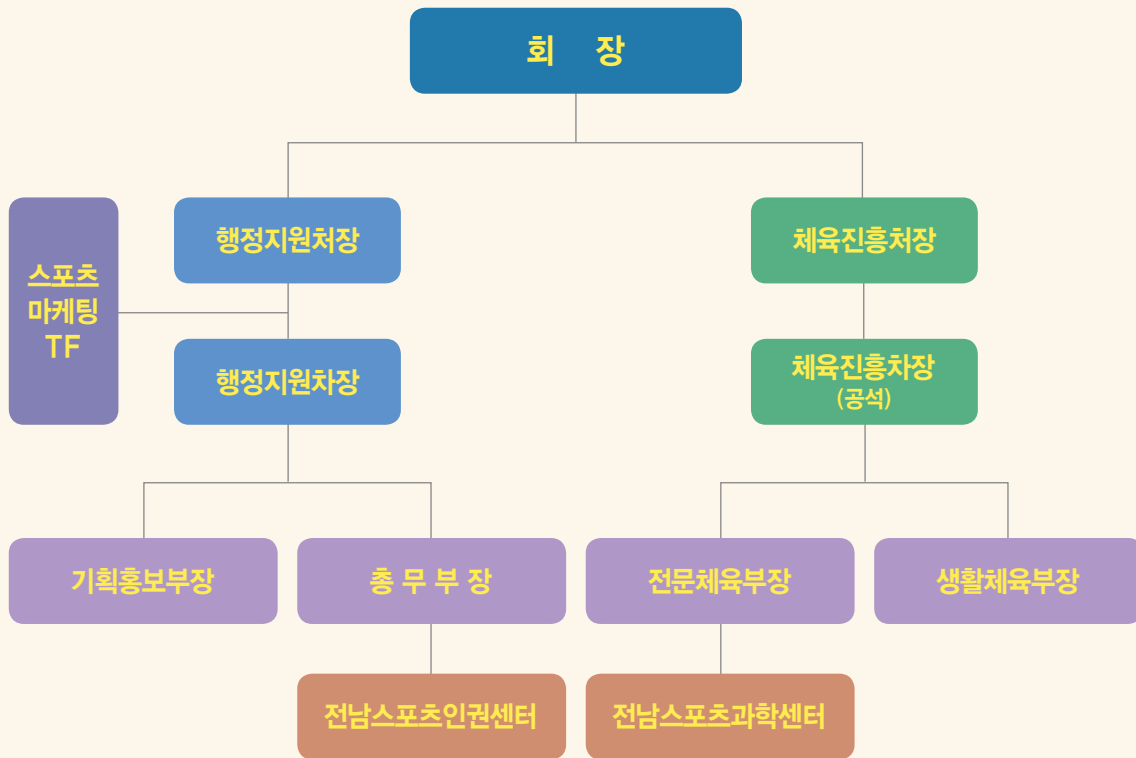


4) 전라남도체육회 조직 및 사무처 기구

(2021. 9월 현재)

■ 조 직





■ 정·현원

【2021. 9. 現在】

구분	총계	소계	별정	행정				기술	무기계약직		
			3급 (사무처장)	4급 (사무차장)	5급 (부 장)	6급 (팀 장)	7~9급 (대리, 주임, 담당)	5~9급	소계	스포츠과 학센터	체육시설 관 리
정원	39	28	2	2	4	6	13	1	11	2	9
현원	38	28	2		3	7	15	1	10	1	9
증감	▲1	-	-	▲2	▲1	1	2	-	▲1	▲1	-

정원외(계약직) 5명 제외 ➡ 스포츠과학센터 5명 (센터장 1, 선임연구원 1, 연구원 2명, 행정원1명),
체육시설관리직원 1명



5) 전남체육회 집행부 임원 현황

년 도	직 위	성 명	비 고
2016. 05. 20 ~ 2018. 08. 02	회장	이낙연	
	(수석)부회장	(김홍식) 김영구 김재훈 김철신 서병재 설택무 이기봉 전이양 정종오 조준성 한상원 허정인	
	이사(사무처장)	(김상민) 김광중 김명원 김석원 김선태 김영섭 노동일 박영미 박경환 박용수 박철수 박희석 방옥길 서기원 신경수 신명건 신용완 송재인 신재준 신정식 왕명석 염세철 이관웅 이교생 이영현 이기환 장길선 장경순 장만우 전조일 정경주 정순주	
	감사	나정수 박종열 최치영	
2018. 09. 28 ~ 2020. 01. 20	회장	김영록	
	(수석)부회장	(박철수) 박용수 성해석 유인숙 윤성훈 이기봉 이승준 전이양 허정인	
	이사(사무처장)	(정건배) 강인수 강형구 김명원 왕명석 김 철 김상인 김석원 김애진 김영섭 김의동 김재은 김종문 김진영 김철수 나동길 박경득 박우영 박태환 박희석 백순옥 송길용 신명건 신정식 염세철 윤보선 윤영환 이대안 이동창 이영현 이우홍 이흥훈 임재신 임정심 장만우 전조일 정영창 조광섭 최광주 최석우 최공집	
	감사	서이남 최치영	
1993.03.05 ~ 1993.12.28	회장	김재무	
	부회장	고성수 공후식 박병호 박용수 성해석 송상락 윤성훈 오종순 윤보선 이기봉 이상대 전이양 최기동	
	이사(사무처장)	(안병욱) (조정만) 김병주 김선치 김영신 염세철 강형구 고비호 고상훈 김계호 김도영 김민주 김병욱 김병주 김병차 김석원 김선희 김성철 김승식 김양환 김영래 김영섭 김용기 김의동 김종문 김태근 김행순 박경래 박영미 박현숙 서순규 서영수 서철훈 손흥식 송길용 송진호 심재근 안영현 안용준 안정민 안종남 양동일 오기근 오명호 위경중 염세철 윤보선 윤영철 윤인호 이경훈 이대호 이동창 이영현 이우홍 이재성 이흥훈 임현호 임형기 장만우 장명영 전조일 정문호 정성인 정종택 조성실 최공집 최병희 최영열 최종술 한창호 한태선	
	감사	박종남 양정훈	

3. 광주·전남 분리 이후 전남체육 주요 활동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해 분리해 나간 후 전남체육은 체제를 새롭게 정비하고 전문체육 발전, 시대변화에 맞춘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체육계 전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여기에서는 주요 활동 사항 중심으로 서술하고 나머지 활동 사항은 연표에 게재했다.

1) 첫 발간 『전남체육사』 출판기념회

1989년에 처음 발간된 『전남체육사』 출판기념회는 1990년 1월 9일 전라남도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에는 전라남도체육회장인 송언중 전라남도지사와 이양우 전라남도교육감, 박관주 전 전라남도체육회 상임부회장, 차행칠 무등체육동우회장, 정현규 광주직할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원로 체육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언중 회장은 전남체육사 출간에 공이 많은 박관주 편찬위원장과 이일룡·김두환 상임위원, 집필위원인 박상인·양동영·윤이중·김우자씨 등 10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전남체육사』는 전라남도에 근대체육이 들어온 개화기에서부터 1986년 광주직할시와 분리 직전까지의 전남체육 역사를 수록했다.

2) 전라남도스포츠과학센터 개소

전라남도스포츠과학센터가 2018년 12월 3일 전라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 등에서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가 전라남도 선수들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과학 밀착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

전라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과 5층에 각종 교육 및 훈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남스포츠과학센터에서 전라남도 선수들이 과학적인 기초 체력 강화와 심리 강화 훈련을 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체육회는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운영하는 2018년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공모에서 신규사업자로 선정됐다. 2014년부터 자체적으로 스포츠과학센터를 운영해왔던 전라남도체육회는 전남도체육회관 내 필요한 전용면적을 확보해 전국 최고의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역센터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따라 한국스포츠개발원으로부터 약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동부하, 운동역학, 근관절기능검사장비 등 모두 29종의 측정장비를 구축하여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이어 이날 개소식을 가졌다.

지역스포츠과학센터 공모사업은 그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제공해온



과학적·체계적 체력측정 및 트레이닝방법을 지역 학생, 일반 선수 및 공공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회원으로 확대, 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태완 센터장을 비롯한 현장 중심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체육분야 석·박사급 연구원과 행정원 등 6명이 상근하는 전남스포츠과학센터에서는 전라남도선수들의 기초체력과 종목별 전문 체력을 측정해 처방하고, 선수 체력에 맞는 훈련 방법을 제안하는 등 과학적인 운동법을 제공한다.

특히 전라남도 우수선수에게는 체력 강화 프로그램과 경기 기술 분석 프로그램, 심리·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등 스포츠과학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운동 상해 예방 등을 위해 찾아가는 스포츠과학교실도 병행한다. 스포츠과학교실에서는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근력 및 근파워 트레이닝, 스포츠심리훈련, 체력의 중요성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3) 전라남도e스포츠협회 인정단체 가입

전라남도체육회는 2019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남e스포츠협회 인정단체 가입(안)’에 대한 임원들의 동의(서면결의)를 구한 결과, 재적이사 43명 중 37명이 참가한 가운데 37명 전원 동의에 의거해 e스포츠협회를 인정단체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전라남도체육회는 육상·수영 등 57개 정회원단체, 벨리댄스·가라데 등 9개의 인정단체, 전문·생활체육이 통합하지 못한 유보단체(태권도), 관리단체(보디빌딩)체제의 운영 틀을 갖추게 됐다.

인정단체는 전라남도체육회의 이사회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다. 하지만 향후 회원종목단체 운영 시스템에 따라 준회원, 정회원단체로의 승격기회를 갖게 된다. e스포츠는 electronic sports의 약자로 실제 세계와 유사하게 구현된 가상의 전자환경에서 정신적, 신체적인 능력을 활용해 승부를 겨루는 여가활동 스포츠다.

전라남도체육회가 e스포츠협회를 인정단체로 가입한 데는 전라남도의 2019년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사업 공모 추진에 있어 전라남도체육회의 e스포츠 종목 가입이 필수조건으로서, 유관기관·단체(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가입 적극 추진 요청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물론 e스포츠가 지난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서, 대한체육회의 한시적 인정단체 운영(2018년)에 따른 전라남도체육회의 인정단체 가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와함께 e스포츠 전남지회가 전라남도체육회내 인정단체로의 가입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 및 집행부 구성, 2019년 사업계획(안) 작성, 규정 제정 등 순차적인 행정업무 추진으로 단체로서의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 등도 고려됐다.

전라남도체육회의 e스포츠협회 인정단체 가입으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에서는 대전, 부산, 경남에 이어 4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전남e스포츠협회는 이유찬 전남과학대학교 조교수가 회장으로 이사 5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 1월 31일 창립총회 개최 및 중앙협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4)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 장흥군에 건립

전라남도 장흥군이 체육인 연수·보수교육과 국가대표 등 거점 폭한기 훈련으로 사용될 대한체육회의 체육인교육센터 후보지에 최종 선정됐다.

2020년 2월 1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체육인교육센터 유치 최종평가 제안 설명회에 참석한 장흥군은 완도군과의 2차 후보지 선정 평가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최종 선정의 패거리를 이뤘다.

2019년 고흥군과 경상남도 함양·하동군이 유치를 포기하면서 경쟁 지역이 전라남도로 좁혀진 가운데 2020년 장흥융성 11대 전략사업 중 하나인 ‘체육인교육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장흥군으로선 민선 7기 출범 이후 또 하나의 새로운 업적이 탄생한 셈이다.

약 16만㎡의 부지 확보 가능, 사계절 기후가 온화한 지역, 접근성, 지자체의 센터 건립 및 인프라 지원 등 체육인교육센터 입지 여건을 충족하여 건립사업을 확보한 장흥군은 이번 성공을 계기로 ‘전남 스포츠 메카’를 향해 더욱 높이 도약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 건립되는 체육인교육센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370억 원을 들여 장흥군 부산면 지천리 심천공원에 부지면적 16만㎡, 건축 규모 2만5천㎡ 규모로 시설이 들어선다. 교육시설, 숙박시설(200명 수용), 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운동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을 건립한다. 이후 선수와 지도자, 심판, 행정가, 동호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교육을 제공한다. 체육인교육센터가 완공되면 체육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가 가능해 체육의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연간 6만여 명의 교육생이 장흥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52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코로나19로 각종 체육대회 미개최 및 순연

민선 체육회장 시대를 열며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2020년을 야심차게 출발했던 전남체육은 코로나19라는 악재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스포츠계를 강타한 코로나 역풍에 각종 체육대회의 미개최 또는 순연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지한 각종 국제스포츠대회도 잇따라 취소돼 아쉬움을 남겼다.

코로나19로 미개최한 종합체육대회는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2020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2020 전남학생스포츠클럽축제, 제45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제15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제32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 등이다.

또 전라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유치한 2020년 국제스포츠대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줄줄이 취소됐다.



구례군이 매년 9월에 개최하는 국제철인3종 경기 ‘아이언 맨 구례 코리아’ 대회를 앞두고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선수들의 입국 시 2주 이상 자가 격리 조치가 불가피해 경기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례군은 이미 3월부터 참가신청을 받아 국내·외 845명의 선수가 접수를 마친 상황이었다.

철인3종 경기는 한 선수가 3개 종목 226km(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2km)를 17시간 이내에 완주해야 하는 스포츠로 극한의 인내심과 체력이 필요하다.

2019년 대회가 태풍으로 취소된 바 있는 구례 철인3종 경기는 코로나19여파로 또 다시 취소됐다.

목포시가 유치한 세계 농아인 축구 월드컵인 ‘2020년 제4회 세계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도 대회 주최 측인 국제농아인스포츠연맹이 개최지인 목포시에 취소를 통보했다.

세계농아인축구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9월5일부터 20일까지 목포 일원에서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32개 회원국, 1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3회 대회까지 줄곧 유럽에서 열렸지만, 4회 대회는 아시아 최초로 목포에서 개최가 확정돼 의미도 컸다.

목포시는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경기장을 보수하고 관내 숙박시설 및 요식업 등 선수단 편의시설 점검에 나서는 등 열의를 보였지만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유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강진 일원에서 10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2020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다.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FISU측이 역도대회에 참가하는 해외 선수단 입국시 자가격리가 불가피해 사실상 대회가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강진군은 1차 접수를 통해 28개국 443명 규모의 선수단을 유치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 참여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여파로 행정력을 모아 유치한 국제행사 개최가 좌절됐다.

전남도와 강진군·영암군·신안군 등이 공동개최하는 제7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도 7월30일 개최일정을 11월로 연기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어 결국 취소했다. 전남도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김인·조훈현·이세돌 3대 국수를 배출한 전남이 바둑의 본고장임을 세계에 알리고, 외국과의 교류를 통한 바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종합체육대회가 1년씩 순연되면서 2022년 전남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03회 전국체육대회가 1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체육회는 전라남도, 주 개최지인 목포시와 함께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6) 전국 시·군 단위 최초 '여수체육사' 발간

전국 시·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여수시 체육 70년사의 발자취를 모은 ‘여수체육사’가 1994년 12월 발간됐다.

1984년부터 7년여 간의 자료 수집과 3년간의 집필·편집 등 10년 만에 발간된『여수 체육사』는 22개 경기단체의 74년사를 기록사진과 함께 자세히 수록했다.

여수체육을 초창기(1920~1945년), 격동기(1946~1960년), 진흥기(1961~1993년)로 구분하여 산하 가맹경기단체의 연혁과 1947년 전라남도체육회의 창립 배경, 1960년 여수시체육회 태동에 대한 숨은 이야기 등을 적었다.

7)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주경기장 건립 공사 순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폐회식과 육상경기가 열리는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목포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가 2022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목포시 대양동 산 124번지 일원 목포국제축구센터 주변에 건립될 목포종합경기장은 지상 3층, 연면적 2만6천㎡, 건축면적 1만7천㎡, 관람석 1만6천석, 주차장 800여대 규모로 국비 200억 원, 전라남도비 230억 원, 목포시비 490억 원 등 총 920억 원이 투입된다.

건립 공사의 촉박한 공사 기간을 감안해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툰키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4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결정 후 2019년 4월 23일 조달청 입찰공고, 9월 10일 전라남도 기본설계 심의, 9월 20일 조달청 가격 개찰 후 9월 23일 조달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적격자로 남양건설(주) 컨소시엄이 결정되었다.

이후 우선 시공분인 토목공사 추진을 위해 2019년 9월부터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등을 거쳐 2019년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적인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목포시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47개 종목 가운데 육상과 축구, 배구 등 12개 종목을 유치하여 유치 종목 시설 개·보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등을 적극 반영,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추진하고 있다.



8)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월드투어 전라남도 유치

전라남도체육회가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월드투어 유치를 통해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첫 신호탄을 쏘았다.

전라남도체육회는 2020년 10월 5일 전라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김영섭 전남배드민턴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2023년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월드투어 세계선수권대회 전남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91년부터 개최된 코리아오픈 세계선수권대회는 30개국 350명의 배드민턴 최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매년 9월에 6일간 경기를 치르며 SBS를 통해 20개국으로 송출된다.

그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개최됐지만 지방에서는 전남이 처음으로 3년 연속 대회를 유치해 전남 체육시설의 우수성과 스포츠마케팅 저력을 보여준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연도별 개최 후보지로 2021년 여수시, 2022년 순천시를 우선 선정하고 2023년 대회는 희망 도시 등과 협의 중이다.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전라남도를 비롯한 국내 팬들이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기량을 직접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2년 여수에서 코리아오픈 대회 개최 후 19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세계 메이저 대회 유치는 올해 신설된 전라남도체육회 스포츠마케팅팀의 역할이 컸다.

전라남도체육회 스포츠마케팅팀은 김재무 민선 초대 전라남도체육회장의 취임 공약 사항으로 각 시·군, 종목단체와 협력하여 스포츠관광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대표적 스포츠이벤트의 국제화를 지원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특히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 된 전남의 기후와 맛있는 음식을 통해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다양화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 전남이 전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스포츠 마케팅팀은 지난 7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코리아오픈 월드투어 유치 신청을 했고 전라남도, 전남배드민턴협회와 시설, 개최 조건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9월에 개최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회에서 전남 개최가 최종 확정되었다.

또한 대회 흥행을 위해 전남이 낳은 세계적인 배드민턴 스타인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화순 출신, 요넥스코리아)와 배드민턴 천재소녀로 불리는 세계랭킹 9위 안세영(나주 출신, 삼성생명)을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해 팬들에게 다가가는 각종 홍보활동을 펼친다.



9) 전라남도체육회 바이애슬론 등 행정기관 직장 팀 다수 창단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팀이 처음으로 창단돼 출범했다.

전라남도체육회는 2020년 10월 23일 전라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동계스포츠인 바이애슬론 창단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전라남도체육회 동계 스포츠 첫 실업팀인 바이애슬론 팀은 전 대한바이애슬론연맹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김상욱 감독이 초대 감독을 맡고 남자 국가대표 티모페이 랍신, 스타로두베츠, 전제억과 여자 국가대표 프롤리나 안나, 에카테리나, 추경미 등 남자 일반부 3명, 여자 일반부 3명 총 6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김재무 회장으로부터 선수 임용장을 받은 바이애슬론 팀 선수들은 10월 22일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전입 신고를 마치고, 전라남도민이 됐다.

동계 불모지 전라남도에서 희망의 새싹을 피워내고 있는 바이애슬론은 이번 팀 창단을 통해 동계종목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라남도의 열악한 저변을 확대하고, 초·중·고·대학팀 창단 동기부여를 통해 연계육성 기반의 초석이 됐다.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이외의 행정기관 직장팀 창단은 시·도 분리 이후 꾸준히 이어져 전남체육 발전의 중추를 이루었다. 1998년 전라남도 정구팀 창단을 비롯해 그 동안 시·도 분리이후 창단된 시·군·도 등 행정기관 직장팀은 30개에 이른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021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현황

시군명	팀 명	종목명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창단연도
			남자	여자	합계	
			123	115	238	
전남도	펜싱팀	펜싱				1979
전남도	정구팀	정구		7	7	1998
전남도	근대5종팀	근대5종	3	3	6	1998
전남도	카누팀	카누	1	4	5	2016
전남도	우슈팀	우슈	6		6	2019
전남도	스쿼시팀	스쿼시		4	4	2019
목포시	축구팀	축구	27		27	2009
목포시	하키팀	하키		18	18	1982
목포시	육상팀	육상	4	1	5	2006
여수시	육상팀	육상	2	4	6	1990
여수시	유도팀	유도	7	-	7	1994
여수시	요트팀	요트	6	-	6	1986
여수시	롤러팀	롤러	5	3	8	1986
순천시	정구부	정구	6	-	6	1994
순천시	양궁부	양궁	-	3	3	1997
순천시	유도부	유도	-	5	5	2017
나주시	사이클팀	사이클		8	8	1991
나주시	육상팀	육상	4		4	2019
광양시	육상부	육상	3	4	7	1991
광양시	볼링부	볼링	6	-	6	1996
담양군	-	-			-	
곡성군	볼링팀	볼링	-	7	7	2002
구례군	씨름단	씨름	-	6	6	2011
고흥군	여자볼링팀	볼링		6	6	2015
보성군	역도부	역도	3	2	5	2004
화순군	배드민턴부	배드민턴		7	7	1995
장흥군	육상팀	육상	2	2	4	2020
강진군	사이클부	사이클	7		7	2002
해남군	육상부	육상	2	4	6	2006
해남군	펜싱부	펜싱	5		5	2012
영암군	영암군민속씨름단	씨름	11		11	2017
무안군	검도단	검도	7		7	2002
함평군	레슬링팀	레슬링	4	1	5	2019
영광군	-	-			-	
장성군	직장조정팀	조정	-	4	4	2002
완도군	역도실업팀	역도	2	2	4	2015
진도군	-	-			-	
신안군	-	-			-	

10) 『전남체육사2』 편찬위원회 출범

전라남도체육 75년사의 발자취를 재조명하기 위한 『전남체육사2』편찬위원회가 2020년 12월 22일 출범했다.

1945년 창립한 전라남도체육회의 역사와 성과 등 그동안의 발자취를 재 조명하기 위해 출범한 『전남체육사2』편찬위원회는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과 부회장을 역임한 서정복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위원회 위원장이 편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그리고 김천옥 해남동초등학교 교장이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위원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언론계에서는 윤종채 남도일보 주필과 박희중 광주매일신문 부국장 등 2명, 교육계에서는 안민주 동신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종목단체에는 최석우 전라남도검도회 부회장과 박종남 전라남도볼링협회장, 행정계에 유영후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장과 김선치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건강예술과장, 상임위원으로 김상민 전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과 이동현 전 광양시체육회 이사로 구성됐다.

또한, 전라남도체육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체육인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해 전라남도체육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사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경험을 체육사에 녹여내도록 했다.

『전남체육사2』 편찬위원회는 1989년 기 편찬된 『전남체육사1』 이후 전남체육 변화와 발전 내용을 정리했다.

11) 전라남도스포츠인권센터 개소

전라남도체육회는 2021년 1월 25일 전라남도체육회관에서 김재무 회장을 비롯해 성평등위원회 양화숙 위원장, 전라남도체육회 소속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비리개선을 위한 전라남도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서는 인권우편함 설치 행사도 진행됐다. 인권 우편함은 전라남도체육인의 스포츠(성)폭력 및 인권유린 등 비위행위 발생 시 원활한 상담 및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전라남도체육회관 정문에 설치됐다.

전라남도스포츠인권센터는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을 갖추고 시·군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찾아가는 인권침해 예방교육, 정기적인 스포츠인권 실태조사와 함께 제보를 강화하기 위해 익명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육인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내 대학·전력종목·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인권 침해 및 폭력 문제 전수조사는 조사반이 직접 방문해 선수들과의 심층면담 및 설문지 조사 등을 실시해 위계질서를 잡기 위해 선수들 간 폭력 등이 행사됐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다. 또 감독과 선수들 간 성추행, 성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다.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각 당사자들을 분리조치하고 비공개 심층 조사를 벌여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까지 검토한다. 또한 스포츠인권교육을 연중 권역별로 활성화하고,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해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보호와 대책 마련 등에 충력을 다 하고 있다.



12) 미통합 (양)태권도 유보단체 제명

전라남도체육회는 2021년 6월 29일 전라남도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2021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미통합 (양)태권도 유보단체 제명(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들 단체는 전남태권도협회(엘리트 체육)와 전남태권도연합회(생활체육)다. 총회에서는 대의원 80명 중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6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제명안이 통과됐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통합 전라남도체육회에서 종목단체 제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체육회 종목단체는 총 71개 단체에서 70개로 축소됐다. 정회원 단체는 58개, 인정단체는 12개로 조정됐다.

앞서 지난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는 전라남도체육회와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전라남도생활체육회가 통합했다. 이후 종목단체별 통합도 이뤄졌다.

하지만 전라남도태권도협회와 전라남도태권도연합회는 누적된 승단 심사비 등을 놓고 고소·고발을 이어가는 등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등 극심한 갈등으로 전라남도내 종목단체 중 유일하게 통합을 이뤄내지 못했다.

제1장 전남생활체육의 창립과 성장

1. 전남생활체육협의회 출범과 성장

1) 설립 배경 및 근거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후 일반국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국민건강 및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국민복지정책의 시행과 추진을 전담할 민간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꾸준히 대두됐다. 더 나아가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을 근간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전남 도민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면서 밝고 활기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남생활체육협의회'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법 제32조(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및 체육청소년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 규칙 제6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시책 및 권장) 동 시행령 3조,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동 시행령 제3조(국민체육진흥시책), 제10조 동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남생활체육협의회가 설립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와 전라남도생활체육 진흥 조례안(2010. 12. 23)에 따라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 전남생활체육협의회는 1991년 4월 30일 순천시 연향동 771번지 순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2층에서 사무실 헌판식을 갖고, 1991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사진은 전남생활체육의 산실(産室) 순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모습)



마침내 1990년 8월 22일 전남도청 건전생활계가 중심이 돼 초대 회장 및 조직 구성을 위한 전남생활체육협의회 대의원 총회가 개최됐다.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은 전남 27개 시·군협의회 사무국장과 지역협의회 추천 인사 등 2명씩 총 54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순천생활체육협의회 이윤채 회장이 박일남 목포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누르고 전남생활체육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사무처 인력 채용과 함께 전남 27개 시·군협의회와 5개 종목별연합회(궁도·배구·축구·탁구·테니스)들이 속속 결성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설립 과정을 거쳐 1991년 4월 30일 순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과 팔마실내체육관 준공식에 참석한 박철언 체육청소년부 장관과 백형조 전남도지사 등이 전남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현판식을 개최했다. 현판식 다음날 1991년 5월 1일부터 전남생활체육협의회는 순천시 연향동 771(순천시 팔마로 333번지) 순천 올림픽기념 생활관 2층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정부는 전국 광역 시·도에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1곳씩을 신축, 지자체에 넘겼으며 전남의 경우, 순천에 들어섰던 것이다. 여수 출신인 박병열 회장이 취임한 후 여수 진남체육관으로 전남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옮겨 지내다 2006년 8월 순천 청암대 부근 민간 음식점 건물로 이전하게 된다.

이 때 많은 비로 수해를 입어 마침 지하에 보관 중이던 각종 공문서 등 전남생활체육협의회 관련 문서와 기록들이 대거 유실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후 당시 노관규 순천시장의 도움으로 당초 사무실이었던 순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3층으로 다시 복귀했다. 2016년 전남체육회 통합에 따라 순천 시대를 마감하고, 무안 남악으로 이전했다.

순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체육부가 서울 올림픽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올림픽 성공을 후대에 전승 기념하고 체육·문화·예술 등 다목적 시설로 지역사회 체육활동의 중심 무대로 전국 시·도 단위에 1개 씩 건립한 것이다. 순천 올림픽기념생활관은 1989년 10월 40억3천만 원을 들여 순천시 덕연동 연향별 팔마경기장 입구, 여수~순천 간 국도변 부지 1만100여㎡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7,254㎡ 규모로 완공한 현대식 건물이다.

전남생활체육협의회는 순천 → 여수 → 순천 → 무안으로 이어지는 잦은 이사와 수해까지 입는 등 열악한 사무 환경 속에 지냈다. 특히, 출범 초기에는 회비와 사업도 없이 도비 100%, 국민체육진흥기금 일부 보조에 의존하다보니 사무처 직원들이 3개월 이상 봉급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는 2009년 7월 16일 '전라남도생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6년 2월 26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합친 통합 '전라남도체육회'를 출범시킨 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 전남도청 옆 전라남도체육회관에 새 동지를 틀었다.



2) 일자로 본 전남생활체육협회 경과

- '90. 08. 22 : 발기인 대회 (전남도청 회의실)
- '90. 08. 22 : 전라남도, 시·군생활체육회 결성
 - 초대 회장 (이 윤 채)
 - 사무실 임대운영(순천시 연향동 771 순천 올림픽기념 생활관 2층)
 - 27개 시·군생활체육회 구성
 - 5개 도종목별연합회 구성(궁도, 배구, 축구, 탁구, 테니스)
- '91. 05. 01 : 현판식 및 사무처 개설
- '91. 06. 17 : 생활체조, 게이트볼, 배드민턴 연합회 결성
- '92. 07. 30 : 윈드서핑 연합회 구성
- '92. 11. 01 : 족구 연합회 구성
- '93. 09. 23 : 정구 연합회 구성
- '93. 12. 17 : 볼링 연합회 구성
- '95. 01. 01 : 시·군 행정조직 통합(24개 시·군생활체육회)
- '96. 03. 29 : 제3대 이봉길 회장 취임
- '97. 12. 10 : 제4대 김정현 회장 선출
- '97. 12. 29 : 제4대 회장 취임식
- '98. 04. 01 : 여수시·여천시·여천군
 - '3여(麗)'시·군 행정조직 통합(22개 시·군생활체육회)
- '99. 05. 03 : 낚시연합회 구성
- '99. 05. 04 : 등산연합회 구성
- '99. 05. 25 : 골프연합회 구성
- '99. 06. 09 : 농구연합회 구성
- '99. 06. 18 : 씨름연합회 구성
- '99. 06. 29 : 패러글라이딩연합회 구성
- '99. 07. 02 : 국학기공연합회 구성
- '99. 08. 12 : 검도연합회 구성
- '99. 12. 03 : 줄다리기연합회 구성
- '00. 01. 31 : 제5대 김정현 회장 선출
- '00. 03. 17 : 육상연합회 구성
- '00. 11. 09 : 태권도연합회 구성
- '01. 09. 26 : 택견연합회 구성
- '01. 10. 16 : 자전거 연합회 구성
- '03. 04. 30 : 보디빌딩연합회 구성
- '03. 05. 24 : 합기도연합회 구성
- '04. 03. 11 : 제6대 박병열 회장 선출



- '05. 10. 07 : 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구성
- '06. 10. 19 : 제7대 김한중 회장 선출
- '08. 02. 27 : 제8대 이탁우 회장 선출
- '08. 04. 01 : 당구연합회 구성
- '08. 10. 15 : 파크골프연합회 구성
- '08. 10. 15 : 승마연합회 구성
- '08. 10. 15 : 야구연합회 구성
- '09. 02. 23 : 풋살연합회 구성
- '09. 02. 23 : 소프트볼연합회 구성
- '10. 03. 24 : 철인3종경기연합회 구성
- '10. 03. 24 : 댄스스포츠연합회 구성
- '10. 04. 15 : 그라운드골프연합회 구성
- '10. 09. 06 : 민속밸리댄스연합회 구성
- '10. 09. 06 : 윈드서핑연합회 재구성
- '10. 11. 25 : 수영연합회 구성
- '10. 12. 30 : 전라남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정
- '11. 08. 16 : 피구연합회 구성
- '11. 08. 16 : 수상스키 웨이크보드연합회 구성
- '12. 02. 10 : 제9대 이탁우 회장 선출
- '12. 12. 21 : 요가연합회 구성
- '13. 01. 08 : 전남 순천시와 업무협약 체결
- '13. 03. 12 : 전남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
- '13. 07. 04 : 전남 완도군과 업무협약 체결(해조류박람회 홍보)
- '13. 07. 16 : 전라북도생활체육회와 업무협약 체결
- '13. 08. 20 : 경기도생활체육회와 업무협약 체결
- '13. 09. 03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 '13. 10. 08 : 도민생활체육대회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으로 변경
- '14. 02. 17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결과발표(전남 1위)
- '15. 02. 27 : 제10대 허정인 회장 선출
- '15. 03. 27 : 생활체육진흥법 신규 제정
- '15. 07. 02 :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15. 07. 30 : 줄넘기연합회 구성(인정단체, 임원인준 '15.08.18)
- '15. 07. 30 : 특공무술연합회 구성(인정단체, 임원인준)
- '15. 10. 02 : 카누연합회 구성(인정단체, 임원인준)

3) 전남 생활체육의 발전

1991년 5월 1일 출범 이후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는 조직과 제도를 갖춰 각종 생활체육 사업 활성화와 생활체육을 통한 국내 · 외 동호인들과의 교류 활동까지 전남도민의 건강한 체력과 삶의 모습이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데 앞장섰다. 2010년 12월 30일『전라남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제정해 전남 생활체육 진흥에 대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은 물론 시대적 흐름과 행정 조직의 변화에 발맞춰 전남이 생활체육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995년 1월 1일자로 전남 시 · 군 행정조직 통합에 맞춰 24개 시 · 군생활체육회 체제로 바꾼 뒤 1998년 4월 1일부로 여수시 · 여천시 · 여천군 이른바'3여(麗)'가 통합 여수시로 바뀌는 시 · 군 행정조직 개편에 맞춰 다시 22개 시 · 군생활체육회로 변경됐다.

2014년 2월 17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의'국민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결과, 전남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전남이 생활체육을 주도했다는 반증이었다.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각종 클럽대항 대회를 포함 양과 질에서 전남이 생활체육을 선도하고 있다. 전남 생활체육은 '전남도민생활체육대회' ·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 '전남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 및 시 · 군 단위 생활체육 대회 개최와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등 세대별 · 지역별 · 종목별 생활체육 경기대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매년 개최 · 지원했다.



▲ 전남 도민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한 마당 잔치인 전남도민생활체육대회는 1997년 강진 대회 때부터 전남도민의 날 행사와 동시에 개최돼오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도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 독립된 행사로 전환됐다. (사진은 2007년 제 19회 전라남도 도민 생활체육대회 목포 대회 모습)

전남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종합 한마당 잔치인 ‘제1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1990년 11월 2일 35개 종목에 걸쳐 나주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시·군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됐다. 1990년 첫 대회 때부터 개최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해온 개최 날짜는 1996년 ‘전남도민의 날’을 10월 25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된 후 1997년 제9회 강진 대회 때부터 매년 10월 25일부터 이틀 간 고정된 일정으로 개최하게 됐다.



▲ 서울, 대구, 경북, 경남 등 국내 타 도시와 우호교류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했다.(사진은 2017년 제29회 전남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한 서울 생활체육 동호인들)



▲ 일본, 중국 등 해외 도시 생활체육 동호인들과도 친선경기와 상호 교차 방문 등 우호교류 활동을 벌였다.(사진은 2007년 전남을 방문한 중국 단둥시 생활체육 동호인들)

생활체육을 통한 국내·외 우호 교류도 활발했다. 2005년 제17회 고흥 대회 때 서울 동호인들의 참여로 타 시·도와의 교류가 처음 시작됐다. 지자체 우호 협력 차원에서 시작된 전남과 서울 생활체육 교류전은 양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의 친선경기와 함께 문화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지역 간, 종목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양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이후 대구·경북과도 교류를 넓혀갔다. 2011년 제23회 광양 대회 때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동호인들이 참여한 이후 중국 단둥 등 해외 도시들과도 교류를 확대했다.

1990년 제1회 대회 때부터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로 사용해 온 대회 명칭은 ‘전남생활체육대축전’으로 변경 후 2013년 제25회 해남 대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6년 제28회 진도 생활체육대축전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두 단체의 통합 후 (통합)전남체육회가 주최한 첫 대회로 양 단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새로운 조직으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됐다.

어르신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도모와 함께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취지 아래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은 2006년 제1회 순천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계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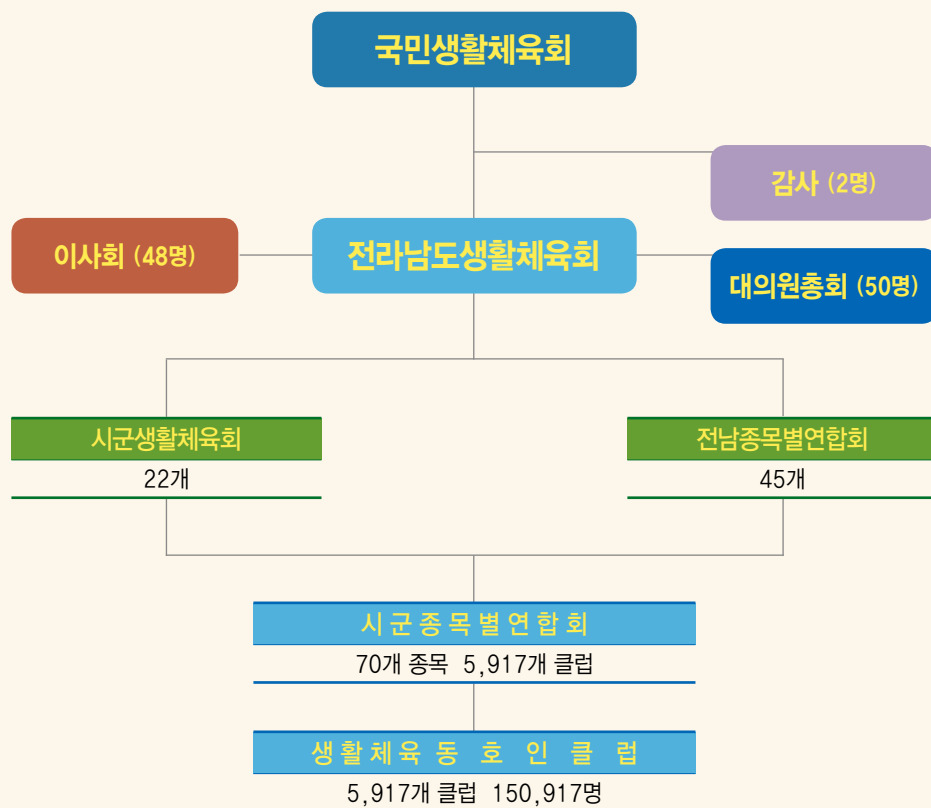
어린이들의 성장과 건강, 전인적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창설된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도 2016년 화순 대회 때부터 매년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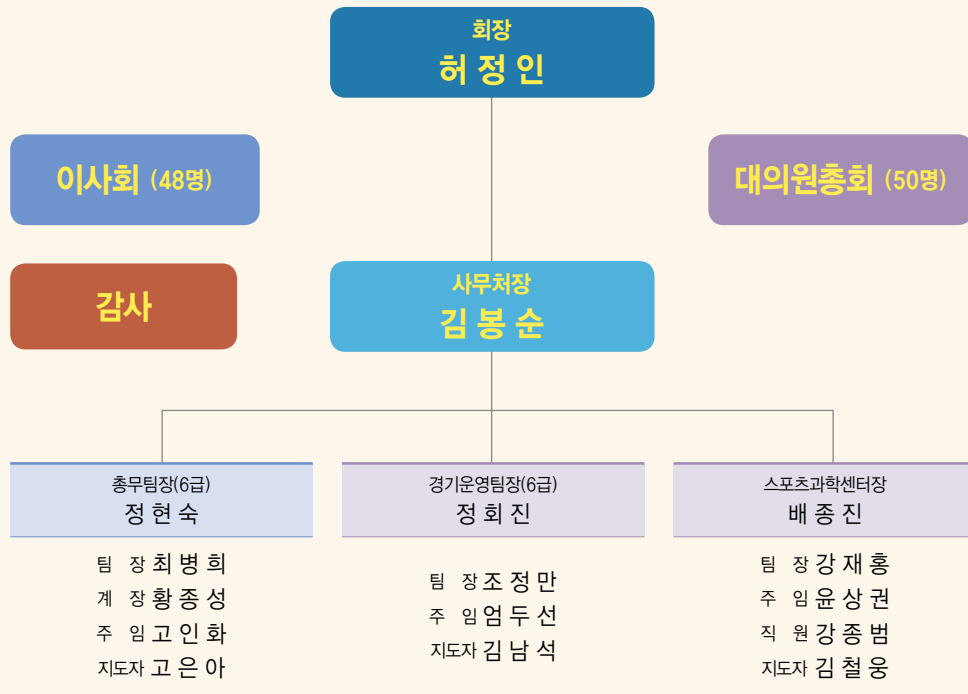
2) 전남생활체육회 역대 사무처장

성명	주요 경력	재임기간
박종옥	전) 민정당 사무국장	1990. 05. 01 ~ 1996. 03. 25 (5년 10월)
서경국	전) 개인사업	1996. 05. 27 ~ 1996. 08. 20 (2 월)
하어룡	전) 순천시청 공무원	1996. 12. 09 ~ 1998. 11. 30 (1년 11월)
정규석	전) 순천경찰서 경찰공무원	1998. 12. 18 ~ 2001. 08. 03 (2년 7월)
허희만	전) 배구청소년 국가대표	2001. 09. 29 ~ 2004. 06. 25 (2년 8월)
한상울	전) 전남씨름연합회 사무국장	2004. 07. 07 ~ 2004. 10. 04 (2 월)
정태호	전) JC회장	2004. 10. 05 ~ 2007. 07. 13 (2년 9월)
정건배	전) 5.18부상자회장	2008. 04. 01 ~ 2012. 07. 31 (4년 4월)
김봉순	전) 전남태권도연합회 부회장	2012. 08. 10 ~ 2016. 05. 19 (3년 9월)

3) 전남생활체육회 조직



4) 사무처 기구표



■ 인 원

구 분	계	임 원 (사무처장)	4~5급 (팀 장)	6~7급 (계장, 직원)	8급 (직원)	계약직 (팀장)
전남생활체육회 직원	10	1	2	4	2	1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정원 : 110명 현원 : 107명 결원 : 3명			도생체회 2, 시군 105		
어르신전남생활체육지도자	정원 : 131명 현원 : 125명 결원 : 6명			도생체회 1, 시군 124		

직원채용 :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용

※ 인사위원회

- 인 원 : 5인 이상 9인 이내
- 구 성 : 사무처장(위원장), 도 생활체육담당(당연직), 직원 및 이사 중 회장이 임명



5) 역대 임원현황

※ 1990년 ~ 2006년 자료는 홍수피해 등으로 소실됨

년 도	직 위	성 명	비 고
1990. 08. 22 ~ 1995. 12. 31	회장	이윤채	
	이사(사무처장)	(박종옥)	
	회장	이봉길	
	이사(사무처장)	(서경국)(하어룡)	
2018. 09. 28 ~ 2020. 01. 20	회장	김정현	
	이사(사무처장)	(정규석)(허희만)	
	회장	박병열	
	이사(사무처장)	(한상율)(정태호)	
1993.03.05 ~ 1993.12.28	회장	김한중	
	(수석)부회장	(백낙천) 김점용 김준성	
	이사(사무처장)	(정태호) 강세기 김군삼 김기중 김동희 김봉순 김성복 김순빈 김승호 김양석 김옥현 김종렬 김철신 김현철 류근기 문승래 문종열 박문규 박인섭 박종선 박지현 배철호 백고운 송대수 송인석 신경수 안재민 원수철 이옥성 이정호 임경준 전용덕 정휴진 천복자 한창국 허승업	
	감사	김정현	
	회장	허정인	
	(수석)부회장	김영대 김재근 남은오 박용수 송재인 안정민 이관용 장성수 전조일 조준성 최영열 송진호 신용원 전병옥	
	이사(사무처장)	(김봉순) 김규중 김문호 김성환 김영래 김점중 김정곤 김재길 김태수 김현준 나일훈 문병일 문승래 문정현 박명희 박문규 박인권 백형집 신재준 안경한 윤후남 이교생 이대호 이동원 이동현 이상원 장경순 장만우 정병욱 최정수 황의준 나정수 장길선	
	감사	강학 양효석	

6) 생활체육 주요 업무

(1)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어르신 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100세 시대 스포츠를 통한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개최종목은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산악, 정구, 체조, 탁구 등 8개 종목에 전남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참가할 수 있다. 대회 규모는 22개 시·군 선수와 임원, 영·호남 우호교류 차원에서 방문하는 경상북도 선수단 70명을 포함 총 2,000여명 수준이다. 사업비는 도비와 기금을 합쳐 8천만 원.

(2)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전남도민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고 시·군 간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 발전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의 영위, 도민의 우정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 개최하고 있다. 참가대상은 전남에 주소를 둔 생활체육 동호인이면 참가할 수 있다. 개최종목은 검도,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볼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산악, 수영, 씨름, 야구, 육상, 소프트테니스, 족구, 축구, 체조,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합기도, 농구, 줄다리기 등 22개 종목이다. 참가 규모는 전남 22개 시·군 선수 6,000명, 도민 15,000명을 합쳐 21,000명 규모이다. 사업비는 도비 2억3천만 원.

(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생활체육을 통해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동호인 조직 활성화를 위해 매년 순회 개최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시·도 지자체 홍보 역할도 겸하고 있어 전남 대표 선수단도 매년 참가하고 있다. 개최종목은 정식종목 41개, 시범종목 3개를 포함 44개 종목이다. 사업비는 도비 2억7천여만 원.

(4) 전라남도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어린이들의 성장과 건강, 전인적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매년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대회 규모는 학생, 인솔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전남 22개 시·군에서 1천명이 참가한다. 사업비는 5천만 원.

(5) 생활체육 우호교류 추진



▲ 타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 간 우호 증진 및 종목별 교류 활동이 매년 교차방문하는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제13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여수)에 참가한 경북 대표단을 환영하는 모습)

생활체육 우호교류 사업은 지역별 어르신들 간 지역 화합과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교류를 중심으로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병행하고 있다. 교류단체는 경상북도체육회, 서울특별시체육회, 제주도체육회 3곳으로 경상북도체육회와 교류는 5월에 전남으로 초청하고 6월에는 경북을 방문한다. 서울특별시체육회와의 교류는 격년제로 5월에 서울을 방문한다. 사업비는 8천만 원.

(6) 종목별 전국(전남)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전통종목과 생활체육의 종목 활성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동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 개최를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씨름을 비롯 게이트볼,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탁구 등 6개 종목에 걸쳐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실시된다.

(7) 생활체육 안전교실 운영(공모)

스포츠 안전을 기반으로 청소년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 활동을 위한 종목별 올바른 안전지식 기초 이론·실습교육 제공을 통한 안전한 스포츠교육 및 이벤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한다. 이 사업은 스포츠안전재단 사업 지침에 의거, 청소년의 수준을 고려, 체험활동을 통해 안전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종목을 구성하고 안전대책, 모집규모, 일정 등 기본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여 캠프 수준이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8) 시·군체육회 운영 지원

전남 22개 시·군체육회 소속 사무국장의 상근직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책임성을 높여 사무국 안정과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시·군체육회 당월 100만원씩 연간 2억6,400만원 규모다. 대한체육회 기금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하되 시·군체육회가 효율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9)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원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활체육 보급 및 신규 프로그램 전파를 통한 도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일반지도자 120명을 비롯 어르신지도자 134명, 레저 지도자 2명, 유소년 지도자 1명을 포함 모두 257명. 이들 지도자들은 모두 시·군체육회 소속으로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증 소지자들이다.



▲ 종목별 생활체육 지도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2017년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열린 전남생활체육 지도자 워크숍)

전남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및 관리 감독을 비롯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생활체육지도자 응급처치(심폐소생) 교육을 개최한다. 현장지도 점검 결과와 전남체육회 주관 교육 참가 실적 등을 평가해 연말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한다. 사업비는 2천만 원.

(10) 유아 체육활동 지원

생애 주기별 체육활동의 근간이 되는 유아기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활체육 실현을 위해 연령별 발육 발달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를 통해 유아의 성장과 건강, 전인적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전남 17개 시·군 36개 유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업내용은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를 외부강사로 채용, 파견해 유아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유아 운동용품 지원과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유아체육지도자 워크숍’에도 참가한데 이어 사업기간 중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11)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 전남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체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보성군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어르신들이 집단체조를 하고 있는 모습)

고령화시대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건강한 체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원한다. 2021년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은 당초 전남 도내 복지관 등에서 대면 수업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 ‘어르신을 위한 비대면 체육활동’으로 변경하여 비대면 방송으로 대체한다. 이에 따라 ‘홈트레이닝’,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비대면 영상’, ‘어르신 운동종목 소개’, ‘인물다큐 밀착취재’, ‘건강관리법’ 등 총 5부작으로 구성된 비대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한다. 사업비는 5천100만원.

(12)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 운영 지원(공모)

학교체육시설을 방과 후 또는 휴일 등 유휴 시간대에 개방함으로써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를 위해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 운영을 공모 형태로 지원한다. 2021년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전남 10개 시·군 3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방과 후 또는 휴일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사업을 펼쳐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여
가고 있다. (사진은 장흥군 장평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함께 운동해요!’ 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역주민들이 생활 체조를 익히고 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 사업 운영 절차는 시·군 개방학교 선정 → 관리매니저 채용 → 시설 사용 계약 → 운영진 확보 → 3 ~ 12월 근무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채용된 관리매니저는 대한체육회 주최의 연수교육을 받은 뒤 현장에 배치된다. 학교체육시설은 시·군체육회장(공공스포츠클럽회장)과 학교장 간에 시설 사용료, 사용 범위 및 책임 범위 등을 명시한 사용허가서를 작성·날인한 계약을 체결 한 뒤 사용할 수 있다. 시설사용 계약이 끝나면 사업담당자, 관리매니저, 파트타임 지도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운영진을 확보, 파견된 관리매니저를 중심으로 관리하되 매월 실적 보고와 현장 점검·관리를 받게 된다. 사업비는 7억 7,170만 원.

(13)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공모)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 육성 및 학교·생활·엘리트체육의 연계 발전을 통한 스포츠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다. 2021년의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 다계층의 회원에게 다양



한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대도시형’ 13개, ‘중소도시형’ 8개를 포함 총 21개소의 신규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공모한다. 보다 많은 스포츠클럽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체육회 - 시·군체육회 - 해당 스포츠클럽 간 긴밀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2015년 영암 1곳을 시작으로 2016년 곡성 1곳, 2017년 나주, 순천, 광양, 여수 1곳씩 4곳, 2018년 영광, 진도, 강진, 보성, 해남 각 1곳씩 5곳, 2019년 구례 1곳과 2020년 목포 1곳, 2021년 화순 1곳이 추가돼 총 14곳의 종합형 클럽이 설립돼 ‘중소도시형’기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공모사업은 ‘대도시형’(인구 20만 명 이상)은 1개소 당 9억 원(설립부터 9억 원, 5년간 분할 지원), ‘중소도시형’(인구 20만명 미만)은 1개소 당 6억 원(설립부터 6억 원, 5년간 분할 지원)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3억6,600만원. 이 공모사업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클럽에 대해 설립부터 5년간만 운영비를 지원한 뒤 5년이 경과되면 운영비를 스스로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국비 지원이 끝나는 5년차 이상 클럽에 대한 회비 또는 기업 후원과 같은 자구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전남체육회는 ‘1시·군 1스포츠클럽 육성 정책’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전남 지역에 클럽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설립된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클럽 유형에 ‘학교 연계형’의 신규 클럽 유형을 추가할 방침이다. ‘(삭제)학교 연계형 클럽은 운영 유지가 곤란한 학교운동부를 공공 스포츠클럽이 승계,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한편 ‘전문체육-생활체육’ 연계를 위해 일반학생 대상 취미반을 병행 운영하는 형태의 클럽이다. 이와 함께 신규 클럽 기금 지원 기간을 총 지원 규모는 유지하되, 지원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표 15〉 전남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2021. 1월 현재)

클럽명	선정연도	설립주체	지원금	소재지	종목		비고
					생활체육	선수반	
세한	2015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중소 2억	영암	헬스, 탁구, 농구, 야구, 요가,	태권도, 농구, 야구, 축구	
곡성	2016	곡성군청 곡성군체육회	중소 2억	곡성	스쿼시, 축구, 태권도	복싱	
나주	2017	나주시청 동신대학교	중소 2억	나주	배드민턴, 축구, 배구, 풋살,	농구, 골프	
순천	2017	순천시청 순천시체육회	대도시 3억	순천	뉴스포츠, 체조	택견, 탁구, 배드민턴	
광양	2017	광양시청 광양시체육회	중소 2억	광양	축구, 농구, 골프, 배드민턴, 요가, GX	야구, 아이스하키	
여수	2017	여주시청 여주시체육회	대도시 3억	여수	배드민턴, 탁구, 축구, 필라테스, 스쿼시, 인라인, 택견, 탁구, 테니스	요트, 유도, 축구	

클럽명	선정연도	설립주체	지원금	소재지	종목		비고
					생활체육	선수반	
강진	2018	강진군청	중소 2억	강진	빙상, 테니스, 당구, 축구, 체조, 스포츠댄스	수영	
진도아리랑	2018	진도군청	중소 2억	진도	요트, 윈드서핑, 카약, 수영,	배드민턴	
영광	2018	영광군청	중소 2억	영광	배드민턴	수영	
해남	2018	해남군청	중소 2억	해남	축구, 수영, 테니스, 댄스스포츠, 탁구	수영, 축구, 탁구	
보성	2018	보성군청	중소 2억	보성	배드민턴, 탁구, 축구, 배구		
구례	2019	구례군청	중소 2억	구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수영		
목포	2020	목포과학대학교	중소 3억	목포	축구, 야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수영	
화순	2021	화순군청 화순군체육회	중소 1억5천	화순	배드민턴, 탁구, 생활체조	수영, 축구,	

(14) 학교스포츠클럽대회(청소년스포츠한마당) 운영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과 체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년 대상 스포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4월부터 12월 까지 9개월 동안 전남도내 일원에서 개최한다. 대상은 농구, 배드민턴, 볼링, 탁구, 축구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포츠한마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사업비는 1억8,340만 원.

전남체육회는 '시·군교육장배대회', '도교육감배대회', '청소년스포츠한마당' 등의 대회들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전담 코디네이터를 채용, 운영한다. 전남체육회는 전라남도교육청 - 시·군체육회 - 회원종목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15)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주 5일 수업 시행 이후 학생들의 토요일 스포츠·레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체력 강화와 함께 건전한 여가선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운영한다. 2021년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전남 초·중·고등학생들이 전남 일원에서 참여한다.



▲ 청소년들이 '1인 1체육'을 통한 생활체육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스포츠 강사를 선발,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사진은 화순에서 열린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강사 교육 모습)

운영방법은 주말체육학교 강사 교육, 학교 안 프로그램 30주 운영, 학교 밖 프로그램 30주 운영 등이다. 사업 규모는 2020년 기준 '학교 안 스포츠프로그램'이 344개소, '학교 밖 스포츠프로그램'이 183개소, '지역스포츠클럽 연계 프로그램'이 9개 클럽 67개 프로그램에 달한다. 사업비는 14억3,325만 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는 연 1회 이상 사업 운영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학생 대상 주말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행복한 삶을 위한 청소년의 1인 1체육으로 생활체육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공정한 채용과 절차로 우수한 토요일스포츠 강사를 선발,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

(16) 전국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기량 향상과 대회 참가를 통한 자부심을 고취하는 한편, 전국대회를 전남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와 전남 생활체육을 동시에 활성화하고자 전국대회를 유치·개최하거나 타 도시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71개 회원종목단체에게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7천만 원.

(17)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육성 및 대회 지원

생활체육 활동 참여 동기 유발과 동호인 간 교류 촉진, 종목단체 활성화 도모와 함께 생활체육 복지 혜택의 균등화 및 참여 기회 부여를 통한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과 대회에 참가하는 70개 회원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개최되는 종목단체 대회를 대상으로 대회 운영비와 전국(전남)대회 개최 및 참가 보상비와 같은 대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항목은 지원하지만, 종목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력을 확보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종목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사업비는 2억7,700만 원.

(18)전라남도지사기(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종목별 동호인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도 단위의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인 ‘도지사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검도, 사격,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낚시, 당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산악, 수영, 야구, 유도, 육상, 정구, 족구, 체조, 축구, 탁구, 테니스, 패러글라이딩, 합기도 등 24개 도 회원종목단체다. 사격과 야구는 두 차례에 걸쳐 대회를 개최한다. 사업비는 2억6,700만 원.

(19)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대회 운영 지원(공모)

종목별 시·군 지역 리그 정착을 통한 동호인 조직 활성화와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는 물론 시·군 단위 동호회의 수준별, 종목별 리그 도입을 통해 다세대, 다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리그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진행한다. 운영종목은 시·군별 1개 ~ 4개 종목을 목표로 시·군체육회 실정(동호회 규모, 리그 장소 및 심판진 확보 등)에 맞는 종목을 선정, 운영하게 된다. 사업비는 1억7,732만 원. 리그 참여 대상은 2020년 기준, 7개 시·군 12개 종목이다. 전남 지역별 리그 현황을 보면, 목포시(2개 볼링, 족구), 강진군(1개 배드민턴), 구례군(1개 배드민턴), 영광군(1개 볼링), 영암군(3개 골프, 볼링, 족구), 장성군(2개 족구, 볼링), 화순군(2개 볼링, 배드민턴) 등이다.

3. 전남 생활체육 주요사업 세부활동

1)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2006~2019)

급속한 고령화와 100세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어르신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도모와 함께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취지 아래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이 2006년부터 시작됐다.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은 전라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 22개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주관하되 전라남도,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2006년 9월 13일부터 이틀간 순천팔마체육관에서 5개 종목 5,000여명이 참가한 제1회 순천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계속돼오다 2020년 제15회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참가 대상은 전남에 주소지를 둔

만 60세 이상 동호인으로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산악, 정구, 체조, 탁구 등 8개 내외의 종목 경기와 레크레이션, 무료 건강검진, 스포츠 마사지, 특산물 판매장 부대행사도 함께 열렸다.



▲ 어르신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한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취지 아래 '전남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이 2006년 제1회 순천 대회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2007년 제2회 장성 대회 모습)

전남체육회와 전남 22개 시·군체육회는 일반 생활 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전담지도자 등을 배치, 건강 100세 시대에 도움이 되는 알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해당 지역 노인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과 병행해 서울, 경상북도체육회 어르신 동호인을 상호 초청, 그라운드골프·배드민턴·정구·탁구 종목 친선 경기를 펼치는 한편 타 시·도 동호인들은 대회 개최지 주변 관광명소를 둘러 보는 등 타 시·도 어르신들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건강한 어르신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9년 제14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의 경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고려해 종목을 선정하되 성별에 관계없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어르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를 활용한다는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이 같은 추진 방향에 따라 2019년 6월 4일부터 이틀간 영암실내체육관과 보조경기장에서 22개 시·군 임원 및 선수, 경상북도 선수단을 포함 2천여명의 어르신이 참가한 가운데 건강과 친목을 다졌다. 경기종목은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산악, 정구, 체조, 탁구 등 8개 종목, 레크리에이션으로 새끼꼬기 대결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밖에 부대행사는 무료 건강검진서비스, 무료 스포츠 마사지, 특산물 전시장, 먹거리 마당, 농·특산물 판매장등이 곁들여 운영되기도 했다. 제14회 영암 대회는 경상북도 어르신들을 초청, 영·호남 상호 화합과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한편, 2020년 제15회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득이 개최되지 못했다.

년도	장소	기간	종목/참가인원	예산액(천원)	비 고
2006(제1회)	순천시	9. 13.(수) ~ 9. 14.(목)	5/5,000	40,000	
2007(제2회)	장성군	11. 6.(화)	5/1,450	40,000	
2008(제3회)	완도군	11. 6.(목)	5/1,500	40,000	
2009(제4회)	고흥군	7. 2.(목)	6/1,637	40,000	
2010(제5회)	장흥군	7. 28.(수)	6/1,748	40,000	
2011(제6회)	화순군	5. 24.(화)	6/1,710	40,000	
2012(제7회)	무안군	7. 12.(목)	8/1,700	72,690	
2013(제8회)	해남군	4. 17.(수)	8/1,700	58,867	
2014(제9회)	구례군	4. 3.(목) ~ 4. 4.(금)	8/1,800	72,690	
2015(제10회)	무안군	4. 9.(목) ~ 4. 10.(금)	8/1,800	72,690	
2016(제11회)	진도군	4. 19.(화) ~ 4. 20.(수)	8/1,800	73,043	
2017(제12회)	순천시	4. 4(화) ~ 4. 5(수)	8/1,800	80,000	
2018(제13회)	여수시	11. 21.(수) ~ 11. 22.(목)	8/1,800	74,812	
2019(제14회)	영암군	6. 4.(화) ~ 6. 5.(수)	8/2,000	79,992	
2020(제15회)	코로나19 확산으로 未 개최				

2)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2001-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000년 5월 25~31일 전라남도 순천시와 여수시에서 전국 13개 시·도 7,500여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한일생활체육교류 및 제1회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배 전국 생활체육대회를 기반으로 시작됐다.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우의를 도모하는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 동호인 개개인의 명예와 성취감 고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간, 계층 간 우정과 화합을 통한 국민 참여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삼았다. 체육, 문화,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종합 축전으로 다양한 민속 경기를 채택해 전통놀이 문화 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매년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도시의 사회·문화·관광·경제 전 분야에 활력을 제고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생활체육 이벤트로 부상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 한마당축전’이라는 이름으로 2001년 6월 15일부터 사흘간 제주도에서 제1회 대회 개최를 시작했다.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회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축전은 정식 종목 14개 경기와 시범 종목 2개 경기가 치러졌다. 전국 16개 시·도 선수 및 임원 1만명을 포함 2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 규모는 확대되어 갔다. 제주에 이어 제2회 충청북도 청주, 제3회 경상남도, 제4회 광주, 제5회 충청남도 순으로 개최됐다.



▲ 전국 최대의 생활체육 한마당인 '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 전남 대표 선수단이 매년 참가하고 있다. 2000년 순천에서 제1회 전국 대회와 2006년 여수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사진은 2007년 울산 대회 모습)

전남에서 개최된 것은 2006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2006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흘간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 등에서 제6회 대회가 개최됐다. 제6회 여수대회는 여수시를 비롯해 순천, 광양, 나주, 목포, 보성 일원에서 종목별로 분산, 개최됐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의 염원을 담아 개최된 제6회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여수)은 전체 41개 종목, 정식 29개 종목이 치러졌다. 여수에서는 축구, 육상, 배드민턴, 정구, 탁구, 볼링, 배구, 검도, 생활체조, 자전거, 농구, 당구, 합기도, 패러글라이딩,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팅, 단학기공 등 25개 종목을 경기가 펼쳐졌다. 나주에서는 론볼, 사격 2개 종목, 순천에서는 야구, 테니스, 보디빌딩, 농구, 축구, 골프 등 6개 종목, 광양에서는 축구, 게이트볼, 풋살, 족구, 줄다리기, 그라운드 골프 등 6개 종목, 목포에서는 스킨스쿠버 1개 종목, 보성에서는 등산 1개 종목 등이 치러졌다. 대학 동아리가 참여한 2개 종목, 시범 5개 종목, 장애인이 참여한 4개 종목, 전시 1개 종목, 일본 선수단 175명이 참여한 10개 종목 등이 함께 치러졌다. 참가규모는 6만여 명의 선수 및 임원과 동호인이 참여하는 최대규모 대회로 기록됐다. 부대 행사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한마당, 전라남도 건강특산물 장터, 문화예술 한마당, 대학 동아리 시범 공연, 관람객 참가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제6회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경기 결과, 총 41개 종목 가운데 종합 1위는 경기도가 차지한 것을 비롯 전라남도과 서울특별시가 각각 2위·3위를 차지했다. 장려상은 제주도가 수상했다.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한 2020년 대회 직전 해인 2019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은 4월 26일부터 4일간 충청북도 충주종합운동장을 비롯 충북 일원에서 개최

됐다. 충북대회는 19회째 대회였다. 2019 충북대회는 39개 정식종목과 5개 시범 종목(야구 연식부 포함) 등 총 44개 종목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선수단 18,855명이 참가, 충북 11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됐다. 충북 대회는 동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출전 제한 규정(평균 3년)을 도입함에 따라 이 대축전에 출전한 동호인은 2022년 다시 참가할 수 있다. 충북 대회 기간 동안 9개 종목 166명의 일본 선수단이 국내 동호인과 함께 대축전 경기에 참가하기도 했다. 한편, 2019 충북 대축전은 생활체육을 통해 화합, 소통하고 건강과 행복을 고취하기 위한 축제인 만큼 결과와 순위와 관계없이 전국 시·도 선수단이 최고령상(2), 질서상(3), 경기운영상(3), 특별상(3), 경기력상(1), 성취상(1)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고루 수상했다. 부문별 집계 결과, 경기도가 경기력상을 수상한데 이어 전년대비 경기 성적이 가장 우수한 경상북도가 성취상, 개최 시도인 충청북도가 특별상을 받았다. 질서상은 경상남도(1위), 광주광역시(2위), 세종특별자치시(3위)가 차지했다. 경기 운영상은 대한탁구협회(1위), 대한육상연맹(2위), 대한당구연맹(3위)이 받았으며 대한택견회와 대한게이트볼협회가 특별상을 차지했다.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연도별 개최 및 참가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년도	기 간	참가인원	사업비	장 소	비 고
2001	6. 15.(금) ~ 17.(일)	43	110	제주도	
2002	4. 26.(금) ~ 28.(일)	32	70	충청북도	
2003	6. 14.(토) ~ 16.(월)	41	70	경상남도	
2004	5. 29.(토) ~ 31.(월)	56	90	광주광역시	
2005	5. 14.(토) ~ 16.(월)	58	120	충청남도	
2006	4. 14.(금) ~ 16.(일)	90	205	전라남도	개최
2007	6. 1.(금) ~ 3.(일)	82	170	울산광역시	
2008	5. 23.(금) ~ 25.(일)	81	170	대구광역시	
2009	5. 22.(금) ~ 24.(일)	86	170	전라북도	
2010	6. 11.(금) ~ 13.(일)	60	170	부산광역시	
2011	10. 28.(금) ~ 30.(일)	60	170	인천광역시	
2012	5. 11.(금) ~ 13.(일)	60	170	대전광역시	
2013	5. 23.(목) ~ 26.(일)	60	236	경상북도	어르신부 포함
2014	8. 22.(금) ~ 24.(일)	60	236	강원도	어르신부(8.21~22)
2015	5. 14.(목) ~ 17.(일)	60	236	경기도	어르신부(5.14~15)
2016	5. 26.(목) ~ 29.(일)	60	246	서울특별시	
2017	6. 8.(목) ~ 11.(일)	60	370	제주도	
2018	5. 10.(목) ~ 13.(일)	60	277	충청남도	
2019	4. 25.(목) ~ 28.(일)	60	277	충청북도	

* 2020년 : 코로나19로 인한 순연 개최

3) 전남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2017~2019)

전남체육회는 어린이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생활체육 활동 동기 부여는 물론 함께 즐기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간관을 고취시키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를 통해 어린이들의 성장과 건강, 전인적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을 2016년 창설한 뒤 이듬해부터 개최하기 시작했다.



▲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과 지도를 통해 어린이들의 성장과 건강, 전인적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이 2016년 창설 됐다. (사진은 2017 제1회 화순 대회 모습)

전라남도체육회가 주관한 '제1회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은 전남 22개 시·군 만 6세부터 초등학생 선수와 학부모, 임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7년 9월 24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됐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전남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은 어린이들이 운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특히, 생활체육 경연대회, 체험활동, 생활체육 활동의 세 분야에 걸쳐 음악줄넘기, 방송댄스, 태권로빅 경연대회 등이 열렸다. 전남 22개 시·군을 2팀으로 구성해 11개 연합팀이 풍선기둥세우기, 사랑의 타이타닉, 장애물 달리기, 단체 줄다리기 등의 경기를 펼쳤다. 2017년 4월 대한체육회가 주관한 생활체육 활성화 공모사업 '대회형' 분야에 전남체육회가 응모, 최종 선정돼 전국 최초로 유소년을 대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하게 됐다.



화순 대회에 이어 2018년 제2회 대회, '2018년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은 2018년 9월 29일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전남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선수 20개 시·군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 대축전은 유치부,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6학년)로 나뉘어 대회가 진행된 제1회 방식을 개선해,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은 채 협동심을 기르고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로 진행하는 대회 개최 취지를 살렸다. 제2회 대회는 제1회 대회 때 인솔에만 그쳤던 학부모들을 직접 대축전에 참여시켜 대축전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했다는 평가다. 이 결과, 제2회 강진 대회는 '태산봉 릴레이, 색판 뒤집기, 박터트리기, 서바이벌 깃발잡기, 홀라후프 왕 선발, 바구니 탑 쌓기, 바람 잡는 특공대, 흥부네 가족 릴레이, 단체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질과 양에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이날 개회식에는 안병옥 강진부군수를 비롯해 위성식 강진군의회 의장, 왕명석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심우천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 체육정책팀장 등이 참석했다.

2019년 '제3회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이 전남 16개 시·군 만 6세부터 초·중·고등학교 선수와 학부모, 임원 등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 9월 28일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지난 2017년 화순 첫 대회와 제2회 강진 대회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제3회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은 유년기부터 스포츠 참여로 지속적인 생활체육 연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1년마다 개최하고 있는 전남지역 어린이 생활체육 한마당 잔치다. 함께 즐기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이 대회는 파도타기 릴레이, 단체 줄넘기, 9개의 단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박철수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어린이들이 생활체육을 꾸준히 접하면서 평생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이 전남 생활체육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제4회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득이 개최되지 못했다.



4) 해외 생활체육 교류 현황

년 도	기 간	교류 장소	교류국	종 목	인 원
2007	5. 17. ~ 23.	여수	북건성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볼링	60명
	11. 2. ~ 5.	순천 팔마경기장	일본 시모노세키	전남-일본 친선 정구대회	100명
	11. 30. ~ 12. 4.	항주(절강성)	항주(절강성)	전남-중국 친선탁구대회	14명
2008	6. 20. ~ 27.	항주(절강성)	항주(절강성)	축구	26명
	11. 20. ~ 24.	항주(절강성)	항주(절강성)	탁구, 생활체조	31명
2009	4. 3. ~ 7.	북경(하북성)	북경(하북성)	축구	42명
	8. 13. ~ 17.	염성(강소성)	염성(강소성)	볼링	16명
2010	5. 27. ~ 31.	염성(강소성)	염성(강소성)	볼링	16명
	8. 26. ~ 30.	여수	염성(강소성)	볼링	20명
	11. 26. ~ 30.	상해, 소주, 항주	상해, 소주, 항주	축구	27명
	12. 8. ~ 11.	항주(절강성)	항주(절강성)	생활체조	20명
	12. 14. ~ 18.	심천(광둥성)	심천(광둥성)	테니스	15명
	12. 15. ~ 19.	순천 · 광양	상덕(호남성)	볼링, 배드민턴	9명
	12. 15. ~ 19.	순천 · 광양	상덕(호남성)	볼링, 배드민턴	9명
2011	6. 1. ~ 5.	상덕(호남성)	상덕(호남성)	태권도, 테니스, 탁구	25명
	6. 10. ~ 14.	여수 · 광양	호북성	볼링	20명
	10. 31. ~ 11. 2.	순천 · 광양	상덕(호남성)	축구	21명
	11. 3. ~ 7.	순천 · 보성	후쿠시마(일본)	생활체조	15명
2012	5. 31 ~ 6. 4	파타야	태국	볼링	16명
	6. 30 ~ 7. 4	호남성 상덕시	중국	축구	17명
	7. 20 ~ 7. 24	연변, 도문시	중국	테니스	16명
	8. 3. ~ 8. 6	키타큐슈	일본	생활체조	20명
	11. 2 ~ 11. 5	순천, 여수	중국	태권도	15명
2013	6. 14. ~ 17.	단동(요녕성)	단동(요녕성)	농구 등 3종목	64명
	12. 20. ~ 23.	오사카(일본)	오사카(일본)	검도	30명
2014	8. 28. ~ 9. 1.	연길, 도문(중국)	연길, 도문(중국)	테니스	10명
	9. 20. ~ 24.	단동(요녕성)	단동(요녕성)	농구 등 3종목	36명
	9. 26. ~ 30.	상덕(호남성)	상덕(호남성)	탁구 등 2종목	25명
2015	상반기(4일)	단동(요녕성)	단동(요녕성)	농구 등 3종목	40명
	상반기(4일)	상덕(호남성)	상덕(호남성)	탁구 등 2종목	40명
2016	10. 16. ~ 20.	단동, 대련(요녕성)	단동, 대련(요녕성)	게이트볼	40명
2017	8. 4. ~ 7	키타큐슈(일본)	키타큐슈(일본)	체조	23명
	12. 9. ~ 13	강진	괌(미국)	볼링	80명

5) 국내 타 시·도 생활체육 교류 현황



(1) 전남-서울 생활체육 교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년 도	구 분	일 시	종 목	인원	사업비	장 소
2005	참 가	5.21 ~ 5.22	배드민턴, 탁구, 축구, 테니스	50	20	서울(효창)
	초 청	10.24 ~ 10.26	배드민턴, 탁구, 축구, 테니스	47	10	여수
2006	참 가	9.16 ~ 9.18	볼링, 탁구, 축구, 배드민턴	52	20	서울(목동)
	초 청	10.24 ~ 10.26	볼링, 탁구, 축구, 배드민턴	62	10	강진
2007	참 가	5.12 ~ 5.14	볼링, 탁구, 축구, 족구	62	20	서울(목동)
	초 청	10.24 ~ 10.26	볼링, 탁구, 축구, 족구	60	10	목포
2008	참 가	5.31 ~ 6. 2	볼링, 검도, 배구, 족구	60	20	서울(목동)
	초 청	10.24 ~ 10.26	볼링, 검도, 배구, 족구	65	10	영광
2009	참 가	4.25 ~ 4.27	당구, 검도, 배구, 테니스	65	20	서울(목동)
	초 청	10.24 ~ 10.26	당구, 검도, 배구, 테니스	65	10	해남
2010	참 가	4.17 ~ 4.19	당구, 검도, 배구, 테니스	65	20	서울(목동)
	초 청	10.24 ~ 10.26	당구, 검도, 배구, 테니스	65	15	순천
2011	참 가	4.23 ~ 4.25	골프, 당구, 등산, 야구	67	20	서울(목동)
	초 청	10.24 ~ 10.26	골프, 당구, 등산, 야구	65	15	광양
2012	참 가	4.21 ~ 4.23	골프, 등산, 정구, 패러글라이딩	65	20	서울
	초 청	10.24 ~ 10.26	골프, 등산, 정구, 패러글라이딩	65	15	화순
2013	참 가	4.27 ~ 4.29	게이트볼, 농구, 정구, 패러글라이딩	65	20	서울
	초 청	10.24 ~ 10.26	게이트볼, 농구, 정구, 패러글라이딩	65	20	해남
2014	참 가	9.12 ~ 9.14	게이트볼, 농구, 볼링, 탁구	65	20	서울
	초 청	10.24 ~ 10.26	게이트볼, 농구, 볼링, 탁구	65	20	구례
2015	참 가	8.15 ~ 8.17	배구, 볼링, 탁구, 테니스	65	20	서울
	초 청	10.24 ~ 10.26	배구, 볼링, 탁구, 테니스	65	20	무안
2016	참 가	4.23 ~ 4.25	게이트볼, 당구, 볼링	65	20	서울
	초 청	10.24 ~ 10.26	게이트볼, 당구, 볼링	65	20	진도
2017	참 가	5.13 ~ 5.14	게이트볼, 당구, 스쿼시, 파크골프	65	13	서울
	초 청	11.2 ~ 11.4	게이트볼, 당구, 스쿼시, 파크골프	65	20	순천
2018	참 가	9.28 ~ 9.30	검도, 배구, 스쿼시, 파크골프	72	20	서울
2019	초 청	10.24 ~ 10.26	검도, 배구, 스쿼시, 파크골프	70	20	영암



(2) 전남-경북 생활체육 교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년 도	구 분	일 시	종 목	인원	사업비	장 소
2015	참 가	6.3 ~ 6.5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70	20	경북(구미)
	초 청	10.26 ~ 10.28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70	20	무안
2016	참 가	5.10 ~ 5.12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70	20	경북(상주)
	초 청	4.18 ~ 4.20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70	20	진도
2017	참 가	6.19 ~ 6.21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70	20	경북(안동)
	초 청	4.3 ~ 4.5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70	20	순천
2018	참 가	6.20 ~ 6.22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70	20	경북(영천)
	초 청	11.20 ~ 11.22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70	20	여수
2019	참 가	5.15 ~ 5.17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70	20	경북(상주)
	초 청	6.3 ~ 6.5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70	20	영암

※ 전남생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우호 교류는 1991년 제1회 전남도 민생활체육대축전(순천)에 서울 생활체육 동호인 방문을 계기로 시작된 후 전남도 민생활체육대축전과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기간 중 교차 방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생활체육회는 대구생활체육회와 경북생활체육회와도 양 지역 생활체육대축전 행사에 상호 방문하고, 별도의 영호남친선생활체육대회도 개최했다.

이밖에 어르신 영호남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게이트볼 친선놀이 한마당, 영호남 친선 택견대회, 영호남 친선 역전경주대회, 전남-부산 조기축구회 등 영호남 도시 간 우호 교류가 진행됐다.

제3장 회원종목단체의 창립과 활동

개론

회원종목단체는 육상, 수영 등 전라남도체육회에 가입된 종목단체를 일컫는다.

2021년 8월말 기준 전라남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총 70개 종목이다. 정회원단체 57개(검도, 게이트볼 등), 인정단체 12개(벨리댄스, 카라테, 봅슬레이, 카바디, 에어로빅힙합, 피구, 요가, 줄넘기, e스포츠, 특공무술, 킥복싱, 테크볼), 관리단체 1개(보디빌딩), 제명단체 1개(태권도)이다.

전라남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아직까지 통합을 이루지 못한 태권도를 제외한 70개 단체라 할수 있겠다

전라남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가 처음부터 70개 단체는 아니었다. 1945년 9월 창립한 전라남도체육회와 1991년 5월 1일에 출범한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예 따라 지난 2016년 2월 26일 「전라남도체육회」로 통합, 창립되면서 전문·생활체육 종목이 합해져 70개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그후 2021년 12월에 킥복싱과 테크볼이 인정단체로서 막내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되었다.

특히, 57개 정회원단체는 전라남도체육회의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 파견 권한이 부여된다, 대의원총회는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과 집행부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전남체육회의 사업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회원종목단체는 전남체육회의 주요사업인 전남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등에 있어 최일선 주체라 할수 있겠다.

회원종목단체의 집행부는 임원 29명 이하(회장 포함)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으로 2021년 초 구성된 새 집행부의 임기는 오는 2025년 정기총회일 전일까지 이다

결론적으로 전남체육회의 활성화에 있어 회원종목단체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하겠다

특히 시도간의 자존심 경쟁무대인 전국종합체전(전국체전, 소년체전, 동계체전) 등의 우수성적 거양 역할 및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첨경인 각종 국내, 해외대회 개최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원종목단체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질 때 전남체육회의 위상 역시 그만큼 제고 될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2021년 민선1기 체육회장 출범과 함께 「체육회가 있어 도민이 행복하다」는 슬로건을 내건 전라남도체육회의 “장미빛 미래” 역시 활짝 열릴것으로 기대된다.



1. 전라남도검도회

1) 연혁

- 1986. 전라남도검도회 창립
(목포시 용당동 1069, 유달경기장 내)
- 1989. 4. 전남검도회관 준공(목포유달경기장 내)
- 1992. 제73회 전국체전 3위
- 1993. 전라남도회장기 검도대회 신설
- 1995. 4. 나주고 검도팀 창단
- 1997. 4. 장성고 검도팀 창단
- 1997. 제78회 전국체전 3위
- 1999. 사무실 이전(순천시 연향동 771번지, 올림픽기념관 3층)
- 1999. 8. 국민생활체육전남검도연합회 가입
- 2000. 제5대 회장 : 김웅기 회장 역임(전라남도교육감기 학생검도대회 시작)
- 2000. 11. 초당대 검도팀 창단
- 2008. 제89회 전국체전 1위
- 2008. 5. 제14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박동철(목포대)교수 국가대표 감독 참가
- 2013. 12. 20. 전라남도·오사카(일본) 생활체육 교류 참가
- 2013. 도지사배 생활체육 검도대회 신설
- 2013. 10. 2013 세계무도올림픽 박동철 검도 8단부 3위, 이강호 7단부 우승
- 2017. 1월 사무실 이전(순천시 팔마로 333, 올림픽기념관 2층)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1986 ~ 1988	황 경 연	최 석 우
제 2 대	1989 ~ 1992	정 순 태	최 석 우
제 3 대	1993 ~ 1996	임 응 철	박 동 철
제 4 대	1997 ~ 1999	김 용 신	김 지 천
제 5 대	2000. 09 ~ 2004. 12	김 웅 기	손 양 남
제 6 대	2005. 01 ~ 2006. 12	윤 중 구	박 영 우
제 7 대	2007. 01 ~ 2008. 12	서 진 원	박 영 우
제 8 대	2009. 01 ~ 2012. 12	임 중 현	임 인 택
제 9 대	2013. 01 ~ 2016. 12	정 현 진	이 광 철
제 10 대	2017. 01 ~ 2020. 12	주 종 광	최 대 욱
제 11 대	2021. 01 ~	장 동 우	김 창 근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총35명(회장1, 부회장12, 이사20,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총 8개 (초0, 중3, 고2, 대2, 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8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신안)

4) 주요행사

- 전라남도검도회 지도자 강습회
- 전라남도검도회 심판 강습회
- 전라남도검도회 춘계 정기 승단심사
-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최종 예선전
- 전국체육대회 평가전(1차)
- 전라남도지사기 검도대회
- 전라남도검도회 하계 정기 승단심사
- 전라남도교육감기 학생검도대회
- 전국체육대회 선수단 합동훈련
- 전국체육대회 평가전(최종)
- 전라남도 학생종합체육대회
- 전라남도검도회 추계 정기 승단심사
- 전라남도검도회 고단자 검도대회
- 전라남도검도회 검도인의 밤
- 전라남도회장기 검도대회

2.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1) 연 혁

- 1991. 6. 17.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게이트볼연합회 가입
- 1992.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신설
- 1992. 도지사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 신설
- 1993. 10. 10. 김용진 회장 취임
- 2013. 6. 14. 전라남도-단동(중국) 생활체육 교류 참가
- 2014. 9. 20. 전라남도-단동(중국) 생활체육 교류 참가
- 2015.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 참가
- 2016.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게이트볼협회)
- 1996. 10. 중국단동교류전, 경북초청 교류전 등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1993.10.10 ~ 1995.03.31	김 용 진	김 진 완
제 2 대	1995.04.01 ~ 1997.03.31	김 진 완	이 형 회
제 3 대	1997.04.01 ~ 1999.03.31	이 형 회	나 병 채
제 4 대	1999.04.01 ~ 2001.03.31	나 병 채	김 창 운
제 5 대	2001.04.01 ~ 2004.03.31	김 창 운	박 채 규
제 6 대	2004.04.01 ~ 2006.03.31	박 채 규	김 중 순
제 7 대	2006.04.01 ~ 2012.03.31	김 중 순	한 무 희
제 8 대	2012.04.01 ~ 2016.03.31	이 수 열	송 재 령
제 9 대	2016.04.01 ~ 2020.12.31	장 귀 남	김 일 호
제 10 대	2021.01.01 ~ 2024.12.31	김 영 선	김 일 호
제 11 대	2021. 01 ~	장 동 우	김 창 근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8명 (회장1, 부회장4, 이사11, 감사2)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2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 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 협회장기 여성게이트볼대회
- 원로동호인 게이트볼대회
- 강진청자배 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 1.2.3급 심판연수회
- 3급 신규 심판원응시 시험
- 시군임원 및 사무장 연수회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00 ~	장 호 성	
제 2 대	2007 ~	임 철 호	문 월 석
제 3 대	2010. 11 ~	김 영 대	정 재 용, 김 영 주
제 4 대	2012 ~	김 영 대	정 재 용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16. 11. 22 ~	이 현 교	홍 택 군
제 2 대	2019. 01. 04 ~	이 석	서 범 용
제 3 대	2021. 03. 08 ~	이 석	서 범 용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34명(회장1, 부회장6, 이사27)
- 선수육성현황 : 5개(중3, 고2, 대학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2개 시군(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도지사배 전국골프대회
- 전남협회장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 전남협회장배 학생 골프대회
- 코리아힐스 국제주니어 골프대회
- 순천만국가정원 승주CC배 미드아마추어 챔피언십

4. 전라남도국학기공협회

1) 연 혁

- 1999. 1. 1. 박상호 회장 취임
- 1999. 3. 4. 전라남도단학기공연합회 결성
- 1999. 7. 2.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국학기공연합회 가입
- 2000.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단학기공 경연대회 신설
- 2006. 4. 14~16. 국민생활체육대축전 국학기공대회개최(여수시 여도중학교)
- 2016. 5.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국학기공협회)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생활체육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99. 01 ~ 2002. 12	박 상 호	최 병 삼, 정 태 민
제 2 대	2003. 01 ~ 2006. 12	박 상 호	정 태 민, 정 동 순
제 3 대	2007. 01 ~ 2009. 12	최 관 옥	김 민 호, 정 숙
제 4 대	2010. 01 ~ 2012. 12	최 관 옥	정 숙
제 5 대	2013. 01 ~ 2016. 12	최 관 옥	정 경 아
제 6 대	2017. 01 ~ 2020. 12	정 태 민	안 광 자, 정 연 화
제 7 대	2121. 01 ~	정 태 민	정 연 화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7명(회장1, 부회장1, 이사13, 감사2)
- 시군중목단체 현황 : 6개 시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강진군, 영광군

4) 주요행사

- 전라남도협회장기 국학기공대회
- 국학기공 지도자 강습회, 심판강습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학기공대회

5. 전라남도공도협회

1) 연혁

- 1950. 3. 11 전라남도공도협회 창립(초대회장 최한영)
- 1990. 8. 22 생활체육전라남도공도연합회 가입
- 1990. 제71회 전국체전 2위
- 1992. 제73회 전국체전 3위
- 1993. 제74회 전국체전 2위
- 1996. 제77회 전국체전 2위
- 2002. 제83회 전국체전 3위
- 2003. 제84회 전국체전 1위
- 2004. 도지사배 생활체육 공도대회 신설



- 2006. 제87회 전국체전 1위
- 2008. 제89회 전국체전 1위
- 2016. 5.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공도협회)
- 2019. 제100회 전국체전 1위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50 ~	최 한 영	
제 2 대	1986 ~	김 동 훈	황 금 출
제 3 대	1989 ~	정 우 진	이 윤 형
제 4 대	1993 ~	나 종 수	김 만 홍, 박 청 삼
제 5 대	1997 ~	김 영 호	한 형 식
제 6 대	1998 ~	김 연 중	김 상 철, 김 제 창
제 7 대	2001 ~	박 노 회	윤 순 현
제 8 대	2005 ~	정 영 표	이 창 하
제 9 대	2007 ~	최 철 환	이 창 하
제 10 대	2011 ~	정 병 진	이 창 하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1950 ~	정 영 표	이 창 하
제 2 대	1986 ~	정 병 진	이 창 하
제 3 대	1989 ~	장 준 오	손 성 옥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07.26 ~ 2021.01	나 일 훈	노 길 홍
제 2 대	2021.03.15 ~	박 형 수	이 선 (업무대행)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32명(회장1, 부회장8, 이사21,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22개시군 43개정 1,300여명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2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32명(회장1, 이사31) / 대의원 20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0개 시·군 회원 1,956명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신안

4) 주요행사

- 도지사기 궁도대회 및 승단대회
- 협회장기 궁도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 전국궁도종별선수권대회 및 전국시도대항전
- 회장기 전국 궁도대회

7. 전라남도근대5종연맹

1) 연 혁

- 1984. 전라남도체육회 가입
- 1985. 제1대 전라남도근대5종연맹 김기태회장 취임
- 1984. LA 올림픽 고흥출신 강경효 출전
- 1988. 서울 올림픽 고흥출신 강경효 출전
-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나주출신 김인호 출전
- 1993. 제74회 전국체전 3위
- 1994. 제75회 전국체전 2위
- 1995. 제76회 전국체전 2위
- 1996. 애틀랜타 올림픽 광양출신 김미섭 출전
- 1996. 제77회 전국체전 2위
- 1998. 제79회 전국체전 1위
- 1998. 1. 전남도청 근대5종팀 창단
- 2002. 부산 아사안게임 광양출신 김미섭 3관왕
- 2005. 제86회 전국체전 3위
- 2008. 제89회 전국체전 3위
- 2014. 제95회 전국체전 2위
- 전국체육대회 근대5종 김인호, 김미섭 단체전 12연패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04. 09. 15 ~	장 만 원	한 상 민
제 2 대	2010. 12 ~	이 영 민	이 도 규
제 3 대	2014 ~	이 영 민	오 귀 석
제 4 대	2015. 10. 13 ~	이 재 평	오 귀 석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24명(회장1, 부회장1, 이사20, 감사2)
- 시군종목단체 현황 : 9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곡성, 장흥, 해남, 영광, 장성, 진도

4) 주요행사

- 도지사기 전국 바다낚시대회
- 협회장기 민물낚시대회

9. 전라남도농구협회

1) 연 혁

- 1947. 조선농구협회전라남도지부 창립(초대회장 강약찬)
- 1996. 3. 여천 중앙초 농구팀 창단
- 1999. 6. 9.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농구연합회 가입
- 2000. 제81회 전국체전 3위
- 2002. 1. 세한대 여자농구팀 창단
- 2004. 4. 초당대 농구팀 창단
- 2005.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농구대회 신설
- 2008. 제89회 전국체전 2위
- 2013. 6. 14. 전라남도 · 단동(중국) 생활체육 교류 참가
- 2013. 3. 여수화양고 농구팀 창단
- 2016. 6.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농구협회)



10. 전라남도당구연맹

1) 연혁

- 2006. 2. 전라남도당구협회 가입 (준가맹 승인)
- 2008. 4.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당구연합회 가입
- 2008.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당구대회 신설
- 2017. 3. 체육단체 통합 (명칭 : 전라남도당구연맹)
- 2017. 7. 2017 3쿠션 포르투갈 포르토 월드컵 김행직 우승
- 2017. 제98회 전국체전 2위
- 2018. 도지사배 전국 당구대회 신설
- 2018. 제99회 전국체전 3위
- 2019. 10. 2019 베겔 3쿠션 월드컵 김행직 우승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06.02.09 ~ 2008.02.04	김 영 욱	구 제 남
제 2 대	2008.02.04 ~ 2009.07.28	김 의 원	황 석 래
	2010.08.05 ~ 2011.03.29	부 회 장, 이 병 조	최 종 환
제 3 대	2011.03.29 ~ 2012.05.01	노 태 훈	최 종 환
제 4 ~5 대	2012.05.02 ~ 2016.01.07	임 채 운	황 석 래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08.04.01 ~ 2012.02.04	김 용 구	박 병 공
제 2 대	2012.02.04 ~ 2016.02.28	김 용 구	정 철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7. 02 ~ 2018. 02	백 진 욱	황 석 래
제 2 대	2018. 11 ~ 2020. 12	조 호 석	황 석 래
제 3 대	2021. 02 ~	조 호 석	김 태 완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3명(회장1, 부회장4, 이사6,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일반 28명



- 시군종목단체현황 : 20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전라남도연맹회장배 당구대회
- 전라남도도지사배 당구대회
- 전라남도최강자전 당구대회
- 영호남권 당구대회
- 문화체육장관기배 당구대회
- 어르신 당구대회
- 시군연맹 각종대회
- 심판강습회, 지도자강습회 등

11. 전라남도댄스스포츠연맹

1) 연혁

- 2004. 2. 19. 전라남도댄스스포츠경기연맹 창립총회
- 2004. 5. 17. 전라남도댄스스포츠경기연맹 박금술회장 취임
- 2005. 7. 28. 전라남도체육회 가입
- 2010. 3. 24.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댄스스포츠연합회 가입
- 2014. 9. 20. 전라남도 · 단동(중국) 생활체육 교류 참가
- 2016. 7. 29.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댄스스포츠연맹)
- 2019. 제100회 전국체전 1위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05. 07 ~ 2009. 02	박 금 술	박 성 주
제 2 대	2009. 02 ~ 2013. 01	박 금 술	박 성 주, 이 경 노
제 3 대	2013. 01 ~ 2016. 07	박 금 술	이 경 노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10. 03 ~ 2014. 03	임 정 심	조 선 희
제 2 대	2014. 03 ~ 2016. 07	임 정 심	노 미 애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07 ~ 2021. 01	김 재 웅	김 송 이
제 2 대	2021. 01 ~	김 재 웅	김 송 이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9명(회장1, 부회장4, 이사12,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2020년 기준 등록선수 45명
(초2명, 중11명, 고2명, 일반18명, 기타12명)
- 시군종목단체 현황 : 7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해남, 영암)

4) 주요행사

- 전라남도댄스스포츠연맹 도대표선발전
- 전국대회 주최(순천만국가정원배, 선사인배)
- 전문체육 트레이너 · 코치 강습회
- 생활체육 심판강습회 개최 등

12. 전라남도럭비협회

1) 연 혁

- 1964. 전라남도체육회 가입(김종혁 초대회장)
- 1992. 9. 순천공고 럭비팀 창단
- 1998. 3. 진도중 럭비팀 창단
- 2008. 제89회 전국체전 2위
- 2012. 제93회 전국체전 2위
- 2013. 1. 세한대 럭비부 창단
- 2014. 10. 진도실고 럭비팀 창단
- 2016. 6. 한국전력 럭비팀 전남 이적
- 2018. 제99회 전국체전 2위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61 ~	황 규 복	
제 2 대	1986 ~	허 재 호	유 몽 안
제 3 대	1990 ~	(공석)	유 몽 안
제 4 대	1993 ~	김 익 중	유 몽 안
제 5 대	1994 ~	김 시 웅	유 몽 안
제 6 대	1995 ~	조 진 희	유 몽 안, 김 계 진
제 7 대	1997 ~	박 무	김 계 진
제 8 대	1998 ~	정 철 웅	홍 준 희
제 9 대	1999 ~	박 양 경	홍 준 희
제 10 대	2000 ~	유 몽 안	이 성 보, 김 계 진, 장 태 영
제 11 대	2012 ~	한 상 원	장 태 영
제 12 대	2016. 08. 02 ~	한 상 원	장 태 영
제 13 대	2021. 01. 28 ~	김 화 영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9명(회장1, 부회장5, 이사11,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6개(중3, 고2, 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개 시군(함평군)

4) 주요행사

-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 전국레슬링종합선수권대회 겸 추계전국대학 레슬링대회

14. 전라남도롤러스포츠포츠연맹

1) 연 혁

- 1981. 전라남도체육회 가입(김영연 초대회장)
- 1987. 9. 송정롤러경기장 준공
- 1990. 제71회 전국체전 3위
- 1993. 5. 화순이양종고 롤러팀 창단
- 2005. 8. 2005 세계롤러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권다솔(여주시청)
10km 1위 / 중국 쑤저우 원허공원
- 2005. 10. 7.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가입
- 2006.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인라인스케이팅대회 신설



- 2015. 제96회 전국체전 2위
- 2016. 6.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인라인롤러연맹)
- 2017. 제98회 전국체전 3위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81 ~	김 영 연	
제 2 대	1986 ~	이 광 국	심 영 택
제 3 대	1988 ~	(공 석)	심 영 택
제 4 대	1999 ~	이 광 국	심 영 택
제 5 대	1992 ~	이 민 수	김 인 봉
제 6 대	2001 ~	임 완	김 인 봉
제 7 대	2007 ~	(공 석)	김 인 봉
제 8 대	2008 ~	임 완	김 인 봉
제 9 대	2009 ~	이 민 수	김 인 봉
제 10 대	2013 ~	이 민 수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10. 3 ~	오 정 우	김 종 원
제 2 대	2012 ~	오 정 우	서 문 정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7. 28 ~	김 호 두	김 인 봉
제 2 대	2021. 3. ~	김 호 두	김 갑 선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7명(회장1, 부회장3, 이사12, 감사1)
- 선수육성현황 : 9개(초3, 중2, 고2, 대학1, 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5개 시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4) 주요행사

- 전라남도협회장기 인라인스케이팅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여수세계롤러스피드선수권대회
- 전국남녀중별인라인롤러대회
- 전국남녀중별롤러경기대회
- 스피드국가대표 선발전
-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대항 롤러경기대회

15. 전라남도바둑협회

1) 연혁

- 1994. 4. 광주, 전남 아마바둑협회 창립총회
- 2005. 전라남도체육회 가입(염동인 초대회장)
- 2010. 세한대 바둑팀 창단
-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이세돌(단체전) 금메달
- 2016. 제97회 전국체전 1위
- 2017. 제98회 전국체전 2위
- 2017. 협회장배 바둑대회 신설
- 2019. 8. 중국(장시성) 청소년 스포츠교류 참가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05 ~	염 동 인	이 동 팔
제 2 대	2008 ~	이 만 구	기 명 도
제 3 대	2016. 07. 20 ~	이 만 구	기 명 도
제 4 대	2021. 03. 30 ~	이 만 구	기 명 도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5명(회장1, 부회장2, 이사11, 감사1)
- 선수육성현황 : 2개(중1, 고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2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4) 주요행사

- 협회장기 바둑대회

16. 전라남도바이애슬론연맹

1) 연 혁

- 2005. 전라남도체육회 가입(이재홍 초대회장)
- 2020. 10 전라남도체육회 바이애슬론팀 창단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05. 07. 28 ~	이 재 홍	김 상 욱
제 2 대	2016. 07 ~	김 정 균	김 상 욱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9명(회장1, 부회장2, 이사5, 감사1)
- 선수육성현황 : 2개(대학1, 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없음

4) 주요행사

- 도지사배 전국하계바이애슬론대회

17. 전라남도배구협회

1) 연 혁

- 1947. 전라남도체육회 가입(조규한 초대회장)
- 1990. 8. 22. 생활체육전라남도배구연합회 가입
- 1996. 3. 고흥과역초 배구팀 창단
- 1997. 2. 제10회 대만,아시아태평양 남녀고교배구초청전(목포여상우승)
- 1997. 3. 벌교상고 배구팀 창단
- 1998. 제79회 전국체전 1위
- 2000. 제81회 전국체전 2위
- 2002. 3. 목포과학대 배구팀 창단
- 2002. 5. 제3회 아시아챌린지컵 4개국 아시아 남자배구 최강전 개최(순천)
- 2006. 도지사배 생활체육 배구대회 신설
- 2008. 제89회 전국체전 3위
- 2010. 제91회 전국체전 3위
- 2013. 제94회 전국체전 3위



- 2014. 제95회 전국체전 2위
- 2016. 3. 체육단체 통합 (명칭 : 전라남도배구협회)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47 ~	조 규 한	
제 2 대	1986 ~	이 동 기	윤 봉 옥
제 3 대	1987 ~	김 동 건	윤 봉 옥
제 4 대	1988 ~	김 기 철	윤 봉 옥
제 5 대	1992 ~	이 석 재	서 태 원, 박 평 환 정 학 균, 최 영 일
제 6 대	2002 ~	이 호 균	이 재 운
제 7 대	2011 ~	천 경 태	서 은 원
제 8 대	2013 ~	오 승 재	서 은 원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1990. 8 ~	허 치 만	정 인 권
제 2 대	2008. 2 ~	허 치 만	조 재 만
제 3 대	2014. 2 ~	조 재 만	이 연 행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7. 13 ~	김 형 용	박 영 근
제 2 대	2021. 2. 15 ~	조 재 만	김 효 상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31명(회장1, 부회장7, 이사21,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12개(초4, 중2, 고3, 대학2, 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0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도지사기 배구대회
- 전라남도협회장기 배구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 재능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 CBS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 추계배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 대통령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 전국대학배구춘계대회
- 전국남녀 종별 배구선수권대회

18. 전라남도배드민턴협회

1) 연혁

- 1958. 전라남도체육회 가입(이창업 초대회장)
- 1991. 6. 17. 생활체육전라남도배드민턴연합회 가입
- 1992. 5. 순천대 배드민턴팀 창단
- 1994. 10. 히로시마아시안게임 여자단체 이흥순 금메달
- 1995. 1. 화순군청 배드민턴팀 창단
- 2002. 3. 2002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 개최(여수)
- 2005. 제86회 전국체전 2위
- 2005. 도지사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신설
- 2007. 전라남도 · 중국(복건성) 생활체육 교류 초청 / 여수시
- 2008. 베이징올림픽 혼복 이용대 금메달
- 2015. 전남 · 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 참가
- 2016. 3. 체육단체 통합 (명칭 : 전라남도배드민턴협회)
- 2018. 3. 세한대 배드민턴팀 창단
- 2019. 8. 중국(장시성) 청소년 교류 초청(영암)
- 2020. 10. 2021년~2023년 코리아오픈 월드투어 배드민턴세계선수권 대회 개최 업무협약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58 ~	이 창 업	
제 2 대	1986 ~	박 기 환	이 금 재
제 3 대	1987 ~	김 성 환	이 금 재
제 4 대	1988 ~	이 재 욱	이 금 재, 김 중 수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5 대	1991 ~	김 창 준	김 중 수
제 6 대	2002 ~	지 남 덕	김 중 수, 박 찬 응
제 7 대	2004 ~	이 금 재	박 찬 응
제 8 대	2009 ~	구 정 규	홍 상 혁, 박 찬 응
제 9 대	2011 ~	지 남 덕	박 찬 응
제 10 대	2013 ~	구 총 곤	공 형 성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04. 03 ~	함 광 열	김 기 석
제 2 대	2008 ~	강 미 숙	
제 3 대	2009 ~	최 장 식	김 영 섭
제 4 대	2014 ~	김 영 섭	조 성 훈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10. 05 ~	김 영 섭	공 형 성, 조 성 훈
제 2 대	2021. 01. 29 ~	박 계 옥	김 동 현, 박 종 훈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65명(회장1, 부회장8, 이사54,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11개(초3, 중3, 고2, 대학2, 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2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전라남도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 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 빅터코리아그랑프리골드 국제 배드민턴대회
- 빅터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 가을철 대학배드민턴 선수권대회
- 빅터 주니어오픈 국제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91 ~	이 태 형	임 중 식
제 2 대	1992 ~	이 동 민	임 중 식
제 3 대	1993 ~	이 정 민	임 중 식
제 4 대	1994 ~	임 중 신	임 중 식
제 5 대	2004 ~	양 명 권	임 중 식
제 6 대	2007 ~	조 병 문	임 중 식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03. 04 ~	이 경 우	전 진 완
제 2 대	2008. 03 ~	김 병 권	전 진 완
제 3 대	2012 ~	김 병 권	전 진 완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07 ~	손 철 문	전 진 완
제 2 대	2019. 01 ~	김 창 환 (권한대행)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명
- 선수육성현황 : 1개(일반 9명)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1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곡성, 화순, 장흥, 해남, 영광, 완도

4) 주요행사

- 도지사기 보디빌딩대회
- 전라남도협회장배 남녀 보디빌딩대회 겸 뷰티바디챔피언십, 피트니스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남협회장기 복싱대회
- 전국 중, 고, 대, 아마추어 복싱선수권대회
- 전국체육대회



22. 전라남도볼링협회

1) 연혁

- 1982. 전라남도체육회 가입(고재철 초대회장)
- 1993. 12. 17.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볼링연합회 가입(김광필 초대회장)
- 1994. 제75회 전국체전 2위
- 1995. 3. 광양시청 볼링팀 창단
- 2006. 제87회 전국체전 3위
- 2006. 도지사배 생활체육 볼링대회 신설
- 2007. 전라남도 · 중국(북건성) 생활체육 교류 초청 / 여수시
- 2008. 세계볼링선수권대회 최복음 한국최초 금메달(2관왕)
- 2009. 제90회 전국체전 3위
- 2010. 11. 광주아시안게임 최복음 금메달(3관왕)
- 2011. 제92회 전국체전 3위
- 2015. 제96회 전국체전 2위
- 2014. 제95회 전국체전 2위
- 2015. 12. 고흥군청 볼링팀 창단
- 2016. 4. 9.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볼링협회)
- 2017. 3. 전)전남볼링협회 김길두 대한볼링협회장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 2019. 제100회 전국체전 3위
- 2019. 12. 한려대 볼링팀 창단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82 ~	고 재 철	
제 2 대	1986 ~	서 거 원	반 봉 영
제 3 대	1988 ~	변 양 일	반 봉 영
제 4 대	1989 ~	김 영 근	반 봉 영, 최 상 순
제 5 대	1994 ~	황 재 우	최 상 순, 김 진 우
제 6 대	1997 ~	김 용 배	정 근 수
제 7 대	1998 ~	이 웅 평	정 근 수, 강 대 연
제 8 대	2001 ~	김 양 기	강 대 연
제 9 대	2002 ~	김 길 두	강 대 연
제 10 대	2005 ~	황 경 인	박 승 권
제 11 대	2007 ~	황 경 인	황 윤 성
제 12 대	2009 ~	김 삼 석	황 윤 성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1993. 12. 17 ~	김 광 필	한 영 구
제 2 대	1994. 12 ~	고 구 주	한 영 구
제 3 대	2000. 01 ~	천 복 자	한 영 구
제 4 대	2004. 06. 26 ~	이 몽 룡	박 종 남
제 5 대	2006. 02. 02 ~	강 의 수	박 종 남
제 6 대	2012. 01. 15 ~	정 경 주	박 종 남, 최 승 규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05. 08 ~	박 종 남	김 시 영, 최 승 규
제 2 대	2018. 02. 03 ~	박 종 남	김도형, 송 창 룡
제 3 대	2021. 02. 20 ~	박 종 남	김도형, 송 창 룡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21명(회장1, 부회장4, 이사14,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16개(초1, 중6, 고4, 대학2, 일반3)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2개 시군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전라남도도지사기 종별볼링대회
- 전라남도협회장기 종별 볼링대회
- 전라남도체육회장기 종별 볼링대회
- 국제우호교류 전국대회
-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볼링선수권대회



23. 전라남도빙상경기연맹

1) 연혁

- 2008. 6. 21. 전라남도빙상경기연맹 창립총회
- 2008. 6. 28. 박부영 초대회장 선출
- 2009. 2. 10. 전라남도체육회 가입(준가맹)
- 2013. 2. 21 전라남도사상 최초매달(쇼트트랙 · 동, 피겨 · 금)
- 2018. 3. 10. 대한빙상경기연맹 정회원 가입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08. 06 ~ 2012. 12	박 부 영	김 성 조
제 2 대	2013. 01 ~ 2016. 12	박 부 영	임 성 철
제 3 대	2017. 01 ~ 2020. 12	김 정 환	박 종 화
제 4 대	2021. 01 ~	김 정 환	박 종 화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5명(회장1, 부회장1, 이사12, 감사1)
- 선수육성현황 : 14개(초12, 중2)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개 시군(순천시, 광양시)

4) 주요행사

- 전라남도도협회장기대회, 선수선발전

23. 전라남도사격연맹

1) 연혁

- 1961. 전라남도체육회 가입(김정수 초대회장)
- 1987. 나주종합사격장 건립(제6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공기권총 여갑순 금메달
- 1995. 제76회 전국체전 3위
- 1996. 제77회 전국체전 3위
- 1998. 제79회 전국체전 2위
- 1999. 제80회 전국체전 3위



- 2008. 전남종합사격장으로 명칭 개칭(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 2010. 1. 세한대 사격부 창단
- 2014. 9. 인천아시안게임 장대규(25m속사권총단체) 금메달
- 2015. 7.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사격 경기장 활용
- 2016. 3. 전라남도국제종합사격장으로 명칭 개칭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61 ~	김 정 수	
제 2 대	1986 ~	김 영 호	김 신 근
제 3 대	1987 ~	정 철 준	김 신 근
제 4 대	1988 ~	홍 순 기	임 채 수
제 5 대	1991 ~	이 몽 열	임 채 수
제 6 대	1994 ~	김 응 서	임 채 수
제 7 대	2004 ~	임 노 덕	임 채 수, 정 연 택
제 8 대	2010 ~	임 채 수	정 연 택
제 9 대	2016. 07. 19 ~	임 채 수	문 경 한
제 10 대	2021. 01. 18 ~	심 재 현	문 경 한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8명(회장1, 부회장5, 이사10,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11개(중5, 고4, 대학1, 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9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전국실업단 자격대회
- 봉황기 전국사격대회
- 회장기 전국 중, 고등학생사격대회
- 전라남도도지사배 전국공기총사격대회
- 연합회장기 전국사격대회



25. 전라남도산악연맹

1) 연혁

- 1998. 1. 17. 전라남도산악연맹 창립(이상현 초대회장)
- 1999. 5. 4.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등산연합회 결성
- 2016. 7. 11.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산악연맹)
- 2012. 9. 15. 국제클라이밍월드컵대회 유치(목포)
- 2013. 도지사배 생활체육 등산대회 신설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98. 01 ~ 2016. 08	이 상 현	김 갑 중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1999. 01 ~ 2002. 12	김 종 선	
제 2,3 대	2003. 01 ~ 2010. 12	김 철 우	윤 동 일
제 4 대	2011. 01 ~ 2014. 12	이 일 호	윤 동 일
제 5 대	2015. 01 ~ 2018. 12	원 수 칠	윤 동 일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08 ~ 2020. 12	이 상 현	윤 동 일, 주 수 호
제 2,3 대	2021. 01 ~ 2024. 12	윤 성 명	윤 동 일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50명(회장1, 부회장13, 이사34,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일반부 2명(스포츠클라이밍)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9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영광, 함평, 무안, 영암, 강진, 장흥, 보성,
고흥, 해남, 완도, 진도, 담양, 화순, 장성, 곡성

4) 주요행사

- 도지사배 생활체육 등산대회
- 회장배 생활체육 등산대회
- 영호남 산악인 친선 등산대회
- 대통령기 등산대회
- 전국스포츠클라이밍선수권대회
- IFSC 스포츠클라이밍 월드컵대회

- 전국체육대회
- 전국 남녀 종별 세팍타크로대회



27. 전라남도소프트테니스협회

1) 연혁

- 1946. 2. 전라남도체육회 가입(송화식 초대회장)
- 1986. 8. 1. 차상록회장 취임
- 1993. 9. 23. 생활체육전라남도정구연합회 가입
- 1991. 제72회 전국체전 3위
- 1992. 5. 순천대 정구팀 창단
- 1993. 5. 순천여고 정구팀 창단
- 1998. 1. 전남도청 정구팀 창단
- 1999. 제80회 전국체전 1위
- 2001. 제82회 전국체전 1위
- 2002. 8. 부산아시안게임 유영동 금메달(3관왕)
- 2003. 제84회 전국체전 1위
- 2006. 도지사배 생활체육 정구대회 신설
- 2006. 제87회 전국체전 2위
- 2008. 제89회 전국체전 3위
- 2009. 제90회 전국체전 2위
- 2011. 제92회 전국체전 2위
- 2012. 제93회 전국체전 1위
- 2015.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 참가
- 2016. 7. 25. 체육단체 통합(명칭:전라남도정구협회)
- 2018. 제3회 순천 세계주니어 정구선수권대회유치(순천시)
- 2018. 8. 자카르타아시안게임 김동훈 금1, 동1
- 2019. 제100회 전국체전 3위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86.08 ~ 1988.12	차 상 록	김 정 현
제 2 대	1989.01 ~ 1992.12	김 대 운	김 정 현, 윤 기 옥
제 3 대	1992.01 ~ 1994.12	황 의 본	윤 기 옥
제 4 대	1995.01 ~ 1997.12	황 의 병	윤 기 옥, 이 종 길
제 5 대	1998.01 ~ 1999.12	류 봉 효	이 종 길
제 6 대	2000.01 ~ 2002.12	김 성 곤	이 종 길
제 7 대	2003.01 ~ 2009.12	류 봉 효	이 종 길
제 8 대	2010.01 ~ 2011.12	김 정 이	이 종 길
제 9 대	2012.01 ~ 2012.12	조 용 훈	이 종 길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04.03.01~2008.02.01	정 영 무	김 종 렬
제 2 대	2008.02.01~2012.02.01	허 행 환	임 삼 철
제 3 대	2014.03.18~2016.06.31	김 철 두	김 영 대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07 ~ 2018.03	우 수 명	김 욱 호
제 2 대	2018.03 ~ 2020.02	허 행 환	김 백 수
제 3 대	2020.03 ~	사 상 순	이 문 재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31명(회장1, 부회장6, 이사22,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14개(초6, 중3, 고2, 일반3)
(고흥초, 장흥대덕초, 광양서초, 순천북초, 순천남초, 광양옥곡초)
(순천여중, 장흥대덕중, 고흥중, 순천매산고, 순천여고)
(순천시청, 전라남도도청, 순천대)
- 시군중목단체 현황 : 22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도지사기 정구대회
- 협회장기 정구대회
-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심판강습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28. 전라남도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1) 연혁

- 1989. 12. 전남수상스키협회 준가맹단체 승인
- 1992. 전라남도체육회 가입(김재봉 초대회장)
- 2011. 8. 16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수상스키연합회 결성
- 2016. 10.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 2016. 8. 아시아 수상스키·웨이크보드대회 유치 등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92. 02 ~ 1993. 12	김 재 봉	유 용 수
제 2 대	1994. 02 ~ 1997. 12	김 재 봉	이 화 연
제 3 대	1998. 02 ~ 2001. 12	김 재 봉	이 화 연
제 4 대	2002. 02 ~ 2005. 12	김 재 봉	최 철 준
제 5 대	2006. 01 ~ 2006. 03	김 재 봉	최 철 준
제 6 대	2006. 03 ~ 2008. 05	이 언 길	조 중 관
제 7 대	2008. 05 ~ 2008. 12	홍 성 권	조 중 관
제 8 대	2009. 02 ~ 2012. 12	홍 성 권	조 중 관
제 9 대	2013. 01 ~ 2016. 09	홍 성 권	조 중 관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11. 08 ~ 2015. 12	박 형 철	김 대 수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10 ~ 2020. 12	홍 성 권	조 중 관
제 2 대	2021. 01 ~	홍 성 권	조 중 관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27명(회장1, 부회장3, 이사21,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개(초0, 중0, 고0, 일반0)
- 시군종목단체 현황 : 3개 시군(목포시, 광양시, 영광군)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9 대	1979. 12 ~ 1980. 12	김 상 영	
제 10 대	1980. 12 ~ 1984. 12	홍 순 기	
제 11 대	1985. 01 ~ 1986. 12	이 덕 승	
제 12 대	1986. 11 ~ 1992. 12	조 남 홍	이 현 천
제 13 대	1992. 12 ~ 1993. 09	이 국 관	이 현 천
제 14 대	1993. 09 ~ 1994. 08	이 관 웅	이 현 천
제 15 대	1994. 09 ~ 1995. 03	김 호 남	이 현 천
제 16 대	1995. 04 ~ 2001. 01	정 귀 배	이 현 천, 이 남 현
제 17 대	2008. 04 ~ 2012. 12	박 창 우	이 남 현
제 18 대	2013. 01 ~ 2016. 02	박 창 우	이 남 현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10. 11.25 ~ 2016	이 관 웅	이 남 현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06 ~ 2018. 04	이 기 삼	강 양 호
제 2 대	2018. 06 ~ 2020. 05	황 의 준	진 만 근
제 3 대	2021. 02 ~	황 의 준	진 만 근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38명(회장1, 부회장8, 이사28, 감사1)
- 선수육성현황 : 18개(초10, 중5, 고2, 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0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영광, 장성, 완도, 진도

4) 주요행사

- 도지사배 수영대회
- 전라남도수영연맹회장배 수영대회
- 전라남도수영연맹지도자 강습회
- 대한수영연맹3급심판강습회 및 심판보수교육
- 초등학교 전국 수영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 2004. 전라남도체육회 가입(안중배 초대회장)
- 2017. 연맹회장배 생활체육스쿼시대회 신설
- 2019. 1. 전남도청 스쿼시팀 창단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04 ~	안 종 배	정 두 안
제 2 대	2005 ~	배 영 선	한 상 신, 김 영 재
제 3 대	2013 ~	이 관 식	김 영 재
제 4 대	2016. 8 ~	최 창 원	김 영 재
제 5 대	2021. 4 ~	최 창 원	김 영 재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5명(회장1, 부회장1, 이사12, 감사1)
- 선수육성현황 : 2개(고1, 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4개 시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4) 주요행사

- 협회장기 생활체육 스쿼시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국체육대회

32. 전라남도스키협회

1) 연 혁

- 1986. 전라남도체육회 가입(김봉한 초대회장)
- 1989. 12. 전남스키협회 정가맹단체 승인
- 1990. 2. 제71회 전국 동계체전 전남 첫 출전
- 1993. 1. 제1회 전남스키협회장기 대회 개최(무주리조트)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86 ~	김 봉 한	이 계 윤
제 2 대	1988 ~	박 경 중	주 동 엽
제 3 대	1994 ~	이 윤 철	주 동 엽
제 4 대	1995 ~	윤 보 선	변 춘 섭, 이 대 영
제 5 대	2016. 7. 19 ~	윤 보 선	이 재 양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8명(회장1, 부회장3, 이사12,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7개(초2, 중1, 대학3, 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0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구례, 화순, 장흥,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신안임자 지구력경기대회
- 전국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34. 전라남도씨름협회

1) 연 혁

- 1947. 전라남도체육회 가입(황규복 초대회장)
- 1989. 3. 여수수산대 씨름팀 창단
- 1993. 10. 구례군 여자씨름단 창단
- 1995. 4. 순천공고 씨름단 창단
- 1998. 1. 세한대 씨름팀 창단
- 1999. 6. 18.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씨름연합회 가입(유재선 초대회장)
- 2001. 3. 동광양중 씨름단 창단
- 2008. 제89회 전국체전 2위
- 2009. 제90회 전국체전 2위
- 2010. 9. 영암군 민속씨름단 창단
- 2015. 제96회 전국체전 3위
- 2016. 7.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씨름협회)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47 ~	황 규 복	
제 2 대	1986 ~	조 남 선	최 상 립, 백 낙 천
제 3 대	1988 ~	정 상 휘	백 낙 천
제 4 대	1990 ~	정 상 영	백 낙 천, 신 명 석
제 5 대	2001 ~	백 낙 천	신 명 석
제 6 대	2005 ~	백 낙 천	신 명 석, 박 장 현
제 7 대	2009 ~	백 낙 천	박 장 현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98. 06 ~	유 재 선	김 계 중, 박 종 표, 김 경 열
제 2 대	2010. 03 ~	김 정 호	오 현 민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07.08 ~	김 경 수	오 현 민
제 2 대	2021. ~	손 재 근	이 재 신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31명(회장1, 부회장8, 이사20,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14개(초5, 중4, 고2, 대학1, 일반2)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0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전라남도 선발대회
- 전라남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씨름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천하장사 씨름대축제
- 추석장사 씨름대회

35. 전라남도야구소프트볼협회

1) 연 혁

- 1946. 5. 창립
- 1946. 5. 조영준 회장 추대
- 1990. 제71회 전국체전 3위
- 1991. 5. 순천이수중 야구팀 창단
- 1993. 7. 여수미평초 야구팀 창단
- 1993. 11. 순천효천고 야구팀 창단
- 1998. 1. 세한대 야구팀 창단
- 2002. 3. 화순고 야구팀 창단



- 2004. 제85회 전국체전 3위
- 2005. 제86회 전국체전 소프트볼 3위
- 2005. 7. 제1회 국제여자소프트볼대회 개최 / 순천시
- 2006. 5. 나주대 여자야구팀 창단
- 2008. 10. 국민생활체육전남야구연합회 결성
- 2009. 제90회 전국체전 소프트볼 3위
- 2012.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신설
- 2013. 도지사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신설
- 2016. 5.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야구협회)
- 2018. 12. 한려대 야구팀 창단
- 2019. 11. 나주광남고 야구팀 창단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46. 5 ~	조 영 준	
제 2 대	1948. 5 ~	김 희 용	
제 3 대	1950 ~	민 병 기	
제 4 대	1955. 2 ~	김 소 인	신 현
제 5 대	1958. 4 ~	최 동 문	
제 6 대	1959. 4 ~	신 현 우	최 남 근
제 7 대	1959. 6 ~	최 종 태	
제 8 대	1960. 3 ~	임 인 수	
제 9 대	1961. 3 ~	신 현	이 정 욱
제 10 대	1971. 1 ~	최 기 영	권 조 조
제 11 대	1972. 12 ~	김 종 태	장 홍 준, 박 용 균
제 12 대	1986. 11 ~	홍 순 기	서 기 준, 박 용 균
제 13 대	1989. 1 ~	정 철 준	박 용 균, 유 남 기
제 14 대	1999 ~	서 광 윤	정 찬 성
제 15 대	2001 ~	김 상 유	정 찬 성
제 16 대	2003 ~	장 여 환	심 재 경, 임 창 업
제 17 대	2005 ~	정 찬 성	김 봉 환, 전 정 규
제 18 대	2007 ~	박 판 석	전 정 규
제 19 대	2008 ~	나 성 수	정 찬 성
제 20 대	2011 ~	장 석 준	김 진 규
제 21 대	2012 ~	한 상 욱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83. ~	이 국 현	
제 2 대	1986. ~	김 용 주	이 영 철
제 3 대	1992. 02 ~	이 영 철	이 재 용
제 4 대	1993. 04 ~ 1999. 03	임 준 행	김 호 중
제 5 대	1999. 03 ~ 2004. 12	김 진 호	김 호 중
제 6 대	2005. 01 ~ 2007. 01	이 재 욱	김 호 중
제 7 대	2007. 02 ~ 2008. 04	박 철 희	김 호 중
제 8 대	2008. 04 ~ 2012. 12	강 복 수	김 호 중
제 9 대	2013. 02 ~ 2015. 12	오 재 대	임 동 일
제 10 대	2016. 07 ~ 2020. 12	김 호 중	임 동 일
제 11 대	2021. 01 ~	박 명 국	송 윤 중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23명(회장1, 부회장5, 이사16, 감사1)
- 선수육성현황 : 13개(초4, 중4, 고3, 대학,1 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개 시군(순천시)

4) 주요행사

- 지도자 강습회, 심판 강습회 등

37. 전라남도역도연맹

1) 연혁

- 1946. 7. 전라남도체육회 가입(차행칠 초대회장)
- 1958. 7. 도쿄 아시안게임 황호동 금메달
- 1988. 7. 강진역도장 준공
- 1988. 9. 88서울올림픽 이형근 동메달
- 1990. 북경아시안게임 김태현 금메달, 이형근(90kg급) 은메달
- 1994. 히로시마아시안게임 김태현 금메달
- 1998. 방콕아시안게임 김태현 금메달(3연패 달성)
- 2003. 4. 송민역도단 창단(보성)
- 2004. 2. 보성군청 역도팀 창단
- 2015. 3. 완도군청 역도팀 창단

- 협회장기 전국역도대회
- 전국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38. 전라남도예어로빅합합협회

1) 연혁

- 2020. 9. 28 전라남도체육회 가입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20. 09. 28 ~	양 만 열	서 연 수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7명(회장1, 이사14, 감사2) · 시군종목단체 현황 : 없음

4) 주요행사

- 전국체육대회

39. 전라남도요가회

1) 연혁

- 2012. 12. 21.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요가연합회 가입(이주연 초대회장)
- 2013. 회장배 생활체육 요가대회 신설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12. 12 ~ 2017. 01	이 주 연	양 유 정, 허 경 숙
제 2 대	2017. 01 ~ 2021. 02	박 원 준	김 행 화
제 3 대	2021. 02 ~ 2024. 12	한 승 찬	박 주 하

3) 기 구(조직구성)

- 임원 : 24명 (고문1명, 회장, 부회장, 감사2명, 사무국장, 대의원7명, 이사11명)
- 시군종목단체 현황 : 4개 시군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4) 주요행사

- 회장기 요가대회 · 전국요가대회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83 ~	정 채 호	
제 2 대	1986 ~	정 채 호	김 용 선
제 3 대	1987 ~	정 채 호	이 창 환
제 4 대	1989 ~	정 채 호	김 용 선
제 5 대	1993 ~	정 채 호	강 세 용
제 6 대	1994 ~	정 채 호	김 용 희
제 7 대	1996 ~	정 채 호	강 세 용
제 8 대	1997 ~	정 채 호	주 우 석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9 대	1998 ~	정 채 호	박 길 철
제 10 대	2016. 10 ~	강 병 석	박 길 철
제 11 대	2021. 01	강 병 석	박 길 철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32명(회장1, 부회장 7, 이사 22,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6개(초1, 중1, 고2, 일반1, 스포츠클럽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5개 시군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보성군, 무안군

4) 주요행사

-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 전국체육대회 ·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41. 전라남도우슈협회

1) 연 혁

- 1991. 전라남도체육회 가입(김태근 초대회장)
- 2013. 1. 전남도청 우슈팀 창단
- 2015. 3. 순천복성고 우슈팀 창단
- 2015. 6. 윤병용회장 취임
- 2016 한 · 중 우슈 교류전 개최(순천대학교 실내체육관)
- 2019. 제100회 전국체전 3위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91. ~ 1995.02.28	김 태 근	홍 광 석
제 2 대	1995.02.28 ~ 1996.12.31	오 기 만	홍 광 석
제 3 대	1996.12.31 ~ 1998.06.01	최 건 진	홍 광 석
제 4 대	1998.06.01 ~	박 준 범	홍 광 석
제 5 대	2005.07.28 ~ 2008.01.29	김 성 권	강 재 구
제 6 대	2008.01.30 ~ 2009.02.04	한 웅 안	강 재 구
제 7 대	2009.02.05 ~	이 상 길	강 재 구, 박 성 윤, 김 선 욱
제 8 대	2012.12.31 ~ 2015.06.01	강 재 구	김 선 욱, 장 보 근
제 9 대	2015.06. 15 ~	윤 병 용	장 보 근
제 10 대	2021.03 ~	윤 병 용	장 보 근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1명(회장1, 부회장2, 이사8)
- 선수육성현황 : 3개(고1, 대1, 일반1)
- 순천복성고등학교, 순천대학교, 전라남도도청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개 시군(순천시)

4) 주요행사

- 우수 지도자/심판 강습회 · 전국체육대회 · 국제대회 참가
- 전국학생우수선수권대회 · 전국태극권대회

42. 전라남도유도회

1) 연 혁

- 1946. 3. 대한유도회 전라남도지부 창립(김소춘 초대회장)
-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 남자유도 71kg급 정훈 동메달
- 1996. 아틀란타올림픽 여자유도 66kg급 조민선 금메달
- 1997. 3. 목포홍일고 유도팀 창단
- 2006. 도하아시안게임 · 90kg급 황희태 금메달
- 2008. 제89회 전국체전 2위
- 2002. 1. 세한대 유도팀 창단
- 2016. 1. 1.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유도회)
- 2017. 회장배 생활체육 유도대회 신설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46.03 ~	김 소 춘	
제 2 대	1955.12 ~	정 재 현	백 완 기, 김 상 술, 박 원 복
제 3 대	1963.01 ~	김 소 춘	정 종 욱
제 4 대	1978.01 ~	김 석 두	강 수 훈
제 5 대	1979.05 ~	황 재 연	강 수 훈
제 6 대	1985.01 ~	강 태 수	김 재 기
제 7 대	1986.11.01 ~ 1990.01	임 광 행	김 노 현, 김 용 선
제 8 대	1991.02 ~ 1994.06	임 광 행	김 용 선, 김 준 영
제 9 대	1994.07.01 ~ 1995.03.05	곽 청 훈	김 준 영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0 대	1995.03.05 ~ 1996.08.20	김 경 석	김 준 영
제 11 대	1996.08.20 ~ 1998.01.17	홍 성 창	김 준 영
제 12 대	1998.01.17 ~ 2001.01.06	이 영 실	김 준 영
제 13 대	2001.01.06 ~ 2001.06.27	김 노 현	김 진 영
제 14 대	2001.06.27 ~ 2004.12.31	이 중 근	임 종 안, 강 장 원
제 15 대	2005.01.01 ~ 2008.12.31	김 효 수	황 창 형, 김 양 호
제 16 대	2009.01.01 ~ 2012.12.31	김 효 수	김 양 호
제 17 대	2013.01.01 ~ 2016.06.30	김 효 수	김 양 호
제 18 대	2016.70.01 ~ 2020.12.31	임 종 안	김 양 호
제 19 대	2021.03.01 ~	임 종 안	김 양 호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22명(회장1, 부회장3, 이사16,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14개(초4, 중3, 고2, 대학1, 일반2, 공공스포츠클럽2개)
- 시군종목단체 현황 : 정회원단체 6개 시군, 인준단체 16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장흥군

4) 주요행사

- 도지사기 유도대회
- 회장기 유도대회,
- 순천만국가정원컵전국유도대회 겸 국가대표2차 선발전 및 꿈나무선발전
- 국제교류전 및 동계합동훈련
- 전라남도유도회 지도자 강습회, 심판강습회 등

43. 전라남도육상연맹

1) 연 혁

- 1945. 9. 창립(지계선 회장 추대)
- 1990. 2. 여수시청 육상팀 창단
- 1991. 제72회 전국체전 육상(필드, 마라톤) 3위
- 1993. 10. 제2회 한일친선육상대회 파견(오키야마현 구라시키키시)
- 1993. 4. 제97회 보스턴마라톤대회 2위(김재룡, 고흥)
- 1995. 제76회 전국체전 육상(필드) 1위
- 1996. 제77회 전국체전 육상(필드) 3위
- 1999. 제80회 전국체전 육상(필드) 3위
- 2000. 3. 17.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육상연합회 가입



- 2001. 11. 남승룡 추모기념 마라톤대회 개최
- 2001. 1. 해남고 육상팀 창단
- 2006. 12. 해남군청 육상팀 창단
- 2006. 3. 목포시청 육상팀 창단
- 2010. 11. 광주아시안게임 멀리뛰기 정순옥 금메달
- 2013. 제94회 전국체전 육상(필드) 3위
- 2014. 도지사배 생활체육 구간마라톤대회 신설
- 2016. 8.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육상연맹)
- 2019. 제100회 전국체전 육상(필드) 3위
- 2020. 11. 한국전력 육상팀 이적
- 2020. 12. 장흥군청 육상팀 창단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45. 09 ~	지 계 선	
제 2 대	1950. 01 ~	최 상 채	
제 3 대	1954. 02 ~	주 형 노	
제 4 대	1954. 09 ~	박 종 언	김 성 일
제 5 대	1957. 06 ~	정 해 규	정 영 배
제 6 대	1959. 04 ~	이 한 우	김 순 재
제 7 대	1961. 07 ~	박 종 언	주 창 현, 정 달 수
제 8 대	1967. 03 ~	정 달 수	이 동 헌
제 9 대	1967. 04 ~	김 인 곤	최 재 근
제 10 대	1970. 12 ~	박 종 대	최 재 근
제 11 대	1973. 08 ~	이 대 로	안 홍 순, 최 재 근
제 12 대	1976. 02 ~	주 창 현	박 종 식
제 13 대	1977. 01 ~	박 상 구	박 종 식, 최 희 종, 김 응 식
제 14 대	1983. 01 ~	이 국 열	김 응 식
제 15 대	1986. 11 ~	이 훈 동	박 종 수, 최 송 진
제 16 대	1993 ~	강 방 원	박 종 수, 정 영 태, 문 봉 기 박 개 동, 김 준 옥, 김 영 형 김 후 진
제 17 대	2012 ~	김 양 훈	김 후 진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10.		
제 2 대	2004. 10. 01 ~	강 주 혁	이 은 애
제 3 대	2008. 02. 01 ~	황 정 호	서 중 진
제 4 대	2012. 12. 21 ~	김 영 래	문 진 태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08. 29 ~	송 진 호	심 귀 철
제 2 대	2021. 01	김 용 주	심 귀 철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29명(회장1, 부회장5, 이사21,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12개(고4, 대학2, 일반6)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1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도지사기 육상대회
- 협회장기 육상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 목포국제초청육상투척대회
- 전국대학대항 육상 경기대회
- 전국대학대항 육상경기대회
- 목포국제 육상투척대회

44. 전라남도e스포츠협회

1) 연 혁

- 2019. 3. 15 전라남도체육회 가입
- 2021. 1. 20 e스포츠 육성 실무회의 / 전남도청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19. 03. 15 ~	이 유 찬	노 인 현
제 2 대	2020. 06. 17 ~	안 영 현	문 혁 주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29명(회장1, 부회장3, 이사25) · 선수육성현황 :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개 시군(광양시)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e스포츠 대회

45. 전라남도자전거연맹

1) 연 혁

- 1945. 11. 창립(차행칠 회장 선출)
- 1987. 9. 나주 사이클경기장 준공
- 1988. 나주군청 사이클팀 창단
- 1989. 4. 영산포상고 사이클팀 창단
- 1993. 5. 나주금성고 사이클팀 창단
- 2001. 10. 16.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자전거연합회 창립
- 1997. 제78회 전국체전 3위
- 2000. 제81회 전국체전 3위
- 2001. 제82회 전국체전 3위
- 2002. 제83회 전국체전 2위
- 2002. 8. 부산아시안게임 메디슨경기 서석규 금메달
- 2003. 제84회 전국체전 2위
- 2004. 제85회 전국체전 1위
- 2006. 제87회 전국체전 2위
- 2007. 제88회 전국체전 1위
- 2012. 제93회 전국체전 3위
- 2014. 제95회 전국체전 3위
- 2016. 10.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자전거연맹)
- 2018. 8. 자카르타아시안게임 여자사이클 나아름 4관왕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45. 11 ~	차 행 칠	
제 2 대	1961. 07 ~	이 기 남	강 동 수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3 대	1974 ~	차 행 철	
제 4 대	1977. 1 ~	김 명 기	
제 5 대	1977. 12 ~	민 강 중	박 정 수, 김 종 관
제 6 대	1982. 12 ~	나 동 원	김 영 수
제 7 대	1986. 12 ~	이 장 우	노 병 국
제 8 대	1987. 04 ~	김 종 택	노 병 국
제 9 대	1988. 09 ~	양 근 수	노 병 국
제 10 대	1991 ~	김 영 주	이 대 우, 권 정 노, 양 재 환
제 11 대	1996 ~	조 규 보	양 재 환
제 12 대	2000 ~	신 동 민	양 재 환
제 13 대	2006 ~	나 원 주	양 재 환
제 14 대	2012. 01. 20 ~	전 용 준	양 재 환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04. 12. 15 ~	임 용 식	
제 2 대	2008. 01. 27 ~	임 용 식	김 상 곤
제 3 대	2012 ~	이 신 기	박 세 광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07. 19 ~	김 화 진	최 형 구
제 2 대	2021. 01 ~	정 동	최 형 구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27명(회장1, 부회장6, 이사18,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10개(중3, 고3, 일반4)
- 시군중목단체 현황 : 21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도지사기대회 · 협회장기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한일 국가대항 사이클대회 · 3.1절기념 전국 도로사이클대회
-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사이클대회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04. 10 ~	이 해 채	이 상 기
제 2 대	2008. 02 ~	이 상 기	이 훈
제 3 대	2011. 04 ~	장 한 웅	이 훈
제 4 대	2012. 04 ~	장 한 웅	김 대 성
제 5 대	2016. 04 ~	조 재 울	송 희 문
제 6 대	2021. 03 ~	장 유 신	차 영 호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32명(회장1, 부회장8, 이사21,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개(중, 고, 일반)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2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도지사기 족구대회 · 협회장기 족구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 돌하르방배 전국족구대회
- 대한체육회장배 시도대항 전국 족구대회

48. 전라남도줄넘기협회

1) 연 혁

- 2015. 7. 30.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줄넘기연합회 (홍정숙 초대회장)
- 2015. 연합회장배 생활체육 줄넘기대회 신설
- 2016. 7.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줄넘기협회)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16. 07 ~ 2020. 02	홍 정 숙	이 인 숙
제 2 대	2021. 01 ~ 2025. 02	홍 정 숙	김 민 주



47. 전라남도체육협회

1) 연혁

- 2001. 11. 11. 전라남도체육회 가입(이건영 초대회장)
- 2007. 10. 제1회 코리아스트롱맨컵대회 개최(영암)
- 2010. 3. 24.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철인3종경기연합회 가입
- 2012. 8. 2012 신안 자은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개최(신안)
- 2017. 01. 23.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철인3종협회)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01. 11 ~ 2004. 08	이 건 영	김 정 호
제 2 대	2004. 08 ~ 2008. 12	노 양 진	이 광 수
제 3 대	2009. 01 ~ 2010. 01	노 양 진	이 광 수
제 4 대	2010. 01 ~ 2012. 12	김 준 안	강 유 곤
제 5 대	2013. 01 ~ 2016. 12	김 준 안	강 유 곤, 최 현 일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10. 03. 24 ~	김 재 원	최 현 일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7. 01 ~ 2020. 12	박 원 요	정 진 봉, 김 등 원
제 2 대	2021. 01 ~ 2024. 12	조 영 득	김 등 원
제 3 대	2021. 03 ~	조 영 득	김 등 원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6명(회장1, 부회장3, 이사10,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1개(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7개 시군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장흥군, 영광군, 완도군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50 ~	차 준 철	정 춘 수
제 2 대	1960 ~	김 정 선	정 춘 수
제 3 대	1961. 07 ~	민 경 찬	김 경 수, 최 송 선
제 4 대	1964. 04 ~	김 경 선	최 송 선
제 5 대	1965. 03 ~	정 춘 수	신 현 을
제 6 대	1969 ~	최 동 윤	노 형 철, 장 인 원
제 7 대	1974. 12 ~	신 현 을	장 인 원
제 8 대	1978. 01 ~	박 용 훈	장 인 원
제 9 대	1980. 01 ~	문 현 상	박 명 희, 정 찬 욱
제 10 대	1983. 11 ~	이 재 관	정 해 상, 정 찬 욱, 정 건 철
제 11 대	1986. 12 ~	고 재 철	정 건 철, 고 동 석, 조 장 현
제 12 대	2012. 05. 14 ~	배 지 수	조 장 현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1991 ~	문 은 희	오 경 화
제 2 대	1996 ~	김 명 희	오 경 화
제 3 대	2000 ~	김 속 희	오 경 화
제 4 대	2004. 03. 03 ~	김 지 애	오 경 화
제 5 대	2008. 02. 24 ~	이 남 열	오 경 화
제 6 대	2012. 03. 22 ~	이 남 열	오 경 화, 김 정 애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		이 권 섭, 홍 성 만, 하 은 숙 이 성 주, 최 소 리
제 2 대	2021. 03 ~	박 용 준	홍 성 만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30명(회장1, 부회장8, 이사 19,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3개(초1, 중1, 고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0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무안,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도지사기 생활체조 경연대회
- 협회장기 생활체조 경연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 전국종별 체조선수권대회

52. 전라남도축구협회

1) 연 혁

- 1945. 창립(정상호 초대회장)
- 1990. 8. 22 생활체육축구연합회 결성
- 1991. 3 광양여고 축구팀 창단
- 1993. 3 광양남초, 광양제철중 축구팀 창단
- 1993. 5. 21. 제20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유치 / 순천시
- 1995. 4 여수 구봉중축구팀 재 창단

- 1996. 3. 광양 제철고등학교 축구팀 창단
- 1996. 4. 광양 광영중(여중축구) 축구팀 창단
- 1999. 5. 21. 제1회 백운기 전국 우수고교축구대회 신설
- 2000. 10 광양중앙초(여초축구) 축구팀 창단
- 2002. 1 전남축구협회 2002월드컵 성공 개최 결의대회
- 2002. 1. 10 전라남도 최초 국제축구심판 주심 탄생(유병섭)
- 2004. 1 세한대 남자축구팀 창단
- 2005. 3 전남 도지사배 생활체육대회 신설
- 2007. 6. 1. 동아시아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 강진군
- 2007. 8 FIFA 세계청소년(U·17)월드컵 축구대회
(예선 5게임, 16강·2게임:광양전용구장)
- 2008. 9. 목포공고 축구팀 창단
- 2008. 6. 20 전라남도·항주(절강성) 생활체육 교류 참가 / 항주
- 2009. 10. 목포시청 축구팀 창단
- 2011. 12. 동신대 축구팀 창단
- 2015. 12. 전남축구협회 창립 70주년 한마음행사
- 2016. 7. 1.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축구협회)
- 2017. 4. 세한대 여자축구팀 창단
- 2018. 제99회 전국체전 3위
- 2019. 8. 2. 중국(장시성) 청소년 스포츠교류 초청 / 순천시
- 2019. 8. 2019동아시아 축구연맹 U·15 여자축구대회/ 목포시
- 2020. 1. 여수FC U·18 축구팀 창단
- 2021. 8. 순천99FC U·12, LIM FC U·12 창단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45 ~ 1948	정 상 호	
제 2 대	1948 ~ 1950	김 복 관	김 용 결
제 3 대	1951. 01 ~ 1954. 12	정 상 호	
제 4 대	1955. 01 ~ 1956. 04	김 창 선	문 형 식
제 5 대	1956. 05 ~ 1956. 12	이 창 업	이 재 남
제 6 대	1957. 01 ~ 1959. 02	이 창 업	박 재 영
제 7 대	1959. 03 ~ 1959. 07	이 창 업	이 두 환
제 8 대	1959. 07 ~ 1961. 05	이 창 업	이 계 남
제 9 대	1961. 06 ~ 1961. 07	서 두 성	이 두 환
제 10 대	1961. 07 ~ 1962. 02	이 창 업	이 두 환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1 대	1962. 03 ~ 1962. 12	박 용 덕	이 두 환
제 12 대	1963. 01 ~ 1965. 07	최 동 복	이 두 환
제 13 대	1965. 08 ~ 1966. 12	이 철	이 두 환
제 14 대	1967. 01 ~ 1971. 02	박 형 일	이 두 환
제 15 대	1971. 03 ~ 1974. 02	박 철	이 철 호
제 16 대	1974. 03 ~ 1977. 12	박 정 구	김 시 웅
제 17 대	1978. 02 ~ 1979. 03	박 정 구	정 택 웅
제 18 대	1979. 04 ~ 1980. 10	박 정 구	신 봉 식
제 19 대	1980. 11 ~ 1982. 12	박 정 구	신 봉 식
제 20 대	1983. 01 ~ 1985. 02	김 사 득	신 봉 식
제 21 대	1985. 02 ~ 1986. 10	김 사 득	김 종 호
제 22 대	1986. 11 ~ 1988. 03	곽 소 선	고 규 선
제 23 대	1988. 04 ~ 1988. 12	이 종 영	고 규 선
제 24 대	1989. 01 ~ 1992. 12	문 철 성	고 규 선
제 25 대	1993. 01 ~ 1996. 12	문 철 성	고 규 선
제 26 대	1997. 01 ~ 2000. 12	김 성	강 종 철
제 27 대	2001. 01 ~ 2004. 12	서 정 복	기 영 욱
제 28 대	2005. 01 ~ 2008. 12	서 정 복	손 영 대
제 29 대	2009. 01 ~ 2012. 12	서 정 복	손 영 대
제 30 대	2013. 01 ~ 2016. 06	서 정 복	손 영 대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05. 04. ~	이 세 권	김 상 인
제 2 대	2008. 01 ~	송 정 호	김 삼 용
제 3 대	2012. 02 ~	송 정 호	김 삼 용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07 ~ 2020. 12	신 정 식	김 용 석
제 2 대	2021. 01 ~	신 정 식	김 용 석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32명(회장1, 부회장7, 이사21, 감사3)
- 선수육성현황 : 37개팀(초12, 중11, 고7, 일반7)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2개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8명(회장1, 부회장5, 이사10,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7개(중2, 고2, 대학1, 실업일반2)
- 시군종목단체 현황 : 3개 시군
목포시, 여수시, 구례군

4) 주요행사

- 도지사배 전국카누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 해군참모총장배
- 전국체육대회
- 전국카누선수권대회
- 도지사배 전국레프팅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카누대회 등

54. 전라남도카라테연맹

1) 연 혁

- 2009. 2. 전라남도체육회 가입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09. 02 ~	박 재 근	조 재 구
제 2 대	2013. 01 ~	박 정 환	조 재 구
제 3 대	2020. 12 ~	모 진 성	김 경 주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21명(회장1, 부회장1, 이사17,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
- 시군종목단체 현황 : 없음

4) 주요행사

55. 전라남도카바디협회

1) 연 혁

- 2008. 1. 세한대 카바디팀 창단
- 2011. 3. 29 전라남도체육회 가입(전호문 추대)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1 ~	전 호 문	채 재 화, 임 기 현
제 2 대	2013. 01. 10 ~	전 호 문	임 기 현
제 3 대	2021. 03 ~	전 호 문	임 기 현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0명(회장1, 부회장2, 이사7)

4) 주요행사

54. 전라남도카라테연맹

1) 연 혁

- 2002년10월4일 전라남도체육회 가입(김민기 초대회장)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02.08 ~ 2004.12	김 민 기	신 명 건
제 2 대	2005.01 ~ 2008.12	김 철 주	신 명 건
제 3 대	2009.01 ~ 2012.12	김 철 주	신 명 건
제 4 대	2013.01 ~ 2016.12	김 철 주	신 명 건
제 5 대	2017.01 ~ 2020.12	이 중 구	신 승 현
제 6 대	2021.01 ~ 2024.12	전 호 문	신 승 현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5명(회장1, 부회장4, 이사8,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2개(중1, 고1)



4) 주요행사

- 컬링지도자 강습회
- 심판강습회 등

57. 전라남도킥복싱협회

1) 연혁

- 2021. 1. 4 전라남도체육회 가입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21. 1. 4 ~	장 여 환	선 중 오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7명(회장1, 부회장1, 이사13, 감사2)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개 시군(나주시)

4) 주요행사

- 2021년 첫 공식행사 10월 추진 예정

58. 전라남도탁구협회

1) 연혁

- 1949. 8. 창립(홍영구 회장 추대)
- 1986. 서울아시안게임 남자단체전 김완 금메달
- 1989. 12. 목포신명여상 탁구팀 창단
- 1990. 8. 22.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탁구연합회 창립
- 2001. 4. 옥과고 탁구팀 창단
- 2005. 11. 여수시청 탁구팀 창단
- 2007. 전라남도·중국(북건성) 생활체육 교류 초청 / 여수시
- 2007. 도지사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신설
- 2008. 제89회 전국체전 2위
- 2008. 11. 20. 전라남도·항주(절강성) 생활체육 교류 참가 / 항주
- 2015. 전남·경북 생활체육 우호교류 참가
- 2016. 6.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탁구협회)
- 2019. 8. 중국(장시성) 청소년 스포츠 교류 참가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49. 08 ~	홍 영 구	박 태 근
제 2 대	1955 ~	한 경 록	한 상 협
제 3 대	1957. 02 ~	신 상 목	김 남 현
제 4 대	1598. 04 ~	정 희 택	장 봉 채
제 5 대	1959. 11 ~	조 정 두	이동식,노호영
제 6 대	1961. 07 ~	한 형 석	이 기 택
제 7 대	1963. 01 ~	김 종 훈	차 상 협
제 8 대	1967. 01 ~	김 남 현	한 동 호
제 9 대	1971. 02 ~	박 만 영	박용재,윤현채
제 10 대	1975. 01 ~	김 오 봉	윤 현 채
제 11 대	1977. 02 ~	고 광 표	윤 현 채
제 12 대	1978. 08 ~	김 옥 천	정 동 인
제 13 대	1980. 12 ~	지 정 도	정 동 인
제 14 대	1981. 05 ~	최 유 식	
제 15 대	1986. 11 ~	곽 영 태	이 문 부
제 16 대	1997 ~	박 병 환	강 상 목
제 17 대	2001 ~	김 용 호	이 정 석
제 18 대	2005 ~	정 수 학	구 희 태
제 19 대	2007 ~	박 현 규	
제 20 대	2011 ~	김 철 수	김 한 중
제 21 대	2013. 01 ~	김 철 수	김 경 술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04. 04. 26 ~	이 상 택	황 종 식
제 2 대	2010. 11. 22 ~	김 승 진	서 동 근
제 3 대	2012. 03. 19 ~	이 명 재	정 찬 형
제 4 대	2014. 03. ~	김 재 길	어 성 준
제 5 대	2016. 03. ~	박 용 수	어 성 준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07. 19 ~	박 용 수	어 성 준
제 2 대	2021. 03. ~	박 용 수	어 성 준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20명(회장1, 부회장3, 이사14,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11개(초4, 중4, 고2, 대학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2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주요행사

- 도지사기 탁구대회
- 협회장기 탁구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 추계 회장기 한국실업탁구대회
- 대통령기 전국시·도탁구대회

59. 전라남도태권도협회

1) 연 혁

- 1962. 8. 21. 전남태권도협회 창립(초대회장 전철)
- 2000. 11. 9 국민생활체육전남태권도연합회 창립
- 1989. ~ 2015. 전국체전 3위 10회 입상
- 1989. ~ 2015. 전국체전 모범경기단체상 8회 수상
- 2005. 2008. 제86회, 제89회 전국체전 1위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89. 01 ~ 2003. 02	임 형 연	박 창 웅
제 2 대	2003. 02 ~ 2005. 07	조 영 기	김 현 수, 박 경 환
제 3 대	2005. 07 ~	조 영 기	박 경 환
제 4 대	2014. ~	박 흥 식	박 경 환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00 ~ 2004	권 갑 수	김 종 열
제 2, 3 대	2004 ~ 2012	김 영 일	김 종 열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미 통 합	

3) 기 구(조직구성)

· 미통합

60. 전라남도택견협회

1) 연혁

- 2001. 9. 26. 국민생활체육전남택견연합회 창립
- 2005. 도지사배 생활체육 전국택견대회 신설
- 2016.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택견협회)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04. ~	정윤 상	김 영 규
제 2 대	2007. ~	신택 호	김 영 규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04. 12. 10 ~	신택호	김영규
제 2 대	2008. 1. 25 ~	신택호	이혜선

· 통합 후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6. ~	백윤식	김영규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명(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 선수육성현황 : 0개(초, 중, 고, 대학)
- 시군종목단체 현황 : 4개 시군 (순천, 광양, 구례, 고흥)



4) 주요행사

- 도지사배 전국 탁견대회 · 협회장배 탁견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61. 전라남도테니스협회

1) 연혁

- 1955. 전라남도테니스협회 설립
- 1990. 전라남도테니스연합회 설립
- 1995.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테니스연합회 명칭 변경
- 2001. 3. 순천청암고 테니스팀 창단
- 2006. 도지사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신설
- 2007. 전라남도 · 중국(북경성) 생활체육 교류 초청 / 여수시
- 2010. 12. 14. 전라남도 · 심천(관동성) 생활체육 교류 참가
- 2014. 8. 28. 전라남도 · 연변(중국) 생활체육 교류 참가
- 2016. 6.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테니스협회)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55. ~ 1985.	곽 봉 수	
제 2 대	1986. ~ 1987.	유 길 수	
제 3 대	1988. ~ 1991.	성 임 옥	
제4~7대	1992. ~ 2008.	최 종 문	
제8~9대	2009. ~ 2015.	김 덕 성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1990. ~ 1944.	이 행 목	
제2~3대	1995. ~ 2002.	이 행 목	조 민 인
제 4 대	2003. ~ 2005.	조 강 곤	조 승 우
제 5 대	2006. ~ 2008.	박 지 현	임 현 호
제 6 대	2009. ~ 2011.	남 기 호	임 현 호
제 7 대	2012. ~ 2014.	전 조 일	박 진 호
제 8 대	2015. ~ 2016.	전 조 일	박 진 호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17. ~ 2020.	전 조 일	박 진 호
제 2 대	2021. ~ 2024.	유 인 숙	안 우 상

- 임원 : 48명(회장1, 부회장7, 이사38,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7개(초 2교, 중 3교, 대학교 1교, 일반부 1팀)
- 시군종목단체 현황 : 22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DAVIS CUP 세계남자테니스선수권대회,
- 대통령기 생활체육 전국테니스대회
- 전라남도지사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 전라남도지사배 전국시니어 테니스대회,
- 전라남도지사배 전라남도 · 광주 동호인 테니스대회
- 전라남도협회장배 전라남도 · 광주 랭킹대회
- 한국초등테니스연맹회장배 전국초등학교테니스대회
- 전라남도협회장배 학생테니스대회

- 2021. 1. 4 전라남도체육회 가입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2021. 01. 04 ~	서 임 종	조 옥 성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9명(회장1, 이사7, 전무이사1)
- 선수육성현황 : ·
- 시군종목단체 현황 : 없음

63. 전라남도특공무술중앙회

1) 연 혁

- 2015. 7. 30. 전라남도생활체육회 가입(허주철 회장)
- 2016. 6. 2.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특공무술중앙회)
- 2019. 10. 14~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대회 유치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14. 07 ~ 2016. 05	허 주 철	김 준 영
제 2 대	2016. 06 ~ 2020. 12	허 주 철	김 준 영
제 3 대	2021. 02 ~ 2024. 12	허 주 철	김 준 영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5명(회장1, 부회장3, 이사9,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20개(초8, 중4, 고4, 일반4)
- 시군종목단체 현황 : 4개 시군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4) 주요행사

- 중앙회장기 특공무술대회
- 특공무술지도자 강습회, 심판강습회 등

64.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1) 연 혁

- 2008. 10. 15 국민생활체육전라남도파크골프연합회 결성
- 2016. 6. 2. 체육단체 통합(명칭 : 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2010. 06. 25 ~	송 인 석	박 경 래
제 2 대	2014 ~	박 경 래	박 성 수
제 3 대	2021 ~	김 정 기	박 성 수

3) 기 구(조직구성)

- 임원 : 18명(회장1, 부회장4, 이사11, 감사2)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6개 시군
목포, 순천, 광양, 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장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4) 주요행사

- 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대한파크골프협회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 심판강습회 등

65. 전라남도패러글라이딩협회

1) 연혁

- 1999. 6. 29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 가입
- 2000. 도지사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신설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생활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사무국장
제 1 대	1999. 06 ~	박 근 수	정 기 채, 강 성 만
제 2 대	2004. 04 ~	정 기 채	장 진 호
제 3 대	2008. 02 ~	남 해 환	나 관 수
제 4 대	2010. 04 ~	김 태 식	박 국 진
제 5 대	2012. 03 ~	장 형 수	박 국 진
제 6 대	2016. 08 ~	진 영 후	김 정 옥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12명(회장1, 부회장2, 이사7, 감사2)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1개 시군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광, 완도

4) 주요행사

- 도지사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 협회장배 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심판강습회 등

66. 전라남도펜싱협회

1) 연 혁

- 1960. 5. 10 창립(광주일고체육실)
- 1960. 신용근 초대회장 선출
- 1991. 12. 나주고, 영산포여중, 노안중 펜싱팀 창단
- 2001. 4. 영암고 펜싱팀 창단
- 2014. 9. 인천아시안게임 남자에페단체 박경두 금메달
- 2020. 11.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팀(s) 팀 이적

2) 역대회장,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60.05.10 ~	신 용 근	고 용 석
제 2 대	1961.07 ~	박 준 열	고 용 석
제 3 대	1964.06 ~	김 유 승	고 용 석
제 4 대	1966.04 ~	현 홍 진	고 용 석
제 5 대	1968.12 ~	이 철	고 용 석
제 6 대	1970.12 ~	이 재 호	고 용 석
제 7 대	1973.12 ~	손 달 용	고 용 석
제 8 대	1976.12 ~	이 균 범	고 용 석
제 9 대	1977.12 ~	권 승 관	김 양 균
제 10 대	1979.12 ~	허 필 성	김 양 균
제 11 대	1980.02 ~	조 호 연	김 양 균
제 12 대	1985.01 ~	김 영 만	김 양 균, 박 재 현
제 13 대	1987.07 ~	황 금 추	박재현,이연행,이종택,오세환
제 14 대	2003 ~	황 철 희	김 희 선
제 15 대	2010 ~	이 영 호	김 희 선
제 16 대	2013.01 ~	이 영 호	김 용 율
제 17 대	2016.08 ~	윤 영 철	김 용 율



68. 전라남도하키협회

1) 연혁

- 1960. 9. 창립(광주일고체육실)
- 1960. 9. 장준륜 초대회장 추대
- 1991. 3. 구례여중, 구례고 여자하키팀 창단
- 1992. 제73회 전국체전 3위
- 1995. 제76회 전국체전 1위
- 1996. 아틀란타올림픽 여자하키 (장은정, 전영선, 진덕산) 은메달
- 2006. 시드니올림픽 남자하키 (김용배, 김철환, 여운곤, 임종천) 은메달
- 2003. 제84회 전국체전 2위
- 2007. 제88회 전국체전 3위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60. 09 ~	장 준 륜	이 성 수
제 2 대	1961. 07 ~	강 약 룬	이 성 수
제 3 대	1965 ~	김 종 대	이 성 수
제 4 대	1973. 11 ~	조 완 영	김 한 규
제 5 대	1977. 01 ~	지 정 도	김 한 규
제 6 대	1978. 03 ~	유 종 선	김 한 규
제 7 대	1983 ~	고 재 일	김 종 일
제 8 대	1986. 11 ~	우 경 선	김 종 일
제 9 대	1992 ~	최 대 원	김 철
제 10 대	1996 ~	홍 승 표	채 희 석, 김 도 순
제 11 대	1999 ~	유 성 주	김 도 순
제 12 대	2001 ~	나 경 천	김 도 순
제 13 대	2003 ~	유 금 상	김 도 순
제 14 대	2013. 05 ~	박 규 완	김 도 순
제 15 대	2016 ~	박 규 완	박 종 훈
제 16 대	2021. 03 ~	변 춘 섭	박 종 훈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25명(회장1, 부회장8, 이사15, 감사1)
- 선수육성현황 : 6개(중2, 고2, 대학1, 일반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1개 시군(목포시)

4) 주요행사

- 전국종별하키선수권대회



- 2006. 제873회 전국체전 3위
- 2018. 8. 자카르타아시안게임 김온아, 김선화 자매 금메달

2) 역대회장, 전무이사(사무국장) 현황

- 전문체육

구 분	회장 임기	회 장	전무이사
제 1 대	1956. 03 ~	임 종 대	박 응 철
제 2 대	1961. 07 ~	정 익 성	박 응 철
제 3 대	1963. 01 ~	최 태 근	유 중 우
제 4 대	1965 ~	박 인 천	백 춘 봉
제 5 대	1967 ~	오 영 대	최 수 일
제 6 대	1969 ~	유 향 연	
제 7 대	1974 ~	박 창 원	
제 8 대	1978 ~	김 대 수	김 광 응
제 9 대	1980 ~	윤 태 주	김 광 응
제 10 대	1983 ~	정 인 조	신 양 길, 안 정 환
제 11 대	1988. 12 ~	김 기 운	
제 12 대	1989 ~	김 기 운	선 종 철, 이 창 수
제 13 대	1996 ~	문 중 운	
제 14 대	1998 ~	박 일 용	
제 15 대	2007 ~	정 승 철	오 삼 영, 고 윤 석
제 16 대	2013 ~	정 권 성	최 정 호

3)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20명(회장1, 부회장7, 이사10, 감사2)
- 선수육성현황 : 5개(초2, 중2, 고1)
- 시군종목단체 현황 : 없음

4) 주요행사

- 추계 전국대학 핸드볼선수권대회
- 협회장배 전국중·고 핸드볼선수권대회
- 전국체육대회
- 전국소년체육대회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초등학교 핸드볼선수권대회
- 핸드볼 슈퍼리그 코리아대회

제4장 시군체육회의 활동

개론

전라남도 각 시군의 근대 체육활동은 항일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면서 급진적 신장세를 보여왔다(제1권, 제1편 3장 시군체육회 조직과 활동 참조)

1961년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각 시·군마다 시장 군수를 당연직 회장으로 하는 체육회가 출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체육시대를 맞게 되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이미 일제 일제 강점기부터 체육인에 의한 체육회가 조직되어 시·군민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1904년 전남 시·군 체육의 선각지 목포시에서 목포체육회가 창설되어 1923년 목포체육협회로 발전하면서, 전남 시·군 체육조직을 앞장서 이끌었다.

이어 1916년 3월 영광청년회, 1918년 나주청년회, 1920년 순천체육회가 발족되었다.

1945년 광복후 보성군체육회, 1946년 여수시체육회, 장흥군체육회, 광양군체육회, 영암군체육회가 각각 창설되었고 1947년 승주군체육회, 1948년 진도군체육회, 1959년 완도군체육회가 출범하여 전남 도내 시·군체육회가 거의 창립되어 시·군체육진흥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같은 결실이 있기까지는 주로, 각 시·군청년회 주관으로 축구, 정구등 소수 종목을 주축으로 구성하였고, 점차 경기종목이 확대 시·군체육회가 전문체육(학교체육)을 주도 육성 해왔으나 1991. 5. 1 전남생활체육협회의 공식 출범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 운영되어 오다가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2016. 2. 26 전국적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어 단일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9. 12. 15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정치(행정)와 체육을 분리운영하는 시군체육회장의 관선에서 선출에 의한 민선체육회장 시대를 맞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목포시체육회



■ 개론

1960년 이종수 목포시장을 추대하여 목포시체육회가 출범하였으며, 1962년 송성룡 회장의 취임과 함께 규약을 제정하고 체육회가 발족 하였다. 발족과 함께 1962년 목포에서 제1회 도민체전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총 8차례 도민체전을 개최하며 전남체육인들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2016년 목포시생활체육회와 통합하여 새로이 출범한 목포시체육회는 2020년 민선 체육회장선거를 통해 민선 제1대 송진호 회장을 선출하고 51명의 임원을 구성하였으며, 산하에 46개의 정회원단체와 3개의 준회원 단체를 두고 있다. 목포시체육회는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개최 하였으며 유소년 선수 장학 지원을 통해 체육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과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다.

2023년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 및 각종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체육인의 뜻을 대변하고 체육계 저변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다.

■ 주요연혁

- 1960. 06. (구)목포시체육회 출범 (회장 이종수)
- 1962. 06. 18. (구)목포시체육회 규약 제정 발족(초대회장 송성룡)
- 1991. 08. 26. (구)목포시생활체육협의회 규약 제정 발족(초대회장 박일남)
- 2009. 10. (구)목포시생활체육협의회→목포시생활체육회로 명칭변경
- 2016. 03. 25. 목포시체육회(통합) 규약 제정 발족 (통합초대회장 박홍률)
- 2018. 04. 25.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기존 2022년 → 2023년 개최
- 2019. 01. 29. 목포시체육회 사무실 이전
- 2020. 01. 16. 목포시체육회 민선1대 송진호 회장 취임
- 2021. 05. 25. 목포시체육회 법정법인 출범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90. 01 ~ 1991. 01	나 승 포	박 균 선	최 경 수
1991. 01 ~ 1992. 01	김 흥 래	박 균 선	최 경 수
1992. 01 ~ 1993. 03	이 만 의	박 균 선	최 경 수
1993. 03 ~ 1994. 12	정 영 식	곽소선, 임상배	김 호 남
1995. 01 ~ 1995. 06	안 재 호	곽소선, 임상배	최진태, 박정섭
1995. 07 ~ 2002. 06	권 이 담	임상배, 주영순	범 용 수
2002. 07 ~ 2005. 01	전 태 홍	이 호 균	범용수, 김영래
2005. 05 ~ 2014. 06	정 종 득	이 호 균	김영래, 김영남
2014. 07 ~ 2016. 03	박 흥 룰	서행조, 조재호	김 도 순
2017. 01 ~ 2020. 12	주 종 광	조재호, 박철수	김도순, 문창일
2021. 01 ~	장 동 우	장 동 우	김 창 근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91. 01 ~ 1999. 12	박 일 남	박 병 섭	송 인 석
2000. 01 ~ 2002. 07	박 병 섭		송인석, 김득수
2002. 08 ~ 2008. 01	송 인 석		방 현 수
2008. 02 ~ 2014. 08	정 종 득	송인석, 김현준	박용식, 김준형
2014. 10 ~ 2016. 02	이 금 용		손관기, 김성일

• 통합 후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2016. 2. ~ 2018. 6.	박 홍 룰	박 철 수	문창일, 김성일
2018. 8. ~ 2020. 1.	김 종 식	이 광 채	김득수, 문창일, 김성관
2020. 1. ~ 현재	송 진 호		김 성 관

■ 역대임원 현황

- 임 원 : 51명 (회장1, 부회장6, 이사42, 감사2)

• 사무국

- 인원 : 22명[사무국장 1, 의전실장 1, 직원 5(과장1, 주임2, 담당2), 생활체육지도자 17(팀장 4, 지도자 13)]
- 현황 : 1국 1실 4팀(체육행정지원사무국 / 의전실 / 체육진흥팀, 전문체육팀, 생활체육팀, 스포츠마케팅팀)
- 주 소 :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층
- 연락처 : 전화 061)279-1155, 274-7330
팩스 061)277-4320

- 회원종목단체 현황 : 49개(정회원46, 준회원3)

검도, 소프트테니스, 게이트볼, 수상스키, 골프, 수영, 국학기공, 승마, 궁도, 씨름, 낚시, 야구소프트볼, 농구, 요가, 당구, 요트, 댄스스포츠, 유도, 라켓볼, 육상, 레크리에이션, 자전거, 롤러스포츠, 족구, 무에타이, 줄넘기, 바둑, 철인 3종, 배구, 체조, 배드민턴, 축구, 밸리댄스, 카누, 보디빌딩, 탁구, 복싱, 태권도, 볼링, 테니스, 사격, 파크골프, 산악, 하키, 서바이벌, 합기도, 그라운드골프, 주짓수, 피구

• 주요사업

- 목포시장배 종합체육대회 개최
- 전남체육대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전남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자매도시초청친선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종합대회 출전

- 회원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전국/전남대회 출전 지원
-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 전지훈련 유치 홍보 및 참가팀 물품, 인센티브 지원
- 전문선수 전국/전남 대회 출전 지원
- 학교체육팀 창단지원 및 물품 지원

여수시체육회



■ 개론

여수시체육회는 1960년 4월 1일 황형주를 초대회장으로 공식 창립되었다.

1961년 제1회 여수시 시민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62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회장으로 당연직 시장이 추대되었으며, 그해 9월 30일 ~ 10월 1일(2일간) 처음으로 개최된 제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하여 3위를 차지하였다.

1990년 4월 30일 여수시체육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진남체육공원이 완공되어 현재 여수시체육회의 소재지로 되어있다.

1998년 4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3여 통합으로 그해 9월 통합 여수시체육회로 새롭게 발족하였으며, 2015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그동안 이원화 운영되었던 여수시체육회와 여수시생활체육회가 순조롭게 통합을 이뤄 통합여수시체육회로 출범하여 전국 모든 체육회의 모범사례가 되었다.

또한, 2016년 7월 “여수시체육회”로 재출범하여 현재 축구를 비롯 44개 종목 약 8만여명이 동호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진남체육공원을 비롯 6개의 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도 진남배드민턴전용구장 등 체육인을 위한 시설이 확충되어 여수시 체육인의 선도적 역할로 여수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98. 09 ~ 2002. 01	김 욱 도	김 봉 섭	민 경 필
2010. 07 ~ 2014. 09	김 정 식	김 봉 섭	민 경 필
2014. 09 ~	천 대 욱	정 상 영	

- 통합 후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98. 09 ~ 2002. 01	김 욱 도	김 봉 섭	민 경 필
2010. 07 ~ 2014. 09	김 정 식	김 봉 섭	민 경 필
2014. 09 ~	천 대 욱	정 상 영	

■ 조 직

- 임 원 : 55명(회장1, 부회장8, 이사44, 감사2)
- 사무국 : 1국 2과 (사무국 / 사무과, 지원과)
 - 인 원 : 19명
(사무국장 1, 차장 2, 과장 2, 생활체육지도자 14(지도자14))
 - 주 소 :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진남경기장 내)
 - 연락처 : 전화 061)691-0503~4, 654-7330 fax 061-691-0360
6910360@hanmail.net
 - 홈페이지 : <http://www.yeosusports.co.kr>
- 회원종목단체 현황 : 45개 (정회원38, 준회원6, 인정1)
검도, 게이트볼, 골프, 그라운드골프, 국학기공, 궁도, 낚시,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롤러스포츠, 바둑,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수영, 수중핀수영, 스쿼시, 씨름, 야구, 요가, 요트, 유도, 육상, 자전거, 소프트테니스, 족구, 철인3종,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특공무술, 패러글라이딩, 합기도, 산악, 윈드서핑, 줄다리기, 체조, 카누, 피구, 한궁
- 주요사업 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14명(일반6, 어르신8)
 - 여수시민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8개소
 - 여수시민체육대회 개최(1998년 ~ 현재) / 15종목
 - 전남체전 유치(2017년)
 -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유치(2005년, 2011년, 2017년)
 - 여수시생활체육대회 개최(2001년 ~ 2014년) / 21종목

- 여수시 학생스포츠 대축전 개최(2015년 ~ 2017년) / 8종목 59개교 2,000여명 참가
- 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27개 종목 운영)
- 종목별협회장기(배)대회(21개 종목 운영)
- 전문체육 육성(여수시청 육상, 요트, 유도)
- 영호남친선생활체육대회(1997 ~ 현재) 15개종목 개최 / 통영시, 여수시 순환개최
- 전국(국제)규모대회 등 14개회 유치
- 기타 지역특성화 대회(여수마라톤대회(2005년~2018년))
- 전문선수 전국/전남 대회 출전 지원
- 학교체육팀 창단지원 및 물품 지원

순천시체육회 현황



■ 개론

순천시체육회는 1995년 1월에 승주군체육회와 순천시체육회를 통합하여 통합순천시체육회로 출범하였다.

2016년 3월 전남에서 최초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 “순천시체육회”로 재출범하여 현재 축구를 비롯 74개 종목단체 약 4만여명이 동호인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팔마체육시설에는 팔마경기장, 팔마보조구장, 전남최고시설로 자랑하는 팔마야구장, 팔마테니스장, 팔마소프트테니스장, 팔마국궁장, 유소년축구장, 팔마클라이밍장, 팔마양궁장, 팔마씨름장, 팔마체육관, 팔마유도관, 팔마복싱관, 팔마올림픽기념관에 팔마수영장 및 국민체육센터를 비롯 체육시설이 완비되어 순천시체육인을 위한 건강도시로 안성맞춤.

2000년 제40회 전남체전 개최이후 21년만에 2021년 제61회 전남체육대회 유치를 하였으며, 2020년 1월 16일 민선체육회장이신 이상대회장 출범으로 29만 순천 시민들과 함께하는 스포츠 ! 소통하는 체육회 ! 건강 으뜸 순천시! 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모든 부분에 있어 시민이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회를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에 맞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순천시 체육 발전을 향해 많은 노력과 스포츠의 메카로 성장하게끔 저변확대에도 끝없는 노력을 기울이며 명실상부 최고의 체육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주요연혁

- 1973년 9월 20일 순천시체육회 창립
- 1995년 1월 1일 승주군, 순천시체육회 통합
- 2004년 9월 23일 고유번호증 등록
- 2006년 제4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종합우승



- 2016년 3월 26일 체육회 · 생활체육회 통합
- 2022년 4월 22일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예정
- 2020년 1월 16일 민선 1대회장 이상대 취임
- 2021년 6월 09일 순천시체육회 법인설립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90.01.01 ~ 1992.12.31	안 재 호	김 효 수	허 희 만
1993.01.01 ~ 1995.06.30	이 용 호	김 효 수	허 희 만
1995.07.01 ~ 1998.06.30	방 성 룡	김동희, 화익병	김 원 모
1998.07.01 ~ 2002.06.30	신 준 식	변 양 일	강상언, 김원모
2002.07.01 ~ 2006.06.30	조 충 훈	김 관 중	안 재 민
2006.07.01 ~ 2012.02.30	노 관 규	김유만, 박옥천	김상문, 정홍준
2013.03.11 ~ 2016.03.26	조 충 훈		김 형 근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1990. 08 ~	이 윤 채	최 명 근
2000.01.01 ~ 2011.06.29	최 중 기	최 석 렬
2011.06.30 ~ 2013.03.30	임 중 모	남경일, 김승룡
2013.04.05 ~ 2016.03.25	송 재 인	김 승 룡

• 통합 후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2016.03.26 ~ 2018.06.30	조 충 훈	이 흥 우	김형근, 조송훈
2018.07.01 ~ 2020.01.15	허 석		이옥기, 정영근
2020. 01. 16 ~	이 상 대		이옥기, 정영근

■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74명(회장1, 부회장9, 이사62, 감사2)
- 사무국
 - 인원 : 26명 (사무국장 2, 비서실장 1, 대리3, 어르신생활지도자 11, 일반생활체육지도자 9)
 - 주 소 :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3 올림픽기념관 3층
 - 연락처 : 전화 061)749-3417, 745-7330
fax 061-749-4782, 746-7330
 - 홈페이지 : <http://www.scsports.kr>
- 읍면동체육회 현황 : 24개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서면, 황전면, 월등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 회원종목단체 현황 : 50개(정회원48, 준회원2)
검도, 골프, 궁도, 배구, 복싱, 볼링, 사격, 수영, 씨름, 야구소프트볼, 우슈, 유도, 육상, 소프트테니스,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양궁, 댄스스포츠, 태권, 역도, 빙상, 건기,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낚시, 농구, 당구, 산악, 롤러스포츠, 벨리댄스, 바둑, 배드민턴, 보디빌딩, 승마, 요가, 자전거, 종합격투기, 줄넘기, 줄다리기, 체조, 패러글라이딩, 합기도, 주짓수, 특공무술, 스킨시, 파크골프
- 주요사업
 - 순천만국가정원배대회(11개 종목 운영)
 - 순천만갈대배 전국 남녀배구대회(2008~2021)
 - 제11회 순천만ECO 국제걷기대회(2010~2021)
 - 몽골 유도 청소년대표팀 초청 국제교류대회(2018~2021)
 - 순천만 전국 산악자전거(MTB)대회 외 3개대회(1995~2021)
 - 순천시장배대회(31개대회 운영)
 - 2021년 전국 아마추어 순천형 씨름대회
 - 순천형 씨름교실 운영(2020~2021)
 - 2021 전남 동부 7개시군 게이트볼대회



- 순천시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2002~2021)
- 2021 동부 7개시군 순천시 그라운드골프대회 등
- 남승룡 마라톤대회(2021년 현재 21회)

나주시체육회



■ 개론

나주시체육회는 1993년 2월 나주시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 있는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고자 설립하였다. 2006년에는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신청을 하였다. 나주시체육회는 나주시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09년 종합스포츠타워 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2021년 현재 36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2016년 나주시체육회와 나주시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목적을 두고 있다.

나주시체육회에는 2021년 현재 35개 종목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체육단체운영 시설은 테니스, 궁도, 게이트장을 비롯해 38개의 스포츠시설을 보유하고 2021년에는 족구장 신설을 예정에 두고 있다.

■ 주요연혁

- 2016년 03월 31일 창립총회 개최
- 2016년 03월 31일 나주시생활체육회 사무실 개설(전남 나주시 남산길 23)
- 2016년 03월 31일 나주시체육회 사무실 개설(나주실내체육관 내 1층)
- 2016년 03월 31일 사무실 이전(나주종합운동장 내 1층)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93. 02 ~ 1993. 11	안 홍 식	양 봉 현	이 정 오
1993. 12 ~ 1997. 02	송 득 영	김 신 근	양 재 준
1997. 02 ~ 2007. 11	나 인 수	양 봉 현	이 정 오
2007. 03 ~ 2011. 04	신 정 훈	나종석, 양봉현	김 영 덕
2011. 03 ~ 2016. 04	임 성 훈	양 봉 현	조 성 준



- 나주배꽃배(테니스, 배구)생활체육 테니스대회
- 전국남여중별롤러스포츠스피드대회
- 전국육상경보챌린지나주대회
- 금성산숲길마라톤대회
- 한국전력재전국중고등학교중장거리육상대회
- 대통령기전국사이클대회
- 마스터즈사이클대회
- 전국클럽대항볼링대회
- 나주페어컵배드민턴대회
- 전남드래곤즈프로축구리그개최
- 나주장사씨름대회
- 나주스포츠클럽

광양시체육회



■ 개론

1946년 8월 광명청년축구단을 모체로 광양체육회 발족하여 1955년 제34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3위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1989년 3월 3일 동광양시체육회가 발족된 후 6년만인 1995년 통합 광양시체육회 설립되었다. 1997년 전국 최초로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였고 1998년 전국규모의 고교 축구대회인 백운기 전국 우수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창설, 1999년 황영조 올림픽 제패 기념 전국 실업단 대항 하프마라톤대회 개최, 2003년 제42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광



양지에서 처음으로 유치하였고, 2004년 전국 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2007년 FIFA세계청소년 월드컵, 2007피스컵코리아축구대회, 8개국(U-17) 국제청소년축구대회 등 스포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2009년 제48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하였고 이후 2012년부터 2014년 제53회 전라남도체육대회까지 3연속 종합우승을 하는 등 명실상부한 체육 우수도시임을 입증하였다.

■ 주요연혁

- 1946. 8. 광명축구단을 모체로 광양체육회 발족
- 1973. 4. 광양군체육회 조직
- 1989. 3. 3. 동광양시체육회 창립
- 1990. 8. 20. (구)광양군·동광양시생활체육협의회 발족
- 1995. 1. 광양시체육회 통합(초대회장 윤원보)
- 1999. 5. 제1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개최
- 2003. 4. 제42회 도민체전 개최
- 2009. 6. 15. (구)광양시생활체육협의회 → 광양시생활체육회로 명칭변경
- 2009. 4. 제48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종합우승
- 2016. 3. 광양시체육회, 광양시생활체육회 통합
- 2020. 6. 민선초대 광양시체육회장 정시화 취임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구)광양군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86. 06 ~ 1991. 12	윤원보, 이윤하	박 노 회	이 용 현
1992. 01 ~ 1993. 12	이강사, 심재민	이 평 재	김석진, 김봉순
1994. 01 ~ 1994. 12	이 병 훈	김 종 대	박 재 선

• 전문체육-구)동광양시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89. 03 ~ 1989. 11	이 현 호	서 정 복	김 영 훈
1989. 11 ~ 1991. 01	박 형 인	서 정 복	김 영 훈
1991. 01 ~ 1992. 01	유 상 철	서 정 복	김 영 훈
1992. 01 ~ 1993. 03	이 용 호	서 정 복	김 영 훈
1993. 03 ~ 1994. 05	안 흥 식	서 정 복	김 영 훈
1994. 05 ~ 1994. 11	박 웅	서 정 복	김 영 훈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1990.08.20. ~ 1995.01.31.	하정길 (광양군)	-
1990.08.20. ~ 1994.03.31.	최영부 (동광양시)	-
1994.04.01. ~ 1995.01.31.	이광남 (동광양시)	-
1995.02.01. ~ 1996.04.17.	하정길 (광양시)	-
1996.04.18. ~ 2000.01.24.	최민호 (광양시)	-
2000.01.25. ~ 2004.04.22.	최민호 (광양시)	박 종 선
2004.04.23. ~ 2008.04.22.	박종선 (광양시)	정 옥 수
2008.04.23. ~ 2012.03.08.	박종선 (광양시)	정 옥 수
2012.03.09. ~ 2016.03.24.	박인석 (광양시)	하 태 승

• 통합후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2016. 03 ~ 2018. 12	정 현 복	김종신, 하태승
2019. 01 ~ 2020. 01	정 현 복	김종신, 이현택
2020. 04 ~	정 시 화	김종신, 이현택

■ 조 직

- 임 원 : 77명(회장1, 수석부회장1, 부회장5, 이사68, 감사2)
- 사무국 : 2국 2과 (전문체육사무국, 생활체육사무국)
 - 인 원 : 17명[사무국장 2, 직원 3(과장2, 간사1), 생활체육지도자 12]
 - 주 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695-20(공설운동장내)
 - 연락처 : 전화 061)763-8373, 763-7815
팩스 061)763-5956, 762-7334
- 회원종목단체 현황 : 49개(정회원37, 준회원7, 인정단체5)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댄스스포츠, 무술연합,
바둑,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산악, 소프트테니스,
수영, 스쿼시, 실용무용연합, 씨름, 야구소프트볼, 역도, 요트, 유도,
육상, 자전거, 족구, 체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풋살,
합기도, 스포츠클럽, 국학기공, 당구, 빙상, 인라인스케이팅, 철인3종, 승마,
e-스포츠, 수상스키, 요가, 패러글라이딩, 대한레포츠, 실버연합
- 주요사업 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12명(일반5, 어르신6, 유소년1)
 - 광양시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현재) / 10종목(격년제)
 -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유치(2000, 2011)
 - 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13개 종목 운영)

- 종목별협회장배대회(21개 종목 운영)
- 전문체육 육성(광양시청 육상, 볼링.)
- 영호남(광양, 하동)생활체육한마음축제(2000년~ 현재)
- 남해안 남중권 생활체육9개시군 생활체육교류행사 개최(2016)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진주, 사천, 남해, 하동
- 3개시(광양, 여수, 순천)생활체육교류행사 개최(2015)
- 한일생활체육교류 국민생활체육협회장배 축구대회 개최(2000)
- 생활체육 종목단체 개최 및 참가 지원 49개 종목(2000~현재)
- 숯돌이축구대회 교실 및 개최(2008~현재)
- 해양레저스포츠체험 교실(2014~현재)
- 공공스포츠클럽 운영(2017~현재)
- 광양시 생활체육 한마음대회 개최(2005~2017)
- 백운산 기(氣)와 숲체험 행사(2002~현재)
- 어르신건강체조어울마당(2016~현재)
- 생활체육야구동호인연중리그(2007~현재)
- 어린이 및 청소년 풋살대회(1997/2010~현재)
- 광양시I-League 개최(2019)
-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1998년~현재)
-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2017년~현재)
- 광양만배 유소년 전국 수영대회(2011~현재)
- 광양시장기 전국 궁도대회(2006년~현재)
- 광양시장배 전국 테니스대회(2003~현재)
- 백운산기 전국 남·여 배구대회(2011~현재)
- 각종(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볼링, 배구) 전국대회 유치

담양군체육회



■ 개론

8·15해방 후 강종우, 전기철, 김정환 등이 주동이 되어 민간조직 체로 시작되었다고 하나 정확한 설립연대를 알 수 없고 1962년 도민 체육대회 개최 등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시책이 추진됨에 따라 관 주도에 의한 조직이 이루어 졌다. 그동안 회장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하고 군의 지원하에 상임부회장이 실질적인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 2020년부터는 당연직이었던 회장을 민간분야에서 초대하여 명실상부한 민간주도의 조직으로 운영해 가고 있다. 공공체육시설로는 종합체육관, 하키구장 1개면, 축구장 4면, 수영장1개소, 파크골프장 38홀, 야구장 4면, 게이트볼구장 12개소, 테니스장 1개소 운영



■ 주요연혁

- 미상 (구)담양군체육회 발족
- 1990. 10. 25. 담양군생활체육협의회 발족
- 1983. 01. 담양군민회관(문화회관) 체육회 사무실 개소
- 2007. 03. 01. 담양종합체육회 및 담양군생활체육회 통합
- 2008. 10. 담양종합체육관내 생활체육관동으로 체육회 사무실 이전
- 2009. 06. 01. 담양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담양군생활체육회 명칭변경
- 2016. 07. 01. 담양군체육회(통합) 발족
- 2020. 01. 15. 민간초대 정영창 회장 취임
- 2020. 05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우수단체 선정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89.12 ~ 1991.01	이 윤 하		문 영 철
1991.01 ~ 1991.07	박 준 식		문 영 철
1991.07 ~ 1993.03	김 해 권		윤 영 선
1993.03 ~ 1994.01	이 광 수		윤 영 선
1994.01 ~ 1994.12	노 병 인	국대윤, 임병채 서세일, 정광연 조상용, 김동섭 윤영선	윤 영 선
1995.01 ~ 1995.06	진 중 근		윤 영 선
1995.07 ~ 1998.06	문 경 규		윤영선, 한봉섭
1998.07 ~ 2002.06	문 경 규		한봉섭, 송경태
2002.07 ~ 2006.06	최 형 식	최만국, 한봉섭 허승업, 김정오 김행복	윤재성, 서용진
2006.07 ~ 2009.09	이 정 섭		송 경 태
2009.10 ~ 2010.06	주 영 찬		송 경 태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2002.07 ~ 2006.06	최 형 식	최만국, 한봉섭 허승업, 김정오 김행복	윤재성, 서용진
2006.07 ~ 2009.09	이 정 섭		송 경 태
2009.10 ~ 2010.06	주 영 찬		송 경 태
2010.07 ~ 2014.06	최 형 식	김행복	정 영 창
2014.07 ~ 2018.06	최 형 식		정영창, 국석주
2018.07 ~ 2019.12	최 형 식		국 석 주
2020 ~ 현재	정 영 창		국 석 주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1991. 10 ~ 1993. 12	김 동 순	박 종 욱
1994. 01 ~ 1995. 12	신 동 욱	장 환
1996. 01 ~ 2003. 12	김 영 진	장 환, 현석재, 노정용
2004. 01 ~ 2008. 10	허 승 업	송 경 태
2008. 11 ~ 2010. 02	김 정 오	송 경 태
2010. 03 ~ 2012. 02	김 행 복	정 영 창
2012. 03 ~ 2014. 02	홍 정 록	정 영 창
2014. 03 ~ 2016. 06	송 경 태	정영창, 국석주

- 통합후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2016. 07 ~ 2019. 12	최 형 식	국 석 주
2020. 01 ~ 현재	정 영 창	국 석 주

■ 조직

- 임 원 : 48명 (회장 1, 부회장 3, 사무국장 1, 사무차장 2, 이사 39, 감사 2)
- 사무국 : 1국 1실
 - 인 원 : 사무국장 외 10명
[사무국장 1, 일반지도자 5, 어르신전담지도자 5(팀장 2, 행정지도자 2)]
 - 주 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34
 - 연락처 : 전화 061)381-1357, 383-7677
팩스 061)381-1356
- 회원종목단체 현황 : 23개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바둑,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산악, 소프트테니스, 수영, 야구소프트볼, 육상, 자전거, 족구, 체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 주요사업 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10명(일반5, 어르신5)
 - 담양군생활체육대축전 개최(2004년 ~ 2021년) / 15개종목
 - 종목별협회장배대회(14개종목 운영)
 - 담양메타세쿼이아 전국마라톤대회(2003년~2021년)) 등
 - 기타 지역특성화 대회 개최

곡성군체육회



■ 개론

곡성군체육회는 1991년 곡성군생활체육회를 창립하여 스포츠정신 확산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 하고 군민 체력향상을 통한 건전하고 명량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각종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전 유치 를 통하여 지역 간 협력 및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며 군민의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현재 곡성군체육회는 2009년 9월 곡성군 문화체육관 내 2층에 사무실을 개설 하였고 2010년 12월 곡성군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가 통합하였다.

현재 다양한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곡성군 홍보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곡성군 체육회는 34개의 정회원 회원종목단체와 3개의 회원단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 주요연혁

- 1991년 곡성군생활체육회 창립 (진병국 초대회장)
- 2010년 12월 곡성군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통합
- 2009년 09월 사무실 개설(문화체육관 내 2층)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91 ~ 1994	진 병 국		문 영 철
1994 ~ 1997	이 상 호	이 태 열	정 구 섭
1997 ~ 1999	조 형 래	이 태 열	정 구 섭
1999 ~ 2002	고 현 석	이 태 열	정 구 섭
2002 ~ 2003	조형래, 고현석	이 태 열	박 성 태
2003 ~ 2010	조 형 래	조 상 래	박 성 태



- 곡성군 전국 섬진강자전거 희망렐리대회(2018~현재)
- 곡성섬진강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2010~현재)
- 기타 지역특성화 대회 개최

구례군체육회



■ 개론

구례군체육회는 1976년 10월 11일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 체력증진 및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결성되었으며 학교체육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각종 대회 및 생활체육을 통해 군민들의 생활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02년 구례군체육회와 구례군생활체육회는 사무실을 통합하고,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구례군체육회와 구례군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더 좋아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을 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체육회가 군민들의 소통의 장이 되어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전지훈련 참가팀 및 인원은 매년 증가하여 축구, 태권도, 씨름, 육상, 철인3종, 야구소프트볼, 자전거(사이클), 볼링 등 연인원 35,000여명 구례군 방문을 통해 30억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최되고 있는 국제 철인3종경기 대회는 국외선수 600여명, 국내선수 1,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구례군, 구례군체육회 등 기관단체 그리고 자원봉사 1,500명이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0년 현재 구례군체육회는 아름다운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구례군체육회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2021년 6월 3일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

■ 주요연혁

- 1976년 10월 11일 구례군체육회 결성
- 1991년 06월 01일 구례군생활체육협의회 결성
- 2002년 10월 01일 사무실 통합 이전(구례군.읍 봉북리 25번지)
- 2009년 01월 01일 구례군생활체육회 명칭 변경
- 2016년 03월 17일 구례군체육회 · 구례군생활체육회 통합
- 2020년 01월 15일 민선초대 회장 선출
- 2021년 1월 6일 법인 준비위원회 결성
- 2021년 3월 30일 법인 준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 2021년 5월 24일 법인 설립 인가
- 2021년 6월 3일 법인 설립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89. 01 ~ 1990. 08	김 완 기		김 영 일
1990. 08 ~ 1991. 07	김 해 권	박 종 호	김 영 일
1991. 07 ~ 1993. 03	윤 관 중	박 종 호	김 영 일
1993. 03 ~ 1994. 05	김 홍 식	박 종 호	김 영 일
1994. 05 ~ 1994. 12	전 지 현	박 종 호	김 영 일
1995. 01 ~ 1995. 06	조 향 원	박 종 호	김 영 일
1995. 07 ~ 1998. 06	이 동 승	박종호,김종만	김 재 관
1998. 07 ~ 2002. 06	전 경 태	김종만	김 재 관
2002. 07 ~ 2006. 06	전 경 태	전상선,박민순	이 현 길
2006. 07 ~ 2014. 06	서 기 동	한 상 옥	김 영 근
2014. 07 ~ 2016. 03	서 기 동	박 태 환	김 수 철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1991. 06 ~ 1992. 02	한 영 석	문 선 회
1992. 03 ~ 1997. 02	김 이 현	문 선 회
1997. 03 ~ 1997. 02	이 영 배	문 선 회
1998. 03 ~ 2003. 02	전 상 선	최 형 근
2003. 03 ~ 2007. 01	박 민 순	이 현 길
2007. 02 ~ 2010. 01	한 상 옥	김 영 근
2010. 02 ~ 2013. 01	한 상 옥	김 영 근
2013. 02 ~ 2019.	박 태 환	김 수 철

- 통합후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2016. 03 ~ 2018. 06.	서 기 동	김 수 철
2018. 07 ~ 2020. 01.	김 순 호	오 형 규
2020. 01 ~	문 정 현	양 영 범

-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87명(회장1, 부회장9, 임원75, 감사2)
- 사무국 : 1국
 - 인원 : 13명(사무국장 1명, 지도자 12명)
 - 주소 : 전남 구례군.읍 서시천로 76-11(실내체육관 내)
 - 연락처 : 전화 061)781-7330 fax 061-780-2781



- 읍면체육회 현황 : 8개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토지면, 마산면, 광의면, 용방면, 산동면
- 회원종목단체 현황 : 37개
게이트볼, 궁도, 육상, 배구, 배드민턴, 볼링, 체조, 씨름, 소프트테니스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줄다리기, 골프, 등산, 자전거, 검도
패러글라이딩, 사격, 바둑, 택견, 수영, 유도, 그라운드골프, 복싱, 카누
승마, 야구소프트볼, 역도, 철인3종, 당구, 합기도, 스쿼시, 파크골프, 한궁
- 주요사업 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 12명(일반 7명, 어르신 5명)
 -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2012년)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2014년)
 - 아이언맨 70.3 구례코리아(2014년~2016년)
 - 아이언맨 구례코리아 개최(2017년~현재까지)
 -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최(2019년)
 - 구례군·거제시 생활체육 교류전(1999년~현재까지)
 - 전문체육 육성(5개 학교)

고흥군체육회



■ 개론

1967년 8월 24일 고흥군체육회는 초대회장이자, 관선 제17대 김남권 군수로부터 체육회가 창립되었다.

1983년 전라남도체육대회 종합 9위와 입장상 2위를 시작으로 1987년 종합 1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1988년 고흥군민회관 건립을 시작으로 2001년부터 박지성공설운동장과 팔영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생활체육공원까지 2008년 완공하였으며, 2010년 김태영축구장, 2011년 김일기념체육관, 2014년 거금야구장과 다목적 체육관인 국민체육센터, 2021년 그라운드골프장과 게이트볼 전용구장까지 총 11개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도 배드민턴 전용구장, 탁구 전용구장 공사를 진행하는 등 군민의 건강과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 제25대 박병중 회장이 고흥군체육회와 고흥군생활체육회를 자체 통합하였으며,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통합하였다.

2018년 송귀근 군수가 제27대 체육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체육회 역사상 전국 최초로 여성인 안정민 상임부회장을 선임하여 큰 화제가 되었고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2020년 민선체육회장선거에도 당선하였다.

2021년 34개의 종목단체와 16개 읍·면체육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도활동을 통해 동호인들이 운동에 흥미를 느끼며 1인 1종목을 갖고 모든 군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20년 현재 구례군체육회는 아름다운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구례군체육회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2021년 6월 3일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



■ 주요연혁

- 1967년. 8월. 24일 고흥군체육회 창립
- 1990년 사무실 개설(군민회관 내 1층)
- 2008년 사무실 이전(박지성공설운동장 내)
- 2011년 고흥군체육회, 고흥군생활체육회 자체 통합
- 2020년 2월 민선체육회장 선거 안정민 체육회장 취임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89. 06 ~ 1991. 01	김 옥 현		
1991. 01 ~ 1991. 08	서 재 관		
1991. 08 ~ 1993. 03	이 정 균		
1993. 03 ~ 1994. 05	허 길 남		
1994. 05 ~ 1994. 12	박 래 관		
1995. 01 ~ 1995. 04	윤 관 중		
1995. 04 ~ 1995. 06	국 순 성		
1995. 07 ~ 1998. 06	류 상 철	배 기 홍	권 영 길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98. 07 ~ 2002. 06	류 상 철	배 기 홍	차 은 석
2002. 07 ~ 2006. 06	진 중 근	배 기 홍	차 은 석
2006. 07 ~ 2010. 06	박 병 중	정 종 식	송 기 웅
2010. 07 ~ 2014. 06	박 병 중	이 안 근	류 순 상
2014. 06 ~ 2016. 06	박 병 중	장 만 우	류 순 상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1991. ~ 1995.	배 기 홍	장 만 우
1995 ~ 1999	배 기 홍	장 만 우
1999 ~ 2003	배 기 홍	장 만 우
2003 ~ 2008	배 기 홍	장 만 우
2008 ~ 2010. 03	배 기 홍	장 만 우
2011. 03 ~ 2012. 03	이 안 근	류 순 상
2012. 09 ~ 2016. 08	장 만 우	류 순 상

• 통합후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2016. 06 ~ 2018. 06	박 병 중	장 만 우	류 순 상
2018. 07. ~ 2020. 02.	송 귀 근	안 정 민	전 지 용
2020. 02. ~	안 정 민		전 지 용

■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59명 (회장 1, 부회장 4, 이사 52, 감사 2)
- 사무국
 - 인원 : 전지용 사무국장 외 13명(직원 3, 지도자 10)
 - 주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92-67(박지성공설운동장 내)
 - 연락처 : 전화 061)835-3877 팩스 061)830-6007
- 읍면체육회 현황 : 8개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점암면, 영남면,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 회원종목단체 현황 : 37개
축구, 배구, 소프트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복싱, 테니스, 궁도, 검도, 볼링, 씨름,



- 2018. 10 제 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응원상
- 2018. 11 남해안·남중권 생활체육 교류 대축전 개최
- 2019. 04 제 58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종합1위, 성취상, 입장상)
- 2019. 10 제 31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입장상(7330상)
- 2019. 생활체육지도자 종합평가 전국 1위 달성
- 2020. 01 민선초대 최광주 회장 취임(대한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위원)
- 2020. 02 전라남도 민선 시/군 체육회장단 협의회 초대회장 선출(최광주 회장)
- 2020. 05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선정 우수단체 보성군체육회 선정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97 ~	류 상 철	배 기 홍	차 은 석
1999 ~	진 종 근	배 기 홍	차 은 석
2007 ~ 2016	박 병 중	정 종 식	송 기 웅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1994. 06. 18 ~	김 재 혁	길 정 진
2002. 03 ~	김 재 혁	길 정 진
2002. 03 ~	유 용 웅	길 정 진
2008. 01 ~	유 용 웅	길 정 진
2008. 01 ~ 2012.05	강 규 채	길 정 진
2012. 05 ~ 2016. 06	이 동 현	이 상 수

• 통합후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2016.06.27 ~ 2018.06	이 용 부	이 상 수
2018. 08 ~ 2020. 01	김 철 우	이 상 수
2020. 01 ~	최 광 주	최 영 규

■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92명(회장1, 고문1, 부회장9, 이사79, 감사2)
- 사무국 : 1국 1실
 - 인 원 : 13명(사무국장 1, 사무과장 1, 지도자11)
 - 주 소 : 전남 보성군.읍 용문길 18
 - 연락처 : 전화 061)852-4199 팩스 061)852-4120



- 2009년 09월 사무실 이전(화순읍 학포로 2698)
- 2016년 03월 30일 화순군체육회 · 화순군생활체육회 통합
- 2020. 01. 16. 화순군체육회 민선1대 최규범 회장 취임
- 2021. 06. 24. 화순군체육회 법정법인 출범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89. 01 ~ 1991. 01	박 준 식		
1991. 01 ~ 1991. 07	김 옥 현		
1991. 07 ~ 1993. 03	민 화 식		김 상 규
1993. 03 ~ 1994. 05	정 병 철		강 영 훈
1994. 05 ~ 1994. 12	선 중 룬		김 황 재
1995. 01 ~ 1995. 04	유 병 오		김 황 재
1995. 04 ~ 1995. 06	정 회 윤		김 황 재
1995. 07 ~ 1998. 06	공 석	이 계 휴	김 옥 남
1998. 07 ~ 2000. 02	임 흥 락	이 계 휴	김 옥 남
2000. 03 ~ 2002. 06	임 흥 락	이 계 휴	김 창 현
2002. 07 ~ 2004. 01	임 호 경	이 계 휴	문 명 용
2004. 06 ~ 2006. 06	이 영 남	이 계 휴	문 명 용
2006. 07 ~ 2006. 09	전 형 준	최 기 수	추 연 길
2006. 10 ~ 2007. 02	전 완 준	최 기 수	추 연 길
2007. 03 ~ 2010. 06	전 완 준	양 경 수	정 승 운
2010. 07 ~ 2011. 02	전 완 준	양 경 수	한 승 화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2011. 04 ~ 2012. 06	홍 이 식	조 준 성	서 재 석
2012. 07 ~ 2014. 06	홍 이 식	조 준 성	김 정 국
2014. 07 ~ 2015. 02	구 충 곤	조 준 성	김 정 국
2015. 03 ~ 2016. 11	구 충 곤	조 준 성	윤 해 근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 2008. 12	김 복 근	김 상 규
2009. 01 ~ 2016. 02	조 준 성	정 해 경

- 통합 후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2016. 03 ~ 2016. 12	구 충 곤	조 준 성	윤 해 근
2017. 01 ~ 2020. 01	구 충 곤	김 상 인	심 재 근
2020. 01 ~	최 규 범	김 상 인	김 명 준

■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46명(회장1, 부회장8, 이사35, 감사2)
- 사무국 : 1국 (행정지원사무국)
 - 인 원 : 16명[사무국장 1, 사무차장 1, 사무팀장 1
생활체육지도자 13(일반 4, 어르신 9)]
 -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2698 하니움문화스포츠내
 - 연락처 : 전화 061)371-7330, 372-7330
팩스 061)374-0116
- 회원종목단체 현황 : 36개 (정회원 36)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산악, 당구, 바둑,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자전거, 수영, 승마, 씨름, 야구, 체조,
역도, 유도, 육상, 소프트테니스, 족구, 줄넘기, 줄다리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패러글라이딩, 풋살, 파크골프, 합기도
- 주요사업 내용
 -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2010년)
 -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유치(2011년)



-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유치(2017년)
- 이용대배 화순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2010년 ~ 현재)
- 광주mbc전국유소년 축구리그(2021년)
- 무등기 전국 어린이.어머니.교직원 배구대회(2015년 ~ 현재)
- 너릿재옛길 흡서기 마라톤대회(2015년 ~ 현재)
- 화순고인돌 전국 마라톤대회(2002년 ~ 현재)
- 영호남 화합 호국검도대회(2015년 ~ 현재)
- 화순군수배 전국 복싱대회(2012년 ~ 현재)
- 화순군체육회 복싱 실업팀 창단(2021년)
- 기타 지역특성화 대회 등

장흥군체육회



■ 개론

장흥군 체육회는 1949년 장흥 군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역량 있는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고자 설립하였다.

장흥군 체육회는 2013년 장흥군체육회관을 개관하였다. 2020년 현재 37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2016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그동안 이원화된 체육 시스템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벽을 허물어 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하고, 스포츠로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는 목적이 있다.

■ 주요연혁

- 2013년. 2월. 1일 사무실 개설
- 2016년. 6월. 13일 통합체육회 창립총회 개최(초대회장 김 성)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93. 01 ~ 1996. 12	박 래 관	박 종 화	김 영 일
1997. 01 ~ 1998. 12	김 재 종	박 종 화	김 남 형
1999. 01 ~ 2006. 12	김 재 종	박 종 화	강 형 인
2007. 01 ~ 2008. 12	김 인 규	임 형 기	김 종 욱
2009. 01 ~ 2010. 12	이 명 흠	임 형 기	조 주 열
2011. 01 ~ 2013. 12	이 명 흠	임 형 기	조 주 열
2014. 01 ~ 2014. 12	이 명 흠		김 재 승
2015. 01 ~ 2018. 12	김 성		정 성 인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1990. 08 ~ 2003. 12	김 복 근	김 상 규
2004. 01 ~ 2007. 12	조 준 성	정 해 경
2008. 01 ~ 2011. 12	김 복 근	김 상 규
2012. 01 ~ 2016. 05	조 준 성	정 해 경

- 통합후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2016. 06 ~ 2018. 12	김 성	정 성 인
2019. 01 ~ 2019. 12	윤 영 환	김윤곤, 조경일
2020. 01 ~ 2023. 02	윤 영 환	김 윤 곤

■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68명(회장1, 부회장6, 이사59, 감사2)
- 사무국 : 1국 1실 1팀
 - 인원 : 13명
 - [사무국장 1, 행정직원 1, 생활체육지도자 11(팀장 1, 지도자 10)]
 - 주소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5-28
 - 연락처 : 전화 061)862-7330 fax 061-864-7330
- 회원종목단체 현황 : 37개

육상, 축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궁도, 사격
배드민턴, 태권도, 복싱, 유도, 볼링, 수영, 자전거, 검도, 골프
역도, 바둑, 당구, 농구, 합기도, 등산, 승마, 피구, 페러글라이딩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야구소프트볼, 족구, 에어로빅스체조
보디빌딩, 파크골프, 풋살, 낚시, 철인3종
- 주요사업 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11명(일반4, 어르신7)
 - 장흥 전국장사씨름대회(2000년)
 -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 유치(2007년)
 - 전라남도체육대회 유치(2013년)
 -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2006년 ~ 현재)
 - 정남진 장흥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1967년 ~ 현재)
 - 장흥군청 육상 실업팀 창단(2020년)
 - 기타 지역특성화 대회 등



강진군체육회



■ 개론

강진군체육회는 1969년 7월 1일 발족되어 강진군수를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강진군체육회 규약(총 17장 46조)을 제정 공포하여 명실공히 각종체육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지역 실정에 맞는 체육회를 운영하기 위해 체육회 규약을 개정한바 있다.

1992년에는 체육회 규약을 전면 개정하여 선임임원에는 회장(당연직 군수), 부회장(약간인(당연직 교육장), 이사(15일 이상 30인 이내) 감사 2인을 두고 위촉 임원에는 대의원(각경기단체협의장), 고문(약간인)을 두도록 하였다.

2016년 3월 “통합 지침에 의거” (통합) 강진군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4월 7일 통합 강진군체육회가 출범하였다.

현재 궁도를 비롯한 정회원 34개 경기종목 단체로 약 5천여명의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축구, 사이클 등 동·하계 전지훈련팀 10종목 261개 팀 선수·임원과 학부모 등 연인원 44,463여 명을 유치, 직·간접적으로 3,532백만원의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어 전남 제일의 스포츠메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또한 2021년 5월 중 강진군탁구전용구장 준공을 통해 강진군 탁구 저변 확대에도 기대가 된다.

강진군체육회는 7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70여 개소를 방문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운영으로 군민건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주요연혁

- 1969년 07월 01일 발기인대회 개최
- 1969년 07월 01일 창립총회 개최(초대회장 이상노)
- 1994년 03월 08일 사무실 개설(강진군민회관내 2층)
- 2002년 04월 03일 사무실 이전(제1실내체육관내 1층)
- 2016년 03월 25일 강진군체육회·강진군생활체육회 통합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89.01.13~1990.08.27	문 덕 형		김 주 호
1990.08.28~1991.07.15	민 화 식		윤 재 권
1991.07.16~1993.03.28	문 병 일	김 찬 문	윤 재 권
1993.06.26~1994.05.05	백 종 철	김 찬 문	방 철 수
1994.05.06~1994.12.31	박 재 순	김 찬 문	방 철 수



- 생활체육

- 통합 후

■ 기 구(조직구성)

- 35명(회장1, 부회장4, 이사28, 감사2)
- 사무처
 - 인원 : 11명(사무국장1, 직원3, 지도자7)
 - 주소 : 전남 강진군 군동면 종합운동장길 60
 - 연락처 : 전화 061)434-7330 fax 061-433-7017



- 읍·면동체육회 현황 : 11개
강진읍, 칠량면, 마량면, 신전면, 작천면, 옴천면, 군동면, 대구면, 도암면, 성전면, 병영면
- 회원종목단체 현황 : 34개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선도, 궁도, 농구, 당구, 바둑, 배구, 배드민턴, 복싱, 볼링, 사격, 산악, 수영, 스킨스쿠버, 씨름, 야구소프트볼, 체조, 유도, 역도, 육상, 자전거, 소프트테니스,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패러글라이딩, 합기도, 그라운드골프, 풋살, 테니스, 파크골프
- 주요사업 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 7명(일반 4명, 어르신 3명)
 - 체육청년 사회 첫 걸음 지원: 1명
 -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2007년)
 -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유치(2018년)
 -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등
 -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 여행 : 자전거 대여소운영 강진군 홍보
 - 군수기·배 종목별체육대회(5개 종목 운영)
 - 종목별협회장배대회(5개 종목 운영)
 - 강진군체육회장배대회(2개 종목 운영)
 - 강진 청자배 종목별대회(7개 종목 운영)
 - 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2020년)

해남군체육회



■ 개론

해남군체육회는 1989년 3월 체육운동을 범군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활동을 통해 해남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2015년 해남군생활체육회와 통합하여 현재까지 35개 회원종목단체를 가진 해남군체육의 컨트롤타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12명의 생활체육강사를 통해 유아체육부터 노인체육까지 총5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남군 스포츠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대표적인 스포츠 축제의 장인「땅끝 한마음 체육대회」, 한 해동안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한 체육인과 단체를 격려하고 체육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해남군체육인 어울림 한마당」, 관내 경기단체 및 동호회 육성을 위한「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등 회원종목단체의 각종지원 및 해남군 관내 동호인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95. 07 ~ 1998. 06	김 창 일	김 영 선	김 완 석
1998. 07 ~ 2002. 06	민 화 식	문 호 길	김 병 조
2002. 07 ~ 2004. 05	민 화 식	임 한 택	김 용 철
2004. 06 ~ 2007. 12	박 희 연	노수형, 명현관	김용철, 박형호
2008. 01 ~ 2010. 06	김 충 식	명 현 관	박 형 호
2010. 07 ~ 2016. 05	박 철 환	명현관, 조재봉	박 정 경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1989. 03 ~ 1991. 12	한 대 희	
1992. 01 ~ 1995. 06	박 주 선	노 태 철
1995. 07 ~ 1998. 06	이 의 삼	김 완 석
1998. 07 ~ 2004. 05	임 한 택	김병조, 김용철
2004. 06 ~ 2004. 12	노 수 형	김 용 철
2005. 01 ~ 2006. 12	김 동 섭	김 용 철
2007. 01 ~ 2008. 12	김 주 연	박 형 호
2009. 01 ~ 2010. 12	김 용 철	박 형 호
2011. 01 ~ 2016. 06	김 재 근	박형호, 박정경

• 통합후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2016. 06 ~ 2018. 08	박 철 환	명현관, 조재봉	박 정 경
2018. 08 ~ 2020. 01	명 현 관	조 성 실	조 봉 수
2020. 02 ~	조 성 실		조 봉 수

■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64명(회장1, 부회장4, 이사57, 감사2)
- 사무국 : 1국 1실
 - 인 원 : 15명[사무국장 1, 사무차장 1, 직원 2(사무장1, 사무원1), 생활체육지도자 11(일반6, 어르신5)]
 - 주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72(우슬경기장 내)
 - 연락처 : 전화 061)533-8688 fax 061-533-8677
- 회원종목단체 현황 : 37개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낚시,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민속벨리, 바둑,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사격, 산악, 수영
씨름, 야구, 역도, 유도, 육상, 자전거, 소프트테니스, 족구, 에어로빅체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합기도, 킥복싱, 레슬링

- 주요사업 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12명(일반6. 어르신6)
 - 체육청년 사회 첫 걸음 지원: 1명
 - 땅끝 한마음 체육대회(2019년)
 - 해남군체육인 어울림 한마당(2017년)
 - 생활체육분야 공모사업(2020년)
 - 해남군 관내 체육관사용료 지원사업(2018년)
 -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등

영암군체육회



■ 개론

영암군체육회는 1989년 각종 체육대회 참가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
기에 윤원보 영암군수를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추대해 설립되었다.

19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발족됨과 동시에 영암군생활체육협
의회와 영암군민을 위한 체육회의 활동도 시작되었다.

1975년부터 개최된 ‘영암군민의날’ 행사에 매년 6종목이 참가해 체육대회를 통해 군
민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는 17종목별 협회장배 대회를 갖고 약 3천명에 이르는 동호인들의 활발한 활동
을 위해 영암군과 체육회는 물질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1988년 영암
종합운동장 준공을 시작으로 실내체육관, 영암국민체육센터,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등
다목적 활용 가능한 체육관을 설립하며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각 읍면별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영암읍·삼호읍·시종면의 파크골프장 등 군민의
새로운 여가공간을 형성해 건강증진과 노령화 사회에 걸맞는 영암군을 만들어가고 있
다. 영암군체육회는 군의 이러한 노력에 도내 10위권 내의 성적을 유지하며 2018년
영암군에서 개최된 제57회 전남체육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는 등 체육 강군으로
그 위상을 다하고 있다. 현재 2017년 창단된 영암군민속씨름단은 전국대회에서 각 체
급별 장사를 휩쓸며 지역 농산물 홍보와 더불어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국민체력100 사업과
관련해 영암군과 세한스포츠클럽이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체력100 영암체력인증센터’
를 설립해 생활체육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민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 주요연혁

- 1989년 1월 1일 (구)영암군체육회 발족(초대회장 윤원보)
- 1991년 2월 영암군생활체육협의회 발족(초대 고광훈 회장)
- 2001년 6월 영암군실내체육관내 영암군체육회(영암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개설
- 2008년 1월 사무실 이전(영암군공설운동장 내 본부석)
- 2016년 3월 통합 영암군체육회 출범(구. 영암군체육회/구. 영암군생활체육협의회)
- 2018년 10월 사무실 이전(종합운동장 내 2층)
- 2020년 1월 16일 이봉영 민선체육회장 취임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89.06.15~1990.12.31.	정 병 철		이 훈 천
1989.01.01 ~ 1989.06.14	윤 원 보		이 훈 천
1989.06.15 ~ 1990.12.31	정 병 철		이 훈 천
1991.01.01 ~ 1991.01.13	정 병 철		이 훈 천
1991.01.14 ~ 1992.12.31	김 광 진		이 훈 천
1993.01.01 ~ 1993.01.17	김 광 진		이 훈 천
1993.01.18 ~ 1994.05.05	고 경 주	박 영 배	이 훈 천
1994.05.06 ~ 1994.12.31	전 정 식		이 훈 천
1995.01.01 ~ 1995.03.27	전 정 식		이 훈 천
1995.03.28 ~ 1995.04.14	공 석		이 훈 천
1995.04.15 ~ 1995.06.30	강 박 원		이 훈 천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95.07.01 ~ 1996.12.31	박 일 재		이 훈 천
1997.01.01 ~ 1998.06.30	박 일 재	조 만 환	임 삼 철
1998.07.01 ~ 1998.12.31	박 일 재		임 삼 철
1999.01.01 ~ 2000.12.31	김 철 호	조 만 환	임 삼 철
2001.01.01 ~ 2005.12.30	김 철 호		임 삼 철
2006.07.01 ~ 2014.06.30	김 일 태	문태환, 김운옥, 하덕성	김명중, 한창국
2014.07.01 ~ 2016.06.30	전 동 평		장 기 협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1989.01.01 ~ 1996.12.31	고 광 훈	
1989.01.01 ~ 1990.12.31	고 광 훈	
1991.01.01 ~ 1992.12.31	고 광 훈	
1993.01.01 ~ 1994.12.31	고 광 훈	
1995.01.01 ~ 1996.12.31	고 광 훈	
1997.01.01 ~ 1998.12.31	조 만 환	
1999.01.01 ~ 2000.12.31	조 만 환	
2001.06.30 ~ 2005.12.31	조 만 환	
2006.01.01 ~ 2006.12.30	문 태 환	
2006.12.31 ~ 2010.06.30	김 운 옥	한 창 국
2010.07.01 ~ 2012.08.31	하 덕 성	한 창 국
2012.09.01 ~ 2014.08.31	김 영 환	한 창 국
2014.09.01 ~ 2016.02.28	임 철 호	한 창 국

- 통합후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2016.03.01 ~ 2019.06.30	전 동 평	장 기 협
2019.07.01 ~ 2020.01.15	전 동 평	이 창 열
2020.01.16 ~	이 봉 영	여 승 천

-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44명(회장1, 부회장3, 이사38, 감사2)
- 사무처
 - 인원 : 13명(사무국장1, 직원1, 지도자11)
 -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여운재로21, 공설운동장2층



- 연락처 : 전화 061)471-0339 fax 061-473-7330

- 회원종목단체 현황 : 32종목(정회원 28, 준회원4)
육상, 축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궁도, 사격, 배드민턴
태권도, 복싱, 검도, 유도, 수영, 볼링, 싸이클, 게이트볼, 체조, 족구, 합기도
골프, 야구, 바둑, 역도, 산악, 농구, 당구, 승마(준), 세팍타크로(준)
댄스스포츠(준), 파크골프(준)
- 주요사업 내용
 - 종목별 협회장배대회(1989년~)
 - 종목별 월출산배대회
 - 전국 중학교 스토브리그 야구대회 유치(2017년)
 - 전국 세팍타크로 선수권대회 유치(2018년)
 -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유치(2018년)
 -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유치(2018년)
 - 기타 지역특성화 대회(월출산 바우제 2016년~)
 - 생활체육동호인 연중 리그전(볼링, 야구종목)
 - 동하계전지훈련 지원

무안군체육회



■ 개론

무안군체육회는 1989년 무안군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그해 오덕교 무안군수가 무안군체육회장을 겸임하면서 무안군체육의 발전 및 육성을 도모하였다. 민선 박인배 회장 취임전까지 무안군수가 당연직으로 무안군체육회 회장을 겸임하였으며 2013년부터 무안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매해 3/4분기에 무안군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2002년 무안군을 대표하는 무안군청 검도단이 창단되었으며 현재까지 무안군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명실공히 전국 검도의 중심이 되고 있다.

현재 사무실인 무안스포츠파크는 2006년 3월 착공되어 5년 후인 2010년 3월에 완공되어 일반 체육인들에게 개관되었다.

전국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맞추어 2016년 6월에 무안군체육회와 무안군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었으며 통합된 후 생활체육회 사무실인 현 무안군체육회 사무실로 통합 이전되었다.

2020년 1월 16일 민선 초대 회장인 박인배 회장이 취임하여 현재까지 여러 단체와 MOU 체결을 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에 bbq 전국 대학 배구 무



• 통합후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2018. 06 ~ 2020. 01	김 산	김 용 봉	임창진, 신경태
20.01.16 ~	박 인 배		신 경 태

■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62명(회장1, 부회장 6, 이사 54, 감사1)
- 사무국 : 1국 2팀 (사무국 / 행정팀 / 지도팀)
 - 인 원 : 12명
(사무국장 1, 사무과장 1, 행정팀장 1, 생활체육지도자 7명, 관리메니저 1)
 - 주 소 : 전남 무안군 현경면 공향로 345 무안스포츠파크 內
 - 연락처 : 전화 061)453-0700
팩스 061)454-8222
- 회원종목단체 현황 : 30개 (정회원 30, 준회원 2)
검도, 게이트볼, 걷기,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등산, 당구, 바둑
볼링, 축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자전거, 수영, 체조, 씨름, 야구소프트볼
유도, 육상, 윈드서핑, 요트, 소프트테니스, 족구, 탁구, 태권도, 파크골프
역도, (준회원 : 스포츠댄스, 합기도)
- 주요사업 내용
 - 주민건강증진 체육교실
 - 주민생활체조 프로그램
 - 무안군민생활체육대회
 - 무안군황토골배 종목별대회(11개 종목 운영)
 - bbq배 전국 대학배구 무안대회
 - 대한핸드볼 협회장배 전국 중고선수권대회
 - 춘계 전국대학 검도 연맹전
 - 전라남도지사기 탁구대회
 - 무안황토골배 전국 남녀 실버 시니어 배구대회
 - 추계 전국 실업 검도 대회
 - 전라남도협회장배 족구대회
 - 정국현배 및 전국 초등 꿈나무 태권도 대회
 - 무안황토골배 번국 생활체육 동호인 테니스대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대회 유치
 - 전국 학생 레슬링 대회 등 이상 10개 전국 규모 대회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2003. 02 ~ 2005. 01	백 정부		정 창 우
2005. 02 ~ 2007. 01	김 호 범		정 창 우
2007. 02 ~ 2009. 02	김 관 주		정 창 우
2009. 02 ~ 2010. 08	정 창 우		김 진 석
2010. 09 ~ 2012. 07	김 승 만		김 진 석
2013. 01 ~ 2015. 02	김 문 호		임 한 진
2015. 03 ~ 2018. 05	김 형 모		배 오 태
2018. 07 ~ 2019. 12	박 종 희		한 효 상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1989 ~ 1990	이 문 헌	
1991 ~ 1992	양 총 배	
1993 ~ 1994	박 동 연	
1995 ~ 1996	강 종 삼	
1997 ~ 1998	김 청 수	
2010 ~ 2012	김 승 만	임 한 진
2013 ~ 2016	김 문 호	임 한 진

• 통합 후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2016. 02 ~ 2018. 06	안 병 호	배 오 태
2018. 07 ~ 2019. 05	이 윤 행	한 효 상
2020.01.16 ~	박 종 희	한 효 상

■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56명(회장1, 부회장3, 이사50, 감사2)
- 사무국 : 1국
 - 인 원 : 14명[사무국장1, 간사1, 생활체육지도자 12(일반6, 어르신6)]
 - 주 소 : 전남 함평군 대동면 함장로 1377 문화체육센터 1층
 - 연락처 : 전화 061)322-3390, 322-7338
팩스 061)322-5656
- 읍면체육회장 현황 : 9개(함평읍, 손불면, 신광면,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 회원종목단체 현황 : 30개(정회원 30)

육상,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궁도, 볼링, 씨름, 사격
복싱, 골프, 유도, 자전거, 바둑, 수영, 태권도, 역도, 레슬링, 당구,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산, 그라운드골프, 야구, 합기도, 농구, 검도, 족구

• 주요사업 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12명(일반6, 어르신6)
- 군민 게이트볼대회(2005.~현재)
- 군민 골프대회(2011.~현재)
- 천지배 대회(2개 종목)
-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개최(2014.~현재)
- 전국 공무원 배구대회 개최(2017.~현재)
- 전국 여자 비치발리볼대회 개최(2016~현재)
-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2018~현재)
- 전국 대회 개최(2개 종목)
- 동호인 대회 개최(4개 종목)
- 어린이 스키교실 운영(201.~ 현재)
- 세대별 프로그램 운영(4개 종목)
- 생활제조 보급운영(2007~ 현재)
- 생활체육 9개 교실(2015~현재)
- 동계전지훈련 유치(레슬링, 야구)
- 나비골프연습장 위탁운영(2009~현재)
- 함평야구장, 전남야구장, 스포츠텔 위탁 운영(2019~현재)

영광군체육회



■ 개론

영광군체육회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자 그동안 억눌렸던 기개를 마음껏 발산하여, 1946년 4월 호남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전라북도 전주와 남원, 군산, 이리, 임실과 영광 등 6개 팀이 참가하는 성대한 대회를 개최하였다.

1946년 9월 영광군체육회가 발족되어 초대회장에 조영규씨가 선임되어 축구와 배구 종목을 성행시켰으며,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체육활동이 1952년 부활되면서 2대회장에 정현조씨가 선임되어, 매년 군내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1960년에 윤동중씨가 3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1961년 5.16으로 인해 체육회가 해산되면서 민간인 체육회장을 마감했다.

4대부터 체육회장은 군수가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 김홍영 군수를 시작으로 김준성 군수까지 35대를 이어왔다.



그리고 민간인은 상임부회장에 임명되면서 실질적인 체육회를 총괄운영 체제로 전환되어 김자현, 서용주, 조영표, 조영기, 김승우, 김광엽, 채성수, 정용재, 정현진, 박용구, 한성모, 조광섭 등 12명이 선임되어 체육발전에 앞장서 일했다.

군내체육대회는 77년 시작된 군민의 날 행사의 읍면대항 체육대회가 시작되면서 전성기를 맞았으며, 1회 대회는 육상(100m, 400계주, 단축마라톤)과 축구, 씨름 등의 경기가 열렸으며 격년제로 2년마다 체육경기가 열리고 있다.

영광군체육회는 체육인재 양성과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다양한 생활체육 보급으로 2021년 현재 40개 종목으로 구성하여 2020년 1월 16일부터 민선 1대 조광섭 회장이 맡고 있다.



■ 주요연혁

- 1946년 9월 5일 발기인대회 개최
- 1946년 10월 15일 창립총회 개최(초대회장 조영규)
- 2008년 사무실 개설(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170 국민체육센터 내)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81. 01 ~ 1992. 12	이 용 기		
1993. 01 ~ 1996. 12	서 형 환		김 윤 일
1997. 01 ~ 2000. 12	김 봉 열	김 광 엽	김 윤 일
2001. 01 ~ 2004. 12	김 봉 열	김 광 엽	박 영 배
2005. 01 ~ 2006. 12	김 봉 열	김 광 엽	정 용 재
2007. 01 ~ 2008. 12	강 종 만	정 현 진	김 상 범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2009. 01 ~ 2014. 06	정 기 호	박 용 구	정 병 환
2014. 08 ~ 2016. 07	김 준 성		신 창 선
2020. 01. 16. ~ 현재	조 광 섭		신 창 선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1992. 01 ~ 1995. 12	김 광 업	
1996. 01 ~ 1999. 12	박 용 구	
2000. 01 ~ 2003. 12	김 준 성	
2004. 01 ~ 2007. 12	김 준 성	김 상 균
2008. 01 ~ 2011. 12	장 세 일	김 상 균
2012. 01 ~ 2014. 06	장 세 일	강 정 원
2014. 07 ~ 2016. 07	조 일 영	강 정 원

• 통합 후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2016. 07 ~ 2016. 12	김 준 성	신 창 선
2017. 01 ~ 2020. 01	김 준 성	신 창 선
2020. 01. 16. ~ 현재	조 광 섭	신 창 선

■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40명(회장1, 상임부회장1, 부회장9, 이사26, 감사3)

• 사무국

- 인원 : 13명(사무국장1, 직원1, 지도자11)
- 주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월현로 170 종합운동장내
- 연락처 : 전화 061)353-7330 fax 061-351-7330

• 읍면체육회 현황 : 11개

영광읍, 백수읍, 흥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낙월면

• 회원종목단체 현황 : 40개 (정회원 40)

육상, 축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궁도, 사격, 배드민턴
복싱, 유도, 태권도, 불링, 수영, 자전거, 검도, 골프, 역도, 바둑, 농구, 당구
게이트볼, 족구, 산악, 야구, 체조, 합기도, 그라운드골프, 패러글라이딩
철인3종, 낚시, 수상스키웨이크보드, 풋살, 피구, 보디빌딩, 승마, 파크골프



- 주요사업 내용

- 제48회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2009년)
-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2011년~ 현재)
-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선수권대회(2012년 ~ 현재)
- 전국 궁도 종별선수권대회(2021년)
- 전국 당구 선수권대회(2021년)
- 대통령배 전국 펜싱대회(2021년)
- 1,2학년 전국대학축구대회(2021년)
- 전국 종별 농구대회(2021년)
- 추계 전국중고유도대회(2021년)
-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2021년)
- 영광군생활체육한마당(1999년 ~ 현재)
- 각종 종목별대회 등

장성군체육회



■ 개론

1947년 호남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인기종목으로 부상하며 1959년 8월21일 장성군민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장성군 축구 발전을 계기로 장성경찰서 상무관을 통해 태권도와 유도 종목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공포로 장성군수가 당연직 회장으로 장성군체육회가 출범하여 체계적인 체육활동이 시작되었다.

1978년 4월16일 군민의 날이 제정되어(1983년 11월1일로 변경)읍.면대항 군민체육대회를 통해 군민단합과 체력향상에 기여하였다.

2016년부터 옐로우시티 종목별 대회 지원을 통해 15개 종목 1,000여명 참석하여 지역 체육발전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

2016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으로 군민의 건강과 지역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육관련 사업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20년 1월 민선 고상훈 회장이 취임하여 학교연계형(한종목)스포츠클럽인 장성야구스포츠클럽과 종합형 스포츠클럽인 장성옐로우시티 스포츠클럽(축구, 검도, 탁구)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으로 장성군 유소년 체육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 주요연혁

- 2016년 1월 15일 발기인대회 개최
- 2016년 3월 29일 창립총회 개최(초대회장 유두석)
- 2016년 4월 1일 체육회 사무실 개설(실내수영장 2층)



- 임 원 : 71명(회장1, 부회장7, 이사61, 감사2)
- 사무국 : 1국 (체육회사무국)
 - 인 원 : 10명
[사무국장1, 행정간사1, 상활체육지도자 8(일반5, 어르신3)]
 - 주 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81(수영장2층)
 - 연락처 : 전화 061)393-7675
팩스 061)373-7670
- 회원종목단체 현황 : 28개 (정회원 23, 준회원 5)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낚시, 농구, 바둑, 배구, 배드민턴
복싱, 볼링, 산악, 수영, 야구, 조정, 체조, 정구, 족구, 줄넘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패러글라이딩, 합기도, 킥복싱, 파크골프

- 주요사업 내용
 - 장성군체육회 조정 실업팀 창단(2002년)
 -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조정대회(2008년 ~)
 - 전국 대학동아리 축구대회 (2010년)
 - 장성호 전국 배스 퇴치 낚시대회(2013년)
 - 옐로우시티 종목별대회 (2016년 ~)
 - 한국학생 근대5종연맹 회장기 대회(2017~2018)
 - 전라남도지사기 정구대회(2019년)

완도군체육회



■ 개론

완도군체육회는 1959년 10월 완도군체육회를 구성하여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의 진흥으로 건전하고 명량한 기풍을 진작시킴과 아울러 관내 아마추어 체육단체를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를 양성하여 군민의 체력향상과 화합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2016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전문·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뿐만 아니라, 각종 전국대회 및 도·관내 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2020년 1월16일 민선초대 회장인 유병욱회장이 취임하여 2023년 제6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2024년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을 완도군으로 유치확정 하면서 앞으로 도 많은 체육인프라와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 주요연혁

- 1959년. 10월. 발기인대회 개최
- 1959년. 10월. 창립총회 개최(초대회장 황봉연)
- 1959년. 10월. 사무실 개설(완도군청 내)

- 임 원 : 39명(회장1, 부회장3, 이사33, 감사2)
 - 사무국
 - 인 원 : 7명(사무국장1, 직원1, 지도자5)
 - 주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111(공설운동장 내)
 - 연락처 : 전화 061)554-7330 fax 061-553-8688
 - 회원종목단체 현황 : 35개
- 축구, 육상, 배구, 테니스, 궁도, 소프트테니스, 탁구, 태권도, 씨름, 볼링, 배드민턴, 골프, 검도, 수영, 자전거, 농구, 바둑, 사격, 유도, 복싱, 역도, 게이트볼, 체조, 족구, 패러글라이딩, 산악, 소프트야구, 합기도, 승마, 당구,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킥복싱, 보디빌딩, 철인3종



- 주요사업 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5명(일반4, 어르신1)
 - 생활체육 한마당큰잔치(게이트볼 외 10개 종목)2008년~현재
 - 군수배 및 의장배 종목별 대회 1998년 ~ 현재
 - 장보고배 종목별 대회 1998년 ~ 현재
 - 유소년 체육활성화 사업 2012년 ~ 현재
 - 여성생활체육교실사업 2020년 ~ 현재

진도군체육회



■ 개론

1979년 육상, 축구, 배구, 테니스, 태권도, 씨름 6개 협회를 토대로 진도군체육회 설립 하여 2020년 현재 37개(정회원 36, 인정단체 1)단체로 성장 하였다.

2004년 4월 공설운동장 개장, 2007년 2월 실내체육관 개관, 2011년 7월 실내수영장 개관, 2013년 4월 진도아리랑체육공원(게이트볼장,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개관을 비롯하여 2020년 6월 아리랑피지컬 센터 준공, 국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 시설을 갖춰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보급으로 국민건강에 앞장서며 전지훈련의 메카로 우뚝 서고 있다.

■ 주요연혁

- 1979년 2월 10일 진도군체육회 발족
- 1992년 진도군생활체육협의회 창립
- 2009년 명칭 변경(진도군생활체육협의회 → 진도군생활체육회)
- 2016. 08. 16. 진도군체육회(통합)
- 2020. 01. 16. 민선초대회장 출범

■ 역대임원 현황

• 전문체육

임 기	회 장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1988 ~ 1992	허 길 남		장 일
1993 ~ 2001	박 승 만	허 권 준	박 용 수
2002 ~ 2003	양 인 섭	허 권 준	박 용 수
2004 ~ 2005	김 경 부	허 권 준	박 용 수
2006 ~ 2009	박 연 수	장 영 우	김 순 길
2010 ~ 2015	이 동 진	장 영 우	김 순 길

- 생활체육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1992 ~ 1993	김 진 안	박 용 수
1994 ~ 1995	박 계 수	석 종 안
1996 ~ 2003	이 현 갑	박 재 준
2004 ~ 2015	박 용 수	허 범 솔

- 통합 후

임 기	회 장	사무국장
2016. 02 ~ 2020. 01	이 동 진	김 순 길
2020. 01 ~	안 창 주	김 광 전

■ 기 구(조직구성)

- 임 원 : 57명(회장1, 수석부회장1, 부회장4, 이사49, 감사2)
- 사무국 : 1국 2팀 (체육행정지원사무국 / 기획·행정팀, 종목육성팀)
 - 인 원 : 7명

[사무국장 1, 직원 1, 생활체육지도자 7(일반4, 어르신3)]

- 주 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공설운동장길 57
- 연락처 : 전화 061)544-7330, 542-2453
팩스 061)544-0191

- 읍면동체육회 현황 : 7개
진도읍, 군내면, 고군면, 의신면, 임회면, 지산면, 조도면

- 회원종목단체 현황 : 30개 (정회원 29, 인정단체 1)
검도, 골프, 궁도, 게이트볼, 낚시, 볼링, 배구, 배드민턴, 수영
승마, 씨름, 야구소프트볼, 체조, 육상, 자전거, 소프트테니스, 축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럭비, 사격, 바둑, 복싱, 유도, 파크골프
산악, 농구, 당구

- 주요사업 내용
 - 진도군민체육대회 개최(1975년 ~ 2019년) / 16종목
 -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유치(2016년)
 -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2016년)
 - 전라남도체육대회 유치(2015년)
 - 종목별협회장배대회(5개종목 운영)
 - 진도군동호인하마당대회 개최(1996 ~ 2019) / 14종목



- 자매체육회교류행사(2009~2019) / 부천시체육회
- 진도군수배전국족구대회 개최(2004 ~ 2019)
-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 족구대회 개최(2018년)
- 대한체육회장배 전국 족구대회 개최(2019년)
- 진도군수배전국동호인여자배구대회 개최(2013년 ~ 2019년)
- 충무기 전국 럭비대회 개최(2018년)
- 종별선수권럭비대회 개최(2019년)
- 전국 춘계 럭비리그전 개최(2020년)
- 대통령배 탁구대회 개최(2011년)

신안군체육회



■ 개론

신안군체육회는 1970년 7월 평소 체육회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목포거주 신안 출신 유지 및 신안군청 근무 공무원등 7명이 신안군청에 모여 도서로 형성된 어려운 지역 여건임에도 군민들의 체력향상과 유능하고 잠재력있는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고자 신안군체육회 창립을 결의하고

1970년 9월 1일 신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신안군체육회를 창립총회를 갖고 초대 회장에 박관주 신안군수를 추대하였다.

1970년 9월 제1회 대통령하사기 새마을 축구대회 참가 및 1978년 부터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하여 열악한 체육환경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제47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 4위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2015년 신안공설운동장이 준공되자 사무실을 관내로 이전하여 30개 회원종목단체와 14개 읍면체육회를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2,838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16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열심히 지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신안군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신안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 하며 우수한 체육인 발굴 및 양성으로 열악한 체육환경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 주요연혁

- 1970. 09. 01 신안군체육회 창립
- 1970. 09. 01 사무실 개설(신안군청 별관 내 2층)
- 1991. 05. 01 신안군생활체육협의회 출범
- 2015. 12. 01 사무실 이전(신안공설운동장 내 1층)
- 2016. 06. 15 (통합)신안군체육회 출범
- 2020. 01. 16 민선 초대 김재원 회장 취임



- 임 원 : 38명(회장1, 부회장4, 이사31, 감사2)
- 사무국
 - 인 원 : 20명
[사무국장 1, 사무과장 1, 직원 2, 생활체육지도자 16(팀장 3, 지도자 13)]
 - 주 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로 118-20. 신안공설운동장
 - 연락처 : 전화 061)243-7330, 240-8070
팩스 061)244-7330



- 회원종목단체 현황 : 30개 (정회원 2,838명)
검도, 소프트테니스, 게이트볼, 골프, 수영, 승마, 궁도, 씨름
야구소프트볼, 농구, 당구, 역도, 유도, 육상, 자전거, 족구, 바둑
배구, 체조, 배드민턴, 축구, 탁구, 복싱, 태권도, 볼링, 테니스
사격, 산악, 그라운드골프, 풋살
- 주요사업 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 16명(일반6, 레저1, 어르신9)
 - 신안군수기 체육대회(2004년 ~ 2021년) / 8종목
 - 종목별협회장기대회(2009년 ~ 2021년) / 8종목

제5장 학교체육 정책의 변화 및 활동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의 학교체육은 서울아시아경기대회와 서울올림픽이 종료된 이후에 체육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국가 주도의 체육에서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영위하고 공동체 생활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의 체육으로 변화가 시작된 시기로 평가된다.

국가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을 제·개정하여 계층별 요구와 수준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강화되기도 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교운동부’로 인식되었던 학교체육의 방향이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즐기는 체육으로 변화했다. 또한 양자 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 사업이 시행되면서 체육의 질적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선수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 운영함으로써 소질있는 일부 학생을 선수로 전환하게 하기도 했다. 이는 일반학생에게 전 생애에 걸쳐 참여하는 스포츠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상황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도 했다.

1. 1990년대 체육교육

학교체육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통해 전인교육의 실현과 사회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했다. 제6차 체육교육과정 개정으로 학교체육의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및 학교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도 이루어졌다.

또한 효과적인 수업을 전개하는 데 필수 요건이 되어 있는 체육교육 시설 확보를 위하여 노력했으며, 체육교육의 정상화 방안에 따라 정부에서는 교육재정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따라 체육의 활성화 계획, 학교체육 시설 확충 계획, 체육 장학 계획이 수립하는 등 체육교육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학교체육교육을 통한 기초운동 능력의 배양과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이 학교체육교육의 주가 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입시 체력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중학교 체육교과 활동이 운동기능 및 체력증진에서 학습위주의 교과로 운영함으로써 체육교육이 파행 운영되었다. 1990년대 후반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따른 생활체육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학교체육과 사회체육의 연계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학교체육의 질적인 변화는 생활체육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체육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체육대회 및 체육특기자의 합리적인 지도관리는 체육교육의 내실을 도모하였으며, 체육교육을 통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학교체육의 큰 방향의 근거가 되는 제6차 체육과 교육과정(1992년)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심동적·인지적·정의적 영역별 목표 개념으로 제시되었던 내용을 운동영역별로 기능·지식·태도의 목표 개념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론과 실기를 결합시켜 체육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의 공존, 형식과 운동 본질의 조화, 학습지도 방법과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개정 공포되었다.

이는 체육교육이 마치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교과로 잘못 인식하는 가치의 왜곡 현상과 더불어, 운동 단원 중심의 교육 내용의 단순화, 비효율적 교수법과 주관적이고 교육적 성취와 거리가 먼, 결과 중심의 평가 관행을 가져와 체육교육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다.

1) 전남교육청의 체육 시책

체육교육 과정의 정상화로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체육시설, 체육교구의 확충과 활용을 극대화하였다. 또한 학교 체육교육의 내실과, 체육시간의 정상 운영으로 영역별 균형 지도를 통한 법정 시수를 확보하였다. 아울러 1인 1운동의 생활화 및 중간 체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체육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체육장 설비 및 교구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하도록 설비·교구 기준을 고시하였으며, 체육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 지정 3교, 교육부 지정 1교를 연구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였다.

(1) 학교체육교육의 정상화

① 체육시설과 교구 확충

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체육장 및 체육교구 확충을 추진하였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은 고시 제1998-27호에 의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483호, 1997.9.23.)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관내의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필요한 교구·설비 기준을 고시하였다.(1998.6.8.) 체육장 및 체육교구 보유현황 및 예산 투자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학교수	체육장시설				체육교구종목			
		기본종목수	기준(점)	보유(점)	보유율(%)	기본종목수	기준(점)	보유(점)	보유율(%)
초	597	17	10,876	7,755	71.3	43	145,236	75,038	51.7
중	261	13	3,348	2,869	85.7	48	115,823	43,062	37.2
고	145	13	1,857	1,616	87.0	56	68,746	27,400	39.9
계	1,003	43	16,081	12,240	76.1	147	329,805	145,500	44.3

〈자료〉 전남교육발전계획, 1998.

② 생활체육 행사 및 각종 대회 실시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로 지역 간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클럽활동에 운동부를 조직·운영하였다. 아울러 학교간 경기대회를 클럽활동 부서 단위로 참가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1인 1운동' 실시를 생활화하였다.

학교 경기대회 운영 및 운동선수 지도의 효율성을 위하여 학교별 종합체육대회를 연 2회 개최하였다. 개최 시기는 체육주간(4월 마지막 주간)과 체육의 날(10월 15일)이었으며, 경기방법으로 체육대회를 통한 지역 축제화로 운영되었다.

또한 학교간 경기대회에 모든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에서는 교내대회로 운영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 그룹대회(시·군대회)를 통한 종합체육대회로 운영하였다. 전남교육청에서는 각종 교육감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학교자율 체육활동을 권장하여, 학교와 학생 스스로가 각종 대회에 참여하는 등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③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 설치·운영

1996년 학교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대상학교로 운동지정 종목 육성 학교이며,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사업 내용으로 선수 지원에 관한 협의 및 업무를 추진하였다.

④ 체육중학교 설립 추진

1997년 전남교육청은 체육특기자의 조기 발굴 및 연계 육성과 중학교 적령기 운동종목의 단계별 육성, 연계 지도의 어려움 뿐 아니라 우수 체육선수의 타지도 전학 또는 진학으로 인한 손실 방지를 위해 전남체육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추진 방향은 체육 우수선수 양성을 위한 체육중학교 설립과 체육중학교와의 연계 운영을 위한 체육고등학교 설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체육중학교 설립으로 우수한 체육특기자의 조기 발굴 및 연계 육성이 가능할 것이며, 체육교육의 활성화로 체육 중심학교 역할 수행이 기대되었다.



⑤ 체육교사 연수 실시

체육교사의 교수·학습 지도력 배양 및 자질 함양을 위하여 전남 지역에 근무하는 중·고 체육교사 및 지역교육청 업무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전라남도교육연구원에서 체육교사 연수회를 실시하였다. 1992년 12월에는 체육교사의 정신자세, 육상지도의 실제, 레크레이션 지도의 실제, 우수선수 지도사례 발표, 에어로빅 이론과 실제, 체육 수업의 정상적 운영에 대한 연수가 있었다. 1993년 12월에는 체육교사 430명이 참가하여 정신자세, 체육대회 결과 분석, 실기연수, 개정된 경기규칙 및 체력검사 제도 개선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1994년 12월에는 450명의 체육교사가 연수에 참가하였고, 1995년에는 540명, 1996년 433명, 1997년 434명의 체육교사가 연수에 참가하였다.

⑥ 체육 연구·시범학교 운영

초등학교에서는 체육학습 지도 분야와 중학교에서는 ‘1인 1운동’ 실시 방안, 고등학교에서는 실기 평가 방안에 대하여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했다. 이를 통해 체육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학생 체력증진 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1994년~1995년에는 도 지정으로 체육학급 운영을 통한 합리적인 선수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순천이수중학교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중장기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운동선수 훈련 여건 조성으로 훈련의 효율성을 높여 우수 선수를 육성·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아울러 일반 학급에 준하는 체육 학급의 시간표를 조정하여 기본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통해 기초학력을 신장시켰다. 1990년~1997년까지 체육교육 분야 등에서 도 지정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되었고 1994년에 나주여상고가 교육부 지정으로 학생 체력검사 분야에서 ‘학생체력검사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로 운영되었다.

⑦ 체육교육시설 확충

○선수합숙소 및 훈련장 시설 현황

학교체육교육을 통한 기초운동능력의 배양과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에 따른 체육 시설과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 체육활동을 위해 다목적 강당 확충에 관심을 가졌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학교시설을 이용한 합숙소와 훈련장을 운영해 선수관리 및 지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목적 강당 시설 현황

학생들의 학예회 발표 등 문화공간 시설의 확충은 각종 행사 개최와 지역사회의 문화 체육 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가운데 다목적 강당(체육관) 시설은 학생들의 학예회 발표나 예·체능 발표의 장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체육선수 육성 목적으로 더 많이 이용되었다.

다목적 강당 시설 예산 투자 실적 및 보유 현황

(1996.12.31.기준)

구 분	예산투자실적					비고
	기본종목수	기준(점)	보유(점)	보유율(%)	기본종목수	
다목적교실 (강당)체육관 확충	22동 (11,504)	29동 (11,663)	25동 (10,574)	76동 (33,741)	다목적교실(강당) 체육관 보유 현황 - 다목적교실: 58교 - 다목적강당: 54교 - 체육관: 31교	

〈자료〉 전남교육 1996

다목적 강당 시설 보유 현황

(1996.12.31.기준)

체육장 시설	초	중	고	계	비고
실내체육관(강당겸용포함)	120	37	36	193	

〈자료〉 전남교육 1996

다목적 강당(체육관) 보유 실태

(1994.12.31.기준)

구 분	보유량				보유 시군	미보유 시군	비고
	초	중	고	계			
체육관	12	4	13	29	16	11	다목적강당 겸용
다목적강당	20	2	1	23	15	12	
계	32	6	14	52	31	23	

〈자료〉 전남교육발전계획 1994.

(2) 체육특기자 육성

① 종목별 체육 특기육성 학교 지정

1994년부터 체육 특기육성 학교를 지정하였으며, 종목은 육상 외 30종목으로 초등학교 326교, 중학교 262교, 고등학교 100교로 총 688교가 지정되었다. 순회 체육 코치 지원은 18종목 28명을 월 50만원으로 10개월 동안 운영하였고, 육상 종목은 육상, 수영, 축구, 야구 등 30개 종목이었다.

1996년에는 육상, 수영,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양궁, 사격, 배드민턴, 체조, 태권도, 유도를 특별육성 정책종목으로 지정하였다.

민선 2기 교육활동에서 학교체육 발전을 위하여 초등학교 167팀 1,194명, 중학교 220팀 1,507명, 고등학교 106팀 839명의 운동선수를 육성하였으며, 이를 위





해 동·하계 강화훈련비 7억원, 정책종목 육성비 9,400만원, 운동경기부 지원비 1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다.

학교급별 운동경기부 지정 현황

(1997.12.31.기준)

구분		1994	1995	1996	1997
초	종목수	14	14	14	15
	팀 수	303	208	216	217
중	종목수	25	26	26	29
	팀 수	206	208	224	225
고	종목수	26	29	29	30
	팀 수	80	82	90	92
계	종목수	65	69	69	74
	팀 수	589	498	530	534

〈자료〉 전남교육 1997

② 체육학급 신설과 운동부 창단 현황

학교 운동선수 육성으로 체육학급을 신설하였는데 중학교 체육학급 2교, 고등학교는 동부·서부 권역별로 각각 1교씩 체육과를 설치하였고, 중학교는 특기생만으로 모집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목포, 여수, 순천, 여천 지역 학교만 모집이 가능토록 했다. 민선 2기에 학교운동부 연계육성 및 선수 진로지도를 위해 초등학교 4교, 중학교 6교, 고등학교 6교의 운동부를 창단하였고, 163명의 운동부 코치를 임명하여 정책 종목 및 취약 종목을 지도하였다.

학교급별 운동경기부 지정 현황

(1997.12.31.기준)

구분	성별	종목수	육성해야 할 학교수	육성중인 학교수	창단예정 학교수	연도별 창단 현황		
						1996	1997	계
초	남	17	136	126	10	4	1	5
	여	12	96	75	21	5		5
중	남	29	232	146	86	5	1	6
	여	30	160	64	96	11		11
고	남	31	124	71	53	2	2	4
	여	21	84	52	32	5		5
계			832	534	298	32	4	36

〈자료〉 전남교육 1997

횃수(연도)	종목수	개최 시기	개최지	참가 인원	종합성적				
					1위	2위	3위	4위	5위
18회(1993)	27	11월	136	126	나주	순천	목포	여수	고흥
19회(1994)	27	11월	96	75	순천	여수	목포	나주	고흥
20회(1995)	27	10월	232	146	여수	순천	고흥	목포	나주
21회(1996)	28	10월	160	64	여수	순천	목포	고흥	나주
22회(1997)	28	10월	124	71	여수	목포	순천	고흥	나주
23회(1998)	29	10월	84	52	여수	목포	순천	고흥	영광
24회(1999)	29	10월	136	126	여수	목포	순천	고흥	나주
25회(2000)	30	10월	96	75	여수	순천	목포		
26회(2001)	30	10월	232	146	여수	순천	목포		
27회(2002)	30	10월	160	64	여수	순천	목포		
28회(2003)	30	10월	124	71	여수	순천	나주		
29회(2004)	30	10월	84	52	순천	여수	광양	나주	목포
30회(2005)	30	10월	자료 부존재						
31회(2006)	30	10월	해남 등 14개 지역	2,275					
32회(2007)	31	11월	강진 등 11개 지역	2,512	순천	여수	광양	목포	나주
33회(2008)	32	11월	여수	2,302	순천	여수	광양	목포	고흥
34회(2009)	32	11월	목포 등 10개 지역	2,488	순천	여수	광양	목포	고흥
35회(2010)	32	11월	광양 등 9개 지역	2,348	순천	여수	목포	광양	고흥
36회(2011)	31	10월	여수 등 9개 지역	1,963	순천	여수	광양	목포	무안
37회(2012)	32	10월	나주 등 12개 지역	1,987	순천	여수	광양	목포	고흥
38회(2013)	33	10월	해남 등 14개 지역	2,084	순천	여수	광양	목포	고흥



횟수(연도)	종목수	개최 시기	개최지	참가 인원	종합성적				
					1위	2위	3위	4위	5위
39회(2014)	33	9월	목포 등 13개 지역	2,115	순천	여수	광양	목포	영광
40회(2015)	33	11월	나주 등 13개 지역	2,285	여수	순천	광양	목포	영광
41회(2016)	34	11월	해남 등 14개 지역	2,275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무안
42회(2017)	33	11월	해남 등 14개 지역	2,372	여수	순천	목포	무안	광양
43회(2018)	33	10월	해남 등 14 지역	2,155	여수	순천	목포	무안	광양
44회(2019)	32	10월	영암 등 16개 지역	2,091	여수	순천	목포	무안	광양
45회(2020)	코로나19로 미개최								

3) 교육감기 각종 경기대회

교육감기 각종 대회를 통해 학생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조기 발굴 및 연계 육성 지도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비롯, 각종 전국대회에 참가해 개인과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으며, 전남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 교육감기 구간 마라톤대회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11월 3일을 전후해 학생구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다. 교육감기 구간마라톤 대회의 특징은 매년 대회 장소를 여러 시·군으로 바꾸어 가며 실시하였다.

2012년 제25회 대회까지는 시군별 초·중·고 학생들이 42km정도의 거리를 나누어 릴레이 형태로 진행해오던 것을 2013년 제26회 대회부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육가족이 참가하여 각각 거리를 정해 3km, 5km, 10km로 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역대 성적

횟 수	대회일시	대회장소	거리	우 승 팀		기 록
제11회	1998.11.5	보성군	42.195km	우 승	광양 교육청	2° 36'18"
				준우승	나주 교육청	2° 37'33"
				3 위	영광 교육청	2° 40'10"
				장려상	여수 교육청	2° 41'05"
제12회	1999.11.5	보성군	42.195km	우 승	광양교육청	2° 36'54"
				준우승	영광교육청	2° 37'33"
				3 위	여수교육청	2° 40'10"
				장려상	나주교육청	2° 41'05"
제13회	2000.11.1	완도군	42.1km	우 승	광양교육청	2° 34'20"
				준우승	영광교육청	2° 34'38"
				3 위	무안교육청	3° 35'47"
				장려상	진도교육청	2° 36'32"



횟 수	대회일시	대회장소	거리	우 승 팀		기 록
제14회	2001.11.1	완도군	41.2km	우 승	진도교육청	2° 32'51"
				준우승	영광교육청	2° 33'31"
				3 위	해남교육청	2° 34'12"
				장려상	광양교육청	2° 34'32"
제15회	2002.11.2	구례군	41.2km	우 승	진도교육청	2° 39'09"
				준우승	나주교육청	2° 39'15"
				3 위	광양교육청	2° 40'14"
				장려상	무안교육청	2° 40'32"
제16회	2003.11.3	구례군	42.7km	우 승	광양교육청	2° 46'26"
				준우승	진도교육청	2° 49'08"
				3 위	해남교육청	2° 49'24"
				장려상	무안교육청	2° 49'41"
제17회	2004.11.5	보성군	42.2km	우 승	광양교육청	2° 24'20"
				준우승	보성교육청	2° 26'53"
				3 위	진도교육청	2° 32'46"
				장려상	해남교육청	2° 33'00"
제18회	2005.11.3	보성군	42.2km	우 승	여수교육청	2° 27'40"
				준우승	광양교육청	2° 29'55"
				3 위	무안교육청	2° 34'46"
				장려상	보성교육청	2° 37'04"
제19회	2006.11.10	보성군	41.2km	우 승	광양교육청	2° 35'45"
				준우승	장흥교육청	2° 38'02"
				3 위	여수교육청	2° 40'14"
				장려상	목포교육청	2° 43'27"
제20회	2007.11.7	영광군	35.2km	우 승	장흥교육청	2° 11'39"
				준우승	무안교육청	2° 16'49"
				3 위	여수교육청	2° 18'19"
				장려상	화순교육청	2° 18'22"
제21회	2008.11.7	영광군	38.3km	우 승	여수교육청	2° 31'12"
				준우승	고흥교육청	2° 40'16"
				3 위	진도교육청	2° 40'16"
				장려상	화순교육청	2° 40'48"
제22회	2009.11.3	진도군	40.5km	우 승	진도교육청	2° 44'28"
				준우승	화순교육청	2° 47'56"
				3 위	고흥교육청	2° 51'50"
				장려상	여수교육청	2° 51'50"
제23회	2010.11.10	진도군	40.5km	우 승	목포교육청	2° 46'26"
				준우승	화순교육청	2° 46'49"
				3 위	여수교육청	2° 49'18"
				장려상	순천교육청	2° 51'52"



횟 수	대회일시	대회장소	거리	우 승 팀		기 록
제24회	2011.11.17	해남군	41.3km	우 승	여수교육청	2° 55'01"
				준우승	해남교육청	2° 56'21"
				3 위	목포교육청	2° 56'42"
				장려상	광양교육청	3° 01'40"
단축마라톤으로 변경 3km, 5km						
제25회	2012.11.3	해남군	41.3km	우 승	나주교육청	2,200점
				준우승	보성교육청	2,100점
				3 위	장성교육청	2,000점
				장려상	신안교육청	1,900점
제26회	2003.11.3	구례군	42.7km	우 승	무안교육청	4,695점
				준우승	광양교육청	4,536점
				3 위	영광교육청	4,465점
				장려상	나주교육청	3,734점
제27회	2004.11.5	보성군	42.2km	우 승	목포교육청	6,393점
				준우승	나주교육청	5,883점
				3 위	보성교육청	5,739점
				4 위	화순교육청	5,688점
제28회	2005.11.3	보성군	42.2km	5 위	광양교육청	5,019점
				우 승	영광교육청	5,633점
				준우승	여수교육청	5,196점
				3 위	보성교육청	5,179점
제29회	2006.11.10	보성군	41.2km	4 위	목포교육청	4,422점
				5 위	순천교육청	4,066점
				우 승	영광 교육청	6182점
				준우승	무안 교육청	5625점
제30회	2007.11.7	영광군	35.2km	3 위	해남 교육청	5284점
				4 위	보성 교육청	5143점
				5 위	영암 교육청	3841점
				우 승	영광 교육청	5891점
제31회	2008.11.7	영광군	38.3km	준우승	무안 교육청	5601점
				3 위	보성 교육청	5397점
				4 위	해남 교육청	5178점
				5 위	목포 교육청	4579점
제32회	코로나19에 의해 미개최					



제87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 제29회 교육감기 단축마라톤 대회, 2016년

(2)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1991년 처음으로 개최된 학년별 육상경기대회는 기록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에 큰 성과를 내는 기틀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년별 경기를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해내는데 기여했다.

역대 성적

횟 수	대회일시	대회장소	대회장소	비 고
제17회	2006.9.12.~14.	고흥군	1위: 여수교육청	
			2위: 광양교육청	
			3위: 순천교육청	
			4위: 목포교육청	
			5위: 고흥교육청	
제17회	2007.9.18.~9.20.	강진군	1위: 여수교육청	
			2위: 목포교육청	
			3위: 순천교육청	
			4위: 광양교육청	
			5위: 고흥교육청	
제18회	2008.9.25.~9.27.	완도군	1위: 여수교육청	
			2위: 순천교육청	
			3위: 광양교육청	
			4위: 목포교육청	
			5위: 무안교육청	



횟 수	대회일시	대회장소	대회장소	비 고
제19회	2009.10.7.~9.9.	구례군	1위: 여수교육청	
			2위: 순천교육청	
			3위: 목포교육청	
			4위: 무안교육청	
			5위: 고흥교육청	
제20회	2010.9.2.~9.4.	영광군	1위: 목포교육청	
			2위: 순천교육청	
			3위: 여수교육청	
			4위: 광양교육청	
			5위: 무안교육청	
제21회	2011.7.2.~9.4.	고흥군	1위: 순천교육청	
			2위: 여수교육청	
			3위: 광양교육청	
			4위: 목포교육청	
			5위: 해남교육청	
제22회	2012.9.13.~9.15.	해남군	1위: 순천교육청	
			2위: 여수교육청	
			3위: 광양교육청	
			4위: 목포교육청	
			5위: 무안교육청	
제23회	2013.9.4.~9.6.	해남군	1위: 순천교육청	
			2위: 여수교육청	
			3위: 광양교육청	
			4위: 목포교육청	
			5위: 해남교육청	
제24회	2014.9.2.~9.4.	여수시	1위: 순천교육청	
			2위: 여수교육청	
			3위: 광양교육청	
			4위: 목포교육청	
			5위: 해남교육청	
제25회	2015.9.22.~9.24.	해남군	1위: 순천교육청	
			2위: 광양교육청	
			3위: 여수교육청	
			4위: 보성교육청	
			5위: 목포교육청	

2016년 제26회 학년별육상대회부터 시군 규모를 분류하여 그룹으로 시상하기 시작함



횟 수	대회일시	대회장소	대회장소		비 고
제26회	2016.9.22.~9.23.	해남군	A그룹	1위: 순천교육청	
				2위: 광양교육청	
			B그룹	1위: 해남교육청	
				2위: 나주교육청	
			C그룹	1위: 보성교육청	
				2위: 구례교육청	
제27회	2017.9.22.~9.23.	해남군	A그룹	1위: 순천교육청	
				2위: 광양교육청	
			B그룹	1위: 나주교육청	
				2위: 해남교육청	
			C그룹	1위: 보성교육청	
				2위: 함평교육청	
제28회	2018.9.20.~9.21.	해남군	A그룹	1위: 순천교육청	
				2위: 목포교육청	
			B그룹	1위: 나주교육청	
				2위: 고흥교육청	
			C그룹	1위: 보성교육청	
				2위: 강진교육청	
제29회	2019.9.20.~9.21.	해남군	A그룹	1위: 순천교육청	
				2위: 광양교육청	
			B그룹	1위: 나주교육청	
				2위: 해남교육청	
			C그룹	1위: 보성교육청	
				2위: 강진교육청	
제30회	2020.	코로나19에 의해 미개최			

(3) 교육감기 수영대회

1994년 처음 개최되었던 수영대회는 전남 수영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 입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매년 시·군대 향으로 운영해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해낼 수 있었다.

(4) 교육감기 축구대회

학교 축구가 침체되어 예산 부족과 선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군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축구부가 해체됨에 따라 소규모 팀이 운영되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기 축구대회를 통해 학교축구 붐을 일으킬 수 있었고,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초등부 대회 결과

연번	연도	대회회수	우수상	준우승	3위		비고
1	2014	제42회	순천중앙초	여수미평초	해남동초	목포연동초	
2	2015	제43회					자료부재
3	2016	제44회	영광초	목포연동초	순천중앙초	강진중앙초	
4	2017	제45회	영광초	순천중앙초	장흥초	목포연동초	
5	2018	제46회	순천중앙초	해남동초	영광초	목포연동초	
6	2019	제47회	장흥초	목포연동초	해남동초	진도초	

중등부 대회 결과

연번	연도	대회회수	우수상	준우승	3위		비고
1	2014	제42회	강진중	해남중	순천매산중	광양중	
2	2015	제43회					자료부재
3	2016	제44회	영광FC U15	순천매산중	여수구봉중	장흥중	
4	2017	제45회	광양제철중	해남중	여수구봉중	장흥중	
5	2018	제46회	광양제철중	순천매산중	해남중	고흥FC U15	
6	2019	제47회	순천매산중	영광FC U15	장흥중	광양중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잠재 능력을 계발하여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체육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신체활동으로서의 체육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세계와 미래로 웅비하는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광주광역시 매곡동에 소재했던 전라남도교육청이 남악으로 이전함으로써 체육교육을 비롯한 교육 환경의 여건이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학교체육의 큰 방향의 근거가 되는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체육과의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했다. 신체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했다.

1) 전남교육청의 체육 시책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교육을 통해 창의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길러내느냐에 따라 개인과 국가의 역량이 달라진다. 따라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학생을 길러내는 일이 오늘날 중요한 교육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학교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편성 및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체육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체력을 유지·증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우수선수 조기 발굴·육성으로 정책·취약종목의 저변 확대 등 선수 육성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전국대회 상위입상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의 요구와 능력 및 학교 여건에 맞는 체육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하여 즐거운 체육수업 전개하도록 했다. 또 체육수업 법정시수(단위) 확보 및 타 교과와 행사 대체를 금지하고, 영역별 특성에 따른 실기수업 모형 구안 적용 및 ICT활용수업, 그리고 학생 활동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전개토록 했다. 학년초 실기평가 계획 사전예고제를 통한 추진 및 학교수준의 성취기준 작성·활용 그리고 평가결과의 공개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1) 체육교사 전문성 제고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전남 학교체육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체육교사 연수, 학교체육활동 우수학교 및 유공자 표창, 학교체육 연구논문 발표, 우수선수 육성 지도사례 발표대회 등을 매년 실시하였다.

(2) 건강체력 증진

학생들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 중간체조(놀이) 실시, 교내체육대회(운동회)를 학교 전통화·특색화하고 지역 축제화로 연2회 실시하도록 권장하였다.

청번	지역	남초	여초	남중	여중
1	목포	농구 축구 야구 유도	배구 배드민턴	야구 카누 유도 축구 농구 복싱	육상 유도 카누 배구 하키 배드민턴
2	여수	육상 탁구 태권도	육상 양궁 탁구	육상 양궁 태권도	육상 양궁 사격 탁구
3	순천	정구 유도 축구	수영 정구	양궁 정구 유도 야구	정구 수영
4	나주	롤러 축구	롤러 테니스	사이클 롤러 복싱	롤러 사격 사이클
5	광양	정구 축구 씨름 수영	정구 수영	축구 정구	축구 양궁
6	담양	배구 수영	배구 양궁	배구 사격 하키 육상 태권도	양궁



청번	지역	남초	여초	남중	여중
7	곡성	축구	배구	탁구	
8	구례	씨름 축구	양궁	축구 씨름	양궁
9	고흥	배구 양궁 씨름 정구		역도 양궁 복싱 배구 근대5종	
10	보성	배구	배드민턴 수영	육상 역도	유도
11	화순	배드민턴 수영 야구 축구	배드민턴 수영	배드민턴 수영 펜싱 사격	배드민턴
12	장흥	축구 씨름	정구	씨름	태권도
13	강진	수영	수영 육상	축구 역도 사이클	육상
14	해남	축구 테니스	탁구	축구 펜싱 레슬링	사격
15	영암	수영		수영	
16	무안	핸드볼 테니스	핸드볼	핸드볼 테니스	핸드볼
17	함평	육상	육상	레슬링	펜싱
18	영광	체조 태권도 축구	체조 농구 테니스	체조 레슬링 태권도	체조 농구 테니스 육상
19	장성	수영	수영	검도 수영 사격 조정	수영 조정
20	완도	육상	테니스	육상 역도 태권도 복싱	육상 유도 테니스 태권도
21	진도	육상	육상	육상 럭비 근대5종	
22	신안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
총계		17종목	12종목	29종목	20종목

(5) 체육특기자 관리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체육특기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전라남도체육특기자선발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발종목은 다음과 같다.

종 목	육상, 수영, 축구, 야구, 테니스, 정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럭비, 사이클, 복싱,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사격, 승마, 체조, 하키,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 조정,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요트, 카누, 근대5종, 양궁, 롤러, 볼링, 골프, 보디빌딩, 우슈, 수중, 세팍타크로, 트라에슬론, 무용, 소프트볼
-----	--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운동선수 육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계
2001	2,136	1,754	993	4,883
2002	2,272	1,819	1,012	5,103
2003	1,934	1,751	1,012	4,697
2004	1,495	1,324	946	3,765
2005	1,485	1,355	1,009	3,849



구분	초	중	고	계
2006	1,525	1,362	1,035	3,922
2007	1,435	1,332	1,008	3,775
2008	1,447	1,342	1,003	3,792
2009	1,492	1,338	987	3,817
2010	1,451	1,347	1,025	3,823
2011	1,442	1,336	1,014	3,792
2012	1,314	1,382	1,025	3,721
2013	1495	1,324	946	3,765
2014	1384	1,278	833	3,495
2015	1351	1,354	850	3,555
2016	1,324	1,266	844	3,434
2017	1,185	1,130	897	3,212
2018	1,340	1,129	826	3,295
2019	1312	1127	823	3,262
2020	1,151	1,022	730	2,903
2021	966	994	704	2,664

(6) 학교운동부지도자 운영

학교운동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및 배정의 적정화를 통해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진로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각급 학교에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현황

(단위: 명)

구분	도교육청	지역청	기능직	계
2001	95	103	13	211
2002	113	103	15	231
2003	124	101	17	242
2004	123	102	17	242
2005	244		17	261
2006	244		17	261
2007	246		17	263
2008	250		17	267
2009	240		17	257
2010	223		15	238
2011	226		15	241
2012	228		15	243
2013	230		14	244
2014	248		15	263



구분	도교육청	지역청	기능직	계
2015	95		15	263
2016	113		15	275
2017	124		15	260
2018	123		14	271
2019	244		15	275
2020	244		14	248
2021	246		11	245

(7) 전남체육고등학교 개교 및 운영

2002학년도에 전남체육중학교의 첫 졸업생(60명)이 배출되었으나, 도내 체육고등학교가 없어 연계 육성이 시급하고 우수선수의 타시도 진학 또는 전출로 인한 경기력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3년 3월 학년당 2학급 규모로 전남체육고등학교를 개교하였다. 또한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육성, 국가의 정책종목 및 취약종목 11종목(육상, 수영, 체조, 사격, 태권도, 양궁, 복싱, 레슬링, 펜싱, 역도, 근대4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전남체육중학교와 통합 운영하고 있다.

① 학교 현황

○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행정실							총원
	교장	교감	교사	소계	일반직	조리원	행정사무	지도자	교무행정	상담사	소계	
중			16	16				15	1	1	17	33
고	1	1	21	23	7	6	1	20	1		35	58
총원	1	1	37	39	7	6	1	35	2	1	52	91

○ 시설 현황

구분	수영장	체육관	교사	사격장	관사	기숙사
면적(m ²)	4,228	1,799	3,472	159	846	6,432

○ 종목별 지도자 현황

연 번	종목	지도자		
		중	고	총 원
1	단거리	1	1	2
2	중장거리	1	1	2
3	도약	1	1	2
4	투척	1	1	2
5	수영	1	1	2
6	자전거	1	1	2



연 번	종 목	지 도 자		
		중	고	총 원
7	복싱	1	1	2
8	레슬링	1	2	3
9	역도	1	1	2
10	양궁	1	1	2
11	사격		1	1
12	체조	1	1	2
13	펜싱	1	2	3
14	태권도	1	1	2
15	근대5종	1	1	2
16	카누		1	1
17	총원	14	18	32

○ 개교 이후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 실적

연번	연도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장소	금	은	동	계	장소	금	은	동	계
1	2000	인천	1	0	0	1	개교 전				
2	2001	부산	0	1	2	3					
3	2002	충남	4	6	8	18					
4	2003	제주	2	6	7	15	전북	1	1	1	3
5	2004	전북	8	5	5	18	충북	5	1	2	8
6	2005	충북	7	5	4	16	울산	9	9	9	27
7	2006	울산	3	3	6	12	경북	11	11	13	35
8	2007	경북	7	5	8	20	광주	11	3	12	26
9	2008	광주	4	4	4	12	전남	12	5	7	24
10	2009	전남	6	7	9	22	대전	8	4	9	21
11	2010	대전	14	11	9	34	경남	8	3	10	21
12	2011	경남	9	1	6	16	경기	4	9	9	22
13	2012	경기	6	6	5	17	대구	8	9	10	27
14	2013	대구	8	5	5	18	인천	10	7	7	24
15	2014	인천	0	2	3	5	제주	8	12	5	25
16	2015	제주	4	8	5	17	강원	8	10	8	26
17	2016	강원	6	8	6	20	충남	8	8	14	30
18	2017	충남	13	12	9	34	충북	9	7	11	27
19	2018	충북	13	7	8	28	전북	6	11	13	30
20	2019	전북	10	4	4	18	서울	4	5	8	17
21	2020	미개최				0	미개최				0
22	7	37	125	106	113	344	총계	130	115	148	393



김장환 전라남도교육감 치사
전남체육고등학교 개교식(2003.5.7)



김장환 전라남도교육감 기념식수
전남체육고등학교 개교식(2003.5.7)

(8) 함평골프고등학교 개교 및 운영

함평골프고등학교는 1929년 공립 농잠실수학교로 최초 개교하였다. 이후 1951년 함평중·농업고등학교로, 1991년 함평실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이후 1996년 중·고가 분리되었다. 2002년에는 함평골프고등학교로 교명과 학칙을 변경하였다. 2015년에는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받았고 2018년에는 현재 위치인 함평군 학교면 학교길 77로 학교를 이전하였다.

① 학교 현황

○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행정				총원
	교장	교감	교사	산학겸임	소계	일반직	공무직	계약직	소계	
총원	1	1	18	5	25	4	9	2	15	40

○ 시설 현황

골프스윙분석실	스크린골프	퍼팅연습장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실	체력단련실
1개소	1개소	5개소	70타석	1실	1실

○ 종목별 지도자 현황

(9) 한국바둑고등학교 개교 및 운영

한국바둑고등학교는 1972년 주암종합고등학교로 최초 개교하였다. 1973년에는 주암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1991년 다시 주암종합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2010년 특성화 자율학교로 지정되었다. 이후 2013년 한국바둑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2019년 체육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국바둑중학교 개교를 위해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17년 체육계열 특성화 중학교 지정 고시에 의해 2018년 개교하였다. 학교 소재지는 순천시 주암면 조달진로 27에 위치해 있다.



3. 2010년대 체육교육

2010년대는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학교운동부로 일컬어지는 엘리트 체육 위주의 체육정책에서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1) 전남교육청 학교체육 4대 과제 추진(2012년)

(1) 추진 목적

체육활동 강화를 통해 체력 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 등을 추진하여 스포츠를 통해 수업과 학교가 모두 재미있도록 하는데 있다.

(2) 학교체육 4대 과제 추진

① 시기: 2012년

② 과제 내용

- 학교체육의 내실화
 - (가) 초등스포츠강사 193명 확대 배치
 - (나) 중학교 스포츠강사 111명 확보 지원
- 체력증진
 - (가)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 (나)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영
 - (다) 매일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7560+운동 전개
- 체육교육의 질 제고
 - (가) 주5일 수업에 맞춰 토요일스포츠데이 운영
 - (나) 강사 303명 확보 지원
- 학교운동부 육성
 - (가) 학교운동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 (나) 전임코치 처우 개선 및 자격 강화
 - (다) 운동부 관련 예산 지원
 - (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2) 전라남도교육청 체육과 장학의 방향

(1) 장학의 목표

- ① 단위학교 실정을 고려한 「만들어 가는 체육과 교육과정」 기본정신 구현
- ② 건강체력교실 운영 장학 강화



- ③ 학교체육 활성화에 초점을 둔 컨설팅 및 정보의 공유
- ④ 2015 개정교육과정 단위학교 효율적 적용을 위한 컨설팅 강화
- ⑤ 과정중심평가를 위한 현장지원단 연수 강화
- ⑥ 「Global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현장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 장학 강화

(2) 기본 방침

- ①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체·덕·지의 전인교육 강화
- ② 학교운동부 육성 종목별 담당장학제를 통한 현장 문제의 공동 해결
- ③ 엘리트체육과 스포츠클럽의 균형 있는 발전 방안 모색

3) 2010년대 주요 체육 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연번	사업명
1	7560+운동 선도학교 운영	6	초등 생존수영교육
2	여학생체육활동 활성화	7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3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8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4	친환경 운동장 조성	9	전남교육청 학생선수 스포츠심리상담 지원 사업
5	체육중점학교 운영	10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1) 7560+운동 선도학교 운영

7560+운동 선도학교는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행복교육 실현의 토대 마련 ▲학교마다 특색있는 자율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체·덕·지를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전문성 진작 및 체육계열 진학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지원 및 운영 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연도	지원금액(천원)	초	중	고	계
1	2016	180,000	10	8	1	19
2	2017	180,000	13	9	1	23
3	2018	180,000	10	6	6	22
4	2019	180,000	10	3	3	16
5	2020	180,000	23	17	8	48
6	2021	180,000	30	14	6	50
7	총계	1,080,000	96	57	25	178

(2)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2015년~2021년)

여학생 체육활성화는 여학생들의 건강체력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공교육을 초월한 국민복지 차원의 체육 활성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전남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원 및 운영 학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연도	지원금액(천원)	초	중	고	계
1	2016	25,800	5	5	5	15
2	2017	25,800	4	6	4	14
3	2018	25,800	6	20	4	30
4	2019	25,800		3	2	5
5	2020	25,800		7	4	11
6	2021	25,800	30	7	4	41
7	총계	154,800		48	23	116

(3) 체육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컴퓨터게임 등 좌식문화의 팽배로 인한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체력 저하와 비만학생 증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시책들을 추진하였다.

학교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은 체육장 설비기준에 의한 시설,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근린체육시설,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천후 다목적 구장 시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 운동장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등을 각급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되었다. 지원 및 운영 학교 현황은 아래와 같다.

연번	연도	초	중	고	계
1	2008	13	9	3	12
2	2009	20	15	15	30
3	2010	16	9	9	18
4	2011	24	9	6	15
5	2012	23	7	11	18
6	2013	38	7	13	20
7	2014	1	10	12	22
8	2015	7	6	7	13
9	2016	10	13	7	20
10	2017	13	17	9	26
11	2018	7	8	4	12
12	2019	17	22	17	39
13	2020	11	13	6	19
14	총계	200	145	119	264

(4) 친환경 운동장 조성

도내 학교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① 도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현황(2021.6.30.기준)

연번	급별	흙	마사토	천연잔디	인조잔디	기타	총계
1	초	220	33	82	95		430
2	중	111	15	49	58	17	250
3	고	62	6	32	32	12	144
4	총계	393	54	163	185	29	824

② 도내 교육기관 소관 수영장 현황(2021.6.30.기준)

연번	기관명	준공년도	규모	비고
1	영암초	1994	25m4레인	
2	화순오성초	1997	25m5레인	
3	도암초	1998	25m5레인	
4	석곡초	2000	25m5레인	
5	옥과초	2005	25m5레인	
6	전남체육고	2002	50m8레인	
7	곡성교육문화회관	2007	25m5레인	
8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2008	25m5레인	
9	완도초	2019	25m6레인	

(5) 초등 생존수영교육

수상 안전사고의 취약 계층인 초등학생의 생존(안전)수영기능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어 연간 기본 10시간(생존수영 4시간 포함)의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였다. 추진 실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연도	교육부권장	전체학교	실시학교	예산(천원)	비고
2014	대상학년	424	34		
2015	없음	426	297		
2016	3학년	427	348	744,950	
2017	3~4학년	427	409	756,900	
2018	3~5학년	428	420	756,900	
2019	3~6학년	2002	2002	50m8레인	
2020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6)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운동기능증심평가에서 건강체력증심의 종합체력평가 및 운동처방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신체활동 증진시키기 위해 초5~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4, 5등급 저체력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7) 학생선수 스포츠심리상담 지원 사업

2014년부터 학생선수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국가대표급 선수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심리상담사를 채용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시험 불안 해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경기력 향상을 꾀하였다. 지원 현황으로는 다음과 같다.

(8)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종목별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도대표 선발전 형식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대회를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학생들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 운영하였다. 개최 종목은 15개로 주로 단체종목 위주로 운영되었고, 인문학 강연, 각종 스포츠 체험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최근 개최지 현황으로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개최지	개최종목	참여팀수	참여학생수
2013	구례	13	324	3,716
2014	구례	15	373	4,358
2015	해남	15	415	5,074
2016	해남	12	433	5,086
2017	진도	15	456	5,785
2018	진도	15	451	5,486
2019	보성	15	448	5,547
2020	코로나19로 미개최			

(9)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다면평가 시행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인식과 체육의 질적인 위상 제고를 위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를 위해 ▲체육인재로 성장하는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책무성 강화, ▲스포츠 분야 및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체육영재 진로지도 대책 강구, ▲체육영재 육성에 필요한 정보 및 우수 지도사례 공유를 통한 지도방식 개선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2016.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운영

연번	연도	대회횟수	장소	고등부출전선수	고등부 순위	비고
1	1993	제74회	광주	513		자료부재
2	1994	제75회	대전	496		자료부재
3	1995	제76회	경북	507		자료부재
4	1996	제77회	강원도	514	12	
5	1997	제78회	경남	542	13	
6	1998	제79회	제주도	536	12	



연번	연도	대회횟수	장소	고등부출전선수	고등부 순위	비고
7	1999	제80회	인천	544	12	
8	2000	제81회	부산	540	8	
9	2001	제82회	충남	542	13	
10	2002	제83회	제주도	534	12	
11	2003	제84회	전북	531	9	
12	2004	제85회	충북	540	10	
13	2005	제86회	울산	557	9	
14	2006	제87회	경북	547	5	
15	2007	제88회	광주	557	10	
16	2008	제89회	전남	560	3	
17	2009	제90회	대전	559	8	
18	2010	제91회	경남	538	5	
19	2011	제92회	경기	556	11	
20	2012	제93회	대구	538	11	
21	2013	제94회	인천	575	11	
22	2014	제95회	제주	553	8	
23	2015	제96회	강원	558	9	
24	2016	제97회	충남	553	11	
25	2017	제98회	충북	538	14	
26	2018	제99회	전북	522	12	
27	2019	제100회	서울	433	12	
28	2020	제101회	미개최			

2) 전국소년체육대회

제2편 제8장 전국소년체육대회로 분류해 다루었다.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여중부 육상 400m 계주 우승



학생선수훈련일지

제6장 체육시설 현황

시설의 개요

체육시설은 지역 체육발전과 체육 저변확대에 필수적인 요소다. 특히 전문 선수들에게는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경기력 향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근래에는 경제발전과 스포츠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해지면서 경기종목도 크게 늘었고 국내체육행사는 물론이고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제규모 체육행사까지 많아져 국제수준의 경기장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져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시설 수요도 매우 늘었다. 국민보건 측면에서는 사회체육분야의 체육시설이 특히 중요해졌고 지역 간 균형있는 시설 설치도 긴요해졌다.

법적 개념으로 체육시설은 ‘건전한 신체·정신함양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그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문화관광체육부 기준에 따르면¹⁾ 체육시설은 설치주체와 운영주체에 따라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로 구분한다. 이중 공공체육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주체와 시설 목적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 등으로 나눈다.

전문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의 필요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의미하는데 근거 법률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시·도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을 의미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한다.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시·군·구(특별자치도 포함)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이에 포함한다.

1) 2018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인의 건강 및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로 직장의 장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근로자 500인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의 경우에는 2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라남도 내 체육시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체육시설. 그 중에서도 전문체육시설은 광주시와 분리 이후 크게 개선되었다.

시도분리 이전엔 전문 체육시설이 주로 광주시에 집중돼 있었으나 분리 이후 전남지역에 체육시설 설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86년 11월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조직이 분리되던 당시만 해도 주요 전문 체육시설은 대부분 광주시에 소재했다. 광주무등경기장을 비롯하여 광주실내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승마장, 사격장, 연식정구장 등이 광주시내에 있었다. 분리 당시에는 낡은 목포공설운동장(1971년 준공돼 낡은 시설을 이듬해 열릴 전국체전에 대비 보완공사에 들어간 상태였다)과 여수공설운동장(이 운동장은 이미 1985년 매각처분된 상태였으며 여수엔 이후 1990년 진남종합운동장이 완공된다) 정도 뿐이었다. 이미 1985년 연말 1987년 전국체전 개최지로 전남이 확정되었지만 실제 대형 공공 체육시설 상태는 거의 전무에 가까운 매우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 같은 전남의 열악한 전문 체육시설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1987년 제68회 전국체전 개최가 계기였다.

1987년 전국체전 개최지 결정은 정치적으로 이뤄졌다. 체육부와 대한체육회가 광주직할시 승격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에서 개최할 것을 권유했고 당시 전석홍 지사는 체육시설 빈약 등의 이유를 들어 고사하다가 결국 받아들였다. 당시 전남은 전국체육대회 개최 조건으로 광주와 전남의 분산개최 및 대대적인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 1987년 제68회 전국체육대회는 계획한 대로 광주와 전남에서 분리 개최되었으며 결국 이 대회 유치가 전남의 전문 체육시설 확충에 획기적 전기가 되었다.

전국체전 개막인 10월을 앞두고 1987년 6월 목포실내체육관과 목포실내수영장, 9월 목포공설운동장, 그리고 10월 순천팔마경기장 등이 차례로 완공됐다. 영산호에 목포카누·조정경기장, 순천연식정구장, 나주 사이클경기장, 나주종합사격장, 여천요트경기장, 송정롤러스케이트경기장 등이 체전을 앞두고 준공했다. 개보수한 목포공설운동장과 장기 공사중이던 순천팔마경기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1986년에 부랴부랴 착공해 이듬해 완공된 것이다.

당시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경기장 시설은 총 12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10대 경기장을 불과 1년 만에 완성함으로써 불모지 전남체육시설은 일거에 전국에서도 가장 현대적이고 건실한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때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보수된 공공 체육시설

은 지금도 전남 전문체육시설의 근간으로 기능하고 있고 지역별로 비교적 균형있게 배
분되어 전남 체육시설사에 큰 획을 그었다.



영산호카누조정경기장 전경



전남사이클경기장 전경

한 마디로 눈부신 발전이었다. 물론 전국체전 개최 뿐만 아니라 당시 제24회 올림픽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체육진흥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고조되었을



전라남도 국제사격장 전경



나주인라인롤러경기장 전경

뿐만 아니라 정부중요시책의 일환으로 부상해 지역별 체육시설 확대대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점도 주효했다.

1987년까지 주요 시 단위 지역에 전문체육시설 건설이 집중됐다면 이후엔 기타 시·군 체육시설 투자가 주로 이뤄졌다. 88서울올림픽과 이후 경제성장 여파로 지방에까지 체육시설 확충 효과가 발생한 때문이다. 1988년 강진역도경기장, 해남공설운동장,

여천실내체육관, 고흥실내체육관, 장성군민체육관 등이 완성되었다. 뒤를 이어 1989년 전남검도회관, 1990년 나주다목적실내체육관(유도 검도 태권도 레슬링 펜싱 등 5개 종목 동시연습장)을 비롯하여 여수시종합운동장(현 진남종합운동장), 여수실내체육관, 순천팔마실내체육관, 여천시종합경기장(현 망마경기장), 담양다목적체육관, 광양실내체육관, 영암종합운동장, 무안종합운동장, 영광공설운동장, 완도종합운동장 등 많은 곳의 체육시설이 차례로 들어섰다.



영암종합운동장



장성군민체육관 전경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는 질적인 변화가 특히 두드러졌다. 2003년엔 전남체육고가 개교해 학교체육시설이자 전문체육시설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로 기록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로 이제 각 시·군마다 거의 모든 종목의 경기가 가능할 정도로 체육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체육 선진지역다운 면모를 갖추게 됐다.



순천팔마실내체육관 전경

이로써 1980년대 말 전국체전 경기종목이지만 도내에는 경기장이 없던 양궁과 승마장까지 모두 갖추게 돼 전남에는 이제 경기장을 갖추지 못한 종목이 없는 실정이다. 전남의 경우 2008년 열린 제89회 전국체전 개최도 시설확충의 중요한 계기였다.

전남의 전문체육시설 가운데 전면 재건축을 통해 국제규모 시설로 재탄생한 나주종합사격장은 주목할 만하다. 나주종합사격장은 2008년 제89회 전남·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당시 전남사격연맹(임노덕 회장, 임채수 전무이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요청에 의해 전라남도가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시설을 전면 신축했다. 이후 2015년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를 위해 일부시설(라이플기계, 클레이 시설, 통제석 등)을 개보수하여 국제사격장으로 면모를 갖추어 사격 주경기장으로 활용됐으며 이듬해 2016년 3월 전라남도의회 의 조례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국제종합사격장으로 개칭되었다.

여기에 공공 체육시설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곳도 있다. 2013년 전라남도체육회관이 무안에 준공돼 체육인의 상징공간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이용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시설이 마련된 데 이어 2018년 체육회관 안에 전남스포츠과학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다.

또 2020년 2월엔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 후보지가 장흥군으로 결정되었고 그해 7월 건립운영을 위한 MOU까지 체결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도 전문체육시설 못지않게 빠르게 진행됐다.

정부는 1986 서울하계아시아경기대회와 1988 서울하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성과를 발판으로 확보한 체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생활체육으로 확대 및 재생산하고자 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1990년 3월에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일명 ‘호돌이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립된 계획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3년간 추진되었다.



전남스포츠과학센터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은 국민생활체육진흥을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의 축적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을 가속화하고, 여가생활의 건전화를 통해 바람직한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기본적인 진행방향은 평생체육의 실현과 국민의 체력·정신력 강화를 통해 국력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했던 체육시설 관련 계획을 살펴보면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부문에서는 서울올림픽기념 생활관 건립, 소규모 근린생활체육시설 건립, 국·공립초등학교 내 테니스장 설치, 광역권별 수영장 건립, 레포츠공원 조성이 계획되었다. 또한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이용 확대, 올림픽시설 개방 등을 실시하였다.



순천올림픽기념관 국민체육센터



담양담빛수영장 전경

즉 신규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향상을 통해 생활체육의 참여여건을 단계적으로 확충·조성하고자 하였다. 신규 확충대상은 운동장, 체육관 등 기본체육시설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동계체육시설, 체육인 올림픽동산, 직장체육시설 등으로 하였고 민간투자 촉진, 체육시설 설치지역의 확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단계적인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생활체육 시설화, 올림픽시설 활용, 직장체육시설 개방, 학교체육시설의 생활체육 시설화 등의 실천방안을 수립하였다.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을 재정비하여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공급을 목표로 하였다.

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989년부터 시작된 국민체육센터,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도 기여한 바가 크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전남도내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그대로 반영돼 시·군 곳곳에 시설들이 들어섰다. 전남의 경우 순천과 강진, 목포, 무안, 영광, 곡성, 나주, 해남 등 거의 모든 시·군에 차례대로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섰다.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역시 2018년까지 모두 22개가 신설됐다.

최근에는 2018년엔 담양국민체육센터 담빛수영장과 신안군민체육센터 등이 준공되는 등 시·군단위 체육센터가 활발하게 건설돼 일반인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다른 공공체육시설로는 직장체육시설이 있다. 공공 체육시설, 특히 전문체육시설 조차 크게 부족했던 시·도분리 당시만 해도 직장체육시설의 비중도 매우 컸다. 전반적

인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데 반해 대기업 중심의 직장체육시설들이 양호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대회에 이용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금호타이어의 축구장과 순천지방철도청 운동장, 럭키광주공장 축구장, 여천호남정유와 럭키(주)의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등 주로 이용되던 직장 체육시설 들이다.



순천철도운동장 전경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의 대폭 신설과 2000년대 들어서면서 민간체육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직장 체육시설은 그 중요성과 일반적인 활용도가 크게 낮아졌다.

민간체육시설의 확충도 눈부셨다. 민간체육시설은 테니스장 탁구장 체육관 태권도장 등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이 많고 비영리시설은 각 시·군마다 시설되어 있는 국공장과 테니스장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 활성화로 민간시설도 공공체육시설 못지않은 규모와 수준을 갖추게 됐다.

전남지역 민간체육시설 중에서는 눈여겨 봐야 할 시설이 1992년 건설된 광양제철 축구전용구장이다. 이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건설된 축구전용구장인 이곳은 성격적으로는 민간시설이자 직장시설이기도 하다. 프로축구시대가 개막하면서 프로축구경기를 위해 건립된 이 축구장은 민간기업 시설이지만 축구 전용구장으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건설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당시 광양제철의 모기업인 포항제철은 ‘포항제철 아톰즈’라는 프로구단을 운영중이었고 이듬해인 1994년 광양제철은 전남드래곤즈를 창단했다. 광양제철은 1993년 2월 광양에 13,496석 규모의 제2전용구장을 개장하기도 했다.

민간체육시설은 등록 또는 신고해야하는 시설인데 시·군별로 크게 확충된 상태다. 2020년 말 현재 전남도내에는 2천 곳이 넘는 민간체육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광양축구전용구장 전경

체육시설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 중의 하나가 학교체육시설이다. 공공체육시설로도 구분되는 학교체육시설의 유형은 크게 운동장과 다목적강당으로 나눌 수 있다. 또 학교단위별로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체육시설이 있다. 학교체육시설의 대부분은 육상, 축구가 가능한 운동장과 체육관 및 테니스장이라 하겠다.

시도분리 이후인 1988년 함평농고에 김원기실내체육관, 목포고에 실내체육관, 영광중앙고에 체조전용체육관 등이 들어서며 학교에도 체육관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이들 시설은 전문체육시설로도 활용되고 있다.



김원기 레슬링체육관 전경

또 앞서도 밝혔듯이 정부의 생활체육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의 하나로 개방형 학교체육관 건설과 교육부의 시설투자도 활발해 이제 사실상 체육관 없는 학교가 없을 정도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목포대학교, 동신대학교 등 지역내 대학 캠퍼스에 있는 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대학체육시설들도 전문체육은 물론 생활체육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되며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분야별 체육시설 세부 현황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남지역 22개 시군에는 모두 3,159개의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서 있다. 물론 이 안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225개)과 동네생활체육시설(2,518개) 등 생활체육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을 빼더라도 전문 공공 체육시설만도 무려 416개에 달해 30여 년 전인 시도 분리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 당시 전라남도내 전문 공공 체육시설은 41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의 공공체육시설은 전국적인 수준과 비교해도 상당히 잘 갖추어진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8년체육백서에 따르면 2017년 말 현재 전남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2,319개소²⁾다. 이는 경기도(4,541)와 서울(2,893), 경북(2,688)에 이은 4번째 수준이다.

전라남도내 공공 종합체육시설 중 전라남도체육회가 위탁운영 중인 곳은 나주 국제사격장, 사이클 경기장, 나주종합체육관, 그리고 무안에 있는 전남체육회관 등 4곳이다. 나머지 공공체육시설은 모두 시군에 있고 운영도 시군 또는 시군체육회에서 맡고 있다.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장, 동네체육시설 등을 뺀 379개 전문 공공체육시설을 내용별로 보면 종합운동장이 27개에 달하고 축구장 80개, 테니스장 40개, 국궁장 37개, 야구장 28개, 수영장 24개, 씨름장 10개, 롤러스케이팅장 7개 등이다. 또 구기와 투기, 생활체육 등이 가능한 체육관은 74곳이다. 사이클경기장과 사격장, 양궁장, 요트장 등은 1곳씩만 있고, 승마경기장과 조정 카누경기장은 2곳씩이 있다.

전남지역 시군별 공공체육시설은 그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 겨울철에 따뜻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목포와 해남, 장흥, 강진 등 남해안 지역 시군 등을 중심으로 동계전지훈련 유치에 위해 국제규격의 경기장들을 대규모로 건설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집중적으로 건설된 이들 전지훈련장들에는 겨울철에 많은 종목의 선수들이 훈련을 오기 때문에 지역 스포츠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한편 주요 공공체육시설 가운데는 지은 지 30년이 넘어 시설이 낙후한 곳도 있어 향후 재건설 등의 과제가 남아 있기도 하다. 목포유달경기장은 시설이 낡아 폐쇄키로 함에 따라 2021년 부지전체가 건설사에 공개매각되기도 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남도내 시군별 민간 신고체육시설은 모두 2,166개소로 요트장과 빙상장, 승마장, 수영장 등 거의 전 종목에 걸쳐 고르게 성장 발전했다.

2) 광역단체별 공공체육시설 숫자는 매년 약간씩 증감한다.



해남우슬체육관 레슬링 선수들 전지훈련 모습

전남도내 신고체육시설 가운데는 당구장이 1,009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태권도장 322개, 체력단련장이 252개 등을 차지한다. 골프연습장도 실내외 합쳐 175개, 스크린연습장이 193개에 이른다. 수영장은 40곳, 승마장 10곳이며 빙상장과 요트장은 1곳씩이 있다.

여기에 시군별로 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1만6천여 곳에 이를 정도로 개선되었다.

271

광주·전남 분리이후 전남체육

※ 기타 체육시설실내 4 : 자동차경주장(1), 인공암벽장(2), 족구장(10), 풋살장(10), 배구장(1), 정구장(3), 체육관(4)해남, 함평, 신안, 산악자전거 경기장(1)



학교체육시설은 크게 학교운동장과 다목적강당으로 나뉜다. 2021년 3월 현재 전라남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운동장은 모두 832개로 이중 천연잔디가 166개소, 인조잔디운동장이 187개소에 달한다.

2021년 3월 현재 도내 초중고의 80%는 다목적강당을 보유하고 있다.

1 학교운동장 현황

(기준일: 2021. 3. 1.)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계	430	250	144	8	832(100%)
천연잔디	82	49	32	3	166(20.0%)
인조잔디	95	58	32	2	187(22.4%)
마사토	33	15	6	-	54(6.5%)
흙	220	111	62	2	395(47.5%)
기타	0	17	12	1	30(3.6%)

* 기타 : 운동장 공동 사용교, 우레탄운동장 등

2 다목적강당 현황

(기준일: 2021. 3. 1.)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계	430	250	144	8	832(100%)
다목적강당	349	181	129	8	667(80.2%)
간이실내체육실	37	37	4	0	78(9.4%)
미보유	44	32	11	0	87(10.4%)
흙	220	111	62	2	395(47.5%)
기타	0	17	12	1	30(3.6%)

주요 전문체육시설 현황

■ 전남체육회관

- 소 재 지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
- 시설규모 : 부지 3,151㎡ · 연면적 5,630㎡ · 층수 : 지하1층 지상5층
- 건물구조 :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 사용용도 : 전남체육회 사무처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다목적 체육관, 스포츠과학센터, 역사관 등
- 공사기간 : 2011. 10.20 ~ 2012.11.16
- 시 공 처 : 남도건설(주)
- 사 업 비 : 135억원(광특 38, 복권기금 50, 지방채 32, 도비 15)

■ 목포실내체육관

-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로 286
- 시설규모 : · 부지 24,780㎡ · 연면적 9,173㎡ · 층수 지하1층 지상3층
· 관람석 : 5,500석(좌석 3,916석, 입석 1,584석)
- 경기종목 : 배구, 농구, 핸드볼, 탁구, 배드민턴, 체조 등
- 공사기간 : 1980.12.27.~1987.6.30
- 사 업 비 : 3,671백만원(국비 1,250, 도비 422, 시비 1,341, 성금 647)
· 1985년 이전(기 투자액) : 2,447백만원(국비 650, 도비 433, 시비 1,017, 성금 347)
· 1986~87 완공 : 1,224백만원(국비 600, 시비 324, 성금 300)

■ 목포실내수영장

-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대양로 286
- 시설규모 : · 부지 15,000㎡ · 연면적 6,418㎡ · 건축면적 4,954㎡
· 다이빙장 - 스프링보드 : 1m~3m 각2조(수심 5.0m)
- 하이드라이빙 : 5m, 7.5m, 10m 각1기
· 수영풀 : 25m×50m 10레인(폭 2.5m, 수심 1.8m)
· 관람석 : 1,178석(풀장 1,056석, 다이빙장 122석)
- 경기종목 : 수영, 다이빙, 수구, 수중발레
- 공사기간 : 1차 : 부지정리 86.8.18~86.11.15
2차 : 건축공사 86.10.7~87.6.30
3차 : 2008년 전국체전에 대비해 개보수공사(타일, 조명, 보일러 시설 등)
- 사 업 비 : 1차 3,436백만원(국비 1,700, 도비 450, 시비 896, 성금 390)

■ 목포 국제필드하키 경기장

-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내화마을길 89
- 시설규모 : · 하키구장(91.5.m×55m) 6,262㎡
· 보조구장(45.7.m×55m) 3,320㎡
· 관람석 : 548석, 가압펌프장 1개소, 조명타워 8개소, 전광판 1개소의 인조구장
- 경기종목 : 필드하키
- 공사기간 : 2007.6.~2008.6
- 사 업 비 : 2,536백만원

■ 목포카누조정경기장

- 소 재 지 :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영산호 지내



- 시설규모 : · 부지 16,298㎡(수면 제외) · 정고 및 선수생활관 1동 265㎡
 - 바지선 : 10기(20m×5m 4기, 5m×5m 6기)
 - 조정라인 : 6코스 2,000m
 - 카누라인 : 9코스 1,000m
 - 본부석 : 1,000㎡
- 경기종목 : 카누, 조정 각종 경기
- 공사기간 : - 1차 : 호안, 정고 (86.6.30~86.12.30)
 - 2차 : 본부석, 바지선, 라인 (87.7~87.8.30)
 - 3차 : 정고 및 사무실 등 건립(880㎡, 9레인 설치, 2007.12.~2008.7.)
- 사 업 비 : 1차 269백만원(국비 1,700, 도비 31, 시비 220, 성금 18)

■ 여수 진남경기장

-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
- 시설규모 : 초기 관중석 15,613석. 2008년 25,000석으로 확장
- 경기종목 : 축구, 육상(8레인)
- 공사기간 : 1990.4.30. 준공. 2005년 보수공사
- 사 업 비 : 1차 56억 9천만원
- 2008.10.10.~16 제89회 전국체전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면서 14,77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07.11.17.~2008.9.30.일까지 스포츠센터 증축(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405㎡), 본부석 및 캐노피 보수(780㎡), 주경기장 도색 및 안내표지판 정비 등 추진.

■ 여수 망마경기장

-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 공사기간 : 개보수 2007.10.30.~2008.9.18.
- 사 업 비 : 6,028백만원
- ※제89회 전국체전을 대비해 트랙 우레탄 교체, 잔디교체 포설 및 건축물 개보수

■ 순천팔마경기장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3
- 시설규모 · 부지 84,686㎡ · 경기장 면적 4,526㎡
 - 본부석 882㎡
 - 스탠드 8~22단 7,451㎡(단높이 40cm, 출입문 8개소)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수용인원 : 15,000명



- 경기종목 : 축구, 육상, 럭비, 하키
- 공사기간 - 1차 : 84.12~85.6
 - 2차 : 85.9~86.2
 - 3차 : 85.12~86.12
 - 4차 : 86.6~86.12
 - 5차 : 86.10~86.12
 - 6차 : 86.12~87.10
- 사 업 비 : 3,276백만원(국비 850, 도비 100, 시비 2,174, 성금 150)
 - 84~86년 투자액 : 2,430백만원(국비 850, 시비 1,580)
 - 87년 완공연도 : 844백만원(도비 100, 시비 594, 성금 150)

■ 순천팔마테니스장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3
 - 시설규모 : 부지면적 14,857㎡, 경기장 면적(하드코트 10면) 7,330㎡,
건물 연면적 163㎡, 수용가능인원 740명
 - 경기종목 : 테니스
 - 공사기간 : 2007.12.~2008.8(제89회 전국체전 대비 기존 6면 개보수, 3면
신설. 당시 전국체전에 대비해 기존 클레이코트였던 이곳을 하드코트
로 바꾸고 생활체육공원 조성지구내에 6면 신설, 순천제일대학내 테니
스장 6면 확보 등을 통해 클레이코트 12면을 확보해 대회를 치름.)
- ※ 팔마실내테니스장이 2017년 7월 국내 최대규모로 완공됐다. 건축연면적
6,375㎡, 테니스장 6면, 정구장 3면으로 구성. 팔마종합운동장 동쪽에 있으며
48억원의 예산으로 건립.

■ 순천팔마정구장

-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333
- 시설규모 · 부지 7,519㎡ · 경기장 4,526㎡
 - 코트 6면+생활체육공원 내 3면 신설(2008)
 - 구조 : 철골트러스 및 콘크리트
 - 수용인원 : 3,000명
- 경기종목 : 연식정구, 테니스
- 공사기간 : 1차 1987.4~1987.10
2차 2007.12.~2008.8(제89회 전국체전 대비 기존 6면 개보수,
3면 신설)
- 사 업 비 : 1차 257백만원(도비 100, 시비 127, 성금 30)
2차 432백만원



■ 나주 종합체육관

-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건재로 130-13
- 시설규모 : 부지 6,045㎡/연면적 2,305㎡('92.3월 건립)
- 주요시설 : 펜싱, 레슬링 훈련장 및 사무실 등
- 이용현황 : 도청 직장팀 훈련장(펜싱/여(13명))
- 대회개최('19년) : 도내 대회 80명(전남 소년체육 40명, 전남 학생종합 40명)
- 이용인원(최근3년) : '19년 2,496명, '18년 4,054명, '17년 4,324명

■ 나주 사이클경기장

-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건재로 130-13
- 시설규모 · 부지 30,480㎡ · 연건평 7,517㎡
 - 피스타 : 333.3㎡
 - 수용인원 : 1,000명
- 공사기간 : 1986.8.31.~1987.9.23
- 시 공 처 : 남양건설(주)
- 사 업 비 : 1,465백만원(국비 800, 도비 665)

■ 나주 국제사격장

-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사격장길 82
- 시설규모 · 부지 69,368㎡ · 연건평 7,517㎡
 - 사대 129개(3동)
 - 1동 : 공기소총 90좌(736평:430석)
 - 2동 : 트랩사격1면(384평:270석), 서킷트사격 1면, 속사권총 2조 10좌
 - 3동 : 화약소총 15좌(1,275평:350석), 러닝보어 1면-25,50
- 경기가능종목 : 각종 사격경기(국제경기도 가능)
- 공사기간 : 1차 : 1986.8.24.~1987.9.23.
 - 2차 : 2008.9 전면 재건축 완공(25,50,100m사격대와 클레이 사격대 3조, 아메리칸사대 1조 신설)
- 시 공 처 : 1차 한국건설(주)
- 사 업 비 : 1차 : 1,327백만원(국비 700, 도비 567, 성금 60)
 - 2차 : 13,300백만원

■ 나주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 소 재 지 :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동 1539 나주종합스포츠타운
- 시설규모 · 부지 73,357㎡ · 연건평 1,789㎡ 지하1층 지상2층
 - 수용인원 : 3,000명(좌석 958석)
 - 인라인필드 L=200m(B=6.3m)

전남체육회관 건립

시도 분리당시에 전남도체육회는 전국 시도체육회에서 유일하게 체육회관을 보유하고 있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에 있던 전남체육회관은 1982년에 완공된 체육인의 전당으로 전남체육회 청사로 사용하고 일부 경기단체 사무실과 복싱, 레슬링, 검도, 태권도 등의 훈련장으로 이용되었다.

시도 분리 당시 전라남도과 광주시는 분리협상을 통해 체육시설 분야에선 전남체육회관을 도체육회가 계속 사용키로 합의했다. 광주에 소재했지만 전라남도의 재산이고 체육회 청사로 사용한 점 등이 고려된 결정이었다. 그러나 도청은 전남으로 내려갔으나 체육회만 광주에 남은 기형적인 상황으로 체육회관의 무안 신축이전은 큰 숙제로 남아있던 상태였다.

1. 회관 건립과정과 규모

광주에 남아있던 도체육회는 2007년 12월 7일 사무처를 목포 하당지구로 이전했다. 도체육회는 당시 1년 후엔 2008년 열릴 제89회 전남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11개월 여 앞두고 전남도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대회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목포 이전을 결정했다. 흔히 도체육회 사무처의 목포 이전을 두고 ‘제2의 도약’이라고 불렀다. ‘제1의 도약’은 지난 1983년 광주광역시 구동에 위치했던 전남체육회관을 소유했던 시기를 가리킨다.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목포로 급히 옮기긴 했으나 독립된 청사가 없었고 ‘본 회의 사무소는 도청소재지에 둔다’는 규약과도 배치된 상태이던 도체육회는 숙원사업인 체육회관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전남체육회관 착공식

2007년 12월 24일 도 체육회관 신축계획을 수립했다. 이듬해인 2008년 5월 9일 도의회에서 당시 광주에 남아있던 도체육회관 매각승인이 났고 그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무안 남악지구에 새 체육회관을 짓기로 하고 부지를 물색한 끝에 2009년 6월 8일 부지를 최종 확정했다.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번지(계약 당시는 삼향면 남악리 2009번지)였다. 이로써 4년간의 새 청사 신축공정이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에 있던 옛 체육회관도 그해 8월 14일 41억5천만 원에 광주시에 매각되면서 새 체육회관 건립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2010년 9월 10억 원을 들여 신축부지 매입을 마무리한 뒤 실시설계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엔 없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과 장애인체육회와 관련 가맹경기단체 사무실을 확보, 주차장 증면 등을 위한 설계변경도 있었다. 다목적 체육관 설립과정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전남도에서 강력하게 반대했으나 당시 남악에 이렇다 할 체육행사 및 일반 행사용 실내공간이 없음을 내세워 설득한 끝에 예산을 확보했다. 서정복 당시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관의 필요성을 박준영 도지사에게 수 차례 건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인화 문화관광국장장과 조정훈 스포츠산업과장 등이 힘써 주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10년부터 공공시설 건립시 친환경 시설과 자재 설치 의무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요인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당초 90억 원이던 사업비는 45억 원이 늘어난 135억 원(부지매입 10억 원, 설계·감리용역 13억 원, 시설비 112억 원)이 됐다.



전남체육회관 준공식

도체육회관은 2011년 5월 착공식을 갖고 공사에 들어가 2013년 1월 24일 준공했다. 새로운 체육회관을 지어 업무를 시작하면서 무안시대를 연 도체육회는 이 때를 ‘제3의 도약’시기로 불렀다.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도청 소재지에서 도약할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도체육회 새 보금자리는 지하 1층, 지상 5층(부지 3천151㎡, 건축면적 1천291.39㎡, 바닥면적 5천630㎡) 규모로 체육회(일반·장애인)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추었다.

2. 새 체육회관의 특징

전남도체육회관에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와 가맹경기단체 사무실을 비롯하여 스포츠과학센터, 전남스포츠 전시관, 탁구, 배드민턴, 농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섰다.

전남체육회관의 준공으로 체육인들은 전남 체육 진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명실상부한 전남체육의 사령탑 역할을 할 공간이 최신식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전남체육전남체육회관 전경회관 준공식

실제 전남도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등 가맹경기단체가 함께 있어 행정 능력 향상은 물론 유기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했고, 다목적 강당 및 스포츠과학센터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이 기여했다.

이밖에도 전남체육회관 준공은 스포츠산업을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됐다. 이후 각종 레저·스포츠대회를 지역에 유치해 이를 관광프로그램과 연계시켜 도민의 소득을 창출했고, 체육인 사무실과 전용훈련시설이 없는 더부살이 설움을 떨쳐내면서 각종 전국규모대회 개최 및 동·하계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남체육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및 과학화되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의 기초가 될 스포츠과학센터 운영도 타 시·도체육회와는 차별화된 시설 중 하나였다. 전남스포츠과학센터는 회관 준공 5년 여 후인 2018년 12월 3일 문을 열었다.

새 체육회관은 체육 외적인 부분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가장 큰 특징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등 최첨단 시설로 지어졌다는 점이었다. 정부지침도 있었지만 많은 일조량과 바람이 일정하고 풍부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좋아 친환경적 조건을 갖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다.

다목적체육관 냉·난방을 위해 220kw의 지열시스템과 전동, 전열용의 태양광시스템(42kw)을 갖췄다. 또 체육관 옥상녹화 및 창 면적이 벽면 대비 45%(기준 50%이하)로 시공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도 받았다. 이밖에 고효율 기자재(LED) 사용 및 개별 냉·난방시스템 적용, 친환경(투수성) 바닥포장재 반영, 자연채광 및 환기를 위해 체육관 지붕에 유리천장 설치 등도 당시 주목을 받았다.



전남체육회관(태양광, 옥상녹화)

건설 당시 재원은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광특자금 38억원과, 복권기금 50억원 등 총 88억원의 시설 재원을 확보하여 활용했다.

도체육회는 2013년 1월 24일 오전 11시 다목적체육관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전남체육회관 건립 사업 요약

- 위 치 :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번지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5층 (부지 3,151m² 건축면적 1,291.39m² 바닥면적 5,630m²)



- 주요시설 : 체육회(일반, 장애인) 사무실, 다목적체육관, 회의실 등
(공공 업무시설)
-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사 업 비 : 135억원(부지 10, 설계,감리용역 12, 시설비 113)
※ 재원별 : 광특 38, 복권기금 50, 지방채 32, 도비 15
- 공사기간 : 2011. 10. 20 ~ 2012. 11. 16
- 시 공 사 : 남도건설(주) 이훈
- 감리회사 : (주) 휴다임건축사사무소 , 신가승 ENG

체육회관 층별, 용도별 배치 현황

- 층별 용도실 현황 : 108실 ▮ 바닥면적 : 1,291.39㎡(391평)
└ 건축면적 : 5,631㎡(1,706평)
- 층별 배치 용도

층별	면적(㎡)	평형	주요 시설	비고
계	5,630.830	1,706		108실
지하층	1,955.36	59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승객용EV 등	14실
지상1층	1,268.86	384	다목적강당, 스포츠과학센터, 전시관 등	22실
지상2층	687.34	208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경기단체 사무실 등	22실
지상3층	573.09	174	대회의실, 다목적실, 기자실 등	17실
지상4층	573.09	174	체육회 사무처(회장실, 사무처장실, 소회의실), 문서고 등	16실
지상5층	573.09	174	회맹경기단체 사무실(4실), 문서고 등	17실
옥상층	-	-	태양광 설치	

전시관 설치 현황

- 자료 수집 현황 : 63 품목 212종
- 위 치 : 1층 62.98 m² (19평)
- 사 업 비 : 194.8백만원



기탁자	내용	수량
유도	유도	3
양궁	양궁	1
하키	하키	1
펜싱	펜싱	3
배드민턴	배드민턴	1
태권도	태권도	1
볼링	볼링	2
공보실	공보실	1
롤러	롤러	1
카누	카누	1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	1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회	1
레슬링	레슬링	5
레슬링	레슬링	1
역도	역도	1
복싱	복싱	1

전시관 자료 수집 현황



- 성화 체화경
- 제89회 전국체전(전라남도)
- 2009. 10. 06



- 성화 보존 등불
- 제89회 전국체전(전라남도)
- 2009. 10. 06



— 성화봉
— 제89회전국체전(전라남도)
— 2009. 10. 06



— 성화지 흙(강화도 만니산, 해남 땅끝, 신안가거도)
— 제89회전국체전(전라남도)
— 2009. 10. 06



— 기념품(무릅담요)
— 제89회전국체전(전라남도)
— 2009. 10. 06



— 마스크트
— 제89회전국체전(전라남도)
— 2009. 10. 06



— 기념품(청자붓통)
— 제89회전국체전(전라남도)
— 2009. 10. 06



— 옷(선수단)
— 제89회전국체전(전라남도)
— 2009. 10. 06



— 모자(선수단)
— 제89회전국체전(전라남도)
— 2009. 10. 06



— 모자(자원봉사자)
— 제89회전국체전(전라남도)
— 2009. 10. 06



— 옷(심판복)
— 제89회전국체전(전라남도)
— 2009. 10. 06



— 옷(피켓걸)
— 제89회전국체전(전라남도)
— 2009. 10. 06



- 사진
- 안윤화선수(배드민턴)
- 1984. 2
- 전남 광주



- 문패(자랑스러운 선수의 집)
- 안윤화선수(배드민턴)
- 제64회 전국체전 여고부 개인전 우승
- 1983. 10, 전남 광주



- 사진("고"조오련선수)
- 제7회아시아경기대회 수영 자유형 400M 우승
- 1974.
- 전남 해남



- 사진("고"조오련선수)
- 대한민국 체육훈장 청룡장
- 1980. 전남 해남



- 사진("고"조오련선수)
- 도버해협 횡단 후 기념
- 1982. 전남 해남



- 사진("고"조오련선수)
- 아시아의 물개 발자취
- 2009 전남 해남



- 훈련복
- 김원기선수



- 각종메달
- "고"조오련선수 수상
- 전남 해남



- 사진액자(150cm×150cm)
- 우리도 출신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현황판
- 2010. 6.



- 기념은화
- 제68회 전국체육대회기념(광주광역시)
- 1987.



- 시합복
- 김원기선수(1984년 LA올림픽)
- 1984. 전남 함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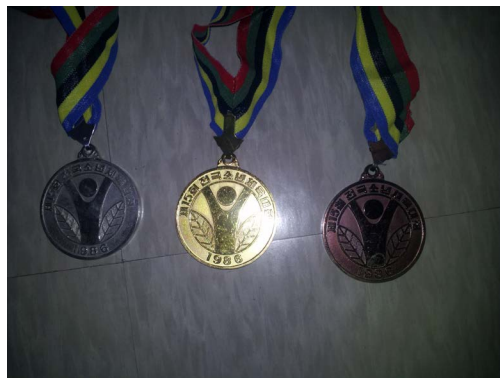
- 금메달(김원일)
- 2002부산아시아게임복싱
- 2002. 전남 목포



- 동메달(이형근)
- 제88회서울올림픽 역도
- 1988. 전남 보성



- 각종 기념메달
- 62회 전국체전 준우승 등
- 1981. 10



- 메달
- 제1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1986. 5. 05
- 제주도 외 전국



- 메달
- 제1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1986. 5.
- 부산 및 경남 일원



- 메달
-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2009. 5.
- 전라남도



- 금메달(이용대)
- 제29회 중국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 2008. 8
- 전남 화순



- 올림픽 당시 시합복, 신발, 라켓
- 제29회 중국 베이징 올림픽 배드민턴
- 2008. 8
- 전남 화순

제7장 전국체육대회

지난 1986년 광주가 광역시로 승격돼 전남에서 분리됨으로써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전남 성적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분리 이전 줄곧 전국체전에서 2위, 3위를 차지했었으나 87년 68회 대회 8위, 88년 69회 대회 11위 등 성적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광주가 분리돼 별도 선수단을 꾸림으로써 전력이 그만큼 약해진 때문이다.

과거의 2위, 3위 영예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제일 좋은 성적이 전국 7위를 기록한 때였고, 가장 저조했을 때는 14위까지 뒤회지기도 했다. 다행히 지난 2008년 전남에 유치 개최한 제89회 전국체전에서 종합3위에 오르며 반등의 계기를 삼은 것이 위안이 됐다. 또 제89회 전국체전은 국제종합사격장 등 국제규모의 체육 기반시설을 갖추었음으로써 전남체육발전의 전기를 마련한 대회로도 기록됐다.

광주와 분리된 이후 전남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선수들의 활약상, 전남도와 전남체육회 등의 노력, 의미 등을 각 대회별로 살펴보았다.

1. 전국체육대회 참가(제70회 ~ 제101회 대회)

1) 제70회 전국체전(1989년) (전남종합성적 : 7위, 3만2천392점)

제70회 전국체육대회는 효원의 도시 경기도 수원(주 경기장)에서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다.

‘참된 마음, 참된 모습, 참된 화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 체전은 어느덧 고희를 맞은 데다 88서울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는 성공올림픽 1주년 기념 대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었다. 또한 유사 이래 처음 열리는 세계한민족체전과 병행해 열렸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두고 있었으며, 제6공화국 출범 후 처음 열리는 전국체전이기도 했다.

이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와 9개국 해외동포선수단 2만44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34개 종목에 걸쳐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일원에서 열띤 메달 경쟁을 벌였다. 참가 선수들의 열전 끝에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서울이 2위, 경남이 3위에 올랐다.

1987년 8위에서 1988년 11위까지 밀려났던 전남은 한 자릿수 진입을 목표로 34개 전 종목에 1천351명(선수 1천26명, 임원 325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다행히 금메달 41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60개로 종합 7위를 차지, 당초 예상을 뒤엎는 호성적을 거두었다. 전남은 지난 1986년 광주광역시와 분리된 후 1987년 제68회 대회를 이 지방에서 개최한데다 1988년 제69회 대회는 종목별대회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회가 전남 체육의 원년이나 다름없었다.



열세를 딛고 전남 체육이 선전한 것은 광주 전남 분리 전 6년 연속 준우승을 독차지했던 저력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회 전남 선전의 원동력이 된 경기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체전 5연패의 요트를 비롯한 카누, 조정 등 수상경기와 전통적 강세인 투기종목이 제몫을 해줬고, 막판 뒷심으로 도약대를 놓아준 골프를 위시한 육상, 역도, 검도, 유도 등이 발군의 기량을 보여준 때문이었다.

기록경기 부문에서는 육상이 2개의 대회신기록(장대높이뛰기 이용훈, 창던지기 나정연)과 20개의 메달을 거머쥐었고, 특히 마라톤은 5위로 급부상하는 활약을 했으며, 2위를 유지해준 카누와 2명의 3관왕을 탄생시킨 역도는 전남의 중위권 도약의 견인차가 됐다. 그러나 메달박스임에도 하위권에 머문 수영, 무득점의 승마와 근대5종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전남의 구기는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 1~2회전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 다만, 당초 중하위권으로 예상했던 골프가 의외로 선전, 2위로 꺾충 뛰면서 대미를 장식한 효자 종목이 됐다. 여기에는 가수이자 아마추어 골퍼인 오기택과 김경현(217타)의 분전이 주효했다. 하지만 무득점의 치욕을 맛본 야구, 럭비풋볼을 비롯한 전통 강세종목 정구의 초반 탈락은 큰 실망을 안겨줬다.

투기종목에서는 씨름, 유도, 펜싱이 제몫을 해줬고, 태권도, 복싱, 레슬링, 검도가 상위권 또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레슬링은 국가대표급 3명이 기권 또는 실격에도 불구하고 7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저력을 과시했고, 복싱도 5개의 금메달을 획득, 복싱부문 종합 4위를 유지하는 선전을 펼쳤다.

이 대회 전남의 종합 7위는 이듬해 청주체전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겨주었다. 일반부의 주류인 시군 취업선수들의 노화현상과 1990년부터 시행될 대학, 일반부 통합은 대학, 일반부 선수가 전무하다시피 한 전남으로선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별 이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팀 창단을 통한 전력 향상 대책 등 기본적인 실질적 체육진흥대책이 선행돼야 함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종목별로는 특히 요트가 두드러진 성적을 냈다. 요트에서 전남은 종합1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여천시청은 요트에서 이번 대회까지 전국체전 5연패를 달성하며 종합득점 2천557점을 획득, 요트 종합1위 달성에 수훈감이 되었다. 여천시청 이상환·정홍제 선수가 일반부 국제스나이프급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며, 같은 여천시청 이정길·주우성 선수도 일반부 국제엔터프라이급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여수수대 서용근도 일반부 국제디비전-2에서 금메달을, 여수상고 윤철도 국제470급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전남선수단에 힘을 실었다.

또 카누도 예상치 못한 선전으로 종합2위를 차지함으로써 전남 성적 종합7위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목포대 박경철·최창환 조와 목포대 천경수·황종일 조가 남일 C2 500m와 C2 1,0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목포대와 카누협회 선수들로 팀을 짰 혼성팀이 남일 K4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전남은 카누에서 금메달·은메달 각각 3개, 동메달 4개로 종합점수 1천701점을 얻어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었다.

어냈다. 또한 전년도 6위에 그쳤던 궁도는 2위로, 수영은 박영철, 박병훈의 3관왕을 비롯해 박성원이 2관왕을 한데 힘입어 최하위에서 9위로 올라섰다. 이밖에도 전년도 무득점 불명예를 씻은 승마와 5위의 체조가 비교적 선전했고, 근대5종, 볼링, 육상트랙, 필드가 제자리걸음을 했다.

하지만 마라톤과 사이클, 양궁, 사격이 최하위로 하락했으며, 역도와 카누의 부진도 치명적인 하강의 원인이었다. 전통 강세로 군림해온 투기종목은 중하위권으로 밀려나 전열 재정비가 시급함을 보였다. 반면 선수들의 노쇠화와 더불어 저변층이 취약해진 복싱, 레슬링은 아시아대회 여독이 채 가시지 않았음에도 각각 6위를 마크하는 선전을 펼쳤다.

구기 종목은 광주, 전남 분리 당시 대부분 광주로 넘어가버린 탓에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당수 종목이 출전조차 못하거나 갓 창단된 팀이어서 거의 초반 탈락의 고배를 들어야 했다. 이런 가운데 야구는 전년도에 전남으로 이적한 포철야구팀이 동메달을 따내고 목포영흥고가 8강에 진출, 1년 전 무득점에서 3위로 오르는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뒀다.



전남출신 한전소속 김재룡 선수(7번)가 5,000m, 10,000m 대회신기록 수립과 함께 2관왕을 차지했다.

71회 체전에서도 일반부는 중위권, 대학·고등부는 최하위권이라는 구조적 패러다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전국에서 선수와 팀 육성이 가장 미진하다는 혹평까지 받아야 했다. 그러면서 일선 시군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 기록경기에만 치우치고 있고, 단체 구기 종목의 취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등부의 경우 전년도 종합 13위에서 14위로의 퇴보 등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절실함을 일깨워준 대회였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전남선수단은 전년 대회와 마찬가지로 요트에서 '전국체전 6연패'라는 대기록을 작성하며 강세를 이어갔다. 여천시청 박길철이 국제레이저급에서 금메

달을 목에 건 것을 비롯해 상무의 서용근도 국제디비전-2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또한 윤철·정성안(이상 여수수대) 선수조가 국제470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이정길(여천시청)·주범중(여수수대) 선수조도 국제엔터프라이즈급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들의 활약에 힘입어 전남은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를 따내며 이 종목 종합1위를 차지했다.

종합1위에 오른 골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강은채(전남골프협회) 등 4명으로 팀을 이뤄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으며, 오기택은 단체전 금메달에 이어 개인전에도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궁도 역시 종합2위를 차지하며 종합점수 1천393점이나 보태며 전남 종합순위 8위 도약에 힘을 보탰다. 전남궁도협회 김이현 등 7명이 팀을 이뤄 일반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

제71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대회신	수영	여일	평영 100m	박성원	여천군청	01:14.6
			평영 200m			02:39.5
	육상트랙	남일	5,000m	김재룡	한전	13:59.1
			10,000m			29:44.8
대회타이	수영	남일	접영 100m	박영철	한체대	57.72
	역도	일반	인상 110.1kg 이상급	김태현	한체대	160kg
	육상트랙	남고	100m	이형근	목포덕인고	10.7

3) 제72회 전국체전(1991년) (전남종합성적 : 8위, 3만1천724점)

제72회 전국체육대회는 호남의 고도 전라북도 일원에서 ‘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이라는 슬로건아래 10월 7일부터 7일 일정으로 개최됐다. 전북도는 72회 체전을 위해 1천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경기장 신설(9개) 및 개보수(44개) 등 그동안 취약했던 낙후시설을 일제히 정비해 지방도시 경쟁력 입지를 다졌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대회 때보다도 풍성한 기록과 넘치는 인정을 과시한 대회로 호평을 받았다.

이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와 11개국 해외동포 선수 등 2만2천58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선수들은 35개 종목에 걸쳐 전주와 군산, 이리, 정읍, 남원, 김제, 부안 등 9개 지역 53개 경기장에서 열전을 벌였다.

금메달 총 660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 대회에서는 2연패를 노리던 서울을 제치고 경기도가 금87, 은94, 동85 등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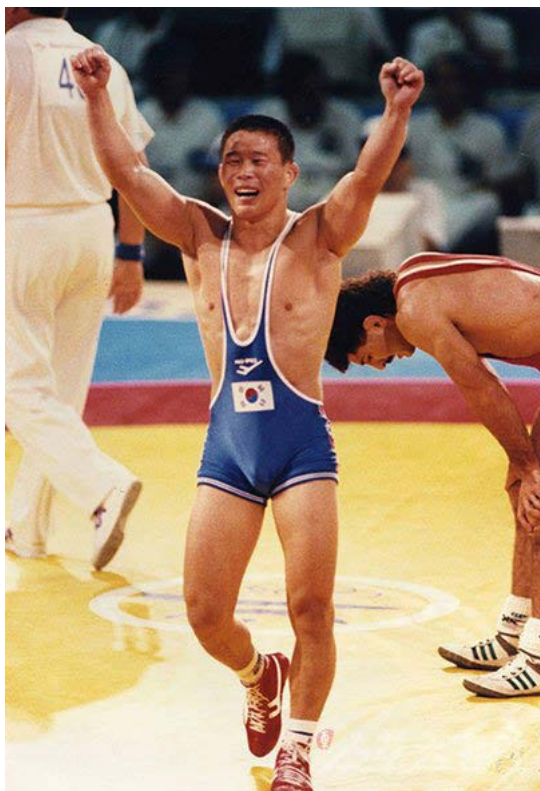
전남은 전전년도 성적 7위 탈환을 목표로 35개 전 종목에 1천393명(선수 1천43명, 임원 350명)이 참가해 선전한 결과 금35, 은34, 동72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종합 8위를 차지, 전전년도 성적 7위 탈환에는 실패했다.

다행히 대회 7연패에 빛나는 요트와 13위에서 3위로 크게 도약한 육상의 필드, 마라톤은 전남의 8위 유지에 크게 기여했고, 전남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고등부가 전년도 14위에서 9위로 상승세를 탔다. 투기종목과 기록경기종목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 또 몇 년간 퇴보현상을 보였던 투기종목이 크게 선전, 유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을 제외하고는 복싱, 태권도가 4위로 올라섰으며, 씨름도 전년도 11위에서 6위로 급부상하는 선전을 펼쳤다. 종합6위를 기록한 레슬링에서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한봉(삼성생명) 선수가 일반부 그레코로만형 57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전남은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를 따냈다.

그러나 체조, 사이클, 수영, 양궁, 승마 등은 10위권 밖에서 맴돌아 근본적인 선수발굴 육성의 위기감을 가지게 했다. 특히 구기의 경우 축구, 핸드볼, 럭비풋볼은 0점에 그쳐 전남 구기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정구, 하키, 배드민턴 등의 전력이 급상승했으며, 배구, 탁구 등이 소폭 상승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대회 후 전남이 중상위권에 진입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빠른 시일 내에 농어촌 통폐합학교를 활용해 특목고나 체육특별학급을 신설해 대학, 일반체육의 보급원을 활성화시키는 등 원활한 선수발굴육성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대회에서도 전남은 요트에서 전국체전 7연패를 달성하며 난공불락의 아성임을 보여주었다. 일반부 국제레이저급에 출전한 여천시청 박길철이 금메달을 따낸데 이어 상무의 서용근도 국제디비전2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상무의 이태주·정윤길 조와 여수수대 윤철·정성안 조도 국제엔터프라이즈급과 국제470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내며 전남의 요트 7연패 달성에 힘을 보탰다.



▲ 사진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삼성생명 안한봉 선수가 일반부 그레코로만형 57kg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모습



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종합7위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1986년 광주와 분리된 후 6년간 통산 두 번째 좋은 성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더구나 개최지 대구가 1만4천 여점의 시드배정 특혜를 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6위를 마크한 셈이 된 것이다. 전남은 가장 많은 점수가 걸려있는 육상에서 전년도 5위에서 전력약화로 8위를 예상했다. 하지만 김남진(목포기계공고)이 남고부 800m와 1,500m에서 우승해 2관왕에 오른 것을 비롯, 무명의 노다지(고흥군청)가 여일 400m에서 우승하는 등 고교와 일반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함에 따라 예상을 깨고 종합3위(4천117점)에 올라 종합 성적 목표달성에 견인차가 됐다.

또 궁도는 특출한 선수가 없었는데도 참가 선수들이 고른 성적을 내 전년도 7위에서 3위로 부상했고, 사격, 근대5종, 볼링, 롤러스케이팅, 사이클 등이 크게 호조를 보였으며, 유일한 1위종목인 요트는 2천360점을 획득, 전국체전 8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며 종합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 외에도 전남도청의 여자펜싱이 플러레와 에페 우승으로 전년도 펜싱 종목 종합13위에서 종합4위로 도약했고, 검도가 8위에서 3위로 급부상했으며, 태권도, 복싱 등 투기종목이 막판 무더기 금메달을 따내 종합7위 목표달성에 수훈감이 됐다.

단체경기인 축구는 전년도 무득점에서 1천302점을 획득 일약 5위로 수직상승했고, 하키는 담양공고가 준우승한데 힘입어 3위로 부상하는 등 크게 선전했다. 반면 핸드볼, 럭비풋볼의 경우 연 2년째 무득점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밖에도 수영, 테니스, 탁구, 농구, 배구, 역도, 유도, 양궁, 보디빌딩 등은 종합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종목별로는 요트에서 종합우승을 차지, 전국체전 8연패를 달성하며 연패 기록을 이어갔다. 일반부 국제레이저급에 출전한 여천시청 박길철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일반부 국제470급에 출전한 여수수산대 윤철·정성안 조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 요트의 명성을 지켰다.

이 대회에서는 검도도 종합3위에 오르며 전남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금성고가 고등부 단체전에서 아쉽게 3, 4위전으로 밀렸으나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거머쥐었으며, 목포대 검도팀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도 금3, 은4, 동3 등으로 종합3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여수고 조진호가 고등부 밴텀급에서 소중한 금메달을 따낸 것을 비롯해 일반부 핀급의 유창호(전남태권도협회)와 일반부 미들급의 박은석(전남태권도협회)도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하키도 총득점 1천11점으로 종합3위라는 성적을 올렸다. 담양공고가 남고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고, 목포시청이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대회신	마라톤	여고	단축마라톤(10km)	곽혜순	전남제일여고	34:29.00
	육상트랙	남일	10,000m	김재룡	한전	29:26.5
		여고	3,000m	곽혜순	전남제일여고	09:18.9
대회타이	육상필드	남일	높이뛰기	김대식	전남선발	2.12m

5) 제74회 전국체전(1993년) (전남종합성적 : 10위, 3만2천15점)

‘군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74회 전국체육대회는 빛고을 광주에서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 동안 개최됐다. 1987년 제68회 대회(전남 7개 시군, 15개 종목 개최) 이후, 6년 만에 민주 성지 광주에서 열린 체전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했다.

전국 15개 시도와 해외동포 등 총 2만2천44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총 36개(시범-우슈) 종목에 걸쳐 메달레이스를 펼쳤다.

체전 하루 전 전북 부안군 위도면 임수도 부근 해상에서 2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위도를 떠나 격포항으로 향하던 서해훼리호가 침몰한 사고로 인해 대회 분위기가 숙연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주최 측의 성공 체전을 위한 노력과는 달리 광주시민들의 냉담한 관심도와 매끄럽지 못한 경기진행, 도난사건(충남선수단본부 현금도난) 발생 등으로 타시도 선수들에게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기도 했다. 여기에 전남선수단도 개막 1개월 전 전남체육회 직원(총무과장)과 전남사이클연맹 임원(전무이사)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라 전남선수단 모두가 무거운 마음으로 체전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대회 2연패를 노리는 서울을 따돌리고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한 가운데 한국신기록 79개, 한국타이기록 5개, 한국주니어신기록 34개, 한국주니어타이기록 11개, 대회신기록 187개, 대회타이기록 42개 등 총 358개의 풍성한 기록이 쏟아졌다.

전남은 중위권 수성을 목표로 36개 종목에 1천458명(선수 1천92명, 임원 366명)을 파견해 금39, 은33, 동65 등으로 총 3만2천15점을 획득, 종합10위로 전년도보다 3계단이나 하락한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전년도 종합7위 입상의 발판이 되었던 육상은 트랙, 필드, 마라톤 분야에서 각각 1~2등위씩 밀려났고, 검도, 펜싱, 축구가 각각 4~7등위씩 밀려났다. 35개 정식종목 중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게 부진한 성적을 낸 종목은 탁구, 야구, 검도, 양궁, 펜싱 등이었다. 특히 탁구, 야구는 1회전 탈락으로 양궁과 함께 0점 처리되는 수모를 당했다. 바르셀로나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로 전남에 확실한 금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됐던 안한봉 선수가 은메달에 머물러 체전 관계자들을 크게 실망시키기도 했었다.

전남의 또 다른 기대주였던 수영의 백진영(순천여고)과 배드민턴 여자선수 2인자였던 이흥순(나주시청) 등이 동메달에 그치는 등 이름값을 해내지 못했다. 이처럼 기대했던 선수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육상 투원반의 김영철(고흥군청), 멀리뛰기의 김유미(동광양시청), 유도 조민선(여천군청) 등은 제몫을 톡톡히 해냈고, 부동의 정상을 지켜온 요트는 9연패의 화려한 금자탑을 쌓았다.

여기에 요트, 궁도, 태권도, 근대5종, 정구, 복싱, 레슬링, 역도, 사격, 하키, 볼링 등은 꾸준한 상위권 전력유지로 기대만큼 효자전력종목 역할을 다해냈다. 특히 정구와 역도는 전년도 중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두드러진 약진을 보이면서 전남이 더 이상 하위권으로의 추락을 막아준 버팀목이 됐다.



▲ 여천시청 서용근이 요트 일반부 국제미스트랄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전남은 금1, 은1 등으로 이 종목 정상에 올랐다. 전남은 요트가 체전 종목으로 채택된 이래 9년 연속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74회 체전 전남성적 부진의 근본적 원인은 고등부 전력 하락으로 분석됐다. 고등부는 전년도 8위에서 13위로 밀려났는데 애초 목표는 남자 28개교 241명, 여자 16개교 181명 등 422명의 선수를 29개 종목에 출전시켜 6위권에 입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21개 등으로 도합 39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데 그쳐 고등부 총메달 913개의 4%에 불과한 성적을 거뒀다. 고등부 육상은 전년도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 등 10개의 메달을 획득해 전국 5위권에 랭크됐었으나 이 대회에는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에 머물러 13위로 곤두박질쳤다.

특히 전년도에 이어 계속 노메달에 그친 수영,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등은 전남의 취약종목으로 자리를 굳히는 불명예를 안기기도 했다.

반면 전년도 동메달 1개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역도가 은메달 2개, 동메달 7

개 등으로 종합6위로 수직상승했고, 담양공고 하키와 순천매산고 정구가 은메달을 따내 전남 강세종목의 체면을 그나마 유지했다. 개인선수로는 여고부 롤러 300m에서 김연주(화순고)의 금메달과 전년도 42kg급에 이어 그해 50kg급을 석권한 레슬링 박기철(함평실고)이 취재진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런 부진에 대해 전남체육회와 전남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 단체경기종목 육성 뒷받침이 어렵고, 메달박스인 수영과 체조를 지도할 만한 시설과 지도자가 빈약하고, 정책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체육중고등학교가 없는 점을 큰 과제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상위종목과 하위종목을 구분해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단일팀 종목을 연차적으로 창단하고, 체육중·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등의 대책을 숙의하는 등 전남체육 활성화대책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종목별로는 요트가 통산 9번째 정상을 차지하며 전남의 성적 추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여천시청 서용근이 일반부 국제미스트랄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천시청 이태주·정윤길 조도 일반부 국제엔터프라이즈급에서 은메달을 보탰다.

궁도도 총득점 1천509점을 따내 종합2위에 등극하며 전남선수단에 힘을 실어줬다. 곡성 반구정 박형수가 일반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순천 환선정 김도형 등 7명이 출전한 일반부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권도에서도 전남은 금4, 동4 등으로 총 1천393점을 따내 종합3위를 차지했다. 영광종고 김도완이 남고부 편급에서, 여수고 김은철이 남고부 라이트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용인대 장종오와 전남선발 유창호도 각각 대학부 웰터급과 일반부 편급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제74회 전국체전 전남선수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신	마라톤	여일	스피드 5,000m O,R	임혜경	여수시청	10:23.4
	사격	남일	스키트 단체	김용선 외 3명	한체대	353
	역도	남일	인상 108kg 이상급	김태현	해태	185kg
			용상 108kg 이상급			225kg
			합계 108kg 이상급			410kg
	역도	남일	인상 99kg 이상급	최동길	한체대	159kg
	육상필드	남일	원반던지기	김영철	고흥군청	53.50m
대회신	사격	여고	스피드300 T,R	김연주	화순고	34.46
		남고	스피드 5,000m O,R	유성수	영산포상고	10:04.2
		남일	공기권총 단체	김성수 외3	중소기업은	1,753
	사이클	여고	3km 개인추발	강미영	영산포여상	04:13.8
	역도	남일	용상 99kg	김재명	강진농고	182.5kg
	역도	남일	합계 99kg	김재명	강진농고	317.5kg



6) 제75회 전국체전(1994년) (전남종합성적 : 11위, 2만9천347점)

제75회 전국체육대회는 엑스포의 도시 대전 한밭벌에서 전국 15개 시도와 12개 해외동포 등 총 2만2천7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36개 종목과 2개 자유참가종목(수중발레·세팍타크로) 등 38개 종목에 걸쳐 10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7일간 열렸다.

‘퍼자, 달리자, 더욱 힘차게’라는 캐치프리즈 아래 열린 체전은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으로 예년보다 20여일 늦게 치러져 히로시마 열기가 그대로 이어진 체전이 되기도 했다. 참가 인원 면에서는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전국체육대회 규모가 너무 비대해졌다는 대한체육회의 지적에 따라 축구, 농구 등 7개 구기 종목 예선전을 사전경기로 치르기로 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선수·임원 800여명이 줄어들었다.

이 체전에서 경기도는 서울을 따돌리고 2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전남은 한 자릿수 순위 진입을 목표로 총 1천373명의 선수단(선수 1천34명, 임원 339명)이 36종목 136종별(21종별 불참)에 출전했으나 금메달 30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43개를 획득, 총 2만9천347점으로 종합11위에 그쳤다. 제72회 대구체전 이후, 전년도에 이어 이 대회까지 연속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전남은 유일한 1위 기대종목이었던 요트가 10연패를 이루지 못하고 2위로 밀려났는가 하면 레슬링, 역도, 하키, 롤러 등이 전년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부진했다. 또 야구,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등 구기종목이 전멸 하다시피한데다 검도, 양궁, 야구, 배구, 핸드볼, 테니스 등 역대 최다인 6종목이나 무득점의 불명예로 종합성적 부진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아시안게임 여독이 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고장의 명예를 위해 출전한 전남의 확실한 우승후보인 히로시마 메달리스트들이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초반 탈락이나 경기 포기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우승후보 육상 마라토너 김재룡이 아킬레스건의 이상과 다리부기가 심해 출전을 포기했고, 레슬링 안한봉은 어깨부상으로 기권하고, 레슬링 민경갑은 동메달 입상에 그쳤으며, 확실한 금메달을 기대했던 유도 조민선마저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다.

한편, 아시아 최고의 역사 김태현(해태)이 인상·용상·합계를 휩쓸어 유일한 3관왕으로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이어 명성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우리도의 전통적 강세를 지속해온 태권도, 근대5종, 정구, 궁도 등은 상위권 성적으로 전남의 체면유지를 해줬고 볼링, 보디빌딩, 승마, 펜싱 등이 기대이상의 좋은 성적으로 기대이하 급락종목의 성적을 만회하는 밑거름이 됐다.

특히 폐회식 직전에 치러진 축구경기에서는 전남대표로 출전한 이랜드 푸마 팀이 후반13분을 남겨놓고 천금같은 결승골을 터뜨려 극적인 우승을 안겨줌으로써 전남 성적이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방어했다.

선수단 안팎의 분위기는 전년도 종합10위에서 하마터면 12위까지 추락할 뻔했던 상황에서 전남체육화로 모색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전년도 보다 1계단 밀려났다는 산술적인 면보다 외부요인에 의지해 11위를 차지하려고 발버둥치는 허약한 전남체육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실업팀 하나 없고 단지 행정기관 직장 팀 13개 팀과 전남연고 팀인 호남정유 배구와 테니스, 포스코 야구, 이랜드 축구, 산업은행 탁구 등 4개 팀이 겨우 버팀목이 돼줄 뿐이었다. 대학팀도 대부분 참가 점수를 따는데 급급하고, 연계 우수선수육성 모체가 되는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고등부 성적 역시 전년도와 같이 하위권(14위)에 머물러 취약한 전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전남 체육의 현실이다.

전남이 체전 출전 사상 최악의 성적을 낸 것을 거울삼아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을 서둘러야 하고 전남체육회 집행부 임원 개편과 경기단체 체질개선의 기회로 삼아 전남체육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종목별로는 특히 근대5종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으로 종합2위를 기록하는 등 두드러진 성적을 냈다. 상무의 김인호와 한체대 박병희 등 전남 팀이 남일 단체전(5종)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선수단에 힘을 실었다. 또 상무의 김인호는 남일 개인전(5종)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불링도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종합2위에 오르며 전남 효자 종목 역할을 해줬다. 동광양시청 강대성·신창복·최광학 등이 출전한 남자일반부 3인조경기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최광학은 남자일반부 마스터즈경기 개인전에도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의 전통 강세종목인 요트는 이 대회에서 10연패 달성에는 실패했으나 종합2위로 여전히 선두권을 유지했다. 여천시청 서용근이 일반부 국제미스트랄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같은 여천시청의 이태주·정윤길도 일반부 국제엔터프라이즈급에 동반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에서도 전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따내 종합3위를 차지했다. 상무의 김현철이 남자일반부 페더급에서 금메달을, 전남선발 강재원이 남자일반부 라이트급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제75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신	육상트랙	여일	10,000m	곽혜순	동광양시청	33:24.8
대회신	역도	남일	역도 99kg급	최동길	상무	160kg
대회타이	역도	남일	합계 99kg급	최동길	상무	365kg

7) 제76회 전국체전(1995년) (전남종합성적 : 9위, 3만3천27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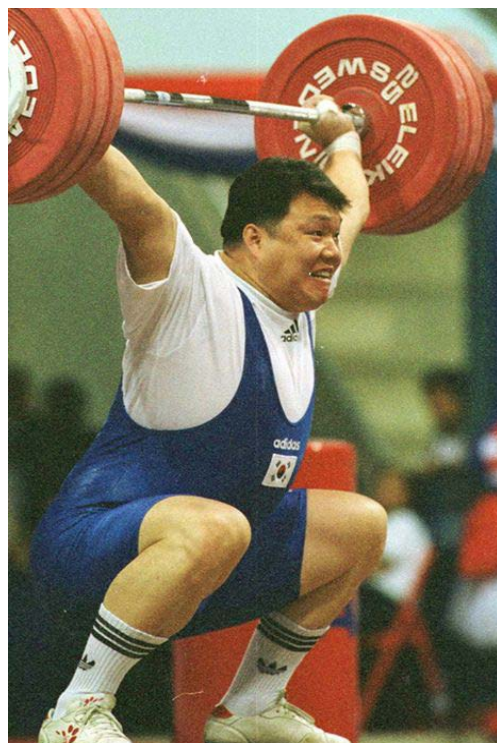
제76회전국체육대회는 전국 15개 시도 선수단과 12개 해외동포 선수단 등 총 2만 490명이 참가한 가운데 35개 정식종목에 걸쳐 경북 포항시(주경기장) 일원 55개 경기장에서 10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뚝 모아 하나로! 힘 모아 세계로!’ 라는 구호아래 열린 이 대회는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지방 중소도시에서 개최돼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중소도시형 전국체전 모델이 제시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각 시도 선수들이 열전을 펼친 결과, 전년도 준우승팀 서울이 경기도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은 35개 종목 132개 종별에 1천326명(선수 1천37명, 임원 289명)의 선수단이 출전, 중위권 진입을 목표로 선수, 임원 모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그 결과 2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던 성적이 3년 만에 한 자릿수로 올라 종합 성적 9위를 달성했다. 금메달 39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56개로 총점 3만3천274점을 획득한 것이다.

전남은 한국신기록 2개, 대회신기록 3개, 대회타이기록 2개 등 모두 7개의 신기록을 수립했고, 입상종목은 1위 입상 3종목(육상필드, 하키, 요트), 2위 입상 2종목(근대5종, 골프), 3위 입상 3종목(사격, 승마, 태권도) 등으로 8개 종목이 입상해 전년도보다 4개 종목이 늘어났다. 이는 전년도 금30, 은43, 동43 등으로 2만9천347점을 따낸 것에 비하면 메달과 점수면에서 크게 상승,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지방자치 원년에 전남체육중흥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청신호로 평가받았다.

이처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종목은 전남체육의 간판 종목이라 할 요트, 태권도, 골프와 하키, 육상필드, 검도, 사격, 승마 등이다. 전년도 준우승에 머물렀던 요트가 다시 정상에 복귀해 통산 10차례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고, 전년도 노메달로 11위에 머물렀던 하키는 남녀 고등부 우승을 비롯 여자일반부에서 동메달을 추가해 종합우승의 쾌거를 이뤄냈다. 검도의 경우 목포대가 동메달을 따내 전년도 무득점에서 6위로 뛰어오르면서 사격, 승마와 함께 순위가 수직상승하며 전남의 한 자릿수 진입에 크게 이바지했다.

특히 태권도는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휩쓸면서 전년도 이어 3



▲ 해태 김태현이 역도 용상 108kg이상과 합계 108kg이상에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들어올리며 금메달을 따냈고, 인상에서도 대회타이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 3관왕에 오르며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김태현은 이후 79회, 80회 대회때도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8) 제77회 전국체전(1996년) (전남종합성적 : 9위, 3만2천912점)

‘마음을 열자 꿈을 펼치자’라는 슬로건 아래 제77회전국체육대회가 10월 7일 강원도 춘천종합경기장에서 7일간 펼쳐졌다. 대회는 춘천을 비롯한 원주, 강릉, 속초 등 4개 지역에서 35개 종목 154종별에 걸쳐 전국 15개 시도와 12개 해외동포, 이북5도 선수단 등 2만5천66명이 참가해 각기 고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치열한 득점레이스를 벌였다.

2연패를 노리는 서울과 정상 탈환을 넘보는 경기도의 치열한 경쟁 끝에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은 전년도 보다 1계단 오른 종합 8위 입성을 목표로 35개 종목, 135종별에 1천37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하지만 체전 마지막 날 8위 자리를 놓고 경북과 치열한 격전을 벌이게 되었는데, 경북 영남대와 결승전을 치른 남자일반부 전남 이랜드축구는 우승을 했으나 목포상고의 수구가 인천광성고와의 결승전에서 패하는 바람에 간발의 차로 목표했던 8위에 오르지 못하고 전년도와 같은 종합9위에 만족해야 했다.

메달 수에서는 금46, 은31, 동61 등 138개를 획득, 모두 139개를 따낸 전년도보다 1개가 적었으나 금메달 수에서는 전년도 39보다 상승세를 보였다. 입상종목도 1위 종목 요트를 비롯해 2위 3종목(궁도, 근대5종, 보디빌딩), 3위 1종목(사격)으로 전년도보다 2위 종목이 많아지는 등 경기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반증해 주었다.

여기에 전남 요트는 1985년 전국체전에 요트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1994년 한해를 제외하고 11번째 우승을 거머쥐는 신기원을 달성하면서 전남의 종합순위 하락을 방어하는 버팀목이 됐다. 종목별 성적의 경우 배구가 목포여상과 LG정유의 우승으로 전년도 12위에서 4위로, 궁도는 9위에서 2위로 급상승해 득점 면에서 전년도보다 각각 1천여 점을 더 따내는 성적을 올렸다. 반면 하키를 비롯한 태권도, 승마, 골프 등이 전년도 1~3위권에서 6~9위권으로 추락해 500~1천여점씩 잠식해 종합순위 상승세를 타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해 대조를 보였다.

이 대회에서 드러난 전남체육의 실상을 살펴볼 때 고등부의 전력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학부는 육성팀이 거의 없거나 유명무실하고 일반부는 실업팀이 전무하는 등 근본적인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했다. 취약한 지역 경제력과 지역민의 체육 참여 부족으로 경기, 부산, 경남 등 타 시도와 달리 각 경기단체가 자립하기보다는 체육회 지원에 의존하는 등 전남 체육이 안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종목별로는 요트에서 총득점 1천940점을 획득, 종합1위를 차지했고, 여수상고 전주현·정권조 조가 일반부 국제엔터프라이즈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궁도에서도 종합2위를 차지했다. 순천환선정 김도형 등 7명이 일반부 단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근대5종에서도 전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종합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다. 상무의 김미섭과 완도군청 박병희 조가 남자일반부 단체전(5종)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김미섭은 또 남자일반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에 올랐다.

보디빌딩도 종합2위에 올랐다. 고흥군청의 한동기가 남자일반부 웰터급 75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보성군청 이진호도 남자일반부 미들급 85kg급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제77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대회신	육상트랙	남고	5,000m경보	김민규	나주공고	21:34.8
	사격	남고	공기권총 단체	국남진외3명	담양실고	1750
		남일	공기권총 단체	김성수외3명	중소기업은	1755
대회타이	사격	남고	공기권총 단체	김재두외3명	목포기계공고	1694
	역도	남고	용상59kg급	신명주	강진농고	137.5kg
		남일	용상99kg급	최동길	하이트맥주	167.5kg
			합계99kg급	최동길	하이트맥주	377.5kg

9) 제78회 전국체전(1997년) (전남종합성적 : 11위, 3만2천358점)

제78회 전국체육대회는 ‘뭉치자 하나로, 달리자 세계로’라는 슬로건 하에 경상남도 창원시를 비롯한 5개 지역 58개 경기장에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열렸다.

연속 우승을 노리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와 이북5도 및 12개 해외동포 등 총 2만1천67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모두 39개 경기종목에서 자신과 고장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경상남도가 15년 만에 개최한 이 대회는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전년도보다 1개 팀이 늘어난 16개 시도로 선수단 규모도 1천115명이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대회사상 처음으로 야간 개회식으로 전환해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비용절감 경제체전 운영 노력에도 공력을 들였다.

열전 끝에 경기도가 2연패를 달성했다. 전남은 종합 9위를 목표로 39개 전 종목에 1천390명(선수 1천70명, 임원 320명)이 참가해 목표달성을 위해 혼신을 다한 치열한 격전을 펼쳤으나, 선전을 기대했던 경기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며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금메달 38개, 은메달 38개, 동메달 48개로 총 3만2천358점을 기록, 전년도보다 두 계단이나 내려앉은 11위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이 같은 성적은 전년도와 비교해 메달과 득점 양면에서 뒷걸음질 쳤다.

입상종목은 1위가 1종목(요트), 2위가 1종목(보디빌딩), 3위가 3종목(사이클, 검도, 태권도) 등 모두 5개 종목으로 전년도보다 1종목이 줄었으나 1위에서 두 종목이나 감소한 점이 타격이었다. 메달도 전년도 금메달 46개, 은메달 31개, 동메달 61개 등 총 138개에 비해, 124개로 14개나 줄어들고, 득점도 554점이나 낮아지는 등 경기력 퇴조 우려를 낳기도 했다.



상위권 종목을 보면 사이클, 궁도, 사격, 요트, 보디빌딩, 복싱이 전년도에 이어 이 대회에서도 5위권의 수준을 유지해 주력종목으로 주목을 받았다. 반면 전년도 강세종목이었던 근대5종과 럭비, 풋볼, 배구의 순위 급락은 전체 성적에 치명상을 주었다. 다행히 대회 마지막 날 조정 여고부 싱글스킬 김옥경(장성여상)이 우승하고, 수구 남고부 목포상고가 경북포항수고를 따돌리고 우승해 귀중한 금메달 2개를 보탬으로써 더 이상의 등위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

종목별로는 요트가 전통 강세종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여수수대 전주현·정권조 선수조가 일반부 국제스나이프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을 비롯해 여천시청 윤철 선수도 일반부 국제레이저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여천시청 임진영·정윤길 선수조도 일반부 국제엔터프라이즈급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보디빌딩에서도 전남은 금2, 은2 등으로 종합2위에 올랐다. 고흥군청 한동기가 남자 일반부 웰터급 75kg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보성군청 이진호도 남자일반부 미들급 85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태권도에서도 금5, 은5, 동4 등으로 종합3위에 등극했다. 한체대 김광호, 한체대 정대영, 경희대 김동현이 각각 남대부 편급과 밴텀급, 라이트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전남선발 최용훈과 경희대 정명숙도 각각 남자일반부 플라이급과 여자일반부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보탰다.

제78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대회신	육상트랙	남고	5,000m 경보	김민규	나주공고	20:16.9
	사격	남일	공기소총 단체	김성수외3	중소기업은	1763
		남대	공기권총 단체	강표 외3	동신대	1708
		남대	공기소총 단체	김유환외3	동신대	1750
	사이클	여고	500m독주	안연희	영산포여상	38.131

10) 제79회 전국체전(1998년) (전남종합성적 : 8위, 3만6천540점)

제79회 전국체육대회는 사상 최초로 제주도에서 ‘푸른 제주, 빛나는 체전, 위대한 한국’이라는 구호아래 열렸다. 9월 25일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전국 15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단 등 2만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1주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지난 제77회 대회 이후 3연속 우승을 노리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치열한 경쟁 끝에 경기도가 3연패를 달성했다.

전남은 39개 종목에 1천412명(선수 1천91명, 임원 3백22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전년도보다 2계단 상승한 9위를 목표로 했으나, 3계단이나 뛰어오른 종합 8위를 차지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금메달 41개, 은메달 49개, 동메달 49개 도합 139개 메달을 획득했으며, 기록면에서는 한국신기록 2개(역도, 롤러), 대회신기록 6개(사격 3, 양궁 2, 육상 1)를 작성했다. 입상종목은 1위가 4종목(배구, 요트, 근대5종, 골프), 2위가 1종목(사격), 3위가 1종목(태권도)이었다. 기록경기종목에서는 근대5종, 골프, 사격, 육상, 양궁, 역도, 롤러, 볼링이, 단체종목에서는 배구, 펜싱, 테니스, 하키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적을 냈으며, 전통강세 효자종목 태권도가 제몹을 다해줬다.

체전 MVP는 전남 소속 아시아 최고의 역사 김태현이 선정되었는데, 이로써 김태현은 지난 77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 MVP에 뽑힌 영예를 안았다.

한편 IMF 경제위기로 출항인사, 기업인 등이 눈에 띄게 줄어든 선수단 격려에 아시아 물개로 불렸던 해남 출신 조오련씨(당시 서울 조오련수영교실대표)가 300만원이라는 거금과 함께 1천여 명의 전남선수들에게 가방을 증정하는 애향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바다 건너 최초로 개최하는 제주체전에 자극받은 전남의 뜻있는 체육인들은 전남의 전국체전 개최에 대한 여론을 고조시켰는데, 이는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 LG칼텍스 배구팀이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전남선수단의 배구 종합우승을 이끌어 냈다.

종목별로는 골프, 근대5종, 배구, 요트 등 4개 종목이 종합1위를 달성하며 전남이 종합8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는데 수훈감이 됐다. 골프에서 전남선발 김상혁(경희대) 등 4명의 선수가 한조를 이뤄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동신대 김상철은 남자일반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전남은 골프에서 금메달 2개를 따내며 정상에 올라, 당초 한 자릿수 순위 입성을 목표로 했던 전남 선수단이 목표 이상의 성과를 내는데 큰 힘을 보탰다.



근대5종에서도 전남은 금메달 2개와 동메달 2개로 종합점수 1천974점을 얻으며 종합1위를 차지했다. 완도군청 박병희 선수가 남자일반부 개인전(4종)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데 이어 전남도청 김미섭과 박진만도 남자일반부 단체전(5종)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배구도 참가팀 모두 메달을 따내며 종합1위에 올랐다. LG칼텍스 배구팀이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별교상고 배구팀은 남고부에서 은메달, 목포여상 배구팀은 여고부에서 은메달을 따냈으며, 목포대 배구팀도 남대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요트에서도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1위를 차지했다. 여수대 전주현·정권 조가 일반부 국제스나이프급에서 금메달을 따낸데 이어 여수시청 김대영·정성안 조도 일반부 국제470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79회 전국체전 전남선수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신	롤러	남일	스피드 5,000m O.R	주만식	전남선발	08:56.4
	역도	남일	인상 105kg 이상급	김태현	보성군청	197.5kg
대회신	육상트랙	여대	5000m	서옥연	대림전문대	16:50.5
	양궁	여고	30m	허윤정	순천여고	357
		남고	50m			344
	사격	남고	공기권총 개인	이동규	담양실고	694.4
		여일	더블트랩	이은심	상무	136
		남고	공기권총 단체	김성수와3	중소기은	1769
대회타이	사격	일반	스키트 개인	장성욱	한국통신	144

11) 제80회 전국체전(1999년) (전남종합성적 : 11위, 3만1천837점)

제80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1일 김대중 대통령내외와 선수단, 관중 3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종합경기장에서 개막돼 7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황해로! 세계로! 미래로!’ 라는 기치아래 열린 인천체전은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종목별 종합순위 및 부문별 득점집계, 메달집계 등 각종 경기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는 ‘체전경기상황 사이버중계 시스템’이 운용됐다. 특히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앞두고 메달 유망주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고 기량을 재점검하는 좋은 계기로 삼는 대회여서 그 어느 대회보다 치열한 경쟁과 질적으로도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

경기도는 이 대회에서 전국체전 4연패를 달성했다. 전남은 전년도와 같은 8위 수성을 목표로 39종목 141종별에 1천374명(선수 1천53명, 임원 321명)의 선수단을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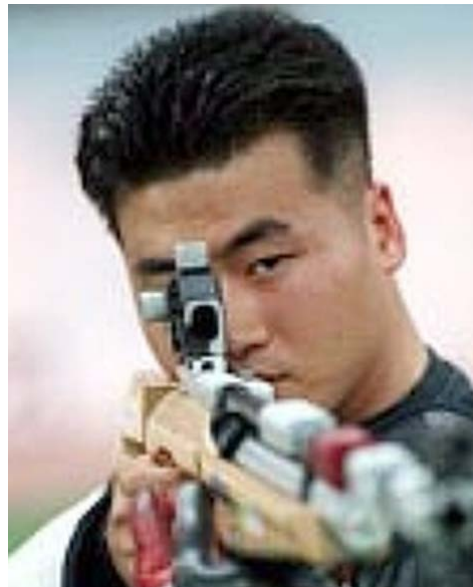
전, 당초 대구, 경남과 더불어 8~10위권을 다룰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다크호스 경북이 9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11위로 3계단이나 처지고 말았다. 이같은 부진은 전국 정상권의 전력을 갖춘 일부 구기 종목들의 초반 대진 불운 탓도 있었지만, 전남 체육의 전반적인 침체 문제가 지배적이었다는 평가였다.

즉, 고교팀들의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일부 시군 취업선수들의 노령화에 따른 경기력저하, 대학·실업팀들의 열악성이 한꺼번에 터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태권도, 역도, 수영 등 다관왕을 차지할 수 있는 전략종목을 중심으로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나이든 선수들의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한 분위기 쇄신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종목별로는 요트와 정구가 각각 종합1위를 차지하며 전남선수단의 성적 하락을 방어하는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특히 요트에서 전남은 전국체전 요트종목 15년 역사에 단 한번을 제외하고 통산 14번째 우승을 기록했다. 당초 강호 부산과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간에 치고올라온 복병 충남과 접전 끝에 정상을 차지해 최강 요트전남을 확인해줬다. 국제엔터프라이즈급에서 정윤길·임진영(여수시청) 조가 우승을 했고, 국제470급에서는 김대영·정성안(여수시청) 조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구는 전년도 9위에서 수직상승, 정상을 차지했다. 84년 65회 대회이후, 15년만에 감격의 패권을 차지했다. 종합순위를 놓고 경기도와 막판까지 치열한 다툼을 벌이다가 공동 우승에 오르게 된 점도 특별한 기록이다. 단체전에서 당초 목표대로 남자일반부 순천시청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순천여고와 순천대가 귀중한 동메달을 수확해줬다.

사격도 종합 3위를 차지하며 힘을 보탰다. 메달점수에서는 앞섰으나 종합득점에서 44점차로 종합 2위를 서울에 내주고 한등위 내려앉아 아쉬움이 컸다. 남자일반부 임영섭(주택은행)이 공기소총 개인에서 697.1점,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했다. 남대부에서는 공기권총의 우승함(동신대)이 개인과 단체전에 이어 자유권총에서 우승하면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전동주(동신대)는 공기소총 개인과 단체전에서 각각 우승해 2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동신대가 공기총 개인, 단체, 자유 권총까지 석권, 모두 5개의 금맥을 캐낸 수훈을 세웠다.



▲ 남대일반부 일반부 임영섭(주택은행)이 공기소총 개인전에서 697.1점, 대회신기록으로 우승.

제80회 전국체전 전남선수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대회신	사격	남일	공기소총 개인	임영섭	주택은행	697.1
	역도	남고	인상 56kg급	김경모	강진농고	110kg
			용상 56kg급			140kg
			합계 56kg급			250kg

12) 제81회 전국체전(2000년) (전남종합성적 : 11위, 3만2천765점)

새천년 첫 전국체전인 제81회 전국체육대회는 항구도시 부산에서 16개 시도와 12개 해외동포 선수단 2만1천887명(선수 1만6천943명, 임원 4천944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2일부터 7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선수들은 40개 경기종목(정식 38개, 시범 2개)에 걸쳐 부산지역 57개 경기장에서 메달레이스를 벌였다.

부산대회는 1976년 제57회 대회이후 24년 만에 개최된 대회일 뿐만 아니라, 2년 앞으로 다가온 부산아시안게임의 기초를 다지게 되는 큰 의미를 가진 대회로 치러졌다. 특히 대회 직전 막을 내린 시드니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총 출동하는 등 채 식지 않은 올림픽 열기가 고스란히 옮겨져 흥미를 더해주기도 했다.

이 대회에서는 종합우승의 자리를 놓고 경기도와 서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경기도의 5연패로 종료됐다.



▲ 정구 남일 단체전에서 전남선발이 우승을 차지. 전남은 이 금메달로 정구 종합1위에 오르며 2년 연속 정구 정상 자리를 굳게 지켰다.

제82회 전국체육대회는 ‘함께 가자 충남으로, 다시 뛰자 세계로’라는 구호 아래 전국 16개 시도 및 12개 해외동포 선수단 2만1천990명(선수 1만7천85명, 임원 4천9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남 일원에서 10월 10일부터 7일 일정으로 펼쳐졌다.

이 대회는 개최지 프리미엄을 업고 수직상승한 충남이 체전사상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고, 서울이 2위, 6연패를 노리던 경기도가 3위로 밀려나는 이변이 연출됐다.

전남은 38개 종목에 1천766명(선수 1천440명, 임원 326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종합성적 한 자릿수 진입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선전을 기대했던 투기종목과 일부 단체종목들의 부진으로 전년도보다 한 계단 상승하는 종합 10위에 만족해야 했다. 당초 10위권 진입을 놓고, 경쟁 시도인 대전, 경북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확실한 금메달을 기대했던 수구 남자일반(전남선발)과 수영 400m 혼계영이 은메달에 머물면서 폐막 직전까지 대전과 숨막히는 접전 끝에 단 25점이라는 체전사상 최소 점수차로 종합10위를 차지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종목별로는 정구가 정상에 오르면서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전남도청이 서울 농협을 3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개인전에서는 강지숙·한지윤(이상 전남도청)이 우승했다. 순천매산고는 3년 연속 정상을 노렸으나, 대전자연과학고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고, 순천대도 경북선발팀과 접전에서 1대3으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사이클은 전력이 탄탄해진 나주시청 팀과 8개 전 종목 입상을 자신했던 영산포여상의 경기력으로 보아 종합우승을 노렸으나, 아쉽게도 전년도와 같은 종합3위 자리를 수성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영산포여상 노효성이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수영에서도 종합4위(2천17점)라는 전국체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전남수영의 역사를 새로 썼다. 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와 5개의 대회신기록 등 풍성한 기록과 함께 거뒀다. 남자일반 한규철(삼진기업)이 접영 200m에서 대회신기록과



▲ 한규철(삼진기업)이 수영 남자일반부 접영100m, 접영200m, 계영400m, 계영800m단체전에서 우승,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한규철의 수훈으로 전국체전 사상 수영 최고 성적인 종합4위를 차지했다.

함께 우승했으며, 계영 400m와 계영 800m에서도 한규철을 비롯한 전남선발팀이 각각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다. 한규철은 또 접영 100m에서도 금메달을 따냄으로서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또 성민(광양기업)은 배영 100m와 배영 200m에서 각각 금메달 획득과 함께 2관왕에 올랐으며, 배영 100m에서는 대회신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신	사이클	여일	25km도로독주	박하정	나주시청	35:50.6
	역도	남일	+105kg급인상	김태현	보해양조	253kg
	롤러	남일	E15,000m	유성수	여주시청	26:31.7
			10,000m계주	유성수외3		15:02.7
대회타이	육상	남대부	1,500m	이두행	한국체대	3:47.3
		남일	창던지기	추기영	상무	77.56
	수영	남일	접영200m	한규철	삼진기업	2:00.6
			계영800m	한규철외3	전남선발	7:45.4
			계영400m			3:33.7
			배영100m	성민	광양기업	57.15
			자유형100m	박경호	광양시청	52.49

14) 제83회 전국체전 (2002년) (전남종합성적 : 12위, 3만5천803점)

전국체전 개최 순회시기로 볼 때 10년 이상 경과 후 개최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제주도는 1998년 제79회 대회 이후 4년 만에 다시 제83회 전국체전을 개최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2002.5.31.~6.30), 부산아시안게임(2002.9.29.~10.14) 등 개최 관계로 10월중에 치러져야 할 제83회 전국체전의 동시기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기후적으로 온난한 제주도에서 열기로 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83회 체전은 한 달전 막을 내린 부산아시안게임 스타들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대거 출전한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동포 등 2만2천176명(선수 1만7천143명, 임원 5천33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1월 9일부터 7일간 열전으로 펼쳐졌다. 선수들은 '푸른 꿈, 힘찬 기상, 한라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 하에 육상 등 38개 정식종목과 2개 시범 종목(소프트볼, 트라이애슬론)에 걸쳐 제주종합운동장 등 62개 경기장에서 메달 레이스를 벌였다.

서울과 경기도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인 끝에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서울은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전남은 1천525명(선수 1천181명, 임원 3백44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전년도 성적 사수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쳤으나 1986년 광주와의 분리이후 최저성적인 12위를 마크하며 하위권으로 처지고 말았다. 이는 시즌 초 전국대회를 3번이나 제패하며 전국 최강팀으로 평가받았던 목포여고 하키팀의 예상외 부진과 전년도 우승종목 정구의 대량득점 실패, 다메달 다득점 기초종목인 육상, 수영의 부진에 기인했다. 또한 득점 폭이 큰 단체전 기대 종목들의 초반 탈락과 전남도 전통강세 투기종목들의 팀 부재에 따른 경기력 하락 등으로 전력 약세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년도 대비 종합득점은 1천677점을, 메달은 8개(금1, 은4개, 동3)를 더 많이 획득한 점으로 보아 경기력 상승 여지는 결코 어둡지만 않다는 분석에 만족해야 했다.

종목별로 살펴볼 때도 1위 종목 하나 없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나마 사이클, 핸드볼, 세팍타크로 등이 종합2위를 차지하며 선전해줘 더 이상의 순위 하락을 막을 수 있었다.

전국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사이클에서 전남은 금메달 5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6개 도합 21개의 메달을 휩쓸며 종합2위를 차지했다. 사이클에서는 또 1개의 한국신기록과 2개의 대회신기록을 작성하기도 했다. 나주시청 박하정이 25km 도로독주에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면서 우승했고, 영산포여상고 노효성 등도 3km 단체추발에서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면서 우승했다. 영산포여상 최혜경은 20km 포인트 경기에서, 류진아·노효성(이상 영산포여상)은 올림픽스프린트에서, 금성고 주현욱은 제외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는 수훈을 세웠다.

핸드볼은 전년도 최하위권에서 수직 상승하며 종합성적 2위(3천219점)로 올라섰다. 1982년 제63회 대회(1위)이후, 실로 20년 만에 상위권에 오르는 신기원을 이루었다. 남자일반 단체전에서 코로사가 강원 대표(주)두산을 격전 끝에 25대22로 제압해 우승했다. 여자일반 초당대는 대구시청에 패해 동메달을 수확했다.



▲ 부산아시아게임 대표선수인 김대은(영광고)이 체조 안마와 링, 개인종합, 단체전 등에서 우승, 4관왕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 체조는 김대은의 활약에 힘입어 역대 최고 성적인 종합3위를 차지했다.

정식종목 채택 3년차를 맞은 세팍타크로에서도 전남은 종합2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중하위권에서 제81회 대회(2000년)에 이어 상위권 안착에 성공한 것이다. 배점이 높은 종목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남자일반부 단체전에 출전한 동신대가 은메달을 획득해줬다.

체조에서는 당초 목표이상인 종합3위의 성적을 거뒀다. 1988년 제69회 대회(3위) 이후, 14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이다. 부산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인 김대은·김승일(이상 영광고)은 단체전에서 우승,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특히 김대은은 안마와 링 우승과 함께 개인종합 우승까지 거머쥐어 4관왕에 등극하는 체조신화를 새로 썼다.

제83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신	사이클	여일	25km도로독주	박하정	나주시청	35:55.16
	역도	남일	+105kg인상	김태현	보해양조	205kg
한국J타이	역도	남고	56kg급인상	지훈민	완도수고	112.5kg
대회신	수영	남고	자유형1,500m	조성모	해남고	15:50.28
		남일	자유형100m	한규철	삼진기업	3:56.28
			자유형1,500m	한규철	삼진기업	15:45.0
		여고	자유형100m	김현주	전남제일고	57.10
	사이클	여고	3km단체추발	노정현외3	영산포여상	3:43.5
		남일	4km개인추발	서석규	동신대	4:46.34
		여일	3km개인추발	박하정	나주시청	4:00.5

15) 제84회 전국체전 (2003년) (전남종합성적 : 7위, 3만8천441점)

제84회 전국체육대회는 지난 1991년 제72회 대회 이후, 12년 만에 맛과 멋 소리의 고장 전라북도에서 개최됐다.

‘가슴을 열어 하나로, 힘을 모아 세계로’라는 기치 아래, 전국 16개 시도 선수단과 해외동포 선수단 등 2만2천330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40개 종목(정식 38개, 시범 2개)에 걸쳐 전북지역 55개 경기장에서 10월 10일부터 7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전년도 우승팀인 경기도와 서울이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경기도가 1위를 수성하는데 성공했다.

전남 선수단은 40개 종목 174종별 중 154종별(불참 20종별)에 1천545명(선수 1천160명, 임원 385명)이 참가해 종합성적 7위(3만8천441점)의 좋은 성적으로 전년도보다 두드러지게 약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은 당초 한 자릿수 진입이 목표였으나,

이 같은 호성적을 거둠으로써 1998년 제79회 대회 이후 5년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11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일궈냈다.

이는 매년 반복된 전국체전 하위 성적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한 전력보강과 경기력 강화에 전력투구한 결실이었다. 배점이 높은 일부 단체종목에 대한 우수선수 영입 등 경기력 향상에 치중했고, 기록종목과 투기종목 우수선수 지원과 특별 관리로 14개 단체종목과 5개 투기종목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전년도 참패했던 고등부 경기력이 크게 상승해 종합성적 한 자릿수 진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종목별로는 정구가 다시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며 전남 종합성적이 7위로 수직상승하는데 수훈을 세웠다. 전 대회 7위에 머물렀으나, 전국 최강의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또다시 우승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남자일반부 개인전

유영동·김민수(순천시청) 조가 우승을 했고, 일반부 단체전에서 순천시청이 달성군(대구)을 3대 1로 제압하고 우승을 차지했다. 남대부 개인전 허경진·조하윤(순천대) 조도 금메달을 수확해줬다. 남고부 단체전에서는 순천매산고가 은메달을 따냈다.

궁도는 최소한 전년도 성적만 수성해주길 바랬었으나 종합우승을 차지, 기대이상의 성과로 성적을 끌어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1988년 제69회 대회 이후 15년 만에 궁도 전남의 위업을 달성했다. 단체 결승전에서 박노회 궁도회장이 이끈 전남선발 40대 궁사들은 총 102점으로 짜릿한 우승을 엮어냈다.

사이클은 정상등급을 목표로 했으나 간발의 차로 전년도와 같은 종합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반부 경기력에서 약간 뒤졌지만 모든 종별에서 각종 메달을 휩쓸어 사이클 전남 독무대의 위력을 과시했다. 금메달 7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도합 18개의 메달을 거머쥐었다. 류진아(전남미용고)가 500m 독주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한데 이어 스프린트와 단체스프린트에서도 각각 우승해 3관왕에 올랐다. 또 남고부 포인트경기 주현욱(금성고), 남일 메디슨경기 곽훈신·최순영(전남선발), 여고 개인도로 김수현(전남미용고), 여일 개인도로 안연희(나주시청), 여고 단체스프린트 김수현·정인경(이상 전남미용고) 조도 각각 금메달을 수확했다.

핸드볼도 종합2위를 차지하며 예상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내줬다. 전년도에 20년 만에 역대 최고성적인 종합2위로 부상하면서 2년 연속 준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



▲ 전남마라톤 30년 만의 우승 쾌거를 이룬 임진수(코오롱)가 역주하는 모습. 지난 54회 대회(1973년)때 박창열 선수가 전남에 금메달을 안긴 이후 30년 만에 금메달을 수확했다.

다. 남고부, 여고부 결승전에서 무안고가 남한고(경기)에 27대30으로, 백제고가 수지고(경기)에 15대25로 각각 패해 준우승에 그치긴 했지만 역대 최고 성적으로 그동안의 부진을 씻어냈다.

제84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대회신	육상	남대	하프마라톤	이두행	한국체대	1:06.33
		여대	멀리뛰기	정순옥	동아대	6m20
	수영	남일	자유형200m	한규철	삼진기업	1:52.5
		여고	자유형200m	김현주	전남제일고	2:03.2
	사이클	여고	500m독주	류진아	전남미용고	36.98
	역도	남고	62kg급용상	서호철	완도수고	152.5kg
			62kg급용상	서호철	완도수고	275kg

16) 제85회 전국체전(2004년) (전남종합성적 : 7위, 3만8천829점)

‘신나게! 힘차게! 빛나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제85회 전국체육대회는 ‘바이오토피아 충북’ 건설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충청북도에서 개최됐다.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동포 등 2만3천293명(선수 1만7천646명, 임원 5천64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0개 정식종목과 1개 시범종목(스쿼시), 6개 전시종목에 걸쳐 청주종합운동장 등 63개 경기장에서 10월 8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졌다.

전년도에 이어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전남은 41개 종목 179종별 중 17종별을 제외한 162종별에 1천593명(선수 1천191명, 임원 40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종합7위(3만8천829점)를 마크, 당초 목표치 8~9위보다 초과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전남보다 하위권에 있던 충북이 개최지 시드배정으로 상위권인 종합3위에 오른 점을 감안할 때 전남도는 이런 불리한 여건을 이겨내고 전년도와 같은 성적을 유지한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문별 성적으로는 금메달 60개, 은메달 45개, 동메달 63개 등 도합 168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입상종목은 1위 사이클·요트, 2위 승마, 3위 골프·소프트볼 등 모두 5개 종목이었다.

기록면에서는 육상 강순덕(전남체육회)이 5,0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고, 수영 성민(광양기업)을 비롯한 7명이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전남선수단은 전년도 성취상에 이어 올해는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함께 누렸다.

종목별로는 전통 강세종목인 사이클과 요트가 정상에 오르는 수훈으로 전남의 종합7위 사수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 전남미용고 류진아가 사이클 500m독주, 3km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 스프린트 경기에 모두 우승하며 4관왕에 올랐다. 전남은 류진아의 활약으로 이 종목 첫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사이클이 전국체전 출전사상 최초로 종합우승을 하는 신기원을 이뤄냈다. 다득점 다메달 전략종목으로 전년도 준우승에 이은 우승을 차지, 효자종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금메달 9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 등 모두 1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류진아(전남미용고) 선수가 500m독주, 3km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 스프린트 경기에 모두 우승해 4관왕에 올랐고, 김수현(전남미용고)도 3km단체추발, 단체스프린트, 개인도로경기에서 각각 우승해 3관왕에 올랐다. 주현욱(금성고)이 포인트경기과 개인도로에서 각각 우승해 2관왕을 차지했으며, 남자일반부 1km개인독주 이명현(강진군청), 24km포인트경기 오테걸(강진군청), 여고부 단체스프린트 나희경(전남미용고), 3km단체추발 정인영·나희경(이상 전남미용고)이 각각 우승하는 등 각종 메달을 휩쓸어 사이클 전국 최강의 전력을 과시했다.

요트도 4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남고부 레이저레이디얼급 문용범(여수고), 남일 미스트랄급 김준식(순천대), 엔터프라이즈급 정윤길·임진영(이상 여수시청)이 각각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남고부 국제420급 윤세인·고현암(이상 여수고)은 은메달에 입상하는 수훈을 세웠다.

승마도 종합2위에 오르며 전남선수단에 힘을 보탤다. 1985년 제66회 대회이후 19년만의 준우승으로 감격적인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서정균(포스코) 선수가 중장애물경기에서 우승을, 시범경기인 썬즐주경기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으며, 마장마술경기에서는 준우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골프도 3년 만에 종합3위 자리를 탈환했다. 전력약세 종목이지만 이 대회에서 전남이 중위권을 수성하는데 효자노릇을 해냈다. 여자일반부 유망선수 신지애(함평골프고)가 개인전 경기에서 우승해 전남의 복덩이로 찬사를 받기도 했다.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신	육상	여일	5,000m	강순덕	전남체육회	16:2.5
대회신	수영	남일	배영200m	성민	광양기업	2:01.7
			배영100m	성민		56.11
			접영200m	한규철	삼진기업	2:00.6
			계영800m	한규철외3	선발	7:36.8
			계영400m			3:29.2
		여일	자유형200m	김현주	영광군청	2:04.9
			자유형100m	김현주		56.88

17) 제86회 전국체전(2005년) (전남종합성적 : 9위, 3만8천394점)

제86회 전국체육대회는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에서 ‘다 함께! 울산에서 더 멀리! 세계로’라는 기치아래 16개 시도와 해외동포 등 총 3만여명(임원 5천명, 선수2만 5천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참가 선수들은 41개 종목에 걸쳐 울산종합운동장을 비롯한 62개 경기장에서 10월 14일부터 7일간 각기 고장과 개인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

경기도가 4년 연속 종합우승을, 서울이 준우승을, 개최지 울산이 종합 4위를 차지했다. 전남은 41개 종목에 1천587명(임원 395명, 선수 1천192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3년 연속 7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종합9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의미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신기록 1개와 대회신기록 7개, 대회타이기록 1개를 수립하는 등 전망을 밝게 했다. 또 3관왕 2명과 2관왕 7명을 배출하는 등 풍성한 기록과 허리에 해당하는 중위권 종목도 크게 두터워 졌다. 3위 이내 입상종목은 전년도 5개에서 6개로 늘었고, 9위 내는 전년도 19개에서 24개로 증가한 반면 무득점 종목은 4개에서 2개로 줄어 종목별 경기력이 상승됐음을 반증해 주었다.

종목별로는 태권도가 오랜만에 정상에 오르며 전남 종합성적 9위를 차지하는데 원동력이 됐다. 1986년 광주와 분리이후 첫 종합우승일 뿐만 아니라 26년 만에 태권도 서울의 아성을 깨고 쾌거를 이룬 것이다. 전남 태권도는 대회 첫날 박기철(상무)이 경기도 중 심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투혼을 발휘해 남자일반부 핀급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용인대 문청기 선수가 남대부 플라이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국군체육부대 박태열은 남자일반부 밴텀급에서, 삼성에스원 신준식은 남일 라이트급에서, 국군체육부대 김진옥은 남일 미들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금7, 은3, 동2 등으로 총득점 1천866점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요트는 2년 연속 정상유지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으나 종합2위를 차지하며 선전했다. 요트 종목에 걸린 금메달 3개 가운데 2개를 전남의 남고부가 수확했다. 여수고 김장남·김종승 조가 국제420급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같은 학교 백인구가 국제레이저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수훈을 세웠다.



▲ 요트 종목에 걸린 금메달 3개 가운데 2개를 전남의 남고부가 수확했다.

배드민턴도 전남은 기대이상의 성적으로 종합2위를 차지했다. 제66회 대회이후 20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당초 단체종목 1회전 통과만 기대했던 화순실고 팀이 준우승까지 오르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기대주 이용대(화순실고)가 남고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하였고, 여자일반부 개인전에서 황혜연(삼성전기)이 금메달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골프도 종합3위로 당초 목표와 같이 전년도 성적을 수성하는데 성공했다. 남자 개인전 양지호(광양제철고)가 준우승을 했고, 남자 단체전에서 전남선발팀이, 여자 개인전에서 기대주 신지애(함평골프고)가 각각 동메달을 차지했다.

제86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신	수영	남일	개인혼영200m	한규철	보성군청	2:02.9
대회신	수영	남일	20km경보	박철성	삼성전자	1:22:32
		남일	자유형20m	한규철	보성군청	1:50.4
		여고	자유형200m	이지은	전남제일고	2:03
			자유형400m	이지은		4:16.2
		여일	자유형200m	김현주	대불대	2:02.9
			자유형800m	조아름		9:03.02
			자유형400m	조아름		4:23.7
대회타이	양궁	여일	거리별30m	최진	순천시청	358점



대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남미용고 나아름은 2km 개인추발과 단체스프린트, 15km 도로 개인독주, 60-80km 개인도로에서 각각 우승, 4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노효성(나주시청)도 24km 포인트레이스와 단체스프린트에서 각각 우승, 2관왕에 올랐다.

정구도 전년도 부진을 털어내고 종합2위를 차지하며 명예를 회복했다. 강팀과 맞붙게 돼 초반 불안한 출발을 했으나 기대이상의 선전으로 당초 중상위권 진입 목표보다 수직 상승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여고부 단체전에서 순천여고가 충북여고를 3대2로 제압하고 우승했다. 남자일반부 개인복식에서 서민규·조하운(이상 순천시청) 조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태권도도 전년도 정상에서 종합3위로 내려 앉았으나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선전한 성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남고부 김태근(전남체고)이 밴텀급에서, 남대부 허준녕(경희대)이 헤비급에서, 남자일반 장창하(한국가스공사)가 웰터급에서, 여자일반 정나리(경희대)가 페더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제87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세계신	양궁	남고	70m	김재형	순천고	349점
한국신	수영	남일	개인혼영200m	한규철	보성군청	2:02.3
대회신	수영	여고	계영400m	김고은외3	선발	3:54.7
		여일	자유형800m	조아름	광양시청	9:01.6
	양궁	여대	개인종합	이현주	순천대	1,375점
	육상	남고	10종경기	윤영학	전남체고	6,415점
		여고	400m	이세영		55.98
			7종경기	서미혜		4,842점
	롤러	남일	1,000mOR	한용진	여수시청	1:27.35
		여고	EP 15,000m	정세영	전남체고	27:14.3
		여일	300mTR	박나리	여수시청	28.459

19) 제88회 전국체전(2007년) (전남종합성적 : 12위, 3만112점)

광주광역시와 광주와 전남 분리 이후 1987년 제68회 대회를 전남과 공동 개최하고, 1993년 제74회 대회를 개최한 후, 14년 만에 제88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10월 8일부터 7일 동안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58개 경기장 및 전남의 6개 경기장 등지에서 분산 개최됐다.

광주는 첨단산업도시와 문화중심도시를 꿈꾸고, 민주·인권·평화도시 이미지 정착을 시책으로 ‘꿈도 함께, 전진도 함께, 영광도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평화 체전을 준비

했다.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 등 3만3천47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선수들은 각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그 결과 종합우승은 경기도의 6연패로 귀착됐다.

전남은 5년 연속 한 자릿수 등위 사수를 목표로 41개 전 종목에 1천664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한국신기록 1개, 대회신기록 7개, 4관왕 1명, 3관왕 3명, 2관왕 11명의 풍성한 기록을 작성했다. 그럼에도 믿었던 전통강세 종목의 예상 밖의 부진과 경기력 상승을 기대했던 단체 팀들의 부진으로 전년도 종합8위에서 12위인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최하위권의 광주가 개최지 프리미엄을 딛고 상위권 진입을 노리는 점이 부담이 되면서 8~9위권 유지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지만, 전년도와 비교해 전력에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었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고등부와 대학·일반부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전력이 크게 하락한 결과로 나타났다.

지난 대회 5위권 수준을 유지했던 고등부 전력이 10위권으로 추락했고, 대학·일반부도 10위권에서 14위권으로 밀려났으며, 궁도·요트·태권도·정구 등 전통 강세종목 부진도 등위 하락에 빌미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 전국체전 전력 보강에 중요한 시기인 상반기 도민체전 때 터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체육회 조직이 수개월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점도 큰 악재가 되었다는 평이다.

종목별로는 전반적인 경기력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이클이 정상에 우뚝 서며 전남선수단의 순위 추락을 방어해내는데 한 몫을 했다. 사이클에서 전남은 전년도 종합2위의 한을 털어내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대회 4관왕에 올라 여자 사이클 괴물 신인으로 통하는 전남미용고 나아름이 또다시 3관왕에 오르면서 이름값을 해냈고, 전년도 2관왕이었던 나주시청 노효성이 3관왕에 오르는 위업을 달성했다. 한편 전년도 3관왕이었던 나주시청 유진아는 주종목 500m 독주와 스프린트에서 은메달에 머물렀지만, 단체스프린트와 3km 단체추발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에 올라 사이클 전남 간판스타임을 확인시켰다. 전남은 사이클에서 금9, 은3, 동2 등으로 총득점 2천238점을 획득했다.

하키에서도 전남은 전년도보다 1계단 상승한 종합3위에 오르며 전남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목포시청은 부산 KT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대3으로 제압하고 정상에 우뚝 섰고, 담양공고는 광주일고와 준결승에서 1대2로 석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에서 전남은 상위권을 넘보았으나 전년도와 같이 종합5위 제자리걸음을 했다. 전년도 대회 3관왕이었던 이지은(전남제일고)이 4관왕에 올랐고, 신예 정다래(부영여고)가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면서 3관왕에 오른 기염을 토해 스타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다래(부영여고)는 평영 200m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면서 우승했고, 평영100m와 혼계영 400m에서도 각각 우승, 3관왕에 등극했다. 이지은(전남제일고)은 자유형 200m와 자유형 400m, 계영 400m와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김달은(선발)은 계영 400m와 혼계영 400m에서 우승을 차지해 2관왕에 올랐고, 한규철(보성군청)은 개인혼영 200m와 400m에서 각각 우승, 2관왕에 올랐다. 전남은 수영에서 금9, 은4, 동7 등으로 총 2천433점을 획득했다.



제88회 전국체전 전남선수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신	사격	남일	70m	정윤균	상무	189점
대회신	수영	여고	개인혼영200m	정다래	부영여고	2:28.4
			계영400m	이지은외	선발	3:52.7
			자유형800m	김달은외		4:17.15
	양궁	여대	개인종합	이현주	순천대	344점
	육상	남고	10종경기	윤영학	전남체고	6,768점
		여대	EP 15,000m	김 민	목포대	48m53
	롤러	남고	300mTR	박웅배	여수충무고	1:30.87

20) 제89회 전국체전(2008년) (전남종합성적 : 3위, 5만4천720점)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전남이 광주와 분리된 이후 사실상 전남에서 처음 개최된 대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므로 이는 별도로 분류해 ‘전라남도 개최, 전국체육대회’라는 표제로 다루기로 했다. 89회 체전이 전남에서 열린 것은 2000년에 접어들면서 전남의 열악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조성된 것이 결실로 이어진 것이다. 여수 진남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해 10월 10일부터 1주일동안의 열전으로 치러졌다.

21) 제90회 전국체전(2009년) (전남종합성적 : 10위, 3만7천799점)

‘마음을 하나로! 대전을 세계로!’라는 대회 구호를 내건 제90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20일부터 7일간 열전으로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펼쳐졌다.

주경기장인 대전월드컵경기장 등 35개 경기장에서 전국 16개 시도 선수와 해외동포 선수 등 총 2만5천68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4개(정식 41개, 시범 3개) 종목에 걸쳐 각 시도의 명예를 건 열전을 펼치며 한발발을 뜨겁게 달구었다.

경기도가 8년 연속 정상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가운데 전남은 전년도 31년 만에 전국 체전 개최와 함께 종합3위를 달성했던 만큼, 한 자릿수 진입목표로 1천685명(선수 1천244명, 임원 441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한 자릿수 순위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으나 목표에 근접한 종합 10위를 차지하는 성과로, 지난 88회 대회 12위 성적과 비교하면 두 계단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남의 종합순위 상승은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선전한 남자일반부 광양시청 볼링 팀과 여자일반부 나주시청 사이클 팀의 눈부신 성과가 원동력이 되었다. 또 고등부가 당초 1만5천점 대를 예상했으나 1만6천점 이상을 획득, 눈에 띄게 약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선전을 기대했던 궁도와 검도, 태권도, 골프 등은 전년도 1~2위에서 5~16위권으로 추락, 전남 종합순위 상승에 치명상을 입혔다. 특히 농구, 탁구는 전년도 2위에서 무득점으로 곤두박질쳤다. 메달은 금메달 48개, 은메달 47개, 동메달 66개 등 모두 161개를 획득했으며, 3위 이내 입상종목은 2위가 3종목, 3위가 2종목 등 모두 5종목이나 1위 입상 종목은 없었다. 이전 88회 대회보다 메달 수나 입상 종목수는 늘어나 경기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됐다.

신기록과 다관왕 부문을 살펴보면 대회신기록은 수영에서 5개, 육상에서 1개를 작성했고, 4관왕이 1명(볼링 광양시청 최복음), 3관왕 2명(볼링 광양시청 김영훈, 사이클 나주시청 나아름), 2관왕 7명(볼링2, 육상2, 수영1, 유도1)으로, 전남의 종합순위 10위를 이끌어 내는 공신 역할을 했다.

이처럼 어렵게 종합성적 10위 성과를 일궈냈지만, 전남체육의 당면 현안은 우수선수의 타시도 유출방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 대회에서 다관왕을 수상한 볼링 최복음, 사이클 나아름, 수영 정다래, 유도 강술지 등에 대한 타 시도 스카우트 제의 등이 잇따른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 최복음(광양시청, 사진 뒷줄 오른쪽 두번째)이 볼링 마스터즈, 남자일반부 개인전, 3인조전, 5인조전에 우승하며 4관왕에 올랐다. 전남은 최복음 등의 활약에 힘입어 금메달 6개로 종합3위를 차지했다.

종목별로는 종합1위 종목은 하나도 없었으나 요트와 정구, 씨름 등이 종합2위를 차지하며 나름대로 선전했다.

전통 강세종목인 요트에서 전남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으로 종합2위를 차지했다. 고등부 국제레이저급의 김형익(여수고)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구에서도 금메달 1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전년도 종합3위보다 1계단 상승한 종합2위를 차지했다. 단체전의 순천여고 정구부가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



달을 목에 걸었다.

씨름에서도 금메달 2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따내며 전년도와 같은 종합2위를 수성했다. 고등부 청장급 문준석(순천공고)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해 여수시청 이봉양도 일반부 경장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볼링에서 전남은 최복음의 활약에 힘입어 금메달 6개를 얻으며 종합3위를 차지했다. 최복음(광양시청)이 마스터즈, 남자일반부 개인전, 3인조전, 5인조전에 우승하며 4관왕을 차지했으며, 최복음을 필두로 한 광양시청 볼링팀은 대회 사상 처음으로 전 종목(5종목)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제90회 전국체전 전남선수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대회신	수영	남일	자유형 400m	박영호	전남수영연맹	03:53.8
			배영 100m	박선관	한체대	55.06
			접영 200m	유정남	전남수영연맹	01:58.9
		여고	평영 100m	정다래	부영여고	01:09.6
			평영 200m			02:25.7
	육상	남대	하프마라톤	김 민	건국대	1:04:32
대회타이	양궁	여고	30m	한경희	순천여고	367

22) 제91회 전국체전(2010년) (전남종합성적 : 10위, 3만91점)

‘하나되어 다시 뛰자! 경남에서 세계로!’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제91회 전국체육대회는 진주시(주경기장)를 비롯한 경남도내 18개 시군 68개 경기장에서 10월 6일부터 7일 동안 개최됐다. 전국 16개 시도선수단 2만3천876명과 해외동포선수단 등 총 2만4천875명이 참가해 44개 종목(정식 41개, 시범 3개)에 걸쳐 열린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경남은 개최지 프리미엄을 안고 공격적인 종합우승 전략마케팅으로 사상 처음으로 서울을 3위로 밀어내고 경기도 우승에 이은 준우승을 차지하는 큰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전남은 44개 전 종목에 1천632명(선수 1천208명, 임원 424명)의 선수단을 파견 최악의 대진운을 극복하고 중위권 수성을 목표로 혼신을 다한 결과 금메달 47개, 은메달 36개, 동메달 69개 등 총 152개의 메달을 따내 종합10위를 기록했다. 종합순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이지만, 메달수에서는 9개가, 득점 면에서는 7천700점이 적었고, 입상종목에서는 1~2위 입상종목 하나 없이 3위 입상(배구, 볼링)만 2개 종목으로 전년도 5개 입상 종목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력이 저조했다.

한편 이 체전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나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준 효자군은 광양제철고 남고부 축구와 전남제일고 남고부 수구 팀의 단체전 우승과 카누 남고부 전남체육고와 여고부 목포제일여고 등 고교부의 선전 등이었다.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나주시청 사이클, 광양시청 볼링, 보성군청 역도부 우승도 의미있는 족적으로 기록되었다. 4관왕에 오른 나주시청 사이클 나아름과 한국마라톤 중흥의 주역으로 탄생한 전남의 박주영(한국전력)과 김민(건국대)이 일반부와 남대부 마라톤에서 동반 우승하는 쾌거로 전남선수단의 10위 달성에 원동력이 된 것도 기억할 만한 성과였다.

종목별로는 종합1위와 종합2위에 오른 종목이 하나도 없었으나 전남은 중위권 성적을 거둔 종목이 두터워지면서 전년도와 같은 종합순위를 사수해냈다.

볼링에서 전남은 전년도와 같은 종합3위를 기록했다. 남자일반부 최복음(광양시청)이 마스터즈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광양시청 팀으로 출전한 3인조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오르는 수훈을 세웠다. 전남은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 등을 획득했다.

배구는 전년도 종합7위에서 종합3위로 수직상승하며 전남의 종합순위 사수에 큰 힘을 보탰다. 별교제일고가 남고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목포여상도 여고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로 총 1천560점을 획득하며 상위권에 입상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근대5종에서 전남은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전년도 성적과 동등한 종합4위를 기록했다. 전남체고 박상구가 남고부 개인전(4종)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데 이어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함으로써 2관왕에 올랐다.

요트는 그동안의 명성에 비하면 저조한 성적인 종합4위를 기록하긴 했으나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을 받았다. 고등부 국제레이저급의 김형익(여수고)이 1위로 골인하며, 전남에 금메달을 안겨줬다.

제91회 전국체전 전남선수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대회신	육상트랙	남대	5,000m 경보	백승호	건국대	14:01.3
	사이클	여고	500m 독주	이은지	나주시청	36.272

23) 제92회 전국체전(2011년) (전남종합순위 : 11위, 2만8천65점)

제92회 전국체육대회는 고양시 등 경기도 일원에서 10월 8일부터 1주일동안 ‘꿈을 안고 경기도! 손을 잡고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졌다.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22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 개·폐막식을 체전 사상 처음으로 운동장이 아닌 야외공원에서 진행했다.

전국 16개 시도와 해외동포 등 총 2만3천871명(선수 1만7천983명, 임원 5천88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2개 정식 종목과 산악, 댄스스포츠, 택견 등 3개 시범 종목에 걸쳐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였다.

경기도는 홈그라운드 이점까지 누리며 대회 10연패 달성에 성공했다. 전남은 육상, 수영 등 43개 종목에 1천643명(선수 1천228명, 임원 415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금메달 34개, 은메달 42개, 동메달 58개 등 총 134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점수 2만8천65점으로 전년도보다 한 계단 추락한 11위를 기록했다. 라이벌 대구광역시가 우수선수를 영입해 전력을 보강함으로써 전남은 한 계단 내려앉아야만 했다.

전년도보다 순위가 상승한 정목은 정구와 사이클 등 13개 종목이었으나 순위가 하락한 종목은 무려 30개 종목에 이르러 성적 하락폭이 상승폭보다 큰 결과를 낳았다.

유명선수별로는 사이클 대표팀 에이스 나아름(나주시청)과 수영 박선관(한국체대)은 전남에 3관왕을 안겨주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육상의 유망주 백승호(건국대)와 배드민턴 이용대·조건우(이상 삼성전기), 볼링 최복음(광양시청) 등도 2관왕을 차지하며 전남의 종합순위 하락 방어에 힘을 보탰다.

또한 남고 수영 서승훈(전남제일고), 남고 수구 단체전, 여고부 정구 유희라·최다혜(이상 순천여고)도 2관왕을 따내며 선전했다.

한편 전국체전은 메달 개수가 아닌 종합점수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남이 도약하려면 단체 종목의 육성과 기량 향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대회이기도 했다.

전남은 단체종목 중 전남제일고 수구, 배드민턴 남자일반, 순천여고 정구 등에서 1위를 차지했고, 순천공고의 럭비는 2위, 대불대 농구가 3위를 차지한데 그쳤다. 입상이 가능한 목포여상고(배구), 해남공고(펜싱), 순천매산고(정구), 목포대(검도), 목포시청(하키), 전남도청(펜싱)이 대진불운과 실력 차이로 예선과 8강에서 탈락한 것만 보더라도 단체종목 부진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핸드볼과 세팍타크로, 소프트볼은 무득점을 기록했다. 야구와 축구, 배구 등 인기종목에서도 전년도보다 전력이 뒤떨어져 단체종목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력점검 등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전남 체육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선수연계 육성'과 '부재 팀 창단'이 매년 단골메뉴로 거론되었다.

전남체고를 비롯한 고등부 팀이 전년도에는 67개의 메달을 획득, 16개 시도 부별등위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92회 체전에서는 도체육회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총 메달 133개 중 57개를 따내 고등부 종합순위 11위에



▲ 배드민턴 남자 일반부 단체전 결승 복식 경기에서 월드스타 이용대(왼쪽)가 조건우와 짝을 이뤄 총남 최호진·김용현 조를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물리친 뒤 기뻐하고 있다.

그쳐 전년도보다 6단계나 뒤쳐졌다. 고등부의 전력 하강이 전남 순위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입증해준 대목이라 하겠다.

전남체고는 특히 고등부가 따낸 금메달 15개중 3개에 불과했다.

종목별로는 정구가 전년도 종합9위에서 종합2위로 수직 상승하는 호성적을 기록하며 전남선수단에 힘을 실어줬다. 최다혜를 앞세운 순천여고팀이 여고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캐냈으며, 최다혜·유희라가 조를 이룬 순천여고 2인조 팀이 개인복식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최다혜는 2관왕에 올랐다.

볼링은 전년도와 같은 종합3위를 기록했다. 광양시청의 최복음이 마스터즈 경기에서 2천496점으로 1위에 오른 것을 비롯, 김광욱·류지훈과 함께 한 3인조 경기에서도 1위를 차지, 2관왕에 올랐다. 동료 김광욱은 마스터즈 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볼링 여자일반부 5인조경기에서는 차인화·이슬아·이선희·김현미·김문정(이상 곡성군청) 선수조가 출전해 금메달을 따냈다. 전남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사이클에서 전남은 금메달 4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따내며 총 1천612점을 획득해 종합4위를 기록했다. 나아름(나주시청)이 여자 일반부 도로 개인 독주 25km에서 33분47초520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며 앞서 열린 3km 개인추발과 24km 포인트트레이스 우승에 이어 3관왕을 차지했다. 나주공고의 박지은도 여고부 도로 개인 독주 15km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에서 전남 선수들중 각종 신기록을 세운 이가 없었다.

24) 제93회 전국체전(2012년) (전남종합순위 : 12위, 2만8천471점)

‘맘·몸·뜻, 달구벌에서 하나로!’라는 슬로건 아래 치러진 제93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7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7일간 열렸다.

20년 만에 대구에서 개최된 이 체전에는 세종특별시가 처녀 출전함으로써 전년도보다 1개 팀이 늘어난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4천159명(선수 1만8천252명, 임원 5천907명)이 참가했다. 선수들은 육상, 수영 등 총 42개 정식 종목과 산악, 댄스스포츠, 택견 등 3개 시범종목에서 각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뤘다.

이 대회에서도 어김없이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써 11연패의 위업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경기도는 금메달 133개, 은메달 131개, 동메달 148개 등 총 41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총 6만5천955점을 얻어 종합순위 1위를 기록한 것이다. 개최지 프리미엄에 힘입은 대구가 역대 최고 성적인 2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3위로 밀려났다.

전남은 45개 종목 166종별 중 152개 종별에 총 1천625명(선수 1천210명, 임원 415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총 2만8천471점(금39 은49 동57)을 획득해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은 육상, 수영, 역도, 양궁 등 기록종목의 경기력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12개의 메달이 늘었다. 전년도와 같은 11위를 목표로 했으나 라이벌 충북에게 11위



를 내주고 전년도보다 한 계단 밀린 순위에 만족해야 했다. 메달 개수와 득점 면에서는 전년도보다 상승했지만 충북의 견제에 밀려 순위는 뒤쳐지고 말았다. 충북이 전년도 무득점에 그쳤던 야구, 테니스, 럭비, 축구에서 4천421점을 획득하며 전남을 제치고 앞 순위를 차지한 것이다.

수영의 양정두(전남수영연맹) 선수는 남자 자유형 50m에서 22초52로 지난 10년 동안 깨지지 못했던 기록을 갈아치우며 한국신기록을 작성, 금메달을 획득, 전남선수단에 힘을 실어줬다.

종목별로는 정구가 오랜만에 정상을 탈환, 종합1위를 차지하며 전남의 종합순위 하락을 막는데 일조했다. 남고부에서 순천매산고 팀이 은메달을 획득하며 정상 등극의 청신호를 올렸다. 순천대도 남대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순천여고도 여고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전남도청팀도 여자일반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보태며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로 정상을 차지했다.

럭비도 전 대회 종합5위에서 종합2위로 성적을 크게 끌어올리며 전남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순천공고가 결승전에서 충북고를 38-20으로 크게 앞선 스코어로 물리치고 16년 만에 남고부 정상에 오르는 수훈을 세웠다.

사이클은 종합3위를 차지했다. 2관왕에 오른 나주시청의 나아름이 24km 포인트레이스와 도로개인독주에서 각각 4연패, 3연패를 달성하는 대기록으로 전남 순위 경쟁에 힘을 보태줬다. 전남미용고 임사랑도 경륜과 스프린트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에 올랐다. 남고부 24km 포인트레이스에 출전한 김지훈(금성고)도 전남선수단에 금메달을 보탰다.

볼링도 전년도와 같은 종합3위를 차지했다. ‘볼링 천재’ 최복음(광양시청)이 마스터스 경기에서 금빛 스트라이크에 성공했다. 또 전남조리과학고 팀이 여고부 3인조경기에서, 곡성군청 팀도 여자일반부 5인조경기과 2인조경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제93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신	수영	남일	자유형50m	백승호	전남수영연맹	22.52
			접영 200m	양정두	전남수영연맹	23.77
대회신	양궁	여고	50m	최미선	전남체고	349
	육상트랙	남고	원반던지기	한원남	전남체고	52.9
			해머던지기	김석일		64.31



25) 제94회 전국체전(2013년) (전남종합순위 : 13위, 2만7천278점)

제94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열렸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4천537명(선수 1만8천587명, 임원 5천95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과 수영, 축구, 야구 등 44개 정식종목과 태권, 수상스키 등 2개 시범종목에서 치열한 메달레이스를 펼쳤다.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12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인천은 개최지 이점을 최대한 살려 종합 3위에 올랐고, 대회 MVP는 '마린보이' 박태환이 차지했다

전남은 46개 전 종목에 1천663명(선수 1천238명, 임원 42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금메달 40개, 은메달 48개, 동메달 50개를 획득, 전년도에 비해 1천193점이 하락한 2만7천28점을 따는데 그치며 13위로 처지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전남은 득점 폭이 큰 단체경기(야구, 핸드볼, 럭비, 축구 등)에서 초반 강팀과 상대한 끝에 대거 예선탈락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기록종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인 12위 달성에 실패하는 부진한 성적을 냈다.

이에 기록종목에 대한 지원강화와 함께 부진을 거듭한 행정기관 직장 팀의 우수선수 영입, 다메달과 다득점 종목 등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인 선수육성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기도 한 대회였다.

경기유형별 성적으로는 당초 단체·개인대진경기(17종목)와 투기경기(5종목)가 상승, 기록경기(22종목)가 하강할 것으로 분석됐지만, 결과적으로는 3개 유형별 모두 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승을 예상했던 광양여고 축구를 비롯해 핸드볼(남고), 야구(남고), 정구(남대), 검도(남고), 펜싱(남고 예뵘), 배구(남일)의 초반 탈락은 전남의 목표 달성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이 됐다. 행정기관 직장 팀의 우수선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광양시청 볼링팀을 제외한 전남도청 정구·체조, 곡성군청 볼링, 나주시청·강진군청 사이클, 여수시청·광양시청 육상, 장성군청 조정, 목포시청 하키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둘 정도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특히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해야 함을 일깨워준 대회이기도 했다. 전년도 15위로 최악의 성적을 남겼던 대전의 경우, 우수선수 영입비로 15억 원을 쏟아부으며 7종목(세팍타크로, 복싱, 카누, 스쿼시, 보디빌딩, 우슈, 트라이애슬론) 팀을 새롭게 창단, 이들 종목에서 2천738점의 득점 상승을 가져왔다. 충북 역시 전년도부터 실업팀 6개, 대학부 4팀 창단 등 ‘충북체육 중·장기 프로젝트’를 실시한 결과, 만년 하위 팀(12~13위) 오명을 털고 종합8위까지 대도약을 이룬 점도 눈에 띄었다.

반면 전남은 해남군청 펜싱팀 만이 어렵사리 팀을 꾸릴 정도였다. 이같은 대조적인 면은 투자없이 성적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주었다.

종목별 성적에서도 1위, 2위 종목이 하나 없이 볼링, 배구, 승마, 궁도 등만 종합3위에 오를 정도로 저조했다.



볼링은 금8, 동1 등으로 총득점 1천655점을 획득하며 전년대 같은 종합3위를 기록했다. 이영승(전남조리과학고)이 여고부에서 최초로 전 종목(금 5, 동 1개)을 휩쓸며 4관왕을 차지했고, 볼링 부동의 국가대표 최복음(광양시청)도 남자 일반부 마스터즈 5연패(90 ~ 94체전)의 위업을 달성했다. 최복음은 또 광양시청 박종우 등과 함께 한 2인조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김광욱·박종우·유지훈·정원호 등과 함께 한 5인조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3관왕을 차지했다.

배구는 전년도 종합10위에서 종합3위로 수직 상승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목포여상이 여고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포대가 남대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승마도 전년도 종합7위에서 종합3위로 꺾충 뛰어오르는 성적을 냈다. 금성고 김만준이 일반부 중장애물비월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전남승마협회 최인호가 일반부 마장마술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궁도는 전년도 종합10위에서 종합3위로 수직 상승했다. 신안 용항정의 김경하 등 7명이 일반부 단체전에 동메달을 획득했다.

제94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대회신	역도	남고	용상 69kg급	이인우	완도수고	171kg
대회타이	육상필드	여일	원반던지기	김 민	목포시청	51.74m

26) 제95회 전국체전(2014년) (전남종합순위 : 12위, 3만1천570점)

제95회 전국체육대회는 ‘몽친 힘! 펼친 꿈! 탐라에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전국 17개 시도 2만4천807명(선수 1만8천769명, 임원 6천038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졌다.

제주종합경기장 등 제주도내 74개 경기장에서 펼쳐진 이 체전은 제주에서 세 번째 열린 전국체전으로, 선수들은 모두 47개 종목(정식종목 44개, 시범종목 택견·수상스키·바둑 등 3개)에 걸쳐 각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벌였다.

경기도는 95회 전국체전에서도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며 13회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대기록 달성, 여타 시도가 범접할 수 없는 아성을 굳건히 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양궁 남자일반부에서 세계신기록 2개와 세계타이기록 1개를 작성하며 3관왕에 오른 김우진(충북·청주시청)에게 돌아갔다.

전남은 46개 종목 153종별에 1천663명(선수 1천232명, 임원 431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열전을 펼쳤다. 그 결과 금메달 38개, 은메달 52개, 동메달 95개 등 총 185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목표인 종합 12위를 달성했다. 특히 시범종목인 바둑과 수상스키

에서 금메달 4개를 따내 차기 대회 전망을 밝게 했다. 전남의 이같은 성적은 한 수 아래인 제주가 개최지 인센티브를 받아 11위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1위를 차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3년 전 순위를 회복한 것으로, 최근 6년간 곤두박질쳤던 성적표에 비하면 크게 성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남이 전년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요인은 체육 꿈나무들인 전남체고 선수들이 3천 465점을 따내는 등 고등부의 호조가 한 몫을 했다. 또 일부 기록종목의 다득점 획득도 전남의 순위 상승에 일조했다. 골프·근대5종·볼링 등이 종합 2위, 사이클·요트가 종합 3위, 육상이 종합 4위에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올려줬다. 양궁, 펜싱도 중위권 성적을 냈다.

하지만 축구(464·14위) 테니스(320·14위) 배드민턴(261·15위) 체조(245·16위) 궁도(172·15위) 등 단체종목과 일부 기록경기에서 지난 대회보다 하위권으로 밀려 아쉬움을 남겼다.

개인 기록에서는 역도 이양재(완도고)가 +105kg급 인상과 용상, 합계 등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3관왕에 올랐다. 또한 사격과 볼링, 근대5종, 육상, 사이클 등에서 2관왕 6명이 배출됐다. 사격의 김준홍(KB국민은행)은 속사권총, 스탠다드권총에서. 볼링의 장하은(고흥산업고) 여고부 3인조전, 마스터즈 경기에서. 볼링의 남자일반 최복음은 5인조와 마스터즈에서 각각 우승을 거두며 2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최복음은 2009년부터 이번 체전까지 마스터즈 경기에서 6연패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또한 근대5종 박상구와 육상 백승호, 사이클 김보배 등도 2관왕에 올랐다.

이들 선수 외에도 부상투혼과 정신력으로 고향팀에 메달을 선사한 육상 박근정과 레슬링 김성복 등의 선전으로 전남은 전국대회 첫 3만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17개 출전 시도 가운데 성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축구·야구 등 단체종목에서 단 한 종목도 우승을 따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득점 폭이 큰 단체종목이 상위 입상하고, 무득점에 그친 핸드볼과 산악에서 점수를 따냈다면 한 자릿수 진입도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향후 전남의 순위 상승을 위해서는 팀을 육성중인 14개 시군 25개 팀 가운데 전남도청 체조, 광양시청·해남군청 육상, 장성군청 조정, 함평군청 레슬링 등 유명무



▲ 김성복(전남체고)이 레슬링 자유형 69kg급에서 대회 3연속 우승에 성공했다. 김성복은 소년체전까지 6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남겼다.



실한 팀의 재정비와 함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경기 단체를 총괄하는 전남도체육회는 경기단체들의 실태 파악과 함께 각 경기단체에 이사별로 각각의 책임과 임무를 부여하는 책임이사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종목별로는 배구, 볼링, 근대5종, 골프 등에서 선수들이 종합2위에 오르는 활약을 펼쳐 전남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배구에서 전남은 동메달 3개를 획득, 총득점 1천737점을 따내며 전년도 종합3위에서 1계단 오른 종합2위를 차지했다. 벌교상고와 목포여상이 각각 남고부와 여고부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목포대도 남대부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볼링에서도 전남은 금4, 은1, 동4 등으로 종합성적을 전년도보다 1계단 끌어올리며 종합2위를 마크했다. 남자일반부 최복음(광양시청)이 5인조와 마스터즈에서 우승을 거두며 2관왕에 올랐다. 특히 최복음은 지난 2009년부터 이번 체전까지 마스터즈 경기에서 6연패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장하은(고흥산업고)도 여고부 3인조전과 마스터즈에서 우승, 2관왕에 등극했다.

근대5종에서도 금2, 은5 등으로 총득점 1천519점을 획득하며 전년도 종합12위에서 수직 상승한 종합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한체대 박상구가 남자일반부 개인전(4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 박상구는 또 3명이 함께 팀을 이룬 남자일반부 단체전(4종)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2관왕에 올랐다.

골프에서는 순천청암고 이정은이 여자일반부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이정은 등 3명이 함께 땀 단체전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은2, 동2 등으로 이종목 종합2위를 차지, 전년도 종합9위에서 수직 상승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사이클은 전년도 종합7위에서 4계단 상승한 종합3위를 차지했다. 전남미용고 김보배가 여고부 개인도로와 4km 단체추발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대회 2관왕을 차지했다. 아시안게임 사이클 국가대표 이은지(나주시청)도 경륜 여자일반부에 출전, 발바닥 부상 투혼을 발휘하며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내는 수훈을 세웠다. 전남은 금4, 은6, 동4 등으로 상위권 도약에 성공했다.

제95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대회신	롤러	남고	스피드 15,000m제외경기	김찬호	광양제철고	23:32.0
	사격	남일	속사권총	김준홍	상무	32
	역도	남고	용상 105kg이상급	이양재	완도고	215kg
			합계 105kg이상급			385kg



고등부 선수들은 전년도(8위·1만4천257점)보다 성적(9위·1만3천311점)이 떨어졌고 대학부·일반부도 전년도 1만7천313점보다 하락한 1만6천412점을 기록했다. 그 중에서도 전년도 729점을 획득했던 야구와 산악, 스포츠댄스 등 3개 종목은 올해에는 아예 무득점을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남도청 소속 체조 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체조 코치 2명과 남·여 9명의 선수가 출전해 동메달 1개, 32점을 얻는데 그쳐 17개 시도중 16위에 그쳤다. 체조팀은 1년 동안 예산 6억3천만 원을 쓰면서 매년 전국체전 하위권에 머물러 팀 쇠신을 하든지 여의치 않을 경우 팀 해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직장 팀 가운데 광양시청 육상(7점), 해남군청 펜싱(0점), 함평군청 레슬링(0점) 등 유명무실한 팀의 재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목별로는 볼링이 전년도와 같은 종합2위를 마크했다. 김동요·김진영(이상 고흥산업과학고), 장미나(전남조리과학고)가 여고부 3인조 경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 선수단으로서는 전국체전 볼링 여고부 3인조 5연패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남대부의 전남과학대 허진선도 마스터즈 경기에 출전, 금메달을 따냈다. 전남은 금3, 은2, 동2 등으로 상위권을 수성할 수 있었다.

롤러는 전년도 종합6위에서 종합2위로 수직 상승했다. 광양제철고 이수진이 롤러 스피드 E+P10,000m와 스피드 1,5000m 제외경기에서 우승, 2관왕에 올랐다. 전남은 이수진의 금메달 2개와 은6, 동1 등으로 총득점 1천860점을 획득하며 전년도 종합6위에서 4계단 상승한 호성적을 냈다.

궁도에서도 전남은 전년도 종합15위에서 종합3위로 치고 올라가는 독심을 발휘했다. 신안 용환정 김정하 등 7명이 출전한 일반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 총득점 956점을 올리며 상위권에 입상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제96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대회신	수영	남고	평영 100m	이승열	전남체고	01:01.9
	사격	여일	공기권총 개인	고 은	기업은행	201.5
	사이클	남일	1km 개인독주	김우겸	강진군청	01:02.9
		여고	500m 독주	정설화	전남미용고	36.382

28) 제97회 전국체전(2016년) (전남종합순위 : 14위, 2만8천791점)

제97회 전국체육대회는 ‘품어라 행복충남, 뛰어라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10월 7일 충남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개막돼 7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97회 대회에는 17개 시도에서 출전한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소속 2만4천811명(선수 1만

8천567명, 임원 6천244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5개 정식 종목과 2개 시범 종목(택견·수상스키)에 걸쳐 각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였다.

전통의 강호 경기도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지난 2002년부터 내리 15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에는 수영 여자일반부에 출전한 한국신기록을 4개나 갈아치운 김서영(경북도청)이 차지했다.

전남은 전년 대비 메달 획득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12위보다 2계단 하락한 종합14위의 부진을 보였다. 47개 종목 157종별에 1천660명(선수 1천228명, 임원 432명)의 선수단을 꾸린 전남은 종합득점 2만8천791점을 획득하는데 그치면서 경쟁시도로 평가됐던 9위 전북(3만2천736점), 10위 강원(3만2천273점), 11위 대전(3만38점), 12위 광주(2만9천943점), 13위 대구(2만9천670점) 등에 뒤처지고 말았다.

그러나 전남은 총 157개(금메달 33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81개)의 메달을 획득, 전년도 143개보다 14개를 더 얻어 다음 대회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기도 했다. 또 97회 체전 대비 첫 시험 가동했던 5개 전략종목 가운데 복싱(10위 985점→6위 1천243점), 스쿼시(11위 262점→7위 705점), 핀수영(불참→9위 691점), 우슈(10위 496점→6위 934점), 유도 여자일반부(불참→149점) 등이 모두 선전함으로써 전략종목 육성책에 대한 기대도 높일 수 있게 됐다.

종합성적 부진에도 눈부신 활약을 한 선수와 팀도 있었다. 임태정(담양군청·금1)이 수영 남자일반부 배영 200m에서, 김보경(전남체육회·금2)이 핀수영 여자일반부 표



▲ ‘고교생 국가대표’를 지낸 임금별(전남체고, 오른쪽 4번째)이 태권도 여자고등부 57kg급에서 우승,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했다.

면 200m에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수립했고, 이은경(순천시청·금1동2)은 양궁 여자일반부 50m에서 대회신기록을 명중시켰다. 신비(고흥고)는 역도 남고부 62kg급 인상과 합계에서 2관왕을 들어올렸고, 김동훈(순천시청)은 정구 남자일반부에서 개인단식과 단체전을 쓸어담으며 ‘2연속 2관왕’ 위업을 달성했다.



이밖에 백승호(코오롱)는 육상 남자일반부 5,000m에서 7연패(2010~2016년)의 금자탑을 세웠고, '고교생 국가대표'를 지낸 임금별(전남체고)도 태권도 여자고등부 57kg급에서 고교무대 전국체전 싹쓸이(3연패)를, 배운민(전남체고)도 태권도 남고부 +87kg급에서 2연패를 기록했다.

단체 팀으로 2010년 창단된 순천전자고 세팍타크로팀은 전국체전 첫 금메달 획득의 신기원을 이룩했으며, 한국바둑고는 바둑종목 첫 금메달을 따내기도 했다. 한국바둑고의 활약으로 바둑은 전남의 유일한 종합1위 종목의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전남의 종합성적 부진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볼링, 롤러를 비롯해 득점 폭이 큰 단체대진종목인 광양제철고 축구, 순천여고와 전남도청 정구, 한국전력공사 럭비, 목포여상과 목포대 배구 등의 부진이 뼈아팠다.

종목별 성적에서도 전남은 정식종목 1~3위가 하나 없을 정도로 저조해 종합순위 14위라는 최악의 기록에 그대로 반영됐다. 그나마 시범경기로 열린 바둑에서 금1, 은1, 동1 등으로 종합1위에 올라 향후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국바둑고 이용빈이 고등부 혼성개인전에서 우승하는 등 특성화고 육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성과였다.

정구는 전년도와 같은 종합4위를 기록했다. 순천시청 정구팀이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우승, 금메달을 획득했다. 순천시청은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했으며 순천시청 김동훈은 단체전 우승에 이어 개인단식까지 승리를 거둬으로써 2년 연속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롤러에서도 전남은 전년도 종합2위보다 3계단이나 밀려난 종합5위의 저조한 성적을 냈다. 광양제철고 권부송이 여고부 스피드 300m T.R에서 유일한 금메달을 획득했다.

볼링도 전년도 종합2위에서 종합5위로 밀려나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 남자대학부 2인조에서 허진선·곽호안(이상 전남과학대)조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제97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신	핀수영	여일	표면-200m	김보경	전남체육회	01:29.9
	수영	남일	배영 200m	임태정	전남수영연맹	01:58.5
대회신	사격	여일	50m 소총3자세	송채원	한체대	455.6
	양궁	여일	50m	이은경	순천시청	342

29) 제98회 전국체전(2017년) (전남종합순위 : 13위, 3만738점)

제98회 전국체육대회는 충북 청주를 비롯한 11개 시군에서 17개 시도와 해외동포 등 2만6천명(선수 2만명, 임원 6천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생명의 중심 충북에서 세계 중심 한국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 대회에서 선수들은 육상, 수영 등 46개 종목(정식 45개, 시범 1개(택견))에서 선수 개인과 고장의 명예를 걸고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대회 결과 경기도가 종합1위에 올라 16년 연속 우승했으며, 충북이 개최지 프리미엄을 살려 종합2위를 기록했다. 대회 최우수선수는 수영의 박태환이 차지했는데, 박태환은 최우수선수상 수상 5회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전남은 46개 전 종목에 1천659명(선수 1천230명, 임원 443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열전을 벌인 결과 목표했던 12위에는 미치지 못하고 종합1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전년에 비해 종합성적 상승률이 향상된 시도에 주어지는 성취상을 수상하는 등 전년도 대회에 비해서는 경기력이 상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달 획득수면에서 전년도 157개(금 33, 은 43, 동 81)보다 크게 늘어난 총 170개(금 47, 은 55, 동 68)를 따냈고, 종합점수면에서도 전년도(2만8천791점) 대비 1천 947점이나 상승한 총 3만738점을 획득했다. 전남의 순위 종합13위는 전년도 14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기록이다.

전남수영 간판스타 원영준(전남수영연맹)이 배영 100m 한국신기록 우승과 배영 50m 우승 등 2관왕에 오르며 전남의 사기를 북돋았다. 핀수영 여자일반부 김보경과 남자일반부 권혁민의 2관왕, 자전거 정설화(전남미용고)의 3관왕 등도 전남선수단의 순위 경쟁에 큰 보탬이 됐다.

연패기록도 빛이 났다. 정구 남자일반부 개인전 김동훈(순천시청)이 3연패를 거머쥐었고, 자전거 남자 고등부 MTB 김민오(전남체고3년), 세팍타크로 여자고등부 순천전자고(김수지·오한빛·홍세희·김혜민·장가연), 육상 남자고등부 세단뛰기 김장우(전남체고3년), 핀수영 여자일반부 표면 400m 김보경(전남체육회) 등이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요트에서는 지난 제85회 전국체전 이후 13년 만에 우승(금 1, 은 3, 동1)을 차지해 전남의 순위 경쟁에 큰 힘이 됐다.

하지만 전남은 세팍타크로(순천전자고)와 럭비(한국전력공사)의 금메달을 제외하고는 단체경기종목의 내세울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전남의 종합순위 한 자릿수 진입을 위해서는 단체경기종목의 체계적인 육성책 마련이 영원한 숙제로 대두됐다. 학교 체육과 직장 팀도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우수 선수 영입과 우수 선수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종목별로는 요트가 금1, 은3, 동1 등으로 1천967점을 획득하며 13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전남 요트는 지난 1985년 제66회 전국체전부터 2004년 제85회 체전까지 총 16회 종합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17번째 종합1위를 기록하며 옛 명성을 되찾게 됐다. 남고부 국제윈드서핑 김현수(여수고)의 금메달을 필두로 국제레이저급의 김세웅(여수고)과 국제420급 정현우·양태영(여수고) 조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바둑은 이 대회부터 정식종목이 되었으며, 전남은 종합2위를 차지했다. 고등부 혼성개인전에 출전한 이재구(한국바둑고)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당구는 전년도 종합7위에서 종합2위로 수직 상승했다. 장문선(전남당구연맹) 선수가 남자일반부 포켓 10볼에 출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선수단에 힘을 실어줬다. 이로써 전남은 금1, 은1, 동2 등으로 상위권 등극에 성공할 수 있었다.

복싱도 전년도 종합6위에서 종합3위로 수직 상승했다. 전남체고 광동현 선수가 남고부 라이트웰터급에서, 한체대 김종진 선수가 남대부 라이트헤비급에서, 한체대 선수진 선수가 여자일반부 미들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전남은 금3, 은4, 동4 등으로 총득점 1천441점을 획득하며 상위권 입성에 성공했다.

제98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신	수영	남일	표면-200m	원영준	전남수영연맹	54.29
대회신	핀수영	여일	배영 200m	김보경	전남체육회	01:29.2
	육상트랙	남고	50m 소총3자세	전주성	전남체고	10.44
	사격	일반	50m 소총3자세	정윤균	상무	72
대회타이	사격	남일	50m	김준홍	국민은행	32

30) 제99회 전국체전(2018년) (전남종합순위 : 종합 10위, 3만2천708점)

제99회 전국체육대회는 ‘비상하라 천년전북, 하나 되라 대한민국’이라는 대회 구호 아래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전북 14개 시군 73개 경기장에서 종목별로 진행됐다. 전북에서 다섯 번째인 전북 체전에는 전국 17개 시도 및 전 세계 18개국 해외동포 등 2만4천924명(선수 1만8천601명, 임원 6천323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7개 종목(정식 46개 종목, 시범 1개 종목(택견))에 걸쳐 개인과 고장을 명예를 걸고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였다.

경기도는 17연패를 달성, 종전 서울시가 기록했던 16연패의 기록을 갱신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종합2위는 서울이, 개최지 시드배정 잇점을 살린 전북이 종합3위를 차지했다.



도와 볼링·축구가 종합3위를, 요트·스쿼시가 종합4위를, 롤러·사격·산악이 종합5위를 차지한 반면 보디빌딩, 수상스키, 에어로빅, 테니스 등은 무득점에 그친 점만 보더라도 종목별 성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함께 다양한 종목에서의 선수 저변 확대, 장기적 선수 발굴 육성대책 등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종목별로는 럭비가 전년도 종합4위에서 종합2위를 차지하며 상위권 입성에 성공했다. 한국전력 럭비 팀이 일반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총득점 1천407점을 획득, 전남의 상위권 순위 진입에 수훈을 세웠다.

당구에서는 전년도 종합2위에 이어 이번 체전에서도 종합2위를 지켜냈다. 전남당구연맹 김행직 선수가 남일 캐롬1쿠션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것을 비롯, 전남은 은1, 동3 등으로 총득점 582점을 획득하며 상위권을 수성해냈다.

볼링에서는 금3, 은2 등의 메달에 1천380점을 획득, 전년도 종합4위에서 종합3위로 1계단 상승하는 성적을 냈다. 전년 대회보다 무려 150점이나 많은 점수를 따냈다. 전남과학대 김태정·송민영·양다솜 선수조가 여대부 3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김태정은 여대부 마스터즈 경기에도 출전, 금사냥에 성공했다. 곡성군청 볼링 팀도 여자일반부 5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축구도 전년도 종합15위에서 종합3위로 수직 상승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목포시청축구단이 남일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냈으며, 전남 세한대 축구팀이 여대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호성적을 거두는데 수훈감이 됐다.

제99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대회신	역도	남고	용상 56kg급	신 록	고흥고	144kg
			용상 69kg급	신 비	고흥고	172kg
	사격	여일	50m소총복사	김유연	장흥군청	624.2
		남일	속사권총	김준홍	국민은행	37

31) 제100회 전국체전(2019년) (전남종합순위 : 13위, 3만1천322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는 ‘뭉쳐라! 서울에서, 뻗어라! 대한민국’이라는 대회 구호 아래 10월 4일 개막돼 잠실주경기장 등 서울과 타 시도 72개 경기장에서 7일간 열전으로 펼쳐졌다. 전국 17개 시도와 18개국 해외동포 등 3만명(선수 2만102명, 임원 9천 898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검도, 골프 등 47개 종목(정식 45개, 시범 2개(보디빌딩·택견))에 걸쳐 개인과 고장의 명예를 걸고 뜨거운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서도 821점이나 줄어든 2만50점을 기록, 전남 순위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유형별로는 기록경기에서 전년도보다 1천169점이나 하락한 1만6천184점을 기록하며 전남 성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이 됐고, 단체대진경기에서도 286점이나 줄어든 등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274개 세부종목에서 무득점을 기록한 것도 순위 하락의 원인이 됐다. 개인대진경기에서는 전년도보다 단 5점만 하락하는 성적으로 그나마 체면을 살렸다.

종목별로는 궁도에서 전남선발이 단체전에서 106점을 쏜 같은 점수를 얻은 광주선발에 비교전승을 거둬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고민구(고흥 홍무정) 선수가 개인전에 출전해 은메달을 보태 전남은 이 종목 종합1위에 올랐다. 궁도의 종합우승은 지난 2008년 89회 전국체전 이후 11년만에 이룬 쾌거다.

댄스스포츠에서도 이 종목 출전 이후 처음으로 종합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다. 전년도 종합7위에서 종합1위로 수직 상승하는 기록으로 여수정보과학고 신도현·이수민 선수조가 19세이하부 라틴 5종목에 출전, 금메달을 획득한 게 주효했다. 전남은 금1, 은1, 동1 등으로 총득점 533점을 따내며 정상을 차지했다.

프트테니스에서 전남은 금3, 은1, 동2 등으로 전년도 종합9위보다 6계단 상승한 종합3위를 차지했다. 김민주(순천여고)가 여고부 개인단식 결승에서 경북 임세은(우석여고)을 세트스코어 4-1로 누르고 금메달을 딴 데 이어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 2관왕에 올랐다. 김여진·김운진(이상 순천여고)도 여고부 개인복식과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수확, 2관왕을 차지했다. 순천여고는 이날 단체전까지 석권함으로써 지난 1985년 팀 창단 이래 처음으로 전 종목 석권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볼링은 전년도와 같은 종합3위를 차지했다. 광양시청 최복음이 마스터즈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006년 출전 첫해 우승을 비롯해 2009~2014년 6년 연속 마스터즈 금메달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최복음은 그해 우승으로 전국체전에서 이 종목 총 8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제100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J타이	역도	남일	용상 73kg급	신 비	완도군청	178kg

32) 제101회 전국체전(2020.10.8. ~ 2020.10.14, 경상북도 일원)

제101회 전국체육대회가 2020년 10월 8일부터 1주일간 구미 등 경상북도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순연됐다. 이에 따라 제101회 전국체전은 2021년 10월 같은 장소에서 1주일 일정으로 열릴 예정이다.

2. 전라남도 개최 전국체육대회

1) 제89회 전국체전(2008년) (전남종합순위 : 3위, 5만4천720점)

(1) 유치경위

2000년도에 접어들어 전남은 열악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뜻있는 체육인과 행정기관 및 도의회에서 자주 거론되어왔으나, 막대한 재원확보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활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전남이 광주와 분리된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독자적인 전국체전을 개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열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대한체육회는 2002년부터 당시 한일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로 2002년 제83회 전국체전 개최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전남이 개최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해 적극적 유치를 권고해 왔었다. 그러나 촉박한 시간과 전남의 열악한 체육기반 시설로 감당하기 어려운 재원부담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제83회 체전은 제주로 개최로 넘어갔다.

전남도는 이를 계기로 제주체전이 열렸던 2002년 당시 현지에서 뜻있는 체육인들이 전국체전 유치 당위성 확산 분위기를 이끌기 시작, 그해 10월 25일, 2006년 제87회 대회 유치를 신청하게 되었다. 때마침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이 활발할 때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스포츠 행사 유치를 경쟁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경상북도가 경합 신청함으로써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게 되었다. 낙후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등 불리한 입장에 있어서 전남은 결국 제87회 대회 유치 신청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경북으로 개최지 확정)

이어 제88회 대회 유치를 신청코자 준비를 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광주광역시에서도 전국체전 유치 분위기가 확산돼 먼저 유치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광주와 유치 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또다시 신청을 포기했다.

대신 2008년 제89회 대회 유치로 변경해 미리 신청하는 차선택을 택했다. 특히 89회 대회 유치신청은 전남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 준비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전남 시대 개막을 기대하는 전라남도민의 역량이 결집되고 있었다. 또한 친환경 녹색체전을 주제로 한 전국체전을 전남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풍요롭고 청정한 전남의 이미지 홍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체전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분위기와 맞아 떨어졌다.

본격적인 대회 유치활동을 위해 2003년 3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전남도 유치 학술적 전략연구 대응계획준비를 목포대학교 스포츠산업연구소(소장 전호문 교수)가 T/F 팀을 구성해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제안서’를 완성했다. 2003년 5월 6일 제21차 전남체육회 이사회에서 전국체전 유치신청을 조정 의결해 2003년 5월 23일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동시에 세계유니버시아드 국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완벽한 체육시설을 갖춘 대구광역시와 동시 유치신청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

항인 전남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유치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전남은 열악한 체육 인프라와 광활한 시군 지역에서 분산개최를 해야 하는 난제들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 타 시도와의 경쟁조차 될 수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지방도시 균형 발전과 체육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가체육정책 취지에 힘입어 전남의 낙후한 여건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설득전을 벌여 나갔다. 한편으로는 타 시도와의 비교우위에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섬, 바다 등 풍요로운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청정하고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앞세워 유치의 당위성 홍보해 나갔다.

전라남도에서는 2003년 7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기획단’을 발족시켜 조직적 유치활동을 했고, 전라남도체육회에서는 막바지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2004년 3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24명의 유치위원들로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들은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전위원회 및 대한체육회 이사와 체육관련 기관단체 및 각 시도체육회 등 각계 각층의 연고 임원을 대상으로 전남 유치 당위성을 부각시켜 나갔다.

그 결과, 2004년 5월 13일 대한체육회 제16차 전국체전위원회에서 개최지 선정심의를 위한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절차를 거쳤고, 2004년 5월 25일 대한체육회 제18차 이사회에서 유치계획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을 끝으로 전남 개최지 결정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 2004년 3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24명의 유치위원들로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가운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체전 전남 유치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2) 대회준비

① 경기장 배치

전남은 1951년 제32회 대회, 1965년 제46회 대회, 1977년 제58회 대회, 1987년 제68회 대회에 이어 21년 만에 5번째의 제89회 전국체육대회(2008년)를 지역에서 개최하게 됐다. 5번째라고 하지만 이전에는 광주와 분리되기 전 대회들이었고, 87년 대회는 분리된 직후이긴 하지만 광주와 공동 개최한 전국체전이였다. 따라서 이번 89회 전국체전이야말로 전남도가 독자적으로 개최하는 사실상 첫 대회인 셈이어서 전남도는 성공 개최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했다. 전라남도도 기존의 전국체전 유치기획단에 체전 실무 인력을 보강, 선행되어야 할 전국체전 시설조사와 지역별 경기장 배정을 위한 현지조사 및 기본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대회유치 확정과 함께 도민들의 관심사는 개폐회식이 개최되는 주경기장이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동부권이나 서부권이나’라는 논란이 팽팽했던 것이다. 이에 전남체육회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주경기장 배치와 각 종목별 경기장 배치를 객관적 근거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배정하기 위해 ‘주경기장 및 각 종목별경기장 배치계획 연구용역’을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했다. 전남의 열악한 체육시설로 볼 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과제는 경기장 배치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렸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했던 것이다.

그래서 전남도는 기존 종합운동장과 각 시군에서 제안한 종합운동장 설치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제89회 체전 주경기장으로 신설과 기존의 경기장을 보수하는 2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하게 되었다. 주경기장을 신설하는 경우 새로운 스포츠인프라 구축 및 차후 활용도 극대화 등 장점이 있으나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투자예산이 소요되는 단점도 부각됐다. 반면 기존 경기장을 보수할 경우 경기장 신설 투자예산보다 예산 소요가 적다는 장점은 있지만, 추후 경기장 활용 및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따져볼 때 신설보다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각 종목별 경기장 배정은 시군별 보유경기장과 해당종목 육성연계 경기장 배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주경기장은 순천팔마경기장, 광양드레곤즈경기장, 여수진남경기장, 목포유달경기장과 남악신도시신설 예정지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신설보다는 기존의 경기장 중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관람석 증설 공간 확보와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여수진남경기장을 주경기장으로 확정지었다.

② 경기장 시설

제89회 전국체전 개최 각 종목별 사용 경기장은 총 42종목에 62개 경기장으로 전라남도종합사격장, 목포필드하키경기장, 나주인라인롤러경기장의 3개 경기장은 신설하고, 여수진남경기장, 여수망마경기장, 순천팔마테니스경기장 등 47개 경기장은 개보수해 사용하기로 했다. 우리도내에 없는 승마경기장과 다이빙경기장은 광주광역시의 경기장을 보수해 사용함으로써, 신설 및 개보수 사업비는 국비 230억 원, 도비 99억 원, 교부세가 80억 원으로 총 601억 원이 투자 되었다.



▲ 여수진남경기장 전경. 전남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주경기장을 새로 짓는 대신 여수진남경기장을 개보수, 주경기장으로 활용했다.

신설경기장인 종합사격장, 하키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에 260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중 전라남도종합사격장은 나주에 있는 기존의 시설을 완전 철거하고 국제규격에 맞는 25m, 50m, 100m 사격대와 클레이사격대 3조, 아메리칸사격대 1조를 신설하고, 선수숙소와 다목적 사무공간을 갖춘 최신식 건물과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기장으로 총사업비 133억 원이 투입되었다.

당시 전남사격연맹회장이던 임노덕씨(고인)와 전무이던 임채수씨가 1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들의 공로로 전남은 현재와 같은 국제규모 사격장을 갖출 수 있게 됐다.



▲ 신설 나주종합사격장 전경. 사업비 133억 원을 투입해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국제규격에 맞는 시설로 신설하면서 선수숙소와 사무실도 갖췄다.

인라인롤러경기장은 총사업비 103억 원이 투입돼 부지 73,357㎡(22,190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축면적 1,789㎡의 철근콘크리트조 막대지붕 구조로 관중석 3,000석(좌석 958석) 인라인필드 L=200m(B=63m), 단지내 도로 L=284m(B=20m) 규모로 나주시 송월동 1078-2번지 일원에 신설되었다.

목포필드하키장은 총 25억3천800만 원이 투입돼 구장 91.5m 55m의 6,262㎡, 보조구장 45.7m 55m의 3,320㎡ 스탠드 548석, 가압펌프장 1개소, 조명타워 8개소, 전광판 11개소의 인조구장으로 목포시 대양동 989번지 일원에 신설되었다.

경기장 개보수에는 47개소에 402억 원이 투입되었다. 폐회식이 열리는 여수진남 경기장은 156억 원이 투입되었고, 육상보조경기장으로써 필요한 여수망마경기장에는 64억 원이 투입되었다. 특히 전남경기장에는 경기장 입구 정면 공간에 다목적 스포츠 센터가 철근콘크리트로 신축(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405㎡)되었다. 본부석과 캐노피(780㎡) 보수, 5,000석의 관람석 증설, 관람석 의자(15,000개) 전면교체, 성화대 제작 설치 등 주경기장으로써 면모를 갖추었다. 망마경기장은 기존 트랙의 우레탄 교체, 잔디교체 포설 및 건축부분의 개보수로 공인규격에 적합한 육상보조경기장으로 완비되었다.

경기용 기구는 그동안 매년 전국체전 참가비 예산의 훈련장비비로 극히 노후된 경기용 기구에만 선별해 정비해왔기 때문에 전국체전 개최에 있어 사실상 전면교체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예산 형편상 필수불가결한 경기용 기구만 구입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회와 체전이후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수요조사와 검증을 함으로써 42개 경기종목에 총 880종의 경기용 기구를 구입했으며 총사업비 41억 원으로 완비할 수 있었다.

③재정확보

재정분야를 보면 제89회 전국체육대회는 광주·전남 분리 이후 21년 만에 전남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로 각 종목별 경기장이나 경기용 기구 노후로 그만큼 재원확보가 크게 부담되었다. 그러나 체육지원기관인 전라남도의 부단한 노력으로 최소 비용을 들이면서도 최대의 경기장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 최고의 경제체전 목표를 달성했다.

투자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국비	기금	특별교부세	도비	시군비
계	76,993	23,000	3,500	8,000	23,214	16,279
대회운영비	16,860	-	3,500	-	12,360	-
경기장개보수	60,133	23,000	-	8,000	9,854	19,279

한편 전남체육회는 부족재원의 일부라도 충당키 위한 방법으로 공식적인 체육성금 모금을 희망했으나, 기부금품 모집금지 규정에 따라 추진하지 못했다. 그러나 애향심의 발로로 자발적 출연을 마다하지 않고 후원해 준 분들로부터 총 12억여 원의 후원금을 기탁받았으며, 이를 개·폐회식 관중용 기념품구입비, 문화예술행사비지원, 각 경기단체 경기운영별 지원, 상위입상 우수선수 및 우수팀 포상금 등으로 충당했다. 또한 집행잔액 일부를 체육인재육성 장학기금에 보탬으로써 전남체육 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의 효시가 될 수 있었다.



▲ '녹색체전'을 컨셉으로 한 제89회 전국체전 개막식이 여수진남경기장에서 열린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 참가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있다.

(3) 대회개최

① 대회운영

전라남도는 2008년 2월,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고문 15명, 부위원장 4명, 위원 287명, 간사 1명을 선임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과 각급 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 종교계, 기업체, 체육계 등 각계 대표 308명으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대회 준비와 운영의 최고기구로서 정책사항 자문과 성공 체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강구 등 대회준비에서 운영까지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가자 남도로, 뛰자 세계로!’ 라는 슬로건 하에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스포츠제전인 제 89회 전국체육대회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의 땅, 전남의 이미지에 맞는 ‘녹색체전’을 컨셉으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라남도 일원에서 개최됐다. 기후온난화로 지구환경을 중시해 전국 최초로 ‘저탄소 녹색성장’ 체전으로 승화시키고자 개·폐회식에 화약 냄새와 공해를 유발시키는 축포불꽃 놀이 대신 워터캐논(물대포)으로 연출했다. 또 일회용품 줄이기, 친환경거리조성, 목재안내표지판 사용, 녹색부스 안내소 설치 등 친환경 자재 사용 경기장 운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전남의 친환경 녹색채전 이미지 각인에 주력했다.

개회식 관람객 모두에게는 양파음료와 떡 등을 무료 제공하고, 임원·선수에게는 후코이란, 펄 솔트, 김, 미역, 남도장터상품권, 우리밀, 가시오가피차, 무화과 잼, 양파음료, 고구마, 친환경 쌀, 녹차, 매실, 배 등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했다.

대회 참가 선수단의 규모는 16개 시도와 17개국 해외동포 선수 총 3만여 명(선수 2만5천명, 임원 5천명)이었으며, 41개 정식종목과 1개 시범종목(당구)으로 총 42개의 경기종목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전남선수단은 총 1천777명(선수 1천333명, 임원 444명)이 출전해 열전을 펼쳤다.

개회식은 10월 10일 오후3시 ‘녹색의 땅 미래를 향한 바다’라는 주제로 여수진남경기장에서 그 장엄한 막을 올렸다. 입장식행사와 사전행사, 식전행사 및 공식행사에 이어 대회 기간 중에 밝혀줄 성화가 입장하면서 축제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다. 성화는 9월 19일 전국체전의 공식성화 채화지인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한 국민대통합을 염원하는 ‘화합의 불’과, 2008년 9월 24일 해남 땅 끝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 9월 30일 신안가거도에서 채화한 ‘번영의 불’의 성화가 각각 봉송돼 전남도청 윤선도홀에 안치되었다.

10월 6일 도내 성화 봉송구간 22개 시군 89구간 820.9km의 대장정으로 710명의 주자에 의해 봉송돼 최종주자인 이용대(2008년 베이징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선수와 김종수 (배드민턴 총감독) 감독에 의해 주경기장인 여수진남경기장 성화대에 성화됨으로써 국민대통합의 축제가 시작됐다.



▲ 성화봉송 광경.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한 ‘화합의 불’과, 해남 땅 끝에서 채화한 ‘평화의 불’, 신안가거도에서 채화한 ‘번영의 불’의 성화가 각각 봉송돼 주경기장인 전남경기장을 밝혔다. 최종주자는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선수와 김종수 감독이 맡았다.



특히 전남도를 찾는 모든 선수단들이 내 집같이 편안하고 훈훈한 감정을 느껴, 다시 찾고 싶은 전남과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는 감동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었다. 그런 만큼 질서, 청결, 친절, 봉사와 선수단응원과 경기장안내, 스포츠�관광 투어 등 최고의 손님맞이를 위해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등 530개 기관단체에서 연 2만5천여 명의 도민이 서포터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기장의 응원 열기와 대회에 활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② 경기운영

경기는 육상을 비롯한 42개 경기종목이 62개 경기장에서 진행되었으며, 17개 시군 개최지별로 성대한 문화예술 축제행사도 다양하게 펼쳐졌다. 특히 이 대회는 역대 전국체전 사상 부정선수, 심판관정불복종, 홈구장의 기득권(텃세)등 단 한건의 불공정 시비가 없었던 가장 깨끗한 대회로 높은 평가와 찬사를 받았다.

③ 대회결과

경기도가 8만4천440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이 6만5천17점으로 2위, 전남이 개최지 이점으로 5만4천720점을 획득해 1986년 제67회 전국체전(광주와 분리되기 이전 개최) 2위 입상이후 22년 만에 종합3위라는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따라서 이 대회는 그 어느 대회보다 풍성한 기록을 갱신했다. 세계신기록으로는 전남체고 수영장에서 개최된 수중일반부 서울소속 운영중 선수가 표면 800m에서 비공인세계신기록(06:21.85)과 표면 200m에서 비공인세계신기록(01:21.86)으로 2개의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한국신기록으로는 수영(경영)에서 11개, 수중 24개, 육상(트랙) 4개, 육상(필드) 3개 등 모두 42개나 쏟아졌으며, 대회신기록도 육상외 9개 종목에서 총 147개가 나왔다.

아울러 전남 선수단은 전년도 88회 체전에서 종합순위 12위를 했으나, 89회 체전에서는 종합순위 3위로 성취율도 145.25까지 끌어올려 성취상 부문 2위(국무총리상)를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MVP)에는 수영자유형 100m에서 한국신기록 및 3년 연속 5관왕을 수립한 박태환(서울) 선수가 선정되었다.

전남 선수단은 각 종목별 경기에서 금메달 50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84개로 도합 189개의 메달을 획득했으며, 경기종목별 성적은 상위권(1위~3위)은 검도, 태권도, 궁도, 유도, 씨름, 럭비, 골프, 농구, 탁구, 정구, 배구, 근대5종 등 12개 종목이었다. 부진을 면치 못한 하위권(10위 이하)은 수영, 수중, 트라이애슬론, 체조, 사격, 역도 등 8개 종목이었다.

부문별 성적으로 입상 경기종목 종합 1위는 검도, 태권도, 궁도 등 3개 종목이고, 종합 2위는 유도, 씨름, 럭비, 골프, 농구, 탁구 등 6개 종목, 종합 3위는 정구, 배구, 근대5종 등 3개 종목이었다. 단체종목 우승은 농구(상무팀), 럭비(상무팀), 배구(상무팀), 하키(목포시청), 배드민턴(화순실고), 펜싱(함평여고팀 에빼) 등 6개였다. 또 고교부팀이 종합 3위를 마크하면서 종합득점을 크게 상승시킴으로써 학교체육 발전 전망을 밝게 하기도 했다.

한국신기록은 육상경보 20km종목에서 1시간20분17초로 은메달을 획득한 남자일반부 박철성(삼성전자)선수가 수립했고, 대회신기록은 수영접영 200m종목에서 1분59초2로 금메달을 획득한 남자일반부 유정남(전남연맹) 선수와 수영평영 100m종목에서 1분10초4와 수영평영 200m종목에서 2분26초8로 각각 금메달 획득 2관왕을 차지한 여자고등부 정다래(부영여고)선수가 수립했다. 인라인롤러 스피드 3,00mR종목에서 4분12초4로 은메달을 획득한 남자고등부(여수충무고) 임민섭·김지원·박응배·김진세 등 4명의 선수도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이같은 풍성한 기록으로 향후 전남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59개 각 경기장을 완전 개보수했고, 각 종목별로 새로운 경기용 기구를 확보하는 등 전남의 체육기반 시설을 확고히 다졌다는데도 의미가 큰 대회였다. 무형적 가치 면에서도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녹색의 땅, 가고 싶고 볼거리가 많은 전남’의 이미지를 심어줘 지역문화와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유형적 가치 면에서도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1천639억 원, 고용유발 8천619명과 74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④ 전남 선수단의 경기종목별 성적

○ 검도

검도 전남의 새 역사를 쓰며 정상에 올랐다. 개최지 이점을 살려 종합우승을 목표로 했고 이를 달성했다. 지난 1982년 제63회 대회(1위)이후, 무려 26년 만에 감격의 우승컵을 차지한 것이다.

○ 태권도

3년 만에 다시 정상을 차지했다. 대회 막판까지 시도별 종합성적 3위 자리를 놓고 전남과 옆치락뒤치락하던 전남에 태권도는 종합3위 달성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 줬다. 이 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9개를 따내며 2천37점을 보태 시도별 종합성적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데도 한몫을 톡톡히 한 것이다. 남고부 나규호(전남체고)가 페더급에서, 남대부 김주영(조선대)이 밴텀급에서, 남자일반부 김용민(한국가스공사)이 밴텀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가스공사 정영한도 남자일반부 헤비급에서 금메달을 보태줬다. 전남은 이로써 금4, 은2, 동9 등으로 태권도에서 총 2천37점을 올리며 종합1위를 마크할 수 있었다.

○ 궁도

3년 만에 다시 정상에 우뚝 섰다. 전통 효자종목으로 전남이 시도별 성적 종합3위로 상승하는데 버팀목이 됐다.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 홍정민 외 6명이 출전해 준우승을 일궈냈고, 남자일반 개인전에서 고민주(고흥 홍무정)가 준우승의 수훈을 세웠다. 한편 고등부 시범종목에서 완도수산고 궁도부가 창단 1년 만에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은메달, 동메달을 따내 화제를 낳기도 했다.



○ 유도

종합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종합2위라는 역대 최고성적으로 전남유도의 역사를 새로 썼다. 여고부 여수정보과학고 선수들이 금맥을 켜다. 조수현이 개인전 70kg이하급에서, 최희화가 개인전 78kg이하급에서, 강솔지가 개인전 무제한급에서 각각 우승하며 무더기 금사냥을 해낸 것이다.

○ 씨름

종합2위로 급부상했고, 1988년 제69회 대회(2위)이후 20년 만에 두 번 째 2위를 차지했다. 여수시청 오현민이 남자일반부 용사급 95kg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고부 청장급 80kg 문준석(순천공고), 용사급 80kg 김장현(여수공고), 남대부 소장급 80kg 성태호(대불대)가 각각 준우승에 입상했다.

○ 럭비

종합2위를 차지했다. 대진운에 따라 성적이 좌우됐던 전남 럭비가 지난 66회 대회(2위)이후 23년 만에 최고 성적을 냈다. 전남 대표로 출전한 상무팀이 감격의 우승컵을 안겨줬다. 선전을 기대했던 순천공고는 아쉽게도 8강에 머물고 말았다.

○ 골프

골프의 선전도 돋보였다. 종합2위로 지난 79회 대회(1위)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종합우승을 노렸지만, 기대주 신혁철(함평골프고)이 간발의 차로 은메달에 머물렀고 단체전에서도 준우승에 그쳐 종합2위에 만족해야 했다.

○ 농구

종합2위에 오르면서 전남농구 사상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는 신기원을 이뤘다. 열악한 구기종목의 전력 상승은 전남종합순위를 끌어 올리는데 원동력이 됐다. 전남 대표로 출전한 상무가 감격의 우승컵을 들었다. 선전을 기대했던 남고부, 여고부, 여자일반부는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모두 8강에 머물고 말았다.

○ 탁구

종합2위라는 의미있는 쾌거를 이뤄냈다. 역대 최고성적일 뿐 아니라 전남탁구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궈낸 성과로 위기의 전남탁구를 구원하는 원동력이 됐다. 남대부 개인전 류철현(목포과학대)이 값진 은메달을 따냈고, 여대부 단체전에서 신재인·류혜정·정윤예·김소연(이상 목포과학대) 조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전남은 탁구에서 은2, 동2 등으로 총득점 1천491점을 획득하며 종합2위에 오를 수 있었다.

○ 정구

정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합3위를 마크했다. 전국 최강의 전력으로 우승을 예약했던 남고부, 남일 단체전 전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정상 가도를 달리는 전통강세 종목으로 개최지 체면을 구겼다. 여일 개인단식에서 오성희(전남도청)가 따낸 금메달이 유일하다.

○ 배구

종합3위에 올랐다. 지난 2000년 제81회 대회(2위)이후, 8년 만에 최고 성적이다. 이번 대회 일등공신은 남자일반부의 상무 팀이었다. 상무는 부산체육회를 3대0 완파 우승컵을 안았다. 목포여상고는 여고부 단체전에서 서울중앙여고와 치열한 접전에서 2대3으로 석패해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다.

○ 근대5종

전년도까지 2년 연속 무득점의 치명상에서 종합3위로 수직상승하는 명예회복을 했다. 배점이 높은 종목으로 종합순위를 끌어 올리는데 톡톡한 효자노릇을 했다. 전남체고 김대범·서용식·손정규·박상구 선수조가 고등부 단체전(4종)에서 쾌조의 준우승을 했고, 국군체육부대 전정일·진석현·최진호·남동학 선수조가 일반부 단체전(4종)에서 값진 준우승을 했다.

○ 핸드볼

배점이 높은 전략종목으로 개최지 이점을 살려 선전을 기대했고 종합4위를 했다. 우승을 바라봤던 남고부 무안고가 아쉬운 동메달에 머물렀고 여고부 백제고는 8강에 그치고 말았다. 남자일반부 상무가 하나은행(충남)에 18대22로 패하며 동메달에 머물렀다.

○ 보디빌딩

종합4위를 차지했다. 전년도까지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가까스로 벗어난 것이다. 지난 제78회 대회(2위)이후 11년 만에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향후 가능성을 보여줬다. 남자일반 부창순(완도군청) 선수가 웰터급 75kg에서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고, 김지훈(좌수영헬스) 선수는 미들급 85kg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 사이클

2연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홈그라운드에서 종합5위라는 예상 밖의 저조한 성적이었다. 전국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사이클 메카 전남의 체면이 구겨졌다. 그나마 자존심을 세운 것은 사이클 괴물선수로 통하는 전남미용고 나아름이었다. 제87회 대회 4관왕에 이어 전년도 제88회 대회 3관왕에 올라 괴력을 과시했으며, 이번에도 또다시 4관왕에 오른 나아름은 사이클 종합우승보다 값진 승전보를 알려줬다.



▲ '괴물 신인'으로 통하는 전남미용고 나아름(왼쪽 첫번째)이 사이클 단체스프린트, 20km포인트 트레이스, 2km개인추발, 개인도로 등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나아름은 전년도 3관왕에 이은 대기록을 작성, 주목을 받았다.

○ 복싱

중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고, 종합5위를 달성했다. 지난 제81회 대회(2위)이후 8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전성기를 누렸던 70~80년대 전남복싱의 명성이 급격히 약화돼 가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성적이라 크게 두드러진 성과로 평가받았다. 남고부 김대용(전남체고) 선수가 벤팀급에서, 남자일반부 조덕진(상무) 선수가 미들급에서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복싱에서 금2, 은1, 동2 등으로 총득점 1천432점을 획득해 종합5위를 차지한 것이다.

○ 축구

종합5위를 차지해 1994년 제75회 대회(4위)이후 14년 만에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남자일반부 전남경찰청이 값진 준우승을 안겨줬다. 강세를 보였던 광양제철고는 경기 정명고와 8강전에서 2대2 접전 끝에 8대9 TK패하고 말았다. 한편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돼 화제를 모았던 강진군청 여자축구단이 전국체전 전남대표로 처녀출전, 한글 득점을 목표로 충남 실업팀 일화 천마와 첫 경기에서 접전을 벌였으나 2대5로 패하고 말았다. 이 체전에 출전한 11개 팀 가운데 동호회 성격을 가진 팀은 강진군청 여자축구단이 유일한 타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었다.

○ 볼링

상위권 진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종합5위에 만족해야 했다. 여고부 고흥실고 이세연·이슬아 2인조의 우승이 돋보였다. 최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등을 석권한 광양시청 최복음의 상승세를 크게 기대했지만, 3인조 경기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다.

제89회 전국체전 전남선수 기록현황



359

광주·전남 분리 이후 전남의 역대 전국체전 순위

구분	종목	종별	세부종별	기록자		기록수립
				성명	소속	
한국신	육상	남일	20km경보	박철성	삼성전자	1:20:17
대회신	수영	남일	점영200m	유정남	전남연맹	1:59.9
		여고	평영100m	정다래	부영여고	1:10.8
			평영200m	정다래		2:28.3
	인라인롤러	남고	3,000mR	박웅배외3	충무고	4:12.4

광주·전남 분리 이후 전남의 역대 전국체전 순위

회수	기 간	개최지	종목수	순위	종합득점	금	은	동
70회	'89. 9.26~10. 1	경 기	34	7	32,392	41	44	60
71회	'90.10.15~10.21	충 북	35	8	29,973	38	36	48
72회	'91.10. 7~10.13	전 북	35	8	31,724	35	51	54
73회	'92.10.10~10.16	대 구	35	7	35,526	46	39	61
74회	'93.10.11~10.17	광 주	35	10	32,015	39	33	65
75회	'94.10.27~11. 2	대 전	35	11	29,347	30	43	43
76회	'95.10. 2~10. 8	경 북	35	9	33,274	39	44	56
77회	'96.10. 7~10.13	강 원	35	9	32,912	46	31	61
78회	'97.10. 8~10.14	경 남	36	11	32,358	38	38	48
79회	'98. 9.25~10. 1	제 주	36	8	36,540	41	49	49
80회	'99.10.11~10.17	인 천	36	11	31,837	38	43	49
81회	'00.10.12~10.18	부 산	38	11	32,765	36	39	67
82회	'01.10.10~10.16	충 남	38	10	34,126	41	45	58
83회	'02.11. 9~11.15	제 주	38	12	35,803	42	49	59
84회	'03.10.10~10.16	전 북	38	7	38,441	50	44	66
85회	'04.10. 8~10.14	충 북	40	7	38,829	60	45	63
86회	'05.10.14~10.20	울 산	41	9	37,759	50	41	79
87회	'06.10.17~10.23	경 북	41	8	37,780	51	59	64
88회	'07.10. 8~10.14	광 주	41	12	35,112	52	35	61
89회	'08.10.10~10.16	전 남	42	3	54,720	50	55	84
90회	'09.10.20~10.26	대 전	44	10	37,799	48	47	66
91회	'10.10. 6~10.12	경 남	44	10	30,091	47	36	69
92회	'11.10. 6~10.12	경 기	45	11	28,065	34	42	58
93회	'12.10.11~10.17	대 구	45	12	28,471	39	49	58
94회	'13.10.18~10.24	인 천	46	13	27,295	41	49	52
95회	'14.10.28~11. 3	제 주	47	12	31,570	38	52	95
96회	'15.10.16~10.22	강 원	47	12	29,746	33	55	55
97회	'16.10. 7~10.13	충 남	47	14	28,791	33	43	81
98회	'17.10.20~10.26	충 북	46	13	30,738	47	55	68
99회	'18.10.12~10.18	전 북	47	10	32,708	48	43	73
100회	'19.10. 4~10.10	서 울	47	13	31,248	40	50	63
101회	코로나19로 순연	-	-	-	-	-	-	-



제8장 전국소년체육대회

1. 전국소년체육대회 연혁 및 전남의 참가

1) 연혁 및 개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구호 아래 열린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지덕체를 연마하는 전인적 체육대회로 개최되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1971년 이전에는 전국체육대회의 중등부 대회로 실시돼왔으나 1972년초 전국적으로 스포츠소년단이 조직돼 전국스포츠소년대회로 분리,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그해 6월 16일 서울 동대문운동장에서 11개 시도 스포츠소년단이 참가해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를 개최했는데 이게 전국소년체육대회의 출발이 된 것이다. 이후 1975년 제4회 대회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전국소년체전 창설은 소년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국체육대회를 축소하는 두가지 측면을 고려한 게 동기가 됐다. 초중학생들만의 체육대회 개최로 체육이 지육·덕육과 함께 교육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체육인구의 저변을 확대해 체육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회체육의 기반이 되는 학교체육에서 우수 선수를 조기 발굴, 과학적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했다. 대회 참가자격은 각 경기단체 선수등록을 마친 전국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으로 초등학교생은 만 12세 이하, 중학생은 만 15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다.

경기종목은 제1회 대회때 육상, 수영, 야구, 배구, 농구, 탁구, 핸드볼, 체조, 배드민턴, 씨름, 테니스, 정구, 럭비풋볼, 유도, 검도, 하키, 펜싱, 태권도 등 19개 종목이었고 그뒤 점차 확대해 나갔다. 참가인원은 1회~10회 대회 6천~7천명에서 15회 대회 1만1천837명, 16회 대회 1만2천928명 등 전국체전 버금가는 규모로 확대됐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록과 수준이 향상돼 우수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이 대회를 통해 발굴, 배출되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와 운동선수 저변확대도 이뤄졌다.

그러나 대회 규모가 커지면서 각 시도간 과열경쟁현상이 빚어져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1989년 제18회 대회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가 폐지되고 각 시도교육위원회 주최로 전환해 개최되어오다 1992년 제21회 대회때부터 재차 부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전남선수단의 소년체전 참가

전남선수단은 1972년 제1회 대회때부터 참가하기 시작했다. 첫 대회에 육상 등 19개 전종목에 753명을 출전시켜 종합8위를 차지하는 중위권 성적을 거뒀다. 특히 이 대회때 신안 사치분교 학생들이 남초부 농구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관심을 받아 훗날 영화(섬개구리 만세)로도 제작되며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전남은 제1회 대회부터 1986년 광주와 분리되기 전까지 중상위권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광주가 분리돼 떨어져 나간 1987년 제16회 대회때부터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져 하위권 성적으로 부진했다. 선수 확보라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 전남 분리가 이뤄져 빚어진 결과였다.

실제 제1회 8위, 제2회 5위, 제3회 9위, 제4회 5위, 제5회 5위, 제6회 3위, 제7회 4위, 제8회 9위, 제9회~제10회 종합채점제 폐지, 제11회 2위, 제12회 5위, 제13회 2위, 제14회 5위, 제15회 4위 등이었다. 광주가 분리된 이후 치러진 제16회 대회와 제17회 대회때 각각 12위를 기록하는 등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이후 1989년 제18회 대회때부터 1991년 제20회 대회까지 시도교육위원회 주최로 이관, 개최됨에 따라 전국 순위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러다 1992년 제21회 대회때 전국소년체전이 다시 부활됐는데, 이때부터 현재까지 개인시상만 실시하고 있어 전국 순위에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순위를 따져 보는 정도로 바뀌었다.

자료 확보의 한계로 전남선수단의 활약상, 성적 등을 전국소년체전이 부활된 제21회 대회때부터 별도 정리기로 했다.

2.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제21회 ~ 제49회)

1) 제21회 전국소년체전(1992, 서울)

서울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전남은 금5 은10 동11 등 총 2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2) 제22회 전국소년체전(1993, 서울 · 경기)

제22회 전국소년체전에 전남은 26개 전 종목에 걸쳐 816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10, 은10, 동25 등 총 4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종목별 메달은 육상에서 금4, 은3, 동3 등 10개의 메달을 수확했고, 복싱에서 금1, 은2, 동2 등 총5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역도에서는 금1, 은1, 동4개 등 6개의 메달을, 씨름에서 금1, 은1, 동5 등 7개의 메달을, 사격에서 금1, 동2 등 3개의 메달을, 태권도에서 금2, 동1 등 3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전남 최우수선수는 육상에서 2관왕을 차지한 광양옥곡중 임진수가, 역도에서 3관왕을 차지한 보성득량중 정용주 선수가 영예를 안았다.

3) 제23회 전국소년체전(1994, 광주)

광주에서 열린 제23회 대회에서 전남은 총 26개 종목에 82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19, 은10, 동19 등 총48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종목별 메달은 육상 금2, 은2, 동4 등 8개를, 축구 금1개를, 정구 금2개를 럭비 금1개를, 검도 금1개를 획득했다. 또 사이클 금1, 은1, 동1 등 3개의 메달을, 복싱 금1 은2, 동3 등 6개의 메달을, 레슬링 금3, 동1 등 4개의 메달을, 씨름 금2, 동2 등4개의 메달을 태권도 금2, 동3 등 5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4) 제24회 전국소년체전(1995, 대전)

대전에서 열린 제24회 대회에서 전남은 26개 종목에 839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14, 은8, 동25 등 총 47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종목별로는 육상 금1, 은1, 동5 등 7개의 메달을, 축구 금1개, 정구 금2개, 탁구 금1개, 복싱 금2, 은1, 동2 등 5개의 메달을, 레슬링 금1, 동3 등 4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또 역도에서 금3, 은3, 동4 등 10개의 메달을, 체조에서 금1, 동1 등 2개의 메달을, 태권도에서 금2, 동1 등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대회신기록이 육상과 역도에서 각각 1개가 나왔고, 중학생신기록도 역도에서 4개나 나왔다.

5) 제25회 전국소년체전(1996, 경북)

제25회 대회에 전남은 총26개 종목에 904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14, 은15, 동28 등 총 57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육상에서 금1, 은3, 동6 등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해 수영, 정구, 복싱, 레슬링, 씨름, 양궁, 체조, 태권도 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양궁에서는 금5, 은4, 동2 등 11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영공의 여수문수중 최미연 선수는 중학생신기록을 3개나 작성하는 수훈을 세우기도 했다.

6) 제26회 전국소년체전(1997, 강원)

강원도에서 열린 제26회 대회에서는 674명의 전남 선수가 출전하여 금19, 은20, 동18개를 획득했다. 특히 여중부 양궁은 전 종목을 석권함으로써 전국 최강임자를 확인하였으며, 여수 문수중 박미경과 구례여중 왕수임이 3관왕을 차지하고, 육상에서 함평초등학교 정창숙 선수가 2관왕을 차지하였다.



7) 제27회 전국소년체전(1998, 경남)

제27회 전국소년체전에 전남은 총 26개 전 종목에 1천6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 16, 은20, 동34 등 총 7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종목별로 육상에서 금1, 은4, 동1 등 6개의 메달을 수확했고, 레슬링에서는 금2, 은1, 동4 등 7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역도에서 금3, 은2, 동1 등 6개의 메달을, 양궁에서 금1, 은1, 동4 등 6개의 메달을, 체조에서 금4, 은4, 동1 등 9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펜싱에서 금1, 동1 등 2개의 메달을, 배드민턴에서 금2, 동2 등 4개의 메달을, 태권도에서 금2, 은1, 동3 등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8) 제28회 전국소년체전(1999, 제주)

1999년 제28회 대회부터는 전년도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한 지역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28회 제주도 대회에서는 배드민턴 남초 단체전에서 화순초등학교가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전남은 사이클 남중부 1km, 여중부 200m, 수영 여초부 저학년 수영 평영 50m, 여중부 수영 자유형 100m, 양궁 여초부 30m에서 금메달을 수확했다. 남중부 역도에서 완도중학교 지훈민 선수가 45kg급 용상에서 은메달, 인상에서 금메달, 합계에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2관왕을 차지하였다.

체조 남중부에서 영광중학교 김승일 선수가 개인전 안마, 철봉, 평행봉, 개인종합에서 금메달을 획득, 4관왕을 차지하였다. 또한 카누 남중부 C1 500m와 펜싱 남중부 단체전에서 산이중학교가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이 대회에서 전남은 금17, 은19, 동26 등 총 6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9) 제29회 전국소년체전(2000, 인천)

개인별, 종목별 시상만 하는 제2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나주다시중 김수현/류진아(사이클), 영광중앙초 이광률(체조 금5), 완도중 정재훈(역도 금2), 고흥중 김승규(역도 금3), 목포향도여중 곽선미(육상 금3) 등이 금메달을 수확했다. 단체전에서도 화순초(배드민턴), 옥곡초(정구), 화순초(야구), 순천중앙초(축구), 여수중흥초(탁구), 화순동면중(펜싱 사브르), 해남산이중(펜싱 에페), 목포중앙여중(하키) 등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은 이 대회에서 금27, 은21, 동24 등 총 7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6위라는 호성적을 거뒀다.

10) 제30회 전국소년체전(2001, 부산)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나주다시중 류진아(사이클 금3), 김수현(사이클 금2), 영광초 조상호(체조 금5), 장형구(체조 금1), 광양중마초 이지은(수영 금1), 장성삼계중 조아름(수영 은2), 전남체육중 서해준(육상 은1.동1), 나주초 정세영(물리 은

1/한국신기록) 등이 각각 다메달을 획득하였다. 단체전에서는 배드민턴에서 이용대 선수 등이 출전한 화순중이 우승을 했고, 양궁에서도 여수문수중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배드민턴에서 올림필 금메달을 획득하며 일약 스타 반영에 오른 이용대는 이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다.

전남은 이들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금16, 은17, 동32 등 총 6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광양중마초 이지은(수영)

11) 제31회 전국소년체전(2002, 충남)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완도중 김정민(역도 금3), 전남체육중 서행준(육상 금2)이 다메달을 획득했다. 서행준(전남체육 육상), 김지연(전남체육 수영), 신성규(완도중 역도) 등은 각각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기도 했다.

12) 제32회 전국소년체전(2003, 제주)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16, 은17, 동32 등 총 6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고흥여중 류화정이 볼링에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며 2관왕(개인, 단체전)에 올랐다. 화순중(배드민턴 단체), 순천연향중(배드민턴), 화순제일중(배드민턴), 광양옥곡초(정구), 순천삼산중(정구), 목포중앙여중(하키), 순천중앙초(축구) 등이 단체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3) 제33회 전국소년체전(2004, 전북)

제33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전남은 금30, 은20, 동32 등 총 8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완도중 정혁기가 3관왕을 차지한 것을 비롯해, 동광양중 이지은 수영 2관왕, 나주중 정세영 인라인롤러 2관왕 등 다관왕 선수도 나왔다. 단체전에서는

화순제일초 배드민턴이 남초부와 여초부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한 것을 비롯 화순초 야구, 해남산이중 남중부 펜싱, 함평여중 여중부 펜싱, 목포중앙여중 여중부 하키 등이 우승을 차지했다.

14) 제34회 전국소년체전(2005, 충북)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20, 은22, 동22 등 총 6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체육중 김성호 선수가 육상 200m와 세단뛰기에서, 전남체육중 정주영 선수는 육상 100m와 멀리뛰기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 2관왕에 올랐다. 정구에서 남초부, 남중부, 여중부 등 3개 종별에서 우승을 차지하여 정구 종목 강자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씨름에서 박정민(광양중앙초), 박진우(장흥관산중)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였고, 볼링에서 고희여자중 전귀애 선수는 금메달 2개를 획득하였다.

15) 제35회 전국소년체전(2006, 울산)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19, 은23, 동22 등 총 6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여천중 박종우(볼링)선수와 구례여중 한경희(양궁)선수가 각각 금메달 2개씩을 획득, 2관왕에 올랐다. 단체 종목에서는 정구(남초 전남선발), 배구(순천대석초), 탁구(여중 전남선발)팀이 각각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기록종목에서는 목포서부초 고평안(육상), 오성초 문지영(수영 자유형 200m), 나주다시중 홍현지(자전거), 여수여중 남현수(사격), 나주중 박응배(인라인롤러)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6) 제36회 전국소년체전(2007, 경북)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17, 은25, 동36 등 총 7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체육중 윤다미(역도 3관왕), 담양중 김영재(사격 2관왕)선수가 다관왕에 올랐고, 정구 단체전에서 남초초등부와 여자초등부 전남선발팀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또한 전남체육중 황현태 선수는 육상(멀리뛰기)에서 7m22cm의 기록으로 부별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17) 제37회 전국소년체전(2008, 광주)

제3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29, 은23, 동40 등 총 9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호성적을 거뒀다. 보성중 이한송(역도 3관왕), 보성여중 최다혜(역도 3관왕), 금성중 남승우(자전거 2관왕), 곡성중 이영승(볼링 2관왕), 나주초 강태욱(인라인롤러 2관왕) 선수가 각각 다관왕에 올랐다. 또한 축구에서 여중부(광영중)와 남중부(광양제철중)가 동반 우승하며 전남 축구 실력을 한껏 뽐냈다.

18) 제38회 전국소년체전(2009, 전남)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30, 은19, 동45 등 총 94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광양제철초 김찬호(인라인롤러 3관왕), 고흥여중 이다정·이수지(볼링 2관왕), 전남체육중 김영은(역도 2관왕)선수가 각각 다관왕에 올랐다. 단체전의 경우 배구에서 목포하당초(여초), 순천팔마중(남중)이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다.

19) 제39회 전국소년체전(2010, 대전)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40, 은31, 동41 등 총 112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정구에서 남초, 여초, 남중, 여중 선발팀이 전 종별 석권이라는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하였고, 배구에서 순천팔마중(남중)과 목포영화중(여중)이, 소프트볼에서 순천동산여중이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기록종목에서 광양제철초 이수진(인라인롤러 2관왕), 김선엽(인라인롤러 2관왕), 고흥중 신영용(역도 2관왕), 전남체육중 임효정(양궁 2관왕), 곡성중 이영승(볼링 2관왕), 목포하당중 김민웅(수영 2관왕)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여 다관왕에 등극하였다.



곡성중 이영승 선수(볼링 2관왕) / 가운데

20) 제40회 전국소년체전(2011, 경북)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32, 은21, 동32 등 총 85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완도중 이양재(역도 3관왕), 광양제철중 김찬호(인라인롤러 2관왕), 광양제철초 최정미(인라인롤러 2관왕), 고흥여중 장하은(볼링 2관왕), 곡성중 김예솔(볼링 2관왕) 선수가 각각 다관왕에 등극하였다.

또한 완도중 이양재(역도), 전남체육중 고호재(태권도), 고흥여중 장하은(볼링), 광영중 김성미(축구), 순천대석초 최은석(배구)선수가 각각 종목별 최우수선수에 선정되었다.

21) 제41회 전국소년체전(2012, 경기)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33, 은31, 동38 등 총 10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광양제철중 양하영(인라인롤러 3관왕), 광양제철중 김찬호(인라인롤러 2관왕), 목포한빛초 문지현(수영 2관왕), 전남체육중 임다솔(수영 2관왕), 영광중앙초 채상진(체조 2관왕) 선수가 각각 다관왕에 등극하였다.

또한 순천풍덕중 이은경 선수는 양궁 40m에서 부별타이기록을 수립하였고, 전남체육중 임다솔(수영 배영 100m)선수와 순천동명초 조영민(육상 100m)선수는 대회신기록을 수립하였다.

22) 제42회 전국소년체전(2013, 대구)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23, 은18, 동39 등 총 80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고흥중 강태민(역도 3관왕), 곡성중 한진아(볼링 2관왕), 여수여문초 문지윤(인라인롤러 2관왕), 광양제철중 이수진(인라인롤러 2관왕) 선수가 각각 다관왕에 올랐다.

레슬링에서 함평중 김승우·김보성 선수와 전남체육중 신영철·주현중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태권도에서 전남체육중 임금별·신동훈 선수와 목포유달중 배운민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또한 곡성중 한진아(볼링), 전남체육중 임금별(태권도), 목포유달중 배운민(태권도), 여수여문초 문지윤(인라인롤러)선수가 종목별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었다.

23) 제43회 전국소년체전(2014, 인천)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22, 은19, 동36 등 총 7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나주다시중 정설화(자전거 4관왕), 완도중 임진강(역도 3관왕), 안산중 임소리(인라인롤러 2관왕), 일로초 김건우(양궁 2관왕), 나주다시중 김송이·추수빈(자전거 2관왕), 광양중마초 오주휴(수영 2관왕) 선수가 다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나주다시중 정설화(자전거), 화순제일중 김정미(펜싱), 무안일로초 김건우(양궁), 목포제일중 유현인(볼링) 선수는 각각 종목별 최우수선수에 선정되었다.

24) 제44회 전국소년체전(2015, 제주)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20, 은27, 동29 등 총 76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고흥중 신비 선수는 역도에서 금메달 3개를 차지하였고, 광양백운중 정서희 선수는 육상(멀리뛰기)에서 3년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수여중 사격팀은 대회신기록을 작성하였고 순천팔마중 안지원(배구)선수는 종목별 최우수선수에 선정되었다.



25) 제45회 전국소년체전(2016, 강원)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28, 은33, 동38 등 총 99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영광중앙초 김선우(체조 3관왕), 구례중앙초 황국희(양궁 2관왕), 안산중 문지윤(인라인롤러 2관왕), 여수여문초 이유진(인라인롤러 2관왕), 금성중 강서준(자전거 2관왕), 순천왕지초 강은후(수영 2관왕), 동광양중 왕희송(수영 2관왕) 선수가 각각 다관왕을 차지했다.

또한 금성중 강서준(자전거), 동광양중 왕희송(수영) 선수는 대회신기록을 수립하였고, 구례중앙초 황국희(양궁) 선수는 부별신기록을 수립하였으며 순천신흥초 김보경(유도), 금성중 강서준(자전거), 전남체육중 양은호(레슬링), 고흥동초 박영주(정구) 선수가 각각 종목별 최우수선수에 선정되었다.

26) 제46회 전국소년체전(2017, 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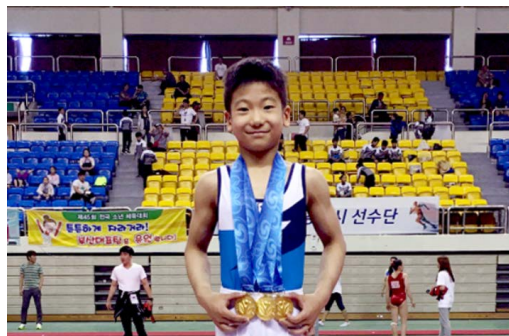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전남선수단 종합 3위, 역대 최고 성적(자체 평가)'을 거양한 대회로 기록됐다. 전남은 이 대회에서 메달도 금40, 은28, 동31 등 99개나 획득했다.

전남체육중 조민재(역도 3관왕), 전남체육중 이승현(역도 3관왕), 고흥중 신록(역도 3관왕), 완도중 강민우(역도 3관왕), 영광중앙초 김선우(체조 3관왕) 선수 등 5명의 선수가 각각 금메달 3개씩을 획득하였다.

전남체육중 2년 김수빈(자전거 2관왕), 전남체육중 3년 김수빈(자전거 2관왕), 진성여중 김혜진(자전거 2관왕), 동광양중 왕희송(수영 2관왕), 목포제일중 문인창(수영 2관왕), 구례여중 손예령(양궁 2관왕), 전남체육중 박지현(육상 2관왕), 영광중앙초 나종빈(체조 2관왕) 선수 등 8명의 선수가 각각 금메달 2개씩을 획득하였다.

영광해룡중 이승현(검도), 완도중 강민우(역도), 망운중 서진원(골프), 구례여중 손예령(양궁), 고흥동초 이종민(정구), 순천팔마중 김영태(배구), 영광중앙초 김선우(체조) 선수 등 7명의 선수가 종목별 최우수선수에 선정되었다.

동광양중 왕희송(수영), 금성중 강서준(자전거), 영광중앙초 김선우(체조), 정구 전남선발팀은 2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영광중앙초 김선우(체조 3관왕)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순천팔마중 배구 우승

27) 제47회 전국소년체전(2018, 충북)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32, 은23, 동37 등 총 9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체육중 조민재(역도 3관왕), 영광중앙초 김선우·나종빈(체조 3관왕)선수가 각각 금메달 3개씩을 획득하였다.

순천향림중 김준호(사격 2관왕), 전남체육중 정경진(근대3종 2관왕), 전남체육중 김수빈·나성령·나윤서(자전거 2관왕), 동광양중 왕희송(수영 2관왕) 선수가 각각 금메달 2개씩을 획득하였다.

동광양중 왕희송(수영), 정구 전남선발팀은 3년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였다. 순천향림중 김준호(사격), 전남체육중 정경진(근대3종), 구례여중 주수현(볼링), 영광중앙초 김선우(체조), 녹동초 배준솔(배구), 전남체육중 나홍민(레슬링), 고흥동초 정인서(정구) 선수 등 7명은 종목별 최우수선수에 선정되었다.

28) 제48회 전국소년체전(2019, 전북)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은 금26, 은23, 동25 등 총 7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체육중 조민재(역도 3관왕), 순천성남초 조한이(양궁 3관왕)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3개씩 획득하였다.

빛가람중 나윤서(자전거 2관왕), 전남체육중 김채연(자전거 2관왕), 여수안산중 이윤희(인라인롤러 2관왕), 영광중앙초 오채준(체조 2관왕), 전남체육중 이은빈(육상 2관왕) 선수가 각각 금메달을 2개씩 획득하였다.

또한 순천성남초 조한이(양궁), 전남체육중 김채연(자전거), 전남체육중 조민재(역도), 영광중앙초 오채준(체조), 광양중앙초 이수민(축구)선수 등 5명은 종목별 최우수선수에 선정되었다.



29) 제49회 전국소년체전(2020, 미개최)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되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남 입상 실적

연번	연도	대회횟수	장소	입상실적			
				금	은	동	계
2	1993	제22회	서울	5	10	11	26
3	1994	제23회	서울/경기	10	10	25	45
4	1995	제24회	광주	19	10	10	39
5	1996	제25회	대전	14	8	25	47
6	1997	제26회	경북	14	15	28	57
7	1998	제27회	강원	19	20	18	57
8	1999	제28회	경남	19	21	36	76
9	2000	제29회	제주	18	18	28	64
10	2001	제30회	인천	28	21	22	71
11	2002	제31회	부산	17	22	33	72
12	2003	제32회	충남	19	18	36	73
13	2004	제33회	제주	18	19	33	70
14	2005	제34회	전북	30	20	32	82
15	2006	제35회	충북	20	22	26	68
16	2007	제36회	울산	19	23	22	64
17	2008	제37회	경북	17	25	36	78
18	2009	제38회	광주	29	23	40	92
19	2010	제39회	전남	30	19	45	94
20	2011	제40회	대전	40	31	41	112
21	2012	제41회	경남	32	21	32	85
22	2013	제42회	경기	33	31	38	102
23	2014	제43회	대구	23	18	39	80
24	2015	제44회	인천	22	19	36	77
25	2016	제45회	제주	20	27	29	76
26	2017	제46회	강원	28	33	38	99
27	2018	제47회	충남	40	28	31	99
28	2019	제48회	충북	32	23	37	92
29	2020	제49회	전북	26	23	25	74
29	2020	제49회	코로나19로 미개최				

제9장 전국동계체육대회

1. 전국동계체육대회 연혁 및 전남의 참가

1) 연혁 및 개관

대한체육회 70년사에 따르면 근대스포츠 등장 이후, 1920년대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전국체육대회는 순전히 계절적 이유로 하계 체육대회(수영-경영, 다이빙, 수구 등), 추계 체육대회(조정)로 나뉘어 개최돼 왔다. 이렇게 하계대회를 20년 넘게 개최해 오다 1970년 태릉선수촌에 국제규격의 실내 국제수영장이 개장,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대회를 열 수 있게 되면서 하계대회가 추계대회와 통합되었다. 겨울 스포츠인 동계빙상대회와 동계스키대회는 이와는 별도로 개최해오던 중 1986년 제67회부터 하나로 합쳐 동계체육대회로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동계체전 모태인 빙상대회는 1920년 한강 특설링크에서 열린 ‘전 조선빙상경기대회’가 효시이며 대회 횟수는 전국체육대회를 따르고 있다. 빙상대회는 일제치하인 1935년 제12회 대회를 끝으로 중단됐었는데, 해방해인 1945년 10월 27일 서울운동장에서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제26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부활하게 됐다. 이듬해인 1946년 1월 29일 한강특설링크(스피드 스케이팅)와 창경원링크(빙구)에서 빙상대회가 재개되었으니 이 대회가 이후 동계빙상대회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또 동계스키대회는 동계빙상대회 개최 이듬해인 1947년 제27회 전국체육대회가 되는 조선올림픽대회의 동계스키대회로 첫선을 보였다. 곧 1947년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 동안 전남지역 지리산 노고단에서 거행된 경기가 전국스키대회 효시가 된 셈이다. 경기종목별로 보더라도 50km, 15km 크로스컨트리, 15km 릴레이, 회전, 활강, 신복합경기 등 구색도 제법 갖추어 치러졌던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 대회 이후 스키대회는 설비부족과 계절적 제약 등의 어려움 속에 제28회(1948년) 대회는 건너뛰고, 제29회(1949년) 대회도 간략하게 개최됐을 뿐이었다. 이후 6·25전쟁으로 1950년의 제30회 대회와 1951년 제31회 대회도 건너뛰었다. 또 1952년의 제32회 대회를 개최하긴 했으나 스키경기는 갖지 못했다. 스키경기가 다시 선보인 것은 1953년 2월 26일부터 4일간 대관령 스키장에서 개최된 제33회 전국체육대회의 동계대회이며, 그때서야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86년 제67회 대회 때부터 빙상대회와 스키대회가 통합돼 공식적인 전국동계체육대회의 형식을 갖추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전국동계체전은 제67회 대회가 사실상 첫 대회가 된 셈이다.



2) 전남의 참가 경위

그럼에도 전남은 1946년 제26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 개최 이후, 1989년 제70회 동계체육대회까지 4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참가하지 못한 동계스포츠 불모지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기후가 온난한 지역적인 특성상 빙상, 스키에 대한 관심 저조, 스키가 부유층들만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참가에 대한 열의도 떨어져 있던 게 사실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관심에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예산에 대한 뒷받침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동계스포츠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지기 위해 동계종목 경기단체 결성을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희망해왔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는 전국체전 예산확보에 전전공공해야 하는 마당에 동계체전 예산까지 확보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제70회 동계체전이 열렸던 1989년에야 전남은 (인근 광주는 세 번째 참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44년째 출전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자책하며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뜻있는 스키동호인들이 중심이 돼 전남의 동계체전 참가에 대한 의지를 다져 나갔다. 그러다가 그해 9월 1일 박경중(스키동호인, 나주문화원장) 씨와 주동엽(스키동호인, 동신대 교수) 씨가 주축이 돼 전남스키협회 창립총회를 갖고, 전남체육회 35번째 가맹경기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박경중 씨가 초대회장을, 주동엽 씨가 초대 전무이사를 맡았다.

전남스키협회는 이듬해인 1990년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태릉, 용평 등지에서 개최된 제71회 동계대회에 참가함으로써 전남의 전국동계체전 참가 시초가 됐다.

2.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제71회 ~ 101회 대회)

1) 제71회 전국동계체전(1990년) (전남종합성적 : 14위, 13점)

전남이 첫 출전한 제71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21일 서울과 강원도 용평에서 개막식을 갖고 23일까지 사흘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전국 13개 시도 및 재미·재일 동포 등 1천747명(임원 591명, 선수 1천15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선수들은 각기 고장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 메달 레이스를 벌였다.

3일간 열전을 벌인 끝에 서울이 금77, 은80, 동53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경기도가 준우승, 강원도가 3위에 올랐다. 전남보다 먼저 출전하기 시작해 4번째 출전인 광주는 종합10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스키와 바이애슬론 등 2개 종목에 임원 28명, 선수 13명 등 총 41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순위 경쟁을 벌인 끝에 금3, 은3, 동1 등으로 총득점 13점을 따내며 종합 14위를 기록했다. 순위 경쟁이라기보다는 처녀 출전이니 만큼 참가하는데 의미를 뒀다고 표현하는 게 옳다.

두번째 출전인 전남은 은1, 동3 등으로 총 13점을 따내며 종합13위에 올랐다. 전남은 순위에서는 전년도 종합14위에서 13위로 1계단 상승했지만, 메달 수에 있어서는



전년도 금3, 은3, 동1 등에 비해 훨씬 저조한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종합순위는 메달 수 기준이 아니라 종합득점제 규정에 따라 배점이 많은 종목에 상위 랭크돼야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전남은 스키 노르딕 남자일반부 30km에 출전한 유재환(전남스키협회)이 은메달을 획득하며 전남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유재환은 또 노르딕 15km 개인경기와 바이애슬론 10km 개인경기에서도 각각 동메달을 보탰다. 또 노르딕 40km 계주에 출전한 동신공대 팀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동신공대 팀의 노르딕 40km 계주 동메달은 초속 30km 강풍에 영하 20도의 악조건 속에서 완주해 얻은 메달로 불굴의 의지와 끈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동메달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은 국가대표인 박철성 선수가 일본 삿포로 동계유니버시아드 출전 관계로 불참한 데다 바이애슬론에 출전한 호남원예고 팀의 현지적응훈련 부족으로 입상 탈락한 점 등이 성적 저조의 원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전남체육회 관계자들의 “동계종목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도 시정돼야 할 대목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3) 제73회 전국동계체육대회(1992년) (전남종합순위 : 13위, 21점)

제73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26일 서울시 목동아이스링크와 용평 스키장에서 동시 개최식에 이어 3일간의 열전으로 치러졌다. 빙상·아이스하키·바이애슬론·스키 등 4개 정식 종목에 걸쳐 전국 13개 시도와 재미·재일 동포 등 15개 팀 2천49명(임원 571명, 선수 1천478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졌다.

특히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서 경이적인 성적을 올린 한국선수단이 개선한지 하룻만에 열린 대회여서 스타 선수들의 각 고장을 위한 경쟁도 뜨거웠다. 선수대표단의 선서와 함께 열전에 들어가 추운 겨울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뽐어내는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그 결과 전년도에 이어 서울이 금메달 81개, 은메달 57개, 동메달 56개로 총 336점을 획득하며 종합1위를 굳건히 지켜냈다. 광주는 65명(임원 10명, 선수 55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은2, 동3 등으로 총 35점을 획득해 종합8위에 올랐다.

전남은 38명(임원 14명, 선수24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스키와 바이애슬론 종목에서 타 시도 선수들과 메달 경쟁을 벌였다. 첫날 바이애슬론 남일반 15km계주에 전남선발로 출전한 유재환·임용민·박철성은 경기, 전복에 이어 3위로 골인,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은 광주체고 동기들로 체고 시절 사격과 육상 선수로 활약했으나 바이애슬론으로 전향, 피나는 노력 끝에 지난 71회 대회부터 계속 입상해와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들은 또 바이애슬론 40km계주에서도 서원범과 함께 4명이 팀을 이뤄 2위로 골인했으나 서원범이 대학부 선수로 등록돼 실격 당하기도 해 선수 관리와 얹은 선수층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다.

스키에서는 남일 노르딕 30km에 출전한 박철성(전남선발)이 은메달을 선사했다. 전남은 스키와 바이애슬론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면서 총 21점을 획득, 종합13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와 같은 순위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순위 상승을 바

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대회였다.

이 대회까지 세 번째 출전한 전남은 첫 출전 당시인 제71회 대회 때 금3, 은3, 동1을 획득한 점이나 두 번째 출전인 72회 대회 때 은1, 동3을 획득한 것에 비해서도 훨씬 못미친 성적을 얻었다. 참가 종목이 바이애슬론과 스키 노르딕에 한정돼 있는 등 한계도 드러내 이대로라면 더 이상의 성적 상승을 기대할 수 없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참가한 종목들에 있어서도 성적이 자꾸 뒷걸음질 치는 점도 되돌아봐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기존 선수들 이외에 새로운 선수들의 영입·육성과 이번에 노메달에 그친 고등부 호남원예고 바이애슬론 선수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는 분석이었다.

4) 제74회 전국동계체육대회(1993년) (전남종합순위 : 13위, 30점)

제74회 동계체육대회는 2월 17일 목동 아이스링크와 알프스리조트 스키장에서 19일까지 사흘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전년도 우승 팀인 서울을 비롯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와 재미·재일 동포 등 15개 팀 2천500여명(임원 504명, 선수 1천99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각기 고장과 개인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 각 시도 선수들은 바이애슬론,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등 4종목에 걸쳐 태릉과 목동, 알프스 스키장 등지에서 경기를 치렀고,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한국스키(썰매) 종목에서도 기량을 겨뤘다.

이 대회 역시 대규모 선수단을 꾸려 전 종목에 걸쳐 선수를 참가시킨 서울이 종합1위를 차지했다. 광주는 총 60점을 획득해 종합7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을 굳건히 지켜 전남의 부러움을 샀다.

이 대회부터 최우수선수상을 신설했는데, 대구 정화여중 김양희 선수가 쇼트트랙 등에서 비공인 세계신기록 및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는 대활약을 펼쳐 첫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전년도와 같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총 30점을 획득하며 종합 13위를 지켜냈다. 하지만 전년도에 38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데 비해 이 대회에는 총 82명(임원 26명, 선수 56명)이라는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음에도 전년도 같은 초라한 성적을 거둬 전남의 동계체육 발전에 대한 많은 과제를 남긴 대회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전남은 바이애슬론 대학·일반부 10km에 출전한 유재환(전남스키협회)이 메달을 따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4위로 골인하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 아쉬움을 남겼다. 스키 노르딕 남일 40km 계주에 출전한 전남스키협회 김태운·서광현·송경수·유재환 선수조는 은메달을 선사해줬다. 마지막날엔 김태운이 스키 노르딕 남일 30km에 출전해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런 메달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를 통해 내실있는 투자와 유망선수 발굴, 예산 확보 등의 필요성도 절감해야 했다. 여수동국교 남국부 3명과 여국부 3명 등 6명이 스키 노르딕에 참가키로 했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끝내 불참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은 그 단적인 예였다.



성적 면에서 비록 초라했다 하더라도 선수단을 대폭 증원해 참가시키는 등 일단의 노력이 돋보여 전남 동계체육의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는 평이다.

5) 제75회 전국동계체육전(1994년) (전남종합순위 : 13위, 17점)

제7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체전 사상 처음으로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인 전북 무주와 서울 목동 실내링크, 태릉스케이트장에서 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일정으로 펼쳐졌다. 전년도 우승팀인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 및 재미 동포 등 2천 600여명(임원 508명, 선수 2천9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참가 선수들은 바이애슬론,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등 4개 정식종목에 걸쳐 각기 고장과 개인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레이스를 펼쳤다.

시도별 참가규모는 서울이 9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가 252명, 경기도 210명 등의 선수단을 꾸렸다. 반면 대전과 충남의 경우 참가 선수가 각각 5명과 3명에 불과하는 등 초미니 선수단을 꾸린 곳도 있었다.

전남은 27명(임원 6명, 선수 21명)으로 선수단을 꾸려 전년도 82명으로 선수단을 꾸린 것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성적 상승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었다.

선수들의 열전 결과 서울이 올해도 종합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전북은 사상 처음 무주에서 개최한 덕에 전년도 6위에서 4위로 상승하는 성적을 거뒀다. 이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빙상 스피드에 출전해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서울의 김창식(단국대) 선수에게 돌아갔다.

전남은 참가선수단 규모를 축소한데서도 예상됐었지만 초미니 선수단을 꾸린 대전과 충남을 제외하면 사실상 꼴찌인 13위를 기록했다. 순위는 전년도와 같은 13위이지만 그래도 전년과 전전년도에는 메달이라도 따냈었지만 그 해에는 단 1개의 메달도 따지 못하면서 참가 종목마다 메달권 밖의 등위에서 종합점수 17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전남은 애초 전년도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던 전남선발 김태운 선수에게 기대를 했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김태운은 스키 노르딕 남일 40km계주와 스키 노르딕 30km 개인전에 출전했었으나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기대를 모았던 노르딕 40km 계주에서 전남의 대학팀은 체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중도 포기를 했으며, 일반부는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로 출전을 포기하는 등 선수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이로써 전남은 결국 노메달에 그치며 최하위나 다름없는 만년 13위의 불명예를 남겼다. 더욱이 아쉬운 것은 이 대회가 이웃인 전북 무주에서 개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지 적응훈련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한히 해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첫 출전한 지난 71회 대회부터 74회 대회까지 모두 메달을 획득하며 그런 대로 성과를 보였었지만 이 대회에는 노메달에 그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말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선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27명의 선수단을 꾸리면서 스키 노르딕과 바이애슬론에 출전시키는 게 고작이었다. 빙상이나 아이스하키 분



야에는 단 1명의 선수도 출전시켜보지 못하고 0점 처리를 당하는 등 선수층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 스키부문도 기술을 요하는 알파인 경기에서는 1회전에서 탈락하는 취약성을 드러낸 반면 체력으로 승부를 거는 노르딕에만 강세를 보여 왔다. 이 대회에서는 그나마 노르딕에서도 중도 포기하거나 출전 자체가 무산되는 등 선수관리상 허점마저 드러내 지탄을 받기도 했다.

6) 제76회 전국동계체육대회(1995년) (전남종합순위 : 13위, 39점)

제7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7일부터 사흘간 서울, 경기, 강원도 등지에서 펼쳐졌다.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에 걸쳐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와 재미·재일 동포 선수단 등 2천600여 명(임원 525명, 선수 2천75명)이 참가한 가운데 저마다 고장의 명예를 걸고 결전을 벌였다.

참가 선수들이 9일까지 열린 경쟁을 벌인 결과 서울이 종합우승을 차지, 동계체전 사상 처음으로 10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빙상 쇼트트랙에 출전해 비공인 세계신기록이자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서울 정신여중 김윤미 선수가 차지했다.

전남은 전년도 노메달의 수모를 씻어내겠다는 각오로 전년보다 선수단의 규모도 대폭 증원, 총 99명(임원 23명, 선수 76명)으로 타 시도 선수들과 기량을 겨뤘다. 선수단 구성은 스키부에 알파인 27명, 노르딕 44명, 바이애슬론 18명 등이었다.

그 결과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등 메달 4개를 획득함으로써 노메달의 수모에서는 벗어났으나 종합점수 39점을 획득하며 전년과 같은 13위를 차지하는데 그쳐 의욕에 비해 수확은 별로 없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고 메달 수확도 해낸 만큼 그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특히 동신대 문희병·이상순·조동수·주본희 선수조가 스키 노르딕 남대부 40km 계주에 처음으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 했다. 또 김대용·김태운·유재환·최현배 선수조가 스키 노르딕 남자일반부 40km 계주에 출전해 은메달을 보냈다. 이 가운데 유재환은 전남선발로 수년째 출전하면서 꾸준한 성적을 내주고 있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동신대 김정희 선수는 스키 노르딕 여자일반부 6k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여고부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선수층이 그만큼 넓어진 것을 반증해줘 향후 전망을 밝게 하기도 했다. 병영상고 명광미·박미란·정수아 등이 바이애슬론 여고부 6km계주에서 동메달을 보태준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선수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최하위권이자 전년과 같은 종합13위에 머물고 있어 전남의 동계체육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7) 제77회 전국동계체육대회(1996년) (전남종합순위 : 10위, 57점)

제7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 태릉 빙상경기장, 용평 스키장 등지에서 개최됐다. 바이애슬론,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등 4개 정식종목과 자유참가종목인 장애인스키 등 종목에 걸쳐 서울 경기, 강원 등 전국 14개 시도와 재미·재일 동포 선수단 등 총 2천448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판 승부를 벌였다.

사흘간 열전을 벌인 결과 지난 대회까지 10연패를 달성했던 서울이 종합우승을 차지, 연패 기록을 11로 늘렸다. 광주는 총 119점을 획득하며 체전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인 종합6위에 올랐다. 최우수선상은 스키 노르딕에 출전해 3관왕을 차지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친 강원도스키협회 박병철 선수가 차지했다.

전남은 스키(알파인, 노르딕)와 바이애슬론 등 2개 종목에 총 71명(선수 59명, 임원 12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메달 경쟁을 벌였다. 전남도는 메달 수에 있어서는 동메달 3개 수확에 불과했으나 메달권 밖의 중위권에 랭크되는 선수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점수 면에서 총 57점을 획득하며 동계체전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인 종합10위에 랭크, 전년도 보다 3계단이나 상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스키 노르딕에 출전한 동신대 김정곤·조동수·조송현·주본희 선수조가 남대부 40km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 전남선발 김대용·김태운·송경수·유재환 선수조도 스키 노르딕 남일 40km 계주에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 가운데 유재환 선수는 전남이 동계체전 처녀 출전한 71회 대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출전, 꾸준한 성적을 내는 투혼을 발휘해 타 선수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동신대 김정희 선수도 스키 노르딕 여일 6km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밖에 고등부, 남국부, 여국부 등 선수들도 스키 노르딕, 스키 알파인, 바이애슬론 등 경기에 출전해 메달권에 입상은 못했으나 중위권에 오르는 선전을 해줬다.

전남의 이같은 성적 상승은 출전 선수들이 불굴의 의지로 투혼을 발휘해 메달을 따낸 것도 있지만 메달권 밖 선수들도 중위권에 랭크되는 등 선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또한 메달 수로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닌 종합득점제 시행으로 인해 출전 시도가 적은 종목에 점수를 많이 배정한 경기운영 규칙의 덕을 본 부분도 작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출전을 시키지 못해 0점 처리되는 종목들도 많아 선수층의 확대 등이 해결돼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8) 제78회 전국동계체육대회(1997년)(전남종합순위 : 10위, 73점)

제7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태릉, 목동, 용평 등지에서 3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충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선수단과 재미·재일·재캐나다 해외동포선수단 등 사상 최대 규모인 2천664명이 참가해 바이애슬론,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등 4개 정식종목과 1개 시범종목(컬링)에 걸쳐 각기 고장과 개인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

특히 이 대회부터는 기존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로 부르던 명칭을 정식으로 전국동계체육대회로 변경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동계체전으로의 그 위상도 격상되었다. 또한 그 동안 목동과 용평 등 2곳에서 열던 개폐회식도 용평리조트스키장 한 곳에 통합해 개최하는 걸로 정해 대회를 보다 질서있고 규모화하는 묘를 발휘했다.

대회 결과 서울이 12연패 기록 달성과 함께 난공불락의 팀으로써의 전력을 과시했다. 이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강원도스키협회 박병철 선수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3관왕에 오르며 최우수선수상 2연패의 기록도 세웠다.

전남은 스키(알파인, 노르딕), 바이애슬론 등 2개 종목에 총 78명(선수 59명, 임원 19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으로 총 73점을 획득하며 지난 대회에 이어 종합10위를 차지했다. 지난 대회와 같은 종합10위이긴 하지만 전년도 동메달 3개에 총 57점을 획득한 것에 비하면 크게 약진한 호성적을 냈다고 볼 수 있다.

종목별 메달 획득 현황은 동신대 김영훈·김정희·정은순 선수조가 스키 노르딕 여일 16km 계주에 출전해 꿈에도 그리던 금메달을 따내 전남선수단에 힘을 실어 주었다. 또 정은순은 스키 노르딕 여일 10km에도 출전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같은 스키 노르딕 여일 6km에도 출전해 동메달을 따내는 등 혼자 금, 은, 동 등 3개의 메달을 보태며 전남의 종합10위 사수에 수훈을 세웠다. 동신대 김영갑·김정곤·김치웅·주본희 선수조도 스키 노르딕 남대부 40km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 동신대 김영훈·김정희·정은순 선수조가 스키 노르딕 여일 16km 계주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이 동계체전에 처음 출전한 지난 71회 대회 금메달 이후 7년만의 금메달로 전남선수단에 큰 힘이 됐다.(사진은 개회식 공개행사 장면)

이처럼 전남이 만년 최하위권에서 벗어나 전년도에 이어 종합10위의 호성적을 낸 것은 스키 노르딕에서 집중적으로 점수를 따냈기 때문이다. 스키 노르딕 여자일반부 계주와 개인전에서 금, 은, 동메달을 휩쓴 것이 전년도와 같은 종합10위권을 사수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스키 노르딕에서 남대부 선수들도 역시 은메달을 획득해줌으로써 전남의 성적 유지에 보탬이 됐다. 또한 향후 전남의 순위 상승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게 해준 대회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다만 전남의 득점 종목이 스키 노르딕 한 종목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스키 알파인이나 빙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등에서도 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선수를 발굴 육성해야만 향후 상위권 진입도 내다볼 수 있다는 여론이었다.

9) 제79회 전국동계체육대회(1998년) (전남종합순위 : 13위, 52점)

제79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26일 태릉, 목동, 춘천 등지 경기장에서 3일간의 열전으로 치러졌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와 재미 동포 선수단 등 2천512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바이애슬론,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등 4개 정식종목과 1개 시범종목(컬링)에 걸쳐 28일까지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띤 순위 경쟁을 벌였다.

이 대회부터는 기존 스키 노르딕 종목의 명칭을 크로스컨트리로 변경하고, 각 시도 참가 선수 접수를 받아 경합을 벌였다.

대회 결과 서울이 또다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연패 기록을 13으로 늘렸다. 이웃 광주는 종합점수 129점을 획득, 전년도 종합7위에서 종합6위로 치고 올라가는 선전을 했다. 최우수선수상은 빙상 스피드의 최승용(서울 배화여고) 선수가 여고부 600m와 1,000m에 출전해 2개의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2관왕에 오르는 등 뛰어난 활약을 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바이애슬론,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등 2개 종목에 총 78명(선수 52명, 임원 26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으로 종합점수 52점을 획득하며 종합13위를 기록했다. 경쟁 시도인 충북, 충남, 경남 등에 밀리며 지난 77회 및 78회 대회 2번의 종합10위 성적에서 또다시 최하위권인 13위로 뒷걸음질 친 것이다.

전남 선수들의 종목별 메달 획득 현황은 동신대 김영훈·김정희·정은순 선수조가 크로스컨트리 여일 16km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 선수단이 더 이상의 순위 하락을 막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정은순은 또 크로스컨트리 여일 10km에도 출전해 은메달을 따내는가 하면 여일 6km에도 출전해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금, 은, 동 등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동신대 김영갑·김정곤·김치웅·주본희 선수조도 크로스컨트리 남대부 40km 계주에 출전해 은메달을 선사했다.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한 남일 김정곤(전남스키협회), 남대부 동신대 김기호, 오정민 등도 4, 5위로 골인하며 메달은 놓쳤으나 중상위권 성적으로 선전했다. 전남선발 김은숙도 여일 크로스컨트리에서 5위로 선전했다. 여중 크로스컨트리 7.5km에 출전한 보성 조성중 위선미·박지영·김수영 조도 4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남 선수들은 전년도 대회에 출전했던 기존 선수들은 선전했으나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등 신진 선수들이 부진을 면치 못하거나 아예 출전 선수를 못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실제로 전남은 빙상 종목의 경우 선수가 없어 출전조차 시키지 못하고 스키와 바이애슬론에만 선수를 출전시켰다. 스키도 노르딕에서만 38점을 획득해 이 종목 4위에 올랐으나 알파인에서는 겨우 6점을 따내며 최하위인 15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바이애슬론에서는 8점을 따내 이 종목 4위를 마크했다.

제81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6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개막돼 전국 14개 시도와 재일본 동포 선수단 등 총 2천569명이 참가한 가운데 3일 동안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참가 선수들은 바이애슬론,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등 4개 정식 종목과 1개 시범종목(컬링)에 걸쳐 각기 고장과 개인의 명예를 걸고 메달 경쟁을 벌였다. 그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켜온 서울이 이번에도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15연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금1, 은5, 동8 등으로 3년 연속 종합6위를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은 남고부 바



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해 금4, 은1을 따내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정의명(강원 강릉농공고) 선수가 영예를 차지했다.

전남은 스키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등 2개 종목에 총 89명(임원 32명, 선수 57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금메달 없이 은1, 동3 등으로 총 75점을 따내며 전년도와 같은 종합11위를 기록했다.

전남선수단의 주요 종목별 활약상을 살펴보면 동신대 김화영·이지애·정은순 조가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일 16km계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정은순은 크로스컨트리 클래식 6km와 프리 10km, 크로스컨트리복합 등에도 출전해 각각 동메달을 따내 전남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특히 정은순은 혼자 은1, 동3을 따내는 괴력을 발휘해 전남선수단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이 대회 역시 얇은 선수층의 문제를 드러내며 한자릿수 순위 진입에 실패해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전 종목도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알파인, 바이애슬론에 불과하다. 나머지 종목인 빙상의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에는 아예 선수도 출전시키지 못해 0점을 받았다.

12) 제82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01년) (전남종합순위 : 12위, 75점)

제82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21일 용평 스키장에서 개막돼 사흘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전국 13개 시도 및 재미 교포 선수 등 2천578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동계체육전은 스케이팅과 스키,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5개 정식종목과 자유참가종목인 장애인 스키 등 6개 종목에 걸쳐 모두 197개의 금메달을 놓고 열띤 메달 레이스를 벌였다.

특히 이 대회에는 그동안 시범종목으로 치러졌던 컬링이 정식종목을 채택돼 메달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됐었다. 이와 함께 컬링 고등부도 신설돼 경기를 치렀다.

23일까지 열전을 벌인 끝에 서울이 금62, 은55, 동42 등으로 종합득점 611점을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 대회 16연패를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스키 알파인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인 강원도 광산초 홀리본교 정동현·정혜미 선수가 공동 수상했다. 정동현은 스키 알파인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전남은 스키와 바이애슬론 등 2개 종목에 사상 최대 규모인 120명의 선수단을 꾸려 종합10위를 목표로 메달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 등 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했으나 전년도보다 1계단 처진 종합12위에 머물고 말았다. 전남은 지난 대회에 없던 금메달도 수확하는 등 선전을 했으나 종합득점에서는 타 시도 밀려 한 계단 물러앉아야 했다.

전남선수단의 주요 종목별 활약상을 요약하면 남대부 크로스컨트리 40km계주에서 동신대(오정민 신병국 김태영 이영섭)가 한국체대와 전남대를 각각 2, 3위로 밀어내며 전남선수단에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줬다. 이로써 동신대 스키팀은 지난 98, 99년에 이어 다시 정상에 회복했다.

크로스컨트리 여자대학부 15km계주에 나선 정은순·이지애·이소영(이상 동신대)

선수조도 1시간20분45초의 기록으로, 강원선발(1시간04분12초)에 이어 2위를 골인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은순(동신대)은 또 크로스컨트리 여자일반부 클래식 5km 결승에서 4위로 골인했으나 3위인 전북의 김자연이 실격되면서 행운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여자일반부 크로스컨트리복합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22.5km계주의 신병국·이영섭·김태영(이상 동신대) 선수조는 1시간50분58초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처럼 선수들의 선전에도 순위에서 밀린 것은 이 대회 처음으로 정식종목이 된 컬링에 선수를 내지 못함으로써 종합득점제 규정상 배점이 컬링 출전 팀에 높게 책정돼 예견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 선수를 내지 못하고 있는 빙상과 아이스하키 등 불출전 종목에서 0점에 그친 것도 종합득점을 올리지 못한 원인이 됐다.

대회 후에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선 출전종목 다양화와 선수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호인 모임에서 출발한 전남스키협회가 선수들을 직접 스카우트하고 지도 관리까지 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하계대회처럼 전남체육회 차원의 지원과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13) 제83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02년) (전남종합순위 : 11위, 107점)

제83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과 강원도 용평 등지에서 3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와 해외교포 등 2천 658명(선수 1천902명·임원 75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등 5개 정식종목에 걸쳐 모두 198개의 금메달을 놓고 시·도 간 열띤 메달 레이스를 벌였다.

28일까지 열전을 벌인 결과 그동안 주로 종합3위를 차지했던 경기도가 서울을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로써 전년도까지 16연패를 달성하며 난공불락일 것 같았던 서울 선수단의 17연패가 좌절됐다. 최우수선수상은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해 뛰어난 활약을 한 강원 횡계초 김빛나 선수와 강원 도암중 김영희·김효영 선수 등 3명의 공동 수상으로 돌아갔다.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등 3개 종목에 139명(선수 78명, 임원 61명)을 출전시킨 전남은 금2, 은3, 동2 등으로 총 107점을 획득하며 지난 대회보다 1계단 상승한 종합 1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줄곧 스키와 바이애슬론 등 2개 종목에 선수를 출전시키던 전남은 이번에 처음으로 빙상 쇼트트랙에도 선수를 출전시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보태는 선전을 했다. 이로 인해 종합득점도 동계체전 출전 사상 최고 점수인 107점을 획득했다.

전남 선수단의 주요 종목별 활약상을 살펴보면 동신대 신병국이 사전경기로 열린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스프린트 개인 10km에서 28분4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일반부 15km계주의 정은순·우아영·진선화(이상 전남선발) 선수조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선수단의 성적 상승에 힘을 보탰다. 정은순 등은 이로써 지난 대회 이 종목 은메달에 그쳤던 한을 풀 수 있었다.



동신대 김기웅·김태영·신병국 선수조도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22.5k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같은 동신대 김기웅·김동민·김태영·신병국 선수조는 또 크로스컨트리 남대부 40km계주에서 2위로 골인,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신병국은 이 대회에서 바이애슬론과 스키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해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수확하는 수훈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전남선수단이 처음으로 출전한 빙상 쇼트트랙에서도 메달 수확이 이어졌다. 전남선발 김성도 선수는 쇼트트랙 남일 3,0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성조는 또 남일 1,500m에도 출전해 동메달을 따냈다. 같은 전남선발의 김윤경도 쇼트트랙 여자일반부 3,000m에서 동메달 보탬다.

선수들의 이같은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종합순위 11위로 당초 목표했던 10위 달성에 실패하고, 성적 대부분도 동신대의 스키에 의존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14) 제84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03년) (전남종합순위 : 9위, 120점)

제84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9일 강원도 용평리조트 슬로프전면에서 개막돼, 서울과 강원도 용평 등지 경기장에서 사흘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전국 14개 시도(경남과 제주 제외) 총 2천826명의 선수단(선수 1천902명, 임원 906명)이 참가해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등 5개 정식종목에 걸쳐 모두 198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전년도 이전까지 16연패를 달리다 지난 대회에서 경기도에 정상을 내줬던 서울의 1위 탈환 여부가 관심거리였으나 경기도가 또다시 총점 680점을 획득해 총점 676점을 획득한 강원도를 불과 4점차로 따돌리고 2연패를 기록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스키 크로스컨트리 종목 각 종별에서 4관왕에 오르는 등 대활약을 펼치며 수훈을 세운 강원도암중 오솔지 선수가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처음으로 컬링을 참가종목에 추가시켜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4종목에 105명(임원 24명, 선수 81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이로써 전남은 전년도 빙상 쇼트트랙을 추가시킨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는 광양 한려대의 컬링을 출전시킴으로써 동계체전 5개 종목 가운데 아이스하키만 출전시키지 못하는 규모있는 선수단으로 거듭나게 됐다. 출전 부문별로는 초등부 10명, 중등부 15명, 고등부 10명, 대학부 11명, 일반부 35명 등이었다.

전년도 금2, 은3, 동2 등으로 종합 11위를 차지했던 전남은 이 대회에서는 금메달 없이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냈으나 종합득점제 규정의 잇점으로 총 120점을 획득함으로써 동계체전 출전 사상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인 종합9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대회 종합11위보다 2계단 상승한 쾌거로 출전선수들이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으나 중상위권에 든 선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남선수단의 주요 종목별 성적을 살펴보면 크로스컨트리 남자 대학부 40km 계주에서 김동민·오명석·문병관·지중근(동신대) 선수조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열린 여자일반부 15km 계주에서도 진선화·오아영·김혜경(이상 동신대) 선수조가 선전

하며 동메달을 획득해줬다. 동신대 문병관·오명석·지충근 선수조가 출전한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22.5km 계주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메달 수에 있어서는 부진했으나 5개 종목 가운데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4개 종목에 고르게 선수를 출전시킨 것이 동계체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됐다.

하지만 전남이 동계체전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동호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팀을 정식 선수 중심으로 운영해야 함을 일깨워준 대회였다. 전남의 동계 종목 훈련비도 1인당 18만원에 불과해 하계종목(48만원)의 37.5%에 그쳤며, 인근 광주의 하계종목 훈련지원비 1인당 35만원 수준보다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이유로 재정적 여유가 없는 선수들은 대회를 불과 2, 3일 남겨놓고 현지에서 적응훈련만 마치고 곧바로 실전에 임해야 했다.

열악한 훈련시설도 성적 향상의 걸림돌이었다. 기후 여건상 이 지역에는 스키장이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빙상장의 경우 인근 광주에 2곳이 있으나 그나마 선수들의 훈련 장소로 이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15) 제85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04년) (전남종합순위 : 10위, 122점)

제8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8일 무주리조트 만선하우스에서 개막돼, 20일까지 전북 무주와 전주·익산·서울 등지에서 3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와 1개 해외동포 선수단 등 총 2천918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 대회에서는 동계체전 사상 처음으로 도핑테스트가 도입돼 실시되는 등 대회 운영 관리를 보다 엄격히 했다.

지난 83회 대회까지 16연패를 달성한 강호 서울의 견제를 받고 경기에 임한 경기도는 금54, 은57, 동57 등으로 종합점수 784점을 획득하며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상(MVP)은 알파인 스키(남자대학부)에 출전해 4관왕에 오르며 뛰어난 활약을 펼친 충남 강민혁 선수가 수상했다.

출전종목 다변화에 꾸준히 노력해왔던 전남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바이애슬론·스키·빙상·컬링 등 4개 종목에 122명(선수 77명, 임원 45명)의 선수단을 참가시켜 전년도보다 1계단 올라간 종합8위를 노렸으나 오히려 1계단 추락한 종합10위에 머물렀다. 전남은 금1, 은1, 동3 등으로 총 122점을 따는데 그치며 더 이상의 순위 상승을 이어가지 못했다.

전남선수단은 동신대 엄유래가 빙상 피겨 대학부 싱글D조에서 빙상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다. 또 사전경기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 일반부 15km계주에서 동신대 김태영·김혜경·장영화 조가 은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동신대 장영화는 또 크로스컨트리 여자일반부 프리10km와 크로스컨트리 복합에도 출전해 각각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동메달 2개를 보태주기도 했다. 또한 동신대 김태영·김혜경·우아영 조도 크로스컨트리 여자일반부 15km 계주에서 동메달을 선사해줬다. 특히 장영화 선수는 바이애슬론과 스키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해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내는 수훈으로 전남 선수단에 힘을 실었다.



▲ 동신대 엄유래 선수가 빙상 피겨 대학부 싱글D조에서 빙상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사진은 전남선수단 출정식 모습)

전남은 전년도에 비해 종합득점에서는 상승했지만 한 계단 후퇴하며 15개 참가 시도 (경남·제주 불출전)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남은 광주의 절반도 안되는 메달을 획득했지만 득점은 오히려 더 많았다. 이는 광주보다 출전종목이 다양화됐기 때문으로, 스키와 빙상에만 출전한 광주에 비해 전남은 스키와 빙상 외에 바이애슬론과 컬링에도 출전, 득점을 더 챙길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스키와 바이애슬론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전년도에 3점에 그쳤던 알파인스키는 14점을 획득했으며, 크로스컨트리 73점이나 획득,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줬다. 전남이 스키에서 성적 향상을 가져온 것은 전남도교육감기 스키대회 신설로 선수저변이 확대되고 경기력이 향상된 때문으로 풀이됐다. 바이애슬론도 동신대가 여자일반부 15km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25점을 획득했다.

16) 제86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05년) (전남종합순위 : 8위, 192점)

제86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24일 용평리조트 스키장에서 개막돼, 서울, 경기, 강원 등지의 경기장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펼쳐졌다. 제주도만 불참한 가운데 전국 15개 시도에서 전년도보다 444명 늘어난 총 3천36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참가선수들은 스키, 바이애슬론, 빙상, 컬링, 아이스하키 등 5개 정식종목과 1개 시범종목(스노보드)에 걸쳐 저마다 고장과 개인의 명예를 위해 치열한 메달레이스를 펼쳤다.

전년도 우승팀인 경기도가 금61, 은53, 동59 등으로 총점 892점을 획득하며 동계체전 4연패를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여고부 바이애슬론에 출전해 3관왕을 차지한 추경미(강원 대화고) 선수에게 돌아갔다.

전남은 이 대회에 총 169명(선수 112명, 임원 57명)의 선수단을 파견, 한 자릿수 순위 진입을 목표로 기량을 겨룬 결과 금2, 은2 등으로 총 192점을 획득, 종합8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같은 성적은 전년도 종합10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전

남이 동계체전 출전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둔 것이었다.

전남은 우선 동신대 엄유래가 성남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빙상 피겨 여자대학부 싱글 D조에서 귀중한 금메달을 따냈다. 동신대 김혜경·우아영·장영화 조도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15km계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의 순위 상승에 힘을 보탰다.

스키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한 동신대 남녀부도 각각 은메달을 획득하며 선전했다. 신동훈·지충근·김동민·박준범 선수조가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대학부 40km계주에서, 김혜경·우아영·장영화 선수조가 여자일반부 15km계주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해줬다. 또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김혜경(동신대) 선수는 여자일반부 5km클래식과 복합에서 메달권에는 들지 못했으나 각각 4위에 오르는 성적을 거뒀다.

전남은 한 자릿수 등위 진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종합8위로 하계체전에 이어 동계체전에서도 중위권에 포진하는 성과를 냈다. 이같은 성적은 컬링종목의 출전과 전통적 강세종목인 바이애슬론, 스키 크로스컨트리의 선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년도까지 불출전 종목이었던 컬링을 비롯해 이 대회에는 전체 8개 종별 중 6개 종별에 출전해 점수를 챙겼고, 이중 3개 종별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며 전년도 무득점에서 벗어나 82점을 챙기며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는 각각 금메달 1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면서 나란히 종목 순위 4위를 차지, 전략종목다운 경기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전남은 컬링과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이외에는 모두 10점 미만대의 점수를 기록했고 빙상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은 불출전, 단 1점도 얻지 못했다.

따라서 특정 종목 편중현상 해소와 경기력 제고가 전남체육회의 숙제로 남겨졌다. 이를 위해 경쟁력이 취약한 스키 알파인과 빙상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은 우수선수 확보와 팀 창단, 저변 확대를 통해 경기력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준 대회였다. 또 다득점 종목으로 떠오른 컬링은 경기장 건립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 참가의 의미를 넘어서야 하고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는 초-중-고-대학-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육성체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또다시 제기됐다.

17) 제87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06년) (전남종합순위 : 7위, 223점)

제8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일 강원도 평창군 보광휘닉스파크호텔 2층 피닉스홀에서 개막돼, 강원도와 서울,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4일간 열전으로 펼쳐졌다. 그동안 사흘 동안 치르던 대회를 종목 수와 참가선수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 대회부터 나흘 경기로 하루를 늘려 치르는 걸로 변경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3천192명(선수 2천156명, 임원 1천36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바이애슬론, 빙상,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등 5개 종목에 걸쳐 모두 218개의 금메달을 놓고 치열한 득점 레이스를 펼쳤다. 그 결과 경기도가 금57, 은59, 동59 등으로 총 966점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 5연패를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스키 알파인에서 4관왕에 오른 박제윤(강원도암초) 선수와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3관왕에 오른 박제연(강원도암초) 선수가 공동 수상했다.



전남도선수단은 이 대회에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스키·바이애슬론·컬링·빙상 등 4개 종목에 173명(선수 113명·임원 58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금1, 은2, 동2 등으로 총 223점이라는 동계체전 출전 사상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순위도 전년도보다 1계단 상승한 종합7위에 올라 동계체전에서 전년도에 이어 명실상부한 중위권으로 도약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전남선수단은 동신대 엄유래 선수가 춘천실내빙상장에서 열린 빙상피겨 여자대학부 싱글D조에서 전남에 첫 금메달을 안기며 대회 3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또 전남스키협회 김정훈·김태영·문병관·김동민 선수조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일반부 40km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동신대 권오봉·장영화·최미선 선수조도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일반부 15km계주에서 은메달을 보탰다.

동신대 권오봉·장영화·최민선 선수조는 또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15km 계주에도 출전해 동메달을 추가했다. 동신대 박준범·신동훈·어유광·임성문 선수조도 크로스컨트리 남자대학부 40km 계주에서도 동메달을 보탰다.

전남은 스키 알파인과 컬링 종목의 선전으로 전년도인 86체전보다 31점을 더 획득해 종합득점 223점의 역대 최고득점과 역대 최고 등위인 7위를 기록해 상위 입상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수십년 째 이어져온 ‘동계 스포츠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메달 획득면에서 금1, 은2, 동2 개를 획득(전년도 금2, 은2)하는 데 그쳐 우수선수 발굴 및 집중 육성과 함께 동계 종목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육성대책의 숙제를 남겼다. 스키장 시설 확충과 함께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망 신인선수 발굴 노력 및 종목별 선수 저변확대 등도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 체전에서 전남선수단이 동계 스포츠의 꽃인 스키 알파인 등 열세 종목에서 비록 메달권 입상은 못했으나 초·중등 꿈나무들의 선전이 두드러져 ‘동계스포츠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잠재울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컬링의 경우 6개 전 종별에 참가해 1회전 부전승으로 득점 레이스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긴 했으나 현격한 기량차로 전패의 수모를 맛봐 이에 대한 대책은 숙제로 남겨졌다.

18) 제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07년) (전남종합순위 : 7위, 222점)

제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21일 강원도 용평에서 개막돼, 4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서울, 고양, 용평, 경북 등지에서 열린 이번 체전에는 15개 시도에서 총 3천293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규모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러졌다. 참가선수들은 빙상(스피드·쇼트트랙·피겨)과 스키(알파인·크로스 컨트리),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5개 정식 종목에 걸쳐 각기 고장과 개인의 명예를 걸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

24일까지 열전을 벌인 결과, 경기도가 금66, 은79, 동53 등으로 1천130점이라는 고득점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6연패를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상은 강원 대화여중 조미란 선수가 여중부 바이애슬론에 출전해 3관왕에 오른 활약으로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4개 종목(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빙상)에 190명(선수 121명, 임원 28명, 본부임원 41명)의 선수단을 참가시켜 뜨거운 메달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금1, 은5, 동4 등으로 종합점수 222점을 획득해 전년도와 같은 종합7위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공하며, 2년 연속 종합7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김지민(화순초) 선수가 역대 초등부 첫 금메달이자 유일한 금메달을 전남

에 선사해 전남의 2년 연속 종합7위 달성에 수훈을 세웠다. 김지민은 대회 첫 날 여자 초등부 스키 크로스컨트리 클래식 3km 결승에서 10분48초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지민의 금메달 획득은 초등부가 동계체전에 출전한 지난 1993년 74회 대회 이후 초등부 역대 첫 금메달로 동계 종목 불모지 전남에서 얼마든지 꿈나무들을 육성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늠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김지민은 또 여초부 크로스컨트리 복합과 6km 제주에서도 김한비·이유진(이상 화순초) 등과 함께 각각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김지민은 금1, 은2 등으로 전남선수단에 큰 힘이 됐다.

화순초의 김현민 선수도 남자초등부 크로스컨트리 프리 4km에 출전, 은메달을 획득했고, 클래식 3km와 복합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모두 3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처럼 시골학교 화순초의 선수들이 동계 종목 꿈나무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대회이기도 했다.

4연패를 기대했던 동신대 엄유래 선수는 빙상 피겨 싱글 D조의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해 선전을 했으나 동향인 광주 선수에게 우승을 내줌으로써 4연패 달성에는 실패, 은메달에 만족해야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

동신대 권오봉·장영화·최미선 선수 조는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일반부 15km 계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이들 세 선수는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15km 계주에도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또한 동신대 김준현·박준범·신기성·임성문 선수 조도 남대부 40km 계주에서 동메달을 보태며 전남의 종합7위 사수에 일조했다.

또 바이애슬론 개인경기에서 박준범(동신대)과 최미선(동신대)은 메달은 따내지 못했지만 각각 2득점씩을 전남선수단에 보탬다. 하지만 전남은 스키 알파인과 빙상에서의 부진으로 종합득점 면에서 역대 최고 점수였던 전년보다 1점 부족한 222점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 여자초등부 스키 크로스컨트리 클래식 3km에서 화순초 김지민 선수가 금메달 획득했다. 초등부가 체전에 출전한 1993년 74회 대회 이후 초등부 첫 금메달로 동계 종목 불모지 전남에서 얼마든지 꿈나무를 육성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19) 제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08년) (전남종합순위 : 8위, 243.5점)

제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9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에서 개막돼 4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와 재미동포 등 3천381명(임원 1천091명, 선수 2천29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빙상(스피드, 피겨, 쇼트트랙)·아이스하키·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바이애슬론·컬링 등 5개 정식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뤘다.

참가선수들이 메달 레이스를 펼친 결과, 전년도 우승팀인 경기도는 이 대회에서도 금81, 은73, 동57 등으로 1천278점을 획득하며, 타 시도 선수단이 범접할 수 없는 호성적을 따내 종합우승을 차지, 7연패를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상은 크로스컨트리 일반부에 출전해 4관왕을 차지한 이채원(강원하이원) 선수에게 돌아갔다.

전남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빙상 등 4개 종목에 190명(선수 124명, 임원 66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금4, 은5, 동1 등으로 총 243.5점을 획득하며 종합8위를 차지했다. 순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1계단 밀렸지만 메달 수에 있어서는 전년도 금1, 은5, 동4 등에 비해 월등히 나은 성적을 기록했으며, 종합점수도 전년도 222점에 비해 21.5점이 향상됐다.

전남은 우선 사전경기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일반 18km경기에서 조인희(장흥군청)·윤혜운(담양군청)·문지희(진도군청) 선수조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국가대표인 조인희·문지희는 스위스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귀국 직후 코스 적응 훈련 없이 곧바로 참가해 이같은 금메달을 획득,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선수들은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 일반부 15km계주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조인희 선수는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개인 15km·스프린트 7.5km에서 각각 금메달 1개씩을 따내며 3관왕에 올랐고, 크로스컨트리 15km에서 은메달 1개를 보태며 전남 선수단의 큰 힘을 보탤다. 문지희 선수도 금메달 1개를 따낸데 이어 크로스컨트리 여자일반부 15km 계주·개인 프리 10km,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개인 15km·스프린트 7.5km에서 각각 은메달 1개씩(은메달 총 4개)을 따냈다.



▲ 제89회 동계체전 바이애슬론에 출전한 장흥군청 조인희 선수가 3관왕에 올랐다. 조인희는 금3, 은1 등으로 국가대표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빙상 피겨에서도 나주초 박소연(4년) 선수가 여초부 싱글 D조 프리스케이팅, 종합에서 감점 3.5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전남 최초 여초부 빙상 피겨 부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피겨에 입문한 박소연은 문광부장관기와 전국 남녀피겨스케이팅 꿈나무대회 여자싱글 1위를 기록했고 2007 피겨꿈나무에 선정되는 등 발군의 기량을 자랑해 ‘제2의 김연아’로 불리우며 천재성을 인정받기도 했었다.

윤민지 · 이원지 · 이유진 · 이주영(이상 화순초) 선수조도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6km 계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전남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김정훈 · 문병관 · 신동훈 · 임성문(전남스키협회) 선수 조는 남자대학부 40km계주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이처럼 전남은 메달 획득 면에서 비교적 선전했으나 여전히 참가조차 못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참가를 했다 하더라도 예선 탈락에 그치는 등 부진한 종목도 있었다. 특히 컬링은 지난 대회에서는 부전승으로 올라가 체면치레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 대회에선 전 부문 예선 탈락하며 부진을 면치 못해 실질적인 성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20)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09년) (전남종합순위 : 8위, 264점)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0일 강원도 용평 리조트스키장에서 개회식을 가진데 이어 강원도 · 경기도 · 서울 등지 경기장에서 4일간의 열전으로 치러졌다. 스키 · 빙상 · 컬링 · 바이애슬론 · 아이스하키 등 5개 종목에 걸쳐 전국 15개 시도에서 총 3천 434명의 선수단이 참가, 모두 238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뤘다.

13일까지 기량을 겨룬 결과, 전년도 우승팀인 경기도가 올 체전에서도 금77, 은67, 동71 등으로 총득점 1천138점을 획득하며 우승, 8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스키 알파인에 출전해 4관왕에 오른 이현지(충북 청주중앙여중) 선수가 차지했다.

전남은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스키 · 바이애슬론 · 컬링 · 빙상 등 4개 정식종목에 190명(선수 124명, 임원 66명)의 선수단을 파견, 전년도와 같은 종합8위를 목표로 타 시도 선수들과 열띤 경합을 벌였다. 당초 금3, 은3, 동4 등을 목표로 했던 전남은 사전경기에서 이미 금4, 은6, 동5 등을 획득, 여유로운 출발을 보인 끝에 금5, 은6, 동5 등으로 총득점 264점을 따내며 목표인 종합8위 달성에 성공했다. 이로써 전남은 동계체전 출전 사상 최고의 메달 획득과 최고의 득점을 올리는 기록을 세우며, 5년 연속 중위권을 사수해냈다.

전남은 조인희(장흥군청)와 이유진(화순초) 선수가 각각 2관왕을 차지, 전남선수단 동계체전 주역으로 떠올랐다. 전년도 동계체전 3관왕이었던 조인희 선수는 여자일반부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7.5km와 바이애슬론 개인경기 15km에서 우승, 금메달을 선사했다. 조인희는 또 여자일반부 바이애슬론 18km 계주에서도 문지희(진도군청) · 송은영(동신대) 등과 함께 출전해 은메달을 따냈으며, 여자일반부 스키 크로스컨트리 프리 10km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유진 선수도 여자초등부 크로스컨트리 프리 4km와 6km 계주서 1위로 골인,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유진은 이원지·윤민지(이상 화순초) 등과 조를 이뤄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초등부 6km 계주에서 22분04초7의 기록으로 강원선발(22분09초8)과 전북선발(23분58초9)을 제치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또 프리 4k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에 오른 것이다. 이유진은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복합에서도 은메달 1개를 추가했다.

‘제2의 김연아’로 주목받은 나주초 박소연도 동계체전 여초부 빙상 피겨 싱글 B조 경기 쇼트프로그램에서 39.20점, 프리스케이팅에서 66.22점을 기록, 합계 108.44점으로 종합1위에 오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박소연의 이날 기록은 고교 수준을 능가해 앞으로 김연아의 뒤를 이을 선수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 박소연은 고교 기록을 능가하는 점수를 받아 다음해인 91회 동계체전에서는 초등부 최초로 고등부가 출전하는 싱글 A조에 포함될 수 있게 되는 영예도 안았다.

문지희(진도군청) 선수는 여자일반부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7.5km와 바이애슬론 개인경기 15km에서 각각 은메달을 수확했다. 문지희는 또 여자일반부 크로스컨트리 프리10km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화순초 이원지는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클래식 3k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같은 화순초 윤민지와 배민주는 이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스키협회 김정훈·신동훈·임성문·지충근 선수조는 크로스컨트리 남자일반부 40km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동신대 권오봉·송은영·최미선 선수조도 15km 계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비록 순위는 8위에 머물렀지만 전남은 금5, 은6, 동5 등 총 16개의 메달에 종합득점 264.5점을 얻어내 대회 출전 사상 최다 메달과 최고 득점을 기록했다. 이같은 성적은 경기장이 부족하고 우수 선수층이 얇은,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면 이번 대회에서 대선전을 펼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박소연(나주초) 선수의 금빛 연기로 ‘제2의 김연아’ 탄생을 예고한 피겨와 스키 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에서 16개의 메달을 모두 뽑아내는 등 이들 종목이 전남 중위권 사수의 효자종목이 됐다. 전남 주력 종목인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에서 2관왕 2명이 탄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스키 알파인과 컬링 종목은 타 시·도와의 기량 차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위권을 맴돌았다.



▲ 나주초 박소연이 여초부 빙상 피겨 싱글 B조 경기 쇼트프로그램에서 합계 108.44점으로 종합1위에 오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소연은 고교 수준을 능가하는 실력을 뽐내 향후 김연아의 뒤를 이을 선수로 주목을 받았다.

21) 제91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10년) (전남종합순위 : 8위, 270점)

제91회 동계체육대회는 2월 2일 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개막돼 4일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전국 15개 시도와 해외동포 선수 등 3천572명(임원 1천228명, 선수 2천34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스키, 컬링, 빙상,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등 5개 정식종목에 걸쳐 경쟁을 벌였다.

각 시도 선수들이 경합을 벌인 결과, 전년도 우승팀인 경기도가 금82, 은73, 동80 등으로 총 득점 1천253점을 획득하며 또다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9연패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다. 최우수선수상은 강원 하이원 소속 이채원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여자일반부에서 4관왕을 차지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쳐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스키, 빙상 등 5개 전 종목에 걸쳐 189명(선수 114명, 경기임원 29명, 본부임원 46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종합 7위를 목표로 타 시도 선수들과 열띤 경합을 벌였다. 그 결과 금6, 은5, 동6 등으로 총 득점 270점을 획득하며 전년도와 같은 종합8위를 마크했다. 이같은 성적은 비록 목표 달성은 못했으나 금5, 은6, 동5 등으로 총득점 264점을 획득한 전년도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기량을 선보이며 동계체전 출전 사상 최고의 득점을 올린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은 우선 화순초 배민주 선수가 여초부 스키 크로스컨트리 3관왕을 차지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배민주의 크로스컨트리 여자초등부 프리 4km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클래식 3km와 클래식과 프리 경기를 합한 결과에서도 1위를 차지해 3관왕에 올랐다.

또한 밴쿠버올림픽 한국대표선수인 진도군청 문지희 선수도 바이애슬론 스프린트(7.5km)·개인경기(15km)에서 2관왕을 차지한데 이어 송은영·조인희(이상 전남선발)과 조를 이룬 바이애슬론 18km 계주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문지희는 크로스컨트리 여일 15km 계주에서도 송은영·조인희 등과 함께 출전, 동메달을 땀다. 문지희와 메달 색깔을 닮았던 조인희(장흥군청)는 아쉽게 바이애슬론 스프린트(7.5km)에서 2위를 기록해 개인경기 15km에 이어 이를 연속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보성군청 이인복 선수도 남자일반부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10km에 출전해 귀중한 금메달을 보태줬고, 바이애슬론 개인경기 20km에서는 동메달을 추가했다. 이인복은 또 크로스컨트리 남일 프리 15km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인복은 크로스컨트리 40km 계주에서도 전남스키협회 김정훈·문병관·임성문 등과 함께 출전, 은메달을 수확했다.



▲ 화순초 배민주 선수가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초부에 출전해 3관왕에 빛나는 활약을 했다. 배민주의 '동계스포츠 불모지' 전남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빙상피겨 여초부 싱글A조에 출전한 ‘김연아 키즈’ 나주초 박소연은 금메달을 기대했으나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거는데 만족해야 했다. 크로스컨트리 남초부 8km 계주에 출전한 화순초 김종식·문형기·최명호·최재영 선수조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또 목포여상이 컬링경기에서 부산외고를 12-4로 물리쳐 4장에 진출하며 동계체전 출전 사상 처음으로 메달(동)을 획득했다.

전남은 이 대회에서 ‘겨울 스포츠 불모지’라는 오명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스키 꿈나무’ 화순초 배민주 선수는 여자초등부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이런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해주며 미래 기대주로 대활약을 예고했다.

22) 제92회 전국동계체전(2011년) (전남종합순위 : 8위, 274점)

제92회 전국동계체전이 2월 15일 용평리조트 드래곤벨리호텔에서 개막돼 18일까지 나흘간 일정으로 개최됐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와 재일동포 선수 등 총 3천563명(선수 2천366명, 임원 1천19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각기 고장을 명예를 빛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후보도시 조사평가위원회가 실사를 벌이는 시기에 후보지인 강원도에서 열리는 것이기도 해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때문에 각 시도 선수단도 평창의 올림픽 유치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다는 각오로 경기에 임했다.

열전 끝에 경기도는 대회 금메달 84개, 은메달 79개, 동메달 74개를 따내면서 종합점수 1,320점을 기록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지난 2002년 서울의 패권을 무너뜨리며 시작한 동계체전 연승 기록을 무려 10회로 늘렸다.

전남은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등 전 종목인 5개 종목에 걸쳐 170명(선수 101명, 경기임원 29명, 본부임원 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타 시도 선수들과 치열한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그 결과 금3, 은2, 동3 등으로 총 득점 274점을 따내며 전년도와 같은 종합8위를 기록했다.

전남은 우선 바이애슬론의 강자 진도군청 문지희 선수가 2관왕으로 전남선수단에 힘을 실어줬다. 문지희는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15km에서 56분5초04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며, 바이애슬론 여자 일반부 스프린트 7.5km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문지희는 또 스키 크로스컨트리 프리와 복합에서도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남자 바이애슬론 국가대표’ 이인복(보성군청) 선수도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스프린트 10km에서 29분35초5를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인복은 또 바이애슬론 남자일반부 개인경기 20 km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크로스컨트리 남자일반부 계주 40km에서 전남스키협회 김정훈·송기홍·이인복·임성문 선수조도 마지막날 동메달을 추가했으며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6km 계주의 임가을·정현주(이상 화순초) 선수조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전남은 지난 대회에서 출전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한 컬링 팀이 올해 대회에서는 이렇다 활약이 없는 점이나 전년도 3관왕에 오르며 기대를 걸게 했던 꿈나무 배

민주 선수 등의 활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 배민주 선수는 1년 전 화순초 6학년이었기 때문에 진학때 연계할 수 있는 중학교가 있어야만 체계적인 우수선수 육성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 배민주주는 경기도내 중학교로 진학해 경기도 선수로 출전한 때문이다.

23)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12년) (전남종합순위 : 7위, 281점)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4일 무주 리조트에서 개막돼 전북과 서울, 강원도 등지에서 17일까지 나흘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이 대회에는 제주도가 첫 참가함으로써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참가하게 됐으며, 3천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등 5개 종목에 걸쳐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쟁을 벌였다.

각 시도 선수단이 4일 동안 기량을 겨룬 결과, 전년도 우승팀인 경기도가 금90, 은79, 동69 등으로 총 득점 1천316점을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함으로 연승 기록을 11로 늘렸다. 최우수선수상은 지난 대회까지 전남 대표로 출전했던 이인복 선수가 이번에는 경기도 포천시청으로 소속을 옮겨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해 4관왕에 오르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5년 연속 종합8위를 목표로 빙상·스키·바이애슬론·컬링·아이스하키 등 5개 종목에 180명(선수 108명, 임원 79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순위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전남은 금4, 은3, 동3 등으로 총281점을 획득하며 전년도보다 1계단 상승한 종합7위를 차지,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 신안군청 문지희 선수가 바이애슬론 여일 개인경기 15km와 단체 18km 계주, 스키 크로스컨트리 프리 10km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에 올랐다. 전남은 문지희 등의 활약에 힘입어 종합7위에 올랐다. 문지희는 이후 열린 95회 체전과 96회 체전에서도 연속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전남은 우선 문지희(신안군청) 선수가 주종목인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개인경기 15km와 단체 18km 계주, 스키 크로스컨트리 프리 10km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며 3관왕에 올랐다. 단체 18km 계주에서의 금메달은 김서라(신안군청)·김미선(광양시청) 등과 함께 출전해 수확했다. 특히 문지희 선수의 개인경기15km에서의 금메달은 지난 91회부터 이번 대회까지 3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세운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문지희는 개인 스프린트 7.5km에서는 김서라에게 우승을 내주고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서라도 바이애슬론 개인 스프린트 7.5km와 단체 18km 계주에서 각각 우승해 2관왕을 차지했다. 김서라는 개인경기 15km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로써 전남은 이 대회에서 바이애슬론 4개 분야 전 종목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김서라는 크로스컨트리 여일 프리10km에서도 은메달을 따냈다.

여고부 빙상피겨 싱글D조에 출전한 순천 청암고 박혜영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목포 여상 컬링 팀도 동메달을 따냈으며, 화순초 조가람·정현주·임가를 등도 스키 여초부 크로스컨트리 6km 계주에서 동메달을 보냈다.

전남은 이 대회에서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모든 종별 석권과 스키(크로스컨트리), 컬링, 빙상(피겨) 종목의 메달 획득으로 전년도보다 1계단 상승한 종합7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역대 최고득점을 따내는 등 경기력 향상을 보여줬다. 전남의 이같은 성적은 동계체육의 경기장 시설 부재와 체계적인 선수육성의 어려움 등 열악한 여건속에서 일궈낸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컬링 종목에서도 목포여상이 전전년도 대회에 이어 이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부단한 연습만 하게 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또한 알파인 스키 남초부 슈퍼대회전에 출전해 입상은 못했으나 6점을 따낸 김승원(제철초), 윤수민(해남동초)의 선전에서 보듯 전남은 알파인 종목에서도 개인 훈련에 따라 얼마든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24) 제94회 전국동계체육전(2013년) (전남종합순위 : 8위, 252점)

제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8일 강원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에서 개막돼 나흘간의 열전으로 펼쳐졌다. 이 대회에는 세종시가 첫 출전함으로써 참가 시도가 17개로 늘었으며, 총 3천538명(선수 2천460명, 임원 1천2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평창, 서울, 아산 등지에서 253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기 고장이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뤘다.

열전 결과, 경기도가 금96, 은88, 동72 등으로 총 득점 1천353점을 획득하며 종합 1위를 차지해 12연패를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충북의 경성현(고려대)으로 스키 알파인에서 4관왕에 올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빙상·스키·바이애슬론·컬링·아이스하키 등 5개 정식종목에 195명(선수 116명, 임원 79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전년도와 같은 종합7위 사수를 목표로 메달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금1, 은3, 동2 등으로 총 득점 252점을 획득해 종합8위를 마크

했다. 메달 수에서 있어서나 득점면에서 모두 전년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종합7위 사수에도 실패했다.

전남은 우선 순천 청암고 박혜영이 빙상 피겨에서 전남에 첫 금메달을 안겨주며 선전했다. 박혜영은 빙상 피겨 싱글D조에 출전해 값진 금메달을 따냈다.

당초 금메달을 기대했던 전통강세 종목 바이애슬론에서 전남스키협회 조인희·김서라·김미선 조는 18k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데 그쳤다. 조인희는 또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개인경기 15km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화순초 정현주·임가을·유나영 조는 스키 여초부 크로스컨트리 6km 계주에 출전해 은메달을 따내는 성과를 올렸다. 또 정현주는 스키 여초부 크로스컨트리 클래식 3km에서도 은메달을 보탰다.

또한 빙상 쇼트트랙 여초부 2,000m 릴레이에서 박신혜(광양 덕례초)·유채리(〃 칠성초)·서하늘(〃 칠성초6)·장예은(〃 백운초) 조도 동메달을 보탰다. 이는 전남이 동계체전 빙상 쇼트트랙에서 처음으로 딴 메달이라는 점에서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값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처럼 전남은 전년도보다 1계단 밀린 종합8위를 기록하며 메달 획득도 저조했으나 이 대회에서 빙상 쇼트트랙에서 체전 출전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전남 빙상은 선수층이 일반부터 초등에 이르기까지 23명에 불과했으며, 역사도 4년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 빙상연맹 박부영 회장이 사재를 털어 광양에 빙상장을 건립한 후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쇼트트랙 등 빙상선수를 지원 육성함으로써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25)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14년) (전남종합순위 : 9위, 292점)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26일 강원 평창 드래곤밸리호텔에서 개막돼 나흘간의 열전으로 치러졌다. 3월 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재일교포 등 3천600명(선수 2천518명, 임원 1천8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등 5개 종목에 걸쳐 각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열띤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대회 결과 경기도는 금99, 은73, 동71 등으로 총 득점 1천372점을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해 연승 기록을 13으로 늘렸다. 최우수선수상은 크로스컨트리 남고부에 출전해 4관왕에 오른 조용진(강원) 선수가 차지했다.

전남은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빙상(쇼트트랙, 피겨) 등 4개 종목에 총 166명(선수 78명, 임원 88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타 시도 선수들과 순위 경쟁을 벌였다. 그 결과 금5, 은4, 동4 등으로 총 292점을 획득하며 종합9위를 마크했다. 동계체전 참가 사상 최고득점인 292점을 획득했지만, 순위에서는 전년도 8위보다 1계단 하락한 종합9위에 만족해야 했다.

전남은 우선 문지희(고흥군청) 선수가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선전했다. 문지희는 개인경기 15km와 스프린트 7.5km, 계주 18km에서 각각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8km 계주는 조인희·추경미(이상 전남선발) 등과 함께 한 금메달이다.



문지희는 크로스컨트리 프리 10km에서 은메달에 그쳐 4관왕을 접어야 했다.

여초부 스키 크로스컨트리 종목에 출전한 임가을(화순초)도 클래식 3km에서 값진 금메달을 선사했다. 임가을은 또 스키 크로스컨트리 개인복합과 박효은·임다성과 함께 출전한 계주 6km에서 2개의 은메달을 보냈다. 임가을은 크로스컨트리 프리4km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남초부 스키 크로스컨트리 계주 8km에 출전한 문지용·정현우·조현우·정진성(이상 전남선발) 조도 1위로 골인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순천여대 박혜영 선수는 빙상피겨 싱글C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한 김미선·추경미·함혜영(이상 전남선발) 조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스키 스노보드에서 체전 출전 사상 처음으로 2개의 메달(동)을 획득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남일 조환석(전남스키협회) 선수와 여일 채마리솔(전남스키협회) 선수가 각각 첫 동메달을 따내는 수훈을 세운 것.

전남이 이 대회에서 종합9위로 밀려나긴 했지만 스키 스노보드에서 2개의 메달을 따낸 것은 메달의 색깔에 상관없이 평가할 만 했다. 그동안 '동계 스포츠 불모지'라는 선수 발굴 육성은 커녕 출전조차 하지 못했으나 이 대회에서 메달권에 입상까지 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장이었다.

26) 제96회 전국동계체전(2015년) (전남종합순위 : 10위, 266점)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월 25일 용평 리조트 그랜드볼룸에서 개막돼 28일까지 나흘 동안 치열한 열전으로 펼쳐졌다. 이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와 재일교포 등 3천822명(선수 2632명, 임원 1190명)의 선수단이 빙상,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5개 정식종목과 스키점프, 프리스타일 등 2개 시범종목에 걸쳐 각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뤘다.

전년도 우승팀인 경기도가 금84, 동71, 은74 등으로 총 득점 1천320점을 올리며 종합우승을 차지해 연승 기록을 14로 늘렸다. 최우수선수상(MVP)은 크로스컨트리 4관왕에 오른 이채원(경기도체육회) 선수에게 돌아갔다.

전남은 종합8위를 목표로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컬링 등 4개 정식 종목에 총 181명(선수 90명, 임원 91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기량을 겨뤘다. 그 결과 금4, 은3, 동5 등으로 총점 266점을 따는데 그치며 종합순위도 전년도 9위에서 1계단 하락한 종합10위를 기록했다. 93회 대회 7위에서 94회 대회 8위, 95회 대회 9위 등 하락세에 이어 이번에는 두 자릿수 등위인 10위까지 밀려난 것이다. 전남이 목표 달성은커녕 종합10위로 밀려난 것은 전 종목에 선수를 출전시키던 지난 대회와 달리 선수를 내지 못하는 불출전 종목까지 있어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전남은 국내 바이애슬론의 최강자 문지희(신안군청) 선수가 동계체전 2년 연속 3관왕을 달성했다. 문지희는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개인경기 15km(50분52초9), 스프린트 7.5km(24분36초4), 계주 18km(1시간29초5)에 각각 출전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이로써 문지희는 전년도 동계체전에 이어 2년 연속 3관왕에 올랐다.

전남 선수들은 스키 스노보드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스키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남자일반부 지명곤이 1분25초48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프리스타일에서는 조환석(남자일반)과 김승희(여자일반)가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다.

스키 알파인과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는 초·중학생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알파인 대회전과 회전에서 윤수민(완도중)이 동메달 2개를,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6km계주에서는 구혜린·민혜지·박효은(이상 화순초) 조가, 남초부 8km계주에서는 곽상호·이건희·정민성·조영민(전남선발) 조가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은 동계종목 시설미비와 동호인체육육성의 한계점을 들어내면서 전년도 보다 한 단계 내려앉은 종합10위로 마감해 아쉬움을 남겼다. 전남은 빙상에서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 그리고 아이스하키 종목에 불참하면서 기본점수조차 얻지 못해 순위 추락의 쓴맛을 봐야 했다. 동계종목 경기장 시설이 전무해 동호인체육인들까지도 등을 돌려 참가 선수 기근에 시달리면서 고스란히 대회성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이 대회 순위 하락이 한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93회 대회 7위에서 매년 1계단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선수 발굴, 육성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매년 순위 하락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됐다.

일례로 화순초 시절 전남 선수로 출전해 3관왕을 차지하는 등 맹활약을 했던 배민주 선수가 이 대회 고등부에 경기도 선수로 출전해 크로스컨트리 3관왕에 오른 것만 보더라도 학교 연계 육성 등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줬다. 꿈나무로 발굴된 선수의 타 시도 유출 방지책 마련이 절실하게 대두됐다.



▲ 18km 계주는 동료 조인희(신안군청)·함해영(동신대) 등과 함께 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인희는 개인경기 15km에서 은메달을 수확했고, 함해영은 같은 종목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27)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16년) (전남종합순위 : 10위, 266점)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23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개막돼 26일까지 4일간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전북 일원에서 펼쳐졌다. 전국 17개 시도와 재일교포 등 총 3천961명(선수 2천748명, 임원 1천213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빙상과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아이스하키 등 5개 정식 종목과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등 2개 시범 종목에 걸쳐 각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뤘다.

결전 끝에 전년도 우승팀인 경기도가 또다시 우승을 거머쥐며, 지난 2002년 이후 1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상은 빙상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일반부에서 4관왕을 차지한 경기대표 고병욱(의정부시청) 선수에게 돌아갔다.

전남은 바이애슬론, 스키, 빙상, 컬링 등 4개 정식종목과 산악 등 시범종목에 총 195명(선수 106명, 임원 87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전년도 순위인 종합10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종합9위를 목표로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하지만 금2, 은3, 동7개 등으로 전년도와 같은 종합점수 266점을 획득하며 전년도 대회와 같은 종합10위에 머물고 말았다. 아이스하키 등에 선수를 못낸 것이 여전히 중상위권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전남은 우선 한국 여자 바이애슬론 에이스이자 지난 대회 3관왕에 빛나는 신안군청 문지희가 이번 대회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스프린트 7.5km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문지희는 이번 금메달로 이 부문 대회 3연패를 기록했다. 문지희는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18km 제주에서는 조인희·추경미 등과 함께 선전했으나 은메달을 따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문지희는 또 바이애슬론 개인경기 15km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명곤(전남스키협회)도 스키 스노보드 남일 평행대회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년 연속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함께 출전한 김상겸(전남스키협회)은 은메달을 따냈다. 또 스키 스노보드 여일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이지혜·김승희(이상 전남스키협회)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승희는 스노보드 여일 프리스타일 하프파이프 종목에서도 동메달을 따내 전남선수단에 힘을 실어줬다.

초등부 선수들의 활약도 컸다. 정민호(화순제일초)·박천하·조준희·강예준(이상 화순초) 조가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초부 제주 8k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구혜린·장은영·조혜은(이상 화순초) 조도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6km 제주와 바이애슬론 9km 제주에서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목포여상고 컬링 팀도 경북의성컬링장에서 열린 여고부 컬링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컬링 메달은 93회 체전 이후 4년만의 일이다.

이 대회에서 전남은 바이애슬론과 스노보드에서 금2, 은2, 동3 등을 획득하며 선전을 펼쳤다. 특히 바이애슬론은 초등부 신규출전 및 일반부 단체전 신설로 전년대비 21점을 추가해 총득점 81점을 올리며 이 종목 종합4위를 기록했다. 명실상부한 전남의 대표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다메달, 다득점 종목인 빙상(쇼트트랙, 스피드, 피겨)종목의 스피드, 피겨 불참 등으로 전년도 성적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아이스하키에 선수를 내지 못한 것도 성

적 상승을 이룰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키는 크로스컨트리, 스노보드에서 다메달(금1, 은2, 동4) 및 다득점(105점)을 획득했으나 알파인종목의 선수저변 감소(5종별 6명)와 경기력 하향, 크로스컨트리의 연계육성 체계가 무너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28)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17년) (전남종합순위 : 9위, 239점)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9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개막돼 12일까지 나흘간 열전으로 펼쳐졌다. 빙상과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등 5개 정식 종목과 봅슬레이·스켈레톤, 산악 등 2개 시범 종목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와 재호주교포 등 총 4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치열한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이 가운데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 전 종목과 아이스하키 일반부, 스키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일반부, 컬링 등은 사전 경기로 치러졌으며 정식 대회 기간에는 스키, 아이스하키,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산악 등 종목으로 기량을 겨뤘다. 특히 이 체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Test event 준비와 2017 알마티동계U대회 등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등으로 인해 많은 종목들이 사전경기로 진행됐다.

열전 끝에 경기도가 금86, 은71, 동87 등으로 총 득점 1천250점을 획득하며 종합우승을 차지, 동계체전 16연패를 달성했다. 이같은 기록은 지난 2002년 경기도에 패권을 넘기기 전 서울이 달성했던 16연패와 타이 기록이다. 이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은 빙상 남고부 스피드 등 종목에서 4관왕을 차지한 김민석(경기 평촌고) 선수에게 돌아갔다.

전남은 스키, 바이애슬론, 빙상(쇼트트랙), 컬링 등 4개 정식종목과 산악 등 2개 시범종목에 200명(선수 114명, 임원 86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순위 상승을 위한 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그 결과 금5, 은6, 동3 등으로 총득점 239점을 획득하며 3년 만에 한 자릿수 등위인 종합9위를 탈환했다.

전남은 ‘러시아 귀화 듀오’ 압바꾸모바 예카테리나와 프롤리나 안나(이상 전남도체육회)가 각각 2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예카테리나와 안나는 사전경기 바이애슬론 여자 일반부 계주 18km에서 토종선수인 추경미와 찰떡호흡을 과시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예카테리나는 개인경기 15km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2관왕에 등극했다. 스프린트 7.5km에서는 2위를 차지해 이 대회에서 금2, 은1개의 주인공이 됐다. 안나도 스프린



▲ ‘러시아 귀화 듀오’ 압바꾸모바 예카테리나와 프롤리나 안나(이상 전남도체육회)가 바이애슬론에서 각각 2관왕에 오르며 전남선수단의 순위 상승에 힘을 보탰다.



트 7.5km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내 2관왕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이들 러시아 귀화 국가대표 여성 듀오는 이번 대회에서 전남선수단이 거둔 110점 가운데 30점을 합작했다.

화순초 최희연은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자 초등부 클래식 3km에서 1위로 골인, 팀 동료인 이은미, 전북의 박소윤을 각각 2, 3위로 밀어내고 영광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화순초 이재근도 피겨 남초부 싱글D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화순초 김승민·김태양·임주환·전형조 등도 크로스컨트리 남초부 8km 제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화순초 이은미·전하림·최희연 등은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6km 제주에서 역시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스키협회 이지혜는 스키 스노보드 여자일반부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스키협회 조환석도 스키 스노보드 남자일반부 프리스타일하프파이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남컬링연맹 고해원·김진선·김진주·오세영·진주희 선수조는 컬링 여자일반부에서 값진 동메달을 획득해 전남이 컬링 종목에서 전년도 7위에서 6위로 1계단 뛰어 오르는데 일조했다.

이 대회에서 전남이 3년만에 한 자릿수 등위인 종합9위를 탈환한 데는 전남도, 전남체육회, 전남도교육청 등이 '삼위일체'로 대회 마지막 날까지 현장에서 선수단을 격려하는 등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평가받았다.

또한 화순초 선수단을 중심으로 스키와 바이애슬론 종목의 선전, 컬링 종목의 예상외 동메달 획득,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국가대표 쌍두마차'를 영입한 전남체육회의 노력도 돋보였다. 이처럼 기관 단체 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준 게 여실히 드러난 대회였다.

29) 제99회 전국동계체육전(2018년) (전남종합순위 : 11위, 215점)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관계로 종전 대회들과 달리 대한체육회 주관이 아닌 종목별 대회로 2017년 1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4일까지 장장 1개월 10일만에 걸쳐 펼쳐졌다. 제99회 동계체육전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전국동계체육전 개막 시기가 앞당겨지고 경기 일정도 길게 잡혔으며, 종합 시상식 아닌 경기 종료후 종목별 시상식으로 변경, 시행됐다. 바이애슬론 일반부 경기는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 일정으로 2017년 12월 25일부터 4일간 미리 진행됐다.

전국 16개 시도와 재독교포 등 총 3천975명(선수 2천918명, 임원 1천5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각 종목별 일정에 따라 치열한 메달 레이스를 펼친 결과, 지난 대회 우승팀인 경기도가 금83, 은63, 동77 등으로 종합점수 1천208점을 획득하며 또다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동계체육전 최장 연패 기록인 서울의 16연패 기록을 깨고 17연패라는 새로운 기록을 작성했다.

전남은 바이애슬론, 스키 크로스컨트리, 빙상, 컬링, 아이스하키, 산악클라이밍 등 6개 종목에 걸쳐 총 201명(선수 120명, 경기임원 41명, 본부임원 40명)의 선수단을

파견, 14개의 메달(금8, 은2, 동4) 획득을 목표로 기량을 겨뤘다. 하지만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금3, 은6, 동4 등으로 총득점 215점을 따내는데 그쳐 전년도보다 2계단이나 하락한 종합11위를 마크했다.

전남은 전남체육회팀이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경기에서 금2, 은2개를, 스키 크로스컨트리 전국 최강팀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화순초 스키부가 금1, 은4, 동4 등을 획득했다.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15km 개인경기에서 예카테리나 압바쿠모바(전남체육회) 선수가 금메달을, 7.5km 스프린트에서 프롤리나 안나(전남체육회)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키 크로스컨트리 6km 계주에서 화순초 최희연·김지민·전하림 선수조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에서는 예카테리나가 7.5km 스프린트에서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18km 계주에서도 안나·추경미(전남체육회) 등과 함께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화순초 김승민·김태양·임주환·전형조 선수조는 남초부 크로스컨트리 8km 계주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초부 크로스컨트리 3km 클래식 출전한 화순초 김지민도 은메달을 수확했다. 화순초 전하림도 여초부 크로스컨트리 복합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프리(4km)에서 조하은이 동메달을, 남초부 클래식(3km)에서 김태양이 동메달을, 여초부 클래식(3km)에서 최희연이 동메달을, 여초부 복합에서 김지민이 동메달을 보태주는 등 화순초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전남선수단의 성적이 지난 대회보다 2계단 하락한 11위를 기록했지만 화순초 스키부 선수들의 활약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 했다. 화순초는 금메달 1개를 비롯해 은메달과 동메달 각각 4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전남선수단에 큰 힘을 보탰다.

더욱이 화순초 스키부가 선전함에 따라 화순제일중은 2017년 12월 스키부를 창단하며 화순초 선수들을 받아들이게 돼 향후 동계체전에서 활약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화순제일중은 김은희 감독과 강예준, 백계민, 유진호, 박천하(2년), 김태양(화순초6) 등 5명으로 스키부를 창단해 전남의 동계 스포츠 발전을 위한 꿈나무 발굴·육성의 연계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게 됐다.

30) 제100회 전국동계체전(2019년) (전남종합순위 : 10위, 194점)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월 19일 태릉 국제스케이팅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에 이어 22일까지 4일간 각 지역의 명예를 건 빙설경쟁으로 펼쳐졌다. 서울, 강원, 충북, 경북 등지에서 분산 개최된 이번 대회는 빙상, 바이애슬론,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정식종목), 산악, 봅슬레이·스켈레톤(시범종목) 등 7개 종목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제주 불출전)에서 총 4천228명(선수 3856명, 임원 37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개회식이 열린 태릉국제스케이팅장(스피드스케이팅)을 비롯해 목동 실내빙상장(쇼트트랙), 태릉 실내빙상장(피겨), 용평리조트(알파인스키), 휘닉스 평창(스노보드), 강릉 하키센터(아이스하키) 등지에서 종목별로 경기가 펼쳐졌다. 컬링과 시범종목인 아이스

클라이밍은 사전 경기로 치러졌다.

사흘간 열전을 벌인 결과, 전년도까지 17연패를 달성했던 경기도가 금95, 은74, 동69 등으로 총 득점 1천243점을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해 연패 신기록을 18로 늘렸다. 최우수선수상은 무주고 최윤아가 여고부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에서 4관왕에 오르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은 봅슬레이·스켈레톤(시범종목)을 제외한 스키·빙상·바이애슬론·컬링·아이스하키(이상 정식종목), 산악(시범종목) 등 6개 종목에 211명(선수 111명, 임원 100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한 자릿수 등위 진입을 목표로 기량을 겨뤘다. 그 결과 금3, 은4, 동4 등으로 총득점 194점을 획득하며 전년도 보다 1계단 상승한 종합10위를 차지했다. 한 자릿수 등위 목표 달성은 못했으나 순위 상승을 이룸으로써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은 우선 바이애슬론 여자 일반부 스프린트 7.5km와 개인 경기 15km에 출전한 러시아 귀화 선수 안나 프롤리나(한국명 서안나·전남체육회)가 2관왕을 차지했다. 안나 선수는 신병국·이정식·조인희(이상 전남바이애슬론 연맹) 등과 함께 한 바이애슬론 일반부 혼성계주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안나는 이같은 활약으로 43점(총득점 대비 22.1% 차지)을 획득하며 전남선수단에 큰 힘이 됐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였던 김상겸(전남스키협회)도 스키 스노보드 남자 알파인 PGS(평행대회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키 스노보드 여일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이지혜 선수(전남스키협회)도 동메달을 획득했다.

화순초와 장흥안양동초 등 초등부 선수들도 전남선수단에 큰 힘을 보탰다. 크로스컨트리 남초부 8km 계주에 출전한 선진우(안양동초)·이영찬·전형조·조관우(이상 화순초) 등은 귀중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여초부 크로스컨트리 6km 계주에 출전한 박수안·전다경·전하림(이상 화순초) 등도 은메달을 추가했다. 박수안은 여초부 클래식 3km에서도 은메달을 따냈으며, 전다경은 같은 경기에서 동메달을 따내 줬다. 전다경은 또 여초부 크로그컨트리 복합에서 은메달을, 전하림은 같은 경기에서 각각 동메달을 보탰다.

전남이 이 대회에서 더 이상의 순위 하락을 막고 1계단 상승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귀화선수' 프롤리나 안나(한국명 서안나)를 앞세운 바이애슬론과 초등부 선수들의 선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43점(총득점 대비 22.1% 차지)을 획득한 안나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그만큼 컸다는 것이다.



▲ 장흥안양동초 선진우 선수의 선전은 전교생 11명의 '초미니 학교'에서 이룬 '작은 기적'이어서 관심을 끌기도 했다.

화순초를 비롯한 초등부 선수들도 크로스컨트리에서 은4, 동2 등을 획득한데 이어 스노보드 평행대회전에서 동메달을 따내 순위사수에 버팀목이 됐다.

이들의 활약으로 동계스포츠 불모지 한계를 극복하고 스키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은 종목 종합순위에서 각각 5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낼 수 있었다. 여기에 24년째 전남스키협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윤보선 유림전기 대표이사가 대회 기간 내내 현지에 상주하며 격려금 지원과 함께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킨 것도 경기력 향상에 일조했다.

31)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2020년) (전남종합순위 : 10위, 266점)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18일부터 서울, 경기 의정부, 강원 평창 일원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펼쳐졌다. 전국 16개 시도(제주 불참)와 재일교포 등 총 3천169명(선수 2천797명, 임원 372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등 5개 정식종목과 산악, 봅슬레이스켈레톤 등 2개 시범종목에 걸쳐 각기 고장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연마한 실력을 겨뤘다.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최식과 폐막식은 개최하지 않았으며 참가 선수단의 규모도 전년도 대회보다 대폭 축소해 개최했다.

대회 결과, 전년도 우승팀인 경기도가 금97, 은88, 동70 등으로 총득점 1천310점을 올리며 종합우승을 차지, 18연패를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서울 대표로 빙상 쇼트트랙에 출전해 2관왕을 차지한 심석희(한체대) 선수에게 돌아갔다.

전남은 스키, 빙상,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등 5개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인 산악 등에 총 228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한 자릿수 순위 진입을 목표로 기량을 겨뤘다. 열전 끝에 전남은 금4, 은2, 동8 등으로 총득점 266점을 따내며 전년도와 같은 종합10위를 기록했다.

전남선수단은 ‘스키 영재’ 조다은(화순초)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경기에서 대회 3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조다은은 크로스컨트리 여자U13세부 6km계주에서 같은 화순초 박수안·전다경 등과 함께 달려 경기선발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다. 조다은은 또 클래식 3km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클래식 3km와 프리 4km의 기록을 합산한 복합에서도 2위 이민주(전북 무주초)를 따돌리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다은은 프리 4km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클래식 3km에서는 박수안이 2위, 전다경이 3위를 차지해 화순초가 금, 은, 동메달을 싹쓸이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 화순초 조다은 선수가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경기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수훈을 세웠다. 전남은 조다은의 활약에 힘입어 이번 대회 종합10위를 사수할 수 있었다. (오른쪽은 전남체육회 집행부임원과 함께)



당초 금메달을 기대했던 프롤리나 안나(전남도체육회) 선수는 은메달을 추가했다. 안나는 바이애슬론 여자일반부 스프린트 7.5km에 출전해 2위로 골인했고, 개인전 15km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2개의 메달을 따냈다.

화순제일중 박도연·박은솔·장아현 선수조는 크로스컨트리 여자16세이하부 15km 제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산악에서는 전남대표로 출전한 이영건(나루터클라이밍점)이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영건은 아이스클라이밍 난이도에 출전해 13명 가운데 유일하게 완등에 성공,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영건은 또 아이스클라이밍 속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무안 망운중 컬링팀은 서울 수명중과 준결승전에서 격돌했으나, 4-10으로 패해 3위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망운중의 동메달은 창단 14년만의 수확으로 여러모로 값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용 컬링경기장이 없어 학교에서 지상훈련을 실시했고 매월 한 차례 실시하는 빙상장 훈련도 전주까지 이동하는 등 노력 끝에 거둔 성과였다.

전남은 이 대회에서 종합순위 상승을 이뤄내지 못했으나 스키 크로스컨트리에서 3관왕 1명을 배출하는 등 나름대로 경기력 향상을 꾀했다는 평을 받았다. 크로스컨트리 여초부에서 화순초 조다은 선수가 3관왕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낸 것. 또한 무안 망운중 컬링팀의 창단 14년만의 동메달 획득도 돋보이는 대목이었다. 학교에 훈련장이 없어 동작 연습만 하고 매월 한차례씩 전주까지 이동해 빙상장 훈련을 하는 등 피나는 노력이 일궈낸 결과였다.

32)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코로나19로 취소)

제102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2021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강원·경북 등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됐다. 동계체전이 열리지 못하는 것은 한국전쟁으로 대회를 치르지 못한 1951년 제31회 대회 이후 두 번째이다.

문체부와 관계 기관은 ▲전국동계체육대회 개최 시 합숙, 단체훈련 등으로 인한 선수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전국 규모 대회인 만큼 선수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학생선수가 다수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정상적인 대회 개최가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취소 결정을 했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전년도 제101회 대회 때는 개·폐회식 없이 경기를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부득이 대회를 취소한 것이다.

회수	기 간	개최지	순위	총득점	금	은	동
71(첫 출전)	'90.2.21~2.23	서울·경기·강원	14	13	3	3	1
72	'91.2.20~2.22	서울·경기·강원	13	13	—	1	3
73	'92.2.26~2.28	서울·경기·강원	13	21	—	1	1
74	'93.2.17~2.19	서울·경기·강원	13	30	—	1	1
75	'94.2.2~2.4	서울·경기·강원	13	17	—	—	—
76	'95.2.7~2.9	서울·경기·강원	13	39	—	2	2
77	'96.2.14~12.16	서울·경기·강원	10	57	—	—	3
78	'97.2.12~2.14	서울·강원·전북	10	73	1	2	1
79	'98.2.26~2.28	서울·강원	13	52	1	1	3
80	'99.2.10~2.12	서울·강원	11	81	—	2	1
81	'00.2.16~2.18	서울·강원	11	75	—	1	3
82	'01.2.21~2.23	서울·강원·전북	12	75	1	1	3
83	'02.2.26~2.28	서울·경기·강원	11	107	2	3	2
84	'03.2.19~2.21	서울·강원·대전	9	120	—	1	2
85	'04.2.18~2.20	서울·강원·전북	10	122	—	2	3
86	'05.2.24~2.26	서울·강원	8	192	2	2	—
87	'06.2.1~2.4	서울·강원	7	223	1	2	2
88	'07.2.21~2.24	서울·경기·강원	7	222	1	5	4
89	'08.2.19~2.22	서울·경기·강원	8	223	4	5	2
90	'09.2.9~2.13	서울·경기·강원	8	265	5	6	5
91	'10.2.2~2.5	서울·강원	8	270	6	5	6
92	'11.2.15~2.18	서울·강원·전북	8	274	3	2	3
93	'12.2.14~2.17	서울·강원·전북	7	274	4	3	3
94	'13.2.18~2.21	서울·강원·전북·충남	8	252	1	3	2
95	'14.2.26~2.29	서울·경기·강원·경북	9	292	5	4	4
96	'15.2.25~2.28	서울·인천·강원·전북	10	266	4	3	5
97	'16.2.23~2.26	서울·경기·인천·강원	10	266	2	3	7
98	'17.2.9~2.12	서울·경기·강원·경북	9	239	5	6	3
99	'17.12.25~'18.2.4	올림픽으로 분산개최	11	215	3	6	4
100	'19.2.19~2.21	서울·강원·경북·충북	10	195	3	4	4
101	'20.2.18~2.21	서울·경기·강원·경북	10	266	3	2	8
102	코로나19로 취소	—	—	—	—	—	—

제10장 전라남도체육대회¹⁾

1. 전라남도체육대회의 변천

전라남도체육대회(이하 전남체육대회)는 도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시군체육의 활성화를 기하여 도민의 체위향상(體位向上)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전남체육진흥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년 전남체육회가 주최하고 개최지 시군과 시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이다.

이 대회는 1962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목포시에서 개최한 제1회 시군대항체육대회가 그 시초로 23개 시군에서 1,104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육상, 축구, 씨름, 유도, 실용자전거, 탁구, 연식정구, 궁도, 배구 등 9개 종목의 경기를 치렀다.

이 대회는 명칭도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1966년 제5회 대회 때부터 ‘전라남도민체육대회(약칭 전남도민체육대회)’라고 했다가 2011년 제50회 나주대회를 계기로 ‘전라남도체육대회’(약칭 전남체육대회)로 변경했다.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체육제전임을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보여주는 이름으로 변경한 것이다.



전라남도체육대회로 대회명칭변경 후 첫 치러진 나주대회 폐회식 장면

1) 이 대회의 명칭은 창설당시인 1962년엔 ‘시군대항체육대회’였다가 제5회 대회인 1966년 ‘전남도민체육대회’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2011년 제50회 대회부터 ‘전라남도체육대회’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남체육대회라는 명칭은 1948년부터 1971년까지 개최됐던 대회 이름과 같다. 당시에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전신인 전국학도체전 전남대표선발을 위한 대회로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 열렸다. 이후 1962년 시군대항전 성격의 도민체전이 생겨 두 대회가 병립하다가 전남체육대회가 폐지된 바 있다. 이 대회 이름이 2011년 부활하고 도민체육대회는 사라진 것이다. 대회이름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전반적인 서술에선 대회명칭을 모두 ‘전라남도체육대회(약칭 전남체육대회)’로 통일하되 대회별 서술 부분에선 원래 대회 명칭을 사용함을 밝힌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전남체육발전과 전남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전남체육대회는 전라남도가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로 분리된 1986년 이후 더욱 성장 발전했다. 특히 초창기 부정선수 시비나 자연재해 등으로 대회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등 순탄치 못했던 데 비하면 시도분리 이후에는 중단 없이 대회 안정적으로 열려 지역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시도분리 이전에는 1967년~1969년의 엄청난 가뭄과 그 후유증으로 인해 제6회~제8회 대회 중단,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계속된 1971년 제10회 대회 중단, 부정선수 및 부정심판 등의 시비가 크게 번져 제13회 대회(1974년)부터 제17회 대회(1978년)까지 무려 5년간의 대회를 중단한 적도 있었다.

다만 순항하던 전남체육대회는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미증유의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사태로 인해 대회(제59회, 영광) 자체가 열리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이는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지구촌 전체적인 감염병 예방차원의 일이었다.

시도분리 이후 전남체육대회는 분리이전과 달리 개최 경기종목의 숫자나 선수단 참가 규모 등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안정되었다. 시도분리 이전엔 경기종목 수가 10개 미만으로 열린 대회도 많을 정도로 적고 대회규모도 들쭉날쭉 했다. 그러나 1990년 제29회 여수대회를 기점으로 개최종목 수가 차츰 안정되어 갔다. 29회 대회 14개이던 개최종목 수는 31회 15개, 43회 18개, 49회 20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가장 최근 대회인 2019년 제58회 보성대회는 22개 종목이 개최되었다. 물론 중간중간 1개 종목 정도 줄거나 늘기도 했지만 종목 수 확장세는 완만하게 이어졌다. 시범종목과 전시종목 등의 이름으로 비인기종목을 1~2개씩 넣었다 뺐다 했으며 시범종목 성과가 있을 경우 정식종목으로 승격하기도 했다.

이는 각 지역별로 체육시설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종목별 선수저변 확대, 학교 및 실업팀 창단 증가 등 전반적인 체육발전 영향으로 풀이된다.

대회기간 확대에서도 도민체전의 발전을 엿볼 수 있다. 그 동안 3일간 개최되던 도민체육대회는 2004년 제43회 여수대회부터 4일간으로 늘어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종목 수 증가, 참가선수 확대 등의 상황에 따른 변화였다.

또 하나의 변화는 대회 개최지가 시도분리 이전보다 훨씬 다변화되었다는 점이다. 광주와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등 주로 시 지역에서만 개최되었던 과거와 달리 군단위 순회 개최가 완전하게 자리잡았다. 도민체육대회는 1988년 제27회 대회를 해남에서 개최하면서 처음으로 군단위 개최라는 역사를 썼다. 그리고 당연직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민선 자치단체장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2006년부터는 시는 물론 규모가 작은 일부 군을 제외하고는 개최 희망 군들도 대회를 개최했다. 군 중에서는 해남군이 무려 5번이라는 압도적 개최기록을 세웠고 보성군이 2회 개최했다. 그 외에 고흥과 구례, 화순, 영암, 무안, 진도, 영광, 강진, 장흥이 한 번 씩 개최했고, 담양과 곡성, 함평, 장성, 완도, 신안은 아직 개최하지 못했다.



군 단위 지역의 개최 확대도 지역에 경기장 건설이 활성화되는 등 체육시설과 전반적인 체육활성화의 효과, 그리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군의 개최 노력,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 등이 이유로 분석된다.

특히 도체육회는 지역간 고른 체육발전을 위해 개최지 순환제를 일찍부터 도입해 여러 지역에서 고르게 대회가 열리게 하려는 정책도 추진한 바 있다. 이 제도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체육대회 개최 현황

권역	시·군	대회개최			비고
		개최횟수	개최연도	점유율	
계		41회			
중부내륙권 (5)	소계	4회		9.7%	
	장성군	미 개최			
	담양군	미 개최			
	화순군	1회	'10(49회)	2.4%	
	나주시	3회	'87(26회), '92(31회), '11(50회)	7.3%	
	곡성군	미 개최			
동부권 (6)	소계	18회		44%	
	여수시	8회	'64(3회), '83(22회), '90(29회), '95(34회), '97(36회), '99(38회), '04(43회), '17(56회)	19.5%	
	순천시	5회	'63(2회), '84(23회), '91(30회), '96(35회), '01(40회)	12.2%	2021년 개최지
	광양시	1회	'03(42회)	2.4%	
	구례군	1회	'12(51회)	2.4%	
	고흥군	1회	'08(47회)	2.4%	
	보성군	2회	'06(45회), '19(58회)	4.9%	
서남권 (11)	소계	19회		46.3%	
	목포시	8회	'62(1회), '65(4회), '82(21회), '86(25회), '89(28회), '93(32회), '98(37회), '02(41회)	19.5%	
	해남군	5회	'88(27회), '94(33회), '00(39회), '05(44회), '16(55회)	12.2%	
	영암군	1회	'18(57회)	2.4%	
	무안군	1회	'14(53회)	2.4%	
	진도군	1회	'15(54회)	2.4%	
	신안군	미 개최			
	영광군	1회	'09(48회)	2.4%	2020년 개최예정지였으나 미개최
	강진군	1회	'07(46회)	2.4%	
	장흥군	1회	'13(52회)	2.4%	
	완도군	미 개최			
	함평군	미 개최			

※ 미 개최 군(6) : 담양, 곡성, 함평, 장성, 완도, 신안



도체육회는 1989년 개최지의 경기장, 숙박시설 등 제반여건에 따라 경기종목을 신축성있게 조정하는 이른바 ‘종목연동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2017년도 2월 ‘전라남도종합체육대회 규정’을 개정, 군 단위 개최 의무화를 명시했다. 규정 제14조(전남체육대회 등의 개최지 결정) 제2항은 “자치단체 간 균형개최를 위해 시 단위와 군 단위 비율을 고려하여 4년 단위로 개최연도를 구분 선정한다”고 정하고 시 단위 1회 개최 후 군 단위 3회 개최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질적인 측면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1994년 제33회 대회부터 대회 기록을 전산화해 대회운영의 수준을 높였다. 또 1992년 제31회 대회부터는 대회 MVP제도를 신설해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회 수준도 격상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전남체육대회는 학교체육 발전과 실업팀 창단 확대 등으로 경기력 측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 기록종목에선 매년 대회신기록이 작성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이는 경제적 여력이 생기고 선수저변의 확대, 경기장 증설 등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나타난 자연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육상이나 수영, 볼링, 사격 등의 종목에서는 매년 2~4관왕 등 다관왕이 배출되면서 도민체전이 전남체육 발전의 밑거름임을 입증했다.

지역별 경기력은 도시지역의 강세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개최지가 잇점을 살려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예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도시지역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체육대회는 이처럼 외형적인 성장과 발전 이면에 어둡고 불편한 역사도 있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남체육대회는 대회 개최 초반부터 부정선수 시비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 이는 시군대항전으로 치러지는 대회 성격상 지나친 승부욕으로 시군 간 경쟁이 치열한 데 따른 결과였다. 제12회 대회 때는 부정선수 및 부정심판 등의 시비가 격화되어 일부종목의 경기를 끝내 치르지 못한 채 대회가 폐막하는 불상사도 있었다. 이 여파로 분위기를 냉각시키자는 차원에서 1974년부터 1978년까지 무려 5년간이나 대회를 중단한 굴욕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이 기간 전남체육은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런 역사는 시도분리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크고 작은 부정시비가 계속됐다. 제29회 대회 직후에는 시군체육회 임원과 직원 4명을 제명하고 2명을 6개월 자격정지 시키는 징계를 내리는 등 강력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거의 매년 계속되던 부정 및 폭력 시비 등은 2000년을 넘기면서 조금씩 수그러들다가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이는 부정시비를 막기 위한 도체육회와 경기단체들의 노력도 있지만 지나친 승부욕을 자제하고 경기를 즐기려는 사회적 분위기 등이 자리 잡은 결과로 보인다.



2. 시도분리 이후 역대 전라남도체육대회

1) 제28회 도민체육대회²⁾

이 대회의 개최 당시 공식 명칭은 ‘제28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였고 이같은 명칭은 제49회 대회까지 사용되다가 폐지되었다. 기록시점인 2021년 현재는 ‘전남체육대회’로 통일되었으나 대회 개최당시의 대회명칭은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도민체육대회’로 두었음을 밝힌다.

1989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목포에서 열린 제28회 도민체육대회는 27개 시군에서 선수 2,565명, 임원 1,391명 등 4천여명이 참가했다. 대회 결과 개최지 목포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여천군이 준우승, 전년도 우승팀 해남군이 3위에 올랐다. 22개의 대회신기록이 나왔는데 모두 육상종목에서만 작성됐다.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태권도협회가, 모범선수단상은 영광군선수단이 수상했다. 또 성취상은 1위 완도군선수단, 2위 곡성군선수단, 3위 나주시선수단이 받았으며 동광양시·함평군·강진군선수단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서도 단축마라톤 여자부 경기에서 부정선수 시비가 일어 시상식이 지연되었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출전한 화순군 육상선수를 비롯해 모두 47건의 부정출전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2) 제29회 도민체육대회

1990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여수에서 열린 제29회 도민체육대회는 27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4,988명이 참가했다. ‘화합·질서·번영’의 슬로건 아래 육상과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궁도, 태권도, 사격, 배드민턴, 복싱, 역도, 유도 등 14개 종목이 치러졌다. 대회 결과 개최지 여수시가 전년도 우승팀 목포를 2위로 밀어내고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고흥군이 3위에 올랐다. 대회신기록은 전년도보다 적은 7개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모두 육상종목에서만 작성됐다.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씨름협회가, 모범선수단상은 담양군선수단이 수상했다. 또 성취상은 1위 동광양시선수단, 2위 담양군선수단, 3위 무안군선수단이 받았으며 장흥군·영광군·나주시선수단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서는 입장상을 4년 만에 부활했다. 입장상은 말쑥이 많아 1987년 제26회 대회 때부터 폐지했으나 질서확립과 화합을 위한 체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시 도입했다. 이 대회에서도 탁구와 배드민턴 등에서 부정선수 시비가 일어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다. 부활후 첫 입장상 1위는 동광양시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다수의 부정선수 출전으로 경기중단 등 진행에 물의를 일으킨 일부 시군선수단이 있어 대회 후 도체육회는

2) 이 대회의 개최 당시 공식 명칭은 ‘제28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였고 이같은 명칭은 제49회 대회까지 사용되다가 폐지되었다. 기록시점인 2021년 현재는 ‘전남체육대회’로 통일되었으나 대회 개최당시의 대회명칭은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 ‘도민체육대회’로 두었음을 밝힌다.

상별위원회를 소집, 대회 부정행위 관계자들을 엄단하고 30회 대회를 부정없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체육회는 6월5일 제4차 이사회의를 갖고 부정을 저지른 시군 협회와 경기단체에 대해 1년간 출장정지와 경고 등 모두 17개 부문 징계를 단행했다.

3) 제30회 도민체육대회

1991년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순천에서 열린 제30회 도민체육대회는 27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4,788명이 참가했다. ‘우정·번영·문화’의 슬로건 아래 육상과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궁도, 태권도, 사격, 배드민턴, 복싱, 역도, 유도 등 14개 종목이 치러졌다. 대회 결과 개최지 순천시가 전년도 우승팀 여수를 제치고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고흥군이 3위에 올랐다.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태권도협회가, 모범선수단상은 완도군선수단이 수상했다. 또 성취상은 영암·광양·장흥군이 받았다.

한편 이 대회는 그 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부정선수 시비, 경기장 폭력, 판정 시비가 크게 줄었다. 참가시군이 자정 노력을 보인데다 도체육회와 순천시가 80여 명의 부정선수를 사전 적발하는 등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 대회에서는 또 채점내규를 개정하고 기권이나 몰수 또는 불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하위팀도 기본점수를 주는 기본점수제를 도입하는 등 채점상의 기복과 편차를 없애 전 종목의 고른 평가를 꾀했다.

4) 제31회 도민체육대회

1992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나주에서 열린 제31회 도민체육대회는 27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5,048명이 참가했다. 참가선수와 임원이 5천 명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화합·번영·문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대회는 육상과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궁도, 태권도, 사격, 배드민턴, 복싱, 역도, 유도 등 14개 종목에 볼링이 시범종목으로 치러졌다.

대회 결과 개최지 나주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여수시가 2위, 고흥군이 3위에 올랐다.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태권도협회·배구협회·사격연맹이, 모범선수단상은 장성·광양·장흥군이 수상했다. 또 장려상은 여천시·구례군·진도군이 받았다. 모범경기단체상과 모범선수단상은 처음으로 3개씩 시상했다.

또 이 대회부터 대회최우수선수(MVP)상을 신설했는데 100m와 멀리뛰기 등 육상 2관왕 김유미(동광양시)가 뽑혔다. 개최지 나주가 축구경기에 부정선수를 출전시켜 물의를 빚는가 하면 승부담합이 일어나는 등 시비도 이어졌다.



5) 제32회 도민체육대회

매년 부정선수 시비로 몸살을 앓던 도체육회가 사전에 ‘하자선수참가자격 심의’를 통해 2중 등록 등 13가지 유형에 120명의 선수를 사전에 제척하는 초강수를 둔 대회였다. 이런 노력 덕분에 이 해에는 이렇다할 부정선수나 판정시비 없이 무난하게 대회가 마무리됐다.

제32회 도민체육대회는 1993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목포에서 27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5,028명이 참가했다. ‘화합·활력·문화’를 기치로 내건 이 대회는 전년도와 동일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개최지인 목포시가 우승했고 여수와 고흥이 종합 2, 3위를 차지했다. 성적이 많이 오른 함평·신안·화순이 성취상을, 장성·나주군·광양이 장려상을 받았다. 또 영암이 모범선수단상, 전남정구연맹이 모범경기단체상을 각각 받았다. 대회최우수선수상에는 사격에서 대회신기록 2개를 세우며 2관왕에 오른 담양 진준호가 수상했다.

한편 도체육회는 도민체전 직후인 5월 25일 목포대에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전남체육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생활체육대회와의 통합 문제 등 도민체전 운영 개선에 대한 의견들을 들었다. 이후 이런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서류 미비 선수의 경우 교체 불가 ▲국가대표 출전 허용 ▲모의개회식 폐지 등 운영 개선사항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도체육회가 각 시군 및 경기단체까지 광범위하게 체전운영개선방안을 물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시군간 과열경쟁으로 매년 부정선수 시비가 끊이지 않고 도민체전 무용론 등이 나오면서 마련된 것이다.

도체육회는 그해 12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 출전허용 ▲폭력사태예방을 위해 91년 도입했던 참가연령을 3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축구와 배구 선수연령 19세로 하향 ▲부정선수 시비 등을 일으킬 경우 1년간 출전자격 박탈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6) 제33회 도민체육대회

해남에서 열린 제33회 도민체육대회는 질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뜻깊은 대회다. 도민체전 사상 최초로 체전기록 전산시스템을 설치 운영한 것. 전산화를 통해 모든 기록과 정보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1993년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치러진 대회에는 27개 시군에서 4,730명이 참가했다. 전년도와 같은 15개 종목의 경기가 열렸다.

개최지 이점을 살린 해남이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순천이 2위, 여수가 3위에 올랐다. 성취상은 무안·강진·승주가, 장려상은 보성·신안·영광군이, 모범선수단상은 담양군이 수상했고, 전남복싱연맹이 모범경기단체에 선정됐다.

대회 MVP는 6년 연속 우승의 김유미를 물리치고 육상 100m와 400m에서 우승 2관왕에 오른 양자옥(신안)이 차지했다.

부정선수 시비 등이 재현됐고, 축구경기에서는 준결승에서 심판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져 대회 후 축구협회 임원진이 전원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정구연맹이, 모범선수단상은 화순군이 차지했다. 이렇다 할 불상사는 없었고 대회운영도 합격점을 받았으나 시설이 낡고 대회기록도 저조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목포실내수영장과 주경기장인 유달경기장의 시설이 도마에 올랐다. 수영장 다이빙 경기장은 준공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돼 바닥이 패이고 녹이 슨데다 이끼까지 낀 상태로 경기를 치러 비난을 샀다.

유달경기장도 전광판이 없고 스탠드가 시멘트바닥 그대로여서 관중들이 불편을 겪었다.

11) 제38회 도민체육대회

통합여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여수에서 열린 제38회 전남도민체육대회 슬로건은 ‘통합여수 해양전남 일등체전’이었다. 4월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이 대회에는 4,54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고 15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개최지 여수가 종합우승, 광양시와 순천시가 2, 3위를 차지했다. 모범선수단상은 곡성군이,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불령협회가 받았으며 성취상은 강진·화순·구례군이, 장려상은 장흥·영광·장성군이 수상했다. 최우수선수는 육상 400m 릴레이와 멀리뛰기에서 2관왕에 오른 이길수(광양시)가 받았다.

12) 제39회 도민체육대회

제39회 전남도민체육대회는 세기가 바뀌는 첫해에 열린 대회여서 ‘새천년 새희망 새출발’이란 구호 아래 2000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해남에서 열렸다. 22개 시군 4,540명의 선수단이 참가, 1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3려통합으로 전력이 강화된 여수시가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해남과 목포가 뒤를 이었다.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배구협회가, 모범선수단상은 영광군, 성취상 1위는 담양군이 받았다. 최우수선수상은 2년 연속 4관왕을 차지한 수영 여자 홍숙자(목포)가 수상했다.

13) 제40회 도민체육대회

2001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40회 전남도민체육대회는 여수시의 3연 연속 우승이라는 독주를 개최지 순천이 끊은 대회였다. ‘문화순천, 예향전남, 화합체전’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 대회에는 22개 시군에서 4,857명이 참가했다.

순천에 이어 여수가 2위, 광양이 3위를 차지했다. 나주시는 성취상을 받았다. 최우수선수상은 육상 5,000m와 10km단축마라톤에서 우승한 임진수(광양)가 수상했으며, 모범경기단체상은 축구가, 모범선수단상은 진도군이 각각 받았다.



14) 제41회 도민체육대회

제41회 전남도민체육대회는 사이클과 검도가 정식종목에 채택되면서 역대 가장 많은 17개 종목이 펼쳐졌다. 22개 시군선수단 4,994명이 참가한 가운데 2002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목포에서 열렸다.

대회는 한 동안 잠잠하던 폭력과 부정선수 시비가 다시 일어 물의를 빚었다. 배구경기에서 몰수사태가 나왔고 축구에서는 관중폭력사태, 탁구 부정선수 시비 등이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담양군 사격은 도민체전 21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고 수영에서 만 6개의 대회신기록이 나오기도 했다.

개최지 목포가 9년 만에 정상에 올랐고 광양과 여수가 2, 3위를 차지했다. 성취상은 완도군이 1위에 올랐고 모범선수단상은 고흥군이,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수영연맹이 받았다. 최우수선수상은 육상 남자 100m, 200m, 400m 릴레이에서 3관왕을 차지한 정문규(광양)가 수상했다.

15) 제42회 전남도민체육대회

광양에서 처음으로 전남도민체전이 열렸다. 2003년 4월15일부터 18일까지 대회기간도 처음으로 4일간 치러졌다. 22개시군에서 5,253명이 참가해 17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이 대회에서는 육상 남자 800m에 출전한 고흥 김남진이 대회 10연패를 이룩하고 궁도에서 담양 전주석이 체전사상 처음으로 25발 모두를 과녁에 명중시키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대회 결과 여수시가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광양과 목포시가 뒤를 이었다. 대회 최우수 선수상은 육상 여자 400m, 800m 우승과 400m 릴레이 대회 8연패 등 3관왕에 오른 오은숙(여수)이 차지했다. 모범선수단상은 장흥군이,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공도협회가, 성취상 1위는 진도군이 받았다.

16) 제43회 전남도민체육대회

제43회 전남도민체육대회는 2004년 5월11일부터 14일까지 여수에서 열렸다. 22개 시군에서 5,420명이 참가해 시범종목인 골프까지 더해 18개 종목에서 겨뤘다.

여수시가 2연패했고 순천과 광양시가 2,3위를 기록했다. 완도군이 성취상 1위를, 최우수선수상은 여자수영 3관왕에 오른 문수지(순천)에게 돌아갔다. 모범선수단상은 강진군, 모범경기단체상은 육상, 태권도, 테니스가 받았다.

17) 제44회 전남도민체육대회

2005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해남에서 열린 전남도민체육대회는 22개 시군에서 5,515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대회 결과 여수시가 또 다시 우승해 대회 3연패를 달성했고 보성과 광양이 2, 3위를 차지했다. 시범경기로 채택된 골프에서는 첫날 홀인원(광양 박국원)이 나왔다.



18) 제45회 전남도민체육대회

2006년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보성에서 열린 전남도민체육대회는 그동안 군 단위 유일 개최지였던 해남에 이어 군단위에서 열린 대회였다. 특히 대회가 끝난 후 군세가 작은 보성군은 대회운영 능력 등이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개막식도 처음으로 야간에 열렸다. 도체육회는 대회 후 “개·폐회식 행사 및 종목별 경기운영(진행)을 큰 대과없이 마쳐 역대 어느 대회보다 질서있고 깨끗한 대회로 평가받았다. 다만, 축구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갖고 심판을 폭행함으로써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22개 시군에서 5,723명의 선수단이 출전, 18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순천시가 5년 만에 정상에 올랐고 여수시와 광양시가 2, 3위에 올랐다. 성취상 1위는 신안군이 받았고 목포시선수단은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했다. 모범경기단체상에는 전남수영연맹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선수상은 수영에서 4관왕을 차지한 김고은(여수)이 뽑혔다.

19) 제46회 전남도민체육대회

제46회 전남도민체육대회는 사상초유의 흥기난동과 사상자 발생이라는 불미스러운 대회로 기록됐다. 대회기간 중 도체육회 정무 사무처장이 식당에서 회식 중 경기외적인 이유로 흥기를 휘둘러 전남씨름협회 전무이사가 숨지고 회장이 다치는 등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 여파로 대회 후 도체육회 박병열 상임부회장이 사퇴했다. 이 사건 외에 대회 운영은 무난히 마무리됐다.

대회는 2007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강진군에서 열렸고 22개 시군에서 5,66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여수시가 종합 1위를 차지했고 광양이 2위, 목포가 3위를 차지했다. 대회최우수선수상은 남자 육상 400m 등에서 3관왕에 오른 김성관(광양)이 차지했고 나주시선수단과 전남배구협회가 각각 모범선수단상과 모범경기단체상을 받았다.

20) 제47회 전남도민체육대회

고흥군이 처음 개최한 도민체육대회였다. 2008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47회 전남도민체육대회에는 22개 시군에서 5,816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우주항공도시라는 고장 특성을 개막식 테마로 잡아 역대 가장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체육인들의 고운 말 쓰기 캠페인(JC전남지구 회원들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도체육회는 대회 후 평가에서 “부정선수나 판정불복, 경기장 질서문란행위 등이 단 한건도 없어 역대 가장 모범적인 도민체전”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회 분위기 개선을 위해 도체육회가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전년도인 제46회 대회에서 사상초유의 흥기난동을 계기로 고질적인 부정선수 시비 등을 막고 화합체전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조치가 사전선수 등록 후 부정선수 여부 등의 확인기간을 일정기간 부여해 각 시군이 확인한 후에는 본 대회에서는 일체의 부정선수 여

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토록 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부정선수로 인한 경기 지연이나 중단사태가 사라졌다.

제47회 대회 결과 여수시가 전년도에 이어 종합우승했고 보성군과 광양시가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개최지인 보성군의 약진이 두드러진 대회였다. 성취상 1위는 고흥군이었다.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볼링 여자 3관왕인 김문정(곡성)이 수상했고, 모범선수단상은 고흥군이,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육상연맹이 받았다. 육상과 수영, 볼링 등에서 4명의 3관왕 수상자가 나왔다.

21) 제48회 전남도민체육대회

영광군도 처음으로 개최지에 이름을 올린 대회였다. 제48회 전남도민체육대회는 2009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영광에서 개최되었고, 5,812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는 광양시가 도민체전 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달성해 화제를 모았다. 광양시는 18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320명이 참가하여 육상, 볼링 등의 강세로 종합우승했다. 여수시와 순천시가 2,3위를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은 수영 3관왕인 이인아(순천)가 차지했다. 모범선수단상은 신안군,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육상경기연맹이 받았다. 성취상 1위는 진도군이 수상했다. 육상 남자 정종식(여수)과 여자 수영 이인아(순천), 볼링 남자 최복음(광양), 여자 박선영(곡성) 등 4명이 3관왕을 차지했다.

22) 제49회 전남도민체육대회

2010년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화순에서 열린 제49회 전남도민체육대회는 역도와 바둑이 시범종목이 되면서 처음으로 2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화순에서의 대회 개최도 처음이었다. 화순군은 우수한 시설인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를 지어 대회 사상 처음으로 개폐회식을 모두 실내에서 치르는 기록도 썼다.

그러나 대회기간이 한 달 전 발생한 천안함 사건 희생 장병 애도시간에 개최되면서 대회를 경건하게 치르자는 방침이 정해졌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개회식 식전행사는 열렸지만 식후 인기가수 초청 축하쇼 등 축하행사가 전면 취소되기도 했다. 또 4월 한파가 찾아와 추위에 선수들이 애를 먹었고 비 때문에 신설 클레이코트의 테니스 경기를 케미컬코트 시설이 갖춰진 순천으로 옮겨 치르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다.

대회 결과 여수가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순천과 목포가 2, 3위에 올랐다. 성취상은 고흥군이, 모범선수단상은 무안이 받았으며 모범경기단체상은 전남태권도협회가 선정됐다. 최우수선수상은 육상 100m와 200m, 400m계주 우승으로 3관왕에 오른 우재은(여수)이 받았다. 수영에서 서승훈(여수) 등 4명의 3관왕이 나오는 등 육상과 수영에서 모두 6명의 3관왕을 배출했다.



23) 제50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를 전라남도체육대회로 대회 명칭을 변경하여 개최한 제50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2011년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주시에서 열렸다. 대회 개최 50년을 맞아 당시로서는 역대급인 6,283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참가해 22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대회종목도 처음으로 22개 경기 개최 기록을 세웠다.

전라남도체육대회 50주년을 기념해서 입장식 참여 인원 확대와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연출해 호평을 받았으며 지역축제와도 연계시켜 대회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운영측면에서도 전 종목에 걸쳐 단 한 건의 소청도 없을 정도로 수준 높았다.

대회에서는 여수시가 2연패를 달성했고 나주와 광양시가 2위와 3위에 올랐다. 대회 MVP는 여자부 육상 5,000m와 마라톤에서 우승한 중장거리 유망주 서옥연(광양)에게 돌아갔으며 목포시선수단이 모범선수단상을, 전남배구협회가 모범경기단체상을 각각 수상했다. 수영과 육상 등에서 3관왕이 3명 나왔다.

24) 제5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2012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구례에서 열린 제51회 대회에는 모두 6,229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20개 정식종목과 길거리농구, 여자씨름 등 2개 전시종목 등 22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구례에선 처음 대회가 열렸다. 특히 도내에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구례에서 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러 타 시군에게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는 여론이었다. 또 대회 사상 처음으로 광주MBC에서 TV로 개회식과 식전·후 행사를 지역에 생중계했다. 경기운영도 원활해 높은 수준의 대회로 기록됐다.

대회 결과 광양시 우승을 차지했고 여수시가 2위, 개최지 구례군이 3위를 차지했다. 구례군은 역대 최고성적의 기록도 세웠다. 보성군이 모범선수단상을, 전남태권도협회가 모범경기단체상을 받았다. 최우수선수상은 수영 4관왕을 차지한 김민웅(목포)이 차지했다. 김민웅은 모처럼 대회신기록 3개(접영 100m, 혼계영 200m, 계영 200m)를 수립했다.

25) 제52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장흥에서 처음 치른 대회였다. 제52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2013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장흥에서 열렸으며 6,259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대회 기간 동안 전남체육인들은 올림픽 정식종목에서 퇴출위기를 맞고 있던 레슬링의 부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스타사인회를 개최해 레슬링 홍보와 퇴출반대운동도 펼쳤다. 다만 경기장이 없는 사격과 볼링은 다른 지역에서 경기를 치르기도 했다.

대회에서는 광양시가 우승해 2연패를 달성했고 목포와 여수가 뒤를 이었다. 최우수선수상은 수영에서 4관왕에 오른 박수련(여수)이 차지했다. 전남축구협회는 모범경기단체상을, 진도군은 개막식 입장상을 수상했다. 수영에서는 4관왕 외에도 3관왕 3명(정다희(여수), 김효은(여수), 권오국(신안))이 배출됐다.

대회 결과 여수시가 5년 만에 우승했고 광양과 해남이 2,3위를 차지했다. 백미연(목포)이 수영 3관왕에 올라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장슬기(보성)가 여자역도 53kg급에서 대회 5연패를 기록했다. 모범선수단상은 강진군이, 모범회원종목단체상은 전남육상경기연맹이 받았다.



29)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제56회 대회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여수시에서 열렸고 22개 시군 6,975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정보통신기술발달과 인터넷시대라는 특성을 반영해 대회 사상 처음으로 SNS를 통해 대회를 생중계하는 변화상을 보였다. 성화봉송부터 시작해 개회식과 주요 경기장면, 폐회식 등을 페이스북으로 중계했다.

21개 정식종목과 시범(당구), 전시(카약)종목 등 23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져 역대 최대규모 개최 기록도 세웠다.

대회결과 여수시가 우승했고 순천과 광양이 2,3위를 차지했다. 성취상 1위는 고흥군이 받았고 모범선수단상에 진도군, 모범회원종목단체상은 전남육상경기연맹이 수상했다. 대회최우수선수상은 여자볼링 3관왕 김예솔(곡성)이 받았다.

30)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2018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57회 대회는 역대 가장 많은 7,098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대회 결과 개최지 영암이 체전 사상 첫 우승의 쾌거를 맛봤다. 영암은 대회 첫 개최, 첫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썼다. 군이 우승하기는 고흥과 해남에 이은 세 번째이자 24년 만이었다. 광양시와 순천시가 2,3위를 차지했다.

모범선수단상은 함평군이, 모범회원종목단체상은 전남축구협회가 각각 받았고, 수영 3관왕 전혁(영암)이 MVP를 차지했다.

31) 제58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제58회 대회는 2019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22개 시군에서 7,06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2005년 제45회 대회를 개최한 보성에서 열렸다. 시범종목이던 당구가 정식종목이 되면서 22개 전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치러졌다.

개최지 보성군이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고 여수와 순천은 2, 3위에 올랐다. 육상 김진욱(광양)과 볼링 김동요(고흥)가 최우수선수상을 공동수상했다. 성취상 1위는 보성군, 모범선수단상은 광양시가 받았으며 모범회원종목단체상은 전남역도연맹이 수상했다.

32)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 미개최

제59회 대회는 제48회 대회 개최에 이어 영광군이 두 번째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사태가 터지면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이듬해로 개최를 연기했다.



제11장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

전남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기가 고조되면서 전남 시·군 종목별생활체육 단체들의 화합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화합을 다지는 생활체육의 꽃이자 전남도민의 축제 한마당인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1990년 나주시에서부터 시작됐다.

「전남도민의 날」행사와 동시에 치러진 역대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의 연도별 현황과 내용, 특징과 잊지 못할 일화 등을 정리한다.

1. 역대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 개최 현황

횟수	개최지	개최기간	개최종목	참여인원
1회	나주시	'90.11.2~3(2일)	5개부(노년부, 장년부, 직장부, 여성부, 가족부) 7종목	1,379
2회	여천시	'91.4.12~13(2일)	4개부(노년부, 장년부, 여성부, 혼성부) 7종목	1,828
3회	목포시	'91.11.5~6(2일)	5개부(노년부, 장년부, 여성부, 직장부, 가족부) 10종목	4,087
4회	해남군	'92.11.5~6(2일)	6개부(노년부, 장년부, 여성부, 직장부, 가족부, 혼성부) 12종목	4,626
5회	광양시	'93.9.15~16(2일)	6개부(노년부, 장년부, 여성부, 직장부, 가족부, 혼성부) 12종목	4,949
6회	순천시	'94.10.20~21(2일)	6개부(노년부, 장년부, 여성부, 직장부, 가족부, 혼성부) 13종목	15,599
7회	완도군	'95.10.26~27(2일)	6개부(노년부, 장년부, 여성부, 직장부, 가족부, 혼성부) 13종목	10,925
8회	여수시	'96.10.17~18(2일)	6개부(노년부, 장년부, 여성부, 직장부, 가족부, 혼성부) 15종목	25,800
9회(1회)	강진군	'97.10.25~26(2일)	6개부(노년부, 장년부, 여성부, 직장부, 가족부, 혼성부) 16종목	25,000
10회(2회)	여수시	'98.10.25~26(2일)	6개부(노년부, 장년부, 여성부, 직장부, 가족부, 혼성부) 16종목	15,000
11회(3회)	장흥군	'99.10.25~26(2일)	6개부(노년부, 장년부, 여성부, 직장부, 가족부, 혼성부) 16종목	13,000
12회(4회)	광양시	'00.10.25~26(2일)	6개부(노년부, 장년부, 여성부, 직장부, 가족부, 혼성부) 16종목	15,000
13회(5회)	여수시	'01.10.25~26(2일)	축구 등 13개 종목	25,000
14회(6회)	구례군	'02.10.25~26(2일)	축구 등 13개 종목	23,000
15회(7회)	영암군	'03.10.25~26(2일)	축구 등 14개 종목	25,000
16회(8회)	고흥군	'04.10.25~27(3일)	축구 등 13개 종목	25,000
17회(9회)	여수시	'05.10.25~27(3일)	축구 등 14개 종목	20,000
18회(10회)	강진군	'06.10.25~27(3일)	축구 등 14개 종목	20,000
19회(11회)	목포시	'07.10.25~27(3일)	축구 등 16개 종목(정식14, 시범1, 민속1)	25,000
20회(12회)	영광군	'08.10.25~27(3일)	축구 등 16개 종목(정식14, 시범1, 민속1)	25,000
21회(13회)	해남군	'09.10.25~27(3일)	축구 등 18개 종목(정식14, 시범1, 민속3)	20,000
22회(14회)	순천시	'10.10.25~27(3일)	축구 등 16개 종목(정식15, 민속1)	20,000
23회(15회)	광양시	'11.10.25~27(3일)	축구 등 21개 종목(정식15, 시범3, 민속3)	20,000
24회(16회)	화순군	'12.10.25~27(3일)	축구 등 21개 종목(정식15, 시범3, 민속3)	20,000

제2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는 1991년 4월 12일 여천시 흥국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제2회 대회는 전남 27개 시·군에서 2,00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이틀간의 일정을 마쳤다. 제2회 대회는 궁도, 게이트볼, 장사릴레이, 바구니공넣기, 럭비공차고돌기, 줄다리기 등 7개 종목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회 순위는 시·군 간 경쟁의식을 배제한 채 화합을 위해 종합채점제가 아닌 종목별로 시상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참가자격도 종별에 따라 60세 이상 노년부, 35세 이상 장년부와 주부로 제한, 노년층과 주부층에게 문호를 확대해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2회 대회는 대회본부의 경기진행 미숙과 일부 시·군의 편파 판정 시비에 대한 항의 소동 등



다소 물의를 빚기도 했으나 승부의식이 지배하는 엘리트 체육대회와는 달리 승부를 떠나 생활체육 활성화의 계기를 만든 대회로 기록됐다.

제3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는 1991년 11월 5일 목포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같은 해 4월 제2회 여천 대회에 이어 열린 제3회 대회는 전남 27개 시·군 대항전으로 열렸다. 제3회 대회는 4,087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제3회 대회는 60세 이상의 노년부(궁도·게이트볼), 35세 이상 장년부(축구·배구), 주부들로 구성된 여성부(배드민턴·에어로빅), 가족부(목포시민 가족걷기대회) 등 총 5개부, 10개 종목에 걸쳐 친목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이날 식후공개행사는 한국건강여성에어로빅목포협회의 건강생활체조 ‘가슴을 열자’, 에어로빅 시범, 목포여상고 관악대의 밴드퍼레이드가 펼쳐졌다.

3) 제4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1992, 해남, 6개부 12개 종목)

제4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는 1992년 11월 5일 해남군 해남실내체육관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최됐다. 제2회 대회는 전남 27개 시·군에서 14,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이틀간 시·군대항전을 벌였다. 60세 이상의 노년부(궁도·게이트볼), 40세 이상 장년부(벚집지고 달리기·축구·배구), 주부들로 구성된 여성부(배드민턴·에어로빅), 100명 이상 직장, 30세 이상 직원으로 구성된 직장부(축구·테니스·탁구) 가족부(해남군민 가족걷기대회), 대회참가 동호인 혼성부(줄다리기) 등 총 5개부, 1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단, 동호인들은 1인 1종목에 참가하되 민속경기(줄다리기)에 한해 1개 종목 추가가 가능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해남여고생 60여명의 건강체조와 우수영 부녀회원 100여 명의 강강수월래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4) 제5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1993, 광양, 6개부 12개 종목)

제5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는 1993년 9월 15일부터 이틀 간 전남 27개 시·군에서 5,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노년부·장년부·여성부·직장부·혼성부 등 6개 부문에 궁도·게이트볼·테니스·에어로빅 등 12개 종목의 경기를 펼쳤다. 개막식 식전행사에서는 광양북초등학교 학생 25명이『꽃들의 요정』을 주제로 한 고전무용, 광양군 봉강면 석평마을 주민 40명이 민속 배틀놀이를 각각 선보였다. 이와 관련, 이균범 전남지사는 개막식 식전행사 민속 배틀놀이를 큰 박수를 받았던 광양군 봉강면 석평마을 40여 가구에 2,000여 만 원의 부역 개량 보조금을 특별지원하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회는 종합시상제를 폐지하되 종목별 시상과 응원·질서·감투·인기·장려상을 신설해 국민생활의 질을 보다 건전하게 높이는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회는 또 여천시와 목포시의 배구 준결승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불복, 1시간여 동안 경기가 중단되다 폐회식에 쫓겨 이미 결승에 오른 광양군과 함께 경기를 치루지 않은 채 3개 팀을 공동 우승으로 처리하는 경기운영의 미숙함이 노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년부의 게이트볼과 궁도는 생활체육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5) 제6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1994, 순천, 6개부 13개 종목)

제6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는 1994년 10월 21일부터 이틀 간 전남 27개 시·군에서 6,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순천 팔마체육관과 12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노년부·장년부·여성부·직장부·혼성부 등 6개 부문에 궁도·게이트볼·테니스·에어로빅 등 12개 종목의 경기를 펼쳤다. 개막식에 이어 펼쳐진 식전행사 가운데 가족걷기대회는 순천역에서 팔마체육관까지 2km 구간을 시민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식전행사는 또 순천시 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제35 병참 경비대의 태권도 시범과 에어로빅 연합회원들의 에어로빅 시범 등이 이어졌다. 분재전시회를 비롯 서예, 사군자, 사진 전시회와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함께 우리 농산물 판매장도 함께 문을 열어 인기를 끌었다.

6) 제7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1995, 완도, 6개부 13개 종목)

제7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1995년 10월 26일부터 이틀 간 전남 24개 시·군에서 235개 팀, 2,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완도종합운동장과 완도여중경기장 등 14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노년부·장년부·여성부·직장부·혼성부 등 6개 부문에 궁도·게이트볼·테니스·에어로빅 등 11개 종목의 경기를 펼쳤다. 11개 종목의 정식경기과 함께 민속경기어울마당 등 단체경기·각종전시회·전야제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곁들여지면서 지역 간·동호인 간·직장 간 친선대회로 전남도민의 화합 한마당을 연출했다. 경기에 앞서 개막식에는 광주 패밀리랜드 고적대의 고적대 시범과 패러글라이더의 축하비행 등 식전 공개행사와 청산면 풍어굿 시범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청산면 풍어굿은 전통의상을 입은 옛 제사풍습을 재현해 5천여 관중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분재전시회, 수석전시회 등 문화행사와 완도항만터미널~종합운동장 4km 구간에서 2,000여 명이 참가한 완도군민걷기대회도 함께 열렸다.

7) 제8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1996, 여수, 6개부 15개 종목)

제8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1996년 10월 17일부터 이틀 간 전남 24개 시·군에서 3,7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진남체육관을 비롯 여수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노년부·장년부·여성부·직장부·혼성부 등 6개 부문에 궁도·게이트볼·테니스·에어로빅·벗집지고 달리기 등 15개 종목에 걸쳐 전남 시·군 대항전으로 경기를 펼쳤다. 정식경기와 함께 여수상고 농악대와 여수 동백원 회원들의 아카펠라 공연, 사물놀이, 에어로빅 ‘불꽃’ 등의 공개행사와 식후행사가 이어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 대회는 ‘전라남도 개도(開道) 100주년’을 기념해 열려 의미를 더했다.

**8) 제9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1997, 강진, 15개 종목)**

제9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1997년 10월 25일부터 이틀간 전남 24개 시·군에서 3,0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강진종합운동장을 비롯 강진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노년부·장년부·여성부·직장부·혼성부 등 5개 부문에 궁도·게이트볼·테니스·에어로빅·벗집지고 달리기 등 15개 종목에 걸쳐 전남 시·군 대항전으로 경기를 펼쳤다. 특히,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날짜는 지난 1990년 첫 대회 때부터 주최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해오다 1996년 ‘전남도민의 날’을 10월 25일로 하는 조례가 제정된 후 1997년 제9회 강진대회 때부터 매년 10월 25일부터 이틀 간 고정된 일정으로 개최하게 됐다.

9) 제10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1998, 여수, 6개부 16개 종목)

제10회 대회는 자료가 사라져 기록하지 못했다.

10) 제11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1999, 장흥, 6개부 16개 종목)

제11회 대회는 자료가 사라져 기록하지 못했다.

11) 제12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2000, 광양, 6개부 16개 종목)

제12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000년 10월 25일부터 이틀 간 전남 22개 시·군 3,0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광양실내체육관을 비롯 공설운동장 등 광양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노년부·장년부·여성부·직장부·혼성부 등 5개 부문에 궁도·게이트볼·테니스·에어로빅·벗집지고 달리기 등 13개 종목에 걸쳐 전남 시·군 대항전으로 경기를 펼쳤다. 제4회 전남도민의 날 기념과 병행해 개최된 이 대회는 도민화합불꽃놀이, 시·군 노래자랑, 광양버꾸놀이, 스포츠댄스, 생활체조로 구성된 축하행사와 도민현장 낭독, 자랑스런 전남인 상 시상과 체육한마당 행사도 곁들여졌다. 부대행사로 무료 경로주점, 전통떡만들기, 시민웃놀이, 특산물 알뜰장터, 사진전, 영·호남 미술 교류전, 패러글라이딩 축하 비행 등이 이어졌다.

12) 제13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2001, 여수, 13개 종목)

제13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001년 10월 24일부터 여수시 진남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제5회 전남도민의 날’과 함께 열린 이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 3천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축구, 배구 등 13개 종목에 참가, 기량을 다졌다. 전남도와 전남도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한 이 대회는 전남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행사도 곁들여졌다. 개막에 앞서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전남도민 예술제와 연예인 초청공연 및 시·군민 노래자랑에 이어 2010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관이 개관되기도 했다. 대회 기간

행사장 주변에는 풍물놀이, 스포츠댄스, 탈춤놀이, 가훈 써주기, 시화전시회, 요트전시회, 스킨스쿠버 용품 전시, 패러글라이딩 경축 비행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려, 전남 체육생활축제 분위기가 고조됐다.

13) 제14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2002, 구례, 13개 종목)

제14회 대회는 자료가 사라져 기록하지 못했다.

14) 제15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2003, 영암, 14개 종목)

제15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003년 10월 25일부터 이틀 간 전남 22개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 2만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영암공설운동장과 13개 보조 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배구·축구·탁구·궁도·테니스·게이트볼·족구·정구·생활체조·탁구·볼링·단축마라톤·민속경기 등 13개 종목에 걸쳐 열린 경쟁을 벌였다. 불꽃놀이와 도전 가요열창 등으로 구성된 전야제에 이어 개막식에서는 고적대 마칭 밴드, 타악 공연에 맞춘 영암의 노래 등이 공연됐다. 개막 식후 공개행사는 100여명이 출연진이 월출산의 기상과 풍요로운 남도를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군무 월출산’과 24명이 영암아리랑 테마음악에 맞춰 창작댄싱을 선보이기도 했다. 대회 기간 동안 관광영암사진전을 비롯 즉석 무료사진 촬영과 무료 경로주점, 군민 윗놀이대회, 오봉산 등반대회, 5개 시·군 농·특산물 알뜰장터, 향토음식점 등이 운영 되고 경비행기 축하비행도 곁들여졌다.

15) 제16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2004, 고흥, 13개 종목)

제16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004년 10월 25일부터 사흘 간 전남 22개 시·군에서 생활체육동호인 및 도민 등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흥공설운동장과 12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제8회 전남도민의 날’과 함께 개최된 이 대회는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주제로 축구, 배구 등 13개 종목의 경기가 열렸다. ‘환영·미래·고흥’을 주제로 펼쳐진 식전행사는 고흥 홍보 영상과 함께 월포농악단 공연, 모터패러글라이딩 에어쇼, 고흥군 고교 연합 댄싱팀 댄스 공연이 펼쳐졌다. 22개 시·군 특산물, 관광지를 알리는 이벤트가 포함된 참가선수단 입장식에 이어 고흥지역 문화예술 공연과 인기가수들의 축하공연, 불꽃놀이도 곁들였다. 이 대회는 고흥우주센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우주캐릭터와 사진 촬영장을 비롯 우주페이스페인팅, 고흥 5미 향토음식점, 고흥농수산특산물장터 등의 부대행사도 이어졌다.

16) 제17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2005, 고흥, 13개 종목)···서울과 첫 교류

제17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005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전남 22개 시·군과 서울시생활체육회 동호인 등 3,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수 진남체육공원에



서 개최됐다. '제9회 전라도민의 날'과 함께 개최된 이 대회는 200만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과 함께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주제로 축구, 배구 등 13개 종목의 경기가 열렸다. 이 대회는 지자체 우호 협력 차원에서 참가한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들과 교류를 시작한 첫 대회로 기록됐다. 이 대회부터 시작된 전남·서울 생활체육 교류전은 양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의 친선경기와 함께 문화 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지역 간, 종목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양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17) 제18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2006, 강진, 14개 종목)

제18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006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강진종합운동장과 강진군 일원에서 22개 시·군 4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해 총 14개 종목에 걸쳐 고장의 명예를 걸고 경쟁을 펼쳤다. '제10회 도민의 날' 기념식과 동시에 개최된 이 대회는 시·군 선수단 입장에 이어 도민헌장 낭독, 자랑스런 전남인상 시상, 1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운동하는 '스포츠 7330' 실천 다짐, 도민의 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서는 강진 홍보영상 상영과 풍물놀이, 패러글라이딩 축하 비행, 고적대 퍼레이드 등의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졌다. 이 대회에 참가한 임원과 선수, 방문객들을 위해 야생화 전시회와 청자전시 및 시연, 청자골 강진 향토특산물전, 청자골 페이스 페인팅, 짚공예품 전시 및 시연, 무료 경로주점, 청자골 관광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18) 제19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2007, 목포, 16개 종목)

제19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007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목포 유달경기장과 19개 보조경기장에서 전남 22개 시·군과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 4,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16개 종목에서 고장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제11회 도민의 날'을 기념한 이 대회는 '미래를 여는 녹색의 땅 전남! 꿈을 모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선수들은 게이트볼과 궁도를 시작으로 배구, 배드민턴, 볼링, 생활체조, 씨름, 육상(단축마라톤), 정구,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등 16개 종목에 걸쳐 경쟁을 벌였다. 주요 경기 장소는 게이트볼(하당KT 옆 게이트볼구장), 궁도(연무정), 배구(목포실내체육관), 배드민턴(유달중학교), 볼링(국제·대화볼링장), 생활체조(목포문화예술회관) 등이다. 육상(단축마라톤)은 유달경기장 - 갯바위 구간, 족구(동근근린공원), 탁구(목포과학대학 체육관), 태권도(목포공고 체육관), 테니스(부주산테니스장), 합기도(목포해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씨름과 정구, 줄다리기 등은 유달경기장에 마련된 해당 경기장에서, 축구는 유달경기장과 목포공고, 제일중학교, 연동초등학교(보조) 등에서 각각 개최됐다. 유달경기장 주변에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목포시 홍보관이 운영된 데 이어 건강미인 선발대회, 팔씨름왕 선발대회, 줄넘기 오래하기, 전통민속놀이 등 체험·참여 행사도 곁들여졌다. 개최지인 목포시 여자축구팀과 연예인 축구단이 친선 경기와 연예인 축구단 사인볼을 증정해 인기를 끌기도 했다.



19) 제20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2008, 영광, 16개 종목)

200만 전남도민과 86만 생활체육 동호인의 한마당 축제 '제20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006년 10월 25일부터 사흘 간 영광종합운동장 등 영광군 일원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22개 시·군과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 등에서 4,500여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했다. 시·군별 참가인원 가운데 여수시가 249명으로 가장 많고, 지난해 개최지 목포시 240명, 영암군 221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439명으로 가장 많고, 배드민턴 308명, 배구 307명 순이었다. 이들은 정식 종목 14개(축구, 궁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생활체조, 정구, 족구, 탁구, 테니스, 단축 마라톤, 게이트볼, 씨름, 태권도)와 합기도(시범종목), 줄다리기(민속종목) 등 모두 16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서울시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임원과 선수 60명은 지난 대회에 이어 우호 교류를 위해 참가해, 검도·배구·볼링·족구 등 4개 종목에서 친선 경기를 펼쳤다. '하나 된 전남의 힘! 희망의 땅 영광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 대회는 전남도와 전남도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하고 영광군생활체육협의회와 국민생활체육전남종목별 연합회가 주관했다. 개회식은 시·군선수단 입장, 대회기 게양, 감사패·공로패 수여, 환영대회·격려사, 스포츠 7330 실천 다짐, 도민의 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 앞서 영광 우도농악 대동 환영 풍물놀이가 퍼포먼스와 파워라이저 공중극에 공연, 대북공연, 모터패러글라이딩 순회비행, 영광여고 마칭밴드 등의 식전 공개행사가 펼쳐졌다. 장윤정·샤이니를 비롯 박일준·현진우·유지나·홍진주 등 인기가수와 여성 3인조 퓨전 전자현악팀 'F#'이 출연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영광종합운동장 주변에는 호불여 영광 관광홍보관, 어염시초 영광특산물장터, 옥당고을영광 향토먹거리장터 등이 마련됐다.

20) 제21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2009, 해남, 18개 종목)

제21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009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해남군 우슬정 기장 등 해남군 일원에서 열렸다. 전남도생활체육회가 ‘제13회 도민의 날’을 기념해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푸른 해남, 밝은 전남, 함께 하는 생활체육’을 주제로 전남 22개 시·군과 서울시생활체육회 동호인 등 5,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 게이트볼, 궁도 등 14개 정식 종목과 합기도, 줄다리기 등 시범종목 등 총 16개 종목에서 고장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개회식은 식전·식후 공개행사와 경축·부대행사 등으로 다채롭게 마련됐다. 식전 공개행사에서는 해남풍물연합회의 길놀이와 우수영 24반의 무예 시연, 한국대학응원단협회의 응원공연, 식후 공개 행사는 전남도민의 대동단결을 의미하는 강강술래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 대회 전체 최고령 참가자는 게이트볼 위황량 씨(88·장흥군), 최연소 참가자는 태권도에 참가한 서수현 양(12·구례군)으로 기록됐다.



21) 제22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2010, 순천, 18개 종목)

제22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010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22개 시·군과 서울생활체육회 동호인 등 4,8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순천 팔마경기장 등 순천시 일원에서 18개 종목에 걸쳐 고장의 명예를 걸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제14회 전남도민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시범종목이던 합기도가 정식종목에 편입되면서 정식종목이 15개로 늘어났다. 정식종목은 게이트볼과 궁도 비롯 단축마라톤(육상) 배구, 배드민턴, 볼링, 생활체조, 씨름, 정구,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합기도 등이다. 민속경기 종목은 줄다리기와 새끼 꼬기 및 짚신삼기, 쌀가마 지고 달리기(400m 계주)가 포함됐다. 이들 종목의 경기는 팔마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외에 궁도 인향정, 배구 팔마체육관, 배드민턴 효산고등학교 체육관, 볼링 애플볼링장·퍼펙트볼링장, 생활체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등에서 열렸다. 육상 단축마라톤은 팔마경기장~순천교(장대다리) 구간, 게이트볼, 씨름, 정구, 족구, 테니스, 쌀가마 지고 달리기 줄다리기, 새끼 꼬기 및 짚신삼기 등은 팔마경기장 내 각 종목경기장에서 개최됐다. 축구는 팔마경기장과 팔마보조구장, 맑은물센터구장, 탁구는 매산고등학교 체육관, 태권도는 순천공업고등학교 체육관, 합기도는 청암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 4,821명의 선수와 임원이 출전한 이 대회 참가선수는 함평군이 344명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화순군 265명, 해남군 256명 순이었다. 종목별 참가인원은 축구가 473명으로 가장 많고, 배구가 305명, 배드민턴이 292명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선수 가운데 최고령 참가자는 게이트볼의 박진배 씨(장성·86), 최연소 참가자는 태권도의 정홍준 군(11·순천시) 이었다.

22) 제23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2011, 광양, 21개 종목)

제23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011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전남 22개 시·군과 서울시생활체육회 동호인, 일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동호인 등 5,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광양공설운동장과 광양시 일원에서 21개 종목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 대회는 전남도민 생활체육대회 23년 만에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기도 했다. 제15회 전남도민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 대회는 ‘전남의 꿈 하나로! 광양의 빛 세계로!’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 대회는 정식종목 15개, 민속경기종목 3개, 시범종목 3개 등 총 21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정식종목은 게이트볼과 궁도를 비롯 배구, 배드민턴, 볼링, 생활체조, 씨름, 육상, 정구,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합기도 등이다. 민속경기는 줄다리기와 새끼 꼬기 및 짚신삼기, 쌀가마 지고 달리기(400m 계주)가 포함됐다. 검도, 등산, 야구 등 시범종목도 이 대회부터 도입됐다. 최고령 참가자는 게이트볼의 김남억 옹(완도·87), 최연소 참가자는 태권도의 김익현 군(12·해남군)으로 기록됐다.

23) 제24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2012, 화순, 21개 종목)

제24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가 2012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22개 시·군과 서울생활체육회 동호인 등 5,3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화순공설운동장을 비롯 화순군 일원에서 21개 종목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제16회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린 이 대회는 게이트볼과 궁도, 배구, 배드민턴, 생활체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합기도 등 15개의 정식종목과 줄다리기와 새끼 꼬기 및 짚신삼기, 굴렁쇠 굴리기의 민속경기 종목으로 구성됐다. 지난 대회부터 도입된 검도, 등산, 야구 등의 시범종목도 치러졌다. 5,363명의 동호인과 임원이 출전한 이 대회는 해남군이 21개 종목 302명으로 가장 많은 선수단이 참가했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480명으로 가장 많고, 배드민턴 343명, 야구 326명, 배구 293명 순이었다. 최고령 참가자는 게이트볼의 김남억 웅(완도 게이트볼 팀 감독·88), 최연소 참가자는 태권도의 고흥주 군(해남·12)으로 기록됐다. 개회식은 시·군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도민현장 낭독, 도민의 날 시상, 기념사, 축사, 스포츠 7330 실천 다짐, 입장상 발표, 도민의 노래 합창 순으로 이어졌다.

24) 제25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2013, 해남, 21개 종목)

제25회 전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2013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해남 우슬경기장과 해남군 일원에서 전남 22개 시·군과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 동호인 등 5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 가운데 22개 종목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제17회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린 이 대회는 ‘화합 꽃핀 땅 끝 체전, 희망 솟는 행복 전남’을 슬로건아래 개최됐다.

이 대회는 1990년 제1회 대회 때부터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로 사용해 온 대회 명칭을 ‘전남생활체육대축전’으로 변경한 첫 번째 대회였다.

이 대회는 정식종목 18개, 민속종목 3개, 시범종목 1개 등 모두 22개 종목의 경기를 펼쳤다. 정식종목은 검도, 게이트볼, 궁도, 등산, 배구, 배드민턴, 볼링, 생활체조, 씨름, 야구, 육상, 정구, 족구,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합기도 등이었다. 민속경기 종목은 줄다리기와 새끼 꼬기 및 짚신삼기, 굴렁쇠 굴리기와 시범 종목에 수영이 포함됐다. 이 대회 참가자는 목포시가 22개 종목 3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시 315명, 해남군 313명, 신안군 295명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22개 시·군 473명으로 가장 많고 배드민턴 345명, 야구 324명, 배구 292명, 족구 27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최고령 선수는 게이트볼의 이재선 웅(목포·84) 웅, 최연소 참가자는 태권도의 김예찬 군(고흥·만 12세)으로 기록됐다.

경기결과, 목포시가 검도·테니스·합기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시는 육상, 나주시가 생활체조, 순천시가 정구·축구태권도, 신안군이 굴렁쇠굴리기, 여수시가 배구·볼링·씨름·탁구수영, 구례군이 궁도, 완도군과 해남군이 등산 공동 1위에 올랐다.



게이트볼은 담양군, 배드민턴은 화순군, 족구는 영암군, 줄다리기는 해남군, 새끼 꼬기는 완도군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함평군과 강진군, 완도군이 각각 입장상 1~3위, 장려상은 고흥군과 장흥군, 영암군이 공동 수상한데 이어 생활체육 7330상은 순천시가 받았다. 화합상은 신안군, 질서상 영광군, 감투상 보성군, 응원상 화순군, 우수연합회상은 육상연합회가 받았다.

25) 제26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2014, 구례, 23개 종목)

제26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이 2014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전남 22개 시·군과 서울특별시 생활체육회 선수 및 임원 6천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구례군 공설 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서 23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루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제18회 전라남도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린 이 대회는 ‘함께 뛰는 전남의 힘! 청정의 땅 구례에서’라는 슬로건 아래 정식종목 18개, 민속경기 3개, 시범종목 2개 등으로 경기를 펼쳤다. 대축전 첫날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호남여성농악단 공연, 태권도와 진도북춤의 콜라보레이션 공연과 ‘남도의 신명’이라는 주제의 대규모 환타지 공연 등이 곁들여져 대회 분위기가 고조됐다. 개막식에서는 전라남도 발전 공헌 유공자 13명이 ‘자랑스러운 전남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회 축하공연은 멀티미디어 불꽃쇼와 배드미즈, 오로라, 블래스트, 조항조, 윙크 등 인기가수의 공연이 함께 펼쳐졌다.

26) 제27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2015, 무안, 23개 종목)

제27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2015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전남 22개 시·군을 비롯 서울과 경북 생활체육회 소속 6,000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무안스포츠파크 경기장과 무안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제19회 전라남도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된 이 대회는 정식종목 19개, 시범종목 1개, 민속경기 종목 3개 등 총 23개 종목에 걸쳐 그동안 생활체육으로 갈고닦은 기량을 겨뤘다. ‘행복도시 무안에서 함께 뛰는 전남도민’이란 슬로건에 맞춰 황토골 무안에서 생활체육의 꿈과 열정을 겨루는 건강·화합,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개막식에는 조항조, 진성, 나인뮤지스, LPG 등 인기가수의 공연도 곁들여져 대회 열기를 더했다.

한편, 종목별 경기 결과, 화순군이 검도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완도군 등산·새끼꼬기, 함평군 합기도, 순천시 수영·태권도·테니스·볼링·탁구, 광양시 에어로빅스체조·그라운드골프·육상, 여수시가 족구와 축구 우승을 차지했다. 줄다리기는 나주시, 단체줄넘기 곡성군, 씨름·궁도 구례군, 게이트볼 장흥군, 배구 영암군, 야구·배드민턴 목포시, 정구는 해남군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낙안읍성 등 독특한 자랑거리를 다채로운 퍼포먼스 형태로 선보여 호평을 받은 순천시가 최우수상을 차지한데



이어 영광군과 광양시가 우수상, 고흥군·진도군·영암군이 장려상, 무안군이 생활체육 7330상을 수상했다. 화합상은 화순군, 질서상은 신안군, 감투상은 완도군, 응원상은 담양군, 모범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우수연합회상은 족구연합회가 각각 수상했다. 특히, 이 대회는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와 경상북도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참가,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함께 친선경기와 문화탐방을 하는 등 우호 교류의 정을 나눴다.

27) 제28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2016, 진도, 23개 종목)…통합 후 첫 대회

제28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2016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진도공설운동장과 진도군 일원에서 전남 22개 시·군과 서울시 생활체육 동호인 등 6,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3개 종목에 걸쳐 시·군 대항전으로 펼쳐졌다. ‘화합옴 생활체육, 건강옴 보배진도’를 슬로건으로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 이 대축전은 정식 19개, 민속경기 3개, 시범 1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 수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여수시가 23개 종목 340명으로 가장 많고 영암군 334명, 구례군 332명, 해남군 321명, 신안군 318명, 고흥·영광·진도군 각각 312명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22개 시·군 475명으로 최고를 기록한데 이어 배드민턴 421명, 야구 373명, 배구 337명, 족구 263명으로 집계됐다. 이 대회는 또 서울시 생활체육 동호인 65명이 진도를 찾아 게이트볼과 당구, 볼링, 당구 등 3개 종목의 친선경기와 함께 진도 세방낙조 해안 길과 진도타워, 윤림산방, 신비의 바닷길 등 문화탐방도 곁들이며 우의를 다졌다. 이 대회 최고령 참가자는 게이트볼의 최한운(순천·85), 최연소 참가자는 임일수(목포)·조영동 군(곡성·13) 등 2명이 동시에 기록됐다.

종목별 경기 결과, 여수시가 야구·탁구·수영·족구·테니스 등 5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광양시가 배드민턴·축구·씨름·그라운드 골프 등 4개 종목, 나주시가 검도·줄다리기, 순천시가 정구·태권도, 목포시가 볼링·육상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군도는 구례군, 배구 해남군, 새끼꼬기 완도군, 단체줄넘기 진도군, 게이트볼 신안군, 등산 영광군, 체조 장흥군, 합기도는 함평군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앞선 입장식에서 진돗개 등 독특한 자랑거리를 퍼포먼스 형태로 선보인 개척지 진도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보성·완도군이 우수상, 담양·해남·장성군이 장려상, 영암군이 스포츠 7330상을 각각 수상했다. 화합상은 강진군, 질서상은 고흥군, 감투상은 나주시, 응원상은 화순군, 모범적으로 경기를 운영한 우수 회원종목단체상에는 탁구와 볼링이 선정됐다. 특히, 이번 대축전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두 단체의 통합 후 (통합)전남체육회가 주최한 첫 대회로 양 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8) 제29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2017, 순천, 24개 종목)

제29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2017년 10월 26일부터 사흘간 전남 22개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등 6,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정원품은 행복순천, 함께 뛰는 전남도민’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이 대축전은 24개 종목(정식종목 20개, 민속경기 3개, 시범종목 1개)에 걸쳐 경쟁하고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전남 22개 시·군 대항전으로 치른 경기 결과, 여수시가 배드민턴, 수영, 육상 등 7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광양시가 씨름, 새끼꼬기 등 4개 종목, 개최지 순천시는 태권도 종목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최우수 입장상은 곡성군이, 화합상 영광군이 차지했다.

29) 제30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2018, 여수, 22개 종목)

제30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2018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전남 22개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6,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수 진남경기장에서 22개 종목에 걸쳐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전남도와 전남도체육회가 주최하고 여수시와 여수시체육회, 전남회원 종목단체가 주관한 이 대축전은 ‘함께 뛰자! 멋진 여수, 꽃피우자! 행복전남’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이 대축전은 20개 정식종목을 비롯 민속경기 1개, 시범 1개로 구성됐다. 정식종목은 검도와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산악, 수영, 씨름, 야구, 육상(단축마라톤, 100m, 400m 계주), 정구, 족구, 축구, 체조,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합기도였다. 이 대축전의 시·군별 참가인원은 화순군이 21개 종목 3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남군 352명, 여수시와 영암군 340명, 강진군 333명, 영광군 322명, 구례군 320명, 광양시 308명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축구가 22개 시·군 4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드민턴 431명, 야구 384명, 배구 350명, 족구 281명으로 집계됐다. 최고령 참가자는 게이트볼의 박병욱 웅(진도·85세), 최연소 참가자는 태권도의 마진성 군(강진·만 13세)으로 기록됐다. 개회식은 시·군 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도민현장 낭독, 도민의 날 시상, 스포츠 7330 실천 다짐, 도민의 노래 합창과, 입장상 발표가 이어졌다.

30) 제31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2019, 영암, 22개 종목)

200만 전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를 통한 도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제31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2019년 10월 25일부터 사흘간 영암군 일원에서 개최됐다. ‘제23회 전라남도민의 날’에 열린 이 축전은 전남 도민과 2만여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하나가 돼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기(氣)의 고장 영암에서 하나 되는 전남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 22개 시·군 생활체육 동호인과 임원 6,500명이 22개 종목(정식종목 21개, 민속경기 1개)에 걸쳐 기량을 선보이고 생활체육 동호인들 간 교류와 우의를 다졌다. 이 대회의 정식종목은 검도, 게이트볼,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배구, 배드민턴, 볼링, 산악, 소프트테니스

스, 수영, 씨름, 야구, 육상, 족구, 체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합기도였다. 전라남도체육대회와는 달리 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전남 시·군 종합체점제가 아닌 종목별 시·군 1~3위까지를 포함 종목별 개인상 1~3위, 입장상, 참여상, 우수회원 단체상 등을 각각 시상했다. 이 대회 최고령 참가자는 게이트볼의 고재덕 할머니(화순·여·89세), 최연소 참가자는 태권도의 류재관 군(고흥·13세)으로 기록됐다.

개회식은 시·군선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도민현장 낭독, 도민의 날 시상, 스포츠 7330 실천 다짐, 도민의 노래 합창(합창단), 입장상 발표(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순으로 진행됐다. ‘전라남도 홍보대사’이자 ‘미스트롯’ 출신 송가인을 비롯 노라조, 박현빈, 서지오 등 인기 가수들이 특별 무대를 선보여 분위기가 고조됐다. 대축전 기간 동안 서울시 생활체육 교류 선수단을 초청해 검도, 배구, 국학기공, 수영 등 4개 종목의 친선경기와 함께 왕인박사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양 지역 간 우의와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전남·서울 교류전은 양 시·도 생활체육 동호인의 친선경기와 함께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 증진, 지역 간, 종목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양 지역 발전에 기여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17회 여수 회 때부터 시행됐다.

31) 제32회(2020)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 창설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제12장 국제체육대회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하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동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다. 이들 대회는 세계에서 또는 아시아지역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스포츠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수준 높은 대회다. 대회 성적은 한 나라의 스포츠 수준을 보여줄 뿐 아니라 메달을 획득한 개인에게는 더없는 영광이 되기도 한다.

이들 국제 체육대회에도 우리 전라남도 출신 선수들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매듭을 지은 선수들이 많았다. 그만큼 전라남도 출신 스타플레이어들이 많았다는 증거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육성하기까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으로 두각을 나타낸 지도자들의 노고도 간과할 수 없다.

서울 올림픽 직전대회인 1984년 LA 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만형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함평 출신 김원기 선수가 선사한 감격은 아직도 전 국민의 뇌리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김원기 선수가 따낸 금메달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모에 이은 대한민국 두 번째다. 광주·전남 시도 분리 이후 국제대회와 대한민국 스포츠를 세계에 빛낸 전라남도 출신 선수들의 활약상을 정리한다.

1. 올림픽

1) 올림픽의 역사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한다. 올림픽은 국제 행사 중 가장 크고 잘 알려져 있으며 메달 수상자에게는 큰 명예가 주어지게 된다. 수상자는 순위에 따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주어지며 이는 1904년 이후 이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올림픽 개최지는 해당 올림픽 개최 7년 전에 IOC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2020년까지 올림픽은 24개국 45개 도시에서 열렸으며 유럽과 북아메리카대륙 이외의 대륙에서는 고작 9번 밖에 개최하지 못했다. 1988년 하계 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열린 것을 시작으로 그 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올림픽이 5번 열렸다. 이는 그 이전의 현대 올림픽사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였다. 2016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남미에서 열리는 첫 번째 올림픽이다. 아직 아프리카에서는 올림픽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미국은 5번의 하계 올림픽과 4번의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최다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이다. 영국은 2012년에 3번째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는 하계 올림픽을 2번 개최한 국가이다. 동계 올림픽에서는 이탈리아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개최지로 선정되어 3번째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가 3번을 개최했으며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예정인 영국도 한 도시에서 3번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가 된다.

프랑스는 동계, 하계 올림픽 각 3번씩 총 6번 개최로 최다개최국(미국, 9회)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이 개최한 나라가 된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이탈리아는 2번씩 개최했다. 일본은 하계, 동계 각 2번씩 총 4번으로 미국, 프랑스 다음 세번째로 많이 개최한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하계 한번, 동계 한 번 씩을 개최했다.

2)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서울올림픽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떨친 쾌거였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동서 이데올로기 분쟁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반대편 진영에서 열린 올림픽에 불참하는 국가가 생기는 이른바 반쪽 올림픽이 잇따라 세 번이나 계속됐다.

서울올림픽은 12년 만에 동서 지구촌이 함께 만난 화합의 무대였다. 전세계 159개국에서 1만3,304명의 선수단이 참가, 올림픽 사상 최대 대회규모 기록을 세웠다. ‘화합과 전진’이라는 서울올림픽 기본이념은 전 세계인의 뇌리 속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주제곡 ‘손에 손 잡고(Hand in hand)’는 냉전의 종식을 고하는 명곡으로 애창되기도 했다.

개최국 대한민국의 성적도 역대 최고였다. 금 12, 은 10, 동 11개 등 모두 33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당당히 4위에 올랐다. 종합우승은 금 55, 은 31, 동 46개를 따낸



서울올림픽 개막식 광경 -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소련이 차지했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기 전 마지막으로 참가한 올림픽이었다. 이
어 동독이 금 37, 은 35, 동 30개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미국이 금 36, 은
31, 동 27개로 3위에 랭크됐다.

3) 광주·전남 시도분리 이후 역대 올림픽과 전남 출신 선수들의 활약

(1) 1992년 제25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대회 첫 금메달과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라톤 금메달(황영조)을
모두 한국 선수가 딴 대회로 기록됐다. 당시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고교 2년생이던 전
남 곡성출신 여갑순. 여자 10m공기소총에서 올림픽기록(498.2점)을 세우며 딴 여갑
순의 금메달은 사격종목에서 한국이 얻은 최초의 금메달이었고 뜻밖의 금메달이라 감동
이 더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제 25회 하계 올림픽 대회. 오랜 보이콧의 역
사가 끝난 대회이자, 냉전의 종식으로 동서 대립이 없는 가운데 펼쳐진 최초의 대회다.

직전 대회 개최국이자 종합 4위를 기록했던 대한민국은 이 대회에서 금12, 은5, 동
12개로 종합 7위에 올라 지난 대회 성적이 결코 홈그라운드 유리함 덕분만이 아님을
증명하는 선전을 했다. 특히 황영조의 마라톤 금메달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달
고 획득한 마라톤 첫 금메달이었다. 황영조는 이 금메달로 ‘몬주익의 영웅’이라는 칭호
를 얻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카퍼레이드를 했던 마지막 대
회이기도 하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한민국 메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금메달= 레슬링 남자 그레코 57kg급 안한봉, 남자 자유형 74kg급 박장순, 배드
민턴 남자복식 박주봉 김문수, 여자복식 황혜영 정소영, 사격 남자 소구경
복사 이은철, 여자 공기 소총 여갑순, 양궁 여자단체 조윤정 김수녕 이은
경, 여자 개인 조윤정, 역도 남자 50kg 전병관, 유도 여자 72kg 이하급
김미정, 육상 남자 마라톤 황영조, 핸드볼 여자 오성옥 외 15명
- ▲은메달= 레슬링 남자 그레코 48kg급 김종신, 배드민턴 여자단식 방수현, 양궁 여
자 개인 김수녕, 양궁 남자 개인 정재현, 유도 남자 60kg 이하급 윤 현,
- ▲동메달= 레슬링 남자 그레코 52kg급 민병갑, 배드민턴 여자복식 길영아 심은정,
복싱 남자 75kg 이하 이승배, 복싱 남자 60kg급 이하 홍성식, 유도 남
자 71kg 이하급 정훈, 유도 남자 78kg 이하급 김병주, 체조 남자 도마
유옥렬, 탁구 남자 복식 유남규 김택수, 남자 복식 강희찬 이철승, 여자
복식 한정화 홍차옥, 남자 단식 김택수, 여자 단식 한정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최고 스타는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몬주익 영웅’
황영조지만 해남 출신 안한봉 선수도 스타덤에 올랐다. 안한봉은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57kg급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바르셀로나 올림픽 첫 금을 쏘아 올려 세계를 놀라게 한 곡성 출신 여갑순 선수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한민국이 구기 종목에서 사상 첫 올림픽 2연패를 이룬 종목이 바로 여자 핸드볼이었다. 서울 올림픽 정상에 올랐던 여자 핸드볼은 4년 뒤 1992 바르셀로나에서도 금메달을 획득, 구기 사상 첫 올림픽 2연패 쾌거를 올린 것.

여자 핸드볼 골문을 지키는 수문장 3명이 모두 전남 출신이었다. 문향자 장리라 차재경 트리오가 바로 그 주역들이다.

노르웨이와의 결승에서 28대21로 승리한 여자 핸드볼은 차재경(담양) 장리라(무안) 문향자(장흥) 등 전남 출신 3명이 골 문을 지키는 수문장으로 맹활약, 우승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들 자매 트리오는 무안 백제여상고 선후배 사이로 올림픽 2연패의 초석이 됐다. 한국 팀 주전 수문장 문향자는 반사력이 뛰어나고 상대 슈터의 방향을 잘 읽는 천부적인 골키퍼(GK)로 두둑한 배짱을 겸비, 장신의 유럽 선수들과 부딪치면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싸운 투혼이 빛을 발휘했다.

또 바르셀로나 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48kg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김종신은 함평 출신이다. 자유형 48kg급 결승에서 북한의 김일 선수를 만난 함평실고 출신 김종신은 경기시작 17초 만에 김일의 기습 태클에 걸려 3점을 내주는 등 다소 밀린 끝에 1대4로 판정패, 은메달에 머물렀다.

레슬링 명문 함평실고는 84년 LA올림픽 김원기, 88년 서울올림픽 김영남으로 이어지는 연속 금메달 리스트를 배출하고, 92년 바르셀로나 은메달 김종신까지 메달리스트 계보를 이어갔다.

이 밖에 레슬링 52kg 민병갑(해남)과 유도 71kg 정 훈(무안)이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 1996년 제26회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대한민국은 이 대회에서 300명이라는, 홈에서 열린 1988 서울 올림픽을 제외하면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고, 금메달 7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5개의 성적을 기록 종합순위 10위에 올랐다.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48kg 심권호, 여자 배드민턴 단식 방수현, 배드민턴 혼합복식 김동문 길영아, 여자 양궁 개인 김경욱, 여자 양궁 단체 김경욱 김조순 윤혜영, 남자유도 86kg 전기영, 여자유도 66kg 조민선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코카콜라 탄생 110주년, 올림픽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올림픽이자, 올림픽 상업화의 절정을 보여준 대회. 올림픽 대회 도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며 2명의 사망자와 111명의 부상자까지 나는 등, 치안 또한 엉망이었다.

여자하키는 은메달을 차지했는데 그 주역 장은정(화순) 전영선 진덕산(이상 목포시청)이다.

여자핸드볼도 은메달을 땀다. 김정심(초당대) 문향자(장흥)가 우리 전남 선수들이다. 남자 체조의 여홍철은 당시 뽀름 종목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였으나 막판에 착지 불안정으로 은메달에 그쳤고, 육상 마라톤의 이봉주는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의 마르틴 피스를 견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복병 남아공의 조시아 투과니에게 밀려 결국 은메달로 만족해야 했다.

(3) 2000년 제27회 호주 시드니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남북한이 동시에 입장한 대회. 주경기장에 아리랑이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남북한이 '코리아'라는 명칭으로 함께 입장한다는 멘트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방송되자 모든 관중들은 물론이고 이미 입장이었던 다른 국가의 선수단 일부도 박수를 쳤으며, 귀빈석의 호주 정부 관계자들과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도 밝은 표정으로 환영했을 정도.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남북정상회담과 맞물려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최초로 한반도기가 올림픽 대회에 모습을 드러낸 건 덤이다.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선수단이 동시 입장하고 있다

중국을 종합성적 3위로 뛰어오르며 종합성적 1위 미국과 종합성적 2위 러시아와 더불어 새로운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0개, 총 28개의 메달을 따 종합 12위에 올랐다. 야구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동메달을 취득하였고 이후 국제대회에서 야구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레슬링의 심권호는 이번 대회에서 체중을 불리면서까지 2체급에서 금메달을 따는 기적을 일궈냈다. 양궁에서는 여자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은 물론, 개인전에서도 금, 은, 동을 싹쓸이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대회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성적도 다들 좋은 편이었는지라 종합

12위에 그치며 1984 LA 올림픽 이후 가장 낮은 종합순위를 기록했다. 이 대회는 역대 올림픽 중 유일하게 10개국 이상의 국가가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했던 대회였다.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는 레슬링(그레코로만형 54kg) 심권호, 남자 양궁(단체) 김청태, 오교문, 장용호, 여자 양궁(개인) 윤미진, 여자 양궁(단체) 김남순, 김수녕, 윤미진, 남자 태권도(86kg) 김경훈, 여자 태권도(57kg) 정재은, 여자 태권도(67kg) 이선희, 남자 펜싱(플러레) 김영호 등이다.

은메달을 획득한 남자하키에선 김용배 여운곤 임종천(이상 담양) 김철환(강진) 선수 등이 자랑스런 전남 출신들이었으나 전체적으로 전남출신 상위군 입상자가 많지 않은 대회였다.

(4) 2004년 제28회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고대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자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이후 108년만에 다시 돌아와 개최된 올림픽으로, 대회 주제는 '올림픽 정신으로의 복귀'였다. 21세기의 첫 하계 올림픽이기도 했다.

대회 주제에 걸맞게 올림픽 경기장 중 일부도 당시 1896 아테네 올림픽때 사용했던 경기장들을 개량 또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대표적으로 양궁 경기장의 경우, 1896년 올림픽 당시 주 경기장이었고, 마라톤의 끝인 지점도 1896년 당시 주 경기장으로 선정했다. 주 경기장은 새로 신축했는데, 그 규모가 크고 아름다웠다.

한국 선수단은 북한 선수단과 함께 2000 시드니 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역사상 두 번째로 남북 동시 입장하였다.

한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9개의 성적을 거둬 종합성적 9위에 올라 8년 만에 목표했던 10위권 복귀에 성공했다. 그러나 20년 만에 일본에게 종합 성적에서 밀렸던 대회이기도 하며 특히나 메달이 가장 많이 걸려있는 기초 종목에서 참담한 성적을 거두었던 것이 일본에게 따라잡힌 결과를 만든 셈이었다.

한국은 구기종목에서도 전체적으로 부진했다. 야구는 아예 아테네에 가지도 못하는 참담한 성적을 거두었다.

여자 핸드볼에선 인상적인 결과를 펼치면서 승부던지기에 가는 접전 끝에 은메달을 차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비록 어린나이에 첫 출전해서 부정출발로 실격당했지만 박태환이라는 거물급 수영선수(당시 중학생이었다)를 발굴한 계기가 된 대회이기도 하다.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는 레슬링(그레코로만형 60kg) 정지현, 남자 배드민턴(복식) 김동문 · 하태권, 여자 양궁(개인) 박성현, 여자 양궁(단체) 박성현 · 윤미진 · 이성진, 남자 양궁(단체) 박경모 · 임동현 · 장용호, 남자 유도(73kg) 이원희, 남자 탁구(단식) 유승민, 남자 태권도(57kg) 장지원, 남자 태권도(80kg) 문대성.

(5) 2008년 제29회 중국 베이징 올림픽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개회 날짜와 시각을 8에 맞춘 것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8이기 때문이었다. 1964년 도쿄 하계 올림픽,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이후 세 번째로 20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대회였다.

중국은 개최지의 잇점을 최대한 살려 금메달 수에서 미국의 36개를 넘어서는 51개를 획득하여, 각국별 금메달 획득 수에서 처음으로 종합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총 13개로 서울 올림픽과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 12개의 기록을 달성하였던 금메달 최고기록을 경신하였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8개로 종합 7위에 올랐다.

특히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서 3분41초86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박태환은 대한민국 스포츠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또한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이효정과 짝을 이뤄 금메달을 목에 건 화순출신 이용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낳은 최고의 스타였다. 야구 대표팀은 세 번째 올림픽참가였던 베이징 대회에서 예선전과 준결승 결승까지 내리 9경기를 모두 이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남자 구기 단체 종목 최초의 금메달이다. 야구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일본을 6대2로 꺾은 뒤, 결승에선 쿠바를 3대2로 격파했다.



야구대표팀은 구기단체종목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대한민국이 획득한 금메달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남자 유도 60kg 최민호, 수영 남자 자유형 400m 박태환, 양궁 여자단체 주현정 · 박성현 · 윤옥희, 양궁 남자단체 임동현 · 이창환 · 박경모, 사격 남자 50m 권총 진종오, 역도 남자 77kg 사재혁, 역도 여자 75kg 장미란, 배드민턴 혼합복식 이용대 · 이효정, 태권도 여자 57kg 임수정, 태권도 남자 68kg 손태진, 태권도 여자 67kg 황경선, 태권도 남자 80kg 차동민, 야구의 강민호 · 고영민 · 권혁 · 김광현 · 김동주 ·

김민재 · 김현수 · 류현진 · 박진만 · 봉중근 · 송승준 · 오승환 · 윤석민 · 이대호 · 이승엽 · 이용규 · 이택근 · 이종욱 · 이진영 · 장원삼 · 정근우 · 정대현 · 진갑용 · 한기주.

이 대회에서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을 딴 화순출신 이용대는 ‘살인 윙크’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빅스타가 됐다.

남자 태권도 80kg급에서 금메달을 따낸 장흥 출신 차동민도 스타로 부상했다.

차동민은 이후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에도 출전했으나 8강전에서 아쉽게 탈락했고, 이어 2016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선 동메달을 따낸 대한민국 태권도 중량급 간판스타이다.

끝까지 투혼을 불사르며 금메달 만큼이나 값진 동메달을 따냈던 여자 핸드볼의 주역 중에는 무안 출신 김온아도 있었다. 김온아는 주전으로 뛰며 제몫을 해줬다.

(6) 2012년 제30회 영국 런던 올림픽

1908 런던 올림픽, 1948 런던 올림픽에 이어 3번째로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30회 하계 올림픽이다. 이 대회로 런던은 사상 최초로 올림픽을 3회 개최한 도시가 되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8개를 따내며 종합 5위에 올랐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의 최다 금메달 기록과 타이이며, 1988 서울 올림픽 종합 4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종합 5위 안에 들게 되었다.

양궁은 남자 개인전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따내는 등 금3, 동1로 최고의 효자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으며, 사격 및 펜싱에서의 선전도 크게 두드러졌다. 유도 또한 금 2, 동 1로 효자종목의 체면을 세웠으며, 특히 남자 유도는 출전 7체급 중에 6체급이나 동메달 결정전 이상 진출하는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

남자체조에서는 양학선이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숙원을 풀었다. 또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리듬체조에서 손연재가 한국 선수 최초로 결선에 진출하며 5위를 기록, 뜻밖의 낭보를 전하며 전 국민에게 체조요정으로 불리우게 됐다. 다만 체조는 양학선의 금메달과 리듬 체조 손연재의 기대 이상의 성적인 5위 입상을 제외하면,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단체전 12위는 참가 이래 최악의 성적.

수영에서는 박태환이 실격 파동을 딛고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또한, 준결승에 진출한 선수도 간간히 나왔지만, 박태환을 제외하고 결선에 진출한 선수는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가장 큰 성과를 낸 종목은 축구 펜싱과 사격이었다. 펜싱은 전 선수들이 맹활약하면서 금 2, 은 1, 동 3이라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고, 출전한 선수 16명 중 14명이 메달을 거는 기염을 토했다. 사격은 이번 대회에서 2관왕에 오른 진중오와 여자 사격에서 20년만의 금메달을 차지한 김장미의 활약과 은메달을 차지한 최영래, 김중현의 활약 속에 금 3, 은 2의 활약을 펼치면서 참가국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위업을 달성했다.

2012 런던 올림픽의 최고 스타는 여자 양궁 2관왕 기보배. 광주 출신 1988년생 기



보배는 개인전에서 금 과녁을 뚫는데 이어 단체전에서도 금 과녁을 명중시켜 영광의 2관왕에 오른 것. 한국 여성 양궁의 신궁계보를 잇는데 성공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제30회 하계 올림픽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박주영과 구자철의 골로 일본을 2 - 0으로 꺾고 역시 올림픽 축구 사상 첫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전 선수 가운데 전남 출신 기성용(광양) 김보경(구례) 지동원(광양 드래곤즈) 윤석영(광양제철고 졸업) 등 4명이 영광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다음과 같다.

레슬링(그레코로만형 66kg) 김현우, 남자 사격(20m 공기권총) 진종오, 여자 사격(25m 권총) 김장미, 남자 사격(50m 권총) 진종오, 여자 양궁(개인) 기보배, 남자 양궁(개인) 오진혁, 여자 양궁(단체) 기보배 · 이성진 · 최현주, 남자 유도(81kg) 김재범, 남자 유도(90kg) 송대남, 남자 체조(도마) 양학선, 여자 태권도(67kg) 황경선, 여자 펜싱(사브르) 김지연, 남자 펜싱(사브르 단체) 구본길 · 김정환 · 오은석 · 원우영

(7) 2016년 제31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2016년 제31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남아메리카에서 개최된 첫 번째 올림픽이다. 브라질에서는 2014년 FIFA 월드컵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가 되었다.

남미 최초의 올림픽 개최이자, 포르투갈어권 국가 최초의 올림픽 개최가 된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68 멕시코시티 올림픽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올림픽이 되며, 남반구에서는 1956 멜버른 올림픽과 2000 시드니 올림픽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되는 올림픽이 된다(국가로 치면 2번째). 또한 최초로 완전한 열대기후 지방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이며, 해당 지역의 겨울 시즌에 개최되는 하계 올림픽이었다. 이전에 남반구에서 두 차례 개최되었던 하계올림픽은 해당 지역에서 봄과 여름에 해당하는 계절이었다.

대회 결과 미국이 여전한 절대강자로 군림하는 가운데 영국과 일본의 약진이 돋보였다. 특히 미국 등 서양 국가들의 텃밭이라 여겨지던 수영과 육상에서 동양 출신 선수들이 메달을 꽤나 챙겨서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축하를 받았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도핑이 대회 내내 화두에 올랐으며 특히 선수들 사이에서 도핑에 대한 반감이 이례적으로 대놓고 표출되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 9개, 은 3개, 동 9개를 수확 종합 8위에 올랐다.

리우 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 중 단연 돋보인 것은 여자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이다. 무안 출신인 최미선은 기보배 장혜진과 짝을 이뤄 여자 양궁 단체전 8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2008년 하계 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 금메달리스트인 장홍출신 차동민은 이 대회에서 동메달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은퇴하였다.



(8) 2020년 제32회 일본 도쿄 올림픽

2020년 제32회 하계 올림픽은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원래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2020년에 일어난 코로나19 범유행의 여파에 따라 개최 시기를 1년 미룬 것. 그러나 대회의 공식 명칭은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비록 2021년에 열렸지만 ‘TOKYO 2020’이었다. 하계 올림픽의 개최 시기가 1년 연기되는 것은 근대 올림픽 124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2013년 9월 7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125차 IOC 총회에서 2020년 하계 올림픽의 개최지가 도쿄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1964년 도쿄 하계 올림픽이 열린 지 56년 만에 두 번째로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는 국가가 되었다. 동시에 도쿄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하계 올림픽을 2회 유치한 도시가 되었다.

일본의 동·하계 올림픽 유치는 동계 올림픽 개최횟수 2회(1972년 삿포로 동계 올림픽과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와 더불어 총 4회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으로 2020년 하계 올림픽은 대한민국 평창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연속으로 열리는 세 올림픽 대회 중 두번째 대회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온갖 논란 속에 사상 최초로 무관중으로 치러졌던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등 모두 20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종합성적 16위의 성적표를 받아 든 대한민국 선수단에겐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당초 금메달 7개, 종합 10위를 목표했던 선수단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였다. 과거 역대 올림픽과 비교하면 LA 올림픽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다. 여자양궁 단체전에서 9연패의 대기록을 세웠다. 특히 안산(광주여대)은 혼성전, 개인전, 단체전을 모두 석권하며 한국 올림픽 사상 첫 3관왕이 됐다. 안산 선수는 광주에서 자랐으나 아버지 안경우씨는 전남 강진 출신이다.

근대5종에서 동메달을 획득, 첫 메달의 역사를 만들어낸 전용태(광주광역시청)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육상과 수영 등 기초 종목에서도 희망을 봤고 ‘위대한 4등’들이 대회를 빛나게 했다. 4위의 성적을 거둬 비록 메달을 획득하지는 못했으나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열세종목 선수들에겐 아낌없는 찬사가 이어졌다.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전남 출신 선수들의 활약은 역대 대회와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펜싱 남자 단체 사브르 금메달을 획득한 구본길 김정환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으로 전라남도 소속이다. 김정환은 사브르 개인전에서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골프에서 영암출신 김세영이 야심차게 메달에 도전했으나 고진영과 함께 공동 9위를 기록했다.

화순 출신 임애지(한체대)는 한국 여자 복싱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여성 페더급(54~57kg)에 출전한 임애지는 32강전에서 부전승으로 16강에 올랐었다. 본인의 올림픽 첫 경기인 16강전에서 니콜슨 스카이(호주)에게 1대4로 판정패, 다음 대회를 기약해야 했다.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왼쪽)은 2020 도쿄하계올림픽 한국선수단 지원단장으로 활약했다

도쿄 올림픽 대한민국 메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 금메달= 양궁 혼성 단체전 (김제덕 안산), 양궁 여자 단체전 (강채영 장민희 안산), 양궁 남자 단체전 (김제덕 김우진 오진혁), 양궁 여자 개인전 안산,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구본길 김정환 김준호 오상욱), 기계체조 도마 신재환
- ▲ 은메달= 펜싱 여자 에페 단체 (강영미 최인정 송세라 이해인),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 유도 조구함 남자 100kg, 사격 김민정 25m 공기권총
- ▲ 동메달= 펜싱 김정환 사브르 개인전, 태권도 장준 남자 58kg, 유도 안바울 남자 66kg, 유도 안창림 남자 73kg, 태권도 인교돈 남자 80kg,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권영준 마세건 박상영 송재호),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김지연 윤지수 서진연 최수연), 체조 여서정 기계체조 도마, 배드민턴 여자 복식(김소영 공희용), 근대5종 전용태

2. 아시안 게임

1) 아시안 게임의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신생 독립국들은 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서 상호간의 이해로 발전할 새로운 종류의 경쟁을 원했다. 1948년 8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14회 하계 올림픽 경기 중에, 인도의 IOC 위원인 두트 손디는 아시아의 스포츠 선구자들에게 아시안 게임에 관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참가국 중 대한민국·필리핀·미얀마(당시 버마)·인도·중국(당시 중화민국)·스리랑카(당시 실론 연맹)의 6개국이 대회개최를 합의하였다. 1949년 몇몇 나라가 더 참가하여 아시아 선수권 연맹을 창시한 후 1950년 인도 뉴델리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대회 준비 미흡과 복잡한 국내외 사정에 따라 제1회 대회는 1년 연기된 1951년 열렸다. 제1회 대회는 한국 전쟁으로 대한민국이 불참하고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였다.

아시아 여러 나라의 참가가 이어지면서 회를 거듭하면서 참가국이 늘어나고 대회 규모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회원국들 사이의 정치적 대립으로 대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962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4회 대회에서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출전을 반대하여 이스라엘은 참가하지 못했다. 참가국가 명칭문제와 개최지 문제 등 잡음이 계속된 가운데 1980년대 들어 아시아 경기 대회는 큰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대회 발전을 위한 상설 기구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고, 1982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9회 대회를 끝으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가 대회를 주관하게 되었다.

1986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대회에서는 북한 등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이 불참하여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중국은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대회는 양적·질적으로 더욱 성장하였다. 이후 북한은 부산에서 열린 제14회 대회와 인천에서 열린 제17회 대회에 참여하였다.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속하는 독립국이 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에 가입했다. 이들 5개국은 1994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제12회 대회에 처음 참여했다. 문화적·민족적 문제 등으로 일부 국가들이 이들 국가 참여를 반대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구 소련의 스포츠 전통을 이어받은 이들 국가의 참여로 경기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2006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5회 대회에서는 45개국의 39개 종목 15,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성장했다.

한편 한국은 1986년 서울에 이어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 등 세 번의 대회를 개최했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개막식 광경

2) 전남 출신 선수들의 선전

역대 올림픽에서 전라남도 출신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듯이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아시안 게임은 전라남도 출신 선수들의 독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안 게임을 빛낸 역대 메달리스트들의 현황을 봐도 전라남도 출신 선수단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했는가를 금방 알 수 있다.

대한해협을 건넌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선수를 비롯 아시안 게임 3연패 위업을 달성한 역도 김태현(보성), 정구 유영동(순천) 선수가 모두 전라남도 출신 선수들이다.

또 여자 사이클에서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대회까지 내리 3회에 걸쳐 금메달 8개를 따낸 나아름(나주) 선수 역시 전라남도가 배출한 아시안 게임 스타플레이어다.

펜싱 에페 남자 단체전에서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연패의 주역으로 활약한 박경두(해남) 역시 자랑스런 전라남도 출신 선수다.

또한 2010년 광저우 대회 수영 여자 평영 200m 금메달 리스트 정다래(여수), 정구에서 2002년 부산대회 금메달 3개를 수확한 김서운(신안), 금메달 2개를 획득한 박영희(장흥) 선수 역시 전라남도 출신이다.

제11회 아시안 게임은 1990년 9월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중국이 총 메달의 34%, 전체 금메달의 60%를 가져가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다. 중국은 금메달 183개, 은메달 107개, 동메달 51개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모두 19명의 3관왕을 배출했다. 특히 수영에선 40개의 금메달 가운데 32개를 휩쓸었다.



총 36개국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 불참했던 북한, 베트남, 라오스, 몽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미얀마가 다시 참가하였다. 타이완은 중화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1970년 아시안 게임 이후 20년 만에 아시안 게임에 복귀하였으며 예멘은 통일 이후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4년 전인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개최국의 이점을 살려 무더기 금메달을 수집하던 대한민국은 중국(94개)에 1개 뒤진 93개로 종합 2위에 올랐다.

베이징 대회에서도 대한민국은 금메달 54개, 은메달 54개, 동메달 73개로 종합 2위를 고수하였으나 1위 중국과 금메달 숫자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졌다.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서 전남 출신 선수들의 선전도 두드러졌다. 먼저 요트 레이저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박길철 선수는 여수 돌산 출신으로 지난 86년 서울 대회에 이어 아시안 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여수 수대 재학시절인 지난 1983년 요트를 시작해 이듬해 2인승인 엔터프라이즈급 국가대표로 발탁된 박길철은 1985년 아시아선수권대회(부산)부터 1인승인 레이저급으로 바뀌 ‘아시아의 제왕’으로 군림했다.

역도에선 보성 출신 김태현이 최중량급인 110kg급에서 금메달을 들어 올려 향후 아시안 게임 3연패의 금자탑을 이루는 첫 시동을 걸었다. 김태현은 1969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아시안 게임 최중량급 3연패(1990·1994·1998), 전국체전 16연패. 인상(205kg)·용상(260kg)·합계(460kg) 한국기록을 세웠으며 장미란 이전 한국역도 중량급의 최고스타였다.

무안 출신 정훈은 유도 71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1969년생으로 무안중, 광주체고, 유도학교(용인대학교)를 나온 정훈은 고3때 상비군에 선발됐으나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서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는 은퇴 후 용인대학교와 건국대학교에서 석사를 따고, 명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모교인 용인대학교로 돌아와 교수직을 맡았다. 그리고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부터 남자 유도 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 유도에서 김재범과 송대남이 2개 금메달을 따고, 남자 선수 전원 8강 진출 및 6명 4강 진출, 여자 선수 2명 4강 진출이라는 좋은 성과를 내면서 감독으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 런던 올림픽을 마치고 조인철에게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넘겼다. 이후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중국 유도대표팀 감독을 맡아 중국 남자 유도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 청선자오(남자 90kg급)를 배출했다.



또 이 대회에서는 화순출신 이흥순이 여자 배드민턴 금메달을 따냈고, 역시 화순출신 장은정은 여자 하키 대회 2연패의 주역이었다.

(3) 1998년 방콕 아시안 게임

제13회 아시안 게임은 1998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15일 동안 열린 이 대회는 방콕이 반납된 두 차례의 대회(1970년, 1978년)를 대신 개최 이후, 처음으로 유치 경쟁에 뛰어난 후 정식으로 개최권을 얻어 연 대회이다. 참가국은 모두 41개국이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65개, 은메달 46개, 동메달 53개를 얻어 금메달 129개를 수확한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고수했다.

방콕 대회서 인상 깊은 경기는 야구. 이 대회부터 프로선수들의 참가가 허용되었다. 그래서 박찬호 같은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승은 대한민국, 준우승은 일본. 3위는 대만이 기록했다.

당시 대표 팀 투수진에 김병현·서재웅·임창용 등과 타자 박재홍 등 우리 고장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이 주전으로 활약했다. 이들 대표팀은 금메달을 거머쥐고 그보다 더 값진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소프트 테니스(정구)에서 신안 출신 강지숙은 여자 복식과 여자 단체전에서 나란히 금메달 2개를 수확,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강지숙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도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딴 데 이어 대회 2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4) 2002 제14회 부산 아시안 게임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울경 3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된 부산 아시안 게임은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99 강원 동계 아시안 게임에 이은 대한민국 세번째 아시안 게임이다.

최종 순위는 대한민국이 금메달 96개, 은메달 80개, 동메달 84개로 종합2위를 차지했다. 종합1위 중국은 금메달 150개, 은메달 84개, 동메달 74개를 휩쓸었다. 3위는 일본이 금메달 44개, 은메달 73개, 동메달 72개를 수확했다.

부산 아시안 게임의 히어로는 근대5종에서 3관왕에 오른 광양 출신 김미섭이었다. 김미섭은 남자 개인, 남자 단체, 남자 복합경기에 나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은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이미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바 있다. 전남도청 팀 코치생활을 하다 다시 선수로 뛰어 금메달 3개를 수확한 노장 투혼을 발휘했다.

박태환은 이 대회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수영 3관왕을 차지하여 대회 MVP로



올라섰으며, 1998년 방콕 대회부터 MVP 제정 후 한국의 아시안 게임 첫 MVP 배출이다. 이는 2년 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선전으로도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축구와 야구, 농구 같은 국내 인기 구기 종목들은 무덤이 된 대회다. 당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 팬층을 보유한 야구, 축구, 농구였기에 충격은 더 했다. 특히 야구는 도하 참사를 연출하며 동메달에 그쳤으며, 축구는 노메달의 수모를 당했다.

그 와중에 인기 구기 종목인 배구에서 남자배구가 대회 2연패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땀는데 남자배구 금메달 최고 수훈 선수는 고흥 출신 신진식. 신진식은 대한민국 배구계 최고의 거포로 이미 2002 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땀기 때문에 대회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신진식과 함께 도하 아시안 게임 남자 배구 금메달을 일군 윤봉우는 목포 출신이다.

또 요트의 여수 출신 김대영-정성안 조가 요트 남자 470급에서 가볍게 금메달을 획득, 대회 3연패 쾌거를 이뤘다.

사격 여자 스키트 단체전에서 손혜경 · 김연희와 함께 출전한 여수출신 곽유현은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도 90kg급 황희태(목포 출신)는 금메달, 승마 장애물 주정현(장흥 출신)은 은 · 동메달을 따냈다.

(6)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제16회 아시안 게임은 2010년 11월 12일에서 11월 27일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렸다. 광저우는 1990년 베이징에 이어 중국 내에서 두 번째로 아시안 게임을 치른 도시이다. 42개 스포츠 종목(올림픽 종목 28개, 비올림픽 종목 14개)이 진행된 이 대회에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45개 회원국에서 총 9,704명이 참가했다. 경기는 인근 도시인 둥관, 포산, 산웨이에서도 진행되었다. 바둑이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에 추가되었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76개, 은메달 65개, 동메달 91개로 종합 2위를 고수했다. 중국은 금메달 199개, 은메달 119개, 동메달 98개를 쓸어 담아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 대회에서도 전남 출신 선수들의 활약은 돋보였다.

여수출신 최복음은 볼링 5인조 단체전, 3인조 단체전, 마스터즈에서 연거푸 금메달 시상대에 올라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최복음은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볼링 5인조 단체전에서도 잇달아 금메달을 목에 걸어 이 부문 3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최 선수는 한국 남자 선수론 처음 세계선수권 개인종합 우승을 두 차례(2008 · 2014)했고, 아시안게임 통산 금메달 4개도 땀다. 2015년 아시아선수권 2관왕(2인조 · 5인조)도 달성했던 그는 모든 볼링 메이저 대회를 섭렵한 한국 간판 볼러다.

남자 펜싱 에페 단체전 금메달 리스트 해남 출신 박경두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박경두는 또 에페 개인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 에페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에페 단체전에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대회에서 해남 출신 김동훈은 남자 정구 복식과 단체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 2관왕에 올랐다. 남자 단식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동훈은 2018년 자카르타 대회에서도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보탤다.

아시아경기에서 금메달 3개를 비롯해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날리던 김동훈이 전국체육대회 4연패를 마지막으로 2018년 19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자 핸드볼에서 투혼을 발휘하며 동메달을 목에 건 무안 출신 김은아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기어코 금메달 주역이 된다. 김은아는 이어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도 출전, 여자 핸드볼 2연패를 달성했다.

곡성 출신 여자 볼링 이영승은 5인조전 은메달, 2인조전과 3인조전에선 동메달을 각각 따내 실력을 과시했다.

(8)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 게임

2018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하계 아시안 게임. 원래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하기로 했었으나 베트남이 경제사정을 이유로 포기하면서,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와 팔렘방 공동개최로 변경되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북한은 여자 농구, 카누 용선, 조정 등 일부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했다. 개막식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 선수단이 동시에 입장하였다.

대한민국은 역대급으로 부진한 성적으로 이 대회를 마감했다. 1994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이후 24년 만에 종합 3위를 기록했다. 금49, 은58, 동70개를 획득했다.

전남 출신으로는 사이클 4관왕을 차지한 나주 출신 나아름이 돋보였다. 나아름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대한민국 최고 스타로 떠올랐다. 4년 전 인천 아시안 게임서 사이클 3관왕에 올랐던 나아름은 이번엔 그때 보다 금메달 하나가 더 많은 4관왕에 오르며 아시아 여자 사이클계를 평정한 것.

나아름은 이번 대회서 여자 개인 100km 도로, 여자 타임 트라이얼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뒤 트랙 여자 단체 추발, 여자 메디슨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전무후무한 4관왕에 올랐다. 여자선수 최초로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한국 사이클 여제’로 불리는 나주 출신 나아름은 2019년 유럽 프로무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아시아 여자 사이클을 평정한 나아름

3. 동계 올림픽

1) 동계 올림픽의 역사

동계 올림픽은 4년 마다 개최되는 겨울 종합 스포츠 대회이며, 짙은 해에 열린다. 동계 올림픽은 겨울 스포츠로 눈 또는 얼음 위에서 열린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 예로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컬링, 프리스타일 스키, 아이스하키, 동계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피겨 스케이팅 등의 종목이 있다. 1924년부터 매 동계 올림픽에서 시행된 종목으로는 크로스컨트리,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노르딕 복합, 스키점프, 스피드 스케이팅이 있다. 다른 운동 경기는 올림픽을 거듭하면서 추가되었다. 추가된 경기 종목으로는 루지, 쇼트트랙, 프리스타일 스키 등이 있다.

하계 올림픽보다 동계 올림픽은 참가하는 나라의 그 수가 적다. 제1회 동계 올림픽은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1924년에 열렸다. 그 이전에는 피겨스케이팅과 아이스하키 경기가 하계 올림픽에서 열렸다. 올림픽은 1924년부터, 세계 2차대전에 의해 중단되기 전인 1940년까지 4년 마다 열렸다. 1940년 이후, 중단된 동계 올림픽과 하계 올림픽은 1948년 동계 올림픽을 시작으로 다시 개최된다. 둘은 1992년까지는 같은해에 개최되었다. 동계 올림픽은 1994년부터는 하계 올림픽과는 다른 해에 개최되었고, 그 첫 번째가 1994년 동계 올림픽이며 노르웨이 릴레함메르에서 개최되었다.

동계 올림픽은 많은 나라들이 개최해왔다. 미국은 4번으로 그 횟수가 가장 많고, 프랑스 3번 이탈리아 2026년 동계 올림픽 개최예정으로 프랑스 다음으로 3번 개최국이 된다. 일본, 오스트리아, 노르웨이를 포함한 몇몇 나라들은 2번씩 개최하였으며 모두 북반구에서 개최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최된 2018년 동계 올림픽은 대한민국 평창에서 순조롭게 마쳤다. 그 다음 대회인 2022년 동계 올림픽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게 된다.

전남 출신 동계 종목 선수들은 동계 올림픽에서는 이렇다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지역의 특성상 동계 종목이 취약하고 선수층도 얇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쇼트트랙 스타로 군림한 김동성이 지역 곡성 출신이기는 했지만 그도 성장지는 서울이다.

2) 대한민국의 동계 올림픽 도전 초기

대한민국은 1948년 스위스 장크트모리츠에서 열린 제5회 동계 올림픽에 세 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출전했다. 스피드스케이팅 한 종목에 3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나 모두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1956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개최된 제7회 동계 올림픽에 참가했다. 1952년 동계 올림픽은 한국전쟁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였으며, 이번이 두번째 동계 올림픽 참가이다.



스피드스케이팅 한 종목에 총 네 명의 남자 선수가 출전하였으며, 메달권에 들지는 못했다.

1960년 미국 스커벨리, 1964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1968년 프랑스 그르노블, 1972년 일본 삿포로, 1976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1980년 미국레이크플레시드, 1984년 유고슬라비아 사라예보 대회 까지 즐기치게 참가했으나 메달권까지는 거리가 멀었다.

1988년 캐나다 캘거리에서 개최된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희망을 안겨 줬으며 이후 한국은 놀라운 기록을 수립한다.

시범경기로 열린 남자 쇼트트랙 1,500m서 김기훈 선수가, 3,000m서 이준호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여자부 쇼트트랙에선 홍호경, 이연숙, 유부원 선수가 상위권에 오르며 가능성을 확인했다.

3)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첫 금메달 이후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은 6개 종목에 25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다.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 동계 올림픽 참가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획득하였다.

금메달은 모두 쇼트트랙에서 나왔다. 김기훈이 남자 1,000m에서 첫 금메달을 딴 것. 이어 김기훈 이준호 모지수 송재근이 출전한 쇼트트랙 남자 5,000m계주에서 두 번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이어 김윤만이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1,000m에서 은메달을, 이준호가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2년 만에 다시 열린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제17회 동계 올림픽에 대한민국은 6개 종목에 24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다.

또 1998년 일본 나가노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은 8개 종목에 38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이번에도 역시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여 쇼트트랙 강국의 이미지를 이어갔다.

이 대회에서는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동성이 주목을 받았다. 1980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김동성은 서울에서 줄곧 성장했지만 전남 출신 동계선수로서 눈길을 끌었다. 김동성은 2002 세계선수권에서 무려 6관왕을 했는데, 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전관왕을 해낸 선수는 쇼트트랙 역사상 김동성이 유일무이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김동성은 선수시절 올림픽 1, 세계선수권 11, 세계 팀선수권 1, 아시안 게임 3,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 5개 등 모두 금메달 21개를 수집했던 ‘금메달 수집광’이다.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개최된 동계 올림픽에 참가한 대한민국 선수단은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하였다.

2006년 2월 10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제20회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다.

2010년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21회 동계 올림픽에 선수단은 역사상 최고의 순위인 5위를 기록(금메달 개수에 따른 순위) 했다.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 등 14개의 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은 동계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한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쇼트트랙 일색이던 금메달 종목도 다양해졌다. 특히 불세출의 스타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획득,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대한민국은 2014년 2월 7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제22회 동계 올림픽에 선수 71명, 임원 49명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파견했다. 대한민국 동계 올림픽 선수단 역사상 가장 많은 선수단을 파견한 대회였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228.56의 최고 신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 획득한 김연아



금메달은 이상화가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 심석희 박승희 조해리 김아랑 공상정이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에서, 박승희가 쇼트트랙 여자 1,000m에서 각각 따냈다.

2018년 제23회 동계 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대한민국 강원도 평창군 등에서 개최됐다.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이며 서울에서 개최된 1988년 하계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두 번째 올림픽이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대한민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를 획득 종합 7위에 올랐다.

III

대한민국을 빛낸 전남체육인



“

대한민국 체육사에 이름을 남긴 전남 체육인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전남 출신 선수들의 영광과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 체육이 도입된 이후 조국의 이름을 빛낸 각 분야 전남 출신 체육인들 가운데 분야별 대표적인 선수들을 선정, 그 업적을 소개한다. 여기에 소개하지 못한 더 많은 전남 체육인들이 있지만 지면상 모두 소개하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1. 손기정에 가려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영웅 남승룡



남승룡(1912~2001)은 일제 강점기인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2시간 31분 42초를 찍으며 동메달을 딴 순천 출신 육상 선수이다. 당시 손기정(1912~2002)은 2시간 19분 19초의 기록으로 한국인 첫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금메달 시상대에 우뚝 선 손기정 선수나 동메달 시상대에 오른 남승룡 선수 가슴엔 모두 일장기가 달려있었다.

당시 시상식 사진을 보면 재미있는 광경이 보인다. 손기정 금메달 리스트는 월계관으로 교묘히 일장기를 가리는 꾀를 발휘하였다. 남승룡 동메달 리스트도 바지 허리끈을 최대한 끌어올려 어떻게든 일장기를 조금이라도 가려보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나라를 잃은 설움에 일장기를 가려보려는 동갑나기 두 메달리스트들의 애국심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

훗날 그는 손기정이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릴 수 있다는 게 그가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욱 부러웠다고 회고하였다.

1932년 전일본마라톤선수권과 1933년 극동선수권에서 잇달아 우승했으며, 일본건국기념 국제마라톤에서는 1934년과 193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그 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손기정을 제치고 1위로 골인하며 일본 대표로 뽑혔다.

원래 일본에서는 손기정은 세계 최고기록 보유자이니 마지못해 선발하더라도, 남승룡은 뽑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권태하 코치와 당시 조선 육상계의 후견인 격이었던 기업인 정상희가 “선발전 1위를 한 선수를 탈락시키다니 무슨 헛소리들이냐”고 강하게 반발했고, 1928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일본 최초의 금메달을 딴 육상 영웅 오다 미키오가 남승룡을 지지하면서 논란이 정리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참가한 1936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2시간 31분 42초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땀다. 2위로 앞서 골인한 영국의 어니스트 하퍼는 거의 실신할 듯이 기진맥진한 반면 남승룡은 완주하고도 기운이 남아서 제자리뛰기를 하며 손기정에게 축하의 말을 건넬 수 있었다. 그의 동메달 획득은 막판 스퍼트로 30명 정도의 선수들을 앞지른 결과였다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었다.

금메달을 딴 손기정에 비해 남승룡은 많은 관심을 못 받았는데, 절친한 친구였던 손기정이 입버릇처럼 “같이 고생했는데 나만 대접받는 것 같아서 언제나 미안하고



큰 빛을 진 기분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일본이 남승룡과 손기정을 어떻게든 대표에서 탈락시키려고 올림픽 개최지인 베를린에 도착한 후 일본 선수들조차 반기지 않은 ‘마라톤 일본 대표 최종 선발’을 한번 더 자체적으로 열었다고 한다. 일본 선수들이 두 선수 몰래 지름길로 왔음에도 일본 선수들을 이기고 손기정 선수와 나란히 1, 2등으로 들어왔다. 그 결과에 너무 화가 나서 선발 레이스 후 일본 선수들은 질책과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나 해방 후인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마라톤 선수로서는 많은 나이로 출전하여 10위권 안의 성적을 거두며 건재를 과시했다. 출전한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슴에 일장기 대신 태극기를 달고 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 대회에서는 후배인 서운복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공립보통학교(지금의 순천남초등학교) 6학년 시절이던 1924년에 조선신궁 대회 마라톤에서 2위를 차지하며 육상 선수의 자질을 드러냈다. 이후 경성 양정고 등보통학교(양정고)에 진학하였으나 자퇴하고 1927년 일본 유학길에 올라 1931년에 일본 도쿄 아사부 상업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일본 메이지 대학 철학과에서 학사 학위 취득하였다.

순천시에 남승룡 용의 이름을 딴 ‘남승룡로’가 있다. 또 남승룡 선수의 올림픽 동메달 획득을 기념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매년 ‘순천 남승룡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1947년 1월부터 63년 9월까지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를 지내고 전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후, 1970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는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을 받았다.

2001년 2월 20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숙환으로 별세했다. 유해는 화장 후 경기도 용인시 용인공원묘지 납골당에 안치되었다. 그리고 평생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동료였던 손기정도 이듬해 11월에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남승룡 선수 주요 마라톤 기록

- 제 20회 전일본선수권 마라톤 2위(2시간 32분 33초, 1933. 11. 3.)
- 1936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파견 최종 선발전 1위(2시간 36분 05초, 1936. 5. 21.)
- 1936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동메달(2시간 31분 42초, 1936. 8. 9.)
-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10위(2시간 40분 10초, 1947. 4.)

2. ‘박치기 왕’ 프로레슬링 세계챔피언 김일



2018년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박치기 왕’ 김일(1929~2006) 프로레슬링 세계챔피언은 1929년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에서 태어났다.

김일 선수의 고향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엔 2012년 ‘김일 기념체육관’이 건립됐다. 준공 기념비에 적힌 내용이다. “힘들고 어렵던 시절 박치기 한방으로 온 국민의 한을 씻어주고 웃음과 희망을 주었던 박치기 왕 김일 우리들의 영웅을 이곳에 영원히 기린다.”

60~80세대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박치기 왕으로 국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김일. 184cm의 거구였던 김일은 어렸을 때부터 각종 씨름대회를 휩쓸었을 만큼 이름난 장사였다고 한다. 상으로 받은 소가수 십 마리였다고 한다.

씨름에서 레슬링으로 전향한 김일은 전국 대회를 휩쓸었고, 부동의 챔피언이 되었다. 김일 선수가 한창 선수로 명성을 날리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도 그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한다. 경기가 끝나면 그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식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불러서 “임자의 소원이 뭐냐?” 라고 묻자 김일 선수는 “제 고향 거금도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이후 청와대 지시로 거금도에 전기 시설이 일찍 들어서게 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시골처럼 거금도 주변 마을 사람들이 초롱불 아래서 일하고 책을 볼 때 거금도 주민들은 전기 혜택을 보게 된 것. 고향에 크나큰 선물을 해준 김일에 대해서 거금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 김일 기념체육관 앞에는 김일의 생가와 묘역, 기념비 등이 세워져 있다. 거금도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시설이다.

김일은 한국 프로레슬링을 이끈 주역이자 한국 프로레슬링 그 자체였던 영원한 스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였다. 흑백 TV가 귀하던 시절 김일 프로레슬링 경기가 있던 날에는 온 동네 주민들이 옹기종기 TV 앞에 모여 박수를 치고 환호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특히 김일 선수가 상대방의 반칙공격이나 심판의 눈을 속인 비신사적인 기술에 당해 시종일관 고전하다가 박치기 한방으로 통쾌하게 상대를 메트에 눕힐 때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었다. 응어리진 한을 통쾌하게 풀어주고, 쾌활한 웃음을 선사했던 김일은 우리들의 우상이었다.



그는 시합 입장 때 입는 한복 가운데에는 항상 대한민국 선비를 상징하는 것이 그려진 유니폼을 입고 다녔다. 그가 '대한의 남아' '전라도 사내'라는 정체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다녔다. 다양한 기술을 구사하며 빠른 몸놀림으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스타 플레이어지만 그가 가진 필살의 무기는 바로 외다리 원폭 박치기. 이 때문에 일찌기 '박치기왕'이라는 애칭이 붙어 다녔다.

한국 프로레슬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김일 밖에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다. 김일 선수 후배로 태권왕 천규덕과 장영철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지만 김일 선수 명성에는 한참 못 미친다. 천규덕의 아들은 2017년 KBS 연기대상도 수상한 배우 천호진이다. 천규덕과 장영철 뒤로는 이왕표 선수가 맥을 이어갔다. 한국 프로레슬링의 몰락도 김일을 대체할 다른 선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김일은 젊은 시절에 무작정 일본으로 밀항하여 형무소에 갇히는 고초를 겪다 편지로 연을 맺은 역도산의 제자가 되었다. 박치기를 필살기로 삼았다. 전성기 시절 역도산의 단체 일본 프로레슬링(JWA)에서 자이언트 바바, 안토니오 이노키와 함께 젊은 삼총사로 불리는 등 거물로 손꼽혔다.

하지만 스승 역도산이 1963년 시비가 붙은 야쿠자를 두들겨 패다 칼에 찔려 허망하게 사망한 이후 일본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이후 대한 프로레슬링의 에이스로 활동하게 된다. 1974년 안토니오 이노키와의 NWF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명경기를 펼치는 등 크게 활약했다.

한국 프로레슬링에도 진출했는데, 본래 한국 프로레슬링은 역도산의 TV중계를 보면서 자생적으로 프로레슬링을 시작한 국내파 선수들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터를 닦아놓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김일이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왔다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 김일 이전의 한국 프로레슬링의 양대 거성이었던 장영철과 천규덕 가운데 천규덕은 김일과 협력하게 되었으나 장영철은 완전히 김일과 척을 졌다. 이때 장영철도 자존심을 세울 법한 것이 장영철은 원래 아마추어 레슬링을 하던 정통파 레슬러였다. 일추 100명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수의 제자를 길러냈다. 초창기 몇 년 간은 장영철이 백지에서 프로레슬링 판을 혼자서 닦아 세운 것이나 다름없었다. 장영철 입장에서는 충분히 김일을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여길 만했다. 당시 김일과 장영철의 대립은 심각해서 장영철이 단체를 따로 만들어서 나가고, 장영철 파는 김일 계열과는 아예 시합도 가지지 않을 정도였다.

하지만 해외 인맥이 미흡했던 장영철계는 점점 도태되었으며, 김일은 지속적으로 흥행을 성공하면서 한국 프로레슬링계의 대부격인 존재가 되었다. 김일은 장영철이 가지지 못한 해외 인맥을 이용해 프로모터로서 캐나다, 미국, 일본 등의 국적을 가진 선수들을 동원했다. 김일은 스승 역도산이 일본에서 성공한 방식을 비슷하게 벤치마킹해서 자기보다 덩치가 큰 미국 선수나 일본 선수를 상대로 싸웠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잘 통하던 일종의 '애국심' 효과까지 겹쳐서 인기가 더욱 좋았다. 게다가 당시엔 프로레슬링이 짜여진 각본으로 움직이는 게임이라는 것을 많은 대중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다.

김일은 세계 프로레슬링 역사에서도 자신의 족적을 제법 남긴 프로레슬러다. 그래서,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프로레슬링 역사에서 거물로 취급 받는 인물이다. 다만, 세계에 족적을 남긴 그 이름은 대개 일본에서 활동하던 당시 명칭인 오키 긴타로로 남아 있다. 당연히 일본이나 서양 프로레슬링 골수 팬들도 김일보단 오키 긴타로로 알고 있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그래도 김일은 일본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던 당시에는 일본식 이름을 쓰면서도 한복을 입고 링에 등장하는 등, 한국인 정체성을 그의 스승 역도산처럼 아예 숨긴 채 살아간 건 아니었기에, 그가 한국인이라는 건 당대에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1989년 고혈압으로 쓰러진 이후 일본에서 투병생활을 했다. 젊었을 때부터 워낙 혹독하게 훈련했는데, 야구방망이로 맞고, 나무기둥이나 콘크리트벽 또는 골프 드라이버로도 단련하는 등 단단한 물체에다 대고 허구한 날 연습한 나머지 두개골에 상처가 남는 등 큰 후유증을 입었고, 거동도 많이 불편했다고 한다.

1994년 1월 귀국 이래 서울 을지병원으로 옮겨 투병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2000년 3월 25일, 마침내 장충체육관에서 그토록 바라던 국내 은퇴식을 치렀고, 당시 박지원 문광부 장관으로부터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여받았다.

1995년 4월 2일 6만 관중이 모인 도쿄돔에서 일본 은퇴식을 가졌다. 은퇴식은 신일본, 전일본, UWFi, FMW 등 당시 일본 최고의 프로레슬링 단체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다. 잠시 라이벌이기도 했던 전설 루 테즈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입장, 스승인 역도산 등과의 일화를 이야기 한 뒤 최후의 10 카운트 공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립 링 포스트를 몇 차례 두르린 뒤 링을 뒤로 했다.

2003년에는 고향 거금도에 공적비가 제막됐다. 2006년 2월에는 41년 전 ‘프로레슬링은 쇼다’ 사건 이후 완전히 갈라섰던 전 프로레슬러 장영철을 직접 찾아가 그간에 쌓인 낫두리를 풀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두 사람을 기억하는 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장영철은 그 해 8월, 김일은 두 달 후 10월 26일에 만성신부전증 및 심장혈관 이상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인해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는 체육인장으로 치러져 유해는 고향인 전남 고흥군 금산면 생가 옆에 안장됐으나, 2020년 5월에는 국립 대전 현충원 국가사회유공자 묘역에 이장됐다.

김일 선수의 주요 훈포장 수상내용과 경력

- 2018 대한체육회 스포츠영웅 명예의 전당 헌액
- 2000년 체육훈장 맹호장
- 1994년 국민훈장 석류장
- 1972년 도쿄 인터내셔널 세계헤비급 태그챔피언
- 1967년 제23대 WWA 세계헤비급챔피언
- 1966년 도쿄 올아시아태그 챔피언

3. 대한민국 첫 프로복싱 세계챔피언 김기수



1966년 6월 25일 토요일 저녁 서울 장충체육관.

우리나라 최초 프로 복싱 세계챔피언이 탄생하던 역사적인 순간이다.

6·25전쟁 15주년 기념일인 이날 김기수 선수가 WBA 세계챔피언인 이탈리아 니노 벤 베누티를 장충체육관으로 불러 들여 15라운드 타이틀전을 갖게 된 것.

4각 링에서 1시간동안 혈투를 벌인 끝에 마지막 15라운드 종료를 알리는 공이 울렸다. 판정만 남았다. 주심은 링 가운데로 두 선수를 불러 모아 손목을 잡고 있었다. 이윽고 링 아나운서가 3명의 심판들이 제출한 채점표를 발

표했다. 1대1 이제 마지막 한명의 심판이 내린 판정이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 장충체육관을 가득 채운 8,000여 명의 관중들이 숨을 죽이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때 주심은 김기수 선수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려 그가 새로운 세계 챔피언이 되었음을 공식으로 선포했다. 프로복싱 사상 첫 우리나라 세계 챔피언에 오른 김기수는 이렇게 탄생했다. 2대1 판정승을 거둔 것.

그때는 지금처럼 텔레비전 방송이 일반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환호하거나 탄식을 내뿜던 시절이었다. 김기수 선수의 손이 올라가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신문들은 김기수 선수의 세계 챔피언 소식을 시합 다음날인 26일 자 호외로 알렸고, 6월 27일 챔피언 등극 축하 카퍼레이드를 하였다. 라디오 중계로 들었던 많은 서울 시민들이 얼굴을 보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1938년 함경남도 북청에서 태어난 김기수 챔피언은 12살 때 여수로 피난을 왔다.

김기수는 1954년 김기봉 선생님의 도움으로 여항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처음에는 육상부 단거리 선수를 하다가 복싱으로 바꿨다.

그는 구두닦이를 하고, 양담배를 팔면서 어렵게 공부도 하고, 운동을 하였다. 선천적으로 권투에 소질을 타고 난 그는 1957년 광주에서 열린 전국 학생 아마추어 권투선수권대회 웰터급에서 우승을 하였다.

여수를 떠나 서울로 진출한 김기수

광주에서 여수 출신 김기수 선수를 눈여겨 본 서울 성북고등학교 이희석 교장이 성북고등학교에 스카웃하였고, 입학과 동시에 한국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였다. 1957년 10월 제3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승하였으며, 1958년 3월 제3회 도쿄 아시안게임 최종선발대회에서 우승했다. 성북고등학교 2학년 때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 1958년 제3회 도쿄 아시안게임 웰터급에서 금메달을 따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960년 제17회 로마올림픽대회 파견 최종선발대회에서 우승하여 올림픽대회에 참가하였으나 준결승전에서 이탈리아 니노 벤베누티에게 아쉽게 졌다.

로마올림픽대회 이후 프로로 전향했다. 아마추어 전적은 88전 87승 1패였다. 그 1패가 바로 1960년 로마 올림픽 준결승에서 니노 벤베누티에게 당한 단 한차례 패배.

프로경기 제1차전은 이안사노와 대전하여 7라운드에서 TKO승을 거두었다. 1961년 10월 대한민국 미들급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1962년 4월에는 일본 와타나베를 맞이하여 3라운드에서 KO승을 거두었다. 1963년 5월 로베르토 베니야에 KO승, 12월 일본인 사이토에 KO승, 1964년 1월 미국인 조지 카더에 KO승을 거두었다.

1966년 1월 일본인 가이즈 후미오를 맞이하여 동양태평양(OPBF) 미들급 타이틀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운명의 6월 25일, WBA 주니어 미들급 세계챔피언 벨트를 놓고 김기수와 니노 벤베누티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맞붙은 것. 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선수의 대결에선 김기수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다. 김기수로선 5년 전에 졌던 빛을 통쾌하게 갚은 것.

그해 12월 헬링톤과 15라운드경기에서 판정승하여 제1차 방어에 성공하였다.

이듬해인 1967년 10월 미국인 프레드 리틀과의 세계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였다. 1968년 2월 알리파라와 제4차 방어에 성공하였다. 5월 이탈리아로 원정, 산드로 마징키와 타이틀전에서 패배, WBA주니어 미들급 챔피언 벨트를 상실하였다.

세계 챔피언의 영광을 지키는 것은 불과 2년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1968년 11월 남구용 선수에게 동양 미들급 타이틀을 빼앗겼다가 이듬해 재도전하여 타이틀을 되찾았다. 왼손잡이였던 김기수 선수는 프로복싱으로 전향한 후 7년간 49전 45승 2무승부 2패의 빛나는 기록을 세웠다.

1969년 9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은퇴식을 갖고 현역을 떠났다. 이후 사업가로 변신해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명동에서 찻집 ‘챔피언’을 운영했고, 챔피언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다. 1996년 9월 간암 판정을 받은 후에는 기독교에 입문, 신앙생활에 전념했다. 1997년 6월 10일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2남 2녀가 있고, 서울에 ‘김기수선수기념사업회’가 있다.

여수시민들은 중앙동 로터리 녹음다방 입구 수양버들나무 아래에서 구두를 닦으면서 권투 연습을 하던 김기수로 기억하고 있다.

4. 대한해협을 건넌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



대한해협을 헤엄쳐 건넌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은 195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조오련은 1968년 해남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972년 서울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76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고려대학교 사학과 학사 학위를 받았다.

조오련은 1969년 9월 제21회 종합선수권 대회에 참가 개인혼영 200m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신기록을 세워 이름을 날렸다.

이듬해인 1970년 제6회 태국 방콕 아시안 게임 자유형 400m와 1,500m 1974년 제7회 이란 테헤란 아시안 게임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며 '아시아의 물개'란 별명을 얻었다. 1970년대 초 아시안 게임 수영 자유형 400m와 1,500m를 2회 연속 잇달아 제패하며 금메달 시상대에 오른 조오련은 세상 무서울 것이 전혀 없는 패기로 뭉친 해남 청년이었다.

아시아를 제패하고 가장 높은 곳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조오련은 늘상 모시 적삼 한복을 입고 시상식에 등장했던 패션니스트였다.

1978년엔 수영 부문 한국 신기록 50개를 수립하였다.

50m 레인 수영장은 그에게 새장이나 마찬가지로였을까? 1980년부터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까지 그가 시도했던 도전은 조오련이 아니고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꿈의 레이스였다. 새장을 떠나 훨훨 날기로 마음먹은 조오련은 드디어 1980년 대한해협 48km를 13시간 16분만에 헤엄쳐 건넜다. 그리고 2년 뒤 1982년 영국~프랑스 도버해협 34km를 9시간 35분만에 건넜다. 2002년에 다시 대한해협을 건넜다. 2003년 한강 700리를 종주했다. 2005년엔 울릉도~ 독도 87.4km를 18시간만에 횡단했다. 2008년 독도 33바퀴 헤엄쳐 돌기 프로젝트를 성공하였다.

조오련은 통산 자유형 14개, 개인혼영 12개, 접영 5개, 계영 2개 등 평영과 배영을 제외한 모든 영법에서 총 33개의 한국 신기록을 세운 신기록 제조기였다.

1989년 조오련 수영교실, 1993년 조오련 스포츠센터를 세웠고, 1998년 2월부터 대한수영연맹 이사를 맡았다.

2001년 부인과 사별한 후, 2009년 동향 출신의 이성란을 만나 사랑을 싹틔우고 재혼하였다.

조오련은 2010년에 2차 대한해협 횡단에 도전하기로 하고 2009년부터 제주도에 캠프를 차려놓고 준비하다가, 2009년 7월 말 부터 자택에 잠시 머물러있었다.

2차 대한해협 횡단을 한창 준비하던 도중 2009년 8월 4일 오전 11시 32분,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에 있는 자신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그는 급히 119 구급대에 의해 해남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낮 12시 45분에 끝내 사망했다. 향년 58세. 2021년 6월 10일 국립 대전 현충원 국가사회 공헌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조오련 선수는 다소 강하고 거친 성격과는 달리 애향심이 유독 강하고 후배들을 지극히 사랑했다. 1998년 제주에서 열린 제79회 전국체육대회 때 조오련 선수는 전남선수단에 300만원을 쾌척하고 가방을 증정했다.

당시 갑자기 불어 닥친 IMF 경제 위기로 출향인사들과 기업인들의 성금과 격려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에서 조오련 선수가 보여준 애향정신은 귀감이 됐다.

슬하에 2남을 두었으며, 장남인 조성웅과 차남인 수영선수 조성모가 있다. 조성모는 1985년 조오련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해남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나왔다.

조성모는 2002년 아시안 게임 1,500m 자유형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2003년 재닛 에번스 초청 수영대회 800m · 1500m 자유형 금메달도 따냈다.

조오련은 1970년 대한민국 체육상을 받았다.

1980년엔 체육훈장 청룡장을, 2003년엔 양정고 총동창회 자랑스런 양정인상을 받았다. 고인이 된 뒤였지만 2020년엔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5. 한국 축구를 세계에 알린 ‘진돗개’ 허정무



허정무는 1953년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초사리 출신이다. 영등포 공업고등학교,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선수 시절 네델란드 PSV 에인트호번 등에서 활약했고, 1980년대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 선수로 활약했다. 2005년, 전라남도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끈질기고 과감한 플레이 특

성과 우직하고 독선적인 면이 있는 성격으로 ‘진돗개’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도자 생활을 그만둔 뒤 해설가로 나서 구수한 입담으로 인기를 얻었다.

1974년부터 1986년까지 국가대표 선수로 크게 활약했다. 포지션은 주로 중앙 미드필더. 허정무는 1986년 월드컵 대회 조별예선 3차전 이탈리아전에서는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A매치 101경기에서 30골을 넣었다.

1996년 6월 정병탁 감독이 사임한 전남 드래곤즈의 감독으로 취임하며 K리그에 복귀하였다. 1997년 팀의 K리그 준우승과 FA컵 우승을 이끌었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1998년 시즌 도중에 1998년 FIFA 월드컵 도중 경질된 차범근 감독의 후임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되었고, 2000년 하계 올림픽 국가대표팀도 함께 맡게 되었다.

국가대표팀 사퇴 이후 2002년 FIFA 월드컵에 대비해 대한축구협회 기술 고문을 맡았다. 그 뒤 2004년에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그 해 6월에 요하네스 본프레러 감독이 취임한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로 선임되었다. 하지만 그 해 말에 수석 코치직에서 사임하였고, 예전에 지휘봉을 잡았던 전남 드래곤즈 감독에 다시 취임하여 7년 만에 복귀하였다.

FIFA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한 쾌거를 이룩했다. 2010년 8월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이 되었지만, 2012년 4월 인천 유나이티드의 성적 부진으로 사퇴하였다. 2013년 3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브라질 월드컵 성적 부진으로 인해 2014년 7월 10일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사퇴했다.

6. 복싱 세계 챔피언 먹은 전남 선수들

1) ‘눈물젖은 샌드백’ 주인공 유제두



1975년 세계 주니어 미들급 챔피언에 올랐던 1970년대 한국 복싱의 영웅 유제두 선수는 1948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1975년 적지에서 일본의 와지마 고이치를 7회 2분 4초만에 KO로 제압하고 챔피언에 오른 유제두는 김기수, 홍수환에 이어서 3번째로 탄생한 우리나라 복싱 세계 챔피언이다. 당시 복싱의 인기는 대단했고 동양챔피언만 되어도 상당한 인지도가 있던 시절이었는데 세계 챔피언은 국민적 영웅이었고, 그래서 바로 ‘눈물젖은 샌드백’이라는 유제두 선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만들어졌다.

유제두 선수는 현재 서울 금천구 독산동 태양체육관 이란 곳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직접 지도도 한다고 한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아직도 지도자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제두 선수는 몸 관리에도 뛰어난 세계 챔피언 감인 듯. 유제두 선수의 경기 특징이 굉장히 잘 피하는 스타일이고 난타전 보다는 테크니컬한 경기운동을 했기 때문에 선수생활도 오래 했고, 데미지도 적었던 것 같다.

일본 원정 1차 방어에 성공하고, 1976년 WBA 주니어미들급 세계챔피언 지명 방어전(2차)에서 의문의 패배를 당했던 유제두씨가 “당시 패배는 중앙정보부의 약물공작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2006년 9월 29일자 연합통신에 실린 기사를 보자.

유씨는 76년 2월 8개월 만에 일본 도쿄에서 열린 와지마 고이치와의 리턴 매치에서 링에 오르자마자 창백한 얼굴에 맥이 풀린 사람처럼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경기 내내 끌려 다니다가 결국 15라운드 KO패를 당했다. 일본인 킬러였던 유제두 선수가 숙수무책으로 당한 2차 방어전 리턴매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던졌다.

당시 ‘약물중독설’ 등 갖가지 소문이 나돌았으나 30여년 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 패배에 대해 유씨는 당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중정요원으로 친하게 지



내던 목포 출신 후배 신모씨가 지난 1981년에 찾아와 '경기 전에 먹은 딸기 속에 중정 요원이 약을 넣었다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김대중 선생과 친분이 있는 나를 견제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과잉 충성하는 차원에서 약물 중독 공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71년 미들급 동양챔피언 당시 선배의 권유로 김대중 선생을 처음 뵈고 매년 명절 때면 인사를 갔었다"며 "동향으로 김 선생과 친한 모습이 (중정에게는) 썩 좋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후배의 말을 들은 뒤 수차례 청와대 등에 진상파악 등을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말을 전한 후배는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후배에게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명 방어전 패배 뒤 일본 측의 코칭 스태프 매수설 등 갖가지 소문이 나돌았으며 유씨는 경기를 몇 차례 더 가진 뒤 3년 뒤 79년 현역에서 은퇴했으며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태양체육관을 운영하며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다.

75년 일본 복싱 영웅 와지마 고이치를 7회 KO로 물리치며 WBA주니어미들급 챔프에 등극한 뒤 일본 원정1차 방어전도 미사코 마사히로를 역시 KO로 이겼으나 와지마 고이치와의 리턴 매치에서 '의문의' 15회 KO패를 당했다.

통산 56전 51승(29KO) 2무 3패의 전적을 기록한 유씨는 동양미들급 타이틀은 25차례나 방어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 강펀치에 수준 높은 테크니션 박종팔



박종팔은 1958년 8월 11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매곡리 수반마을 태생으로 IBF, WBA 슈퍼 미들급 챔피언이었다.

1977년 프로 복싱에 데뷔한 박종팔은 1978년 최창백에게 3라운드 KO승을 따내고 한국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했다. 그 이후 강력한 펀치를 앞세워 KO승을 거듭, 18연속 KO승을 기록한다. 백인철의 26연속 KO승에 이은 국내 2위에 해당하는 기록.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을 정도로 펀치의 파괴력이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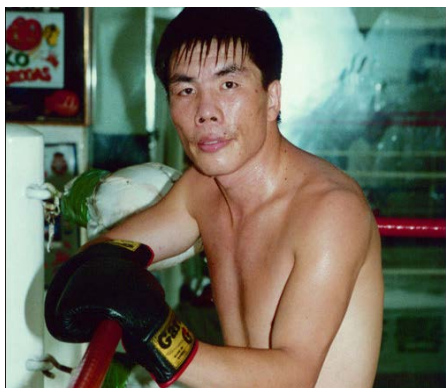
승승장구하던 박종팔이 뜻하지 않게 복병을 만나 급브레이크가 걸리고 만다. 동양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나경민과 숙명의 대결을 펼친 것. 나경민에게 7라운드 KO패를 당한다. 하지만 4개월 후 다시 리턴매치를 벌여 4라운드 KO승을 거두면서 동양타이틀을 탈환한다. 이때 국내선수들끼리의 경기임에도 박종팔과 나경민이라는 수준급의 선수들의 기량, 그리고 미들급의 파워넘치는 매력을 통해 경기자체는 상당히 흥행에 성공했다. 이후에 박종팔은 신설된 복싱협회 IBF에 진출한다. 미들급으로 한체급을 올려 초대 챔피언 미국의 머레이 서덜랜드와 타이틀 매치를 치른다. 84년 한국에서 열린 경기에서 경기 초반 한차례 다운을 당했지만 강력한 펀치를 앞세워 4번이나 다운을 뺏어내며 11라운드 KO승을 거두고 월드 챔프에 등극한다. 이후 8차례의 방어전을 성공했고 이때가 가장 전성기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파이트 머니의 수익 자체도 엄청나게 많았다고 한다.

8차례의 방어전 중, 난적 린텔 홈스나 비니 커토와의 일전 등이 주목할 경기. 특히 비니 커토와의 리턴매치는 미국 LA에서 열렸는데 이 때의 승리가 한국의 유일한 미국 원정 타이틀 매치 승리이다. 결국 IBF 챔피언 타이틀을 반납하고 WBA에서 슈퍼 미들급이 신설되자 박종팔은 WBA로 진출했다. 슈퍼 미들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멕시코의 헤수스 갈라도와 경기를 치렀다. 머레이 서덜랜드 전과 같이 경기 초반 다운을 당했지만 이후 수차례 다운을 시키며 2라운드 KO승을 거두며 다시 한번 월드 챔프에 등극한다. 이후 폴리 파시레론과의 방어전에 성공했으나 다시 만난 숙적 오벨메이야스와의 경기에서 3번이나 다운 당한 끝에 0:3 판정패를 하며 챔피언 타이틀을 상실한다. 이후 한국 중량급의 강타자 중 한명인 백인철과의 논타이틀 매치에서 KO패하면서 현역 은퇴한다. 총 전적 46승(39KO승) 1무 1무효 5패(4KO패).

전적으로 볼때 굉장히 훌륭한 복서였고 중량급의 묘미답게 파워넘치는 펀치력을 앞세워 46승 중에 39번이 KO승리일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었다. 테크닉도 수준급이었다.

3) 아마 · 프로 정상에 선 ‘돌주먹’ 문성길



문성길은 1963년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났다. 1982년 인도 뉴델리 아시안 게임과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 2연패를 달성했다. 1986년 11월 미국 리노에서 열린 제4회 세계복싱선수권대회 뱅텀급에서 대한민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땀다. 별명은 ‘돌주먹’이었다. 아마추어 권투 국가대표 선발전 당시 허영모와 라이벌 관계로 유명했다.

전남 영암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육상 특기생으로 뒤늦게 들어간 목포 덕인고에서 복싱을 시작했다. 입문 만 3년 만인 1982년에 태극마크를 달았다. ‘병역 특례보충역 자격 획득(1982년 11월 아시안게임)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복무해야 한다’는 의무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8개월 전 프로로 전향했다는 이유로 현역으로 입대했다. 군 제대 후 WBC 슈퍼플라이급과 WBA 뱅텀급 2체급 세계챔피언을 지냈다. 특히 WBC 슈퍼플라이급을 9차례나 방어하는 등 오랫동안 챔피언 벨트를 지켰었다.

문성길은 태릉선수촌에 입촌해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면 불암산 헬기장까지 편도 4.5km를 달리는 이른바 ‘불암산 달리기’에서 역대 최고인 21분대 기록을 세웠다. 희대의 라이벌이었던 허영모 선수와의 경기는 전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문성길 선수의 주요 경력도

- 1982년 복싱 국가대표.
- 1982년 킹스컵 대회 은메달.
- 1982년 11월 뉴델리 아시안게임 금메달.
- 1984년 LA올림픽 8강 탈락.
- 1985년 월드컵대회 금메달.
-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금메달.
- 1986년 11월 미국 리노 제4회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 1986년 체육훈장 백마장.
- 1987년 프로 전향.
- 1988년 세계복싱협회(WBA) 뱅텀급 세계챔피언(2차 방어).
- 1990년 ~ 1993년 세계복싱평의회(WBC) 슈퍼플라이급 세계챔피언(9차 방어).
- 1993년 WBC 슈퍼플라이급 10차 방어전에서 호세 루이스 부에노에 판정패.
- 1993년 12월 권투선수 은퇴.
- 2000년 문성길 복싱클럽 대표.

7. 대한민국 사상 두 번째 금메달 레슬링 김원기



김원기(1962~2017)는 대한민국의 그레코로만형 레슬링 선수로, 1984년 LA하계 올림픽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전라남도 함평 출신으로, 함평 중학교를 졸업했다. 함평농고 1학년 때 처음으로 레슬링을 시작하였다. 레슬링 선수로는

드물게 전남대학교에 진학을 하였으며 1983년 대표선발전에 처음으로 대표에 뽑혀 태릉선수촌에 입촌하였다. 소련 키예프에서 열릴 1983년 세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그해 대한항공 피격사건이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대회 불참을 선언하는 바람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김원기 선수는 1984년 LA 하계 올림픽대회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62kg급 예선 라운드에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그리스의 스텔리오스 미지아키스에게 14-2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어 파란을 예고했다. 결승전에서는 스웨덴의 요한슨과 3-3 동점으로 경기를 마쳤으나 3점짜리 큰 기술로 점수를 얻은 덕분에 어드밴티지를 적용받아 행운의 승리를 거두어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김원기 선수는 당시 한쪽 눈이 툭툭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고도 투혼을 발휘, 기어코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올림픽 출전을 한 이래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에 이어 2번째로 따낸 금메달이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그레코로만형 레슬링 금메달이었다.

김원기 선수는 1984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현역생활을 하였으나 1986년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안대현 (1988년 서울올림픽 동메달리스트)에게 패배하여 탈락하면서 은퇴를 선언하였다. 현역 은퇴 뒤엔 공부를 계속하여 2009년 경희대학교에서 체육학 박사 학위를 받아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2017년 7월 27일 강원도 원주 치악산 산행 중 심근경색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특히 은퇴 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체육 꿈나무들을 지극히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8. 순천 출신 ‘소년 천하 장사’ 백승일



백승일은 1976년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씨름 선수다. 순천 성동초등학교와 순천 이수중학교를 졸업했다. 1992년 순천상고(지금의 순천 효산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한 뒤 1993년에 프로 민속씨름에 입문하였다. 이듬해인 1993년 7월 춘천대회에서 역대 최연소인 17세에 천하장사에 올라 '소년장사'란 별명을 얻었다.

천하장사 3회, 백두장사 7회를 지냈다.

1994년 부산 천하장사대회 결승에서 팀 동료 이태현과 1시간 20분 총 12판까지 가는 접전 끝에 계체패를 당한 뒤 소속팀

청구와의 갈등, 그 후에 무릎부상과 슬럼프까지 겹치며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다. 당시 이 경기는 '저울장사'가 탄생한 첫 사례였다.

1996년 대전대회에서 백두장사에 등극하며 재기에 성공하였다. 그러다 1997년 청구씨름단의 해체로 소속팀이 없는 무적선수가 되었다. 1998년 진로씨름단을 시작으로 삼익, 신창건설 등으로 여러 팀을 전전하다 2000년 LG씨름단에 입단하여 선수생활을 이어 나갔다. 2001년 거제대회에서 라이벌 이태현을 연장전 끝에 3-2로 꺾으며 55개월 만에 다시 백두장사에 오르는 감격을 맛보았다.

그러나 2004년 12월 LG씨름단마저 해체된 뒤 이적할 팀을 찾지 못하고 고향인 전남 순천 소속으로 출전한 2005년 2월 설날대회를 끝으로 은퇴를 하였다.

2006년 씨름선수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타이틀곡 '나니까'로 가수 데뷔를 하며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활동했다.

9.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레슬링 금메달 안한봉



안한봉은 1968년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나, 해남중학교, 광주광일고등학교,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57kg급 금메달리스트이다. 2004년과 2008년, 2012년 올림픽 국가대표팀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감독을 지냈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 레슬링단 감독을 맡고 있다.

안한봉은 어머니가 임신 7개월 되던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탓에 유복자로 자랐다. 아버지 얼굴을 못보고 자란 한을 매트에서 푼 ‘연습벌레’로 정신력이 대단했다.

지난81년 해남중 1년 때 당시 김화진 체육교사의 눈에 띄어 레슬링에 입문한 안은 바르셀로나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86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우승이후 18세의 어린나이에 대표팀에 발탁, 일약 한국레슬링의 유망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88서울 올림픽 52kg급 국내예선전에서 무명의 이재석(동메달)에게 패해 올림픽대표에서 탈락하는 첫시련을 겪었다.

이후 안은 다시 대표팀에 합류, 90년 세계선수권대회에 도전했으나 결승에서 구소련의 이그나텐코에게 0-4로 패해 또다시 세계 정상도전에 실패했다. 지칠줄 모르는 강한 체력을 지녔으나 경기때마다 9kg이상을 줄여야 하는 무리한 감량으로 힘을 쓰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평소 61kg의 체중을 유지해온 안은 경기때마다 「감량」이라는 또하나의 적과 싸우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안은 특유의 투혼을 발휘, 90년 벌어진 5개의 국제대회에서 금메달4·은메달1개를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기진맥진한 안은 지난91년 한체대를 졸업, 삼성생명에 입단하자마자 52kg급에서 57kg급으로 체급을 올려 정상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타고난 연습벌레인 안은 하루10시간씩 매트위를 구르며 자신의 불운과 싸운 끝에 마침내 바르셀로나올림픽 최종선발전에서 선배들을 차례로 꺾고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후 자신의 취약점인 단조로운 기술을 보완하기 위해 「유럽형 3연계공격」을 익히기 시작했다.



3연계공격이란 스탠딩자세에서 공격을 시도한 후 그라운드기술에 이어 곧바로 폴로 연결하는 초특급기술. 이 기술을 구사하려면 상체가 극도로 유연해야하고 체력도 뛰어나야하기 때문에 동양권선수들로선 흉내조차 힘들다. 그러나 안한봉은 세계최강 선수들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이 기술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힘으로만 밀어붙이던 안한봉의 레슬링스타일은 노련미를 가미해 원숙해졌고 별명도 「탱크」에서 「제비」로 바뀌었다. 이런 훈련을 거친 안은 결승전에서 세계 최강 독일 일디츠를 만나 초반 열세를 뒤집고 5-5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연장전에서 과감한 허리 태클로 상대를 엉덩방아를 찧게 만들어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10. 한국 사격 최초 금 여자공기소총 곡성 출신 여갑순



서울올림픽 이후 처음 열린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쏘아 올린 주인공이 바로 곡성 출신 여갑순이다. 당시 서울체고 2년생이던 여갑순은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올림픽 기록(498.2)을 세우며 바르셀로나 올림픽 첫 금메달의 영광을 거머쥔 여고생 총잡이다. 여갑순의 금메달은 한국이 사격종목에서 얻은 최초의 금메달이다.

청량중 1학년때 사격을 시작했던 그의 우상은 불가리아의 미녀 총잡이 베셀라 레체바(당시 28세)였다. 88서울올림픽때 태릉사격장을 찾았던 그는 레체바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에 반해 레체바와 꼭 한번 겨뤄보고 싶다는 의지를 다졌다. 당시 직접 사인도 받았다. “온 몸에서 풍기는 힘이 대단했어요. 주위 사람을 주눅들게 할 정도로 강렬했던 눈빛이 기억납니다.” 그로부터 4년후 여갑순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결선에서 레체바를 만나 우상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는 대사건을 일으켰다. 서울체고 2학년이던 그는 2위로 결선에 올랐고 바로 옆에는 1위로 통과한 레체바가 사선에 서있었다. 여갑순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다.

여갑순에게 패한 기억은 레체바에게도 상당한 충격이었다. 3년이 지날 때까지 국제대회에서 마주치면 눈빛 한번 주지 않을 정도였다. 95년쑤인가 독일에서 열린 월드컵대회에서 여갑순을 꺾은 후에야 말을 걸어왔다. 레체바는 통역을 통해 “92대회 때 네가 너무 미웠다”는 말로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전했다. 10대 어린 나이에 세계 정상에 우뚝 선 여갑순은 이후 여러 차례 올림픽 출전에 도전했으나 번번히 실패하는 등 시련을 겪었다.

1996 애틀랜타 올림픽 선발전에서는 아쉽게도 막판에 1점 차로 탈락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선발전에서는 임신 5개월의 몸으로 참가했지만 역시 훈련 부족으로 고배를 마셨다. 2004 아테네 올림픽, 2008 베이징 올림픽까지 즐기차게 태극마크에 도전했으나 벽을 넘지 못했다. 여갑순은 대학교(한체대) 커플로 동갑나기인 김세호 씨와 4년 연애 끝에 1998년 결혼했다. 같은 공기소총 종목 국가대표 출신인 김세호씨는 1998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다.



불가리아 체육청소년장관이 된 레차바는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뒤 “여갑순을 만나고 싶다”며 따로 일정을 잡아 태릉사격장에서 10여년 만에 조우했다. 당시 레체바는 “지금까지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니 대단하다. 올림픽에 나간다면 꼭 응원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어릴 때부터 그는 여자들보다는 남자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았고 소꿉놀이보다는 총놀이나 공던지기가 재미있었다. 동생들이 밖에서 맞고 들어오면 응징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중간에 그만 둔다는 소리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사격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11. 애틀란타 올림픽 여자 유도 66kg 금메달 조민선



1996년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여자 유도 66kg 금메달리스트 조민선은 1972년에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났다.

조민선은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1회전부터 브라질의 캄포스를 한판승으로 이기고, 2회전 역시 중국의 왕시아보를 한판승으로, 3회전에선 도미니카의 피나를 누르고 준결승전에서는 네덜란드의 클라우디아 즈비어스를 한판으로 이겼다. 대망의 결승전에서는 폴란드의 슈체판스카를 누르고

여자 유도 선수 두 번째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된다.

1997년 2월 독일 오픈에서 우승해 5연패를 달성하고 10월에 열린 프랑스 파리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 획득을 끝으로 1998년에 은퇴했다. 1999년에 다시 국가대표로 복귀했고 70kg급으로 체급을 올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했으나 동메달을 획득하고 다시 은퇴를 선택했다.

영암에서 태어나 서울로 이사, 서울체육중학교로 입학하면서 유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1988년에는 서울체육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1988년에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열린 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최연소로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52kg급으로 체급을 올려 1989년에 10월에는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베오그라드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땀다. 1990년 2월에는 프랑스 파리 오픈 대회 금메달을 획득을 시작으로 4월 파리 세계 청소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 획득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 게임에서는 동메달에 그치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선발전에서는 박지영에게 패해 올림픽을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1993년에 66kg급으로 체급을 올리면서 독일 오픈 대회에서 다시 금메달 획득을 시작으로 10월 캐나다 해밀턴에서 열린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고 11월 마카오에서 열린 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는 일본의 오이시 아이코에 패해 은메달에 머물렀으나, 1995년에 프랑스 파리 오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3연패를 달성하고 10월에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세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다시 금메달을 차지해 2연패를 달성했다. 199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하고 1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 유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당대 여자 유도계의 대표 선수로 군림했다.

12. 올림픽 양궁 남자단체 2연패 주역 장용호



한국 남자 양궁의 대들보 장용호는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뒤, 2000년 호주 시드니와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잇달아 금과녁을 명중시킨 명사수로 이름을 날렸다.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 대한민국 남자 양궁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장용호는 고흥출신으로 역경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될 만하다.

장용호는 1976년 고흥군 점암면 태생으로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픈 과거가 있다. 다섯살 때부터 할머니와 할아버지(장태규, 1996년 작고) 손에서 어렵게 자랐다. 부모는 80년대 초 가정형편이 어려워지자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겼다. 고흥 과역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활을 잡은 장용호 선수에게 할머니와 양궁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었다. 유일한 안식처가 할머니였으며, 양궁은 부모 없는 설움과 고통을 잊게 해줬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부모를 찾는 일은 올림픽 금메달과 함께 인생의 목표였다. 그만큼 집중할 수 있었던 때문인지 광주체고 2학년 때 전국대회 2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으며 애틀랜타 올림픽 때는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땀다. 한때 허리를 다쳐 운동을 그만 두야 할 위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이름이 널리 알려져야 부모를 찾을 수 있다는 일념으로 극복하고 결국 금메달을 획득했다. 가난과 결손가정이라는 굴레를 극복해 낸 것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선 김청태, 오교문과 짝을 이뤄 금빛 과녁을 뚫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선 박경모, 임동현과 함께 금메달을 사냥했다. 장용호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1997년 빅토리아 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개인전에선 동메달을 따냈다. 또 1999년 리옹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남자 단체전 은메달 주역으로 활약했다. 2001년 7월 유럽그랑프리 3차대회에서 개인전 3위를 기록한 이후 대표팀과 인연을 맺지 못했던 장용호는 2004년 6월 유럽그랑프리 2차대회에 개인전 우승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아울러 그해 7월 제42회 세계선수권과 8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프레올림픽에서 연달아 단체 우승을 일궈 한국 남자 양궁의 대들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171cm, 65kg로 남자 양궁선수로는 작은 체구지만 차분함과 승부 근성이 끈질겨 세계적인 양궁 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양궁선수 출신인 동갑내기 이강미씨와 2001년 화촉을 밝히고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다.

13. 베이징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 '살인 윙크' 이용대



이용대는 1988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태어났다.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 복식에서 스무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효정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계랭킹 10위인 이용대-이효정 조는 세계 랭킹 1위인 인도네시아의 노바 위디안토-냥시르 릴리야나 조를 2대0(21-11, 21-17)으로 격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당시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 TV 중계 카메라를 향해 이용대가 날린 '살인 윙크' 세리머니는 대한민국 뿐만 아

니라 전세계를 금방 이용대 신드롬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4년 뒤인 2012년 영국 런던 하계 올림픽에선 정재성과 짝을 이뤄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화순초등학교와 화순중학교를 졸업한 이용대는 화순에 있는 전남기술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화순 토박이다. 이용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배드민턴 라켓을 처음 잡아봤다. 운동을 시작했던 목적은 살을 빼기 위한 것이었으나 배드민턴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03년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되었다. 화순실업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6년 1월 독일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정재성과 함께 남자 복식에 나서 텅석 우승을 일궈, '제2의 박주봉'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같은 해 세계 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혼합 단체, 남자 복식, 혼합 복식 부문에서 1위를 하며 대한민국 배드민턴 선수 최초로 세계 선수권 대회 3관왕을 차지했다.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 배드민턴 남자 단체전에서 은메달,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 후 2007 코리아 오픈 슈퍼시리즈에서 남자 복식 1위, 2007 스위스 오픈 슈퍼시리즈에서 혼합 복식 1위, 2007년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 복식 2위, 2008 코리아 오픈 슈퍼시리즈에서 혼합 복식 1위, 2008 전영 오픈 슈퍼시리즈에서는 남자 복식에서 1위, 2008 스위스 오픈 슈퍼시리즈에서는 남자 복식 1위와 혼합 복식 3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 그리고 2008년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복식 부문에서 우승을 했다.

그리고 올림픽 후 첫 출전한 국제대회인 2008 중국 오픈 슈퍼시리즈에서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에서 2관왕을 차지하고, 2008 홍콩 오픈 슈퍼시리즈에서 남자 복식에서 우승, 혼합 복식에서 준우승했다. 2008 코리아 챌린지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복식 우승, 2008 BWF 슈퍼시리즈 마스터즈 파이널 남자 복식에서 준우승으로 2008년 시즌을 마감했다. 한편 화순군은 이용대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을 기념하기 위해 화순읍 하나움 스포츠 문화센터 옆에 '이용대 체육관'을 건립하여 국내외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쓰고 있다.

14. 베이징 올림픽 남자 태권도 금메달 차동민



차동민은 1986년 전라남도 장흥에서 태어났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태권도 80kg 금메달을 획득한 차동민은 이후 2012년 영국 런던 올림픽에도 출전했으나 8강전에서 아쉽게 탈락하고 말았다. 이어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선 동메달을 따낸 대한민국 태권도 중량급 간판스타이다.

차동민은 대한민국 남자 태권도 선수로는 처음으로 3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은 태권도 중량급 종주국 간판으로 활약해온 스타 플레이어다.

그는 2006년에는 세계 대학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베이징에서 열린 2008년 하계 올림픽 태권도 남자 +80kg급 4강전에서 쿠바의 양헬 마토스를 1-0으로 꺾고, 결승전에서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 니콜라이디스를 5-4로 이겨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출전 종목 4체급을 모두 석권하였다.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12년 하계 올림픽에도 출전하였으나 8강전에서 터키의 바흐리 탄르쿨루에게 1-4로 패배하여 올림픽 2연패 달성에는 실패하였다. 4년 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2016년 하계 올림픽에 출전하여 동메달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은퇴하였다.

대한민국 태권도 선수가 올림픽에서 2개 이상의 메달을 딴 것은 황경선(금메달 2개, 동메달 1개)과 이대훈(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그리고 차동민(금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3명이 전부다.

15. 여자 양궁 단체 8연패 주역 무안 출신 최미선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최고 성과는 여자 양궁 단체가 8연패라는 금자탑을 쌓은 것이다. 그 주역이 바로 무안 출신 최미선이다. 최미선은 기보배, 장혜진과 같이 태극마크를 달고 사선에 올라 여지없이 금 과녁을 명중 시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1996년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지장리 태생인 최미선은 일로초등학교, 전남체육중학교, 전남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여대 초등특수교육학과에 진학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11살 때 처음 활시위를 당겼다. 차분한 성격에 집중력이 뛰어난 어린 소녀는 활시위의 강인함을 몸에 익히며 세계 최고를 꿈꿔 나갔던 것이다.

2015년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된 뒤 바로 양궁 월드컵 리커브에서 여자 개인전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어 2016년 메데인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단체, 개인, 혼성까지 모두 금메달을 싹 쓸어 담았다.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어렵다는 대한민국 대표가 되어 한국 양궁 금메달을 몽땅 휩쓴 최미선은 드디어 20세의 어린 나이에 이미 세계 랭킹 1위에 오를 정도로 성장했던 것. 당시 세계 랭킹 1위로 올림픽에 출전했다.

단체전 금메달 획득의 주인공이 된 뒤 최미선은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일갈, 2002 월드컵 한국 대표 팀 히딩크 감독을 떠올리게 해 화제를 몰고 왔다.

9살이던 2005년에 양궁을 처음으로 시작한 후, 2013년에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중학교 때 전국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가능성을 보였지만, 크게 두각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얼마 안가 중별선수권에서 5관왕을 차지하는 실력을 발휘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은메달 2개를 따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같은 해 열린 2015 양궁월드컵에서는 개인전, 혼성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냈다. 또 같은 해에 열린 덴마크 코펜하겐 2015 세계선수권에서는 개인전전과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리우 올림픽 이듬 해 열린 2017 멕시코시티 세계 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도 금과녁을 명중 시켰다.

16. 세계를 정복한 전남 출신 프로 골퍼

“외국인들에게 ‘한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심중팔구 태권도, 골프, K팝”이라고 대답한다고 한다.

대한민국 골프를 세계에 알린 주역들은 거의 여자 프로선수들이다. 박세리, 박지은, 김미현, 박인비를 비롯하여 최나연, 신지애, 김세영, 이정은, 고진영 등 세계 무대를 주름잡던 톱스타들은 모두 여성 프로골퍼들이었다. 그러나 이들보다 앞서 홀홀단신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를 평정한 사내가 완도 출신 최경주 골퍼다.

(1) PGA 8회 우승 완도 출신 ‘탱크’ 최경주



미국 프로 골프(PGA)를 8차례 평정한 최경주는 1970년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화흥리에서 태어났다. 화흥초등학교, 완도중학교를 졸업했다. 완도수산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한서고등학교로 전학했다. 광주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유럽투어에서도 한 차례 우승(2003년 린데 독일 마스터즈) 경력이 있으며 아시아 투어 6회, 일본 투어 2회, 한국 투어 5회 등 프로에서 모두 18회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초기에는 아시아 무대에서 활약하여 1996년 코리아 오픈에서 첫 승을 올렸으며, 1999년 일본 골프 투어에서 두 차례 승리했다.

1999년 미국 PGA 투어 자격 심사에서 공동 35위에 올라, PGA 투어 자격을 얻은 첫 한국인이 되었다. 2000년 루키 시즌, 상금 순위 134위에 그쳐 다시 자격을 얻어야 했지만, 2001년 이후로는 투어에서 일관된 성적을 올렸다. 2002년 뉴올리언즈 콤팩 클래식에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PGA 투어에서 우승했으며, 같은 해 탬파베이 클래식에서도 우승했다. 현재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서 거주하고 있다.

고향인 전남 완도에 최경주의 이름을 딴 ‘최경주 광장’이 있다. 또 매스터스 토너먼트에서 3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최경주는 2008년 아시아인 최초 세계랭킹 5위에 올랐으며,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2011년 우승했다.

9년 동안 우승 소식이 잠잠하던 최경주는 2021년 9월 드디어 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경주는 9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터레이 페블비치 골프 링크스(파72)에서 열린 PGA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13언더파 203타를 기록하며 공동 2위 알렉스 체카와 베른하르트 랑거를 2타차로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에 최경주선수가 우승한 챔피언스 투어는 50세 이상 선수들만 출전하는 시니어 투어다. 이로써 최경주 선수는 챔피언스 투어 한국인 첫 우승 기록까지 보유하게 됐다.

최경주 선수가 PGA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으로 그의 나이 33세 때다. 이보다 앞서 지난 1998년 ‘맨 발 신화’를 선보이며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 IMF로 지친 국민들에게 크나큰 위로를 선사했던 박세리는 당시 22살이었다. 어느덧 50대 초반에 접어든 최경주는 지금도 각종 대회에 출전하며 자식뻔 되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최경주 선수가 우승한 PGA 각종 대회는 다음과 같다.

1. 2002년 5월 5일 뉴올리언즈 콤팩 클래식
2. 2002년 9월 22일 탬파베이 클래식
3. 2005년 10월 2일 그린스보로 크라이슬러 클래식
4. 2006년 10월 29일 크라이슬러 챔피언십
5. 2007년 6월 3일 메모리얼
6. 2007년 7월 8일 AT&T 내셔널
7. 2008년 1월 13일 하와이 소니 오픈
8. 2011년 5월 15일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9. 2021년 9월 27일 챔피언스 투어 퓨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

최경주는 이 밖에도 프로 골프 4대 메이저 대회인 매스터스 토너먼트 3위(2004), 디 오픈 공동 8위(2007), US 오픈 공동 15위(2005, 2012), PGA 챔피언십 공동 6위(2004)에 오르는 등 굵직한 대회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올렸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하계 올림픽에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대한민국 남자 골프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역시 감독으로 출전했다.



(2) 여자 프로 골프 ‘지존’ 신지애

프로골퍼 신지애는 1988년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서 장로교(합동) 소속 개척 교회 목사 신재섭의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신지애는 영광 홍농서초등학교 5학년 때 골프를 시작하였고 영광홍농중학교와 함평골프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2005년 아마추어로 국내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2006년 국내무대를 석권했고, 2007년에는 국내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 KLPGA에서 2006년 신인왕, MVP를 포함 최저타수상, 상금왕, 다승왕 5관왕을 차지했다. 2008년에는 국내MVP, 최저타수상, 상금왕, 다승왕 4관왕을 접수하면서 신지애 천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로 ‘지존’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덕분에 스폰서 계약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다. 오랫동안 스폰서 역할을 해주었던 하이마트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스폰서로 미래에셋과 손잡게 되면서 스폰서 전쟁의 마침표를 맺게 된다.

2008년 8월 4일 초청선수로 참가한 LPGA 투어 브리티시 오픈에서 첫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였다. 이와 더불어 박세리 선수가 세웠던 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을 경신했고, 10월 LPGA 투어 미즈노 클래식에서도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정회원이 되면서 본격적인 LPGA 정복에 들어간 2009년 시즌 유력한 2009 LPGA 신인상 후보로 손꼽혔음에도 첫대회인 SBS 오픈에서는 생애 첫 컷오프를 당하는 이변을 겪기도 했다. 2009년 초반 어려움을 이겨내고 3월에 있었던 HSBC 여자 챔피언스에서 정회원 첫 우승을 했고 그해 LPGA 상금왕과 공동 다승왕을 차지했다.

신지애는 2010년 7월 25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르뱅의 에비앙 마스터스 골프장(파72.6천345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제5의 메이저대회' 에비앙 마스터스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쓸어 담으며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접전을 펼쳤던 모건 프레셀(미국), 최나연(SK텔레콤) 등을 1타차로 따돌리며 시즌 첫 우승을 기록했다. 자신의 LPGA투어 통산 7번째 우승에 성공했다. 2010년 시즌 톱10 7회 입상에 만족해야 했지만 이번 대회 정상에 오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신지애는 한국 선수들과 유난히 인연이 없었던 이 대회에서 11번째 대회 만에 처음 우승한 한국 선수가 됐다. 그동안 한국 선수들은 US여자오픈과 함께 L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상금이 걸려 있는 이 대회에서 한 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준우승만 5번 차지했다. 한국 군단은 신지애의 우승으로 시즌 5승을 합작했다. 이번 우승은 파이널 라운드의 여왕(파이널 퀸)이라는 신지애의 별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쾌거였고 거금 48만7천500달러의 상금을 받은 신지애는 시즌 누적 상금이 116만7,941달러로 상금랭킹 1위가 됐다.

2014년 이후엔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며 JLPGA에서 매년 우승 기록을 쌓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통산 60회이상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신지애가 보유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2006년-2008년 KLPGA 3년 연속 4관왕 (2006년은 신인왕 추가 5관왕)
- 2006년 KLPGA 역대 72홀 최저타수 (271타, 17 언더 파), 시즌 평균 69.72타 최저타수 기록.
- 2007년 단일 시즌 10승 달성은 PGA 투어에서 1950년 샘 스니드가 기록한 11승, 2005년 LPGA 투어에서 안니카 소렌스탐이 달성한 10승 이후 작성된 또 하나의 진기록이다.
- 2007년 KLPGA투어 최단기간(2년 5일) 통산 상금 10억을 돌파. (정일미가 99개 대회에서 세운 통산 상금기록을 30개 대회 출전만에 경신).
- 2008년 한국여자오픈, KLPGA선수권대회, KB 국민은행 4차 투어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KLPGA 최초의 그랜드슬램 달성
- 2008년 비회원으로 자격으로는 세계최초로 LPGA 대회 3승
- 2008년 브리티시 오픈 최연소(20년 3개월 6일) 우승 기록 경신.
- 2009년 세계 4대 투어(LPGA, JLPGA, KLPGA, 유러피언투어)를 한해에 모두 우승. 세계 최초의 기록.
- 2009년 세계 4대 투어(LPGA, JLPGA, KLPGA, 유러피언투어)의 시드권을 Q스쿨 없이 획득하며, 4대 투어 시드권을 보유한 세계 최초의 선수.
- 2009년 LPGA 신인상, 상금왕, 다승왕 3관왕 등극. 단일 시즌 신인왕과 상금왕 동시 석권은 1978년 낸시 로페즈가 작성한 이후 31년만의 진기록. 시즌 상금 180만7334달러로 역대 신인 최다 상금 기록 작성.
- 2010년 5월 3일 아시아인 최초로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에 등극.



(3) 태권도 선수 출신 영암 남자 ‘빨간바지’ 김세영



미국 여자 골프 투어(LPGA) 통산 12승에 빛나는 김세영은 1993년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났다.

2010년 프로로 전향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5승을 거뒀다. 2014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켈리파잉 스쿨을 공동 6위로 통과했다. 2015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데뷔했다. 2015년 2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에서 우승했고, 같은해 4월 19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총상금 180만 달러) 우승했다.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한민국 여자 골프 대표선수로 출전했다.

2020년 LPGA 투어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2위에 올랐고 2021년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도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에 이어 2020 일본 도쿄 올림픽에도 박인비, 고진영, 김효주와 함께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했다.

세계랭킹 1위, 올림픽 우승을 2021년 목표로 내건 김세영은 특유의 장타와 두둑한 배짱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꿈꿨으나 아쉽게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 할 때 빨간 바지를 자주 입어 일명 ‘빨간 바지’로 불리는 김세영은 프로에 입문하면서부터 입기 시작했고, 타이거우즈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항상 빨간 티셔츠를 입고 우승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김세영은 2018년에는 손베리 크릭 챔피언십에서 무려 31언더파라는 경이적인 스코어를 기록하며 LPGA 최소타 기록을 갈아치웠다.

태권도 선수 출신인 김세영 프로는 “태권도가 골프에 도움을 줄 때가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 태권도 한 선수들을 보면 다 임팩트가 좋다.”고 말했다. 이민영, 이정민과 같은 주변 친구들과 친한 이유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많이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정을 쌓고 있다. 태권도를 했던 선수들은 다 장타를 치는 것 같다는 게 김세영 프로의 소신이다.

17. 한국 바둑의 맥을 잇는 전남 출신 프로 기사들

바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에 생긴 두뇌 스포츠다. 역사가 그만큼 오래 됐다는 뜻이다.

장기가 초·한 전쟁에서 생긴 것을 감안하면 대략 2,2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바둑은 이 보다 무려 2,000년 전에 생긴 것이다.

바둑이나 장기나 모두 고대 중국에서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둑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으며 3국이 세계정상을 독차지해왔다. 바둑은 또 동양 문화의 진수로 알려져 있다.

고대 중국의 요·순 임금의 어리석은 아들 단주와 상균을 깨우치기 위해 만들었다는 설이다. 중국의 고전 《박물지》에 따르면 기원전 2300년 전 요왕이 아들을 위해 바둑을 발명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바둑은 손으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여 ‘수담(手談)’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바둑은 인류가 낳은 다양한 아날로그 게임 중에 가장 높은 지적 능력을 요구할 것이라 추정되는 게임이다.

현대 대한민국 바둑의 개척는 조남철(1923~2006) 국수다. 한국 바둑의 개척자이며 대한민국 바둑 최고의 타이틀인 ‘국수’를 초대부터 내리 9년간 지낸 1950~1960년대 한국 바둑계의 최고봉이다.

그런 조남철을 꺾고 한국 바둑 ‘김인 시대’를 연 김인(1943~2021) 기사는 전남 강진 출신이다.

바둑하면 떠오르는 이름은 단연 조훈현이다. 바둑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것. 조훈현은 1952년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태어나 목포시에서 자랐다. 9세 7개월에 프로에 입문하여 이 부문 최연소 기록을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기원 소속 프로기사 최초의 九단이다. 일명 ‘조국수’, 이창호 九단의 스승이며, 한때 이창호와 라이벌 구도를 이뤄 사제지간에 아름다운 명승부를 남겼다.

알파고에 이긴 유일한 인간 신안 출신 이세돌



바둑을 좋아하는 애기가 들에겐 ‘알팍한 자존심’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컴퓨터가 뛰어나고 빅데이터가 발달하더라도 바둑만큼은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신념이다.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창의적인 인간의 두뇌가 100%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컴퓨터보다는 한 수 위 일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은 바둑을 두는 기사들이나 바둑을 좋아하는 애기가 들에겐 일종의 낭만이었고 큰 자부심이었다.

2016년 3월 한국에선 인간과 컴퓨터가 싸우는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었다.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세계 최고의 현역 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 구글 딥마

인드의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가 대국을 치렀다.

알파고는 이세돌 이전에 2013-2015년 중국 프로 기사이자 유럽 바둑 챔피언인 판 후이(2단)와 대국을 하였는데 5-0으로 알파고가 완승을 거뒀다. 인공지능이 현역 프로 바둑기사를 이긴 건 이 때가 사상 처음이었다.

세기의 대결이 펼쳐지기 전 바둑계 예상은 천편일률적으로 이세돌의 우세를 점쳤다. 그것도 신승이 아니라 완승을 예상한 것. 이세돌 본인도 잘하면 5-0, 최소한 4-1 압승을 예상했었다.

중국의 세계 일인자 커제와 이창호를 비롯한 대부분의 바둑기사가 판 후이와의 대결 양상을 기준으로 이세돌의 5-0 완승 또는 4-1로 이길 것으로 예상했다.

막상 두경이 열리자 상황은 전혀 판판이었다. 판 후이와의 대결 이후 알파고는 무서운 성능 향상이 있었다. 제1국에서 알파고가 186수 만에 불계승, 제2국에서도 알파고의 불계승으로 이세돌이 2패를 당했다. 제3국 역시 초읽기에 들어가는 접전 끝에 알파고의 176수 불계승으로 결국 3-0이 되며 알파고의 승리로 끝이 나버리며 인공지능에 압도당하게 되었다. 한때 바둑계의 신동으로 간주되던 이세돌이 한 날 기계 앞에 굴욕을 맛보며 처참하게 박살나는 모습에 대한민국 국민들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는 것일까? 마침내 4국에서 이세돌이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했다. 4국에서 불리한 형세에 들어간 알파고가 실수를 하였고 이세돌은 1개 남은 초읽기로 1시간가량 버티는 대혈전 끝에 ‘신의 한 수’로 평가받은 끼움수를 작렬하며 알파고에 기어코 항복문서를 받아낸 것. 당시 바둑을 잘 모르던 대한민국 전

국민들도 이세돌의 승리에 환호를 보냈다. 모 TV 방송국 여성 아나운서는 이세돌 승리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기까지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뉴스 프로그램은 그대로 전파를 탔고 이 광경은 또 한번 국민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전했다.

뒤이어 제5국에서는 흑을 잡았으나 벽을 넘지 못하고 불계패 당하고 말았다.

세기의 대결에 돈이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구글은 이세돌에게 10억원을 제시했다. 즉, 이세돌이 알파고를 이기면 10억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국내 법조계 IT 최강자인 강민구 당시 부산지법원장은 2차전이 끝나고 “이 9단이 패배한 것은 전자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 암산왕이 패한 것과 비슷한데, 고난도 바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헛갈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은 아마도 100억 원 또는 1000억 원의 대국료를 이 9단 측이 제시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며 “전문 법률가 집단과 IT 전문가 집단이 이 계약에 개입해 한 회당 100억 원 이상 정도의 대국료를 산정했어야 하는 데 무조건 이긴다는 착각 아래 (이번과 같은) 계약을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게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 9단이 절대 이길 수 없었다고 예견했다”고 소개했다.

최종 스코어는 1-4. 이세돌의 완패였다.

모든 경기가 끝나고 이세돌은 이번 대국에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바둑을 즐기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정말 원 없이 두어본 대국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측은 내심 승리를 확신했던 모양이다. 뒷날 밝혀진 일화지만 구글은 “이세돌이 10억원에 덜컥 사인해버린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염장(?)을 질렀다. 100억 아니 1,000억원을 요구했어도 기꺼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거라는 것.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니 우승 상금이 많을수록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며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고도의 전략이 깔려 있었다.

세기의 대결로 공식전에서 알파고에게 1승을 거둔 이세돌은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인류 최초이자 최후의 바둑기사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이세돌이 맥없이 나가떨어진 광경을 보고 있던 이세돌의 천적 중국 커제는 기어코 알파고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커제는 3전 3패의 성적으로 상황 끝. 커제와의 대결을 끝으로 알파고는 은퇴를 선언했다.

이 세기의 대결이 알려준 교훈은 여러모로 생각할 점이 많아 보인다. 인공지능 알파고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인간이 컴퓨터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 한 가지 알파고의 시기적절한 은퇴선언. 전 세계에서 가장 바둑 잘 둔다는 한국의 이세돌과 중국의 커제를 잇달아 격파하고 홀연히 바둑계를 은퇴한 알파고의 뒷모습이 그리워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 겸손하고 담대한 결정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18. 두각을 나타낸 전남 출신 선수들의 활약상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남 출신 선수들은 부지기수다. 너무 많아서 한정된 지면에 다 신지 못한 점이 두 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몇몇 대표적인 선수들을 여기에 한데 묶어 우리 전남 출신 선수들의 발자취를 기록했다. 여기에서 누락된 선수들의 활약상은 다른 자료나 기록물에 반드시 실려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조금이나마 위안 삼으려 한다.

먼저 축구, 야구, 배구 등 인기 프로종목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선수들부터 알아본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한민국 4강 신화의 주역 박지성은 당시 히딩크 감독의 수제자로 고흥이 고향이다. 그의 아버지 박성종씨는 고흥서 나고 자라 수도권으로 이사했다. 박지성은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 팀에서 당당히 주전으로 활약, 아시아 축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 2011년 4월 고흥공설운동장을 ‘박지성 공설운동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청소년 대표 시절인 2004년부터 지난 2019년 까지 무려 15년 동안이나 태극마크를 달았던 기성용도 광양 출신이다.

오랫동안 유럽 명문 팀에서 미드필더로 뛰며 국위를 선양했다. 그는 셀틱FC를 비롯 스완지 시티, 선덜랜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거쳐 지난 2020년 해외 생활을 청산하고 친정팀 FC서울로 이적, 선수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불사르고 있다.

야구에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국민 타자’란 각광을 받은 이승엽 선수도 그 뿌리는 강진이다. 대구 삼성라이온즈에서 한국 야구를 평정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지바 롯데 마린즈, 요리우리 자이언츠, 오릭스 버팔로즈에서 크게 활약했다. 지난 2012년 친정팀 삼성라이온즈로 복귀해 2017년 까지 뛰고 은퇴한 뒤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비록 메달 획득엔 실패했으나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한 뒤 미련 없이 국가대표 은퇴를 밝힌 여자배구 김연경도 구례 출신이다. 특히 일본과의 예선 4차전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2대2로 비긴 뒤 마지막 5세트에서 12-14로 끌려간 경기를 기어코 16-14로 뒤집는 역전 드라마를 일군 주역이다. 풀세트 접전 끝에 일본을 격파한 여자 대표 팀은 8강에 진출, 도미니카를 꺾고 4강에 까지 진출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르비아에 아쉽게 패해 메달을 따진 못했으나 ‘자랑스런 4위’를 기록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번 올림픽

까지 16년간 국가대표로 활약한 김연경은 이제 ‘식빵 김연경’으로 국민들 뇌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연경보다 훨씬 앞서 1980년대 대한민국 여자배구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 박미희는 1963년 해남군 화산면에서 태어났다. 광주여상 시절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돼 에이스로 활약했다. ‘코트의 여우’로 불리며 선수로서는 작은 신장(174cm)에도 불구하고 중형무진 누빈 올라운드 플레이어였다. 1984·1988년 올림픽과 1986·1990년 아시안 게임 주역이었다.

남자 배구에선 ‘갈색 폭격기’란 별명으로 유명한 신진식 선수가 고흥 출신이다. 신진식 선수는 고흥에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 전주로 이사, 남성중학교와 남성고등학교를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시절부터 강 스파이크로 이름을 날렸다. 선수 시절 김세진과 함께 ‘좌진식 우세진’이란 말을 들으며 소속팀 삼성화재가 겨울리그 9연패를 달성하는 주역으로 활약했다.

육상에선 마라톤 김재룡 선수가 이름을 날렸다. 1966년 고흥군 포두면 상포리에서 태어난 김재룡은 포두북초등학교, 포두중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는 선수로 뛰지 않았다. 조대부고로 진학해서야 5,000m와 10km 선수로 본격적인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조대부고 3학년 때는 국내 10km 각종 대회를 싹쓸이할 정도로 이 종목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고교졸업 후 한전에 입사, 마라톤으로 전향했다.

1989년 조선일보 마라톤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1991년 동아마라톤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1992년 동아마라톤 대회서 우승, 대회 2연패 위업을 달성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도 출전했다. 1993년엔 보스턴 마라톤대회 준우승을 차지했고, 그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4위로 골인했다. 김재룡 선수의 이 기록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한국 선수 최고의 성적으로 남아있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획득, 금메달을 획득한 황영조와 함께 시상대에 올랐다.

현역에서 은퇴한 뒤 소속 팀 한전 육상부 감독으로 재직중인 김재룡 선수가 지금까지 전국체전에서 고향 전남에 바친 금메달은 무려 14개나 된다. 다관왕이 나올 수 없는 마라톤 경기 특성을 감안하면 김재룡 선수야말로 애향심이 뛰어난 선수 출신 지도자로 존경을 받을만하다 하겠다.

고흥읍에서 포두면 상포리 김재룡 선수의 고향집까지 3km길을 ‘김재룡 로’ 또는 ‘김재룡 길’로 명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근대5종 아시안 게임 2관왕 김미섭 선수는 광양 출신이다.

김미섭 선수는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근대5종에서 개인전(5천668점), 단체전(2만2천168점)에서 금메달을 획득, 2관왕에 올랐다.

광주체육중학교 때는 수영선수였으나 광주체고에 진학하면서 은사의 권유로 근대5종으로 전향, 1993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듬해인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 개인전 동메달, 단체전 은메달을 따내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1998년 방콕 대회는 근대5종이 제외되는 바람에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참가를 끝으로 사실상 선수 생활을 접게 됐다. 근대5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김



미섭은 서울체고 코치로 부임, 제자들을 가르치며 함께 훈련했다. 내심 2002 부산 아시안 게임을 머리속에 그리며 고민하던 김미섭은 중대 결단을 내린다. 2002년 새해가 밝자 근대5종 대표 팀에 복귀하게 된다. 2001년 성민정씨와 결혼한 김미섭은 신혼의 달콤함을 잠시 미루고 본격 훈련에 돌입했다.

어느덧 서른이 넘는 나이에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던 김미섭은 기어코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그토록 그리던 금메달을 두 개나 목에 걸었다.

이 후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도 참가했던 김미섭은 지난 2007년 미국 이민 길에 올랐다.

장애인 최초 세계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김홍빈 대장은 고향 출신 산악인이다.

‘히말라야 14좌 완등’ 기록의 사나이 김홍빈 대장(1964~2021)은 1964년 고향 군 동강면 오수마을에서 태어났다. 1983년 송원대학교 산악회에 입회, 본격적으로 산을 타기 시작한 김 대장은 1984년 광주전남 암벽대회 2위에 오르고 1984년 엔 전국 등산대회 3위에 입상했다.

1989년 동계 에베레스트(8,850m), 1990년 파키스탄 낭가파르бат (8,125m)을 등반했다.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 매킨리산(6,194m) 등반 중에 동상에 걸려 열 손가락을 모두 잃은 장애인 산악인이다.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은 장애인 최초 세계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한 불굴의 산악인이다.

브로드피크 원정에 나선 김홍빈 대장은 정상을 정복한 뒤 하산하다가 2021년 7월 19일 크레바스에 빠져 실종돼 히말라야에 영원히 잠들어 있다.

대한산악연맹과 광주시산악연맹, 대한산악회, (사)김홍빈과 희망만들기, 장애인 체육회 등은 광주광역시 염주체육관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8월 4일부터 8일까지 ‘산악인장’으로 5일장을 치렀다.

정부는 김 대장에게 체육훈장 청룡장(1등급)을 추서, 최고로 예우했다. 김 대장의 영정은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에 안치됐다.

IV

원로들이 말하는 전남체육



1. 회고담

2. 원로방담

“

회고담 (回顧談)

7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전남체육은 역사적 부침(浮沈)을 거듭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한 시대를 살아온 전남체육계 원로들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들의 입을 통해 정리했다. 전남체육계 원로들의 기억들이 희미해지기 전에 전남체육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타임캡슐에 문듯 소중한 기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남체육사편찬위원회는 분야별 생존 고령 원로들을 중심으로 전남체육 회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고 애로와 보람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전남체육과 함께 했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과 얹힌 일화와 해프닝은 없었는지. 체육행정, 학교체육, 생활체육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역점사업과 경기단체 운영철학 등을 물었다. 후세에 남기고 싶은 말씀과 민선 전남체육회에 바라는 점도 청해 들었다.

원로들은 전남체육과 함께 해온 그들의 긴 여정을 담담하면서도 성실하게 답했다. 그리하여 그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전남체육사 한 페이지에 귀하게 채울 수 있었다.

”

“세 번의 전국체전 중 두 번 전남 개최 6년 연속 2위 유지, 큰 기쁨이자 보람”

1. 박관주 전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



5·16 후 서른여섯 나이에 전남도청 관광운수과장이 된 나는 5년 동안 회계과장으로 근무한 후 초대 신안군수, 곡성군수, 해남군수, 순천시장을 거쳐 전남도청 보건사회국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전남 체육과의 인연은 전남도청 회계과장 시절 시작됐다. 1964년 전남도청 회계과장으로 일하고 있을 당시에는 전남을 비롯 전국 시·도 단위에 체육담당 부서가 아예 없었다. 때마침 광양 출신 김보현 전남도지사가 부임해 “내년(1965년) 전남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은 회계과에서 준비하라”

는 특명을 하달했다. 당시 제46회 전국체육대회가 광주에서 개최 예정이었다. 광주에는 이렇다 할 체육시설이 전무해 대부분의 체육대회나 경기는 광주일고, 광주고 운동장 등에서 개최할 정도였다. 이렇다보니 분장 업무 가운데 회계와 영선·건축담당을 관할하는 회계과는 시설·건축 등 분야에서 전국체전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후 광주시 일신방직 공장 밑 밤나무 밭을 전남도에서 인수한 뒤 전남체전 관련 체육시설을 신축했다. 천신만고 끝에 시작된 광주종합경기장(현재의 무등경기장) 신축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사였다. 이어 광주공원 아래 삼화식물원 자리에 구동실내체육관도 완공했다. 광주종합경기장과 함께 완공된 구동실내체육관은 관람석 2,200석 규모로 서울 장충체육관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실내체육관이었다. 체육시설을 갖춘 뒤 전주, 대구에 이어 도청 소재지로서는 전국 세 번째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됐다.

그런데 제46회 전국체육대회 개막 첫 날 1965년 10월 5일 광주 주변 시·군민들까지 개막식을 구경하기 위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그 바람에 무게를 견디지 못한 광주종합경기장 정문이 무너지고 말았다. 12명이 압사하고 53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참사였다. 당초 아침 6시 문을 열기로 했으나 이른 새벽부터 관중들이 몰려 새벽 2시부터 문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입



장시킨 뒤 새벽 5시쯤 문을 닫아 버렸다. 이렇게 되자 새벽 6시부터 문을 열 줄 알고 몰려온 관중들은 경기장 주변을 가득 메웠고 이들 가운데 3만여 명이 광주종합경기장 쇠 정문을 부수고 입장하려다 이 같은 참극을 빚고 말았다. 건물을 잘 못 지어 사고가 난 게 아니었지만, 관람표와 입장객 관리의 책임을 물어 회계과 책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전남도 보사국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고 건 전남도지사가 부임했다. 고 건 지사는 “내년(1977년) 제58회 전국체전을 전남도가 주관해야 하는데 제46회 전국체전을 치러본 경험도 있고 하니 맡아서 준비를 해 달라”고 내게 요청해왔다. 어쩔 수 없이 제58회 전국체전 준비를 다시 맡을 수밖에 없었다. 기존 광주공설운동장을 32,000명 수용 규모로 확장하고 국제 규격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신축하는 등 체육경기시설을 보완해 제58회 전국체육대회는 광주에서 무사히 치렀다.

전남도 보사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1977년부터 국민건강의료보험 제도가 시행된 직후 박정희 대통령이 전남을 포함 전국 5개 시·도에 치료용 선박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선박은 경남 마산 타코마 조선소에서 목포항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전남도지사는 대통령이 지원한 선박이므로 목포로 곧장 가지 말고, 2박3일 정도로 전남 주요 항구를 들러 대대적인 환영식을 치르자고 했다. 당시 사고위험을 우려해 내가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의지대로 강행했다. 마산 → 여수 → 녹동 → 완도를 거쳐 목포로 가져오는 코스가 정해졌다.

그런데 이 선박이 완도에서 목포로 항해하던 도중 청산도 옆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말았다. 병원선 ‘새 전남호’ 침몰 사고였다. 사고가 나자 언론의 강한 질타와 도지사 책임론 등 비난 여론이 거셌다. 결국 “내가 책임지고 그만 두겠다”고 말하자 도지사는 울먹이면서 “무엇이든 도와 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다. 그때 후배 직원들의 무사를 위해 나이 51세에 공무원 사직을 결심했던 것이다.

공무원 사직 후 1977년 무렵, 어느 날 부영그룹 회장이 찾아와 납치하다시피 이사회가 열리는 사무실로 데리고 가 사장으로 추대했다. 느닷없이 부영건설 산하 우진건설 사장을 하게 됐고 아파트 건설 등 왕성하게 사업을 벌이다 회사 부도로 그만 두게 됐다.

이후 1980년 부임한 김종호 전남도지사가 내게 “두 번의 전국체전 개최 경험을 살려 전남체육회를 새롭게 꾸려 달라”고 요청해왔다. 당시 정보부, 경찰국장, 도지사 등이 합세해 중용하는 바람에 전남체육회 부회장직을 수락했다. 나는 김종호 지사에게 “기왕 부회장을 맡을 바에는 명실상부한 상근 부회장으로 하자”고 요구, 상근 부회장 체제로 전환했다. 내가 부회장을 하는 동안 처음에는 월 30만 원에서 후에 60만 원 정도의 판공비로 외부 인사를 교섭하거나 식사비로 충당했을 뿐, 무보수로 일했다. 1988년 송언중 전남도지사 때 전남체육회 부회장은 예산을 맡는 부지사, 시설을 책임지는 광주시장, 학생체육의 교육감과 전남체육회를 총괄하는 상근 부회장 등 4명의 부회장 체제로 구성됐다,

1980년 11월 18일 전남체육회 상임 부회장 일을 시작하면서 직원 재정비를 비

롯 광주 구동 실내체육관 옆에 전남체육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1981년 제10회 전국소년체전 전남 개최에 따른 문교부 1억 원의 교부금을 바탕으로 광주공원 아래 구동실내체육관 부근에 2년 여 공사 끝에 1982년 11월 26일 전남체육회관을 완공했다.

나는 전남도체육회와 인연을 맺은 후 전남에서 개최된 제32회, 제46회, 제58회 등 세 번의 전국체전 가운데 두 번을 개최했다. 만년 8등으로 하위권에 머물러있던 전남체육 수준을 1981년부터 내리 6년 연속 준우승으로 끌어올려 대한체육회가 깜짝 놀랄 정도였다. 서울을 제치고 경기도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기쁨과 함께 86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때까지 10년 남짓 전남체육회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큰 보람이다.

전남체육과 인연을 함께 했던 분들이 모두 떠난 마당에 올해로 96세 된 최고령자로서 전남체육에 대해 사회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1981년 광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 마스게임 준비 공로로 대한체육회에서 기회를 줘 유럽과 미국, 일본으로 이어진 세계여행, 국민훈장 동백장 및 전라남도 문화상(체육 부분) 수상 등을 영광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5·18 직후 전국체전 3위 입상… 도지사·기업·임원·선수 헌신 덕분에 종목별 육성 기업 찾아 동분서주, 전남체육발전 위해 보탬 노력”

2. 안주섭 전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



1976년 4월 전라남도 기획담당관 시절 도비 예산 지원 업무를 관장하면서 전남체육회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1980년 6월 4일 보건사회국장으로 발령받은 뒤부터는 전남체육회와 호흡을 같이했다. 당시 전남체육회 관리·지원 업무는 보건사회국 보건과가 주무부서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광주·전남은 온통 비통과 분노, 혼돈 상태였다. 보건사회국 업무 중에는 이 같은 사태의 수습과 치유, 보상 업무도 하게 돼 있어 촌음의 시간을 다룰 때였다. 그런데도 일부 임원

의 일탈행위 등으로 전남체육회 내부의 혼란은 계속됐다. 설상가상으로 그 해 10월 제61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처지여서 전남체육회의 혼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김중호 도지사님의 특별지시를 받아 전남체육회의 수습에 착수했다. 수습 과정에서 체육계 원로이신 정진갑, 박진동 님의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인품이 훌륭한 데다 체육 경험까지 풍부한 박관주 선배를 전남체육회 부회장으로 천거하게 됐다. 이후 박관주 부회장 중심체제로 전남체육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그 해 10월 전북 전국체전도 대비할 수 있었다.

전남부지사를 명예퇴직한 뒤 내무부 산하 한국소방검정공사 대표이사(사장)로 재임 중이었다. 그 때 1996년 10월 허경만 도지사님으로부터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다. 아직 사장 임기가 남아 있어 고심이 깊었다. 그러나 동문인 허 지사께 미력하나마 도움을 드리고 고향 체육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수락했다. 부회장에 부임한 뒤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전남체육과 함께 하는 동안 크고 작은 보람도 많았다. 우선, 1980년 10월 제61회 전북 전국체전에서 전남이 경기·서울에 이어 종합 3위로 도약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전남은 매년 6~7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3위의 기

록은 깜짝 놀랄만한 도약이자 매우 값진 성과로 간주됐다. 이후 10위권에 머물던 전남체육이 1998년 9월 제79회 제주 전국체전에서 6년 만에 8위에 입상한 것 또한 기쁨이었다.

1980년 10월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여서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수습되지 못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김종호 지사님은 경기력 향상과 선수육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재정 확충을 위해 몸소 뛰셨다. 전남 도내 업체는 물론 재경 기업, 나아가 현대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까지 끌어들었다.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종호 지사님은 강인한 추진력으로 밀어 붙였다.

김종호 지사님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선수훈련장을 수시로 방문해 점검, 격려했다. 대회기간 중에는 현지에 상주하시면서 경기장을 직접 찾아 선수들을 응원하셨다. 심지어 도지사가 직접 선수들을 부둥켜 안고 박수치고 뛰는 모습은 타 시·도 임원과 선수, 관중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늘 화제 거리가 됐다.

전국 3위 입상의 영예는 김종호 도지사님의 열정과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전 도민의 열화와 같은 응원, 불굴의 투지와 필승의 의지로 똘똘 뭉친 임원·선수들의 혼신의 노력으로 일궈낸 값진 승리라고 생각한다.

전국체전을 비롯 전국 규모 대회에서 한 등위를 올린다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다. ‘운칠기삼’이라는 우스갯소리가거나 ‘패자의 변’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1996년 10월 강원도 제77회 전국체전에서 축구 결승전 상황을 보면 그런 말이 딱 들어맞는다. 결승전 한 게임만 남겨 둔 상태에서 전남 성적은 종합 8위였다. 남은 경기도 전력상 우리 팀(이랜드)이 상대팀(한국철도)보다 늘 앞서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넘쳤다. 그러나 막상 경기에서는 지고 말았다. 이로써 다 잡아 놓은 8위를 놓치고 9위에 머물렀던 안타까운 기억도 있다. 모든 경기에는 수많은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1998년 9월 제주 제79회 전국체전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골프 종목이 선전했다. 특히 고등부 골프가 개인 단체전을 모두 석권, 전남이 종합성적 8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종합성적 8위 달성은 1992년 10월 대구 제73회 전국체전 이후 6년 만에 올린 쾌거여서 지금도 새롭다.

전남은 단체 종목을 맡아 육성할 만 한 기업체가 없어 항상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전남도청이 체조 등 4개 종목, 목포시 등 5개 시·군에서 하기, 양궁 등 10개 종목을 육성했다. 단체종목 육성이 어려운 시·군은 23개 종목, 100여 명을 취업시켜 육성하기도 했다. 특히 허경만 도지사님은 실력이 뛰어난 메달리스트급 선수 10명을 직접 포스코 회장에게 요청, 광양제철 협력업체에서 기금을 마련해 월급 형식으로 지원, 육성한 적이 있다. 이밖에 우수선수를 별도로 선정해 전남체육회 예산에서 일부 지원하기도 했다.

내가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 재임 중에는 전남도와 관계가 비교적 원만해 도비 지원 및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는 편이었다. 스스로 전남도 재정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처지라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돌이켜 보니 좀 더 많은 도비를 지원받아 선수육성과 체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후회



하고 아쉬워하고 있다.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동고동락했던 분들이 하나 둘 생각한다. 전남체육회에서 함께 근무한 임 완 사무처장, 김남기 총무부장, 이금재 운영부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선량하고 바른 분들이어서 분위기가 늘 화기애애하고 따뜻했다. 임 완 사무처장은 중후한 친화력과 카리스마까지 갖춰 사무처 직원은 물론 경기단체 임원 선수에 이르기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지도자였다.

특히 운영부 김상민 씨는 행정기관 직원들도 저리 가라할 만큼 기획과 사무처리 능력이 뛰어난데다 인간성까지 고왔다. 김상민 씨는 경기단체 전무이사들과도 소통이 원활하고 유대가 좋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다 해결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했던 경기단체장과 전무이사들이 떠오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조영기 전남태권도협회장, 강방원 전남육상연맹회장, 임채수 사격연맹 전무이사, 박창웅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체육발전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 봉성한 분들로 지금도 마음 깊이 존경하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관(官) 위주였던 전남체육회도 이제 민간선거체제로 바뀌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도 통합됐다. 법인화까지 마무리 돼 명실상부한 민(民) 주도형 통합 체육회가 완성됐다고 생각한다. 민선 김재무 회장님을 중심으로 훌륭하게 이끌어가시겠지만, 노파심에 몇 마디 당부 드리고자 한다. 첫째, 화합해야 한다. 다른 선거 직에서 보듯이 선거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조직이 커지다 보면 시기와 다툼도 있다. 따라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미덕이 있어야 한다. 둘째, 민(民) 주도가 됐다고 해서 관련기관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이다. 유관기관과의 신뢰와 유대는 오히려 더욱 돈독하고 탄탄해져야 한다. 셋째, 이제 성적이나 순위만 보지 말고 전남체육회가 진정으로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을 위하고, 도민 위주의 체육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남체육 이끈 두 수레바퀴 중 하나, 전남체육중 초대교장 과분한 선물 평생 육상·체육과 함께한 삶, 전남체육 산증인 자체로 행복”

3. 최재근 전 영광교육청 교육장·전 전남체육중학교 초대 교장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전남육상경기연맹 총무이사, 전무이사, 부회장을 거치는 동안 나는 ‘전남 육상의 산증인’이라는 평을 받아왔다.

강진고 교장,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영광교육장 등을 거쳐 정년 하던 해 1999년 9월 초대 전남체육중 교장을 맡게 됐다. 전남체육중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늦게 무안에 문을 열어 설립 전 전국을 돌며 벤치마킹을 하기도 했다.

전남체육중 학생 모집을 위해 전남 시·군을 많이도 뛰어다녔다. 개교 첫해 입학생 모집을 위해 하루 500km, 많이 뛸 때는

750km도 다녔다. 전남체육중학교 초창기 때 학생 모집 자체는 물론이고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2000년 부산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 여중 400m 계주에 출전한 1학년 학생들이 개교 첫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남체육중 초대 교장으로서는 2년간은 고생이 심했다. 심지어 기숙사가 없어 목포공고 기숙사에서 2년간 더부살이를 할 정도였다.

영광교육장 재직 시절 열린 전국체전에서 광주시가 금메달을 11개 딸 때 영광군이 7개를 따는 기적 같은 일도 있었다. 영광교육장 시절 최고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영광중앙초등학교 출신 체조의 김대은·김승일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 한국 체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되기까지 학교 선생님들도 고생했고, 저도 참 운이 좋았던 것 같다.

오영대 교육감과 체육고 교장 선생님들의 공이 남달랐다. 전남체육고는 초대 김승철 교장이 기초를 닦고, 오영대 교장이 전성기, 성영기 교장이 열매를 따 먹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체육고가 전남 체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 실제로 5·18 당시 전주에 열린 전국체전에서 전남체고 양궁 박익수 선수가 5관왕을 차지한 적이 있다. 박익수 선수는 5관왕은 물론이고 비공인 세계 신기록과 함께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박익수 선수와 김종호 전남도지사가 나란히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광주 수창국민학교에서 전남도청까지 오영대, 정일택, 나

와 박익수 선수가 각각 분승한 뒤 카퍼레이드를 성대하게 펼쳤다. 카퍼레이드가 끝나자 김종호 전남도지사가 성적 좋은 경기단체, 전남체고 교감을 포함 20여명에게 동남아 8개국 여행을 시켜줬다. 이후 박익수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86아시안게임 때는 복싱 오광수·김동길을 비롯 양궁, 핸드볼에 출전, 전남체고 출신들이 10여명 이상 메달을 획득했다.

전남도교육청에서 배드민턴 담당 장학사를 거쳐 강진고 교장으로 있을 때 일이다. 강진고 배드민턴 팀이 전국대회 나가기만 하면 이상하게 서울체고를 만났다.



▲ 전남육상연맹 시절, 서울 전국체전이 끝난 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육상선수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철(광주일보), 김미자(400-1,500m), 필자(가운데), 김미선(400-1,500m), 김연옥(투포환), 이상국(단거리) 박석환 선수(앉아있는 분, 800-1,500m)

전주 전국체전에서 또 서울체고와 만나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서울체고를 다섯 번 만에 이겼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체육계에 지원이 되는 편이므로 전남체육의 선수와 지도자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이유가 돼 선수 육성이나 경기 출전에 지장은 없다고 본다. 요즘 선수나 지도자들은 사명감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앞으로는 체육고에서 대학처럼 체육지도자 육성 과정을 만들어 고등학교 단계부터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체육지도자를 육성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1976년 전남육상연맹 전무이사 시절,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26회 일본 숭고교 역전 마라톤대회’에 조대부고 문창식 교장이 단장, 내가 한국 대표 감독, 조대부고 김용인 코치와 함께 8명의 선수가 참가한 적이 있다. 조선대 박철웅 총장이 장도에 오르는 선수단에게 축사를 하며 격려했던 기억도 새롭다.

특히 정년 후에 선택을 받아 설립자 역할을 했던 2년 동안 전남체육중 교장으로 봉직하게 된 것은 과분한 선물이자 특혜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영광교육장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제27회 전국소년체전

금7개, 은7개, 동5개 기염

영광 체육의 희망이 보인다. 지난 28일부터 4일동안 전남 창원과 마산 지역에서 열린 '제 27회 전국 소년 체전'에 전남 대표로 참가한 영광군 선수들이 금메달 7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를 따내 전남 대표들이 따내 19개의 금메달 중 4%를 영광군 선수들이 이루어 내 전남체육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영광군 출전 선수 중 단연 돋은 체조에서 금 2개와 은 2개 등 1개 등 모두 5개를 따내 집중된 선수로서 전남 체조가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레스링에 65kg 출전한 영산중 이봉수 선수가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 양체급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 누구도 이루기 힘든 '전아 통일'을 이룩해 레스링 관계자들이 장대 함성과 금메달이 기대되는 보배라고 극찬하였다. 그리고 여중 태권도 라이트급

의 강지나군이 지난 대회에 이어 대회 2연패를 이루어 전대 국가대표는 꼽아는 선수이며 또한 체조경기에서 영광중 김대은 선수가 마루에서 금 1개와 팀과 개인종합에서는 은 2개를 따내 양광주로 떠올랐으며, 체조 남자초중부에서 장가관 중앙초중 박정환김수은 조마에서 금메달을 차지해 영광체조를 이어갈 재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여중농구 경기의 결승에서 흥농중학교가 아깝게 패해 은메달을 거머쥐고 남자 초중부 태권도 빈급에서 박민우(법성초중)와 레스링 82kg에 출전한 김대구(영산중)군이 은메달을 따냈다.

그리고 여자초중부 농구경기에서는 흥농중학교가 동메달을 차지해 아쉬움을 남겼으나 태권도 플라이급의 서민우(법성초중), 레스링 그레코로만형 48kg에서 박민우(영산중) 57kg 한기룡(영산중)군이 차지하였다.

"소년체전 금메달의 얼굴들"



◦김 승 일

영광중 · 체조

◦김 대 은

영광중 · 체조

◦박 성 철

중앙초 · 체조

◦이 봉 수

◦장 지 나

영광체육미래 청신호

소년체전참가 전남메달 45% 획득



◇ 최 재 근

영광 체육의 미래가 밝다. 지난 28일부터 창원지역에서 열린 '제27회 전국 소년 체전'에 전남대표선수로 참가한 영광선수들이 금메달 7개와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를 획득하여 전남선수단이 따낸 17개의 금메달중 45%를 차지하여 영광군이 메달

의 산실로 떠오른 것이다.

이번에 성과를 올린 종목은 체조와 레스링, 태권도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으며 여자농구도 전국상위 팀임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영광군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을 올리게 된 이유는 영광교육청 최재근 교육장의 체육에 대한 열정이라는 분석이다. 최교육장은 자라가 인정하는 체육인으로서 영광에 부임 이후 전천후 교육을 추진하면서 각

종목별로 팀을 창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체조는 역사가 있는 종목이나 이번에 성과를 올린 레스링은 창단한지 2년밖에 안되었으며 태권도도 법성중학교에 창단하여 장래가 유망한 강지나 선수를 발굴하였다.

또한 아직은 미흡하지만 영광 여중 유도부와 영광초중 축구부와 태니스부등도 영광 체육을 이끌어갈 유망 선수 육성에 일조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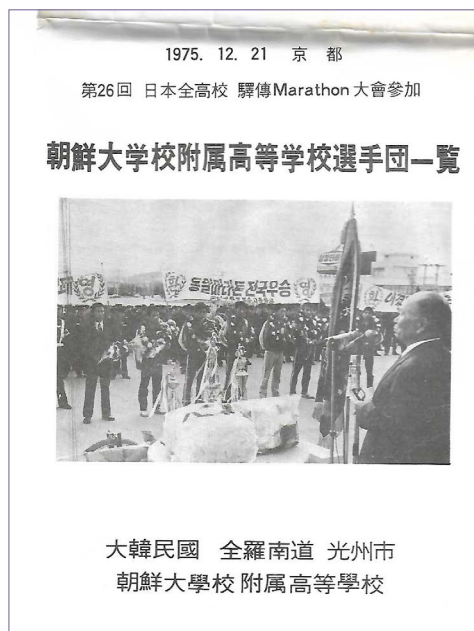
전남도교육청 장학사 시절 전병곤 교육감에게 나주역~광주역을 달리는 '학생의 날 기념 구간 마라톤대회' 창설을 제안, 고등·중학 남녀 선수 6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치렀으나 지금은 사라져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세월 동안 전남체육을 이끌었던 두 수레바퀴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조선대 체육대학, 또 하나는 전남체육고라고 생각한다. 대학·일반은 조선대, 학교체육은 전남체고가 이끌며 체육 각 분야에 선수와 지도자로 진출해 있다. 86아시안 게임에 출전해 우승한 복싱의 오광수, 김동길, 핸드볼 선수 등 자랑스러운 전남체육고 선수·제자들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해단식 때 찍은 사진을 찾지 못해 지금도 아쉽다.

전남육상경기연맹과 전남체육회를 함께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수없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돈이 없어 더욱 힘들었다. 경기단체 회장들이 운영비를 내놔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체육회가 조직화되면서부터는 틀이 잡히자 회장들이 운영비를 내 놓기도 했다. 실제로 내가 모셨던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들 가운데 광주 구동체육관 옆에서 삼합식물원을 했던 정화도, 치과의사였던 정춘수, 이대로 전남도교육청 학무국장(텔런트 이호춘 아버지), 김인곤 조대여고 교장(전 국회의원)이 회장 등이 있다. 나는 김인곤 회장 때 전무이사를 했다. 전남육상경기연맹 회장 김인곤 조대여고 교장은 100~200m 단거리 정순남, 800~1,500m 중장거리 정순화 자매와 또 다른 중장거리 최영심 선수들을 집중 육성, 조대여고를 빛내는 선수로 성장시켰다. 이들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집을 사줬네, 논을 사

줬네”라는 말이 돌 만큼 김인곤 교장이 특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체육이 융성해 아웅산 사태가 터졌던 해 인천 전국체전에서 전남이 62개의 금메달을 획득, 종합 2위를 차지할 때 전남체육고가 33개의 금메달을 획득, 전남 체육 2위 입상에 기여하기도 했다. 당시 전남 2위 기록은 신문에 대서특필 돼야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인데도, 아웅산 사태에 가려 한 줄도 보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 전남육상연맹 전무이사 시절, 1975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제26회 일본 소고교 역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조대부고 선수들의 출정식 모습. (조선대 박철웅 총장이 장도에 오르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 이야기만 했지만, 그동안 전남체육에 기여한 분들이 많이 떠오른다. 정현채 · 김승철 · 윤영선 · 허광욱 국장 등 지역 언론인들이 전남 체육에 기여를 많이 한 전남체육회의 숨은 공로자들이다. 김승철 · 정현채 국장들은 스스로 육상 선수들 유니폼을 사주기도 했다. 특히, 오영대 교육감은 체육고 출신 대학 특례 입학이라는 족적을 남기셨고, 전남 체고에 훌륭한 선생님들을 대거 모셔온 것 역시 오늘날 전남체육의 기반을 다지고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전남체육고 오영대 교장 선생님은 최승호 학장 시절 광주 교육대와 오병문 총장 때 전남대학교에 전남체고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체육고 출신 특례 입학 전형을 관철 시켰다. 오영대 교육감은 또 인사 · 예산 뿐만 아니라 전남체육고에 유능한 체육선

생님들을 많이 보내주셨다. 실제로 레슬링의 최경수, 태권도의 박현정 전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펜싱의 유봉춘 선생님들은 대단히 유명하신 분들이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훌륭한 제자를 육성해 낸 양궁의 정일택 선생님 덕택으로 전남체고 출신들이 전국적으로 양궁을 석권하기도 했다. 어쨌든 체육고 특례입학에 대한 세간의 시기 질투와 특혜 시비에 휘말려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전남체고 학생들이 광주 교육대와 전남대학교 체육과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밀어붙인 오영대 교육감 덕분에 초중고에 체육 교사가 많이 배출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이 오영대 교장선생님의 가장 뛰어난 업적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5대양 6대주 누비며 태권도 육성 앞장, 전남체육·한국체육 역사의 중인
투기·개인종목 소질 많은 전남체육 미래 밝아,
체육유공자 기념공간 조성됐으면...”

4) 조영기 전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



5·16 직후 전남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해 영광군체육회를 처음으로 조직한 뒤 10여 년 동안 상임부회장을 맡았다. 이것이 나와 전남체육과의 인연의 시작이다. 1986년 광주·전남 시·도 분리 후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 시절 전남체육회 이사로 활동했다. 이후 18년간 전남체육회 부회장으로 전남체육회와 함께 했다.

1958년 영광읍에서 영광태권도체육관을 연 뒤 관장으로 지금까지 그 자리에서 태권도를 지키며 여전히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까지 평생 태권도 도복을

벗지 않았다.

대만에서 열린 세계태권도대회 단장으로 출국하기 직전, 어머니가 위중했으나 고심 끝에 출국했다. 결국 어머니의 마지막 길은 지키지 못한 채, 세계태권도 대만 대회 우승컵을 안고 귀국했다. 그러나 KBS 광주총국 현직기자로 대만 세계태권도대회 단장으로 다녀 온 것이 문제가 돼 KBS 대구를 거쳐 안동까지 발령 난 후 1994년 끝내 KBS를 명예퇴직하고 말았다.

이어 1982년 아시아태권도대회(싱가포르) 경기위원을 시작으로 세계태권도대회 기술심의위원(1984년, 덴마크), 아시아태권도대회 단장(1990년, 대만), 시드니올림픽 기술위원(2000년, 호주), 월드컵대회 단장(2001년, 베트남), 남북태권도교류 부단장(2002년, 북한), 세계선수권대회 단장(2005년, 스페인), 국기원 국가대표 시범단 단장(2007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등 태권도 발전에 전념해 왔다.

세계태권도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평생 5대양 6대주를 다니느라 여권을 5권째 만들 정도였다.

국기원장 자리를 세 번 도전한 적이 있다. 태권도 2세대로서 누구 못지않은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 열정을 갖고 도전했으나 정치적 이해타산과 정권마다 선거캠프 출신 등을 앞서는 자리로 전락하는 바람에 끝내 뜻을 이루지는 못한 채 도전을 접었다.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자리를 놓고 홍준표 회장과 붙은 적도 있다. 그러나 태권도 공원 조성을 비롯 역삼동 국기원 부지 공원 부지 푸는 문제 등 태권도 정무적 현안



들이 많아 정치인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양보했다. 당선 후 상임부회장으로 임명 받아 밝은 홍준표, 내부 일은 내가 회장 역할을 하다시피하며 6년 동안 전국을 누비며 다녔다.

홍준표 회장 시절, 국가적 공헌과 희생으로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전국 태권도 체육관은 면세업종으로 지정했다. 중단 중이던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도 부활시켰다. 협회나 국기원 206개 국가를 관장하는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 명의의 ‘국기장’을 2019년 수상하기도 했다. ‘국기장’은 국기원이 태권도 보급,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나는 전남체육과 태권도에 있어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자, 도복 입은 태권도 최장수 현역으로서 요즘 머리 좋고 공부 많이 사람, 국회의원 등 도복을 입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태권도 조직을 휘어잡으려는 것들을 목격하면서 도복 입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전남 시·도 분리 전 김재식 지사 시절 전남도민체전에서 영광군이 3위를 차지했다. 과거 전남체육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임원들도 달랑 잠바 하나 입고 선수들은 속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도 전국 5위권은 유지했으나 지금은 11위~12위에 쳐져 있는 실정이다.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독특한 기질과 투기, 개인 종목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이는 체육적 소질을 전남이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변 확대만 잘 되면 체육 인구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목포대, 순천대, 초당대, 동신대가 양성하는 대학체육도 한계가 많다.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서 여러 종목을 키우는 연계 육성이 필요하다. 나는 영광원자력을 수년째 쫓아다니면서 실업팀 창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반응이 없다. 반면 광양은 팀이 얼마나 많은가? 실업 팀과 광양제철이 뒷받침해 주니 전남도민체전에서 1등을 하지 않은가...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키워주면 성장할 수 있고 자질과 투지는 있는데도 돈이 없어 자꾸만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이다. 강원도는 전국소년체전에서 무조건 1등이다. 강원도는 선수 전원 합숙을 하고 체육정책을 잘 세운다. 하계와 동계 훈련 장소를 제공하고 실내체육관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시사철 합숙, 선수 육성이 가능한 토양을 만든 덕분이다. 학교체육, 대학과 지역 및 실업팀 창단으로 연계해야 한다. ‘아무리 옥토(沃土)라도 농사를 잘 못 짓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박토(薄土)라도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있듯이’ 전남체육의 땅은 좋은데,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이치다.

민선 시대로 접어든 전남체육회는 이제 좀 더 자유스러워야 한다. 자유스러운 운동 환경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선발되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체육회장 자리도 정치에 좌우되지 않고,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체육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전남체육은 자꾸만 뒷걸음질 했지만, 이제 민선 체육회장을 중심으로 균형감 있게 체계화하고 성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태권도는 이제 평준화가 됐다, 그런데 타 지역은 삼성에스원, 한국도로공사, 한 국가스공사처럼 시·도, 구청 단위까지도 결성돼 있지만, 전남에 태권도 실업팀

을 만들지 못한 것이 한으로 남는다. 어떡하든 실업 팀을 양성하고 대학들이 나눠 1~2개 팀이라도 육성해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다. 나는 태권도로 국가대표 선수도 만들어 보고, 타 지역에서 우승도 해봤지만, 실업팀을 만들어 선수들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 못한 점은 무척 아쉽다. 전남 태권도는 전국 어디에 가든 5위 이내 성적을 유지해 왔다. 학교체육이 살아야, 일반체육이 사는 것은 진리다. 비인기 종목 육성에 대학들이 반드시 참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남체육을 되돌아 보는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 전남체육 분야에서 크고 작은 공을 남긴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할만한 공간, 체육유공자 동상이나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기념공간이 전남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후배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보고 느껴 좋은 선수가 될 꿈을 꿀 수 있고, 교육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스페인에 있는 한 체육공원을 갔더니 마라톤의 황영조를 기념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전설의 박치기 왕, 김일 선수를 기념하는 공간이 고흥에 마련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최소한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 놔야 하지 않을까?

나는 세계태권도대회 단장 네 차례, 태권도 시범단 10회, 여권 4권을 모두 소진할 정도로 5대양 6대주를 쫓아다니며 태권도를 보급하고 후배들을 양성하는데 한평생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10년과 대한체육회 선수관리위원 및 자문위원, 국기원 부원장, 세한대학교 태권도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면서 전남은 물론 대한민국 체육과 세계 태권도 발전을 위해 후배들과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

“술한 노력 불구, 배구 등 전남 실업팀 창단 성사 안 돼 아쉬움 시·도 분리 전후 조선대·목포대 전남체육 중심지 육성 보람”

5. 김석주 전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



1950년대 후반부터 핸드볼과 배구 선수를 했던 나는 1960년대 초, 광주 숭일고에서 4년여 동안 체육교사를 했다. 나머지 40년 동안 전반 20년은 조선대, 후반 20년은 목포대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교직생활을 하는 기간과 전남체육회와 경기단체 임원 경력이 거의 비슷할 정도다. 2003년 정년 무렵, 후진 양성을 위해 부회장직을 그만 두기까지 40여 년 동안 전남체육과 함께 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태동할 무렵, 일본 지자체는 우리보다 먼저 정리됐으니 체육 분야도 일본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으로 5

박6일 일정으로 일본 지방체육 변화를 시찰한 적이 있다. 그때 서정복 위원장과, 순천대 장 교수, 내가 함께 인구 5만 정도의 일본 시즈오카현 가계가와시를 방문했다. 가계가와시는 신칸센이 정차하지 않을 만큼 작은 도시였다. 그 작은 도시에서 전(全)일본 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는 것이다. 가계가와 90% 이상의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해 그 대회를 유치해 치르고 있었다. 그 도시 시장이 이끄는 응집력과 행정, 5박6일 동안 ‘일본 지자체 체육’ 현장을 보게 된 것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전남체육회 임원과 체육과 교수로서 대학체육에 간여하면서 느낀 것은 전남에 예나 지금이나 실업팀이 없다는 점이다. 허경만 지사 시절 임 완 처장, 행정부지사와 함께 금호아시아나에서 축구, 배구 같은 단체 종목을 하면 더욱 좋았겠지만 탁구와 같은 개인종목이라도 실업팀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수없이 노력했다, 그러나 끝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도 호남정유가 유일하게 여자실업배구팀을 결성한 뒤 80~90년대 여자배구로 전국을 석권했다. 전국체전에 나가면 호남정유 여자배구가 승승장구했다. 준우승도 아닌 10여년 이상 우승을 독차지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자배구는 호남비료(LG화학 전신)가 충주비료와 쌍벽을 이루며 유일하게 전남 남자배구 실업팀 구실을 했다. 그러나 호남비료 남자배구팀은 오래 가지 못했다.

광주·전남 분리 전 대학체육의 중추적 역할을 조선대와 전남대가 맡았다. 조선대는 전국체전 출전 종목이 15개 이상이었고, 전남대는 5~6개 종목에 달했다.

1981년 2월 내가 조선대에서 목포대로 옮긴 후 1980년 초창기부터 목포대에 배구, 농구, 검도, 씨름, 카누, 육상 운동부를 꾸준히 창설, 육성시켰다. 따라서 광주·전남 분리 이후부터 전남에 순천대, 초당대, 대불대, 목포해양대, 광양 한려대, 동신대가 있었지만, 광주·전남 분리 이후부터 전남 대학체육은 목포대가 중심이 됐다.

전남지역 대학들의 현실에서 보면 대학체육의 앞날은 더욱 어둡다.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혈안이 되고 발버둥 치는 마당에 대학체육이 어떻게 활성화 되겠느냐는 자괴감이 든다. 일부 대학들은 신입생 확보 수단으로 운동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양 한려대는 야구, 축구, 볼링, 하키, 탁구 등 5개 종목의 체육학과가 개설돼 있다. 초당대는 농구가 있고, 동신대도 1~2개 종목이 있는 걸로 안다. 1990년대 초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호남대 4개 대학들이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전국 국립대학 체육대회도 지금까지 존속했다면 대한체육회에서 특별 지원 등이 뒤따라 대학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편견으로 이 대회 자체를 없앴 것은 대학체육 발전의 큰 저해 요소였다.

목포과학대 산하 목포여상 배구는 오래된 팀이다. 여자 국가대표도 꽤 배출됐다. 몇 년 전 목포과학대 여자배구팀이 창설됐다. 전남에서 고등부 배구 가운데 여자는 목포여상. 남자는 순천 제일고와 벌교상고 두 개 팀이 있다. 남자대학배구는 목포대, 여자대학배구는 목포과학대가 존재하고 있다.

복싱과 무관한 내가 목포대로 옮긴 뒤 복싱 담당 교수를 맡았다, 복싱의 문성길 선수는 목포대 출신으로 전국적인 스타가 됐다. LA올림픽 동메달 리스트 복싱의 전철성도 목포대 출신이다. 한때 목포대 복싱이 전국체전 5~6체급에 출전할 정도로 목포대 복싱이 꽤 유명했다. 10여 년 동안 투포환 국가대표를 했던 육상의 김영철 교사와 카누 국가대표선수도 목포대 출신이다.

특수학교인 체육고는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우수선수를 길러낼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전남지역 대학들이 고등학교 졸업 선수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존폐 여부가 달려 있는 마당에 4년간 장학금 지급 및 숙식 해결, 각종 대회 출전 기회 부여 등 특별지원 등을 제시하면서 우수선수들을 전남에 붙잡아 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우수 선수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남지역 대학들이 운동부 육성과 선수 확보를 위한 방법들을 현실화해야 한다. 규모는 작지만 각 대학들이 1~2개 팀을 만들어 학비, 장학금까지는 대학이 책임지기로 하고, 훈련, 출전, 선수 생활과 재정 문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전남도나 전남도체육회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40년 이상 전남체육회 경기단체 상무이사,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돌이켜 볼 때 전남체육이 전국체전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것은 광주·전남 분리 전 김종호 전남지사 때였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다른 지사에 비해 파격적 지원을 하는 점에서 달랐다, 광주공원 내 실내체육관도 김종호 지사 때 만들었는데 전국농구대회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하기가 쉬웠다. 선수들에 대한 특별훈련비 지원, 중학생이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훌륭한 선수들이



타 시·도로 빠져 나가지 못 하도록 장학금도 많이 지급했다. 각 학교의 지도자 처우개선 문제도 다른 지사에 비해 김종호 지사는 달랐다. 그 결과 몇 년 동안 전남체육이 2~3위를 포함 5위권 내 성적을 유지했다 그 이유는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 두 가지를 김종호 지사가 뒷받침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앞으로도 전남체육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크게 사람과 돈을 해결하면 된다.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지도자도 확보해야 한다. 서울 등 수도권 우수지도자를 특별 초청, 선수를 길러내야 맞다. 중고등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위 입상학교 지도자들에게도 파격적인 승진과 처우 개선, 우수 성적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영전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선수 훈련비를 특별 지원, 뒷받침하는 것도 필요한데 전남체육이 풀어야 할 과제다.

소년체전 후 체육인들을 위한 ‘동남아 15일 여행계획’을 보고 드렸더니, 김종호 지사는 그렇게 짧아서는 안 된다고 유럽 5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해 24박 26일 세계여행을 허락, 체육인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던 기억도 난다.

임 완 처장과 나는 목포대 고성완 교수와 광양 서정복 부회장 등 두 사람을 서부와 동부로 나눠 상징적인 부회장 투톱 체제를 갖춘 뒤 전남체육회를 물러났다. 그 후에도 가끔 자문, 고문 역할로 참여하고 있고 전국대학배구연맹 자문위원은 유일하게 지금도 관여하고 있다. 정년 후 목포대는 배구 전공자가 없어 후배 교수들이 맡아 지도했다. 특히, 검도 국가대표 출신으로 세계선수권대회 메달리스트 전호문 교수는 목포대 체육과 졸업생 가운데 유일무이한 외국 박사. 전 교수는 미국 현지에서 스포츠 마케팅 석·박사 과정을 거쳐 입국한 뒤 전국 스포츠경영,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는 특 레벨에 올라 수도권 등지에서도 명성이 높다. 전남으로 전국체전 유치 작업 등을 벌일 때 전호문 교수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남체육에 일조하고 있다.

전남체육회에도 선수 기량을 분석하는 전문팀이 있어야 한다. 전국체전을 대비하거나 패데레이션 별로, 전남체육회 직원과 지도자들이 충분히 기술을 분석한 자료로 우리팀 기량과 상대팀 수준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분석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나는 60년대 초부터 2003년 정년 때 까지 체육회 이사를 비롯 상임 부회장, 배구·핸드볼협회 등 체육회에도 관여했다. 열정이 있는 전무이사들이 있는 경기단체들은 선수 성적이 오른 반면, 그렇지 못한 단체는 성적이 낮아지면서도 대체로 돈타령을 많이 하는 편이다. 지금부터라도 회장도 내고 외부 기업의 협찬도 받아내고 중앙교류, 선수 수급 계획 등을 세워나가야 한다.

2020년부터 민선 회장이 출범했다. 그러나 민선 체육회도 당분간 시·도에서 예산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다. 대한체육회 시도 회장단에서 당선된 회장이 1년에 2~3억 씩 체육회에 내도록 하는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체육회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민선 체육회가 재정적 독립을 달성, 획기적인 변신을 꾀해야 한다고 본다.

“목포복싱연맹 회장 시절 전남복싱 위상 높여 긍지, 전남체고 설립 보람
골프장 건설 붐 활용 체육기금 못 만들어 아쉬움…
25년 의정활동 전남체육 발전 기여”

6. 이완식 전 전라남도체육회 부회장 · 고문



1986년 5월 14일 전남농구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농구협회장에 취임하던 1986년 한 해는 유난히도 바빴던 해로 기억된다. 그 해 목포상고 농구부가 창단됐고, 내가 후원회장을 자처했다. 이어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서울과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제10회 아시안게임이 분산 개최됐다. 그 해 11월 1일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가 행정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체육회와 전라남도체육회가 각각 따로 독립됐다. 전라남도체육회 출범과 함께 나는 이사로 임명돼 전남체육회와의 인연을 시작했다. 한참 후에 알게 됐지만

전라남도 이사를 겸직하는 것이 당시 체육회 규정 위반이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후 전남체육회 부회장과 고문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내가 전라남도농구협회 회장을 맡기 전 목포시아마추어복싱연맹 회장을 맡았을 때 목포 복싱은 목포대학교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특히, 목포 복싱은 제24회 전라남도 도민체전에서 전 체급을 석권하며 천하무적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목포 복싱의 실력은 전남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제65회와 제66회 전국체전에서 연거푸 압도적인 성적을 낸 데 이어 제9회 인도 뉴델리 아시안게임, 제10회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목포대의 문성길과 권현규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다. 이후 88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성길 선수는 프로복싱 WBA세계챔피언으로 등극할 정도로 성장, 우리 전남 복싱의 큰 긍지이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러운 전남의 아들로 자리매김했다.

전라남도농구협회 회장을 맡는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첫째, 무엇보다 선수층이 매우 얇은데다 선수를 육성하려는 학교와 기업이 거의 없어 불모지나 다름없는 선수 수급의 문제가 가장 힘든 대목이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여전하지만, 당시에다 수도권에 대한 인구집중 현상은 과열된 반면, 지방 인구는 갈수록 줄어 체육특기생이나 체육 지망생 감소에 따른 선수들의 저변 확대는 절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전남보다 경제 상황이나 재정자립도가 더 나은 도시



들이 어렵게 키워 놓은 전남 선수들을 스카우트 가는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전남의 경제적, 제도적 한계가 너무나 안타까웠다.

둘째, “뛰어난 선수와 우수한 성적 뒤에는 역시 돈이 있다”는 것은 체육인 누구나 동감하는 사실이다. 전남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다 할 대기업이 거의 없는 낙후된 산업구조에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던 나는 경제적 부담과 한계 때문에 늘 선수와 임원들에게 미안함이 앞섰다.

실제로 목포상고 농구부 창단 직후 백보드가 나무로 된 농구대를 아크릴 농구대로 어렵사리 바꿔주자 보란 듯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급성장하는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내 스스로 큰 용기를 얻게 됐을 뿐만 아니라 작은 지원에 대한 큰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나도 전라남도 의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시 73명의 전라남도의원 가운데 체육인 출신이거나 체육단체 경험 등 체육과 관련된 의원은 거의 없었다. 물론 나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와 전라남도 집행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전라남도체육회의 예산 확보 문제와 각종 현안 사업 등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나름대로 전남체육 발전과 진흥을 위한 토대를 닦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당시 전남체육회 가장 큰 현안은 전남체육고등학교 설립 문제였다. 1986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분리되면서 광주체육고등학교는 광주에 존치한 반면, 전남체육고등학교는 없었다. 전남체육고가 없으니 학교체육 선수 육성과 수급, 저변 확대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었다. 전남체고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인식한 나는 전라남도 의회 본회의를 통해 전남체고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서둘러 전남체고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라남도 본청 집행부와 전라남도교육청, 체육인, 언론계 등 각계각층이 망라한 협력과 지원을 통해 마침내 무안군 일로읍에 전남체육고가 개교되기에 이르렀다.

돌이켜보면 전남체육회와 인연을 맺는 동안 여러 사정과 한계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많다. 실례로 1990년대 초반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 바람이 일기 시작할 무렵, 일부 타 시·도에서는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체육발전기금 납부를 의무화한 정책 덕분에 수백억 규모의 체육기금을 조성했다고 알고 있다. 나는 이 같은 제도를 전라남도에 도입해 전남체육발전기금을 조성해보자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강조하고 호소도 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전남체육과 함께하면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일화 한 토막을 소개한다. 2003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중순. 우리 일행은 프랑스 파리를 출발해 스위스 제네바를 거쳐 작은 도시 인터라겐에 도착했다.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6시 쯤, 인터라겐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다. 제법 정갈하고 깔끔한 식당에서 우리 일행을 맞이한 사람은 필리핀 출신 15세 종업원이었다. 그런데 그 종업원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2002년 한·일월드컵 때 붉은악마와 국민들이 대한민국 전국의 경기장과 길거

리에서 목터저라 불러대던 응원가인 ‘오! 필승 코리아, 오! 오!’를 큰소리로 틀어줬다. 그 종업원은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고 손벽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우리 일행 17명도 일제히 손벽을 치며 합창을 했다. 88서울올림픽 때 코리아나가 불렀던 ‘손에 손잡고’ 주제가도 흘러나왔다. 스위스의 레스토랑에서 88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때 울려 퍼졌던 주제가와 응원가를 들었던 감동은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다. 이 같은 굵직한 국제스포츠 이벤트가 우리의 외교 역량과 국위 선양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됐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뜻깊은 기억이다.

내가 지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5년 동안 전라남도의회 의원과 의장으로 서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모두 일곱 분의 도지사가 바뀌었다. 당연직 전남도체육회장인 전남도지사들은 주변의 체육인재들과 함께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헌신했다.

전남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겠지만, 전남체육회 등에 일정 수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전남체육의 여러 단체들의 정치화, 관료화는 구시대적인 폐해이므로 이 같은 관행을 타파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체육인이 아닌 비전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인과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는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체육인들의 바람과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체육은 체육인에게, 집행부는 지원만!”이라는 근본적인 구도와 질서가 구축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민선 체육호가 출범했다. 체육계 일부에서는 체육이 너무 성급하게 정치권에 휘말리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민선체육회 출범의 가장 큰 목적은 자율성과 독립성에 있다고 하겠다. 그동안 관(官) 주도로 운영돼 오던 체육회가 명실상부한 민선(民選) 체육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내부적으로는 혁신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재정적으로도 완전하게 독립할 수 있는 구상이 구체화돼야 할 때다. 이와 함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도 영원한 숙제다. 전남도민과 지도자,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민선 전남체육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예산이 곧 좋은 성적’ 철학으로 예산 확보에 혼신 노력 나주 사이클 경기장 보수·팬싱선수 합숙소 마련 큰 보람”

7. 박재순 전 전남체육회 부회장



나는 38년 5개월간의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체육과 관련된 일은 2003년 2월 7일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받은 것이 체육회와의 인연이었다.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서 오래 전 상임부회장을 역임하신 박관주, 안주섭 두 분의 고향 선배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성취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

내가 상임부회장을 맡기 전 제주에서 개최된 제83회 전국체전에서 전남의 성적은 16개 출전 시·도 가운데 12위였다.

전남체육의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한 뒤 ‘현장에 답이 있다’는 행정 철학으로 나는 경기단체를 직접 순방하며 애로사항을 듣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어떡하든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따내기 위해 발로 뛰고, 듣고, 움직이는 3박자를 쉬지 않고 실천했다.

전남체육회에 몸담으면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보람된 일이 떠오른다. 먼저, 2002년 한·일 월드컵 잉여금 125억 원이 지원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의 호남권 축구센터(광주·전남·전북·제주) 유치 경쟁에 참여했다. 전남은 목포, 순천, 광양, 나주, 보성, 장흥, 무안 등 7개 시·군이 유치 경쟁에 나섰다. 유치위원장으로 서정복 축구협회장과 일부 대학교 체육교수들의 힘을 빌려 운영계획과 주체, 수익창출과 재원확보 방안 등 6개 항목에 대한 심사를 벌여 목포시 유치에 성공한 기억이 새롭다.

둘째, 시·도 분리이후 최고 성적을 달성한 점이다. 상임부회장을 맡기 전 전남의 성적은 12위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부임 후 제84회와 제85회 연거푸 7위를 달성했다.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성취상과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84회, 제85회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전남은 세 마리 토끼몰이에 성공했다고 자부한다. ①역대 최다 득점 제84회(38,441점)·제85회(38,829점), ②역대 최다 금메달 제84회(50개)·제85회(60개), ③역대 최다 메달수 획득 제84회(금50, 은44, 동66)·제85회(금60, 은45, 동63).

세 번째로 기억에 남는 일은 전국체전 개최지 확정이다. 제46회 전국체전 당시 무등경기장 시설 붕괴로 인명사고 후 33년 만에 전국체전 전남 개최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전국체전 유치로 전남은 그동안 낙후된 경기장을 보수·신설하면서 전남체육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었다.

전남체육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체육지도자와 선수, 직원들이 아른거린다. 열악한 시설과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선수육성을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원해 좋은 성적을 거양하신 경기단체장들. 육상연맹 강방원 회장(고인)▲사격연맹 임노덕 회장(고인)▲레슬링 유몽안 회장(고인)▲축구 서정복 회장▲태권도 조영기 회장▲펜싱 황금추, 황철희 부자 회장▲유도 김효수 회장 등이 떠오른다. 감독으로서 우수선수 발굴, 육성, 지도육성에 전념해 좋은 성적을 거양하신 싸이클(양재환 감독)▲요트(박길철 감독)▲승마(박화조 감독)▲골프(김덕태 감독)▲소프트볼(원성훈 감독)▲펜싱(박재현 감독)▲역도 김용철 감독과 함께 하키의 담양공고 김철 감독은 갑상선 암 수술 받고도 현지에서 지도력을 발휘한 끝에 동메달을 획득한 자랑스러운 지도자였다. 선수로서 기량을 발휘해 좋은 성적을 거둔 골프 신지에 선수와 싸이클 류진아 4관왕(전남미용고), 김수현 3관왕(전남미용고), 역도 정재훈 3관왕(완도 수고) 선수가 기억난다. 제85회 전국체전에 형제, 남매, 부부, 부자간으로 출전한 핸드볼 김가나·김온아(백제고)자매, 큰 성과를 거둔 핸드볼 용민호(무안고)·용세라(백제고) 자매, 소프트볼 이은미·이은영(순천 강남여고) 쌍둥이 자매, 배드민턴 정태극(화순고), 정나라(화순고) 자매, 박현(화순실고), 박소리(화순고) 자매, 육상의 형제형과 강순덕 부부는 남자마라톤과 여자 5,000m, 10,000m에 출전,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전남체육의 진흥과 제84, 제85회 전국체전에서 시·도 분리 이후 2년 연속 7위라는 최고성적을 거두었다. 이 성적 뒤에는 불철주야 노력한 숨은 공로자들이 많다. 전남체육회 실무책임 쌍두마차인 김남기 총무과장과 김상민 운영과장, 전남도 교육청의 이현천 장학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특히, 출전 종목별 경기력을 예리하게 분석했던 김상민 운영과장이 돋보였다.

상임부회장 시절 나는 예산 확보 또는 재정 문제에 특히 공을 들였던 기억이 많다. 실제로,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광양제철 협력업체와 선수 취업(계약)을 유도했다. 체육회장인 허경만 도지사에게 건의를 드려 광양제철 현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광양제철 협력업체들이 10명의 선수들에게 연간 3천3백만 원의 연봉(총 6억6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수영(한규철, 성민, 조성모), 육상(김영철, 문준흠), 사격(남산호), 승마(박재홍), 근대5종(고장희), 싸이클(서석규), 복싱(권광호) 종목의 선수 기량이 몰라보게 상승, 제84회, 제85회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협력업체 노조 반발로 오래가지는 못했다.

또 하나, 새로 도금고로 지정된 광주은행과 농협으로부터 협찬받은 지역개발기금 중 일부를 전남체육회로 지원받기 위해 당시 체육회장인 박태영 도지사를 독대했다.



박 지사에게 전남 싸이클 경기장 보수와 펜싱선수 합숙소 마련 필요성을 보고하면서 지원해주면 전국체전에서 반드시 좋은 성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전남도로부터 10억의 특별지원을 받아 나주에 있는 싸이클 경기장을 전면 보수했다. 펜싱선수들을 위한 합숙소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만년 2위에 머물던 싸이클은 1위(2721점 획득)로 뛰어 올랐고 펜싱은 10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아울러 전국체전 우승 지도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하는 ‘직상금(1억5천만 원)’ 제도를 마련, 지도자들의 사기를 높이는 데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003년 1월 23일부터 2006년 1월 25일까지 상임부회장 재임기간 동안 전남체육회 예산 확보에 주력, 최고 30% 가까이 증액되기도 했다

민선체육회 출범과 함께 전남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예산 확보가 곧 전국체전 좋은 성적’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만큼 재정적 지원을 통한 선수 육성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시·군) 또는 관내 기업체와 협력체계를 맺고 우수선수 취업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03년 2월 7일부터 2006년 1월 25일까지 재임 중 경기력 향상을 위한 팀 창단에 힘을 쏟았다. 이를 위해 경기단체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팀 창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전남도 본청에 체조와 근대5종, 순천대의 양궁, 보성군의 여자 역도, 대불대학과 효천고의 야구, 나주시와 강진군의 싸이클, 광양시의 볼링 팀 등을 잇달아 창단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선수의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체육 육성이 필수적이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팀 육성 고등학교장들을 초청,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해 전남체육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고 도비 지원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민선 체육회장을 중심으로 전남체육의 근본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비전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전국체전 성적은 일반체육과 학교체육의 협력과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전남도내 주요 경기장 보수와 보완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와 기업체에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학 체육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도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목포대(김석주, 배성완, 박동철 교수), 순천대(장영인 교수), 동신대(김홍식, 주동엽 교수), 청암대(최종문 교수) 등이다.

은퇴 우수 선수가 소속 팀 발전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씨름(백성욱), 골프(신재희), 수영(박태환, 성민), 사격(남산호), 싸이클(서석규), 근대5종(고장희), 승마(박재홍) 등이다.

동계체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남체육회는 스키, 컬링, 바이애슬론, 빙상 종목을 육성, 전국체전에 출전해 제84회 대회에서 9위, 제85회 10위 제86회 8위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바 있다. 이 같은 중위권 도약을 위해 동계체전에 필수적인 최신장비를 지원했다. 사기진작을 위해 강원도 양평리조트 인근에 전남선



수들이 연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마련했다. 여기다 훈련비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미지 트레이닝의 과학적 훈련법과 전담코치 도입, 대학과 전남스키협회, 도체육회의 삼위일체 지원과 선수들의 화합이 더해진다면 전남체육의 성적은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전 배구팀의 이적, 한국농어촌공사 조정 또는 야구, 한국농산물유통공사 탁구 또는 양궁 등 직장팀 창단 또는 이적을 추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8) 황재우 전 전라남도체육회 부회장 · ㈜광양기업 대표이사



나는 전문체육인이 아닌데도 전남체육사편찬 위원회에서 그동안 전남체육에 기여한 바가 크 다면서 내게 간곡하게 회고록 집필을 요청을 해 왔다. 사실, 부담스러운 요청임에는 분명하지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경제인으로서 지역과 전남체육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기꺼이 참여해왔던 전남체육과의 인연과 소회를 남기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 고심 끝에 참여하게 됐다.

내가 체육과의 인연을 맺은 것은 볼링으로부터 시작된다. 전국적으로 볼링 붐이 한창이던 1994년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기치 아래 제5대

전남볼링협회장을 맡게 된다. 당시 볼링의 이미지는 이색적인데다 세련된 실내스포츠라는 이미지로 각인돼 볼링장은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코스이자 모임의 장소로 늘 문전성시를 이룰 때였다. 나는 전남볼링협회장 취임 후 볼링이 실내스포츠로서 접근성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강조, 보다 많은 동호인을 참여시키고 양성하거나 지역볼링대회를 신설, 볼링 인구의 저변 확대와 경기단체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기대가 컸다. 이 같은 볼링에 대한 애정과 함께 ‘지고는 못 사는’ 내 성격상 전남볼링협회장 취임 즉시 전국체전 목표 순위를 높여 잡았다. 실제로 1993년 제74회 전국체전에서 볼링은 5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나와 협회에는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장직포상제’라는 파격적인 보상제도를 도입, 실행했다. 그 결과 1994년 제75회 전국체전에서 매년 하위권에 맴돌던 전남 볼링이 2위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치솟았다. 전국 2위 달성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흥분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후 2008년 곡성여자볼링팀 창단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돈 문제였다.

곡성여자볼링팀 창단 관계자들은 “전남체육회 예산 형편상 대회 출전비 또는 협회비 등 팀을 운영할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먼저 후원을 해주면 다음에 돌려주겠다”면서 운영비 지원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이에 나는 기꺼이 창단비와 격려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즉시 후원했지만, 전액을 돌려받지는 못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전남볼링과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보람 줌으로 여기면서 잊어버린 지 오래됐다.

볼링에 이어 이번엔 축구 이야기다. 1994년 어느 날 서정복 광양시의회 의장이 찾아왔다. 서 의장은 “전남지역을 연고로 축구단 창단을 추진 중인데 큰 일 났다”는 것이다. 전남 27개 시·군에서 2억 원씩 출자하되 부족분은 포스코가 부담, 총 300억 원의 자본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지자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구단에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 때문에 전남 27개 시·군의 출자 자체가 불가능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당시 광양축구전용구장은 국내에서 포항에 이어 두 번째 축구전용구장이었지만 광양시에 프로축구팀이 없어 반쪽짜리 구장이라 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나는 지역사회에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조선훈화와 내가 대표로 있는 광양기업 등 포스코 연관 협력사뿐 아니라와 개인투자자까지 끌어들이 십시일반 창단 자금을 조성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

우여곡절 끝에 1995년 ‘전남드래곤즈’가 창단되게 이르렀다.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홈 경기가 벌어지는 날이면 인근 포스코 직원들은 물론 광양읍, 순천, 여수, 경남 서부권 시민들까지 경기장으로 몰려들어 주변 일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 체육 인프라 하나가 이 같은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다. 전남드래곤즈는 광양기업이 단체응원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연속 FA컵을 차지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광양기업은 단체관람과 응원은 물론 후원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고향 후배인 서정복 사무처장의 요청으로 2011년부터 전남체육회 부회장을 맡아 함께 일하게 됐다. 전남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국체전 순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3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감소와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 전남체육 순위는 시간이 갈수록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나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기업인이라는 생각으로 전남체육 인재육성을 위해 기금을 기탁하기로 결심한 뒤 2011년 2천만 원을 기탁했다. 이후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전남도선수단 성적은 종합 13위까지 추락했다. 이렇게 되자 선수단의 사기가 저하돼 또다시 1천만 원을 추가로 기탁했다. 선수들의 사기를 만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한편, 2012년까지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전남이 3년 연속 종합 4위를 차지한 것은 그동안의 인프라 확충 노력과 각종 지원에 힘입어 전남의 체육 꿈나무들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일선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골프협회와 체육회 고문을 맡아 성적 향상과 후배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오는 2023년은 전국체육대회를 전남에서 개최되는 해가 된다.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가 뒷받침돼 체육인재와 꿈나무들을 키워야 하는데 자꾸만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가속화돼 무척 아쉽다. 이런 아쉬움은 수 차례 고사 끝에 고향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심정으로 내가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우리 전남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뿐 아니라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 구성원들이 합심하기를 바라고 응원한다. 나 역시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봉사도 다 할 생각이다.

“광주·전남분리 후 첫 전국체전 개최·새 전남체육회관 건립 큰 보람” “20억 원 육박 장학금 조성·전남 22개 시·군 사무국장 유급화 뿌듯”

9. 서정복 전 전라남도체육회 부회장 · 전남체육사 편찬위원장



지방의원, 민간기업 대표, 축구 등 체육단체 행정에 이르기까지 나의 왕성한 사회활동의 근간은 언제나 ‘체육’으로부터 비롯됐고, ‘체육’은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이자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체육분야와의 인연은 1980년대 전남체육회 이사로 선임된 이후부터 시작된다. 1994년 12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전남드래곤즈 프로축구단을 창단한 뒤 초대단장을 포함 두 차례의 단장과 부사장으로 활동했다. 1995년 1월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로 한국프로축구 발전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계

기가 됐으며, 우리지역 축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2001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6년 동안 전남 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재임 당시 축구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광양시,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지역을 “축구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던 기억과 조성된 축구 인프라를 관광 상품으로 연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땀과 정열을 쏟았다. 이런 열정을 인정받아 2009년 1월부터 7년 동안 대한축구협회 감사와 2015년부터 4년 동안 대한축구협회 이사로 활동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출연금을 통해 아마추어 축구 발전에 기여했고 전국 규모 축구 대회들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한국축구와 지역체육 발전은 물론 소외되기 쉬운 지역체육인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지난 40여 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열과 성을 다했다고 나름 자부한다.

여러 체육단체의 행정에 간여할 기회도 많았다. 2005년 1월부터 9년여 동안 전남체육회 부회장, 2008년부터 4년여 동안 전남체육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2012년 이후 3년 동안 전라남도 체육특별보좌관, 2017년부터 전남체육회 고문,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위원회 위원장으로 여전히 전남과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

광양제철 협력업체인 (주)성광기업 대표이사에 이어 전남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 제 8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 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아직도 남다른 기억으로 떠오르는 한다.

이 대회는 광주·전남 분리 이후 31년 만에 전남에서 처음 열린 역사적 의미는 물론 종합 3위라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뜻깊은 대회로 기록됐다. 개최지임에도 단 한 점의 가점도 요구하지 않은 전국 대회중 가장 모범적인 대회로 인정돼 「대회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체육인들과 함께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보람있는 대회이기도 했다.

또한 전남의 체육진흥과 미래는 우수 인재 육성에 있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2008년부터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을 설치하여 내가 4회에 걸쳐 2천 100만 원을 쾌척하는 등 솔선 참여 하면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한 결과 우리도 출신 축구 국가대표 기성용, 김영광선수,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 선수가 1천만원씩을 쾌척하는 등 많은 체육인과 도민, 도내 자치단체 등이 참여 사무처장 퇴임시 까지 13억원이라는 큰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사무처장 퇴임후에도 전남 축구인들이 정성을 모아 1천 600만원을, 태권도 협회 2천만원, 여수·광양시 각 2천만원과 기타 시군에서 각 1천만원씩을, 광양기업 황재우 사장님 2천만원, 한상원 회장님 1천만원, 전남교육청 1억원, 박준영지사가 사비로 350만원 등 많은 분들의 참여로 추가 조성해 20억원 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같이 많은 장학금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남체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를 위한 간절한 열정과 도민·체육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박준영 전남도지사에게 전남체육회관 건립 필요성을 수차 건의해 무안군 남악 현위치에 130억원 규모의 멋진 전남체육회관을 신축한 것도 큰 보람으로 기억된다. 이 기회를 빌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박준영 지사님과행정적지원 등 많은 도움을 준 당시 전남도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전남체육회관에는 4억 원의 첨단장비를 보유한 스포츠과학센터를 타 시·도보다 훨씬 앞서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남체육의 스포츠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시·군체육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역할 확대와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 및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유급화를 전남 22개 전시·군으로 확대, 시·군체육회 관계자들의 사기를 북돋은 일도 뿌듯한 대목이다.

2016년부터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각종 스포츠클럽 공모사업이 전남으로 유치되도록 적극 뒷받침 한 결과, 2개에 불과하던 공공스포츠 클럽을 16개로 크게 늘려 도약의 틀을 마련한 기억도 새롭다.

전남에 갖춰진 체육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하계 전지훈련팀과 전국 규모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스포츠가 생산적 산업이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하는데



도 일조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과학연구원에 버금가는 전남체육진흥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재활, 생리, 역학, 영양학, 심리학, 마케팅, 미디어 등 7개 분야의 스포츠 과학화와 체계화된 선수육성 체계를 구축하는데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체육인들의 유대강화와 자질함양을 위해 소양교육과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해 전문지식 습득은 물론 매너 교양 등 체육인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전남체육 소식지 발간과 함께 전남체육 65년사 편찬과 전남체육회관 내에 전남체육인들의 활동상을 담은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자료들 수집에도 관심을 가져 현재

212여점의 자료들을 역사관에 전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료들이 모아질 것으로 믿고 있다.

나 스스로는 상복(賞福)을 타고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과분하게도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상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 그런데 수상 내역 가운데 유독 '체육분야'와 관련된 상이 많은 것은 살아온 삶의 대부분이 '체육분야'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1992년 체육청소년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후 1996년 제1호 「광양시민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2007년 이후 세 차례의 전라남도 도지사상을, 그 외에도 국무총리상, 대통령 표창, 대한체육회장상, 전라남도교육감상, 체육 부문 「자랑스런 전남도민의 상」, 대한민국체육상, 전라남도 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2013년 제51회 대한민국체육상 공로상 수상은 전남인 중에 최초이자 대통령 훈격의 대한민국 체육의 최고 권위와 가치를 지닌 상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영예는 물론 전남체육인의 자존심이자 자긍심이 아닐 수 없다. 다방면에 걸친 봉사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전수받은 영광도 전남체육인들과 제 주변의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난 1991년 4월부터 광양시의회 초대의장을 시작으로 1998년 7월까지 지방의회 최초로 3회 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였으며, 지금도 광양시 의정동우회장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에도 작은 힘을 보태고 있다.

‘체육인은 그라운드에서 사라질 때 은퇴한다’는 평소 철학에 따라 전남 체육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꾸준히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의 여생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오직 체육발전에 헌신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40여년간 전남체육은 물론 ‘한국체육의 산증인’이라는 선·후배들의 과분한 평가가 부끄럽지 않도록 전남체육 발전, 체육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 미약하나마 힘을 보탬 생각이다.

체육과 함께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체육인들과 더 오랫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하고자 그라운드를 쉽게 떠나지 못할 것 같다.

“청춘을 바쳐 35년 전남요트협회장 및 전국체전 17승 대기록, 인생이 큰 보람, 전남은 해양레저스포츠 적지, 요트를 전남 특화종목으로 육성해야”

10. 정채호 전 전남요트협회 회장



나는 1982년 처음으로 전남요트협회를 창설한 뒤 1983년 등록을 마치고 본격 활동을 펼쳤다. 이후 35년 동안 쉬지 않고 전남요트협회 회장직을 맡아 요트 보급과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주력했다. 전남요트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전남체육회 이사와 감사라는 직책을 수행하며 전남 체육과 인연을 이어갔다. 요즘에도 사단법인 한국범선협회 회장으로서 ‘동방경제포럼’ 한·러 공동 경축 행사와 ‘국제범선대회’ 등 요트와 관련된 굵직한 국내·외 대회들을 주관하고 있다.

오랜 세월 전남요트협회를 이끌다 보니 선수 육성과 범선 축제 개최 등 요트와 함께 살게 됐고, 배를 타는 선장이 돼버렸다. 국내 유일의 범선 요트 ‘코리아나(KOREANA)’를 직접 타고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요트 관련 국제행사에 행사 본부장으로 참가하는 등 ‘요트는 곧 나의 인생’ 그 자체다.

요트와의 인연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여수시와 일본 가라쓰시 간 자매결연 행사의 일환으로 두 도시가 한·일 요트 교류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 때 나는 18명으로 구성된 교류 사업단의 단장을 맡게 되면서 요트의 매력에 빠졌다. 당시 강사로 재직 중이던 여수대 경영학과 제자들과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선발, 인솔하여 일본 가라쓰시로 전지훈련을 가게 됐다. 요트는 본인이 유학시절 조금 배운 경험이 있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요트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이 때 본인은 전지훈련 팀에 합류한 학생들이 요트선수로 대성할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귀국 후 나는 거액의 사재를 들여 우선 덩키 요트(dinghy yacht) 50여 척을 구입했다. 덩키 요트는 엔진과 선실을 갖추지 않은 1~3인용의 소형 세일 요트(sail yacht)로 엔진 없이 작은 돛과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여 연안이나 강, 호수 등지에서 레포츠용으로 사용하는 요트다. 이어 여수 만성리에 합숙소를 마련해 본격 전지훈련에 돌입하는 등 요트선수 육성을 위해 모든 에너지와 젊음을 바쳐 매진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1983년 2월 전남요트협회를 창립한데 이어 최연소 전남요트협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이다.

전남요트협회가 창립된 지 2개월 후 1983년 4월 당시 김선규 여수 시장님의 요청으로 오동도 해상에서 전남도민체육대회의 요트 시범경기를 펼쳐보였다. 시범경기를 관람하신 당시 김창식 전남도지사님도 매우 흡족해하셨던 기억이 또렷하다.

이처럼 한 개인의 큰 희생과 노력으로 전남요트는 날이 갈수록 진가를 발휘하며 승승장구했다. 마침내 1985년부터 전국체전 17승에 빛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남도과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체육 관련 포상과 공로패를 매년 받다시피 했다. 수차례 전남도지사 표창은 물론 ‘전남 도민이 주는 상’, 성옥문화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남체육회장인 전남도지사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출전 결단식을 위해 산하 종목별 협회장 모임 때마다 다른 협회장들이 들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전남요트협회 정채호 회장님! 올해 전국체전에서 요트는 몇 위가 목표입니까?”라고 물으신다. 그 때마다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요트 종목 종합우승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즉시 답변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 때마다 매우 흡족해 하시며 격려해주시던 역대 전남 도지사님들의 모습이 생생하다. 특히 전석홍 지사님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사기가 높아지고 힘이 솟구쳐 더욱 분발했던 일들이 가슴 속 깊이 남아있다. 늘 인자하신 박관주 상임 부회장의 따뜻한 애정과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 사명감을 갖고 요트선수 육성에 더욱 열정을 쏟았던 것 같다.

전남요트협회를 맡은 동안 전남요트협회는 전국체전에서 17년 종합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과 함께 각종 국내·외 대회를 휩쓸었다. 역대 전국체전에서는 17차례의 종합우승을 비롯하여 준우승 4회, 3위 3회를 기록하는 등 최하 성적이 우승권이었다. 역대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요트대회 성적도 16차례의 종합우승을 비롯 준우승 5회, 3위 6회 등 최하 성적이 우승권이었다. 역대 각종 국제대회에서 탄 메달 수도 21개의 금메달을 비롯 은메달 12개, 동메달 10개로 모두 43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전남 요트는 ‘메달 밭’이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지난 35년 동안 본인이 전남요트협회 회장 시절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에서 전남선수들이 획득한 메달과 상패, 트로피는 픽업트럭으로 하나는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처럼 전남 요트는 전남과 대한민국을 알리고 국위를 선양을 하는 국가대표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지금도 나와 인연을 맺은 요트선수 출신들이 전국 곳곳에서 요트 코치나 감독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대견스럽고 흐뭇한지 모른다. 전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 요트 종목 지도자들은 전남요트협회 선수 출신들이 대부분이어서 더욱 자랑스럽다.

광주·전남 시·도 분리 전 전남은 전국체전에서 만년 종합 2위를 유지했다. 타 시·도 인구와 경제력 등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체육의 진정한 1등 지역은 사실상 전남도라고 생각한다.

전남요트는 ‘요트 국가대표의 산실’이자 ‘요트 국가대표 선수 생산공장’이고 전남 요트협회 회장은 ‘공장장’이라는 별칭도 갖게 될 정도였다. 지금도 요트하면 전남 이고, 전국 시·도에 널리 전남 출신 선수와 지도자들이 전남요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대표 요트선수로 성장하게 되면, 경제 규모나 도세가 약한 전남에서 타 지역으로 스카우트 돼 전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매우 안타깝다.



▲ 2018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동방경제포럼』경축행사로 여수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돛만 달고 항해 레이스를 펼치는 국제범선대회 시상식에 참석, 우승 트로피를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왼쪽부터 본인, 이낙연 국무총리, 아베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여수반도는 천혜의 해양 자연조건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 가능한 해양 관광의 보고(寶庫)이다. 온화한 날씨와 리아스식 해안이 발달한 전라남도에는 요트마리나 조성과 연중 해양활동이 가능한 해양레저스포츠 산업의 적지다. 이러한 천혜의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다른 스포츠 종목을 우선하여 요트를 특화 종목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있는 전남은 올림픽 경기 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에서 치러지는 요트를 전남의 특화 종목으로 키워, 세계적인 요트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선수, 시설, 제도 및 지원 등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호남을 거점으로 범선을 타고 나라를 지켰던 이순신장군, 장보고장군의 후예로서 선조들의 기백과 기량을 이어 받은 요트선수들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주름잡는 인재들로 육성해야 한다.

요트를 전남의 특화된 스포츠 종목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전남체육 종목 가운데 마리나 경관 조성하고 해양스포츠에 최적화된 입지 조건에 맞는 요트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전남 관광활성화, 인구 유입, 소득 증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바다는 인생의 선생님이자 전남이 나아갈 미래이다. 전남요트의 옛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



▲ 사단법인 한국범선협회장으로서 2018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세계범선대회 시상식에 참석,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

나는 지금도 현역으로 요트에 몸을 싣고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요트 관련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단위 요트행사에서 사회자가 본인을 ‘살아있는 전설 한국 요트의 대부! 전남요트협회장’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석자들이 대부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 내 자신 힘이 닿는 날까지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관광 레저스포츠의 리더이자 선봉장으로서 본분을 다하고자 한다. 전남 체육인으로서 젊음을 바쳐 요트 종목 육성에 매진해 온 지난 일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다. 죽는 날까지 전남 해양관광 레저스포츠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한다.

“중목별연합회 45개로 증가, 참여율 전국 1위
‘전남이 생활체육 메카’ 입증, 86만 생활체육 동호인 위해 동분서주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 영광”

11. 이탁우 전 전라남도생활체육회 회장



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전라남도생활체육회는 지난 1990년 8월 모두 28개 중목별 연합회와 전남 22개 시·군생활체육회가 결성된 뒤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200만 전라남도 도민과 86만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이 함께하는 체육 단체로 성장했다.

전라남도생활체육회는 시·군생활체육회 및 전라남도중목별연합회 관리·지원은 물론 각종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개최와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여기다 생활체육교실의 운영과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과

생활체육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도와주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확보하고 관리하면서 선진국형 국민 생활스포츠 확산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별교청년회의소 회장과 보성군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한 뒤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경험을 살려 제8대, 제9대 전라남도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재임했던 8년 동안 전남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 뛰었다고 자부한다.

나는 86만 전남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2006년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와 전국 최우수 회원단체 선정 등 선배님들이 다져 놓은 내실을 바탕으로 동호인들의 권익 신장과 전남 생활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회장 재임 중 전남경찰청과 MOU를 맺고 노인 교통법규, 길 건너기, 교통사고 같은 교육을 하거나 전남도교육청과 학생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던 기억이다. 전남도민의 보다 나은 건강을 위해서는 전문 체육지도자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특별히 노력을 경주했다. 당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국비와 지방비 50대 50 매칭 사업이긴 했지만, 가급적 많은 생활체육지도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활용했다. 실제로, 국민생활체육회 이강두



회장이 전남을 방문했을 때 VIP급 최고의 예우를 해서 영접하고 돌아갈 때 여수산 멸치를 한 트럭 실어 보냈다. 그 후 20명 내외 정도 배치되던 전문 지도자가 45명으로 대거 늘어난 기억도 있다. 지역적·정책적 배려 촉구와 함께 중앙 의사결정권자들을 정중히 예우하는 등의 정무적인 활동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많아야 어르신들을 잘 지도해 건강해지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명분이었다. 이렇게 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체육회가 국민건강 증진에 공헌하고 있다며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사실, 전라남도생활체육회가 짧은 기간 안에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생활체육 초창기 선배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보다 앞서 전라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박병열 회장과 현재 전라남도의회 의장인 김한중 회장은 재임 중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비롯 다양한 생활체육 사업들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최우수 회원단체상」을 2006년 수상하기도 했다.

전라남도생활체육회장으로 몸담은 동안 나는 전남지역 86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동호인 중심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자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결과, 취임 당시 29개에 머물러있던 종목별연합회가 2009년 이후 45개로 늘어난 데 이어 전남에서 잇따라 개최되는 국제대회들에 대한 홍보에도 힘을 쏟았다. 다른 도시에서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해 F1국제자동차 경주 대회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을 열정적으로 알려 입상상 1위와 ‘스포츠 7330상(賞)’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서 전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참여율 67.2%를 기록, 전국 1위로 평가받은 것은 나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라남도,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임직원, 종목별연합회 및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함께 이뤄낸 소중한 결과물이라고 생각된다. 명실공히 전남이 생활체육의 메카이자 중심지라는 점을 정부평가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전임 회장님들을 비롯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임직원들이 일궈놓은 이 같은 성장과 발전의 터전 위에 여러모로 부족한 내가 열정과 노력을 더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 참여율 전국 1위 달성이라는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지난 2018년 10월 25일 전남도민의 날 행사에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영광스럽게도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이처럼 전라남도생활체육회가 1년 365일이 모자랄 정도로 활발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생활체육이란 것이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생각과 요구에 부응하려는 태도가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남 도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기반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설립과 존립의 목적이다. 따라서 전라남도과 전라남도체육회의 행정적·재정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이유인 것이다.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들을 고도로 전문화시켜 전남도민들이 필요로 하고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연구·개발·보급함으로써 생활체육 지원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활체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모든 생활체육 종사자들에게 전남 도민들이 생활 속 체육활동을 하는데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변화를 원하는지를 즉시 파악해 응대하는 고객서비스 마인드를 도입하고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의식 전환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게 뛰다 보니 “생활체육에도 이처럼 놀라운 사람이 있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됐다. 화순군생활체육회 조준성 회장 이야기다. 당시 화순군배드민턴연합회 회장이던 조준성 회장과의 인연은 내가 전라남도생활체육회장에 당선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모든 부분에 있어 조 회장의 열정은 삶의 본보기이자, 귀감 그 자체였다. 조 회장은 화순 실내배드민턴체육관을 사비를 들여 건립해 동호인들이 사시사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 큰 결단을 보여 주었다. 조 회장은 전남생활체육대축전을 화순군으로 유치하기 위해 화순군생활체육회 임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진솔한 모습으로 나를 감동시켰다.

특히, 조 회장은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의 몸으로 파프리카와 쌀농사를 지으면서 쌀 가공공장까지 운영하는 등 인간 승리의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열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산악인 故김홍빈 대장과의 같이 조 회장도 장애를 뛰어넘는 불굴의 투지를 가진 전남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엘리트 스포츠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서도 감동과 도전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전라남도생활체육회 회장 재직 당시 행정적·재정적 물심양면으로 큰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박준영 전라남도지사와 전남도청 관계자, 종목별연합회와 전남생활체육회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

“뚝심과 사업가 기질로 27년 전남스키 발전 기여에 보람”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수상 영예...‘전남체육 진흥·공헌’ 다짐”

12. 윤보선 전남스키협회장



지난 1995년 전남스키협회장이 된 후 2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다.

전남의 동계체육대회 참가 역사는 지난 1996년 제77회 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남스키협회장으로 취임한 직후여서 더욱 뜻 깊은 대회다. 이 대회에서 전남은 금, 은메달 없이 동메달 3개를 획득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득점도 57점에 그쳤다. 이 같은 두 자리 수 득점은 2001년 제82회 대회까지 25년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2002년 제83회 대회 때 107점 득점을 시작으로 2005년 제86회 대회 192점까지 100점대 두 자리 수 득점을

유지했다. 이후 2006년 제87회 대회부터는 200점대를 돌파했다. 종목 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 있지만, 전남의 동계종목 수준 역시 나름 일취월장 성장했음을 증명해 주는 대목이다.

2006년 87회, 2007년 88회, 2012년 93회 전국체전에서 종합 7위를 차지한 후 9~10위를 넘나들었다. 전국동계체육대회 역시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시·도 체육의 자존심이 걸린 경쟁이므로 중상위권 전력(7~8위권)에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다.

열악한 여건 속에 비싼 동계스포츠 장비가 필요한 스키협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특히 열악한 시설은 물론 우수선수와 재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멋진 협회를 만들어내야 한다. 여기다 전남을 대표하는 동계종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싶은 욕심까지 더해진다면 험난함,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알토란같은 재원을 쏟아부은들 ‘한강 물에 돌 던지기’ 하듯 한계가 드러났다. 열정과 의욕이 땅에 떨어질 때도 있었다.

협회가 발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뭐니 뭐니 해도 ‘재원’이다. 넉넉한 재정이 확보돼 있어야 협회 살림살이가 원활하고, 사람들도 모여드는 법이다. 이런 면에서 저는 행운아였다. 회장인 나를 비롯한 임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사재를 털어 재원을 확충해 나갔다.

전남스키협회 재정 상황은 스스로 해결하자는 끈끈한 다짐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저 또한 스키 발전을 위한 기탁과 스키에 대한 애정을 지금 까지 이어오게 한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협회의 안정을 꾀하기는 했지만, 선수 확보는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선수가 있어야 전남을 대표하여 전국동계체육대회 등에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스키협회 임원들의 아들·딸들을 선수로 등록시켜 각종 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시키는 교육지책까지 쓰기도 했다. 전남스키협회장을 맡은 이듬해부터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문제에 대한 기발한 ‘묘책’이 없을까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묘책 가운데 하나가 동신대학교 우수선수 확보였다. 전남스키협회 임원으로 활동할 당시 동신대학교 주동엽 교수를 만나 강원도와 전라북도 고교 졸업생들을 체육장학생으로 동신대학교에 스카우트하자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스카우트된 선수들은 대학·일반부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메달을 땀고 전남선수단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큰 힘을 보탰다.

묘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전라남도체육회와의 협업을 통해 스키종목 선수들을 시·군 취업 선수로 포함시켰다. 스키종목 선수들은 시·군 대항전인 전라남도 체육대회에서는 육상 종목 등에서 활약하되,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전남을 대표하여 출전했기 때문에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시·군체육회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스키종목 선수들을 취업선수로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학교 팀 창단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스키종목 관여 교사들과의 폭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화순초등학교에 팀을 창단시켰다. 현재 전남스키협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재양 나주 다시초등학교 교장 등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전남 학교체육을 진두지휘했던 류남규, 신경수 전 교육장(전라남도교육청 전 평생교육체육과장) 등도 전남스키 발전에 있어 너무도 고마운 분들이다. 학교 팀이 창단되고 나니 교육감대회도 신설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전남스키협회장으로서 나름 전남스키 발전에 공을 들일 수 있었다. 전남스키협회 임원들의 협조와 도움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다. 동계스포츠의 불모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즌 내내 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며 쏟아낸 그분들의 열정이 스키가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확신한다.

또한 스키를 통해 영예스러운 ‘2013년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2014년 대한체육회 체육상’ 등을 수상하게 됐다. 나름대로 그동안 스키에 대한 기여를 평가받은 것 같아 스키와의 인연, 전남체육과의 인연이 스스로 매우 흐뭇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전남체육 미래 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되는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조성 초창기인 2009년에 1,000만 원, 2014년 500만 원의 사비를 쾌척했다. 이로써 2021년 상반기 기준 18억여 원이 조성될 수 있는 도화선 역할을 한 것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전라남도체육회 부회장 직함에 걸맞게 앞으로도 전남스키, 전남체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앞장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전남 체육과 관련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가장



먼저 전남스키협회 임원들이다. 27년을 동고동락하고 있으니, 이제는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 주동엽, 류남규, 김명균, 변춘섭, 정주성, 이대영, 이재양 등등....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교육청, 전남도청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행복한 기억이다. 우선 전라남도체육회에서는 이재인, 안주섭, 허길남, 박재순, 김철신 상임부회장, 임 완, 정건철, 서정복, 박내영, 전승현 사무처장, 김남기, 김상민 사무차장 등과의 기억이 새롭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문동근, 이남규, 김호중, 류남규, 김관수, 신경수, 이현천, 윤형숙 전 교육장(체육건강과장, 장학관) 등이 기억을 스쳐간다. 전남도청에서는 김경호 당시 스포츠산업과장(현 광양시 부시장)이 가장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과는 전국동계체육대회 현지에서 동고동락하며 가슴 졸였던 기억이다.

체육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 2020년부터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열렸다. 선출직을 통한 관선의 색채가 벌어지고 있다. 체육과 정치의 분리, 즉 독립적인 조직임을 내세우고 있지만, 관(官)에 재정 의존도가 높은 체육회 특성상 명실상부 독립의 정체성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선거 후유증 등이 만만치 않다고 알고 있다.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조직과 단체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2021년 6월 8일부터 법정 법인화 시대가 열렸다. 법인 시스템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

지난 2011년 3월 29일부터 전라남도체육회 집행부 임원(이사)으로 선임된 후 그동안 왕성한 활동 및 우수정책 개발 등 전남체육의 중·장기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여기다 2021년 부회장 직함을 받아들였다. 다만, 전남체육회 부회장에 앞서 전남스키협회장으로서의 막바지 열정을 쏟아붓고 싶다. 스키 발전의 열정이 곧 전남체육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협회장은 협회장대로, 임원은 임원대로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한다. 과거에는 협회장으로서 나름의 메리트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메리트들이 아예 없어졌다. 따라서 협회장은 감투와 대외 모양새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육은 순차적인 구조 시스템에 의해 움직여져야 한다. 일단 선수가 있어야 협회의 존재 가치가 있고, 협회가 있어야 전라남도체육회의 존재 및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전남스키협회도 선수 없는 스키협회의 미래는 없다.

따라서 팀 우수선수 발굴의 첩경인 학교 팀 창단에 심혈을 기울일 각오다. 스키 협회장으로서 27년을 재임한 만큼 반드시 이 임무를 완성하고자 한다. 전남체육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팀을 육성할 역량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팀 창단을 수시로 노크할 것이다. 학교 팀이 육성되면 실업팀 창단의 메리트가 뒤따르리라고 본다. 초-중-고-대-일반부로 연계되는 육성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낼 참이다. 이를 위해 스키 동호인 확대 등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아져야



한다. 스키 종목 역시 골프 종목과 마찬가지로 현대인의 삶의 활력소를 주는 대표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북 무주까지 가야 하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키 동호인 확대, 도민의 관심 증대 등에 노력할 것이다. 영·호남 스키대회 활성화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70년 전남체육의 역사를 빛낸 선·후배들이 많은데도 전남체육사의 회고록 대상 중 한 명으로 선정돼 스키 분야를 중심으로 그동안 겪은 이야기를 남길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

원로 방담 (元老 放談)

전남체육사 편찬을 계기로 한평생 전남체육과 함께 한 생존 전남체육계 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남체육의 애환과 성과, 미래 발전 방향까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체육행정, 학교체육, 생활체육 등 전남체육의 각 분야에서 한 시대를 이끌었던 원로들의 회고와 바람을 정리해 소중한 기록으로 남긴다.

”

1. 학교체육 분야

원로 방담(元老 放談) 개요

- 일 시 2021. 4. 2(금) 11 : 30
- 자 문 위 원 김석주 · 최재근 · 문동근 · 이형진 · 박종길
- 사 무 처 김재무 회장 · 사무처장(안병옥 · 조정만) · 직원(3)
- 편찬위원회 서정복 위원장 · 상임위원(이동현 · 김상민) · 김기태 집필위원



▲ 김재무 전남체육회 회장, 서정복 전남체육사 편집위원장 및 전남체육회 학교체육 분야 자문 위원들이 방담 후 단체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방담(放談) 내용

김재무 회장

원로 자문위원 어르신들을 진즉 찾아뵈어야 했는데, 늦어 죄송합니다. 전남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한 평생 헌신하신 원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남체육사 편찬을 위한 고견을 듣는 자리를 함께 하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 체육회장으로서 전남체육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전남체육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서정복 편찬위원장 옛 전남 체육의 추억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앞서 지난번에 네 분의 원로 어르신들을 모시고 전남도청과의 일들을 비롯한 초창기 전남 체육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육계 쪽, 학교체육에 대해 편하게 일화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근 자문위원 과거에는 체육 재정이 충분하지 않아 늘 보따리 싸들고 다니며 성금 걷어 대회 출전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육상은 코치 안 쓰고 선생님을 동원했지요. 김인곤 당시 전남육상연맹회장께서 대회 후에는 늘 구 시청 뒤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를 대야에 섞어 오이 안주에 통째로 마시고 그런 적이 있는데 제가 영광 교육장이고 그분이 영광·함평위원장으로 활동하실 때 가끔 만나면 “그 때가 참 좋았어...” 라고 이야기하시더니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려고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김인곤 씨는 전남체육회에 큰 공로자입니다. 5·18 당시 전주에 열린 전국체전에서 양궁 박익수 선수가 5관왕을 차지해 체육인 선수상을 받고 김종호 도지사도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때 오영대 씨와 저, 정일택 씨와 박익수 선수가 각각 분승한 뒤 카퍼레이드를 해 체육인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전무이사와 기자들이 ‘일구회’를 결성하기도 했지요.

김석주 자문위원 제가 체육회 이사를 할 때, 동대문운동장에서 대회 개회식이 내일 아침에 있다고 하면, 오늘 밤차를 타고 광주역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열차에 자리가 없어 밤새워 짐칸에 쪼그리고 앉아 가다보면 다음날 서울에 도착하지요. 그런데, 운 없는 선수나 팀은 밤새 열차타고 서울에 도착해 오후 시합에서 강팀을 만나 떨어지면 돈이 없으니, 짐을 싸 그 날 오후에 바로 광주로 되돌아 와야 하는 그런 시대였지요. 오직해야 ‘입장식 팀’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와 칼럼을 다 썼을 정도였으니... 심상우 사장 시절에 전남매일에도 체육 칼럼을 꽤 오래 썼습니다만.

최재근 자문위원 정현채·김승철·윤영선·허광욱 국장 등 언론인들이 전남 체육에 기여를 많이 한 전남체육회 공로자들입니다. 김승철·정현채 국장들은 자기 돈으로 육상 선수들 유니폼을 사주기도 할 정도였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가보처럼 귀하게 보관하는 팸플릿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1975년 제가 전남육상연맹 전무이사로 일하면서 제26회 일본 전(全)고교 역전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감독으로 조대부고 김용인 코치와 함께 8명의 선수들을 갖는데 일본에 함께 갔던 ‘조대부고 선수 일람(一覽)’이라는 자료입니다. 팸플릿 사진 속에는 조선대 박철웅 총장이 장도에 오르는 선수단에게 축하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 서정복 편찬위원장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1992년 조규하 도지사 시절, “지방자치 시대 일본 체육을 보고 오겠다”고 보고 드렸더니 “다녀오라”고 하시면서 500만원을 주셔서 체육회 몇분과 함께 일본 시즈오카 현(縣) 가게가와 시(市)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 김석주 자문위원 일본 신간선 개통 전(前)이었고, 가게가와市에서 머물렀는데 그 작은 도시의 시민들이 1만 원, 2만 원씩 걷어 전(全)일본 마라톤대회 같은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그 도시 시장이 이끄는 응집력과 행정, 대단했습니다. 5박6일 동안 ‘일본 지자체 체육’ 현장을 보게 된 것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귀국 후 ‘전남체육 장·단기 진흥대책’을 책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 문동근 자문위원 옛날에는 학교별 육상대회가 많았는데 그때처럼 학교별 대회를 부활시켜 좋은 선수들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재근 자문위원 전남 육상이 강해 제가 나주역~광주역을 달리는 ‘학생의 날 기념 구간 마라톤대회’를 해보자고 전병곤 교육감에게 보고했더니 “뭐 이런 걸 다해?” 그래서 “이런 걸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등, 중학 남녀 선수 6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그러자 전병곤 교육감이 “이거 좋다. 계속해라”고 지시해 계속해오다 역이 없어지면서 완도, 강진 등으로 옮겨 갔지요. 육상 중단거리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 문동근 자문위원 큰 대회였던 전국소년체전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개최돼오다 5·18때 6월로 연기됐다. 내가 여자중학 육상 감독을 맡던 시절인데, 강원도 춘천 전국소년체전에 30명이 출전해 메달 하나도 따지 못한 채 달리면 꼴등이고 달리면 꼴등을 계속했습니다. 광주가 안 그래도 5·18로 서럽고 열 받아 죽겠는데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 비참한 심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5·18로 선수들을 합숙시킨다면서 한두 달 아파트에 가둬 놓고 못나가게 하고 허리조차 못 들게 했으니 꼴등한 대회가 됐겠지요. 꼴찌를 해도 어지간히 꼴등을 해야 하는데 여중생들을 한두 달 가둬놔오니 제대로 뛸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 박종길 자문위원** 그 대회가 전국소년체전 사상 가장 최하위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 종목에서 메달이 없는데 유독 총 쏘는 것, 양궁에서만 몇 개의 메달이 있다는 것은 5·18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냐는 생각도 했지요.
- 최재근 자문위원** 정현채 국장 주도로 전남일보(현 광주일보)가 주최해 광주와 송정리 구간을 달렸던 ‘광·송간 마라톤대회’도 굉장히 큰 행사였습니다.
- 서정복 편찬위원장** 전남은 예로부터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육상은 특히 전남이 활성화돼 있었지요?
- 최재근 자문위원** 아웅산테러 사건이 나던 해,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열렸는데 전남이 메달 61개를 따 종합 2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전남체고가 역도 학생 신기록을 세운 것을 비롯해 메달 30개를 따 개교 이래 최고의 성적을 거두면서 전남체육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봅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윤영선 광주MBC 국장은 “오영대 국장이 50%, 손영규 체고 교장이 30%, 최재근 20%의 공이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김종호 전남도지사 시절 내내 전국체전 2등을 유지했습니다.
- 김석주 자문위원** 김종호 도지사 시절, 광주에서 제10회 전국소년체전이 열렸는데, 내가 2천여 명을 데리고 남녀 혼성 마스게임을 연출하고 그랬습니다. 소년체전이 끝난 뒤 체육인들을 위한 ‘동남아 15일 여행계획’을 보고 드렸더니, “그 고생한 사람들에게 그까짓 것으로 되겠느냐?”면서 “그 사람들 세계일주 시켜라”고 호통을 치셨지요. 그 결과 유럽 5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해 24박 26일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오는 여행계획으로 바뀌어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때 체육인들이 사기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 서정복 편찬위원장** 김종호 도지사 시절은 전남체육회관을 짓고 전남체육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생각합니다. 박관주·안주섭 어르신들이 광주 수궁갈비가 있던 땅에 체육회관을 짓겠다고 하자 당시 전남도 산하 보통 시(市)였던 광주시장이 계속 결재하지 않고 버티니까, 김종호 도지사가 결재문서 가져오라고 해 광주시장 결재란은 공란으로 비워둔 채 ‘본 건 도지사 책임’이라고 직접 쓴 뒤 결재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얼마 전 전남체육고를 방문했더니, 그 분이 나와 “이 학교가 어떻게 설립됐는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이것 저것 설명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집필위원회도 이 분을 꼭 만나게 해드려서 여러 이야기를 기록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 최재근 자문위원** 내가 영광교육장을 할 때, 제26회 전국소년체전에 영광군에 서만 70명이 출전했습니다. 그 때 전남이 메달 15개, 광주가 11개를 땀는데 영광군이 땀 메달이 금 7개, 은 7개, 동 5개 씩 총 19개를 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광군이 땀 금메달 수가 7개가 아니고 분명히 8개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레슬링 마지막 경기를 할 때 1회를 1: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 다. 그 때 영광군 감독이 “저 놈 못 이깁니다. 상대가 레슬링 협회 부회장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하자마자 2회전부터 계속 ‘passive!’를 주는 바람에 결국 3:0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사 실상 영광군이 땀 금메달은 8개나 마찬가지로입니다.
- 서정복 편찬위원장** 그 때 전남교육청이 전국소년체전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4 등을 합니다. 경기·충북·서울은 강팀들이고 지금도 버거운 상대입니다. 전국에서 8등 아래에서 맴돌던 전남은 그 때 이후 4등을 할 수 없는데도 내리 3~4년 동안 4등을 계속했습니다.
- 박종길 자문위원** 내가 도교육청 과장· 장학관을 하고 있을 때, 전국체전· 소년 체전 둘 다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 최재근 자문위원** 영광중앙초등학교 출신 체조의 김대은· 김승일 선수가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 한국 체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까지 학교 선 생님들도 고생했고, 저도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 서정복 편찬위원장** 영광교육장 하실 때, 참으로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학교 체육이 살아야 합니다. 전남 체 육은 어떤 존재인가 싶을 정도로 침체돼 매우 아쉽습니다. 그 때는 교육장배 대회도 많이 열고 했습니다만….
- 박종길 자문위원** 학교 체육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정규수업을 받은 뒤 방과 후 시간에 하는 체육, 클럽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 습니다. 점차 과거 학교체육의 병폐를 없애고 정상제도로 올리려 는 과도기, 어려운 시기에 민선 체육회장을 맡으셨다고 봅니다. 열정적인 일선 지도자들이 앞장 서 소질 있는 아이들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체육회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근 자문위원** 체육고에 단체 팀을 1~2개 만들어야 합니다.
- 이형진 자문위원** 축구· 야구 등은 가만 뒤도 되는데, 핸드볼 등 비인기 종목들은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체육지도자들을 특 별 우대해야 합니다.

박종길 자문위원

전국 어디에도 없는 ‘전라남도 학생체전’을 만들어 전국체전이 나 전국소년체전 예선전을 겸해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점수를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열정적으로 땀 수밖에 없는 풍토가 됐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 학교 체육이 살아났지요. 그런데 문교부 감사에서 “이건 안 된다”는 지적 이후 전라남도학생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도 점수 보관이 안 돼 버렸지요.

최재근 자문위원

오영대 교육감 시절, 제가 전남체육고 교감을 할 때 당시 만해도 돈이 없던 영광중앙초등학교에 “체조 기자재를 보내 줄 테니 열심히 잘 가르쳐 봐라”며 다소 여유가 있던 체육고에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후 김대은·김승일 같은 훌륭한 선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오영대 교육감과 체육고 교장 선생님들의 공이 컸습니다. 초대 김승철 씨가 기초를 닦고, 오영대 씨가 전성기, 성영기 씨가 열매는 따먹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체육고가 전남 체육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도 운 좋게 체육고에서 5년 반 동안 교감을 했습니다만, 이 세 분들이 전남체육고 근간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김석주 자문위원

전남체육회 감사 시절, 당시 체육회 이사들은 협찬금 마련하러 다니는 것이 주된 일이다시피 했는데 돈 관리, 집행 등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상업은행에 다니는 후배에게 체육회 서류를 넘겨 검사를 해 회계 질서를 잡는데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났더니 기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느냐”며 깜짝 놀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초대여고 교장을 할 때, 정순화·정순남 자매와 최영심 선수가 육상 중단거리를 장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이나 보사국장 등 출신자들이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거의 다 몇 년씩 했지요. 그러나 도청 실·국장들이 전반적으로 승진 등에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바른말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官)’ 주도 체육회 시절 허경만 지사와 나는 동갑이어서 엄청 잘 지냈지만, 가끔 만나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당연직 체육회 회장인 도지사들은 전국체전에 들러 대통령을 만나고 상임이사들과 식사도 하면서 1박 후 전남 팀 몇 곳을 격려하게 되는데, 그 때 모두 이긴 팀만 방문하도록 스케줄을 짜는 것을 보고 “이긴 팀 뿐 만 아니라 진 팀도 방문해서 비참하게 진 이유와 진 팀의 열악함도 알게 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는 60년대 초부터 2003년 정년 때 까지 체육회 이사를 비롯 상임 부회장, 배구·핸드볼협회 등 학교에 근무한 것 못지않게 체육회에 많이 관여했습니다. 그동안 살펴보면 전무 이사들이 똑똑한 경기단체들은 선수들 성적이 오른 반면, 그렇지 못한 단체는 성적이 낮아지는데 대체로 돈 타령을 많이 하는 편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단체 회장들 중에 돈 한 푼 내지 않고 오히려 체육회 등의 돈에 혀를 내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회장 본인도 낼 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의 후원·협찬도 받아내고 중앙교류, 선수수급계획 등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官)’ 주도에서 ‘민(民)’ 주도로 바뀐 지금도 전남도에서 예산을 주도한다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무 회장

체육진흥법도 바뀌는 등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경상비 등 관리비를 체육회로 넘기지 않으면 지자체에 예측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 자유롭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난 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들이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예산이 깎이거나 불용액을 회수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전남은 타 시도가 30~40% 삭감됐는데도 불용액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다 올 예산도 오히려 18%가 올라 지난해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진 자문위원

내 경험에 의하면, 아마도 팀을 만들고 창단하는 것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지도자 의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광주일고를 거쳐 담양공고로 가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키를 창단하자고 하니 모두들 “안 될 것”이라면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감을 해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하키 팀을 만들어 “광주일고와 붙어 한 번만 이기면 은퇴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2년 만에 전국체전 예선대회에서 광주일고를 이기고 담양공고가 전남 대표가 되더라고요. 전국체전에 나가서도 우승을 했습니다. 한참 후 “마지막에 그만 뒤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성남운동장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제비뽑기로 하필 광주일고를 뽑아버렸습니다. 그 때 광주교육감과 전남교육감 두 분이 “어차피 담양공고가 이길 것인데 할 것도 말 것도 없겠다”고 말할 정도로 당시 담양공고는 강팀이었다. 그런데 막상 운동장에서 시합을 해보니 이상하게 그 날은 슈팅하면 자꾸 골대를 맞고 나오다 결국 1:0으로 광주일고한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일고 감독에게 “나는 저도 밑이 튼튼하니 버틸만 하다”면서 “자네는 이번에 이기고 열심히 잘해라”고 말한 뒤 그 길로 운동장을 떠났습니다.

박종길 자문위원

하키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하는데, 박효웅이라는 분이 신안 안좌종고 체육교사로 발령 난 후 나무로 스틱을 깎고 헌 공을 얻어다 하키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좌종고 하키 팀이 느닷없이 전국대회에 나가 동메달을 딴 바람에 그 스토리가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입니다. 결국 그 선생님은 하키로 1982년 대한민국 체육상 지도상을 받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최재근 자문위원

내가 강진고 배드민턴 감독으로 있을 때, 종별 전국대회에 네 번 나가면 이상하게 네 번 다 서울체고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체고와 붙으면 4대 0으로 지기만 했습니다. 전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 또 서울체고와 만났습니다. 다섯 번째 붙은 것이지요. 그 때 감독이고 뭐고 아이들한테 “느그들 맘대로 해 부러라”고 말하고 어차피 질 것이므로 가장 잘하는 7번은 국가대표니까 맨 뒤로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1번 선수가 이겨 버린 것입니다.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서울체고를 다섯 번 만에 이긴 것이지요. 이어 복식도 이겨 3 : 3이 됐지요. 우리는 마지막 선수를 제일 잘한 선수, 저 쪽은 못한 선수 붙었으니 시합은 하나마나였습니다. 결국 서울체고를 누르고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정복 편찬위원장

전남체육회 장학금은 현재 18억7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2008년 전국체전 때 16억 원 정도의 성금을 모아 경기단체에 쓰고 3억6천 원 정도를 종자돈으로 장학금을 연내 만들겠다고 박준영 도지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첫해 8억 원쯤 모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김장환 전남교육감에게 “장학금을 모아 놓으면 90%이상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데 도교육청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면서 “돈 좀 보태 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1억 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체육회를 나올 때 10억 원 이상 만들어 놓고 나온 것 같습니다만, 장만채 교육감 시절, 강원도 강릉 체전에서 만나 “김장환 교육감은 줬는데, 왜 안 주시느냐?”고 했더니 “앞으로 20억 원 만들 때까지 매년 1억씩 주겠다”고 하면서 5년 여 동안 매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전남도교육청 지원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매년 1억 원씩 들어왔더라면 진즉 20억 원이 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재무 회장에게 “교육청과 다시 이야기 해보라”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는 듯한데, 그것은 법적문제이지 얼마든지 회계법상 지장이 없도록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18억7천만 원이면 거의 20억 원이 다 됐는데 요즘 금리가 낮아 그렇지, 금리만 높으면 60~7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장학금은 대학생 1명뿐이어서 안타깝지만 그렇게 운영 중입니다. 사실은 96년 12월 허경만 도지사, 안주섭 상임부회장 시절 체육회 장학금을 도에서 ‘인재육성기금’에 넣으라고 자꾸 요구해 이관된 액수가 13억5천만 원으로 확인됐고 그 돈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인재육성기금’을 만들면서 13억5천만 원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13억5천만 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었으면 지금쯤 40~50억 원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학기금인데 참으로 안타깝지만 다시 되돌려 받을 수도 없고….

김재무 회장

지난해까지 전남도가 인재육성장학금 100억을 갖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이관된 13억5천만 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전남도가 500억 원짜리, 100억 원 짜리 두 개가 있는데 지사님은 500억 원짜리를 매년 투자해서 나온 이익금으로 장학금을 주자는 생각입니다. 투자한 만큼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원 짜리는 전남도에서도 출연했지만, 체육회 외에 다른 단체들에게도 일부 반강제 비슷하게 가져 간 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 역시 지사님은 다시 체육회로 환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다 요즘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김석주 자문위원

그런 돈을 돌려받아서 체육회가 관리해야 하고, 경상비는 받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도에서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김재무 회장

그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남도로부터 매년 7천 또는 1억 원 정도를 받았고 그 돈으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서정복 편찬위원장 사실 그 돈은 우리 체육인들이 전국대회 나갈 때마다 발품 팔아 말 그대로 성금으로 모은 것으로, 통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대회 나갈 때마다 남은 돈 같은 것을 넣고 또 넣고 해서 그것이 모태가 돼서 만든 돈이 13억 원 정도입니다. 당시는 예산을 지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대회를 나갈 때마다 성금을 걷으러 다녔습니다. 그 돈이 바로 그 돈입니다.
- 김석주 자문위원 체육회 자체 통장을 만들어서 해야지 ‘인재육성기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김재무 회장 저희로서는 기회 될 때마다 우리 체육회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서정복 편찬위원장 그리고, 민선 회장 체제 속에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독립해야 하는데, 체육이 전남도 예산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자체 예산이 많아질수록 도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좋은 측면에서는 우리가 도와 협력해야 하겠지만, 매사 꼬치꼬치 간섭 받는 것은 독자적인 단체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돈도 받을 수 있으면 조속히 되돌려 받아야 할 것입니다.
- 김석주 자문위원 전국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전남체육회 예산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 김재무 회장 액수로는 15번째입니다만, 서울은 1,000억 원이므로 비교가 안 되고, 광주도 400~500억 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250억 정도지만, 단순비교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인력, 관리예산 이런 것들이 달라 17개 시·도 체육회 가운데 우리가 몇 등이냐고 하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예산 수준은 낮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석주 자문위원 내가 볼 때 체육 행사 같은 것을 가장 하지 않는 곳이 전남인 것 같아요. 요즘 강원 고성, 충청도에서는 배구 등 초·중등·대학 대회를 엄청 많이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준영 지사 때는 이야기해도 안중에도 안 두는 것 같았습니다. 축구·배구·농구 같은 종목은 겨울에 훈련도 많이 하고 그러니 해남·강진 등에 대회를 유치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유치나 개최하려는 생각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방 체육이 어떻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참석자 일동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정복 편찬위원장

말씀드리자면, 우리 전남에 대한민국 체육의 큰 시설이 하나 들어서게 됐습니다. 장흥 탐진강 댐 바로 아래 1년에 10만 명도 넘는 인원이 찾아와 교육받는 ‘체육인재개발원’이 40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설계를 마치는 대로 연내 착공합니다. 민선 김재무 회장이 맡고 나서 그렇게 좋은 시설이 전남에 들어서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체육지도자를 포함 행정요원들까지 교육을 받을 곳이 그동안 전국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구시대적인 체육 관리나 폭력과 비리 등은 교육을 통해 청산하고 순화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하지 못했지요. 마침, 우리 주변과 시대가 요구하는 사안이라고 해서 준비하던 중 몇 군데에서 유치 신청까지 했고 이번에 장흥으로 확정된 된 것입니다. 1차로 인재개발원이 되고 나면, 2단계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태릉선수촌이 진천으로 옮겨 그곳이 메인 선수촌이 됐고, 동계 종목 선수촌은 강원도 평창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계 종목 체력 단련을 포함해서 훈련지는 태백선수촌인데 기술 향상 등을 위해 ‘동계훈련지’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결국 따뜻한 남쪽이 돼야 한다면서 경상도·전라도·제주도를 대상으로 선정을 시작했습니다만, 제주도는 여전히 교통도 그렇고 물가도 비싸고 해서 어렵다고 본다면, 경상도·전라도 중에 돼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주변에 정치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장흥에 이어 동계종목 선수촌이 2차로 되고, 3단계로 15~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전국 체육인들을 위한 ‘전국 체육인 휴양소’를 포함 3단계까지 마무리 된다면, 전남이 대한민국 체육 속에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되는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김재무 회장이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 전남에 ‘체육의 산실’이 있다는 큰 자랑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과정마다 원로 선배님들께서 조언 해주시고, 이런 시설이 착공·준공될 때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광주전남 분리 이후 여수를 메인으로 해서 2008년도 전국체전을 처음 치른 적이 있는데, 마침 이번에 목포가 유치 신청을 해 당초 일정대로라면, 2022년 개최지로 확정됐지만, 코로나로 인해 1년씩 순연되는 바람에 2023년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포를 메인 스타디움으로 정해 시·군에서 분산 개최하는 제104회 전국체전을 목포에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전국대회 행사가 있고 하면 김재무 회장이 원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할 것입니다.



김재무 회장

어려운 걸음 해주신 원로 어르신들께 거듭 감사드리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면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체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자문해 주시고, 전남도민체전 등 체육행사 있을 때 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남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생활체육분야

원로 방담(元老 放談) 개요

- 일 시 2021. 5. 14(금) 12 : 30
- 역 대 회 장 박병열 · 김한중 · 이탁우
- 사 무 처 김재무 회장 · 사무처장(안병옥 · 조정만) · 직원(3)
- 집 필 위 원 김기태



▲ 김재무 전남체육회 회장과 생활체육 역대 회장들이 보성군 별교읍 소재 한 식당에 모여 전남 생활체육에 대한 기억과 전남체육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제시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방담(放談) 내용

김재무 회장

지역의 가까운 선배님들이자 생활체육 분야 역대 회장님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선배님들을 진즉 모셨어야 했는데, 다소 늦었습니다. 민선체육회장으로 취임한 후 전남체육 70년사 후 반부 발간 필요성을 느끼고 전남체육사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을 구성해 의욕적으로 집필 중에 있습니다. 전남체육사 발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간추려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선 체육회장으로서 앞으로 전남체육, 잘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만 처장** 박병열 회장님은 도지사님과 가깝게 지내셔서 2004년 고흥에서 개최된 전남도민생활체육대축전 입장상 상(賞) 사업비로 6억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그 해 개막식 입장상은 장성군이 1등을 차지, 상 사업비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지요. 장성군은 홍길동 인형을 앞세우고 입장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박병열 전 회장** 생활체육대축전 전국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엄삼탁 중앙회장을 만나러 서울을 수차례 오가며 2006년 4월 16일 여수에서 개최했습니다.
- 조정만 처장** 2006년 생활체육대축전 전국 대회가 여수에서 개최되자 여수 시내 슈퍼마켓의 맥주가 동 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고, 강원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난생처음 여수 구경을 한다고 무척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 박병열 전 회장**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을 치르기 위한 개최 준비 사무소를 여수 망마체육관에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 조정만 처장**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을 준비하기 위해 여수에서 일하던 2005년 12월 여수에 처음으로 엄청난 폭설이 내리자 박병열 회장님이 모텔을 잡아 주시기도 했습니다.
- 박병열 전 회장** 전남체육회에 생활체육 출신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요?
- 이탁우 전 회장** 체육인들은 스포츠맨십을 늘 강조하지만, 종목단체별로 파벌이 엄청 심한 편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지만 심지어 회장 선거에서 지거나 하면 회계장부 등을 넘겨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 조정만 처장** 지난해부터 각 종목단체별 전자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전남체육회 통제 하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 김한중 전 회장** 신임 김재무 회장의 탁월한 리더십과 전남체육회 운영에 대해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만 처장** 김한중 회장님이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첫 대회를 목포에서 개최하셨습니다. 그 때 VIP석을 비워 두었더니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바람에 매우 난감한 순간도 있었지요.



박병열 전 회장

체육회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조정만 처장

기금을 포함 올해 약 260억 원 정도 됩니다

박병열 전 회장

전남체육회를 포함 어느 체육회든 돈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으면 경기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현직 도의회 부의장을 하면서 생활체육회장을 하니 예산 확보에 대단히 유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남체육회 회장은 현역 도의원이 겸직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고 봅니다. 내가 전남체육회에 들어와 살펴보니 사무처 직원 월급이 5년간 동결돼 있다고 해서 전남도청 직원 불러 “당신들은 매년 물가인상률에 맞춰 꼬박꼬박 올려 받으면서 생활체육회 직원들은 동결하면 되겠느냐”며 직원 임금을 30% 정도 올렸던 기억입니다. 타 시·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또, 생활체육회 초창기 회계 결산 자료 등이 엉망이어서 DB 구축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재무 회장

저도 전문체육 지도자 평균 연봉이 3,500만 원이 안 된 것을 발견하고 지사님께 말씀드려 지난해 좀 올렸습니다. 전문체육 지도자들은 국가대표를 하거나 각각 자신의 종목에서는 엘리트들인데 처우가 열악한 것이지요. 전문체육 지도자들은 전남 시·군으로 배치돼 시·군 통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전남 체육회가 관리중인 45명의 처우개선이 앞으로 과제입니다. 박병열 회장님이 생활체육회 직원들의 임금을 파격적으로 인상한 이후 전남체육회 사무처 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직원들이 임금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탁우 전 회장

전남생활체육회장을 7년여 가까이 했으니 오래 한 편이지요. 회장 재직 중에 특별히 주요 기관 단체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전남 도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경찰청과 MOU를 맺고 노인 교통법규, 길 건너기, 교통신고 같은 교육도 하고 전남도교육청과 학생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더 나은 도민 건강을 위해서는 전문 체육지도자가 많아야 합니다. 당시 전문 지도자들은 국비와 지방비 50대 50 매칭 사업이긴 했지만, 가급적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생활체육중앙회 이강두 회장이 전남을 방문하자, VIP급 최고의 예우를 해서 영접하고 돌아갈 때 여수산 멸치를 한 트럭 실어 보내자 당시 20명 내외 정도 배치되던 전문 지도자가 45명으로 대거 늘어나 배치된 적도 있습니다.

전문 지도자가 많아야 어르신들을 잘 지도해 건강해지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있는 것이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체육회가 국민건강 증진에 공헌하고 있다며 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 생활체육 참가율을 조사한 결과, 전남이 1등을 차지했고 이후 계속 유지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남이 생활체육이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된 것은 박병열, 김한중 두 회장님이 기반을 닦아 주시고, 전남체육회 직원들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남체육회 들어갈 때 28개 종목이 45개 종목으로 늘어날 정도로 생활 체육이 활성화됐습니다. 이 공로로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전남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남지역 주요 대형건설사 같은 큰 기업들이 엘리트 종목 1개 씩 맡아 지원을 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병열 전 회장** 이탁우 회장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큰 기업들을 움직이는데 전남체육회 부회장은 힘들고, 도지사 정도가 나서서 챙겨야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기업이 일 년에 수십억 원씩 선뜻 돈을 내고 싶겠어요?
- 이탁우 전 회장** 참고로 저는 보해 앞세우만 마십시오. 보해가 전남체육회에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해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지원이 잇따라야 할 텐데 노력해야 하겠지요.
- 김재무 회장** 보해는 무려 20년이 넘게 전남체육회를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지원금 액수가 줄었습니다만, 지원금의 과다 보다는 꾸준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고맙고 중요한 일입니다.
- 박병열 전 회장** 회사 사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보해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웬만하면 보해를 마시고 ‘보해 사주기 캠페인’ 같은 것을 전남체육회 차원에서 전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무 회장**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데도 어려운 걸음 하시어 전남체육회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기억들을 비롯해 따끔한 충고와 기발한 제안을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역의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하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전남체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V

전남체육의 비전



1. 체육환경변화와 전남체육

2. 전남체육의 미래상



1. 체육환경 변화와 전남체육

광주시와 전남도 분리 이후 전남체육의 지상 목표는 항상 ‘전남체육 역량강화’였다. 역량강화의 기본 전제는 엘리트체육 활성화로 전국체전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었다. 2000년대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덩달아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었지만 전남체육의 당면 과제는 여전히 전문체육 분야의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육성하고, 실업팀을 창단 또는 활성화하고, 학교체육 강화, 경기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이었다. 이 같은 정책의 최종과제는 바로 전국체전에서 한 자리 수 순위 진입이었다.

시도 분리 이후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력이 저하되면서 전국체전에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과거 전남체육의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전남체육행정의 키워드는 항상 ‘전남체육진흥’이었다. 예를 들면 1990년 전남도체육회가 내놓은 ‘전남체육진흥 3개년 계획’은 ▲(전국체전에서) 다득점 종목의 투자효과 확대 ▲우수선수 확보를 위한 연계육성의 제도화 등을 통해 전남체육의 전국체전 5위권 진입을 목표로 24개 미육성 종별팀을 창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전남체육의 근간을 이루었던 전남체육대회의 정체성을 ‘친목’이나 ‘전국체전에 대한 실력향상이나 점검의 장’이나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3년 5월 도체육회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전남체육의 발전 방향’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전남체육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체육대회(당시는 ‘도민체전’) 직후에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고·대·일반부 선수들만의 경기대회와 3백만 도민화합을 위한 체육동호인 생활체육대회 등 두 가지 성격 중 하나를 택일해 대회형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엘리트체육을 강화하던지 생활체육대회를 지향하던지 양자택일하라는 주장이다. 그 배경엔 시군 간 과도한 경쟁과 화합을 강조한 나머지 일부 종목의 참가연령을 상향하는 등의 정책이 엘리트 체육발전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내재된 의견들이었다.

이 같은 흐름은 2000년대에 들어서도 계속된다. 2015년 내놓은 전남체육 중장기 발전계획은 ‘전남체육 경기력 향상 및 한자리수 등위 진입을 위한 전남체육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다. 당시에도 중심에 전국체전 성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계획서에 보면 2004년 7위이던 전국체전 성적이 2010년 10위, 2014년 12위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동계체전, 소년체전 역시 하위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체전에 16개 세부 종별, 소년체전에 5개 세부종별이 불참하고 있음도 열악한 체육현실임을 밝힌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계획은 ‘스포츠로 하나되는 활기찬 전남’이라는 비전 아래 안정적인 한자리수 경기력 유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선수와 지도자 육성, 실업팀 및 직장팀 창단, 우수선수 유출방지를 위한 진학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전남체육을 선진화한다”는 6단계 발전계획을 마련해 제시하고 있다.

물론 스포츠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역화합, 지역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에서 엘리트 체육 분야의 좋은 성적 거양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지역의 체육발전이 국가체육, 나아가 국민건강과도 연계성이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엘리트체육에 대한 요구가 점점 약해지고 대신 생활체육을 통한 개개인의 건강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은 이미 큰 흐름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전남이 중장기 체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의 체육정책의 중심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던 데 비하면 지역체육 행정은 전문체육 중심에 머물렀다. 정부가 마련한 ‘스포츠비전 2018’이라는 계획에 보면 국가 체육정책의 이런 흐름은 잘 드러나 있다.

이런 움직임은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통합되면서 변곡점을 맞는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중심에 두고 생활스포츠와 전문체육이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지역체육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라남도체육회도 2016년 2월 26일 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하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을 선언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병행의 시대가 열렸다.

전남도와 도체육회가 2018년에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 2030스포츠 비전 관련 도체육회 자체 추진계획’은 이 같은 변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을 비전으로 하는 정부의 ‘2030스포츠비전’ 정책에 따라 전남체육회도 ‘신나는 스포츠’ ‘함께하는 스포츠’ ‘자랑스러운 스포츠’ ‘폴뿌리 스포츠’ 등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를 선정 발표한다. 주로 전문스포츠 분야 발전을 노린 ‘자랑스러운 스포츠’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체육증진의 관점에서 바라본 스포츠 정책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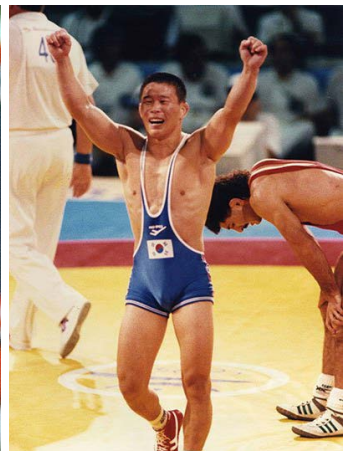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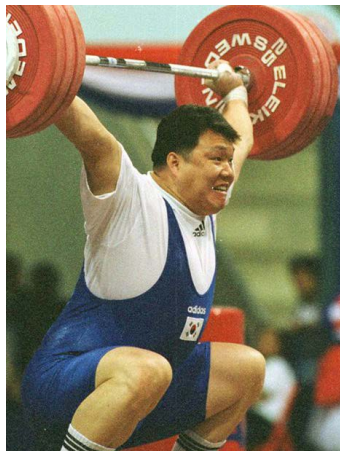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지역 체육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셈이다. 지역체육정책을 총괄 집행하는 도체육회 조직 역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두 포스트로 운영에 들어갔다. 더욱이 2020년 지역 체육수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민선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두 체육 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은 과제이자 현실이 되었다.

물론 지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체육을 통한 통합과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전문체육, 엘리트체육의 성적중심 구조와 지원정책 등이 여전히 유효하고,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하지만 2020년대 전남체육은 시대의 변화라는 물결 앞에 새로운 과제를 안고 서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체육회도 사무처조직을 크게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기획홍보부와 총무부, 체육행정분야인 전문체육부와 생활체육부 등으로 조직을 설치하고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전문체육부는 전문체육지도자 관리,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관리, 국제대회 및 전국단위 대회 참가 또는 개최 지원, 꿈나무 선수 발굴 및 육성, 전략종목 육성, 실업팀 창단 지원, 전국체전 성적 거양 등의 정책들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중이다.

또 생활체육부도 시군별, 종목별, 또는 단위별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대회개최 등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전남체육의 미래상

이제 전남체육의 과제는 전문 체육분야에선 피나는 노력과 집중적인 투자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지역을 빛내고 나아가 국가 위상제고에도 노력해야 하지만, 한편으론 일반 주민들의 건강과 건전한 스포츠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더욱이 전남체육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인구소멸에 이르는 지역여건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체육이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까지 고민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있다.

이런 관점에서 민선1기를 맞은 전남체육이 내놓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 향후 전남체육의 미래상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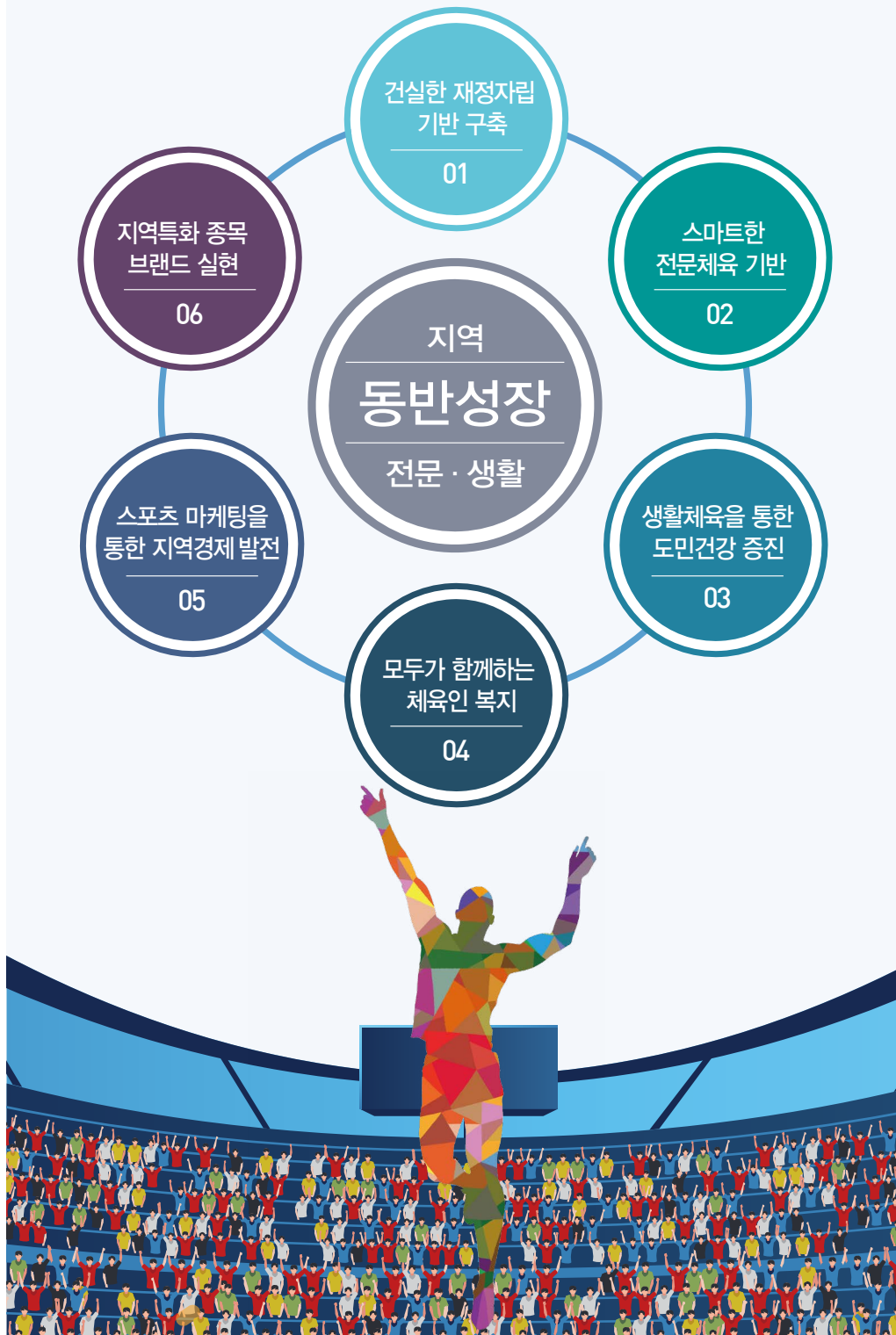
민선1기 전남체육호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동반성장”을 지역체육의 미래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건실한 재정자립기반 구축 ▲스마트한 전문체육 기반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인 복지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지역특화종목 브랜드 실현 등의 실천과제를 내세웠는데 단순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를 넘어 체육을 통한 지역경제발전까지 도모하는 복합체육정책이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단기 및 중장기 계획까지 마련한 상태다. 도 체육회는 예산 정액지원과 체육회 법인설립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확보 시스템 구축, 학교체육 활성화 및 실업팀 창단 등을 통한 엘리트체육 부흥,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스포츠클럽 활성화, 스포츠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체육 저변 확대 등 다양한 세부 계획들을 추진중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순연돼 2023년에 치러질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도 과제다. <아래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 참조>

김재무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은 언론과의 취임 인터뷰 등을 통해 “전문체육은 전문체육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기반도 취약해 대대적인 투자와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생활체육은 또 생활체육대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우리 전남체육이 안고 있는 과제”라며 “전라남도와 함께 예산투자를 늘리고 전남인의 긍지를 갖고 경기력 향상, 체육저변 확대로 도민이 모두 행복한 체육전남을 구현하는 게 미래과제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선시대를 맞은 전남도체육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할 경우 전남체육은 제2의 도약을 맞고 체육을 통한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발전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남도체육회 제2의 도약과 비전도





비전실

“전남체육 제2의 도약,

건실한 재정자립
기반 구축

01

스마트한
전문체육 기반

02

생활체육을 통한
도민건강 증진

03

지역발전

전문체육

동반

신규 5 1

지역 특화 스포츠 축제와 이벤트 공동개발 및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신규 5 1

지역의 대표적 스포츠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SNS 강화 및 서포터즈 운영

개선 5 3 6 1

지역체육 인프라 구축과 스포츠관광객 유입을 위한 행정의 전략 강화

개선 5 2 1

전국규모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 확대를 위한 타 시·도 인적네트워크 관리 강화

확대 5 1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의 도민 의견 참여 창구 마련

확대 5 2 3 1

외부인 활용 시·군별 체육시설 활성화 전략 제시

신규 2 6

체육영재 조기 발굴과 기초종목 튼튼화 사업 추진

신규 2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개선 2 3

과학적 역량을 갖춘 체육지도자 육성 및 관리

개선 2 3

회원종목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선진화

확대 2 6

연고팀 유치 확대를 통한 전남체육 경기력 강화

확대 2 3 6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 종별 확대와 경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편

현 체 계

도민의 행복시대 실현”]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인 복지

04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05

지역특화 종목
브랜드 실현

06

성장

생활체육

체육복지

신규 4 3 2

전문체육인의 생활체육 재능기부
및 봉사 활동 추진

신규 3 4

생활체육 기반 전문체육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개선 3 2

유망선수 발굴을 위한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리그전 통합 운영

개선 2 3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동반성장을
위한 매칭 연계 시스템 구축

확대 3 2

스포츠클럽과 연계한 학교운동부
활성화

확대 2 3

전라남도 통합 체육회장기대회
확대

신규 3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클럽 지원팀 신설

신규 3 6

준종합대회 해외 스포츠교류사업
순차적 추진

개선 3

전남생활체육대축전 참여 계층
균형성 개선

개선 3

도체육회 주도 생활체육광장사업
추진

확대 3 5

도민 1인 1종목 문화 정착

확대 3 2

22개 시·군으로 공공스포츠클럽
확대와 지원

신규 4 3 2

체육인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기회
제공

신규 4

체육회 직원 선진 연수기회 제공

개선 4 2 3

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개선 4 2 3

체육인 인권 신장 시스템 구축

확대 4 2 3 1

장학 재정 확충 (17억원 → 20억원)

확대 4

체육인 활용 의료 기관 연계 확대



지역 발전

- ✓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기여
- ✓ 각 지자체의 차별화된 스포츠 브랜드 조성

⊗ 각 시·군 스포츠 관광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도모

- 각 시·군과 협력하여 경쟁우위 스포츠관광 아이디어 개발
- 경쟁우위 아이디어를 국가사업으로 연계 유치(국가사업과 일치시)
- 추진 가능한 시·군부터 실행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 국가대표 및 프로팀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팬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오픈 트레이닝, 선수단 사인회 등)

⊗ 각 지역의 대표적 스포츠 이벤트 국제화 지원

- 지역의 대표적 스포츠이벤트의 국제적 잠재성 분석
- 지자체와 공동 TF 조성하여 국제화 플랜 수립
- 수립된 플랜 실행의 체계적, 순차적 지원

⊗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다양화

- 동·하계 전지훈련 시장조사 실시
-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전지훈련 전략 구상
- 각 전략을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행
 - 중앙 회원종목단체별 전지훈련 유치 독려 및 예산 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
 - 도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훈련 팀의 숙박 및 수송 등 행정 지원
 - 전남 각 시·군의 전지훈련지에 대한 숙박·교통·훈련 장소 등 정보 제공



전문체육

✓ 전남체육 스마트화 기반 마련

✓ 전문체육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스포츠과학 컨디셔닝 센터 설치, 운영

- 도대표 선수와 유망 학생선수의 발굴 및 육성·훈련을 위한 거점 마련
- 지역 내 전문체육 선수 및 스포츠클럽 등 동호인 대상 스포츠 의·과학 지원
- 전남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하여 과학적인 훈련방식 프로그램 제공
- 스포츠과학 컨디셔닝 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 전문체육지도자 안정적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

- 전문체육지도자의 복지 개선을 통한 안정적 지도 여건 마련
- 스포츠 과학적 역량을 갖춘 전문체육지도자 배치
- 은퇴 후 대비 진로교육 확대(체육지도자 Total Life Design)
- 우수지도자 육성 교육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전문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 새로운 실업팀 창단과 대학팀 육성 강화

- 도내 우수기업체 및 공공기관 체육 참여를 통한 우리도 전국체육대회 불참 종별 해소
- 전국체육대회 참가 우리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라남도체육회 팀 창단, 운영
- 실업팀 미 육성 군에 대한 지역 내 초-중-고-대-실업의 연계 육성종목 팀 창단으로 안정적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행정기관직장팀 : 17기관, 21종목, 32팀 운영 중)
- 대학별 특화종목 선정 및 지원 차등화
- 틈새종목 발굴과 대학팀 창단 유도



생활체육

- ✓ 생활체육 기반 확대로 선진체육 시스템 조기 정착
- ✓ “함께하는 운동” 활기찬 지역사회

⊗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운영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체육 활성화

- 도 및 시·군체육회에 각종 스포츠클럽 전담 관리부서 설치 운영
- 지역 내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파악 및 관리(시·군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등록시스템 구축)
- 스포츠클럽 가입 선수 및 동호인들에 대한 지원 여건 마련
-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형태의 선수 육성 시스템 구축
- 22개 시·군체육회 조직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

⊗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운영 및 전문성 강화

- 생활체육지도자 현장지도 활동 확대(권고치 1일 3회 미달 / 평균 2회)
- 시·군체육회 행정업무를 최소화하여 현장지도 활동 강화(행정직 직원 증원)
- 시·군체육회 운영비 확대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강화(관련 자격증 위주의 현장 배치)
- 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동 강화

⊗ 유소년스포츠(유·무료)체험학교 교실 확대(exciting)

- 유소년들에게 스포츠 무료 체험기회 부여로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 주말과 방학기간을 활용한 무료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카누, 요트, 조정, 자전거, 롤러 등)
- 도 교육청과 업무 공유를 통한 많은 학생들의 참여 유도(취약계층 유소년 우선 배려)
- 도내 회원종목단체 주관으로 무료 체험교실 운영



동 반 성 장

- ✓ 동반성장의 시대 개막
- ✓ 전문과 생활의 화학적 통합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통합대회의 다각화

- 생활체육 최상위 그룹의 도내 엘리트 체육대회 참가자격 부여
- 브릿지 대회(오픈대회) 활성화
- 전라남도체육대회와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을 통합대회로 순차적 전환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자산교류 선순환 시스템

- 생활체육 분야에 전문체육선수들의 재능 전달 기부 프로그램 개발
(기술, 대회경험, 훈련방법, 부상관리, 진로설계, 전문성 등)
- 기능기부 전문체육선수들에 대한 생활체육인들의 경제적(장학금 등) 지원

⊗ 멘토-멘티 시스템을 통한 선수들의 진로 확대

- 생활체육의 멘토 데이터베이스 구축
- 멘토-멘티의 체육의 날 개최
- 멘토링제의 정례화를 통한 생활·전문체육인의 동반성장



학 교 체 육

- ✔ 튼튼한 학교체육! 건강이 넘치는 전남의 청소년!
- ✔ 조화로운 협력체계로 발전하는 학교체육

⊗ 학교체육(스포츠클럽 포함) 거버넌스 모델 구축

-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전문체육·생활체육 연계 사업 추진
- 전남체육회 / 도교육청 / 지자체 / 지역체육회 / 회원종목단체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 시·군별 브랜드 종목을 선정하여 학생선수 발굴·육성·지원의 공동 방안 확대

⊗ 『엘리트체육 ↔ 학교스포츠클럽』간 오픈대회 개최

- 전문선수 육성 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의 경쟁력 강화(경기력 등)
- 회원종목단체 주관 도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전문체육지도자들의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아카데미 등 전문성 확대
- 전국체전 예선대회 등 도내 전문체육대회 개최시 학교스포츠클럽 선수 참가자격 확대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영역 확대

- 학교운동부 연계 육성 방안 모색
- 운영 여건이 미흡한 학교 운동부를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전환 육성
- 비인기종목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체 육 복 지

- ✓ 스포츠 활동의 최적 환경 구현
- ✓ 체육인의 사기진작으로 체육활동 동기 부여

⊗ 체육인을 위한 종합복지시스템 구축

- 체육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환경 구축
- 체육인을 위한 법률연계서비스 구축
- 체육인을 위한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 스포츠 인권보호지원시스템 구축

⊗ 운동 컨디셔닝서비스 제공

- 전남스포츠과학센터의 컨디셔닝서비스 기능 확대
- 선수와 지도자들의 재활치료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충원
- 선수들 부상에 대한 점검 및 사후 관리 체계 마련

⊗ 체육회 직원 가족 복지 확대

- 체육회 직원 자녀 장학금 확대
- 체육회 가족 의료서비스 확대
- 장기근속자 복지지원서비스 확대
- 체육인을 위한 휴양시설 확보
- 유연근무제의 다양화



재정 자립

- ✓ 안정적인 재정을 통한 풍요로운 전남체육
✓ 공유하는 재정! 운영 효율성 담보!

☉ 재원 확충의 다각화

- 후원금과 기부금 확대
- 중앙부처 체육공모사업 적극 유치
- 도체육진흥기금의 공동 활용 방안 모색
- 전국체육대회 후원금 확보 방안 모색
-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예산 확보 방안 강구
- 수익 스포츠시설의 운영권 확보
- 통합 스폰서십 도입
- 공동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확보
- 법정 기부단체 등록
- 도비 보조금 확충 노력 강화

☉ 재정 운영의 효율 극대화

- 재정 대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타· 시도체육회 벤치마킹
- 순차적 재정 효율성 평가를 통한 매년 재정 지원 방향 재설정
- 각 사업부서의 예산 집행의 표준화 실행
- 모니터링 제도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재정 확충 추계

(단위 : 백만원)

구분 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재정확충	24,599	100%	27,000	10%	32,400	20%

- 2022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운영비 및 경기용품 사업비 순차적 증액



경영혁신

- [

✓ 신명나는 직장과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직원 자질 및 능력 향상

]

⊗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운영체제와 운영방식 혁신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및 각 부서 업무 의무 순환제 실시(2년)
- 직급제 타파 및 업무 능력에 따른 직위 부여
- 체육회의 브랜드를 높이고 재정 확보와 지역 사회의 기여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부서 신설
- 업무 기능 중심의 조직 편제 구축
- 부서별 업무 분장의 명료화
- 경영평가제 도입
- 현장 중심 밀착형 찾아가는 서비스 업무 추진

⊗ 체육회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

- 전문적 자기계발 마일리지 구축
- 실무능력 향상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 모범 타 시·도체육회 및 선진 지역 연수 근무제 도입
- 공개경쟁 채용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및 자긍심 제고
- 체육회 직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스포데미 교육프로그램 도입(스포츠+아카데미)

⊗ 소통회의 확대 및 정례화

- 현안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부서간 회의 정례화
- 민원과 갈등에 대한 one-stop 서비스 공동 방안 모색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로 “전남체육” 브랜드 실현
- ✓ 경기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 대회 개요

- 대회명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 기간/장소 : 2022. 10월 중(7일간) / 전라남도 일원(주개최지 목포시)
- 대회규모 : 47종목(정식 45, 시범 2종목) / 약 3만여명(임원 1만, 선수 2만)
-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체육회

⊗ 추진 방향(안)

- 22개 시·군 분산 개최를 통해 전 도민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체전
- 대회 개최 및 시설 사후활용을 통한 전남 스포츠 활성화 및 경제발전 도모
-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 전국체전추진단 구성·운영(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경기시설 확충)
 - ⇒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운영(주요 정책사항 자문,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대회 운영

- 체전 분위기 조성(시·군 지역축제 연계 등) 및 손님맞이 준비
- 도민 참여대책 및 대회 안전관리(교통, 도로, 시설물 정비 등)
- 경기장 시설 완비 및 경기용구, 비품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대회 운영

⊗ 사후 활용

-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전남체육 발전의 전기 마련
 - ⇒ 신설경기장 및 개·보수 경기장을 활용한 스포츠 마케팅 사업 추진
 - ⇒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 동·하계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등
- 도대표 선수 전용훈련장 및 스포츠클럽 창단을 통한 상시 활용 시스템 구축
- 시·군 주요관광지, 지역축제·행사 등과 연계한 각종 체육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인구의 저변 확대

VI

부록



전라남도체육회 법인 표준정관

전남체육 연표



전라남도체육회 법인 표준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근거 및 명칭)

- ① 이 법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및 제39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이다.
- ② 이 법인의 명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체육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Jeollanamdo Sports Council(약칭 JSC)라 한다.

제2조(목적)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과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전라남도 및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체육회의 사무소는 전라남도청 소재지에 둔다.

제4조(사업)

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전라남도 내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전라남도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전라남도 체육인의 권익 증진, 복지 및 교육 관련 사업
6. 전라남도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전라남도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8. 전라남도의 학교체육(청소년체육활동 포함),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 사업
9.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전라남도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문화사업
11.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2. 그 밖에 전라남도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체육회 제공이익의 수혜자)

- ① 체육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종교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조직)

- ① 체육회의 회원단체는 시·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구성하고,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구분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③ 시·군체육회는 체육회 정회원단체로 한다.

제7조(권리와 의무)

- ①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②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회비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 시기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2조제4항과 같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방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단체의 권리와 의무)

회원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이하 “회원단체”라 한다)의 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한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때
 2. 60일 이상의 회원종목단체장의 결위 또는 사고
 3.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와의 분쟁
 4. 타 시·도 회원종목단체 및 해당 회원종목단체 내의 각종 분쟁
 5.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 ② 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
- ④ 관리단체로 지정된 정회원단체는 체육회의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 ⑤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 ⑥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 경우 체육회는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 ① 제6조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체육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체육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 ③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 ④ 중앙회원종목단체가 결성되지 않은 종목이 체육회의 회원이 되고자할 경우에는 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의2(회원종목단체의 강등·제명)

- ① 정회원단체 또는 준회원단체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② 인정단체가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원종목단체의 강등 또는 제명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총회

제11조(총회의 구성)

- ① 체육회의 총회는 정회원단체의 장으로 대의원을 구성한다.
- ② 제1항의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체육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체육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체육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사무처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의장)

- ① 총회의 의장은 체육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 ②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 ① 체육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어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임원의 불신임)**

- ① 총회는 체육회의 임원(사무처장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와 같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 ① 체육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② 체육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무처장의 임면동의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의 제명
 9.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체육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⑧ 본회 각종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3조(임원)

- ① 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9명 이하(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
 3. 이사 26명 이상 50명 이하(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명
- ② 체육회의 임원은 체육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③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이사의 수는 총회 의결로 20명 이내로 증원 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의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24조(회장의 선출)

- ①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 ②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단체의 장



2.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선거인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종목의 규모(지도자, 선수, 동호인의 수 등을 말한다)
 2. 시·군의 인구 규모
 3. 종목의 특성(회장선거 직전에 개최된 전국체전, 소년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종합대회의 종목으로 채택되었는지를 말한다)
- ④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7조에 의한 해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26명 미만이 되거나, 임기 만료로 이사회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 ⑤ 체육회는「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제7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⑧ 회장이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6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주무 부처와 합의한 국내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
- ⑪ 제6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⑫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선거관리를 위탁받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 가능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⑬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⑭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액 및 반환 조건, 회장선출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선거의 중립성)

- ① 체육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다른 시·도체육회,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관계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체육회의 임·직원이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대의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이외 체육회 관계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 ③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체육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회장의 직무대행)

-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이 없을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②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람이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하여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회장의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임원의 선임)

-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처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유효하다.
- ③ 체육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하고, 전라남도청 체육업무담당 국장과 전라남도교육청 체육업무담당 국장은 이사로 한다.



- ④ 임원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을 대표하는 인사를 포함하여 고르게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체육관계자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교육계인사와 시·군체육회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5.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6. 특정 성별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정회원단체 중 회원종목단체 대표인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명, 공인 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한다.
- ⑥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회장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대한체육회가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⑧ 대한체육회가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회장의 인준을 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의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⑨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정한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2(고문 등)

본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자문위원 등을 둘 수 있다.

- ① 고문, 자문위원 등은 이사회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 ② 고문, 자문위원 등은 회장이 위촉한다.
- ③ 고문, 자문위원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28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⑤ 임원이 체육회 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⑥ 임원이 체육회(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원단체,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를 포함한다) 관련된 비위의 사실로 대한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⑦ 임원이 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⑧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체육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체육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 ①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처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의 임원(사무처장을 제외한다)은 대한체육회 스포츠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 ⑥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 ⑦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에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 ⑧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 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등)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7조제8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

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체육회의 회원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③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단체 지정 요구서가 접수된 30일 전부터 또는 체육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였을 시 이사회 안건을 회장, 부회장, 이사에게 통지한 날 30일 전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회원단체

제33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는 시·군종목단체로 조직한다.

②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에 따라 체육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4조(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 ①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회장, 부회장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체육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③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횟수 산정 시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다른 시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전국규모연맹체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

제35조(시·군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 ① 체육회의 회원단체인 시·군체육회는 해당 시·군의 종목단체와 읍·면·동체육회를 회원으로 둘 수 있다.
- ② 시·군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시·군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정관을 준용한다.
- ④ 시·군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정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6조(시·군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 ① 시·군체육회의 회장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 ② 시·군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명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체육회는 시·군체육회의 회장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7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 ① 체육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체육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위원은 체육회의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학사)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스포츠공정위원회)

- ①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1. 체육회, 회원단체, 시·군종목단체의 정관 및 규정 관리
 2. 체육회, 회원단체, 시·군종목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또는 징계
 3.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인정 심의
-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임·직원인 사람
- ④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다른 각종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의 의결 또는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했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⑤ 이 밖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제3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가 설치하는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 ① 제37조 및 제38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심의 대상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재산의 구분)

- ① 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의 사용용도는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체육회가 정한다.

제41조(재원)

체육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2조(잉여금의 처리)

체육회의 매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3조(재산의 관리)

- ① 체육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체육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체육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체육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 전라남도의 조례 등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체육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회원단체의 임·직원



2. 체육회의 임직원과「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체육회 및 회원단체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제45조(회계연도)

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 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전라남도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체육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라남도과 긴밀한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감사 등)

- ① 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 ② 체육회는 회원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 ③ 체육회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8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 ①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는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관련 규정 및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대한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으며,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거나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대한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④ 제2항과 대한체육회 주무부처장관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대한체육회의 '감사규정'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9장 사무처

제49조(사무처)

- ① 체육회는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④ 체육회는 임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⑥ 사무처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사무처 직제 등)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50조의2(시·군체육회장의 협의회)

- ① 체육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시·군체육회는 지방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단체의 장들로 구성된 전라남도 시·군체육회장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회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회 명칭
 3. 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방체육발전에 관한 의견을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 또는 체육회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해산)

- ① 체육회는 재적대위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설립인가 취소로 해산한다.
- ② 체육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전라남도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체육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정관의 변경)**

- ①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이하 “시·도체육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관을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 ② 체육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고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체육회 총회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의 정관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에 대해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3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① 체육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한다.
- ② 체육회는 규정의 제 개정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대한체육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체육회의 정관 및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정의 해석 등)

- ①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이하 ‘시·도체육회 규정’이라 한다.)은 이 정관에 우선하며, 이 정관과 시·도체육회 규정이 상이할 경우, 반드시 시·도체육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② 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정관, 시·도체육회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대한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규정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한체육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 등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한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의결할 권리
2. 대한체육회장 선거인 후보자 추천 권리
3. 대한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4. 대한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5. 대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는 권리
6. 대한체육회 재정 지원
7. 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
8. 국제대회 유치

제56조(경영공시)

- ① 체육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21. 3. 29.)



597

전라남도체육회 법인 표준정관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 · 의무 · 재산 및 회원의 승계 등)

설립 등기한 체육회는 법인설립 이전 '전라남도체육회'의 모든 권리 · 의무 · 재산 및 회원을 포괄 승계하며, 법인설립시 이전 '전라남도체육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 ① 이 정관 시행 전 체육회의 법인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체육회의 임 · 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1항에 따른 체육회의 임 · 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 하고 임기의 만료일은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하고 감사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 ③ 이 정관 시행 당시 (구)전라남도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7580호)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 ④ 체육회의 임원(당연직 공무원 및 사무처장은 예외로 한다)의 연임횟수에는 (구)전라남도체육회 및 (구)전라남도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연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 ⑤ 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임원의 연임횟수에는 (구)전라남도경기단체와 (구)전라남도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연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라남도 체육 연표 (1945년~2020년)

1945년

- 9. 10 광주정구협회 창립(초대회장 이은상 추대)
- 9. 25 전남육상경기연맹 창립(조흥은행 광주지점, 초대회장 지계선)
- 11. ? 자전차연맹전남지부 창립(초대회장 차행철)

1946년

- 2. ? 전남정구연맹 창립(초대회장 송화식)
- 5. ? 전남체육회 발기인총회 개최(광주시 불로동 '신광원')
- 5. ? 전남야구협회 창립(초대회장 조영준)
- 7. ? 역도연맹전남지부 창립(초대회장 차영철)
- 8. 15 전남체육회 창립총회 개최(초대회장 주봉식)
- 10. 5~6 올광주대 올 전주 야구 · 농구대회(전남체육대회) 개최
- 10. ? 해방1주년기념 제1회 남조선 축구대회 광주체육회와 호남신문사 공동주최로 개최

1947년

- 5. ? 조선농구협회전남지부 창립(초대회장 강약한)
- 5. ? 전남배구협회 창립(초대회장 조규찬)
- 6. 18 광주육상경기연맹 창립

1948년

- 9. 9~12 제1회 전남체육대회 겸 제29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예선대회(전남체육회 주최, 전라남도 보건후생국 · 호남신문 등 후원, 광주, 11개종목)
- 10. 20 제2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서울) 역도 전남 3위

1949년

- ? 전남경찰국 검도부 창설
- 6. ? 전남체육대회장 추대(전남도청회의실, 16개 경기단체대표 30여명 참석)

1950년

- ? 전남체조협회 창립(초대회장 차준철)
- 3. 11 전남궁도협회 창립(초대회장 최한영)

1951년

- 5. 1 제3대 박철수 전남체육협회장 취임
- 10. 27 제3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광주. 종합성적 전남 1위)
- 12. 17 제4대 이을식 전남체육회장 취임

1952년

- 2. 20 헬싱키 올림픽 파견 마라톤 선발대회(대구) 김연범(18) 2위 입상
- 3. 29 헬싱키 올림픽 후원회전남지회(전남도지사실) 결성. 배정액 4천8백만원 각출

1953년

- 5. 19 전남탁구협회장 선출(홍용구)
- 9. ? 전남수상경기연맹 창립(초대회장 최성준)
- 11. 23 제5대 추규영 전남체육회장 취임

1954년

- 3. 1 '광주공설운동장설치 추진위원회' 결성
- 10. 3 제2회 전남북대항친선축구대회 개최(광주공설운동장)

1955년

- 2. 25 제6대 민병기 전남체육회장 취임
- 7. 2 백세정구구락부 결성. 제1회 백세정구대회 개최(광주금연코트)
- 9. 24 전남도 문정당국, 국민체위향상과 학도의 보건을 위해 각교육구청에 교육행정관을 두도록 시달.
제7회 전남체육대회 겸 제36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예선대회 개최
- 10. 15~22 제36회 전국체육대회(서울)에 참가. 종합성적 전남 6위
- 10. 24 광주공설운동장 육상경기장 준공. 개장기념 육상경기대회 개최

1956년

- 9. 17 전남체육회 부회장 김복실 사망. 9.20 '전남체육회 장'으로 거행
- 9. 24 제7대 이기세 전남체육회장 취임
- 12. 9 1957년 봄에 착공할 광주시체육관 기초공사비 백만원 예산안 의결(광주시의회)

1957년

- 1. 24 제4회 아시아탁구대회 여자개인전에서 1위 최경자 2위 위쌍숙, 여자부단체전 2위
- 5. 11 제1회 중고등학교대항 전남축구대회 광주고 운동장에서 개최.
주최 재경전남학우회 주관 전남축구협회. 후원 전남체육회
- 7. 17 제1회 광주학생육상경기대회를 '광사(光師)'운동장에서 개최
- 9. 21 제9회 전남체육대회를 개최



1958년

- 4. 4 전남체육회 정기총회를 광주 YMCA 홀에서 개최. 전남도지사 이기세의 회장직 사임으로 후임 8대회장에 전남일보사장 김남중 선출
- 6. 10 전남체육회 제3회 아시아 경기대회에 출전하고 귀국한 전남출신 선수 환영대회 광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 12. 25 광주시내 '하니문'에서 전남배드민턴협회 창립총회 개최. 초대회장에 이창업 선출

1959년

- 2. 17 전남체육회 제2회 이사회의 '문화회관'에서 열고 전남선수의 실력향상을 목적으로 '우수 선수상당소' 설치하기로 의결
- 2. 19 대한체육회, 전남의 김양중(야구) 김기수(권투) 두 선수를 '58년도 최우수선수'로 표창
- 11. 5 제1회 전남북학생 친목체육대회를 전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1960년

- 4. 17 전남노동(老童)정구구락부 창립. 회장에 윤준영
- 5. 10 광주시내 '오두막'에서 '전남펜싱협회' 창립총회를 개최, 초대회장에 신용근을 선출
- 6. 6 전남학생육상경기연맹창립총회 광주시내 종합운동구점에서 개최
- 9. ? 전남하키협회 창립. 초대회장에 양준한 추대

1961년

- 1. 3 전남체육회 정기총회 YWCA홀에서 열고 임원개편. 제9대 회장에 민영남(전남도지사) 선출
- 6. 8 전남체육회, 광주 YWCA홀에서 이사회의 개최 회장에 송호림(전남도지사) 추대.
5·16군사혁명축하 군관민대운동을 개최하기로 결의
- 7. 21 전남체육회, 사회체육참여책으로 도내 각대학, 주요기관, 단체 및 기업체에 경기종목 지정하고 각 경기단체에 기술전문위원회(21명)의 구성과 불상사방지 6개항 시달
- 11. 3 광주학생독립운동 32주년 기념 전남북대항친선체육대회 개최

1962년

- 5. 18 ~ 19 5·16군사혁명 1주년기념 전국시도대항체육대회 전남체육회 주최로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 5. 26 제2회 전남·북친선체육대회 전남·북계엄사무소 주최로 전주에서 개최. 14개 종목
- 8. 21 관선6·25전부터 존재했던 청도관, 오도관, 무덕관, 창무관 등에서 2명씩의 대표가 광주 YMCA 체육관에 모여 '태권도협회 전남지부'를 결성, 초대회장에 전철 선출
- 9. 30 추계 도내시군대항체육대회(제1회 전남도민체육대회) 목포시 개최
- 12. 20~23 대한씨름협회와 전남체육회공동주최로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1963년

- 3. 12 대한체육회. 지방체육의 강화 및 국민체육향상을 목적으로 시 군 읍 면 단위까지 체육회 조직하도록 시달. 임원은 회장1, 부회장2, 이사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
- 3. 16 전남학도체육대회에 대학부 신설 결정
- 3. 29 제1회 전남학도종합체육대회 겸 체육장학생선발대회 개최
- 5. 31 ~ 6. 2 대한체조협회주최 제18회 전국체조선수권대회 광주교에서 개최
- 9. 2 제44회 전국체육대회2차예선대회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 10. 13 전남체육회부회장 이창업씨(광주교육대학장) 순직(11일). 전남체육회 전남도교육위원회 광주교육대학 광주서중동창회에서 합동장의식을 거행
- 12. 12 전남도지사실에서 광주 시내 기관장들이 모여 65전국체육대회 광주 개최준비 위한 광주 종합경기장 및 실내경기장 건설추진위원회 구성
- 12. 19 제12대 전남체육회장 신용우(전남도지사)취임

1964년

- 3. 31 전남체육회 이사회의 동회사무실에서 개최 / 제4회 시군대항 체육대회 4. 29 ~ 30 여수 개최 결정. 육상 축구 등 9개 종목
- 4. 9 추계전남종합체육대회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임원선수 1,600명 참가
- 5. 4 제4회 시군대항체육대회(제3회 전남도민체육대회) 여수에서 개최
- 5. 5 일본동경올림픽 파견 마라톤 선수최종선발전에서 1위에 이상훈, 2위에 김연범
- 6. 2 전남체육회이사회의, 임원을 보선
- 10. 4 정재수 등 전남체육회 기관인사 5명 재일교포초청으로 동경올림픽 경기를 참관하기로 의결
- 10. 10 전남학교체육회 창립총회 전남여고강당에서 개최. 도내체육담당교사 백여명 참석

1964년

- 2. 23 전남체육회사무실 광주시 금남로2가로 이전
- 3. 8 광주공설운동장 야구장건설공사 착공
- 3. 16 광주실내체육관 기공식 거행
- 6. 28 광주종합경기장안에 수영장 신설하기로. '호비(湖肥)서 2백만원 기증
- 8. 31 육군본부 육군소속 선수들의 제46회 전국체육대회출전을 금지하라고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지시
- 9. 1 전국체육대회준비위원회 합동기획부 시무식을 체육회 회의실에서 거행
- 9. 2 전남체육회, 긴급이사회의를 열고 전국체육대회신청마감을 1주일 앞두고 군인선수 출전을 금지함으로써 대회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대한체육회에 건의하고 수락이 안될 경우에는 대회를 보이코트하기로 결정
- 9. 6 군인선수의 출전금지조치 전면해제
- 9. 7 야구장 스코어보드가설비로 '보해양조'에서 23만원 기부
- 9. 16 전남선수합숙훈련 시작. 광주여고교정에서 입소식



- 9. 20 전남체육회, 각부서별로 '모의전국체육대회'를 실시하고 9·24, 10·2 두 차례 종합경기장에서 여행연습을 하기로
- 10. 5 제46회 전국체육대회개회장인 광주종합경기장의 정문이 개회식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인파에 밀려 오전 5시55분경 도복, 압사 12명 중경상 53명 발생
- 10. 5 ~10 전남체육회와 전남도 주관 제46회 전국체육대회(광주)
전남 종합성적 2위

1966년

- 1. 28 전남체육회 정기대의원총회 전남도청회의실에서 개최. 제3대 회장에 김보현(전남도지사)취임
- 2. 27 대한체육회 '65체육상(최우수단체상)' 광주여고핸드볼팀 수상.
- 6. 12 제20회 전국육상선수권대회 겸 제5회 아시아 대회파견 3차선발대회 여자 100m경기에서 조대여중 정순남이 12초4로 한국신기록 수립. 9·24최종선발대회에서도 12초3으로 또다시 한국신.
- 7. 15 제6회 전남도민체육대회(후일 제5회대회로 횡수조정)를 광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 광산 영암 강진 등 3개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임원선수 1,500명 참가
- 12. 5 대한체육회, 제47회 전국체육대회사진전시회를 광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

1967년

- 1. 20 ~29 호남비료 여자농구팀 일본원정 8전6승2패
- 4. 27 대한체육회 산하 11개 시도지부전무이사들은 4·28의 전무이사회의에 앞서 예비회의를 갖고 ①체육행정의 일원화 ②63년에 폐지된 각 지부의 대의원 권한부활 안을 제출하기로 결정

1968년

- 3. 1 대한체육회, 학교체육회, 올림픽 위원회를 통합한 새 '대한체육회' 발족. 체육회시도 지부와 학교체육회지부도 통합
- 4. 16 전남체육회 이사회의, 사무국장 황남규 임명동의.
- 4. 25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68육상기록회 남자부 투창에서 박수권(호비) 70m로 한국신기록 수립
- 12. 10 대한육상경기연맹 '68육상 5걸'에 정순남(조대여고) 박석관(전남) 선정

1969년

- 2. 20 대한핸드볼협회 '68핸드볼단체상'에 조대부고 등 7개 팀·5개 부문 13명 표창
- 10. 25 제14대 전남체육회장에 김재식(전남도지사) 취임

1970년

- 7. 24 제7회 전남도민체육대회(후일 제9회대회로 횡수조정)겸 제51회 전국체육대회예선대회
광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 임원선수 2천여명 참가
- 9. 1 전남체육회, 제51회 전국체전전남대표후원회 결성. 회장에 김남중 선임. 체전출전경비
부족액 760만원 모금 결의.

1971년

- 1. 23 전남야구협회와 전남연식야구협회 '광주관광호텔'에서 통합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전남야구협회'로 통합
- 3. 27 전남체육회 이사회의, 사무국장에 정현규 임명 동의. 이사 9명 보강
- 4. 21 문교부, 조오련(수영·양정고·전남 해남출신)에 체육상 수여
- 5. 4 전남체육회, 사무차장에 박상인 임명
- 7. 6 전남체육회, 이사회의열고 임원보선, 상임부회장에 박진동 선임
- 12. 24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공로상에 정순남(조대여고) 선정

1972년

- 6. 16 ~ 13 제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서울) 참가. 종합성적 8위
- 8. 25 전남체육회진흥대책회 발족. 회장에 김재식, 부회장 최정기 광성범 박인 윤영표, 간사장
박진동, 간사 정현규 타도에서 스카웃 해 간 30명의 전남출신 선수에게 9·5까지 직장을
알선하여 주기로 결의

1973년

- 3. 15 전남공립체육중학교 개교. 첫 입학생 120명
- 6. 1 ~ 4 제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대전)에 참가. 종합성적 5위
- 7. 7 제10회 전남도민체육대회(후일 제12회대회로 횡수조정) 광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임원선수 3,000여명 참가
- 11. 6 전남체육회장 허련, 체육회 임원개편 발표. 부회장에 최정기 이상환 박윤종(상임),
사무국장 황남규, 이사 26, 감사 3
- 12. 31 전남체육회사무실 광주시 서구 구동 광주실내체육관에서 금남로3가 2의 2 주택은행
광주지점으로 이전

1974년

- 3. 24 제45회 동아마라톤 대회(종암동 ~ 의정부 왕복)에서 문흥주(건국대·전남)선수
2시간16분15초F(한국신)로 1위
- 9. 12 제7회 아시아경기대회(테헤란) 육상 1,500m 3위 박석관(전남) 3분52초74로
한국신기록 수립



1975년

- 1. 10 전남체육회 사무국장에 나봉주 임명
- 2. 4 전남체육회 전남체육진흥 3개년 계획안 확정
- 3. 23 제46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1위에 문흥주(건국대·전남출신) 2위 오문수(조선대)
- 11. 13 제16대 전남체육회장에 고건(전남도지사) 취임

1976년

- 1. 13 대한핸드볼협회 '75년도최우수팀'으로 조대부고팀을, 우수선수에 윤종택(조대부고) 선정
- 1. 30 전남체육회 제1차 이사회의를 전남도청회의실에서 개최. 정기대의원총회결과 보고받고 사무국장에 전철 임명 동의. 또한 ①상임이사 선출 및 선수강화위원 위촉 ②학교체육·사회체육위원장 지명 ③체육진흥에 관한 의견교환안 등 심의, 의결

1977년

- 1. 4 대한체육회 '76년도 우수단체상'에 광주여상고 선출
- 8 전남사격연맹 무등산사격장 폐쇄, 광주시 일곡동에 지방에서는 최초로 클레이사격장 신설. 공기총사격도 병설
- 10. 10 ~ 15 제58회 전국체육대회(광주) 개최. 전남체육회 주관. 전남팀 종합성적 6위

1978년

- 11. 10 전남체육회장 고건, 이사진의 일괄사퇴로 공식종인 사무국장에 성용규 임명

1979년

- 1. 10 제17대 체육회 회장에 장형태(전남지사) 취임
- 2. 2 전남체육회 체육진흥대책심의회와 열고 연내로 체육진흥기금 13억원을 범도민 모금운동으로 조성하기로 결정. 2.15까지 실업팀 창단
- 3. 24 전남조정협회 전남체육회 회의실에서 창립. 초대회장에 박남순

1980년

- 5. 28 전남체육회 제18대회장에 김종호(전남지사) 취임
- 8. 10 제3회 국제소년검도대회(하와이)에서 광주서석고 박중채 김호문 1·2위 입상
- 11. 18 전남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상임부회장 박관주 선출
- 12. 25 전남체육회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제 폐지

1981년

- 3. 14 '전남체육회관' 기공식 광주시 서구 구동 현장에서 거행
- 4. 11 전남롤러스케이팅연맹 창립. 초대회장에 김영연



7. 17 ~ 8. 25 제1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 해외시찰 본회 상임부회장 박관주를 단장으로
7명 7개국 체육정책과 시설 등 시찰

1982년

1. 8 전남체육회 제19대 회장 김창식 취임
2. 6 전남볼링협회 창설. 초대회장 고제철
11. 20 전남체육회 사무실 광주은행 남부지점(광주시 동구 광산동 73의 1)에서 신축
'전남체육회관'(광주시 동구 구동 7)으로 이전
12. 21 전남체육회관 준공
12. 26 전남체육회관 준공식 거행

1983년

2. 5 국궁과 양궁의 분리에 따라 전남궁도협회와 양궁협회가 정식 발족
2. 18 전남요트협회 여수시 관문동 파크호텔에서 창립. 초대회장에 정채호 선출
3. 22 ~ 26 제13회 경호역전(京湖驛傳)마라톤대회에서 전남팀 1위(27시간55분17초)
3. 23 전남양궁협회 첫 임원구성, 초대회장에 이국현 선출

1984년

1. 19 전남체육회, 새 집행부 구성 발표. 회장 김창식 부회장 김낙운 김양배 박관주(상임)
사무국장 정현규 이사 24명 감사 3명
3. 24 전남궁도협회 선수훈련장을 광주시 매곡동 487의 2번지(도교위광장)에 개설
6. 16 전남카누협회, 목포시 옥암동 영산호카누경기장에서 발족, 초대회장에 이장용 선출
10. 10 전남체육회 제20대 회장에 전석홍(전남지사) 취임
11. 30 제14회 대통령기 쟁탈 통일역전마라톤경주대회(전주 ~ 서울)에서 전남팀이
49시간58초50으로 1위

1985년

1. 20 전남근대5종 바이애슬론 경기연맹 창립. 부회장에 유재영. 황인규 선출
11. 25 전남체육회 '86년도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하여 일반부육성계획안' 마련. 육상(농협도회)
수영(화니백화점) 탁구(여천시청) 배드민턴 (금성시청) 롤러스케이팅(여수시청) 볼링(순
천시청) 조정(장성군청) 요트(여수시청) 등

1986년

1. 8 여수시청, 국내 최초 요트실업팀 창설
1. 10 전남골프협회, 전남체육회관에서 창립. 초대회장에 박헌동 선출
2. 22 해남관광 회의실에서 전남스키 협회 발기총회(정순택 등 13명 참가)
6. 11 전남스키협회, 체육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회장에 김봉한 선출(11. 1 광주직할시에 이관)



- 9. 12 전남체육회 제24차 이사회의 체육회회의실에서 갖고 광주직할시 승격에 따른 체육회 분리에 관한 안건을 토의 의결
- 10. 20 전남체육회와 광주직할시 체육회 분리준비위원회를 전남지사실에서 개최하고 분리지침 협의, 현 집행부 임원을 전남과 광주로 연고에 따라 선임(전남 16명 · 광주 18명)
- 11. 1 전남체육회, 광주직할시 체육회와 분리. 사무실은 광주직할시 서구 구동 9번지 전남체육 회관에 그대로 존치
- 11. 22 전남체육회 이사회의, 체육회 사무국장에 차장 이재인 재임동의

1987년

- 6. 30 목포실내체육관 착공(1980년 12월 27일) 7년만에 현대식건물로 완공
- 9. 15 송하 롤러스케이팅경기장 준공(준공식과 기념 시범경기 개최)
- 9. 23 나주 사이클경기장 준공(공기(工期) 86.8.24 ~ 87.9.23)개장
- 10. 1 영산호 카누경기장에서 생활관 및 정고(艇庫)준공식 및 카누 경기장 개장기념 카누경기 대회 개최
- 10. 2 여천시 소호동에 국제규모의 요트경기장 준공식 (공기 86년 6월 30일 ~ 87년 8월 30일) 거행
- 10. 13~8 제68회 전국체육대회 전남 · 광주에서 개최

1988년

- 1 송정시가 광주직할시로 편입됨에 따라 송정시청 사이클팀을 나주군청 소속으로 이적
- 1. 31 전남요트협회 선수단 합숙소를 여천 요트경기장에 건립
- 2. 29 전남체육회 제21대 회장에 문창수(전남지사)취임
- 7. 30 강진역도경기장 착공(88년 1월) 6개월만에 준공(공사비 5천만원)
- 10. 5 전남체육회 제22대회장 송언중(전남지사) 취임
- 10. 14 제24회 서울올림픽출전 전남출신 국가대표선수 도민환영대회 목포에서 개최

1989년

- 1. 19 시군취업 우수선수 상견례 및 간담회 (104명) / 도체육회 회의실
- 1. 31 체육지도자 협의회 (31종목 36명) / 도체육회 회의실
- 2. 16 정원강 상임부회장 선임
- 3. 23 여수수산대 씨름단 창단 (선수 57명)
- 4. 11 ~ 13 전남체육 진흥을 위한 지역별 간담회(목포등 4개지역)
- 4. 21 영산포 여상 사이클팀 창단 (선수 4명)
- 4. 25 전남검도회관 준공식(목포 유달경기장내 조림식 건물)
- 4. 28 국민체조 및 청소년체조강습회 개최
- 5. 3 동광양시체육회 가입 승인
- 5. 8 목포 제일여고 배구팀 창단(선수 10명)

- 5. 9 ~11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4개 종목) / 목포시
- 5. 24 ~26 '89 전남소년체육대회 겸 제4회 학도종합체육대회 (26개 종목) / 순천시 외
- 8. 22 ~30 제15회 뒤스부르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서독) / 12위
- 9. 26 ~10. 1 제7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4개 종목) / 경기도 / 7위
- 12. 12 목포신명여상 탁구부 창단 (선수 6명)
- 12. 26 전남스키협회(정가맹), 전남 수상스키협회(준가맹) 승인

1990년

- 1. 9 전남체육사 출판기념회
- 2. 7 여수시청 육상팀 창단 (선수 9명)
- 2. 18 제71회 동계체전 전남대표 첫출전 (28명) / 14위 (광주10위)
- 4. 25 도민체전 입장상 부활(87년부터 폐지)
- 5. 10 ~12 제2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4개 종목) / 여수시
- 5. 24 ~26 '90 전남소년체육대회 및 제15회 학도종합체육대회(26개 종목) / 목포시 외(시군단위대회로 전환)
- 6. 21 제25대 최인기 회장 취임(전문체육)
- 8. 22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 발기인 대회(도청 회의실)
- 8. 22 전라남도, 시군생활체육협의회 결성(전남회장 (이윤채))
 - 27개 시·군생활체육협의회 구성
 - 5개 도종목별연합회 결성(궁도, 배구, 축구, 탁구, 테니스)
- 9. 22 ~10. 7 제11회 북경 하계아시아경기대회 / 2위
- 10. 15 ~21 제71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5개 종목) / 충청북도 / 8위
- 10. 30 나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개관
- 11. 2 ~3 제1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5개부 7종목) / 나주시
- 12. 29 전남체육회 이재인 사무국장 대통령 표창

1991년

- 생활체육 광장 사업 시작
- 1. 17 광주, 전남 합동 소년체전 개최 협의 (5.28~30 광주)
- 2. 19 제26대 백형조 회장 취임(전문체육)
- 3. 14 구례여중, 구례고 여자하키팀 창단
- 3. 27 광양여고 축구팀 창단
- 3. 28 해남송지중·송지고 여자축구팀 창단
 - 해남 화원중·고 여자축구팀 창단
- 3. 29 고흥농고 레슬링팀 창단
- 3. 30 쌍봉남초등학교 요트팀 창단
- 4. 12 ~13 제2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4개부 7종목) / 여천시



- 5. 1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 현판식 및 사무처 개설
- 5. 4 순천이수중 야구부 창단
- 5. 7 ~9 제30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4개 종목) / 순천시
- 5. 28 ~30 제20회 광주전남소년체육대회 (26개 종목) / 전남, 광주
- 6. 17 생활체육전남(생활체조, 게이트볼, 배드민턴)연합회 결성
- 7. 14 ~25 제16회 웨필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영국) / 7위
- 8. 27 순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설치 건의(교육부, 체육청소년부)
- 10. 7 ~13 제7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5개 종목) / 전라북도 / 8위
- 10. 31 ~11. 1 제16회 전남학도종합체육대회 개최 / 목포등 6개 시군
- 11. 5 ~6 제3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5개부 10종목) / 목포시
- 12. 11 담양남초등학교 축구팀 창단
- 12. 20 목포산정초등학교 축구팀 창단
- 12. 21 나주고, 영산포여중, 노안중 펜싱팀 창단

1992년

노인생활체육대학 운영

- 4. 21 제27대 이호계 회장 취임(전문체육)
- 2. 26 ~28 제73회 동계체전 참가 / 11위(스키, 바이애슬론)
- 4. 28 ~30 제31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5개 종목) / 나주시
- 5. 4 순천대학교 정구(남자), 배드민턴팀 창단
- 5. 10 제1회 영호남 친선 생활체육대회 / 순천 팔마체육관
- 6. 13 ~16 제2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26개 종목) / 서울 외 4곳
(전국대회로 전환)
- 6. 15 이재인 상임부회장 선임
- 7. 30 생활체육전남원드서핑연합회 결성
- 7. 25 ~8. 9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 (스페인)
- 8. 17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 전남출신 선수단 범도민 환영대회(세계 7위 기여)
- 10. 2 광양제철 축구전용구장 완공(국내 2번째)
- 10. 10 ~16 제7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5개 종목) / 대구광역시 / 7위
- 10. 27 ~28 제17호 전남학도종합체육대회 / 순천시
- 11. 1 생활체육전남족구연합회 결성
- 11. 5 ~6 제4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6개부 12종목) / 해남군

1993년

주부생활체육교실, 여성건강강좌, 장수체육대학, 레크리에이션교실 사업 시작

- 1. 14 전남생활체육협의회 이윤채 회장 재선임
- 1. 26 제1회 전남스키협회장기대회 개최 / 무주리조트



- 2. 4 광양제철소 아톰즈 제2전용구장 개장식(2만석 규모)
- 2. 17 ~19 제7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4개 종목) / 서울,강원 / 13위 - 첫출전
- 3. 3 광양 제철남초등학교 · 제철중 축구팀 창단
- 3. 4 제28대 이균범 회장 취임(전문체육)
- 3. 15 구례중앙초등학교 축구팀 창단
- 4. 20 제97회 보스턴마라톤대회(한전 김재룡 2위, 고흥)
- 5. 4 순천여고 정구팀 창단
- 5. 8 나주 금성고 사이클팀 창단 (8명)
- 5. 11 ~13 제32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5개 종목) / 목포시
- 5. 16 제2회 영호남 친선 생활체육대회 (7개 종목 300여명) / 대구
화순 이양중고 남녀 롤러팀 창단
- 5. 28 ~31 제2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26개 종목) / 서울,경기
- 6. 19 전남 세팍타크로협회 창립총회(김성수 회장 취임)
- 6. 21 제20회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유치 / 순천시 / 이집트:중국,한국:멕시코
- 7. 8 ~18 제17회 버팔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미국) / 13위
- 7. 21 여수미평초등학교 야구팀 창단
- 9. 3 한(전남) · 러(블라디보스톡) 아마추어 복싱 친선경기 / 여수진남체육관 / 10체급 13명씩
- 9. 9 ~10 제74회 전국체육대회 강습회(심판, 지도자 150여명) / 장성군 / 대한체육회 주최
- 9. 15 ~16 제5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6개부 12종목) / 광양시
- 9. 23 생활체육전남정구연합회 결성
“조오련” 전남체육회 방문(격려금 전달 100만원)
- 10. 11 ~17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5개 종목) / 광주광역시 / 10위
- 10. 16 구례군 씨름팀 창단(17명)
- 10. 29~11.1 제2회 한일 친선 육상경기대회 파견(전남 55명) /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
- 11. 23 순천효천고 야구팀 창단
- 12. 17 생활체육전남볼링연합회 결성

1994년

- 1. 16 김일 선수 후원회 결성
- 2. 2 ~4 제7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4개 종목) / 서울,강원 / 13위
- 4. 4 광주 · 전남아마바둑연맹 창립총회
- 4. 21 강진병영상고 근대5종, 태권도(여자)팀 창단
- 5. 11 ~13 제33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5개 종목) / 해남군
- 5. 28 ~30 제2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26개 종목) / 광주광역시
- 9. 24 제30대 조규하 회장 취임(전문체육)
- 10. 2 ~16 제12회 히로시마 하계아시아경기대회 / 3위
- 10. 20 ~21 제6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6개부 13종목) / 순천시
- 10. 27~11.02 제7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5개 종목) / 대전광역시 / 11위



1995년

유명선수 축구교실 사업 시작

- 1. 1 시·군 행정조직 통합(24개 시·군생활체육협의회)
- 1. 20 화순군청 배드민턴(여자)팀 창단
- 2. 7 ~ 09 제7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4개 종목) / 서울, 강원 / 13위
- 3. 3 광양시청 볼링팀 창단 (6명)
- 3. 11 순천 금당고 배드민턴팀 창단 (6명)
- 3. 20 동신대 태권도팀 창단 (11명)
- 3. 25 완도수산고 테니스팀 창단 (4명)
- 3. ? 목포해인여고 육상팀 창단 (9명)
- 4. 1 순천연향중 배드민턴팀 창단
- 4. 7 나주고 검도팀 창단 (5명)
- 4. 12 영광법성포초등학교, 법성중 축구팀 창단 (각20명)
순천공고 씨름팀 창단 (8명)
- 4. 18 여수구봉중 축구팀 재 창단 (18명)
- 4. 25 ~ 27 제34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5개 종목) / 여수시
- 5. 27 ~ 30 제2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26개 종목) / 대전광역시
- 7. 1 제31, 32대 허경만 회장 취임(전문체육)
- 8. 23 ~ 9. 3 제18회 후쿠오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일본) / 5위
- 10. 2 ~ 08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5개 종목) / 경상북도 / 9위
- 10. 24 ~ 25 제20회 전남학생 종합체육대회 (11개 종목) / 목포등 7개시군
- 10. 26 ~ 27 제7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6개부 13종목) / 완도군
- 11. 9 안주섭 상임부회장 선임

1996년

- 2. 14 ~ 16 제7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4개 종목) / 서울, 강원 / 10위
- 3. 20 광양제철고 축구팀 창단
- 3. 22 장성 사창초 수영팀 창단
- 3. 23 체육중·고 설립예산 283억3천만원 국고지원 건의
- 3. 25 순천남산중 탁구(여자)팀 창단
- 3. 28 여천중앙초 농구(남자)부 창단
- 3. 29 제3대 이봉길 회장 취임(생활체육)
곡성중 사이클부 창단
고흥 과역초 배구(남자)부 창단
- 4. 4 영광여중 유도부 창단
- 4. 9 보성군체육회 현판식
- 4. 16 무안종고·해제초·해제중 핸드볼(남자)팀 창단

- 4. 18 광양여중 축구부 창단
- 5. 9 ~11 제35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6개 종목) / 순천시
- 5. 25 ~28 제2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26개 종목) / 경상북도
- 7. 19 ~8. 4 26회 애틀란타올림픽 (미국)
- 9. 3 무안 망운중 축구부 창단
- 10. 07 ~13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5개 종목) / 강원도 / 9위
- 10. 17 ~18 제8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6개부 15종목) / 여주시
- 11. 7 무안 망운중 축구부 창단
- 12. 5 전남체육중 개교 1998년으로 연기

1997년

생활체육 동호인 사랑방 사업 시작(동호인 클럽 현황파악 및 등록)
 소외계층용구보내기 사업 시작(프로그램 순회지도 병행)
 즐거운주말리그 사업 시작(주말 종목별 리그 지원)

- 2. 12 ~14 제7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전북, 서울, 강원 / 10위
- 3. 29 목포 홍일고 유도팀 창단 (9명)
- 2. 19 제10회 대만, 아시아, 태평양 남녀고교 스포츠 초청전 유치(4개국 4팀) / 목포여상 배구 우승
- 3. 14 벌교상고 배구부 창단 (8명)
- 4. 11 여천 쌍봉초 배드민턴팀 창단
- 4. 24 ~26 제36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6개 종목) / 여천시
- 4. 25 장성고 검도팀 창단 (7명)
- 7. 1 순천시청 양궁(여자)팀 창단 (3명)
- 5. 24 ~27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29개 종목) / 강원도
- 8. 19 ~31 제19회 시실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탈리아) / 9위
- 10. 8 ~14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6개 종목) / 경상남도 / 11위
- 10. 25 ~26 제9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6개부 16종목) / 강진군
- 10. 28 ~29 제22회 전남학생 종합체육대회 / 여수등 7개 지역
- 12. 10 제4대 김정현 회장 선출(생활체육)
- 12. 29 제4대 김정현 회장 취임식

1998년

가족운동의 날 운영 사업 개발 보급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 시작

- 1. 전남도청 정구팀 창단 (지도자2, 선수8)
 전남도청 근대5종팀 창단 (지도자1, 선수5)
- 2. 26 ~28 제7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강원 / 10위
- 4. 01 3려시군 행정조직통합 (22개 시·군생활체육협의회)



- 4. 23 ~25 제37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5개 종목) / 목포시
- 5. 23 ~26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29개 종목) / 경상남도
- 9. 25 ~10. 1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6개 종목) / 제주도 / 8위
- 10. 25 ~26 제10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6개부 16종목) / 여주시
- 12. 6 ~20 제13회 방콕 하계아시아경기대회 / 2위

1998년

- 유명선수 탁구교실 사업 시작
- 2. 10 ~12 제8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강원 / 11위
- 2. 19 여수공고 복싱팀 창단 (14명)
- 3. 26 화순 도곡중 복싱팀 창단 (10명)
- 3. 27 회원단체 규정 명칭 변경(생활체육)
생활체육전남종목별연합회 ⇨ 국민생활체육전남종목별연합회
- 4. 27 ~29 제38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5개 종목) / 여주시
- 5. 3 국민생활체육전남낚시연합회 결성
- 5. 4 국민생활체육전남등산연합회 결성
- 5. 21 ~28 제1회 백운기 전국우수고교축구대회 (24팀 참가)
- 5. 24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 협정 체결
- 5. 25 국민생활체육전남골프연합회 결성
- 5. 29 ~6. 1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29개 종목) / 제주도
- 6. 9 국민생활체육전남농구연합회 결성
- 6. 18 국민생활체육전남씨름연합회 결성
- 6. 24 ~30 '99 한·일 생활체육교류 초청 / 순천시 (국민생활체육회 사업)
- 6. 27 '99 한일 친선 생활체육 정구대회 / 순천팔마정구장
- 6. 29 국민생활체육전남패러글라이딩연합회 결성
- 7. 2 국민생활체육전남단학기공연연합회 결성
- 7. 3 ~13 제20회 팔마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스페인) / 11위
- 8. 12 국민생활체육전남검도연합회 결성
- 8. 29 한일 친선 육상경기대회 참가 (전남64명) / 일본 오카야마현 구라시카시
- 10. 11 ~17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6개 종목) / 인천광역시 / 11위
- 10. 25 ~26 제11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6개부 16종목) / 장흥군
- 12. 3 국민생활체육전남줄다리기연합회 결성

2000년

- 1. 31 제5대 김정현 회장 선출(생활체육)
- 2. 14 허길남 상임부회장 선임
- 2. 16 ~18 제8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강원 / 11위



- 3. 3 전남체육중학교 설립 및 첫 입학 (9개 종목 58명)
- 3. 17 국민생활체육전남육상연합회 결성
- 4. 26 ~28 제3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5개 종목) / 해남군
- 5. 27 ~30 제29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29개 종목) / 인천광역시
- 7. 26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및 배치
- 9. 15 ~10. 1 제27회 시드니 올림픽 (호주) / 12위
- 10. 12 ~18 제81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8개 종목) / 부산광역시 / 11위
- 10. 25 ~26 제12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6개부 16종목) / 광양시
- 11. 09 국민생활체육전남태권도연합회 결성
- 11. 29 초당대학교 검도부 창단
- ` 김정현 전남생활체육협의회회장 대한민국체육상 수상

2001년

- 1. 18 해남고 육상팀 창단 (5명)
- 2. 21 ~23 제8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전라북도 / 12위
- 3. 9 동광양중 씨름팀 창단 (9명)
- 3. 15 순천청암고 테니스(여자)팀 창단 (6명)
- 3. 21 순천전자화학교 농구(남자)팀 창단 (12명)
- 4. 4 영암고 펜싱팀 창단 (3명)
- 4. 9 강진성화대학 축구부 창단 (2명)
- 4. 14 옥과고 탁구부 창단 (9명)
- 4. 25 ~27 제40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5개 종목) / 순천시
- 4. 27 곡성서초, 곡성여중 테니스팀 창단
- 6. 2 ~5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30개 종목) / 부산광역시
- 6. 15 ~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17개 종목) / 제주특별자치도
- 8. 22 ~9. 1 제21회 북경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중국) / 8위
- 9. 26 국민생활체육전남택견연합회 결성
- 10. 10 ~16 제8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8개 종목) / 충청남도 / 10위
- 10. 16 국민생활체육전남자전거연합회 결성
- 10. 25 전남체육회 김민수 사무처장 체육훈장(명호장) 수상
- 10. 25 ~26 제13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3개 종목) / 여주시
- 10. 30 ~31 제26회 전남 학생 종합체육체전 (17종목) / 순천시등 9개 지역
- 11. 11 남승룡 선생 추모기념 제1회 순천 단축 마라톤대회 / 순천

2002년

- 1. 10 전남지역 최초 국제축구심판 주심 탄생 (유병섭)
- 2. 8 ~24 제20회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대회 (미국) / 14위



- 2. 26 ~ 28 제8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경기, 강원 / 11위
- 3. 6 목포 대불대, 과학대 남녀배구팀 창단
- 3. 9 화순고 야구부 창단
- 3. 26 ~ 31 2002 코리아오픈 국제 배드민턴대회 개최 (18개국 참가) / 여수흥국체육관
- 4. 24 ~ 26 제41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7개 종목) / 목포시
- 4. 26 ~ 2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27개 종목) / 충청북도
- 5. 11 ~ 14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30개 종목) / 충청남도
- 5. 24 ~ 26 제3회 아시아 챌린지컵 4개국 아시아 남자배구 최강전 / 순천팔마체육관
- 7. 1 제33대 박태영 회장 취임(전문체육)
- 9. 29 ~ 10. 14 제14회 부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 2위
- 10. 25 ~ 26 제14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3개 종목) / 구례군
- 11. 09 ~ 15 제8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8개 종목) / 제주도 / 12위

2003년

- 1. 10 범 전남체육인연합회 발족(출범식)
- 1. 23 박재순 상임부회장 지명동의
- 2. 19 ~ 21 제8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대전, 강원 / 9위
- 4. 12 송민역도단 창단 (전남여고)
- 4. 15 ~ 18 제42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7개 종목) / 광양시
- 4. 30 국민생활체육전남보디빌딩연합회 결성
- 5. 7 전남체육고 개교 (신입생 70명, 2개 학급)
- 5. 24 국민생활체육전남합기도연합회 결성
- 5. 31 ~ 6. 3 제3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30개 종목) / 제주도
- 6. 14 ~ 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33개 종목) / 경상남도
- 6. 24 순천대 양궁(여자)팀 창단 (2명)
- 8. 21 ~ 31 제22회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3위
- 8. 27 LG칼텍스 정유 체육성금 기탁 (1억5천만원)
- 10. 10 ~ 16 제8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38개 종목) / 전라북도 / 7위
- 10. 16 ~ 17 제27회 전라남도 학생체육대회 (9개시군)
- 10. 25 ~ 26 제15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4개 종목) / 영암군
- 10. 30 ~ 31 제28회 전남 학생종합체육대회 / 순천시

2004년

- 2. 18 ~ 20 제8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전라북도 / 10위
- 2. 27 보성군청 역도팀 창단 (4명)
- 3. 11 제6대 박병열 회장 선출(생활체육)
- 3. 11 2008 제89회 전국체전 유치 제1차 추진위원회 개최

- 4. 29 초당대학교 농구팀 창단 (13명)
- 4. 11 ~14 제43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8개 종목) / 여수시
- 5. 29 ~3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34개 종목) / 광주광역시
- 5. 29 ~6. 1 제3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30개 종목) / 전라북도
- 6. 6 제34~36대 박준영 회장 취임(전문체육)
- 6. 12 ~18 제5회 세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대회(90개국 2,500여명) / 순천팔마체육관
- 7. 20 청소년클럽 스포츠단 창단 (농구, 수영, 배드민턴 초·중 360명)
- 8. 7 ~8 주말 가족 스포츠캠프 개최 (순천시, 25가족 100명)
- 8. 13 ~29 제28회 아테네올림픽 (그리스) / 9위
- 8. 14 ~ 제28회 아테네올림픽 참가 (그리스, 전남 16종목 31명 참가)
- 10. 8 ~14 제8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0개 종목) / 충청북도 / 7위
- 10. 25 ~27 제16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3개 종목) / 고흥군

2005년

- 2. 24 ~26 제8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강원도 / 8위
- 4. 21 ~ 22 영호남 생활체육 친선 축구대회 참가 (8개 시도) / 부산광역시
- 4. 25 ~28 제44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8개 종목) / 해남군
- 5. 14 ~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38개 종목) / 충청남도
- 5. 21 ~22 전남·서울 우호교류 시작 (4개 종목) /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 5. 28 ~31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30개 종목) / 충청북도
- 7. 26 ~29 제1회 국제 여자 소프트볼대회 (5개국 21개팀 / 순천 강남여고구장
- 8. 11 ~21 200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터키 이지미르) / 7위
- 10. 7 국민생활체육전남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 결성
- 10. 14 ~20 제8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1개 종목) / 울산광역시 / 9위
- 10. 24 ~26 전남·서울 우호교류 시작 (4개 종목) / 전남도민생활체육대회 초청
- 10. 25 ~27 제17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4개 종목) / 여수시
- 11. 23 여수시청 탁구(남자)팀 창단 (5명)

2006년

- 2. 1 ~4 제8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강원도 / 7위
- 2. 10 ~26 제20회 토리노 동계올림픽대회 (이탈리아) / 7위
- 3. 15 목포시청 육상팀 창단 (4명)
- 4. 14 ~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 (41개 종목) / 전라남도 (주최처지 : 여수시)
- 4. 25 ~28 제45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8개 종목) / 보성군
- 5. 25 나주대 여자야구팀 창단 (13명)
- 6. 17 ~20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30개 종목) / 울산광역시
- 6. 29 직장체육 지도자 강습회 (생활체육·직장체육지도자 100여명) / 순천시



- 8. 18 2006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8개종목) / 보성군
- 9. 13 ~14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신설 (5종목) / 순천시
- 10. 17 ~23 제8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1개 종목) / 경상북도 / 8위
- 10. 19 제7대 김한중 회장 선출(생활체육)
- 10. 25 ~27 제18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4개 종목) / 강진군
- 12. 1 ~15 제15회 도하 하계아시아경기대회 (카타르) / 2위
- 12. 15 해남군청 육상팀 창단 (5명)
- 12. 17 ~20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럽 교류대회 (6개시도 510명) / 목포시

2007년

- 2. 21 ~24 제8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경기, 강원 / 7위
- 3. 7 전남체육회 박병열 상임부회장 선임
- 3. 27 ~29 2007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 457팀 / 나주등 12개시군
- 4. 24 ~27 제46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8개 종목) / 강진군
- 5. 26 ~29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30개 종목) / 경상북도
- 6. 1 ~3 제36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43개 종목) / 울산광역시
- 6. 7 전남체육회 박병열 상임부회장 사퇴(도체육회 간부 살인사건 책임)
- 6. 1 ~14 동아시아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한국, 북한, 중국, 강진) / 강진군
- 8. 8 ~18 제24회 방콕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태국) / 5위
- 8. 8 ~24 제29회 북경 올림픽 (중국)
- 8. 16 ~22 제11회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행사(5개종목) / 목포시
- 10. 8 ~14 제88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1개 종목) / 광주광역시 / 12위
- 10. 25 ~27 제19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6개 종목) / 목포시
- 10. 28 제1회 코리아 스트롱맨컵 대회 / 영암공설운동장
- 11. 6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5종목) / 장성군
- 12. 7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 이전(광주→목포 하당지구 소재)

2008년

- 2. 19 ~22 제8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경기, 강원 / 8위
- 2. 27 제8대 이탁우 회장 선출(생활체육)
- 4. 1 국민생활체육전남당구연합회 결성
- 4. 22 ~25 제47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8개 종목) / 고흥군
- 5. 23 ~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46개 종목) / 대구광역시
- 5. 31 ~6. 3 제37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32개 종목) / 광주광역시
- 5. 31 ~6. 2 전남 · 서울 생활체육 우호교류 참가 (서울시)
- 7. 26 ~29 제3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16개시도 5,700여명) / 목포시
- 8. 8 ~24 2008 베이징올림픽 (전남선수 11명 참가) / 7위

- 9. 5 목포공고 축구팀 창단 (19명)
- 10. 10 ~16 제8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42개 종목) / 전라남도 / 3위
- 10. 15 국민생활체육전남(파크골프, 승마, 야구)연합회 결성
- 10. 25 ~27 제20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6개 종목) / 영광군
- 11. 6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5종목) / 완도군

2009년

- 2. 10 ~13 제9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경기, 강원 / 8위
- 2. 23 국민생활체육전남(풋살, 소프트볼)연합회 결성
- 3. 3 전남체육인재장학기금 조성 시행 (목표액 10억원)
- 4. 21 ~24 제48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18개 종목) / 영광군
- 5. 22 ~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50개 종목) / 전라북도
- 5. 30 ~6. 2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33개 종목) / 전라남도
- 7. 1 ~12 제25회 베오그라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세르비아) / 3위
- 7. 2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6종목) / 고흥군
- 7. 16 전라남도생활체육협의회 ⇨ 전라남도생활체육회로 명칭 변경
- 8. 23 ~29 제17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11종목) / 목포시
- 9. 8 영암군 민속씨름단 창단
- 10. 20 ~26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4개 종목) / 대전광역시 / 10위
- 10. 24 목포시청 축구팀 창단 (28명)
- 10. 25 ~27 제21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8개 종목) / 해남군

2010년

- 2. 2 ~5 제91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전북, 강원, 경남 / 8위
- 2. 12 ~28 제21회 밴쿠버 동계올림픽대회 (캐나다) / 5위
- 3. 24 국민생활체육전남(철인3종경기, 댄스스포츠)연합회 결성
- 4. 15 국민생활체육전남그라운드골프연합회 결성
- 4. 27 ~30 제49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20개 종목) / 화순군
- 6. 11 ~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50개 종목) / 부산광역시
- 7. 28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6종목) / 장흥군
- 7. 31 ~8. 1 조오련 추모 바다수영대회 (해남 땅끝 송호 해변)
- 8. 11 ~14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33개 종목) / 대전광역시
- 9. 6 국민생활체육전남(민속발리댄스, 윈드서핑)연합회 결성
- 10. 6 ~12 제91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4개 종목) / 경상남도 / 10위
- 10. 25 ~27 제22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16개 종목) / 순천시
- 11. 12 ~27 제16회 광주우 하계아시아경기대회 / 2위
- 11. 25 국민생활체육전남수영연합회 결성



- 12. 10 2010 광주 아시안게임 전남선수단 환영 행사 (도청 정약용실)
- 12. 30 전라남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정

2011년

- 2. 15 ~18 제9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전북, 강원 / 8위
- 4. 22 ~25 제50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22개 종목) / 나주시
- 5. 24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6종목) / 화순군
- 5. 28 ~31 제4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경상남도
- 8. 12 ~23 제26회 선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중국) / 3위
- 8. 16 국민생활체육전남(피구, 수상스키웨이크보드)연합회 결성
- 10. 6 ~12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5개 종목) / 경기도 / 11위
- 10. 25 ~27 제23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21개 종목) / 광양시
- 10. 28 ~3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51개 종목) / 인천광역시

2012년

- 2. 14 ~17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전북, 강원 / 7위
- 3. 26 전남생활체육회 · 전남교육청 학교체육 활성화 mou 체결
- 4. 24 ~27 제51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22개 종목) / 구례군
- 5. 11 ~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56개 종목) / 대전광역시
- 5. 26 ~29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경기도
- 7. 12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8종목) / 무안군
- 7. 14 ~15 2012 대한민국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 보성울포 해변
- 7. 25 2012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6개종목) / 함평공설운동장
- 7. 27 ~8. 12 제30회 런던 올림픽 (영국) / 5위
- 8. 24 ~27 2012 신안 자은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 개최
- 9. 12 ~14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14종목) / 경상남도
- 10. 11 ~17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5개 종목) / 대구광역시 / 12위
- 10. 25 ~27 제24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21개 종목) / 화순군
- 12. 21 국민생활체육전남요가연합회 결성

2013년

- 1. 8 전남생활체육회 · 순천시 업무협약 체결(생활체육)
- 1. 24 전라남도체육회관 준공(무안)
- 2. 18 ~21 제9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울산, 충남, 전북, 강원 / 8위
- 3. 12 전남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생활체육)
- 4. 17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8종목) / 해남군
- 5. 7 ~10 제52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22개 종목) / 장흥군

- 5. 23 ~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54개 종목) / 경상북도
- 5. 25 ~28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대구광역시
- 7. 4 전남 완도군과 업무협약 체결(생활체육)
- 7. 6 ~7. 17제27회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러시아) / 4위
- 7. 16 전라북도생활체육회와 업무협약 체결(생활체육)
- 8. 20 경기도생활체육회와 업무협약 체결(생활체육)
- 9. 3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생활체육)
- 10. 08 도민생활체육대회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으로 변경
- 10. 18 ~24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6개 종목) / 인천광역시 / 13위
- 10. 25 ~27 제25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1개 종목) / 해남군
- 12. 10 나주북초 야구팀 창단 협약

2014년

- 2. 7 ~23 제22회 소치 동계올림픽대회 (러시아) / 13위
- 2. 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결과발표(전남 1위)
- 2. 26 ~3. 1.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경기,충남,경북,강원 / 9위
- 3. 3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 3. 27 생활체육진흥법 신규 제정
- 3. 2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 4. 3 ~4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8종목) / 구례군
- 4. 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4.24~27.속초) 세월호 사고로 하반기로 연기
- 5. 7 ~10 제53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22개 종목) / 무안군
- 5. 24 ~5. 27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인천광역시
- 6. 28 생활체육진흥법 시행
- 7. 1 제35대 이낙연 회장 취임(전문체육)
- 7. 2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체결(생활체육)
- 7. 30 국민생활체육전남(줄넘기, 특공무술)연합회 결성
- 8. 22 ~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55개 종목) / 강원도 - 대축전 본상 수상
- 9. 19 ~10. 4 제17회 인천 하계아시아경기대회 / 2위
- 9. 3 김철신 상임부회장 선임
- 9. 30 제39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32개종목 2,116명) / 목포유달경기장
- 10. 2 국민생활체육전남카누연합회 결성
- 10. 25 ~27 제26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3개 종목) / 구례군
- 10. 28 ~11. 3제95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7개 종목) / 제주도 / 12위
- 12. 29 전남생활체육회 박용수 회장권한대행 선출



2015년

세한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 2. 25 ~ 28 제9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5개 종목) / 서울, 울산, 인천, 전북, 강원 / 10위
- 2. 27 한려대학교 하키팀 창단 (13명)
- 3. 2 완도군청 역도팀 창단 (2명)
- 3. 6 제10대 허정인 회장 선출(생활체육)
- 3. 18 순천복성고 우수팀 창단 (3명)
- 4. 9 ~ 10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8종목) / 무안군
- 4. 27 ~ 30 제54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20개 종목) / 진도군
- 5. 14 ~ 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56개 종목) / 경기도
- 5. 30 ~ 6. 2 제4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제주특별자치도
- 6. 3 ~ 5 전남 · 경북 우호교류 시작 (5개 종목) /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 7. 3 ~ 7. 14 제29회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 1위
- 10. 16 ~ 22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7개 종목) / 강원도 / 12위
- 10. 25 ~ 27 제27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3개 종목) / 무안군
- 10. 26 ~ 28 전남 · 경북 우호교류 시작 (5개 종목)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초청
- 12. 17 고흥군청 볼링팀 창단 (6명)

2016년

- 1. 전라남도 근대5종팀 창단 (지도자1, 선수6)
전라남도 카누팀 창단 (지도자1, 선수5)
- 2. 23 ~ 26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7개 종목) / 서울, 경기, 강원, 인천, 경북 / 10위
- 2. 26 (통합)전라남도체육회 창립총회
- 4. 19 ~ 20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8종목) / 진도군
- 4. 22 ~ 25 제55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21개 종목) / 해남군
- 5. 20 전라남도체육회 제1차 이사회 개최(통합)
- 5. 26 ~ 2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46개 종목) / 서울특별시
- 5. 28 ~ 31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강원도
- 8. 5 ~ 21 제31회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브라질) / 8위
- 10. 07 ~ 13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7개 종목) / 충청남도 / 14위
- 10. 11 곡성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 10. 25 ~ 27 제28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3개 종목) / 진도군

2017년

- 1. 20 김홍식 상임부회장 선임
- 2. 9 ~ 12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7개 종목) / 서울, 경기, 강원, 경북 / 9위
- 3. 나주시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3. 17 2017년을 빛낸 도전한국인 체육부분 대상 수상(보성출신 김길두 대한볼링협회장)
4. 4 ~5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8종목) / 순천시
4. 14 세한대 축구팀(여자) 창단 (16명)
4. 20 ~23 제56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22개 종목) / 여수시
5. 27 ~30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충청남도 / 34종목 1,149명 참가
6. 8 ~11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43개 종목) / 제주특별자치도
7. (순천, 광양시)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7. 5 김갑섭 전남체육회장 권한대행(도지사 권한대행) 추대
8. 19 ~8. 30 제29회 타이페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만) / 2위
9. 20 김홍식 전남체육회장 직무대행(상임부회장) 인준
10. 20 ~26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6개 종목) / 충청북도 / 13위
10. 25 ~27 제29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4개 종목) / 순천시
12. 여수시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12. 25 ~`18.2.4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강원도 분산개최

2018년

- `17.12.25 ~2.4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강원도 분산개최
2. 9 ~25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 7위
2. 21 이재영 전남체육회장 권한대행(도지사 권한대행) 추대
3. 12 영광군, 진도아리랑, 강진군)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3. 21 세한대학교 배드민턴팀 창단
4. 2 담양국민체육센터 “담빛수영장” 준공 / 92억
4. 6 신안군민체육센터 준공 / 33억
4. 19 ~22 제57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22개 종목) / 영암군
5. 10 ~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43개 종목) / 충청남도
5. 26 ~29 제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5개종목 1,103명) / 충청북도
8. 14 제36대 김영록 회장 취임
전남체육회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사업운영 협약
8. 18 ~9. 2 제18회 자카르타 · 팔렘방 하계아시아경기대회 / 3위
8. 23 ~29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3개국 11종목 988명) / 여수시
9. 19 박철수 상임부회장 선임
9. 26 (재)보해장학회 - 전남체육 꿈나무육성 장학금 기탁
10. 12 ~18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7개 종목) / 전라북도 / 10위
10. 25 ~27 제30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2개 종목) / 여수시
11. 5 (해남군, 보성군)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11. 16 전라남도체육회 · 제주특별자치도 교류 협약
11. 21 ~22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8종목) / 여수시
12. 3 전남스포츠과학센터 개소식



- 12. 15 한려대학교 야구부 창단
- 12. 20 고흥출신 “박치기 왕” 고)김일 2018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헌액

2019년

- 1. 16 전라남도 우수팀 창단 (지도자1, 선수6)
전라남도 스쿼시팀 창단 (지도자1, 선수4)
- 1. 29 함평군청 레슬링팀 재창단 (4명) - 해체후 4년만에 재창단
- 2. 19 ~ 22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7개 종목) / 서울,충북,강원,경북 / 10위
- 3. 18 전남e-스포츠협회 인정단체 가입
- 4. 20 ~ 23 제58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 개최 (22개 종목) / 보성군
- 4. 26 ~ 28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43개 종목) / 충청북도
- 5. 20 구례군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 5. 25 ~ 28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전라북도 / 31종목 1,897명 참가
- 6. 4 ~ 5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개최 (8종목) / 영암군
- 6. 20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위원장 선임(서정복 전남체육회 고문)
- 7. 3 ~ 14 제30회 나폴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탈리아) / 5위
- 8. 2 ~ 6 중국(장시성) 청소년 스포츠교류 초청 / 축구(순천시)
- 8. 3 ~ 11 2019 동아시아 축구연맹 D-15 여자축구대회(10개국참가) / 목포축구센터
- 8. 8 ~ 12 중국(장시성) 청소년 스포츠교류 참가 / 탁구(장시성)
- 8. 11 ~ 15 중국(저장성) 청소년 스포츠교류 참가 / 비데(저장성)
- 8. 19 ~ 23 중국(저장성) 청소년 스포츠교류 초청 / 배드민턴(영암군)
- 9. 28 2019 전남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 / 고흥팔영체육관 / 16개시군 600여명
- 10. 04 ~ 10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47개 종목) / 서울특별시 / 13위
- 10. 22 대한민국 체육상 공로상 수상(보성출신, 김길두 대한볼링협회장)
- 10. 25 ~ 27 제31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22개 종목) / 영암군
- 11. 5 나주 광남고 야구팀 창단 (26명)
- 12. 3 전남체육회 임직원 사회 공익사업 실시(무안노인복지시설 방문)
- 12. 15 제37대 초대 민선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 선출
- 12. 28 한려대학교 남자볼링팀 창단 (5명)

2020년

- 1. 15 보성군체육회장 선거(최광주), 도내 22개시군중 첫 회장 당선
- 1. 16 제37대 초대 민선 김재무 전라남도체육회장 취임
- 1. 18 여수FC U-18 축구팀 창단 (18명)
- 1. 20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국내 최초 발생(35세 중국여성)
- 1. 27 전남체육회 사무처 직제 개편, 인사 단행(1처1실4부⇒2처2차4부)
고재영 행정지원처장, 조정만 체육진흥처장 선임

2. 10 전남22개시군체육회장협의회 회장 선임(최광주 보성군체육회장)
2. 10 도,시군민간체육회장 초청 간담회(김영록지사 주관, 도청서재필실)
2. 11 대한체육회 체육인교육센터 후보지 장흥군 결정
2. 18 ~21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 (7개 종목) / 서울,경기,강원,경북 / 10위
3. 10 전라남도체육회-청연한방병원 업무협약
- 3.11 ~20 전남체육회 대학생 명예기자 모집 (6명선발) - SNS 홍보활동
3. 20 코로나-19 극복 생명나눔 사랑의헌혈 행사(시군,종목 지도자,선수 300여명)
5. 22 김일(고흥) 프로레슬러 국립현충원 안장(11시,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6번째 안장)
5. 25 목포스포츠클럽 공모 선정
6. 8 한종목 스포츠클럽 사업 공모 선정(장흥군체육회, 축구)
6. 23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발족(서울올림픽파크텔, 시도체육회장)
6. 24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김재무 회장)
7. 9 대한체육회-전라남도-장흥군간의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건립□운영 MOU 체결
7. 9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종합체육대회 미개최 및 순연
- 제4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미개최)
 -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미개최-순연)
 - 2020 전라남도소년체육대회 (미개최)
 - 2020 전남학생스포츠문화축제 (미개최-순연)
 - 제45회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미개최)
7. 21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종합체육대회 미개최 결정
- 제59회 전라남도체육대회
 - 제15회 전남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 제32회 전남생활체육대축전
8. 10 ~13 전남체육인 지역내 집중호우 피해복구 일손돕기(도내 6개 지역)
10. 5 2021~23 코리아오픈 월드투어 배드민턴 세계선수권대회개최 업무협약식
(도청 서재필실, 김영록 도지사, 김재무 회장, 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등)
10. 23 해남출신 조오련 수영선수 2020년도 한국 스포츠영웅 선정
전라남도 바이애슬론팀 창단 (지도자1, 선수6)
11. 8 국민체육진흥공단 펜싱 사브르팀, 한전 육상팀 연고지 전남으로 이전
12. 1 전남체육회 2020 가족친화 우수기관 선정 (여성가족부)
12. 18 장흥군청 육상팀 창단 (5명)
12. 22 전남체육사 편찬위원회 출범 (체육회관 대회의실, 위원12명)
12. 29 ~30 전라남도(테크볼, 킥복싱)협회 인정단체 가입

2021년

1. 8 전남체육회-(주)LG헬로비전호남방송 MOU 체결
1. 18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 1. 21 전라남도체육회 법인화 설립 제1차 준비위원회 개최(준비위원회 5명)
- 1. 25 전라남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
- 1. 31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한체육회 - 전라남도(시군)체육회 간담회 개최
- 2. 24 전라남도체육회 법인화 설립 제2차 준비위원회 개최(준비위원회 5명)
- 2. 26 2020 전남체육인재육성장학기금, 2020 보해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
- 4. 5 2021년도 대학생 명예기자 발대식(6명)
- 4. 15 전라남도체육회 법인화 창립총회
- 4. 23 전남체육회-세한대학교 MOU 체결
- 5. 12 전남체육회 - 장흥군 전남스포츠과학컨디셔닝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
- 5. 12 강진군 탁구전용구장 개관식
- 5. 13 전남체육회-순천에스병원 업무협약
- 5. 27 전라남도체육회 법인화 발기인총회(정관개정)
- 5. 31 전라남도체육회 법인설립 인가
- 6. 1 전라남도체육회 법인설립 등기
- 6. 11 故)조오련 선수 현충원 안장 추진(파묘 및 화장) / 해남군
- 6. 12 故)조오련 선수 현충원 안장식 / 국립현충원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 6. 17 전라남도체육회 법정법인 출범식 / 전라남도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
- 6. 22 전라남도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개최

